

고등학교

미술 문화 지도서

고유미 김병욱 홍철 최희진 백승주







㈜아침나라



이중섭(한국/1916~1956) **사계**(유채/19.3×23.8cm/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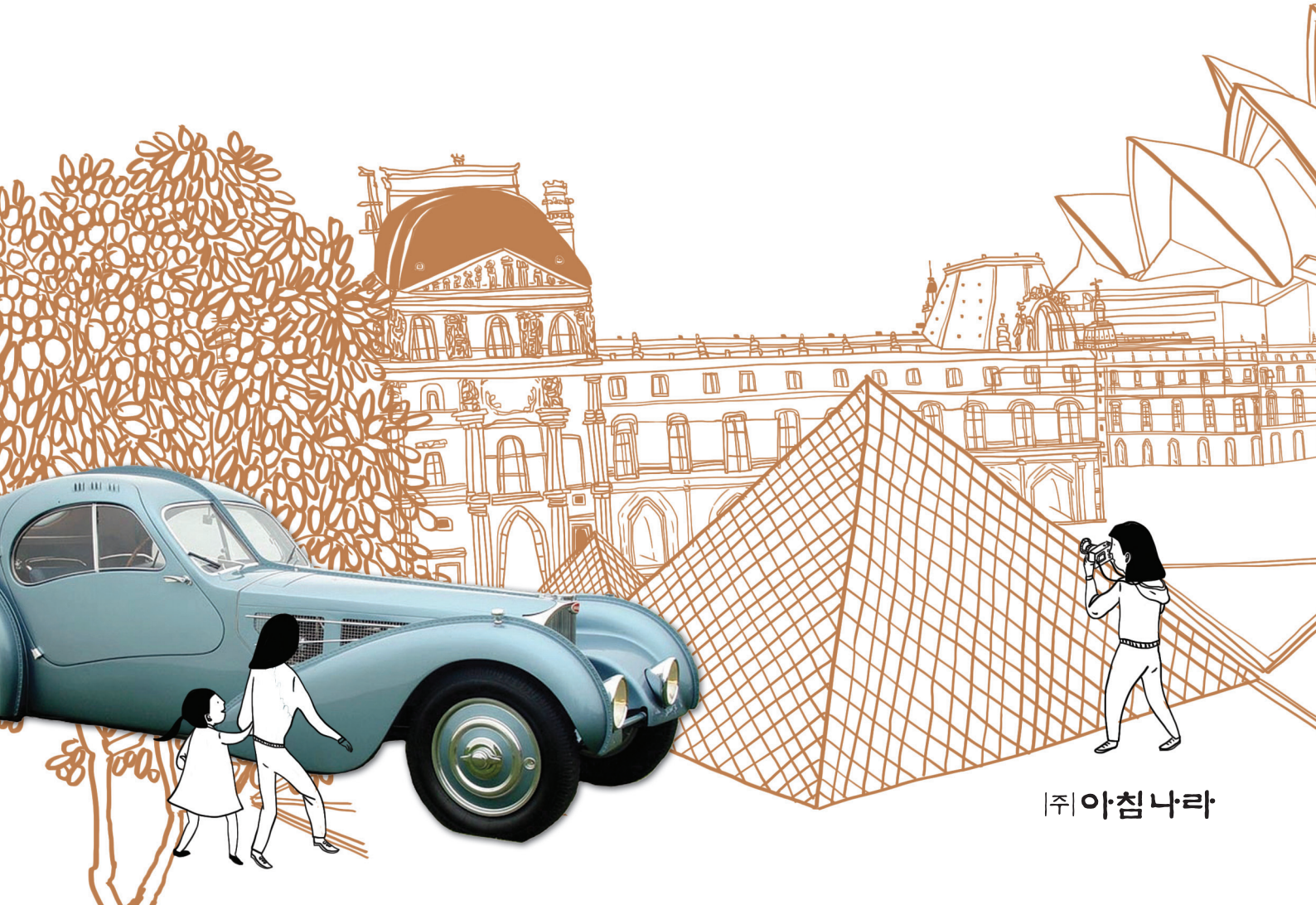
로댕(Rodin, François Auguste René/프랑스/1840~1937) 신의 손(대리석/1898~1902년 작)

고등학교

미술 문화 지도서



고유미 김병욱 홍철 최희진 백승주



㈜아침나라

책을 펴내며

고등학교 미술 문화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과목이다. 본 지도서는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의해 개발된 본 교과서를 학습하는 데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서 지도서로서 충실한 내용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미술 교육은 전인적 성장과 문화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과목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이에 본 미술 문화 지도서는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지식을 넓히고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을 학습하는 교과서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꾸몄다.

미술 문화 과목의 학습은 생활 속에서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통하여 주변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고 미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미술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현대 사회에서 주변의 시각 문화 환경의 의미와 소통을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므로 이에 따른 미술 문화 과목의 교육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미술은 개인 창작 행위의 결과이자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며, 사회 · 문화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미술 문화의 학습을 통하여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본 지도서는 미술 문화 과목을 통해 가치 판단이 필요한 감상 및 비평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 내용과 관련된 미술가, 미술 작품, 미술사 관련 정보와 일화 등을 활용하여 감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반영한 교과서를 쉽게 이해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지침서이다.

본서의 구성은 총론, 각론, 부록으로 구분하였으며 각론은 미술의 기능, 미술의 감상, 미술의 확장으로 구성되었다. 총론에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선택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 문화 교과서의 교수 · 학습 방법, 평가,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편찬 방향과 활용, 교수 학습 계획을 수록하였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안내에는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육의 중립성을 소개하였고,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소개하였다. 학교 급별 공통 사항에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과 평가를 소개하였다.

단원별 각론에서는 단원의 설정, 학습 목표, 학습 자료, 학습 내용, 지도상 유의점,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 각 수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에는 교과서 외의 관련 자료와 참고 도판을 제시하여 수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의해 개발된 본 교과서를 학습하는 데 폭넓은 도움을 주기 위해 교과서 지도서로서 충실한 내용의 자료를 다양하게 꾸몄으며, [활동지]를 통해 현장 학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PPT 자료]는 멀티미디어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학습 수준과 미술 문화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꾸민 [미술 작품 사전]은 본 교과서를 가르치고 익히는 데 있어서 안목을 한층 넓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미술 문화 지도서가 선생님들께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담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은이



차례

총론 8

제1부 | 미술의 기능

미술과 언어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는 미술 24
사회와 소통하는 미술 28
생각을 담은 시각 언어 30
활동 | 시각 언어와 이미지 32
함께 누리는 시각 문화 34
삶을 담아낸 미술 38
나를 비추는 거울, 몸 42
살아 있는 문화 공간 44
미술 자료실 | 작가의 공간 산책 48
교과서 단원 정리 · 평가 50

미술과 생활

색채의 활용 52
정보를 담은 시각 전달 디자인 56
판화의 발견 60
가치를 담은 제품 디자인 64
생활 속 의상 디자인 68
미술 자료실 | 눈으로 먹는 음식 70
생활 공간을 가꾸는 환경 디자인 72
실용과 생활의 예술 78
활동 | 벽화 프로젝트 82
교과서 단원 정리 · 평가 84

제2부 | 미술의 감상

분석과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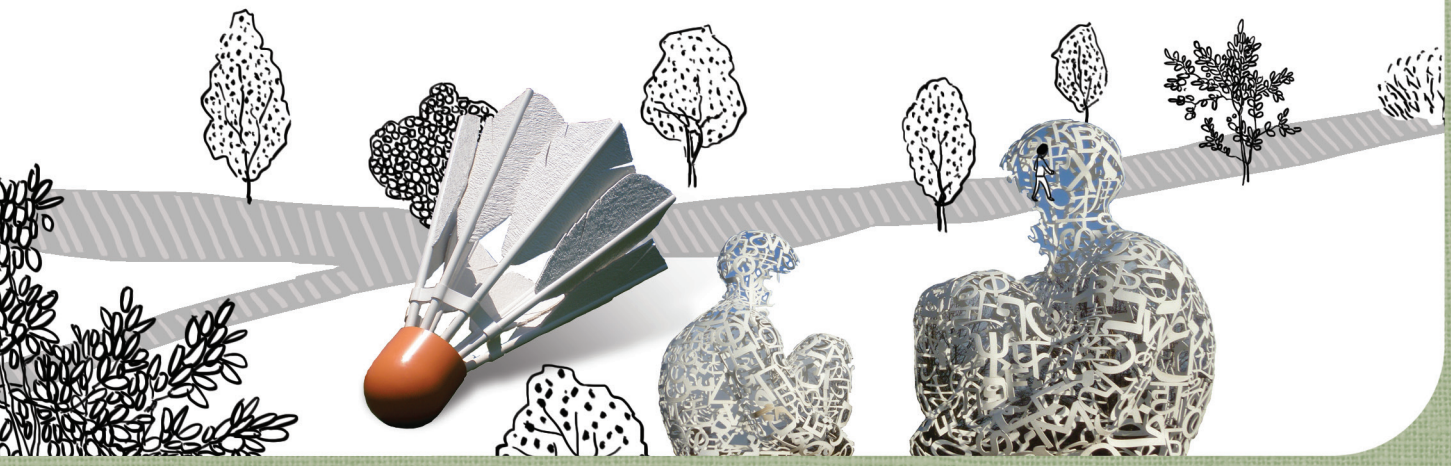
작품 속에서 숨 쉬는 조형 요소 86
조형의 원리를 찾아서 92
새로운 재료의 탐색 96
사회를 반영한 생생한 미술 100
전통과 현대 104
미술 작품의 가치와 활용 108
미술과 종교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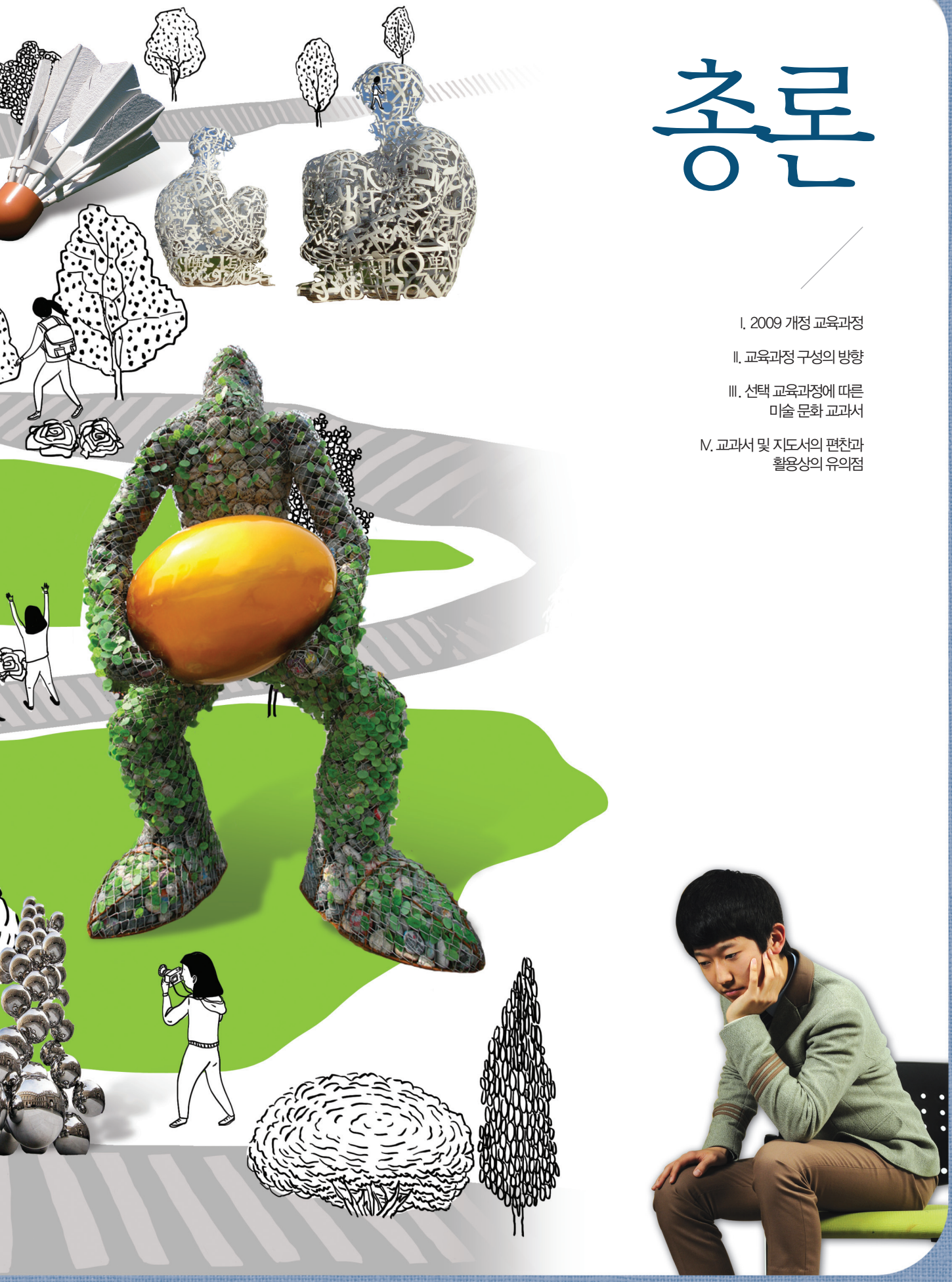
	미술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114
	교과서 단원 정리 · 평가	118
판단과 활용	아름다움의 의미	120
	미술 작품 보기와 읽기	124
	미술 작품과의 만남	130
	동양 미술의 흐름 · 서양 미술의 흐름	140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 · 현대 미술의 흐름	144
	교과서 단원 정리 · 평가	148

제3부 | 미술의 확장

미술과 직업	미술 직업의 세계	150
	활동	미술 직업의 현장을 가다	154
	미술 자료실	미술가와 함께한 사람들	156
	교과서 단원 정리 · 평가	158
미술과 통합	미술과 문학 그리고 문자의 어울림	160
	서예와 전각의 아름다움	164
	찰나의 시각, 사진	168
	미술과 테크놀로지	170
	활동	사진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174
	상상과 움직임의 그림	176
	입체 표현	178
	시간을 되돌리는 복원	184
	미술과 수학	188
	미술과 음악	190
	미술과 공연 예술	192
	미술 자료실	세계의 미술 행사 비엔날레	196
	교과서 단원 정리 · 평가	198
	특별 부록	활동지 · PPT자료	200
	미술 사전	미술 작품 사전 · 인명 · 용어	214
	참고 문헌	사진 및 자료 출처	240







총론

Ⅰ. 2009 개정 교육과정

Ⅱ.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Ⅲ. 선택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 문화 교과서

Ⅳ. 교과서 및 지도서의 편찬과
활용상의 유의점

총론

I. 2009 개정 교육과정

●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 · 학생 ·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한다.**

가. 교육 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나. 교육 내용은 특정 정당,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되며,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I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학교 급별 공통 사항**

1 편성 · 운영

(1)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한다.
(2)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3)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 · 운영한다.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 · 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6)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10)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11)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 ·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2)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13)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14)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 · 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15) 학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실질적 체험 학습이 되도록 지역 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 ·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6)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17) 창의적 체험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8)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9)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 · 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 ·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0)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21)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 · 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 · 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 · 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 · 보훈 교육, 효도 · 경로 · 전통 윤리 교육, 아동 · 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 · 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 · 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

(23)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24)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 · 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5)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26) 실험 · 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 · 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27)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2 평가

가 | 평가 계획

(1) 평가 목표와 내용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영역별 내용을 근거로 설정하되,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고려한다.
(2) 평가 내용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영역 내에서도 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
(3) 평가 기준을 학습자들에게 미리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 평가 방법

(1)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학습 태도, 과정 및 결과를 균형 있게 평가한다.
(2) 평가 방법은 평가 목적과 평가 내용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며,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가 높은 평가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3) 지필 평가, 관찰법, 감상문, 토론법, 연구 보고서법,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실기 평가,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4) 수행 평가는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실시한다.
(5) 실기 평가의 내용, 과제, 매체 등은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고 되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 평가 활동

(1)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나)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다) 교과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라) 실험 · 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마)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바)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

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라 | 평가 결과 활용

(1) 평가 결과를 누가 기록하여 개인별 성장 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2) 평가 결과는 성취 수준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 정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3)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판단하고, 교수 · 학습 내용 및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Ⅲ. 선택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 문화 교과서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 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나)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다)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라)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3 미술 문화 과목 목표

미술은 개인적인 창작 행위의 결과물인 동시에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는 미술 작품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술 문화' 과목의 목표는 인간의 삶 속에서 미술을 이해함으로써 비평적 사고력과 미적 감수성을 길러 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생활 속에서 미술의 기능과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나) 미술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고 비평적 관점에 근거하여 미적 가치를 판단한다.

(다) 확장된 미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가 | 내용 체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 미술의 기능	(가) 미술과 언어	① 시각 언어로서 미술의 개인적 표현과 사회적 소통에 관하여 이해하기 ② 개인적 의미와 현대의 사회적 현상 등을 시각 이미지나 미술 작품으로 나타내기
	(나) 미술과 언어	① 생활을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다양한 미술의 기능을 이해하기 ②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술을 계획하고 제작하기
2. 미술의 감상	(가) 분석과 해석	① 미술 작품의 조형적 특징 분석하기 ② 미술 작품과 작가를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기
	(나) 판단과 활용	① 미와 미술의 다양한 가치 판단 기준 이해하기 ② 다양한 비평의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비평문 작성하기
3. 미술의 확장	(가) 미술과 직업	①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하여 알아보기 ②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미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나) 미술과 통합	① 미술과 그 밖의 예술, 과학,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이해하기 ②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미술에 창의적으로 적용하기

나 | 영역별 성취 기준

(1) 미술의 기능

(가) 미술과 언어

시각 언어로서 미술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① 시각 언어로서 미술의 개인적 표현과 사회적 소통에 관하여 이해한다.

② 개인적 의미와 현대의 사회적 현상 등을 시각 이미지나 미술 작품으로 나타낸다.

(나) 미술과 생활

생활을 디자인하는 미술의 기능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① 생활을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다양한 미술의 기능을 이해한다.

②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술을 계획하고 제작한다.

(2) 미술의 감상

(가) 분석과 해석

감상 대상의 조형적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한다.

① 미술 작품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한다.

② 미술 작품과 작가를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한다.

(나) 판단과 활용

다양한 유형의 비평 방법을 이해하고 작품의 가치 판단에 활용한다.

① 미와 미술의 다양한 가치 판단 기준을 이해한다.

② 다양한 비평의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비평문을 작성한다.

(3) 미술의 확장

(가) 미술과 직업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진로를 모색한다.

①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세계에 관하여 알아본다.

②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미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해한다.

(나) 미술과 통합

미술과 다른 분야와의 통합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① 미술과 그 밖의 예술, 과학,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이해한다.

②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미술에 창의적으로 적용한다.

5 교수 · 학습 방법

가 | 교수 · 학습 계획

(1)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영역별 내용을 근거로 설정하되, 지식, 기능, 태도 등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학습 내용은 '미술의 기능', '미술의 감상', '미술의 확장'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특히 영역별 학습 내용 간의 관련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다.

(3) 학습자의 관심과 학습 능력, 선행 학습 내용 및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내용의 양과 수준으로 교수 ·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4) 학습 과제의 성격,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절차와 방법, 사전 지식의 활용, 학습 활동, 피드백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5) 학습 내용과 방법 및 수업의 시기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학교와 지역 사회의 특수성, 행사, 계절, 학급 인원 수, 시설 및 용구 등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나 | 교수 · 학습 방법

(1) '미술 문화' 과목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학생들의 삶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사례에 관하여 토론하고 작품으로 표현하는 등 실천적인 학습 과제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2) '미술 문화' 과목에서의 감상은 학생들이 감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익혀 자신의 관점에서 실제 작품을 비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미술 문화' 과목은 미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미술 창작' 과목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4) 학생과 교사의 상호 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 강의, 개별 작업 및 협동 작업, 게임, 현

장 견학, 극화, 토론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5)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발문을 하도록 노력하고, 개방적 질문을 적극 활용한다.

(6) 인터넷을 활용한 미술 정보 탐색 및 분석, 웹 토론 학습,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활용 학습 등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7) 학습 내용과 관련된 미술가, 미술 작품, 시사성 있는 미술 내용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한다.

(8) 지역, 시대, 양식, 정치적 성향, 성별, 계급, 민족, 종교 등 다양한 문화를 고려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미술 전문 용어를 습득하여 감상과 비평 활동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9) 미술의 개념 이해와 비평 활동에서 타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풍부한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10) 미술관이나 박물관 견학뿐만 아니라, 산업 박람회, 건축 박람회, 인테리어 전시나 공연 등 공공 문화 행사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한다.

(11) 미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육으로서 직업 교육과도 관련지어 활용한다.

6 평가

가 | 평가 계획

(1) 평가 목표와 내용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영역별 내용을 근거로 설정한다.

(2) 학생들의 태도, 과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3) 평가 기준을 학습자들에게 미리 제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나 | 평가 방법

(1) '미술 문화' 과목에서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력, 해석력, 판단력, 표현력, 창의성, 발표력, 토론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한다.

(2) 평가 방법은 평가 목적과 평가 내용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며,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가 높은 평가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3) 지필 평가, 실기 평가, 관찰법, 비평문 등의 글쓰기 형식과 구두 발표, 토론법, 연구 보고서법,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4) 수행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지역 및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다.

다 | 평가 결과의 활용

(1) 평가 결과를 누가 기록하여 개인별 성장 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2) 평가 결과는 성취 수준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 정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3)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판단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내용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Ⅳ. 교과서 및 지도서의 편찬과 활용상의 유의점

1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 문화 분석

고등학교 미술 문화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과목이다. 특히 전인적 성장과 문화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과목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지식을 넓히고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미술 문화 과목의 학습은 생활 속에서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통하여 주변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고 미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미술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 사회에서 주변의 시각 문화 환경의 의미와 소통을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므로 이에 따른 미술 문화 과목의 교육이 더욱 요구된다.

미술은 개인 창작 행위의 결과이자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며, 사회 · 문화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미술 문화의 학습을 통하여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가질 수 있다. 또 청소년 시기에는 발달 단계상 비판적 사고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미술 문화 과목을 통해 가치 판단이 필요한 감상 및 비평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습 내용과 관련된 미술가, 미술 작품, 미술사 관련 정보와 일화 등을 활용하여 감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한다.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사회 ·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감상 관점의 활용은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작품은 성, 인종, 민족, 지역, 양식별로 비교 감상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통 미술 자료와 문화 공간의 활용을 통해 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통합적 접근과 포괄적인 계획으로 작품 감상 태도와 비평 능력을 기른다. 더불어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미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미술과 그 밖의 예술, 과학,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고 생활에 미술을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미술 문화 과목의 목표와 이해

미술 문화 과목의 목표는 인간의 삶 속에서 미술을 이해함으로써 비평적 사고력과 미적 감수성을 길러 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생활 속에서 미술의 기능과 소통의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나. 미술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고 비평적 관점에서 근거하여 미적 가치를 판단한다.
다. 확장된 미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가' 항은 자신의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주변 환경과 대상의 관계를 탐구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이해하고, 인간 생활을 고려한 생태 환경을 탐구하고 자신과 주변의 관계를 탐구하여 시각 이미지로 나타낸다. 또 사회 구성원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시각 문화를 이해하고, 시각 문화를 활용하여 의견을 나타낸다. 이러한 활동은 미적 감수성을 기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이 된다.

'나' 항은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형식, 주제, 도상, 역사적 배경,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비평 요소와 기준을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작품의 가치를 이해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토론하며 감상문으로 작성한다. 이러한 활동은 심미적 안목을 기르고 일상생활에 적용되어 비평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여 생활 속에서 만나는 미술 작품의 가치를 알고 애호하고, 지역의 박물관 · 미술관을 방문하고 이용하여 미술 문화를 향유하도록 한다. 또한 미술 작품과 관람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미술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다' 항은 다양한 분야와 통합된 미술의 확장과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미술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의 적용을 통한 창의적 가치를 탐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과학 기술, 문학, 음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미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3 체제 전개

가 | 단원의 구성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단원을 구성하며,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기본으로 한 본 교과서는 단원의 제목과 내용은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서술하였다. 〈미술의 기능〉, 〈미술의 감상〉, 〈미술의 확장〉의 대단원의 주제에 따라 중단원(미술의 언어, 미술과 생활, 분석과 해석, 미술의 감상, 판단과 활용, 미술과 직업, 미술과 통합)을 구성하고, 중단원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소단원을 구성하였다. 각 단원의 구성과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

단원마다 학습 목표를 분명히 기술하여 단원이 지향하는 학습의 목표를 학습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문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 내용을 서술하여, 학습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알고 가기

단원에서 이해하여야 할 용어와 중요한 학습 요점을 따로 정리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보충 설명이 되도록 하였다.

지식 더하기

단원의 학습 내용에서 더 나아가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다.

생각과 탐구 / 생각과 표현 / 생각과 감상

단원의 학습 내용에 알맞은 학습 방법과 내용을 제시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했다.

용어

단원에서 배워야 할 학습 용어를 정리하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 탐구 / 이해 / 토론 / 판단 / 분석

학습한 내용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통합적인 사고력을 기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읽기

단원의 학습 내용과 관련된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심화

학습의 과정에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에 대해 다루어 학습 주제에 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리

단원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

학생 스스로 내용을 구성하고 계획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협동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 자료실

미술과 관련된 지식을 익히고 폭넓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지

다양하고 직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활동지를 제시하여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 사전

(인명)

각 단원에 제시된 작가와 작품에 관련된 인물들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

각 단원에서 학습한 용어를 정리하여 단원의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4 내용 선정 및 조직

가 | 내용 선정의 원칙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에 따라 '미술 문화' 과목이 추구하는 교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나 | 내용의 지향점

– 단순한 지식의 나열을 지양하고,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 미술의 기능을 알고 감상 능력을 향상시키며, 미술의 확장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도판과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 전통 미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학습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간접 경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미술과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학습자 스스로 표현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미술을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토론과 탐구 활동을 삽입하여 학습자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감상지와 활동지를 첨가하여 교수 ·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통하여 감상과 비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 내용 선정의 유의점

– 일시적인 현상이나 사실을 내용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 특정 종교를 찬양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 특정 민족에 대한 비하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 일부 특정 지역의 작가나 작품이 편중되어 집필되지 않도록 하였다.
– 친일 인사나 반정부 인사의 작품이 수록되지 않도록 하였다.
–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서술되거나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 초상권에 저촉되는 사진이나 도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라 | 내용의 조직

미술의 기능

이 영역에서는 시각 언어로서 미술의 개인적 표현과 사회적 소통에 관하여 이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또 개인적 의미와 현대의 사회적 현상 등을 시각 이미지나 미술 작품으로 나타냈다.

이를 위해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 보고, 자연물과 인공물에서 발견되는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각 문화를 탐색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미술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더불어 우리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미술의 감상

이 영역에서는 미술 작품의 조형적 특징 분석을 통해 감상하고 미술 작품과 작가를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해 보도록 하였다. 또 아름다움과 미술에 대한 다양한 가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다양한 비평의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비평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 다양한 문화권 미술의 변천 과정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전통 미술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미술 작품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경험이 되도록 하였다.

미술의 확장

이 영역에서는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미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습은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미술과 그 밖의 예술, 과학,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이해하며, 새로운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미술에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5 지도서 개발 방향 및 구성과 선정

가 | 지도서의 개발 방향

– 본 지도서는 미술과 교육과정에 부합하며 미술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안내하도록 하였다.
– 미술 교과서와 지도서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대한 교수 · 학습 및 평가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활용 방법을 안내하여 지도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대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제공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른 교사의 다양한 수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 지도서의 구성 체제

– 본 지도서는 총론, 각론, 부록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구성하였다.
– 총론에는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최근 미술 교육 동향 및 교수 · 학습 이론, 교과서의 편찬 방향 및 내용, 지도서의 구성 체제와 교과서 연계 활용 방법, 연간 교수 · 학습 계획 등을 연관성 있게 제시하였다.
– 각론은 교과서의 배열을 고려하여 단원별로 구성하되, 각 단원은 단원 개관, 단원 목표, 관련 개념 및 용어, 단원 교수 · 학습 계획, 차시별 지도 내용 및 자료, 평가 방법 및 도구 등을 제시하였다.
– 단원의 각 차시별로 학습 목표, 준비물, 시간 배정, 교수 · 학습 방법 및 해설, 지도상의 유의점, 관련 사이트 및 참고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부록에는 교수 ·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읽기 자료와 도판 자료, 참고 자료 목록, 웹사이트 주소, 현장 체험 학습 관련 정보, 교과서 예시 자료 목록표 등을 제시하였다.

다 | 지도서의 내용 선정과 조직

– 본 지도서는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수 · 학습 방법, 평가에 제시된 방향과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 총론에서는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관성을 알 수 있도록 교과서 편찬 방향 및 내용을 서술하였다.
– 교과서에 제시된 주요 개념, 용어, 주제, 관점, 활동,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였다.
– 각론의 단원 개관, 단원 목표, 단원 교수 · 학습 계획은 교과서 단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학습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 교수 · 학습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과 수업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 단원 전개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발문, 학습 과제, 참고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교사의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교과서의 내용을 보충 지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참고 자료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자료의 활용 방법을 함께 설명하였다.
– 학습 목표의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요소, 절차, 도구, 활용 등의 예시를 제공하였다.
–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 이론을 담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대	중영역	소영역	단원	교과서 쪽	지도서 쪽
미술의 기능	미술과 언어	① 시각 언어로서 미술의 개인적 표현과 사회적 소통에 관하여 이해하기 ② 개인적 의미와 현대의 사회적 현상 등을 시각 이미지나 미술 작품으로 나타내기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는 미술	4	4
			사회와 소통하는 미술	2	2
			생각을 담은 시각 언어	2	2
			〔활동〕 시각 언어와 이미지	2	2
			함께 누리는 시각 문화	4	4
			삶을 담아낸 미술	4	4
			나를 비추는 거울, 몸	2	2
			살아 있는 문화 공간	4	4
			〔미술 자료실〕 작가의 공간 산책	2	2
	미술과 생활	① 생활을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다양한 미술의 기능을 이해하기 ②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술을 계획하고 제작하기	색채의 활용	4	4
			정보를 담은 시각전달 디자인	4	4
			판화의 발견	4	4
			가치를 담은 제품 디자인	4	4
			생활 속 의상 디자인	2	2
			〔미술 자료실〕 눈으로 먹는 음식	2	2
			생활 공간을 가꾸는 환경 디자인	6	6
			실용과 생활의 예술	4	4
			〔활동〕 벽화 프로젝트	2	2
미술의 감상	분석과 해석	① 미술 작품의 조형적 특징 분석하기 ② 미술 작품과 작가를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기	작품 속에서 숨 쉬는 조형 요소	6	6
			조형의 원리를 찾아서	4	4
			새로운 재료의 탐색	4	4
			사회를 반영한 생생한 미술	4	4
			전통과 현대	4	4
			미술 작품의 가치와 활용	4	4
			미술과 종교	2	2
			미술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4	4
	판단과 활용	① 미와 미술의 다양한 가치 판단 기준 이해하기 ② 다양한 비평의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비평문 작성하기	아름다움의 의미	4	4
			미술 작품 보기와 읽기	6	6
			미술 작품과의 만남	8	10
			동양 · 서양 ·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	8	8
미술의 확장	미술과 직업	①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하여 알아보기 ②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미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미술 직업의 세계	4	4
			〔활동〕 미술 직업의 현장을 가다	2	2
			〔미술 자료실〕 미술가와 함께한 사람들	2	2
	미술과 통합	① 미술과 그 밖의 예술, 과학,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이해하기 ②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미술에 창의적으로 적용하기	미술과 문학 그리고 문자의 어울림	4	4
			서예와 전각의 아름다움	4	4
			찰나의 시각, 사진	2	2
			미술과 테크놀로지	4	4
			〔활동〕 사진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2	2
			상상과 움직임의 그림	2	2
			입체의 표현	6	6
			시간을 되돌리는 복원	4	4
			미술과 수학	2	2
			미술과 음악	2	2
			미술과 공연 예술	4	4
			〔미술 자료실〕 세계의 미술 행사 비엔날레	2	2

6 기존 교과서와의 차이점 및 주요 특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의해 개발된 본 교과서는 미술 문화의 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며,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미술의 기능, 미술의 감상, 미술의 확장의 각 영역을 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단원을 구성하였으며, 각 단원별로 학습 내용에 알맞은 활동을 제시하여 수업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생각과 탐구〕, 〔생각과 표현〕, 〔생각과 감상〕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각 문화 환경과 미술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본에 충실한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쉽고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표현 방법 및 창의적인 발상을 유도하도록 구성하였다. 학생의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비평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도판을 제시하였으며 수업 환경에 적합한 판형과 서체를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 전체적으로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학습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풍부한 학생 작품과 참고 작품은 실제 수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용어와 개념들은 〔알고 가기〕, 〔지식 더하기〕를 두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또 〔조사〕, 〔탐구〕, 〔이해〕, 〔토론〕, 〔판단〕, 〔분석〕을 단원의 필요한 부분에 제시하여 문제 해결 능력과 통합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의 제시는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내용을 제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됨과 동시에 흥미로운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 자료실〕은 미술과 관련된 지식을 익히고 폭넓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활동지〕를 통하여 직접 활동함으로써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7 미술 문화 지도서의 특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의해 개발된 본 교과서를 학습하는 데 폭넓은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중단원마다 [단원 정리], [단원 평가]를 두었다. [활동지]를 통해 현장 학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PT 자료]는 멀티미디어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학습 수준과 미술 문화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꾸민 [미술 작품 사전]은 본 교과서를 가르치고 익히는 데 있어서 안목을 한층 넓혀 줄 것이다.

단원 정리	미술과 언어 | 미술과 생활 | 분석과 해석 | 판단과 활용 | 미술과 직업 | 미술의 확장
단원 평가	미술과 언어 | 미술과 생활 | 분석과 해석 | 판단과 활용 | 미술과 직업 | 미술의 확장
활동지	미술과 언어 | 미술과 생활 | 분석과 해석 | 판단과 활용 | 미술과 직업 | 미술의 확장
PPT 자료	시각전달 디자인 | 색채의 활용 | 서예와 전각 | 전통과 현대
미술 사전	고대부터 1950년대 이르기까지 [서양 | 한국]



각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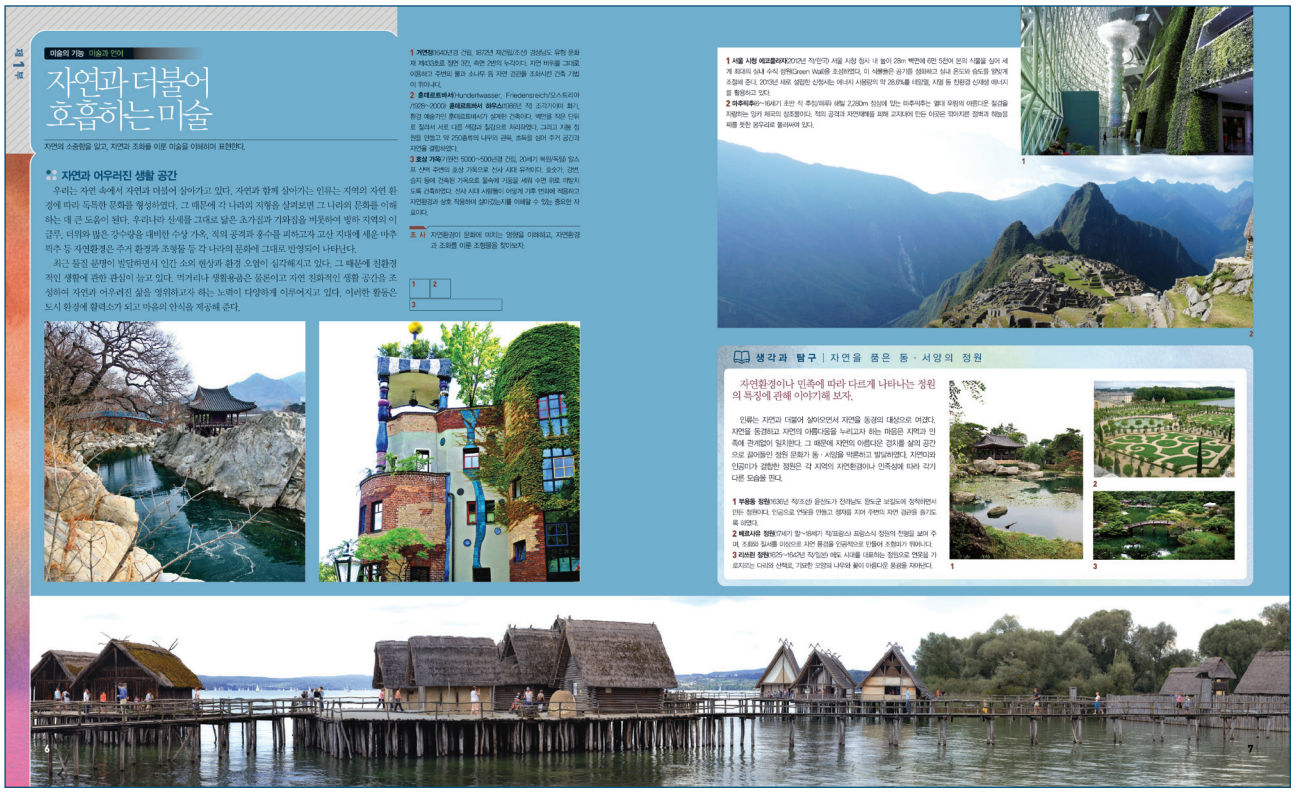


제1부 미술의 기능
미술과 언어
미술과 생활

제2부 미술의 감상
분석과 해석
판단과 활용

제3부 미술의 확장
미술과 직업
미술과 통합

미술 활동 | 감상과 비평/토론과 조사
미술 사전 | 미술 작품 사전 · 인명 · 용어
참고 문헌 | 사진 및 자료 출처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는 미술

교과서 pp.6~9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언어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미술을 이해하여 표현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실기 평가, 지필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참고 자료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참고 자료를 통해 자연과 미술, 생활 공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 여러 나라의 기후나 지형, 풍토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조형물을 살펴본다.	자연환경에 따른 인간의 조형 의식의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 자연환경과 조형물의 관계 알아보기 – 세계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그 지역의 문화 양식의 차이를 안다. – 자연환경과 문화 양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 지역에 따른 미술 양식의 다양성에 대해 알아본다. ◎ 자연환경과 조형물의 조화 – 자연은 미술 활동의 주제와 소재이며, 영감의 대상이 되었음을 안다. – 자연을 재료로 한 다양한 미술 작품을 살펴본다. – 생태학적 관점으로 자연에 메시지를 전달한 작품을 감상한다. ⊙ 학습 활동 ⊙ 자연물을 이용하여 이미지 만들기 – 주변의 자연환경을 살펴보고, 작품을 구상한다. – 작품의 재료를 수집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작품을 제작한다.	· 다양한 사진 자료를 통해 자연의 지형적 특징, 자연과 인간의 조화 형태를 파악한다. · 인간을 둘러싼 자연 및 조형 환경의 관계를 알아보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생각을 해 본다.
정리	◎ 자연의 소중함 알기 – 모둠별로 제작한 작품을 감상한다. – 자연과 조화를 이룬 작품을 감상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안다. – 주변을 정리하고, 다음 차시를 예고한다.	
평가 관점	• 자연과 조형의 관계를 이해하고,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 자연과 조화를 이룬 미술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 • 자연과 조화를 이룬 미술품의 특징을 감상하고,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 단원 설정의 이유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은 모든 조형 활동의 기본을 이루며, 조형 활동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왔다.

이 단원에서는 미술 활동의 끊임없는 영감 대상이자 표현의 재료였던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환경이 만들어 낸 각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 활동의 아름다움을 모색해 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 자연의 소중함과 미적 활용에 있어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이해	자연과 조형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안다.
표현	자연과 조화를 이룬 미술을 이해하여 표현할 수 있다.
감상	자연과 조화를 이룬 미술품의 특징을 감상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안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거연정(1640년경 건립, 1872년 재건립/조선)

경상남도 함양군 봉전마을에 위치한 거연정(居然亭)은, 마을 앞을 흐르는 남강천의 암반 위에 건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로, 2005년 10월 13일 경상남도 유형 문화재 제433호로 지정되었다.

화림 계곡은 이곳의 옛 안의(安義) 3동의 하나로, 조선 시대에 지어진 정자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등 많은 정자가 계곡을 따라 지어져 있는데, 2층 누각 형태의 정자에서 아름다운 계곡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정자(亭子)란 대개 그런 것이다' 하고 지나쳐버리면 그만이지만, 조성된 자리를 보면 다른 지역의 정자와는 다른 점이 있다. 거연정을 포함한 화림동의 정자들은 대부분 넓은 화강암 암반석이나 계곡 한가운데의 암반 위에 지어져 있는데, 별도의 토반 공사 없이 덩그러니 정자만 얹어 놓은 듯하다. 풍류를 즐기기 위한 장소도 선정되었겠지만, 이는 보는 사람에게 극적으로 보여 그 자체가 한 폭의 그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 Friedensreich/오스트리아/1928~2000) 훈데르트바서 하우스(1986년 작)

빈 시당국의 건의로, 미술가 · 건축가이자 생태주의자인 훈데르트바서가 1985년 10월 건설하였다. 빈 시에서 운영하는 집합 주택으로, 빈 시내 헤츠가세역 근처에 있다. 대지 면적은 1,543㎡이고, 벽돌 구조로 되어 있으며 층수는 3층부터 9층까지 다양하다. 총 주택 수는 52호이고 상점은 5호이며, 각 주택의 규모는 30~150㎡이다. 공공 공간으로 어린이 놀이터 두 곳과 윈터 가든(winter garden) 카페가 있다.



훈데르트바서는 삭막하고 특징이나 국적 없는 현대 주택을 지양하고, 현대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주거 건축물을 목표로 하여 과거 왕이 살던 위엄 있는 왕궁과 같은 대중의 집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강렬한 색채와 서로 다른 모양의 창틀, 둥근 탑, 곡선으로 이루어진 복도 등이 조화를 이루며, 스카이라인이 신과 사람을 맺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생각 아래 중요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구 통로는 큰 회색 아치로 구성되었으며, 몇 개의 작은 창문이 아치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아치 위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방인 어드벤처 룸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놀 수 있고 방의 바닥이 곡선이어서 미끄럼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계단식으로 디자인된 지붕 정원(tree tenants), 대화 장소나 개인적인 파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윈터 가든이 눈에 띈다.

마추픽추(페루)

페루의 마추픽추는 안데스 산맥의 고대 잉카 제국이 있던 곳으로, 높이는 2,400m이고, 돌로 만든 성곽과 중앙 원탑 및 계단 터가 남아 있다. 마추픽추는 잉카인들이 에스파냐의 공격을 피해 산속 깊숙이 세운 곳으로, 도시 절반 가량이 경사면에 있으며, 완전한 요새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도시의 총 면적은 130k㎡이고 그 중에 절반은 계단식 밭이다. 서쪽은 시가지로 신전과 궁전, 주민 거주지 구역이고 그 주위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생각과 탐구

● 동 · 서양의 자연관과 조형의 특징

동양은 자연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예술 작품들은 자연의 모습이나 미적 요소보다는 그 속에 담긴 정신을 더 중요시하여 선과 여백을 통한 정신적 표현을 강조하거나 곡선의 부드러움 등의 표현이 특징을 이룬다. 반면에 서양은 물질과 인위적인 조형미가 강조되며 자연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예술 작품에서 비례와 균형, 투시도법, 색채 등의 표현의 원리를 파악하려는 분석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스의 조각과 건축, 중세의 종교 건축, 투시도법 등을 이용한 16세기 회화 작품들은 자연을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분석하여 표현한 것이다.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한옥

한옥은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공존하는 한반도의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독특한 주거 형식이다. 한옥은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가 균형 있게 결합되어 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와 돌, 흙을 이용하여 자연과 어우러지게 만들어졌으며 우리의 미의식이 잘 반영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 부용동 정원(1636년 작/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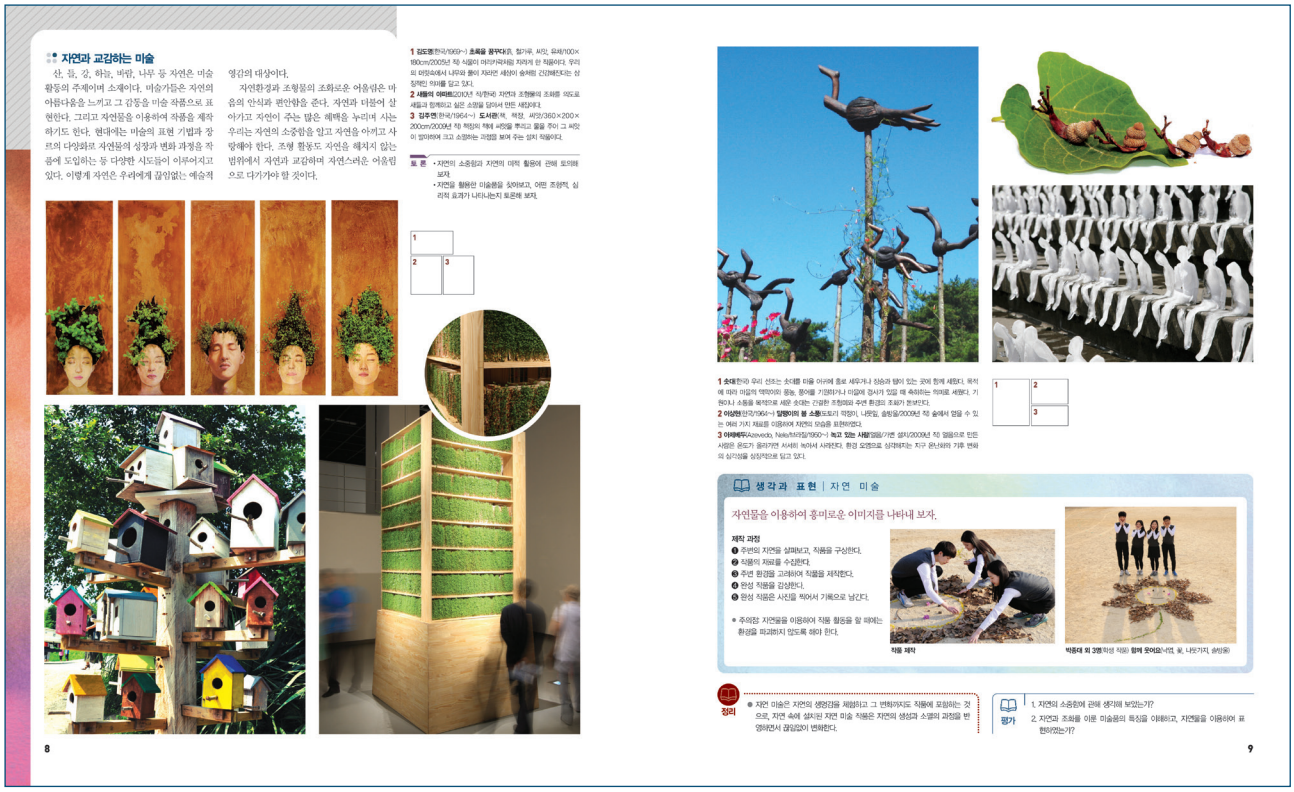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재한 조선 후기의 정원으로, 정원은 크게 세 구역으로 구성된다. 거처하는 살림집이 있는 낙서재(樂書齋) 주변과, 휴식과 독서를 위해 건너편 산허리의 바위 위에 집을 마련한 동천석실(洞天石室) 주변, 그리고 동리 입구의 세연정(洗然亭) 주변이다.

● 베르사유 정원(17세기 말~18세기 작/프랑스)

루이 13세가 지은 사냥용 별장이었으나, 1662년 무렵 루이 14세의 명령으로 대정원이 착공되었다. 1668년과 1680년에 증축 공사를 하였으며, 남쪽과 북쪽에 별관과 안뜰을 추가하여 전체 길이가 680m에 이르는 대궁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은 인간에 의해 계획된 공간이다.

● 리쓰린 정원(1625~1642년 작/일본)

일본의 가가와현 다카마쓰에 위치한 에도 시대의 정원을 대표하는 공원에 위치한다. 밤나무 숲이라는 의미의 리쓰린 공원은 에도 시대의 영주였던 이코마 타카토시의 별장으로 건축되었으나, 5대에 걸쳐 100년 동안 보수와 개축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6개의 연못과 1개의 언덕이 조화를 이루며,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형태의 다리와 산책로, 기묘한 모양의 소나무와 단풍나무, 벚꽃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 계절에 따라 피는 수많은 종류의 꽃들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낸다.



생각과 표현

● **오감 체험과 표현**

시각 체험 – 눈으로 대상의 크기나 모양, 색 등을 보고 나타낸다.

후각 체험 – 냄새를 맡고 느껴지는 것을 나타내거나 작품에 향이 느껴지게 표현한다.

청각 체험 –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 느낌이나 리듬, 율동 등을 표현하거나 작품 속에 소리를 담아낸다.

촉각 체험 –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는 것으로 질감, 재질감으로 표현한다.

미각 체험 – 맛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한다.

● **주변 자연을 관찰하고, 그 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① 나뭇잎의 사계절 변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비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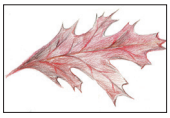
② 나무의 향기, 온도, 바람의 소리, 나무껍질의 느낌 등 오감을 활용해서 체험해 본다.



③ 나뭇잎이나 꽃 등을 보고 스케치한다.



④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 나뭇잎 등을 주워서 작품을 만들어 기록해 본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김도명(한국/1969~) 초록을 꿈꾸다(흙, 철가루, 씨앗, 유채/100×180cm/2005년 작)

작가 김도명이 보여 주는 세계는 생명과 함께 공명하는 초월적 사유의 세계이다. 흡사, 도가의 무위자연(無爲自然)사상을 입체적으로 실천하는 듯, 그의 작업 방식은 자연 법칙에 따라 행위하며, 인공적인 작위가 없다. 대상이 그의 손을 거쳐 새로이 의미를 얻는 것은 한 톨의 씨앗이 발아하여 새 이름을 얻는 것 같다. 사소하고 미미한 것들이 그것의 내부로부터 나와 큰 울림으로 변화하는 것은 겹겹이 층지는 사유의 결과이다. 그가 대상을 선택하고 매만져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새 봄에 논과 밭을 고르며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농부에겐 땅을 일구어 타인과 생명을 나눌 이유가 있고, 작가에겐 사유를 제공해 세상과 기쁨을 나눌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작가 김도명의 도가(道家)적 이상주의와 현대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은 서로 충돌하는 이미지이다. 하지만 두 세계의 상충하는 이미지는 초월적 가치관인 '예술'의 장(場)에서 서로 이해될 수 있다. 그의 작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생명의 끊임없는 순환, 자연 법칙의 이상적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약동하는 생명은 어둠을 걷고 그 연약한 머리로 땅을 밀어 올려 시작될 때 가장 아름다우며, 또한 그 것은 우리들의 숨결에 이미 우리와 같이 숨 쉬는 또 다른 것들(타자)의 숨소리 역시 섞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김주연(한국/1964~) 도서관(책, 책장, 씨앗/360×200×200cm/2009년 작)

식물을 땅에 심는 것으로 시작했던 김주연은 근래에는 신문에 식물을 심기 시작했다. 많은 신문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물(아시바)을 먼저 설치한 연후에, 이를 지지대 삼아 그 접힌 면이 전면을 향하도록 신문을 쌓는다. 이렇게 축조된 거대한 탑 형상의 표면에다 식물의 씨앗을 심어 발아시키는데, 그 인상이 여타의 작업들과는 사뭇 다르다. 김주연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소위 살아 있는 미술을 실천하는 작가다. 식물을 키우면서 그것이 생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작가의 작업은 생태 담론과 여성주의 담론에 맞물리며, 그 외연은 개인사적인 일화와 함께 사회학적 의미를 아우른다.

솟대(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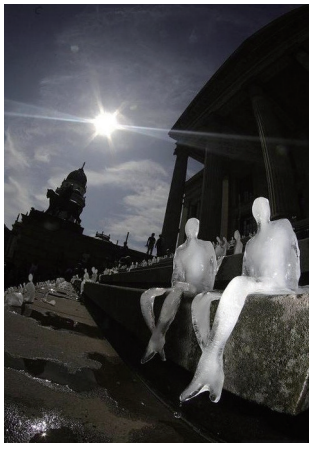
솟대는 홀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장승과 함께 세워지거나 장승과 탑이 있는 곳에 함께 세워지기도 한다. 솟대의 새 모양은 Y형 나뭇가지로 만들거나, 기역(ㄱ)형 나뭇가지를 머리와 목으로 여겨서 Y형 나뭇가지나 넓적한 나무판에 연결하여 만든다. 새 모양을 사실적으로 깎아서 만들기도 한다. 재료로는 주로 나무이지만 쇠나 돌로 만들기도 한다.

솟대는 원래 긴 장대 끝에 오리 모양을 깎아 올려놓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간 역할을 하여 화재, 가뭄, 질병 등 재앙을 막아 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셨다. 그러던 것이 풍수지리 사상과 과거 급제에 의한 입신양명의 풍조가 널리 확산됨에 지세에 돛대로서 세우는 짐대와 급제를 기념하기 위한 화주대로 분화 발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오리는 물새가 갖는 다양한 종교적 상징성으로 인해 농사에 필요한 물을 가져와 주고, 화마로부터 지켜주며, 홍수를 막아 주는 등 마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마을 지킴이로 존재한다.

아제베두(Azevedo, Nele/브라질/1950~) 녹고 있는 사람(얼음/가변 설치/2009년 작)

독일 베를린에서 2009년 9월에 열린 '자연 기금(WFF)'을 위한 브라질 예술가 아제베두의 설치 미술이다. 녹아내리는 1,000여 개의 얼음 조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예고한 작품이다.

이 얼음 조각은 약 20cm의 크기로 햇빛을 받으며 서서히 녹아든다. 그녀는 기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프로젝트를 구상했고, 2001년부터 상파울루, 도쿄, 파리 등 세계 도시를 다니며 전개해 오고 있다.







참고 자료

● 환경 미술과 생태 미술

인간을 포함한 총체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그 속에서 창의적 표현을 위하여 새롭고 다양한 것을 발견하고, 예술과 삶, 예술가와 관객 간의 거리를 좁혀 보고자 시도한 미술이다. 생활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즉 인간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의 총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환경 미술의 범위와 영역이 달라진다.

현대로 올수록 환경의 의미가 다양화되면서 개념이나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생태 미술(ecological art)은 넓게 보면 환경 미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오브제나 작품을 만들지 않고 바위 · 토지 · 잔디 · 눈과 같은 물질로 작업하는 대지 미술도 이에 포함된다. 산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을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이용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환경주의라면, 생태주의는 오염의 연원이요, 주체인 인간에게 눈을 돌린다.

생태 미술은 환경 미술의 한 분야로 생태 환경 미술을 뜻한다. 인간에 의해 오염되고 소멸되어 가는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1970년대에 형성된 것으로, 환경을 보호 · 보존 · 복원하고 유지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 등을 벌이기도 한다. 생태계의 여러 문제와 부딪치게 되었던 대지 미술의 문제점을 안고, 10970년대를 전후하여 많은 미술가가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생태 미술이란 생태계의 사이클과 리듬에 반응하고 그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미술로 수용하는 자연환경 미술의 한 영역이다.

인간과 주변 환경과의 공생을 위하여 자연 그대로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인간의 삶처럼 적극적인 공생의 노력과 보호 없이는 생태계가 쉽게 소멸되고 오염 · 훼손될 수 있음을 호소하기도 한다. 생태 미술의 특징은 작품이 일단 완성되면 그것이 자연적 과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점이다. 그 결과 자연과 미술은 서로 혼합되어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생태 미술이 곧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생태 미술 작가로는 골즈워디, 내쉬 등이 있다.



사회와 소통하는 미술

교과서 pp.10~11

● 단원 설정의 이유

미술은 미적 체험 및 정서 순화의 표현, 주술적 · 종교적 표현,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반영해 왔다. 사회적 표현, 주변 환경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미는 생활 개선의 표현, 윤리적 · 교훈적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적 표현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미술의 기능을 살펴보고 이해함으로써 미술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 학습 목표

이해	시대와 문화 속 다양한 미술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한다.
감상	미술 작품에서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해한다.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언어	**차시**	❶②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미술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수업 모형	감상 및 토론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토론법, 지필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참고 자료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 주술적 · 종교적 의미의 작품, 사회와 시대를 반영한 작품, 개인의 의식을 표현한 작품, 생활 환경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작품 등을 감상한다.	· 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시 자료를 준비한다.
전개	◎ 미술의 개념 알아보기 – 미술의 개념을 알고, 미술의 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 소통 방식으로서 미술의 역할을 알아본다. ◎ 미술의 역할과 기능 살펴보기 – 종교적 · 개인적 · 사회적 · 문화적 표현 등의 작품을 찾아 미술의 기능을 알아본다. – 다양한 미술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미술사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 현대 사회에서 미술의 역할에 대해 토론해 본다.	· 다양한 참고 자료를 통해 학생 스스로 사고하여 미술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 미술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미술의 개념을 정리한다. – 미술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관점	• 미술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가? •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품을 찾아보고, 미술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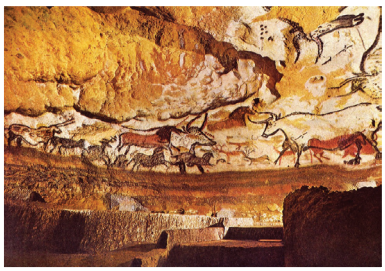
토우 장식 항아리(토기/높이 34cm/5세기 작/신라)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토우 장식 항아리는 다양한 형상의 토우를 부착하여 최대의 장식 효과를 낸 신라의 대표적인 토기 중 하나다. 항아리의 목과 어깨 부분에 개구리의 뒷다리를 물고 있는 뱀과 오리 모양 토우를 세 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 성기가 강조된 남자, 신라금(新羅琴)을 타고 있는 사람, 물고기, 새, 거북 등의 토우를 장식하였다. 이러한 장식 토우들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조형물로서 신라인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된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 준다.

라스코 동굴 벽화(암석화/기원전 13,000~10,000년경 작/프랑스)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의 라스코 동굴 벽화는 기원전 13,000년경의 것이다. 1940년에 발견된 라스코 동굴 벽화는 대략 2천 개의 그림이 있다.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이 그림의 대부분은 말, 들소, 수사슴, 코뿔소 등의 포유 동물을 묘사했다. 이 동물들은 동굴의 울퉁불퉁한 벽면에 석탄으로 그려졌으며, 자연적인 조건을 최대한 이용해 바위의 볼록한 면으로 양감을 표현했고, 흙으로 만든 채색 안료의 명암과 색조를 이용해 그림의 윤곽을 나타냈다.





크루거(Kruger, Barbara/미국/1945~) 무제-우리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다(사진 실크 스크린/278.1×243.8cm/1988년 작)

페미니즘 미술가 크루거는 사진과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화면에 끌어들여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미술과 사회 제도적 권력 및 편견, 남성 우월주의의 지배 구조에 저항하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녀는 사회 통념으로 인한 폐해를 가장 직접적 표현 수단인 사진 이미지와 텍스트로 전달했으며, 광고 탑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및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대중 매체에서 생산된 여성 이미지를 비판하는 크루거의 작품은 1980년대 미국 사회 소비문화 및 대중 매체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80년대 레이건 정부 시기는 자본주의의 절대적 권위, 상품 구매 능력에 따른 계층화, 과도한 소비재의 생산을 특징으로 하며 크루거의 비판적 작품 활동은 이 시기에 본격화된다.

이때부터 그녀는 여성 이미지를 비판적 주제로, 대중 매체에서 생산된 이미지를 차용, 조작하면서 인칭 대명사를 포함한 선언적 명제 형식의 문장을 결합하였다. 그녀의 작품은 문화적 구조와 개인의 관련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작품에 대면한 관객은 감상에서 나아가 그녀가 개입하는 사회적 구조에 관여하기도 했다.

생각과 탐구

● 미술의 역할과 기능

재현하는 미술-사람이나 자연과 같은 대상의 형태나 색 등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닮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재현 양식 속에서도 작가가 지닌 시각적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미술-표현하는 사람의 감정, 기억, 상상 등에 따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일상의 합리적인 논리나 관습 등에 얽매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상상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한다.

형식미를 추구하는 미술-외부 세상에 대한 모방이나 작가 내면의 감정 표현을 배제한 순수한 형식만이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순수한 조형 요소인 점 · 선 · 면 · 색 등을 통해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사회의식을 표현하는 미술-예술도 사회적 제도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가 살았던 사회적, 정치적인 사실이나 도덕적 관점을 기록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시대를 대변하는 매체나 문화 환경을 작품을 통해 반영하기도 한다.

● 의사소통으로서의 미술

선사 시대가 끝날 무렵까지 아직 문자를 갖고 있지 않았던 인간은 이미지를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미지는 동굴 벽에 새겨지거나 그려졌고, 진흙으로 만들어지거나, 뼈에 새겨졌다. 이미지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생각, 감정, 지각이 표현되어 있었다.

그 이미지들 중 몇몇은 아직도 남아 있다. 아주 먼 옛날에 그려졌음에도 그 이미지들은 제작자의 감수성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이미지들은 생각의 방법이었으며, 한 부족과 한 시대를 느끼게 한다.

수 세기 동안 예술이라는 단어는 순수 예술, 즉 미의 추구라는 미학적 목적을 가진 것들을 한정해서 지칭해 왔다.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분야에서는 주로 건축, 조각, 회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에 우리는 미에 대한 이념이 민족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고, 같은 민족에게서도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조형 예술의 영역에서도 예술적이라는 것은 이미지들을 통해서 감각과 감동과 감정을 소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모든 활동을 정의하게 되었다. 예술과 예술 작품에 대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예술적 이념을 심고 표현한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법

발신자	무엇인가를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
메시지	소통 내용
코드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대가 알고 있는 기호 체계
수단	메시지를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요소
수신자	메시지를 전달받는 자
배경	소통이 일어나는 곳
역할	메시지에 들어 있는 의도 계획



생각을 담은 시각 언어

교과서 pp.12~13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언어	차시	❶②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미술 작품 속 시각 언어의 특징과 소통을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토론법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작가들이 미술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소통의 매개가 무엇인지 질문을 유도한다. – 미술에서 소통의 매개와 수단이 시각 언어라는 것을 이해한다.	·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전개	◎ 시각 언어와 문자 언어 알기 – 시각 언어와 문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시각 언어가 갖는 특징을 안다. ◎ 시각 언어의 특징 알기 – 시각 언어는 문자 언어와 달리 그 안의 메시지와 의미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않다. – 시각 언어의 시각 요소는 문자 언어와 달리 누구에게나 쉽게 의미를 전달한다. ◎ 작가들만의 창조적인 시각 언어를 이해하기 – 작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 언어를 창조하고, 관객은 작가의 시각 언어를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감흥을 느끼며 소통한다는 것을 안다.	· 시각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시각 언어가 갖는 의미를 숙지한다. ·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에서 어떤 시각 언어를 창조하고 있는지 작품을 통해 감상한다.
정리	◎ 내용 정리 및 차시 예고하기 – 시각 언어는 미술이 사용하는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고, 작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 언어를 창조한다. – 다음 차시를 예고한다.	· 미술 작품의 소통 방식에 대해 정리해 본다.
평가 관점	• 시각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가? • 미술 작품 속의 시각 언어의 특징과 소통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는가?	

● 단원 설정의 이유

시각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통하는 것을 시각 언어라고 한다. 시각 언어는 문자 언어에 비해 추상적이고 상징적이지만, 사용하는 언어나 생활하고 있는 문화가 다르더라도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단원에서는 미술 작품 속의 시각 이미지를 통해 시각 언어의 기능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미술의 소통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 학습 목표

이해	시각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징과 장단점을 안다.
감상	미술 작품 속의 시각 언어의 특징과 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브로타스(Broodthaers, Marcel/벨기에 → 독일/1924~1976) 냄비와 입 다문 홍합(홍합 껍데기, 폴리에스테르, 냄비/높이 30.5cm/1964년 작)

브로타스의 홍합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작가는 우리에게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펼칠 것을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예술이 반드시 아름답거나 특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평범한 사물들을 눈여겨보고, 왜 그것들이 예술이 될 수 없는지 의심해 보라는 작가의 메시지는 홍합이라는 소재에서 더욱 강조된다. 벨기에 출신인 작가의 고향에서 홍합은 매우 흔한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더 '평범한' 사물에 속한다. 이 작품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일상적인 사물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예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마그리트(Magritte, Ren/벨기에/1898~1967) 이미지의 배반(캔버스에 유채/64.5×94cm/1928~1929년 작)

마그리트가 그린 이 작품은 미술에서 환영주의와 재현에 대한 흥미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분명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물감을 바른 평편한 캔버스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 자체도 "실제가 아니다." 그것 역시 그 위에 사실적으로 그려진 파이프와 마찬가지로 환영의 세계에 존재한다. 여기서는 글자도 이미지도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이 된다.

관습에 따르면 파이프를 재현한 그림 속의 파이프는 파이프가 맞지만, 마그리트는 관습적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림과 문장을 모순적으로 표현하였다. 미술가가 대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대상의 재현일 뿐, 그 대상 자체일 수는 없다고 역설한다.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러시아 → 프랑스/1866~1944) 구성 Ⅶ(캔버스에 유채/200×300cm/1913년 작)

이 작품은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클라리넷, 심벌즈, 드럼들로 이루어진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 것 같은 연상을 일으킨다. 바실리 칸딘스키는 이 구성 작품을 계획하는 데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는 연필 스케치와 수채화, 연습 그림을 수백 번 그렸고, 이러한 준비 끝에 높이 2m, 폭 3m의 캔버스에 단 나흘 만에 그림을 완성했다.


1913년 11월 26일


1913년 11월 27일


1913년 11월 28일


1913년 11월 29일

〈나흘 동안 그림이 진행되는 과정의 기록〉

칸딘스키는 캔버스의 왼쪽 방향을 향해 그림을 그려 갔다. 어두운 색의 선으로 다른 형태들을 그린 다음, 왼쪽 아래 구석에 약간 노 젓는 배처럼 보이는 형태를 그렸다.

생각과 탐구

● 시각 언어와 이미지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거나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에는 문자 언어, 청각 언어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시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통하는 것을 시각 언어라고 한다. 시각 언어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온 상형 기호를 비롯하여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화 기호, 미술가들의 개인적 · 사회적 의식을 표현한 미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시각을 매개로 소통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시각 언어의 요소인 이미지는 인간의 감각과 마음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생성되는 인상이자 의사소통을 위한 시각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은 문화가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여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의사를 전달해 준다.

● 언어, 문자 언어, 시각 언어

인간의 사고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기초 체계를 언어, 문자 형식을 체계화한 것을 문자 언어, 시각적 요소(시각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사소통함.)를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 마그리트

대상을 엉뚱한 맥락으로 옮겨놓거나(고립), 대상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바꾸어놓거나(수정), 혹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대상을 교배시킨다(수정). 크기를 바꾸어 놓거나(크기 변경), 동떨어진 사물을 갑자기 만나게 하고(조우), 한 이미지 속에 다른 이미지를 겹쳐 놓는다(이중화). 개념적으로 반대되는 사물을 병치하는가 하면(패러독스), 안과 밖을 뒤집어놓을 때도 있다(반전). 수지 개블릭은 마그리트의 기법을 여덟 가지로 분류한다.

마그리트는 어휘를 고를 때 '무겁다' 대신에 '가볍다'를 선택하고, '크다' 의 자리에 '작다'를 집어넣는 간단한 일탈만으로도 바위가 하공에 떠다니거나(수정) 꽃 한 송이가 방을 가득 채우는(크기 변경)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그는 문법 자체를 파괴하여 도상적 비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택축과 결합축의 구별을 흐려놓고, 의도적으로 의미론과 화용론을 위반함으로써 일상적 지각(知覺)의 상투성을 파괴한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요소들은 너무나 일상적인 요소들이다. 마그리트는 전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이제까지 존재해 온 일상의 질서 전체를 의문에 부치게 한다.



Q&A

Q 주제를 창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발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해 보자.

A 브레인스토밍, 스캠퍼, 마인드맵, 체크리스트 등이 있다.

활동 자료

생각 열기

내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자신만의 창의적인 시각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상 학습 선행되어야 한다. 발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예술적 표현 활동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동반하여 순간적으로 떠오른 영감을 말한다. 발상은 두뇌 속에 보관된 정보와 외부 정보를 종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훈련 속에서 만들어진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 언어는 다음과 같은 발상 방법에 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적합한 발상에 따른 재료와 표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시각 언어와 이미지는 창조된다.

브레인스토밍

창의적인 태도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로 거침없이 생각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의 진행 규칙

1)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는다. 가능성 없는 아이디어라 해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2)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황당하거나 엉뚱한 아이디어라도 허용한다. 이런 아이디어에서도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가능한한 많은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야 우수한 해법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제안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핵심 단어를 사용하여 간단히 말하고 그 의견에 덧붙여 할 말이 있다면 계속해서 제안을 추가한다.
4)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변형한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결합과 개선은 브레인스토밍의 가장 큰 장점이다.

마인드맵

마인드맵이란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간다는 의미를 지닌 사고의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기호, 그림을 사용해 마음속 지도를 그리듯 표현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두뇌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동시에 떠올린다. 따라서 단순한 요약서처럼 직선적으로 메모하는 것으로는 복잡한 사고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인드맵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마인드맵 작성 방법

1) 종이와 색 펜(일반적으로 주된 가지의 수만큼 준비하여 5가지 색 이상)을 준비한다.
2) 전체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3) 종이를 가로로 길게 놓은 후 중심부터 시작한다.
4) 주제에 대한 핵심 이미지를 종이 중심에 그린다.
5) 이미지에 가지를 하나씩 그려 나간다. 이 가지 위에 단어, 그림 또는 세부적인 내용을 두꺼운 선으로 그린다.
6) 가지는 주제에서 부주제로 차례로 뻗어 나간다. 이들도 선으로 연결하지만, 가는 선이어야 한다.
7) 다른 사람의 마인드맵을 감상하며 어떤 점이 좋고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발표한다.

스캠퍼(SCAMPER)

기존과는 다른 시각과 각도에서 기존의 것을 대체하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를 결합해 보거나, 기능을 변경 혹은 크기를 줄이거나 늘려보고 일부 기능이나 요소를 제거해 보며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방법이다. 변화를 준 다음 독창적인 것이 나올 때까지 시도함으로써 발전적인 발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캠퍼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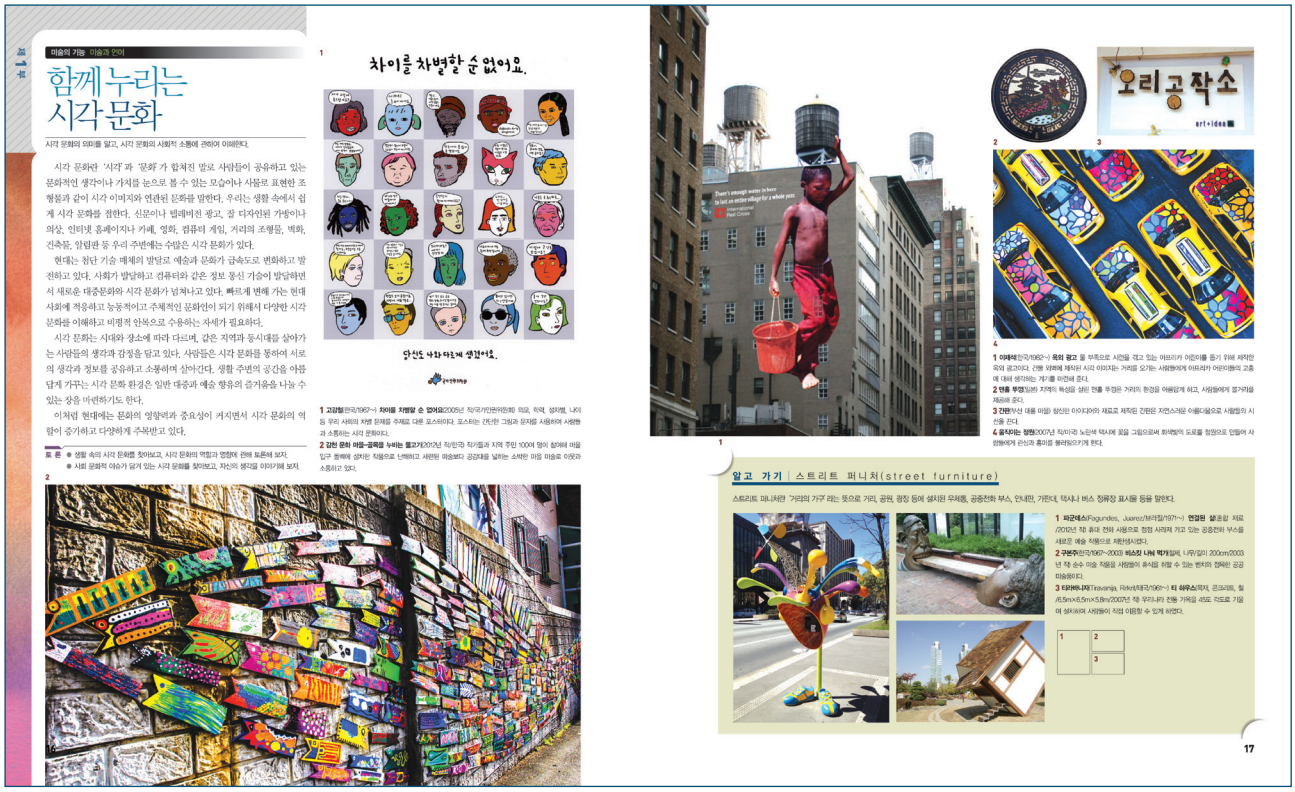
1) 대체하기(substitute): 사물의 소재, 형태, 용도, 방법 등을 다른 것을 대체해 보는 방법이다.
2) 결합하기(combine): 다양한 사물이나 사물의 기능을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다.
3) 적용하기(adapt): 원리나 방법, 형태 일부를 변형하여 다른 대상물에 응용하는 것이다.
4) 변경, 확대, 축소하기(modify/magnify/minify): 크기, 무게, 모양, 색깔, 냄새, 기능, 배치, 디자인을 키우거나 줄이는 등 대상의 일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5)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put to other uses):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6) 제거하기(eliminate): 대상의 성분, 기능 등 특정 부분을 없애는 것이다.
7) 재배열하기(rearrang/reverse): 일의 형식, 순서를 재조정하거나 거꾸로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다.

재료 탐색에 따른 표현 방법

Q 주제를 나타내는 시각 언어를 나타내기 위한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법 모색해 보자.

A 나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선을 강조한 드로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나에 관한 다양한 사진을 찍어 설치 작업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또한 내가 수집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화면에 붙여 콜라주 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 드로잉: 원래 밑그림의 의미로 사용되던 드로잉은 현대에 와서 다양한 재료로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의 사용에 따라 표현하는 사람의 개성이 즉각 드러나기 때문에 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다.
– 사진: 현대 미술에서 사진과 회화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결과물로서의 작품보다는 아이디어나 과정이 중요한 개념 미술, 행위 위주의 퍼포먼스 등은 과정을 기록한 사진이 곧 작품이 된다. 또한 사진이 제공하는 다양한 표현 효과는 미술의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 중 포토그램과 포토몽타주는 새로운 시각 언어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 콜라주: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나뭇조각, 모래, 나뭇잎 등 여러 가지를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 기법 또는 그러한 기법에 의해 제작되는 회화를 말한다. 자신이 표현하는 주제, 색감, 대비적인 질감에 따라 작품이 다르게 나타난다.



함께 누리는 시각 문화

교과서 pp.16~19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언어	차시	①②③❹⑤⑥⑧
학습 주제	시각 문화의 의미를 알고, 시각 문화의 사회적 소통에 관하여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교과서, 학습 자료 등		
수업 모형	이해 · 토론 및 표현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광고나 일상생활에서 전개되는 시각 문화 작품을 제시하여 목표를 명료화한다. – 시각 문화 환경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	· 주제에 맞는 경험을 발표하면서 자유롭게 통의 하여 창의적으로 발상을 형성하도록 한다.
전개	◎ 작품 설명하기 – 생활 속의 시각 문화를 찾아보고, 시각 문화의 역할과 영향에 관해 토론해 보자. – 사회 문화적 이슈가 담겨 있는 시각 문화를 찾아보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 시각 문화와 소통하는 시장 – 주변의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시장 속 아름다운 시각 문화를 찾아보자. ◎ 시각 문화 공간 디자인 – 우리 마을을 둘러보고 마을 지도를 그려 보자. – 마을을 둘러보면서 개선하고 싶은 공간을 찾아 새로운 시각 문화 공간으로 디자인해 보자.	· 시각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각적 안목을 함양하도록 한다.
정리	◎ 활동지 작성하기 – 스트리트 퍼니처 ◎ 공공 미술 프로젝트	·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재미있었던 점과 어려웠던 점을 발표하도록 한다.
평가 관점	• 시각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였는가? • 시각 문화의 사회적 소통에 관해 알아보았는가?	

● 단원 설정의 이유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로 인류가 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은 점점 줄어들며 각 지역의 문화적 경계가 흐려진다. 지금의 시대는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다양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국가 간의 상호 영향력이 증가한다. 이에 미디어의 이미지를 비평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문화 미술 교육이 필요하다. 영상 매체의 발달로 시각 문화 환경의 중요성이 최근에 주목받음에 따라서 시각 문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단원에서는 시각 문화의 역할과 영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문화적 이슈가 담겨 있는 시각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데 있다.

● 학습 목표

이해	시각 문화의 사회적 소통에 관하여 이해한다.
표현	· 마을 지도를 그려 보자. · 개선하고 싶은 공간을 찾아 새로운 시각 문화 공간으로 디자인해 보자.
감상	공공 미술 프로젝트

시각 문화

사적으로 시각 문화라는 용어를 미술사 영역에서 처음 사용한 학자 중 한 사람은 알퍼스(Svetlana Alpers)이다. 그는 1983년 발표된 The Art of Describing에서 17세기 독일 문화에 직접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논하면서 '시각 문화' 용어를 이미지가 세상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특정의 시대와 문화란 의미로 사용하였다. 미술이란 영역 안에 이미지가 아니라 사회 문화 속에서의 이미지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그즈음에 '새로운 미술사가'들이 담론을 구성하고 제한하는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노출하려는 시도와 함께 미술사에서 주제, 주관성, 권력 등과 해석 사이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현재처럼 초학문적 연구 분야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는 것을 도왔다. 1990년 중반을 거치면서 시각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나오게 된다. 역사적으로 '시각 문화'란 용어는 대상을 좀 더 폭넓게 사회나 문화, 또한 다른 분야의 역사나 비평과 관련짓는 데 관심을 가진 미술사가들에게 매력있어 보이는 시각적 현상에 관한 이야기 방식의 하나를 제공해 왔다. 이를 통해 볼 때, 모던시기에서 포스트모던 시기로 변하면서 다양화된 시각양상들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 · 문화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써 '시각 문화'라는 용어가 보편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각 문화와 미술 문화의 차이

미술 문화 교육이 미술 작품을 보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의 획득을 강조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미술계의 범위 안에 있음을 나타내며 이것은 미술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지금의 7차 교육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술 문화가 작품을 통한 문화 이해와 어린이의 미술 세계 중심에서 미술 작품 세계로 좀 더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시각 문화는 사회적 관점을 취하고 있고 초학문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의미에서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광고 천체 이제석

생각을 뒤집으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광고 천재 이제석의 기막힌 아이디어 발상법 & 그의 광고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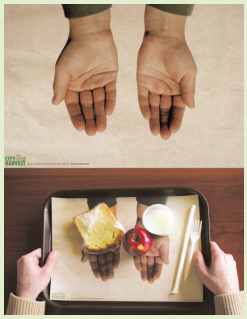
이제석의 광고 일기 1

차를 벌레로 보면 어떨까?

우리가 딱정벌레 차라고 부르는 폴크스바겐의 '비틀'을 미국 사람들도 버그라고 불렀다. 벌레 색깔과 비슷한 갈색 폴크스바겐 비틀 사진을 하나 내려받아 뒤집었다.

딱 바퀴벌레였다. 뒤집어진 바퀴벌레를 보자마자 번개처럼 벌레약 '레이드'가 떠올랐다.

이 작품은 독일의 광고 전문지 『아카이브』가 선정한 최우수 작품 등 다수의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 유머와 위트를 특히 좋아하는 유럽인들 반응이 거의 광적이었다.



이제석의 광고일기 7

"종이 한 장의 힘"
시티 하베스트 캠페인 광고 시리즈

종이 쟁반 깔개에 어린이 손을 그려넣었다. 배고픈 어린이가 쟁반 위의 음식을 받아드는 느낌이 난다. 나는 시티 하베스트 광고를 제작하면서 공익 광고에 더 다가가게 됐다. 남들이 외면하는 것,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싶었다. 광고장이로서 공익을 위해 이바지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 **시각 문화**

비주얼 리터러시는 미디어 교육과 연계한 미술 교육적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적 미디어를 통한 그림이나 영상, 또는 시각적인 진술들을 올바로 인지하고, 비평적으로 수용하며, 적절하게 활용하고 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능력들과 숙련된 기술들을 의미한다고 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능력들과 숙련된 기술들을 의미한다(황연주, 2003).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가는 문화를 비평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자신의 삶에서 시각이미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구하는 것은 자신의 문화를 탐구하는 방법이 된다.

1. 시각적 문해력

시각 문화는 문화적 가치와 내용을 담은 모든 시각적 인공물을 말하며, 시각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는가에 대한 방법의 교육이 시각 문화 교육이다. 언어는 사회 · 문화적으로 약속되어 규정된 것을 이미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각 언어는 시각 이미지를 보고 수용자가 언어로 나타내는 것으로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이해되고 표현될 수 있다.

문해적 기능을 가진 시각적 문해력은 학생이 다양한 시각적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또는 시각적 메시지들은 올바로 인지하고, 비평적으로 수용하며, 적절하게 활용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들과 기술들을 학습하는 것이다.

1) 문화 안에서 다른 감각에 비하여 시각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2)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다.
3)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을 포함한다.
4) 다학문적 개념으로 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5)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2. 비판적 사고력

시각적 문해력을 강화하여 매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문해력을 통한 의미의 해석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능동적인 의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더욱 강하고 주체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단순히 좋고 싫음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서 해 줌으로써 비평적 사고도 시각적 문해력 능력과 마찬가지로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시각 문화의 특성

문화는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를 뜻한다. 또한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사진, 전자 미디어 등 모든 예술적 양식을 통칭하기도 한다. 이들 중 특히 우리의 시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문화 양상을 '시각 문화'라고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시각 문화'란 회화나 판화, 조각, 디자인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 영역뿐만 아니라, 패션쇼나 카니발의 퍼레이드 등 포함하는 공연 예술, 사진, 영화, TV 등과 같은 전자 매스미디어 등 모든 시각적인 매체를 통한 시각적 이미지에 의한 문화 현상을 말한다.

1.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다.
2. 시각적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3.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을 포함한다.
4.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는 다움학적 개념이다.
5.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시각 문화는 시각적 미디어를 통해 대량으로 생산, 복제, 변형, 반복되며 정보를 전달한다.

시각 문화는 이와 같은 특징 외에도 현대 사회인들의 일상화된 의사소통 방식으로 시각 이미지와 언어 텍스트가 결합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때문에 시각 문화 이미지와 언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은 점점 더 크게 요구된다.

축제 장길 벽화 마을



장 프랑수아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을 조금 색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삭이 아닌 골프공을 줍는 작가만의 재해석에 대한 표현이었다.

안동 운흥동 벽화 마을의 관람 포인트는 곳곳에 자리한 숨은 벽화이다. 길가에서 마주한 포인트와 달리 이러한 벽화는 골목골목에 담겨 있다. 큰길을 바라보고 있던 고양이, 환기구를 타고 오르던 다람쥐 등 숨은 벽화는 또 하나의 포인트다. 그뿐만 아니라 전래동화를 형상화한 벽화와 담벼락에 숨겨진 안동의 명소들이 자리한 벽화 또한 즐거운 볼거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세계 속 우체통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편지로 서로에게 전달되는 메신저 역할을 하였다. 우체통 디자인은 강렬하고 눈에 잘 띄는 색상인 빨간색의 우체통이 주를 이루지만 이 밖에도 여러 우체통이 거리 공공 디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멕시코



벨기에



영국



덴마크

환경 조형물

공공의 장소에 놓인 미술의 진정한 역할은 미적 가치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 삶의 긍정성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특히 아름다움의 교감을 전제로 한 '공유'를 목적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네 삶 속으로 배어들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다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미술 장식 제도가 처음 제정될 당시만 해도 이는 하나의 이상이자 실현될 현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반하는 미술 작품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비리와 부정의 온상으로 치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재로서의 위치와 역할은 커녕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자문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부정적으로 미술품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넘어 미술 장식품의 거래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만큼 초기 제도의 긍정성보다는 많은 문제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꼬마 동물원 제작 과정



박형규(한국) **꼬마 동물원**(혼합 재료/2012년 작)

풍요로움과 향수의 공간이었던 시골 동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지 오래다. 작품을 통해 쓰레기장으로 쓰이던 공간을 재생하고, 이곳에 아이들의 환한 미소와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마을과 미술이 만났을 때'

마을 미술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하나로, 예술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맞았을 때 큰 성과를 거둔 공공 미술품 프로젝트에 힌트를 얻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으로 실시했지만, 이 기회로 일자리를 창출한 효과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미술가들에게 전시장 속의 작가를 바깥으로 끌어내어 미답의 세계에 도전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민호(한국) **물의 축제**(스테인리스 스틸/1400x200x450cm/제주도2012년 작)

숲을 걸으며 사람, 문화 자연 그리고 예술 작품과 만나는 유토피아에서 소통의 기점을 만들고자 기존의 인공폭포를 무대 삼아 물놀이를 즐기며 서로간의 소통을 배워 나가는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꿈을 실은 물방울을 연극 무대의 한 장면처럼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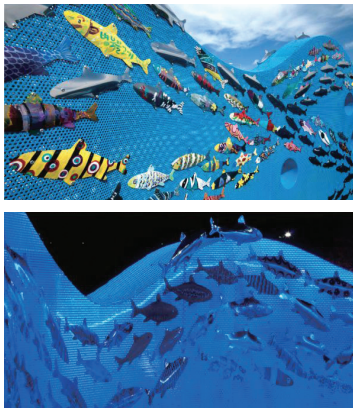
● 공공 미술의 개념

공공 미술은 용어 그대로 퍼블릭(Public)을 향한 미술이다. 공공 미술이라는 용어는 존 윌렛이 1967년에 저술한 도시 속의 미술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특정한 개인만을 위한 작품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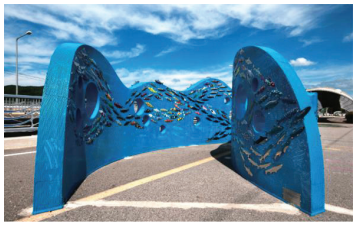
물고기 조형물 용접 과정

공공 미술은 '공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오늘의 도시 환경에서 공공 미술은 물리적인 개념보다 치유적이고 소통적이며 문화적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민 3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그린 물고기 작품들이다. 아래는 밤이 되면 검게 물든 하늘 아래 푸른 빛의 강물을 따라 물고기가 유영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미술과 대중의 의사소통에서 중점을 두게 되며, '장소 귀속적 공공 미술', '지역 사회에 기분을 둔 공공 미술', '공공의 이해에 관심을 두는 미술'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다가 미술 이론가 수잔레이시가 편집한 "지형 그리기"라는 책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공 미술'이라고 명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요즘에는 이 명칭이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새로운 공공 미술 역사의 구축은 재료나 공간, 미술 매체의 유형보다는 관객, 관계, 소통, 그리고 정치적 의도 같은 개념들 위에 세워진다.



청정 지역 한탄강에서 무리 지어 놀고 있는 물고기를 표현한 작품(강원도 철원)



삶을 담아낸 미술 – 민화

교과서 pp.20~21

● 단원 설정의 이유

민화는 일반적인 전통 회화에 비해 세련미는 떨어지지만, 익살스럽고 소박한 형태와 대담한 구성, 현란한 색채로 특징지어지는 양식이 오히려 한국적인 미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이러한 민화에 대한 감상과 표현을 통한 학습은 전통 미술을 애호하고 향유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한다. 또한 민화 작품을 디자인에 적용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이 단원에서는 민화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한 후 표현과 감상 활동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면 전통 미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 학습 목표

이해	민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의의와 가치를 판단한다.
표현	민화의 표현 기법을 익힌 후 디자인에 적용해 개성을 살려 표현한다.
감상	민화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언어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민화의 가치와 특성을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표현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화선지, 수묵 및 채색 도구(먹, 한국화 붓, 한국화 물감, 접시 등)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지필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참고 작품을 제시해 민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 민화가 현대 디자인 작품에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 민화의 개념과 특징을 작품을 보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민화의 정신성과 특징을 작품 감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지도한다.
전개	◎ 민화의 제작 과정과 표현 기법 안내하기 – 민화의 제작 과정을 멀티미디어 자료 상영과 설명을 통해 이해한다. –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 표현 기법을 따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민화 표현 기법을 연습할 수 있게 하고, 순회하며 지도한다. ⊙ **표현 활동** ⊙ **오브제에 민화 적용해 디자인하기** – 오브제에 민화를 적용해 디자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오브제에 어울리는 민화를 종이에 연습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 본다. – 종이에 연습해 본 후 오브제에 직접 민화를 그려 작품을 제작한다.	· 민화의 표현 특징과 기법을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민화와 오브제가 어울리도록 진행되는지 검토하도록 지도한다.
정리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자신의 작품의 제작 의도와 디자인적 특징 등을 개인별로 발표한다. – 목적에 맞게 제작되었고, 민화가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타인의 의견 및 작품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평가 관점	• 민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민화와 디자인이 조화롭게 접목된 개성 있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 민화를 적용한 디자인 작품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민화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일월오봉도

일월오봉도의 다른 명칭으로는 일월도 등이 있으며 놓이는 위치는 주로 용상 뒤였다. 장식성이 강한 일월오봉도는 왕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의도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 그림은 궁중에 있던 일월오봉도 가운데 하나로 병풍의 형식으로 제작된 것이다. 다른 일월오봉도와 도상이나 표현법에서 매우 유사하다. 즉 청색과 초록이 주류를 이루는 농채를 사용하였고 준법이 구사되어 있지 않으며, 화면 양 끝에 소나무를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다섯 봉우리의 산과 해와 달을 그려 넣은 구도상의 특징 등에서 강한 보수성과 전통성이 느껴진다.

어변성룡도

어변성룡도는 등용문, 약리도 따위의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거센 물살과 잉어의 표현은 거의 동일하지만 경우에 따라 여의주, 해, 괴석, 모란, 연꽃과 함께 그려진다. 초기의 등용문 그림은 고사에 충실했으나 점차 해와 모란, 연꽃이 결합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주되었다.

책거리

책가도 혹은 문방도라고도 한다. 높게 쌓아놓은 책더미와 서재의 여러 가지 일상용품을 적절히 배치한 정물화 풍의 그림으로, 전통 장식화 및 민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표현 형식은 초기에는 서가로 구획된 화면에 소재들이 좌우대칭을 이루며 정확히 균형을 이루다가 점차 정물화처럼 자유로운 배치 구도를 취하였다. 화법은 보는 이가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보는 이를 바라보는 듯한 역원근법으로 그리며, 배경에는 대체로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다. 주로 선비가 아들의 방을 장식하기 위해 주문하였고 서재에 비치되기도 하였다. 면학에 정진하고 글공부를 적극 권장했던 당시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꽃세상 (김근중)

모란이라는 대상을 통해 행복과 믿음, 사랑이 있는 진정한 부귀의 모습, 원본 자연을 추구하는 작가의 염원이 담겨 있다. 특히 전통 회화에서 사랑받아 온 소재인 금강산도를 배경으로 구성한 후 영문 텍스트를 모란꽃의 말풍선 형식으로 배치해 작가만의 재치가 느껴지는 현대적인 민화 작품이다.

활동 자료

● 민화를 적용한 쇼핑백 디자인

① 구상 : 쇼핑백에 어울릴만 한 민화 작품의 적용방안을 구상한다.
② 제작 : 구상한 디자인을 전통 회화 채색 재료를 활용해 쇼핑백에 적용해 완성한다.
③ 감상 :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허우림(학생작품) **문자도를 적용한 쇼핑백 디자인** (쇼핑백에 붓펜 /20×10×20cm/2013년 작)
친구에게 선물할 쇼핑백에 민화 중 문자도의 형식에 친구 이름을 채색없이 수묵으로만 디자인해 세련된 느낌이 난다. 민화의 멋을 일상생활에서 생활용품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작품이다.

보충 자료

● 민화의 표현 재료와 용구

종이	닥나무의 섬유질을 주원료로 만든 한지 종류에 그리며, 민화를 그릴 때에는 한지를 여러 번 겹쳐 만든 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감	민화를 그릴 때에는 진하게 표현해야 하므로 튜브 물감보다는 분채나 봉채, 석채를 직접 갈아서 사용해 발색을 높이는 것이 좋다.
붓	채색용 붓으로는 탄력이 좋은 붓을 골라야 하며 납작한 평붓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아교	아교는 접착제 역할을 하므로 그림을 그리기 전 종이에 밑칠을 할 때뿐 아니라 농도를 조절해 안료와 함께 사용한다.

● 민화의 표현 특징

① 진채화 기법으로 화려하게 채색한 작품이 많다.
② 대담한 구도와 구성이 돋보인다.
③ 익살스럽고 소박한 형태 표현이 많다.
④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⑤ 일반 회화의 표현 특징을 모방한 작품도 있다.

작가 탐구

이왈종 (한국/1945~)

제주도의 자연 풍광과 일상의 희로애락을 특유의 해학과 정감 어린 색채로 표현하는 작품이 많다. 다양한 형식의 실험으로 전통 회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그렸으며, 전통적 관념의 동양화가 추구하던 이상화된 풍경에서 벗어나 일상과 꿈이 화합된 작품 세계를 보여 준다. 이왈종의 작품 세계는 자유로운 화면 구성과 풍부한 색채감, 여기에서 연출되는 화려한 장식적 파노라마가 특징이다. 재료나 기법에 있어서도 아크릴을 사용하거나 부조 기법 등을 이용하여 동서양의 재료에 관계없이 작품을 제작할 뿐 아니라 보자기, 조각, 도자 등 평면과 입체를 넘나들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삶을 담아낸 미술 – 풍속화

교과서 pp.22~23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언어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풍속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의 일상생활을 표현해 본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화선지, 수묵 및 채색도구(먹, 한국화 붓, 한국화 물감, 접시 등)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지필 평가

● 단원 설정의 이유

풍속화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풍속화를 통해 당시 시대상이나 문화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삶을 담아내고 있는 풍속화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미술과 삶과의 관련성에 대해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풍속화의 개념과 특성을 작품 감상을 통해 이해한 후 일상생활을 직접 그려 풍속화 작품을 제작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경험 속 희로애락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된다.

● 학습 목표

이해	풍속화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표현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나타내는 풍속화를 제작할 수 있다.
감상	경험을 표현한 풍속화를 분석하며 비평할 수 있다.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동 · 서양의 다양한 작품을 제시해 풍속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 풍속화가 광고에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풍속화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인다. – 풍속화의 개념과 특징을 작품을 보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민화의 정신성과 특징을 작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지도한다.
전개	◎ 풍속화 작품 감상하며 비평하기 – 풍속화에 담겨 있는 시대적 배경을 유추해 보고 조사한다. – 유추한 내용과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보고서에 정리한다. ⊙ **표현 활동** ⊙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풍속화 그리기** – 일상생활에서의 경험들을 떠올려보며 풍속화 주제를 구상한다. – 주제를 정한 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료와 기법을 모색한다. – 활동지에 연습한 후 직접 도화지에 풍속화를 그려 작품을 제작한다.	· 주어진 풍속화를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도록 지도한다.
정리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자신의 작품의 제작 의도와 표현 특징 등을 개인별로 발표한다. – 발표 내용과 작품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미비점을 보완한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타인의 의견 및 작품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평가 관점	• 풍속화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자신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풍속화를 제작할 수 있는가? • 경험을 표현한 풍속화를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김득신(조선/1604~1684) 대장간(종이에 수묵 담채/22.4×27cm/18세기 작)

김득신의 대장간은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 속 대장간을 그대로 본 떠 그린 것인데, 이 작품은 오히려 원본인 김홍도의 작품보다 더 매력적이다. 김홍도 그림은 전원이 대장간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지만, 김득신 그림에서는 불에 빨갛게 달군 쇳덩이를 붙잡고 있는 인물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 또는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그릴 게 있느냐."는 투인데, 이 모습이 오히려 실제감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더욱이 이 작품의 인물 묘법에서는 김홍도의 투박한 철선묘에 비하여 미묘한 율동감이 느껴지고, 갈필 위주로 묘사된 배경 속에 꿈틀거리는 생동감이 잘 포착되어 있다.



망치질 하는 장인 모습



쇳덩이를 달구는 장인 모습

샤르댕(Chardin, Jean-Baptiste-Simeon/프랑스/1699~1779) 세탁하는 여인(캔버스에 유채/38×43cm/1733년 작)

샤르댕은 이 작품을 통해 18세기의 프랑스 사회를 보여 주고 있다.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선 채로 나무통에 담겨 있는 빨래를 치대고 있고 어린아이는 그 옆에 앉아 비눗방울을 불고 있다. 화면 왼쪽의 반쯤 열려 있는 문 밖에서는 다른 여인이 빨래를 널고 있다. 실내에서 앞발을 모으고 졸고 있는 고양이는 아이를 데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인과 대비되면서 나태한 부르주아를 암시한다. 아이가 앉아 있는 낮은 의자는 일하는 동안에도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인의 암담한 현실을 의미하지만 정신없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개구쟁이를 나타내며 빈부 격차에 상관없이 노는 것에 열중하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을 상징한다.

신윤복(조선/1758?~1820?) 단오풍정(종이에 수묵 담채/28.2×35.2cm/18세기 후반 작)

신윤복은 풍속화를 통해 시대를 고발하거나 비판하기보다 현실을 긍정하고 낭만적인 풍류와 해학을 강조했다. 이 그림에서 동자승들이 목욕하며 단장하는 모습을 훔쳐보는 장면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조선 시대 사회 풍속의 숨겨진 이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세련된 감각과 섬세한 필치로 형상화하여 조선 시대 풍속화의 영역을 더 다채롭게 넓혔다.

프라고나르(Fragonard, Jean Honore/프랑스/1732~1806) 그네(캔버스에 유채/81×64cm/1767년 작)

이 그림은 인간의 세속적 유희와 감각적인 사랑을 세련되고 리드미컬한 모습과 화려하고 감미로운 색상을 통해 노래하고 있는데, 당대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한 퇴폐적이며 경박한 풍류라는 귀족 문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충 자료

● 조선 시대 3대 풍속화가 비교

김홍도	소박한 일반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해학과 풍자를 섞어 진솔하게 표현하였고, 강한 먹선과 담백한 색, 배경이 생략된 짜임새 있는 구도로 인물 중심의 풍속화를 주로 그렸다.
신윤복	양반층의 풍류나 남녀 간의 연애, 향락적인 생활을 주로 그렸다. 가늘고 유연한 선을 즐겨 사용했고 치밀한 주변 배경 묘사로 주제를 부각시키며 산뜻한 색채 표현이 두드러진다.
김득신	김홍도의 영향을 받았으나 배경 표현을 좀더 자세히 나타냈으며, 해학적인 인물들의 정서를 실감 나게 잘 표현하였다.

심화 자료



단원풍속화첩(김홍도) – 보물 제527호

● 구성과 표현 기법

스물다섯 장면이 25첩으로 구성된 화첩으로 종이 바탕에 수묵과 옅은 채색으로 그렸으며 크기는 각각 세로 27㎝, 가로 22.7㎝이다.

● 형식과 특징

이 화첩 그림들의 구도는 주변의 배경적 설명을 간단하게 처리하고 풍속 자체에 역점을 둔 인물중심으로 구성되어 한층 박진감 넘친다. 특히 원형 구도 등을 이용하여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회화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의의와 영향

『단원풍속화첩』은 조선 후기 활기차고 건강한 서민들의 삶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김홍도의 절제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선묘로 통일감 있는 화면을 구성하면서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풍속화의 회화성을 한 단계 높였다. 이같은 풍속화첩의 제작 전통은 이후 김득신, 신윤복 등의 후배화가들뿐만 아니라 19세기 말~20세기 초까지도 시정의 화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제 1 부

미술의 기능 미술과 언어

나를 비추는 거울, 몸

몸을 통해 사람의 본질을 표현한 작품을 이해한다.

우리 몸은 나와 세계를 연결하는 매체이자 삶의 구체적인 장소이며, 생각과 행동의 근본으로서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중심이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고찰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많은 미술 작품에서 우리의 몸은 작품의 주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작가들은 인간의 몸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통찰을 보여 준다. 또한, 사회와 문화, 시대에 따라 다른 몸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게 한다. 특히 실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이미지로 소통하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몸의 정체성에 대한 전통 개념이 흔들리고 변화하였다. 실체가 없는 이미지, 원본도 없이 반복적으로 복제되고 변형되어 재소비되는 신체 이미지들은 이 시대의 소통 방법을 잘 드러낸다. 과학과 첨단 기술에 의한 이러한 소통 방식은 우리 몸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준다.

몸을 주제로 표현한 작품의 탐색은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된다.

조 사 우리의 몸을 주제로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 작품을 조사해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

1 **윤두서**(한국/1668~1715) **자화상** 종이에 채색, 38.5×20.5cm, 국보 제240호

2 **김홍도**(한국/1745~?) **마상청앵도** 종이에 수묵 담채, 27.4×23.5cm, 보물 제1973-1호

1 **초상화**(肖像畫) 종이에 채색, 43×32cm/96세기 작 조선 역대 명현의 초상을 모아 엔든 화첩의 일부이다. 우리의 전통 초상 표현에서는 인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전신사조'라 하여 같은 마나 주인공의 정신세계까지 표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2 **김홍도**(한국/1745~?)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 종이에 수묵 담채, 105×100cm/1986년 작 조선 시대의 정승 황 희정 그린 이 작품은 내 개의 눈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김홍도만 역사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희적인 모습뿐 아니라 그가 가진 정신적 사상의 깊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의 결여와 부조리 앞에 눈을 부릅뜬 그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듯하다.

1 **윤두서**(尹斗緖/1668~1715) **자화상**(自畫像) 종이에 수묵, 38.5×20.5cm/국보 제240호 조선 후기 문인화가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이다. 강한 눈빛과 굳게 다문 입술에서 학자로서의 기개와 의지가 느껴진다. 옷은 간략하게 처리하였으나 얼굴은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2 **김홍도**(金弘道/1745~?)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 종이에 수묵 담채, 27.4×23.5cm/보물 제1973-1호 조선 후기 화가 김홍도가 그린 작품으로 말을 타고 가는 선비가 버드나무 가지 너머로 들려오는 꾀꼬리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1 **윤두서**(尹斗緖/1668~1715) **자화상**(自畫像) 종이에 수묵, 38.5×20.5cm/국보 제240호 조선 후기 문인화가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이다. 강한 눈빛과 굳게 다문 입술에서 학자로서의 기개와 의지가 느껴진다. 옷은 간략하게 처리하였으나 얼굴은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2 **김홍도**(金弘道/1745~?)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 종이에 수묵 담채, 27.4×23.5cm/보물 제1973-1호 조선 후기 화가 김홍도가 그린 작품으로 말을 타고 가는 선비가 버드나무 가지 너머로 들려오는 꾀꼬리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1 **클랭**(Klein, Yves/프랑스/1928~1962) **인체 측정학** 천에 염료, 캔버스 위에 160×270cm/1962년 작 몸에 인공을 칠한 모델들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바닥에 깔린 종이 위에 몸을 이용해 표현한 작품이다. 인간의 몸 자체가 창작 행위의 주체이자 매체가 된다는 클랭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2 **서옥순**(한국/1966~) **트라우마** 부직포와 혼합 재료/높이 180cm/2013년 작 바느질하는 여성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몸이다. 어린 시절 기지고 있던 트라우마에 대한 느낌을 감상에 젖은 듯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3 **워홀**(Warhol, Andy/미국/1928~1987) **자화상** 실크 스크린/각 101.5×101.5cm/1986년 작 예술가의 자화상은 몸의 표현을 통해 작가의 정신과 작품 세계를 보여 주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워홀의 자화상은 그가 직접의 주제로 삼았던 대중적인 이미지와 같은 형식을 취하므로써 그의 예술적 주제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실크 스크린 기법을 활용하여 기계적 반복을 이루어냄으로써 자신의 자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부정하였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현대 대중 사회의 소비문화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한 예이다.

몸은 많은 예술가는 회화와 조각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표현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작품을 통해 인간의 몸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의미는 물론 그 작품 속 인물들의 삶까지도 조명해 볼 수 있다.

초상화는 특정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표현하는 회화 장르로서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표현 방법 중의 하나이다. 동 · 서양의 시대를 막론하고 초상화는 중요한 회화의 한 장르로서 수많은 작품이 제작되었으며, 왕이나 권력자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많은 초상화가 제작되었는데, 특히 우리의 선조는 초상을 통해 주인공의 내면 모습까지 나타내고자 노력하였다. 인물이 가지고 있는 형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함에 있어 닫힘까지 정확히 포사하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신세계까지 나타내고자 하였다. 우리는 초상화 작품을 통해 표현된 인물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프란체스카(Francesca, Piero della/이탈리아/1416~1492) **문타펠트로 공작과 공작 부인의 초상**(목판에 유채/각 42×30cm/1465~1470년 작 두 인물을 그린 초상화는 보통 인물들의 근계를 강조해 나타낸다. 그런데 한 두 인물을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은 강해을 통해 하나가 된 가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배경에 그려진 넓은 풍경의 풍경은 이들의 부를 암시한다.

용 어 전신사조(傳神寫照) '영상을 통해 정신을 전한다'는 의미로 인물의 외형 모사에 그치지 않고 그 인물의 고매한 인격과 정신까지 나타내야 한다는 초상화론이다.

정리
- 몸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을 나타낸 작품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특징을 보여 준다.
- 조선 시대 초상화는 인물의 외형뿐 아니라 내면 모습까지 표현하고자 하였다.

평가
1. 몸을 표현한 작품의 주제와 의미를 이해하였는가?
2. 몸을 다룬 작품들이 가진 시대 · 문화적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였는가?

나를 비추는 거울, 몸

교과서 pp.24~25

● 단원 설정의 이유

몸은 많은 미술 작품에서 작품의 주제가 되어 왔으며, 작가들은 인간의 몸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을 나타낸다. 또 그러한 작품 속에는 작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작가가 살아온 시대의 사회적 특징이 담겨 있다.

이 단원에서는 여러 화가의 자화상을 통해 자기 표현 형식에 따른 작가의 자아의식과 감정, 시대 상황 등을 읽어 본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을 다각도로 탐구하여 특징을 시각화하는 시간을 가져 봄으로써 자신과 서로의 내면세계를 발견하여 소통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이해	자화상의 의미와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표현	자화상을 알고, 자신의 모습과 내면의 주제를 살려 표현해 본다.
감상	작품 속에 나타난 몸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 개인의 삶과 사회적 특징을 살펴본다.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언어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몸을 통해 사람의 본질을 표현한 작품을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다양한 참고 도판,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교과서, 필기도구, 여러 가지 채색 용구와 재료	
수업 모형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실기 평가,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몸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 – 인간의 몸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을 탐구한 작품들을 감상한다. – 작가가 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의도를 읽고, 개인의 삶과 사회적 특징을 함께 살펴본다.	·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전개	◎ 다양한 주제의 자화상 탐색하기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마인드맵을 통해 구성해 본다. –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탐색해 본다. ◎ '나'를 주제로 표현해 보기 – 자신의 외형적 특징이나 가치관, 미래의 모습, 내면세계 등 자신의 정체성을 다각도로 탐구하여 시각 이미지로 표현해 본다.	· 자신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정리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타인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를 비교해 본다.	· 서로의 내면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평가 관점	• 자화상의 의미와 표현 방법에 대해 이해하였는가? •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여 적절한 표현 재료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 다양한 미술 작품에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한 표현 의도를 살펴보았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클랭(Klein, Yves/프랑스/1928~1962) 인체 측정학(천에 염료, 합성 수지/274×301cm/1961년 작)

이 작품은 이탈리아 영화 감독인 구알티에로 자코페티의 다큐멘터리 '세상의 여인들'(1962)을 위해 제작된 작품이다. 작품은 먼저 클랭이 붓을 사용해 이젤에 그림을 그리면, 롤러와 스펀지를 가지고 커다란 천에 클랭의 그림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벌거벗은 모델이 '살아 있는 붓'이 되어 그림을 그렸다. 그는 이 영화의 원작 시나리오는 만족했지만, 결국 영화는 그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의 동의 없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후 클랭은 1962년 칸 영화제에 '개 같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 인체 측정학은 작가의 작품으로 가득 찬 방 중앙에 놓인 커다란 유리판 위에서 완성되었다. 클랭의 미술 행위에 대한 관객들 반응은 환상적 혹은 충격적이라는 것으로 양분되었지만, 그의 이러한 연극적인 특성은 이후 인체 예술과 더불어 퍼포먼스 아트의 선봉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워홀(Warhol, Andy/미국/1928~1987) 자화상(실크 스크린/각 101.5×101.5cm/1985년 작)

초상화가로서 워홀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실크 스크린 초상화로, 600명이 넘는 모델들을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웠던 남자와 여자를 16mm 미(未)사용 영화 필름에 슬로 모션으로 촬영한 4분짜리 '스크린 테스트(screen tests)'를 500점이나 제작하였다. 그의 초상화 대상들은 발레 무용수와 록 뮤지션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스포츠 스타까지 다양하다. 그림의 재료로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라는 일상적인 매체를 사용하였다. 워홀은 대중적인 신문 잡지, 영화, 그리고 미술사의 전통적인 규범으로부터 차용한 것들로 작품을 완성하였다.

또한, 워홀은 냉정한 관찰자로서 사진과 영화가 사람들의 현실 인식에서 행하는 눈에 띄는 역할에 일찍부터 주목해 왔다. 비행기 추락과 피로 물든 인종 폭동, 시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납게 공격하는 경찰 등의 정치적인 작품들은 워홀의 대표작인 유명인과 상품의 이미지만큼이나 중요한 작품들이다.

프란체스카(Francesca, Piero della/이탈리아/1416~1492) 몬테펠트로 공작과 공작 부인의 초상(목판에 유채/각 47×33cm/1467~1470년 작)

몬테펠트로는 군사적인 성공으로 부를 축적하여 나폴리의 왕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전투에서 한쪽 눈을 다쳐 자신의 흉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얼굴의 측면을 초상화로 나타냈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 정치가들이 초상화에서 즐겨 사용하던 인물 표현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것은 동전이나 메달 등에서 현대에까지 쓰이기도 한다.

작품에서 남자의 초상은 멀리 있는 배경에 비해 부리부리한 눈과 코의 묘사가 강하고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그에 비해 아내의 초상은 머리 장식과 옷 무늬 등이 얼굴 표정보다 돋보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화려한 장식품들을 통해 남편의 부유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 정치가의 이상을 시각화한 작품으로, 마주 보고 있는 초상화 뒤에 이들의 덕성을 나타내는 설명과 그림이 함께 있는 양면화이다.

참고 자료

● 자화상의 어원과 의미

인물을 그리는 초상화(portrait)는 'portray'의 어원인 라틴 어 'protrahere(프로트라헤레)'에서 유래하였다. '끄집어내다, 발견하다, 밝히다'라는 의미가 담긴 'protrahere' 앞에 '자신'을 뜻하는 'self'를 붙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그리는 그림'인 자화상(self-portrait)이 만들어졌다. 결국, 자화상은 자기 자신을 끄집어내어 자기 마음을 발견하고 내면세계를 밝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초상화와 전신사조

조선 시대 초상화의 특징을 '전신사조'로 일컫는데, 전신사조(傳神寫照) 사상은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의 형상 재현에 그치지 않고, 그 인물의 인격과 정신까지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양의 화론은 그림이 단순히 외형을 닮게 그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대상의 전신까지 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일찍부터 대두하여 이후에 동양화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전신사조'의 정신이 나타나게 되었다. 육조 시대 고개지는 이러한 전신사조론을 주장한 최초의 화가이자 이론가이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전신사조의 정신이 잘 구현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신사조 인물화이다. 그 옛날 우리의 초상화가들은 초상화를 그릴 때, "머리카락 한 올도 닮지 않으면 딴 사람으로 보인다(一毫不似 便是他人)."는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하여 인물 모습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려내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는 섬세한 수염 하나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옛 화가들은 그러한 치밀성과 조심성으로 초상화를 그렸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모델의 내면 심리와 인격, 나아가 사상까지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윤두서(1668~1715/한국) 자화상(지본 담채/38.5×20.5cm/1710년 작)



살아 있는 문화 공간

교과서 pp.26~29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언어	차시	❶②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주변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관람하고, 미술 문화를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미술관, 박물관, 작가의 생가에 대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활동지		
수업 모형	이해 및 감상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연구 보고서법

● 단원 설정의 이유

미술관은 사람들에게 미술 문화를 누리고 미술을 매개로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날 미술관과 박물관은 단순히 전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 행사와 교육 등 대중과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작가의 생가에 미술관을 설립하여 주변 문화 공간이 하나의 감상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 스스로 미술 문화를 누리기 위한 대상 장소를 찾아,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미적 태도와 미적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이해	주변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탐색한다.
감상	미술관, 박물관, 작가의 생가를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심미적 태도를 기른다.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참고 자료 감상하기 – 지역의 미술관, 박물관, 전시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와 체험, 교육 등을 다양하게 살펴본다. –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좁게는 지역, 넓게는 해외 미술관까지 다양한 자료를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전개	◎ 다양한 미술관, 박물관 탐색하기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미술관, 박물관에 관해서 알아본다. – 미술관, 박물관이 하는 일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본다. – 미술관과 박물관을 방문하여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방법을 익힌다. ◎ 작가의 생가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공간을 살펴보기 – 지역의 문화 공간과 작가의 삶 속에 나온 작품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한다.	· 학교 행사와 연계하여 미술관, 박물관 탐방을 기획할 수도 있다. · 작가의 생가는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학습할 수도 있다.
정리	◎ 감상 태도와 미적 안목 기르기 – 주변에서 미술 문화를 접하여 미적 체험의 기회를 높이고, 감상을 통해 미적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스스로 감상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관점	• 주변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탐색해 보았는가? • 미술관, 박물관, 작가의 생가를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덕수궁 미술관

1938년에 일본이 덕수궁 석조전 서관을 미술관 용도로 건립하였던 것을 1946년 해방 이후 이왕가 미술관은 덕수궁 미술관으로, 총독부 박물관은 국립 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1969년 경복궁에서 개관한 국립 현대 미술관이 1973년 덕수궁 미술관으로 이전하였고, 1986년 과천으로 본관을 옮긴 이후 1998년 국립 현대 미술관의 분관으로 재개관하였다.

덕수궁 미술관은 처음부터 미술관 용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서양 화랑의 선례를 따라 가운데에 중앙 홀이 있고, 양쪽에 날개가 달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층으로 나누어진 전시 공간은 각 층마다 2개의 전시실을 가지고 있어 모든 전시를 관람하려면 복도와 계단을 거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근대 미술 발전의 터전이 되었던 곳으로 다양한 기획전과 소장품 전시회를 비롯해 조사 · 연구 · 출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을 위한 작품 설명회, 강연회, 교육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덕수궁 미술관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 회고전, 롭스&뭉크 2인전, 피카소와 모던 아트전 등을 통해 우리에게 걸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국립 중앙 박물관

1909년 창경궁 제실 박물관을 연 것이 국립 박물관의 시초이다. 1915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개관하였으며 1945년 해방 직후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인수하여 국립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1972년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정식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금까지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986년 구 중앙청 건물을 개수하여 중앙 박물관을 이전 및 개관하였다. 이후 2005년 용산 미군 헬기장 철수로 신축 이전 개관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길이 404미터, 최고 높이 43.08미터의 건물로 지어졌다. 박물관 내부에는 어린이 박물관과 야외 전시장이 별도로 있다. 30만여 점(2012년 1월 기준)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6개의 상설 전시관(선사 · 고대관, 중 · 근세관, 기증관, 서화관, 아시아관, 조각 · 공예관)에서 1만 5천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해외 박물관 대여 유물 및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개최되는 기획 전시실과 어린이 박물관이 있다.

루브르 박물관

1190년 지어졌을 당시에는 요새에 불과했지만 16세기 중반 왕궁으로 재건축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1793년 궁전 일부가 중앙 미술관으로 사용되면서 루브르는 궁전의 틀을 벗고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후 5세기 동안 유럽 외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한 회화, 조각 등 수많은 예술품은 오늘날 30만 점가량에 이른다. 전체를 다 돌아보려면 며칠은 걸리므로 관심 있는 작품이 있으면 그 위치를 파악해 미리 동선을 짜두는 것이 좋다. 루브르 정문에는 유리 피라미드가 설치되어 있다. 1989년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에이오 밍 페이'가 설계한 유리 피라미드는 건축 당시 큰 반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루브르의 상징으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각각의 전시관은 지하에서 3층까지로 이뤄져 있고, 지역과 시대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므로 가능한한 같은 층에서 다른 전시관으로 옮겨 다니며 감상하는 것이 편리하다.

참고 자료

- **미술 작품 감상의 목적**

다양한 조형 작품을 통한 미적 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작품의 감상을 통해 작가의 사상이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다양한 표현 기법과 재료의 활용을 통해 창의적인 표현을 이해하고 미적 안목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길러진 미적 안목을 통해 미술 감상을 생활화하여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 **미술관, 박물관이 하는 일과 큐레이터와 도슨트**

큐레이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홍보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항상 예술 작품과 함께하는 직업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자세와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또한 작품의 보호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전시 기획에 치밀함이 요구된다. 미술, 문화, 역사, 언어 등 작품에 관련된 학문에 통달하여야 한다. 큐레이터는 미술관과 작품을 조화시키는 총괄적 운영자로서 예술에 대한 학문적 지식, 비평가적 안목, 폭넓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도슨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의 여러 특징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미술품을 수집하고 관리, 보존, 연구한다. 또한 작품을 전시하여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한다. 그러기 위해 관람객들이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미술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미술에 관한 교육을 한다.

- **박물관에 가기 전에 할 일 알아보기**

첫째, 관람할 전시를 찾아보고, 어느 박물관에 갈 것인지 정한다.

전시 공간	실내	미술관, 갤러리(화랑)
	실외	야외 조각 공원, 공공 미술(벽화나 상징물) 공간
전시 기간에 따라		상설 전시, 임시 전시
표현 수단에 따라		실물 전시, 영상 전시, 동력 전시, 음향 전시, 체험 전시

둘째, 전시장의 위치와 시간, 가는 방법, 준비물 등을 알아본다.

셋째, 전시된 작품에 대하여 미리 조사한다.



지역의 문화 공간, 작가 미술관

최근 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작가를 기념하기 위하여 작가의 고향과 활동하던 지역에 미술관을 설립하거나, 작가가 생활하던 장소를 수리하여 작가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작품의 소재가 되었던 장소 자체를 미술관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미술 작품에는 작가가 생활하던 장소의 정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작가 미술관이나 생가, 작품 소재가 된 장소 등은 지면 속 미술 작품과는 다른 감동을 준다. 더불어 지역민들에게는 유대감과 긍지를 북돋아 주고 살아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1 장욱진 고택(경기도 용인) 이곳은 작가가 노년을 보낸 곳으로 삶의 공간과 작업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2 장욱진 고택 건물 내부 그의 작품과 다른 미술품 전시 장소로 쓰인다.
3 장욱진(한국/1917~1990) 나무와 새(캔버스에 유채/34×24cm/1957년 작) 한국화와 서양화의 기법을 남나들며 우리의 전통을 현대에 접목시켜 조형적 가능성과 독창성을 구현하였다. 동화, 전설, 이웃 등 친근한 소재를 단순하면서도 대담한 구성으로 그려 냈다.
4 박수근 나무(강원도 양구) 수령 300년의 이 느릅나무는 박수근이 학창 시절 그림의 소재로 삼았던 나무로 그가 어린 시절 화가의 꿈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던 나무이다.
5 박수근 미술관(강원도 양구) 박수근의 예술관과 인생관을 가리는 동시에 지역 대표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그의 생가터에 건립되었다.
6 박수근(한국/1914~1965) 노상(하드보드에 유채/13×30cm/1962년 작) 시퍼재고리를 입고 장기에 앉아서 쉬고 있는 두 여인의 이야기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한국적인 소재를 서민적 감각으로 표현하였다.

이 해 우리 지역의 미술 공간을 찾아서 지역의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작가의 체취를 느껴 보자.

28

알고 가기 |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

미술관과 박물관은 다양한 물품을 전시하고 이를 통하여 관람자들과 문화적 소통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 문화적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관과 박물관에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다.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자

큐레이터 도슨트 미술 복원가

큐레이터	'학예 연구관' 또는 '학예 연구사'라고 하며,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 작품이나 유물을 구매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유물과 미술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람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의적인 기획 능력을 갖춰야 한다.
도슨트	'가르치다'라는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말로, 지식을 갖추고 안내한다는 의미이다. 관람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전시된 유물이나	미술품, 작가, 전시 기획 의도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사람이다. 도슨트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이나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미술 복원가	미술 복원가는 유물이나 미술품이 손상되었을 때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술 복원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이나	문화재에 대한 지식은 물론 고고학과 화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생각과 탐구 | 미술관 관람

미술 작품 관람 방법과 주의 사항을 익히고, 미술관을 관람해 보자.

관람 전
- 전시 작품, 작가 등에 관해 사전 조사한다.
- 전시 안내문이나 자료를 보고 전시 이해를 높인다.

전시 관람
- 오디오 가이드나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한다.
- 중요하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메모한다.
- 안내 동선에 따라 전체적으로 본 후에 세부적으로 감상한다.
- 감상 학습지나 활동지가 있으면 작성하면서 감상한다.
- 관람을 마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다시 보거나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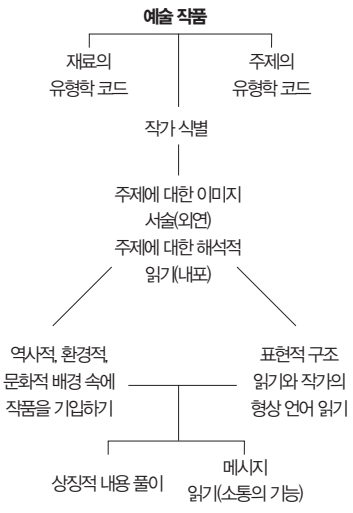
관람 후
- 전시장에서 보았던 내용을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정리한다.
- 전시 내용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관련지어 본다.
-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찾아본다.
- 좋았던 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 느낀 점 등 감상 내용을 서로 이야기한다.

정리 ● 미술관은 미술 문화 경험의 공간으로서 미술 작품을 매개로 다양한 정보, 전시 안내, 설명을 통한 시각적 체험을 기본으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는 공간이다.

평가 1. 미술관의 의의와 역할을 이해하였는가?
2. 주변의 미술관을 관람하고, 지역의 미술 문화를 이해하였는가?

29

참고 자료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장욱진

장욱진은 1918년 1월 충남 연기군 동면에서 그 지역의 대지주 가문의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시 · 서 · 화에 안목을 지니고 아이들에게도 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장욱진의 고모의 권유로 가족은 서울로 상경했는데, 그가 7살이 되던 해에 부친이 타계한 후에는 고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그림에 남다른 재능과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장욱진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39년 일본 동경의 제국미술학교(지금의 무사시노 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입학하였고, 1943년에 9월에 졸업하였다. 유학하던 당시 일본 상황은 중일 전쟁을 필두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전시 체제 기간이었다.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장욱진은 해방을 맞았다. 1947년 그는 김환기, 백영수, 유영국, 이중섭 등과 함께 〈신사실파〉를 결성한다. 아카데미즘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요소의 현대적 번안을 연구한 모더니스트들의 모임에서 그들은 작품에 열중하였다. 이 시기에 장욱진은 자신의 고향과 관련된 향토적인 내용들을 많이 그렸다.

1950년, 그의 나이 34세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보다 이상화된 세계를 동경한 그는, 작품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색감이 선명해지고 형태도 더욱 간결하고 정돈되어 갔다. 작품의 내용도 이전 시기의 향토성을 뛰어 넘어 이상적인 세계, 혹은 탈속적인 공간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시기의 작품들은 한결 평화롭고 서정적이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고향 충청남도 연기군으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 심신의 안정을 회복하여 대표작 자화상(1951년 작)을 제작한다. 이 작품에서 표현된 풍요로운 논의 풍경은 현실과 반대되는 풍경이었다. 화면의 평화로움과 한가함은 전쟁으로 빼앗겨 버린 현실과 비교됨으로써 역설적인 힘이 실렸다. 이 시기부터 작가의 태도는 현실 상태에 대한 반작용을 이상적 상태라는 역설적 방향으로 펼쳐가게 된다. 전쟁이 끝난 후 1954년 서울대학교 미술 대학 교수로

취임하지만 6년 만에 사임하고,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에 화실을 마련하여 12년 동안 작업을 지속했다. 이 시기의 작업들은 추상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작업으로 남은 작품들이 많지 않다. 이후 1975년에는 덕소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 명륜동으로 돌아온다. 이 당시에는 수묵 유화풍의 화면이 기조를 이룬다. 유화의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문인 산수화풍의 느낌이 난다. 1980년부터는 수안보에서 풍류적 정취를 확고히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거처한 곳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의 한 고택이었다. 그의 나이 70세 되던 1986년의 봄의 일이다. 5년간 이곳에서 평생에 걸쳐 제작된 작품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작품을 완성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도 이 시기에 한 작품이다. 이 시기에는 관념적 풍경화를 구성하는데, 여기서 관념성은 그의 후기 작품 세계의 중요한 경향을 이루고 있다.

박수근

박수근은 강원도 양구에서 보통 학교 시절을 보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일에 취미가 있었다. 박수근이 18세 되던 1932년, 제 11회 선전에서 '봄이 오다'라는 제목의 수채화 작품이 입선되었다. 이것은 박수근에서 커다란 용기를 주어, 그 자신이 화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기에 그는 너무 가난했다. 가난이 연속되고, 지병이 있던 어머니는 그가 21세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려운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고, 그때 간간히 목탄화를 그리며 미술에 대한 애정을 키워 나갔다.

박수근 예술의 독자성은 그가 정식 아카데미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창출한 데 있다. 재료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형식을 창출해 낸 박수근의 그림은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다. 박수근의 작품에서는 관습적인 화목인 누드나 정물 따위를 볼 수 없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는 인물을 다룰 경우 어떻게 한다든지, 풍경을 다룰 때 어떤 구도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규범을 찾기가 힘들다. 그는 작품 초기부터 다양한 색상을 구사하지 않았다. 그의 색상에 대한 체감의 빈곤은 아카데믹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서 오는 기법상의 제약과 관계가 있다. 대신 색채에 대한 제약을 형태에 대한 집착으로 승화시켰다. 그가 남긴 데생은 유화 작품에 비례한다. 대부분의 데생은 종이에 연필로 한 것이다. 박수근이 충실한 데생을 걸쳐 작품을 완성해 간 작업 방식은 대상에 대한 충실한 관찰의 자연스런 귀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료에 대한 제한도 곁들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수근의 독자적 기법의 성숙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50년대 중반에 와서다. 마티에르가 서로 엉겨 붙어 깊이로의 탄력을 지니기 시작하면서 향토적 정서의 조형화가 더욱 선명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5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상은 검은 윤곽선으로 처리되고 내면은 일률적인 색채로 처리되었다.

화면 자체가 극히 평면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50년대 중반에 오면서는 두껍게 쌓아올려진 색 층을 통해 깊은 뉘앙스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마티에르는 서로 응고되면서 구조화되어갔다. 만년의 작품에서는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마멸된 화강암의 표면을 보는 것 같은 거친 질감만이 남은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옛 석물, 즉 석탑 · 석불 같은 데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원천을 느끼며, 조형화에 애쓰고 있다."고 한 작가의 말에서도 소박한 색 층을 통한 깊이의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옛 석물이 지니는 소박한 미감은 바로 박수근의 작품에 겹쳐진다. 그의 작품이 우리들에게 친숙해 질 수 있는 요인은 다름 아닌 이 소박한 미감의 공감대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수근이 양구보통학교(초등학교) 시절 자주 그렸던 나무



화강암으로 제작된 묘화비('서민화가 박수근 기념비')

● 미술 작품 읽기

미술 작품을 보려면, 우선적으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작가(이름, 성, 출생 및 사망 연도)
제목
연도(제작 연도)
크기
장소(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
제작 기법
작품의 장르

사용된 기법과 재료에 따라 작품마다 코드가 다르다 : 회화, 조각, 건축 혹은 응용 미술 등등

각각의 코드는 하위 코드로 더 자세히 구분된다. : 유채, 수채 등, 대리석 조각, 나무 조각 등

작품은 내용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종교화, 세속화, 신화화, 역사화, 우의화,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등

정보들을 수집한 후에 주제에 대한 서술적 읽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와연적 읽기는 작품에 재현된 것들을 서술하는 것이다.

읽기의 다음 단계인 해석적 읽기는 내포적 읽기이다.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작품에서 메시지와 역할, 즉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이 제작되었던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 구조를—즉 작가가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형태들의 언어를—읽는 것은 기본적이다. 사실 예술적 가치란 작가가 색채와 선과 공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법(조각), 건축적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 있다.

마찬가지로 작품 해석에는 상징적 형상들이 지닌 의미에 대한 지식이 자주 요구된다. 작가들은 어떤 특별한 이미지들을 처음 보기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상징을 풀어내는 것은 작품의 해석을 매우 풍부하게 한다.


미술 자료실 미술의 기능 미술과 언어

작가의 공간 산책

고흐의 마을, 오베르 쉬르 우아즈

파리 인근의 작은 시골 마을 '오베르 쉬르 우아즈(Auvers-sur-Oise)'는 고흐가 마지막 생애를 보낸 곳이며, 동생 테오와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저곳은 고흐 가넘관으로 바뀐 고흐의 집과 '까마귀가 나는 밀밭'의 소재가 된 들판, 그림 속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오베르 교회 등 마을 곳곳에 고흐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듯하다. 그 때문에 화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생한 감동과 그의 체취를 느끼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의 생활 공간과 작품의 소재가 되었던 공간이 살아 있는 미술관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1 오베르의 교회 1340기 고딕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이곳은 1890년 고흐가 오베르 쉬르 우아즈의 교회를 그릴 때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그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2 고흐의 동상 고흐 공원 안에 세워 둔 동상은 그가 살아생전 이곳 풍경을 누비며 그림을 그렸듯 등에 화구를 메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3 '까마귀가 나는 밀밭'의 배경이 된 들판 고흐의 마지막 작품인 '까마귀가 나는 밀밭'의 배경인 이곳은 관광으로 자신의 가슴을 쏜 장소이다. 그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운 곳이다.

4 모네의 집 붉은 벽돌과 초록 창틀, 담장이덩굴에 뒤덮인 모네의 집은 아름다워 한눈, 일본 그림 전시장 등이 있다.
5 모네Monet, Claude/프랑스/1840~1926) 수련 연작으로 유채지름 80cm/1908년 작) 모네가 남긴 수백 점의 수련 연작 중 하나로 원형의 그림틀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한 수련과 수련을 자유롭고 화려한 색 터치로 표현하였다.
6 지베르니 연못 모네가 남긴 대작을 낳고 조성한 연못으로 그는 시간 나는 대로 이곳의 풍경을 화목에 담아 수련 연작을 남겼다.

모네와 지베르니

지베르니는 파리 외곽의 시골 마을로 모네가 1883년부터 안착해 살다가 1926년 세상을 떠난 곳이다. 온통 꽃밭으로 조성된 이곳은 모네가 살았던 집과 그가 조성한 거대한 정원이 있다. 정원에는 일본식 아치형 다리를 설치하고 연못에 수련을 심어 화려한 색채의 꽃밭을 만들었다. 정원의 화려한 색채는 그의 작품에 많은 영감을 주어 정원을 소재로 약 250점의 그림을 그렸다. 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수련 연작의 대부분도 이곳에서 완성했다. 모네에게 지베르니의 정원은 색채의 변화무쌍함을 그려 내는 자연의 팔레트이다.

현재 그의 정원은 모네 박물관으로 지정되어 수많은 미술 애호가와 여행객이 방문하여 그의 흔적과 숨결을 느끼고 있다.

이중섭 거리

이중섭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1년 가족을 데리고 서귀포에 거주하게 되었다. 불운한 시대를 살다 간 천재 화가 이중섭은 서귀포에 거주하면서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넉넉한 고장 인심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짧은 기간의 서귀포 생활이었지만 그의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곳의 지역 사회에서는 그의 높은 창작 열의와 불멸의 예술성을 우대하기를 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1 이중섭 미술관 매우도 서귀포 이중섭을 기념하기 위해에 그가 서귀포에서 생활하던 초가 앞에 작가의 예술혼을 기념하고 시민의 고이 예술의 발자취를 공감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2 이중섭 문화 거리 이중섭 미술관 주변의 거리 곳곳에 그의 작품을 장식 부엉고 화분과 벤치 모두 이중섭의 그림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디자인되었다. 차 없는 거리로 선포하여 마음 행사 이외에도 많은 공연과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이중섭전 각각의 - 1951 물고기와 노는 세 아이들의 연필, 유채(25×33cm/1952~1953년 작 물고기와 노는 아이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를 간순한 형태와 대담한 필촉으로 담아내고 있다.

4 김환기 생가현재 안채와 전통 가옥이 근대로 들어서면서 사채 변화에 따라 심플적으로 변경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는 한옥이다.
5 안채도 마을 벽화 김환기의 생가가 있는 안채도 마을 일대에는 그의 작품을 재해석한 벽화로 단장하여 그의 자취를 느끼게 한다.
6 김환기전(1913~1974) 매화와 항아리(캔버스에 유채/53×38cm/1956년 작 우리나라 전통적 소재인 매화와 항아리를 단순화시켜 도상화하고 간결하게 추려 낸 화풍을 표현하였다.

김환기 마을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146호로 지정된 김환기 가옥은 한국의 대표적 서양화가로 우리나라 전통미를 현대화시키는 데 주력한 김환기가 태어난 곳이다. 이 가옥은 안채와 사랑 1채로 구성되어 있다. 김환기는 안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화실은 그가 작업하던 곳이다. 두 건물은 건축적 측면을 포함하여 한국의 대표적 사양화가 김환기의 생가로 그 존재 의미가 크다.

김환기의 작품 세계를 널리 알리고 미술시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그의 작품이 마을 벽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또 그의 생가가 있는 안채도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과 교류를 통한 현대 예술 창작의 산실로 개발하고자 김환기 국제 미술 제전이 열리기도 하였다.

30 31

미술 자료실

고흐와 오베르 쉬르 우아즈

고흐는 생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날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비교적 늦은 27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단명했지만 2,000점 이상의 작품을 남겼다. 화가로 활동하던 짧은 기간에 폴 고갱과 같은 다른 화가들과 공동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양식을 만들었고, 때문에 그는 프랑스 후기 인상주의를 선도한 화가로 인정받고 있다.

1890년 4월 말, 고흐는 생레미의 정신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 그 후 그는 파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베르 쉬르 우아즈라는 시골 마을로 이사했고, 그 지방 의사 폴 가셰가 그를 돌보았다. 이 무렵 그의 작품에 대한 미술계의 관심은 대단할 정도는 아니지만 증가하고 있었다. 동생 테오는 '붉은 포도밭'을 400프랑에 팔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흐의 불꽃은 꺼지기 시작했다. "나는 실패감을 느껴."라며 그는 오베르에서 동생에게 편지를 썼다. "이것은 나에 대한 평가야,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고, 이젠 더 이상 바뀌지 않아. 야망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

1890년 7월 27일 그는 오베르의 들판에서 작품 '나무뿌리'를 그린 후 가슴에 총을 쏘았다. 작품에 대한 열정은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았음이 분명하지만, 이제 더 이상 삶에 집착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발작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처자식이 딸린 동생 테오에게도 자신을 향한 야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테오에게 가시 같은 존재라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아마도 그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을 것이다. 파리에서 고흐의 작품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었던 테오는 6개월 후 마비성 치매로 사망했다. 베르나르가 고흐의 작품을 파리에 놔두어야 한다고 간청했음에도 테오의 부인 요한나는 그의 컬렉션을 가지고 네덜란드로 돌아갔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고흐의 작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고흐의 인생이 작품의 성공만큼이나 주목 받기 시작하자 1914년에 형제의 편지를 책으로 냈다.

모네와 지베르니

모네는 1883년 파리에서 64km 떨어진 시골 지베르니로 이사를 한다. 이곳에서 모네는 스스로 '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라 칭했던 '수련 연작'을 그리게 된다. 처음 이곳에 이사했을 때 모네는 비오는 날 그림의 소재로 삼을 셈으로 몇 포기의 꽃을 심었는데, 그것이 1890년부터 정식으로 정원을 가꾸기

시작해 '처녀림 같은 미묘한 색조'를 만들고자 등나무, 버드나무, 대나무 등을 심기 시작했다. 매일 정원사가 와서 연못의 수련을 손질했다. 심지어 수련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고자 매일 수련 꽃을 물로 씻었다고 한다.

모네는 자신이 정원 가꾸기와 그림 그리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말할 정도였다. 1911년부터 모네는 자신의 정원만을 그리게 된다. 모네는 연못의 크기를 점차 늘렸고 더불어 자신의 작품 크기도 늘려 높이 1.8m, 길이 4.2m로 3폭의 화면을 하나로 만든 작품을 그렸다. 모네의 '수련' 연작은 색조와 빛의 변화를 과학적이며 객관으로 기록했다. 이 작품 속 등장하는 물, 하늘, 꽃 같은 정적인 대상은 생생하고 활기찬 화가의 붓질로 미세한 떨림 효과를 나타내면서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다가온다. 수련 이미지는 일시적인 순간을 포착했지만, 그 순간은 압도적인 의미를 지닌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는 물이 초점이 되는 이 풍경이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변모하며, 강하고 거대한 무엇이라는 느낌을 전해 준다.

백내장 때문에 그의 시력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그가 그린 수련도 갈수록 흐릿해져 마침내 물과 반사광이 혼합되어 형체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추상주의의 선조가 되는 새로운 종류의 회화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는 "이 그림의 주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정수는 매순간마다 변화하는 수면의 반사광이다. 수면에 반사되는 하늘 덕분에 빛과 움직임의 느낌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중섭과 제주도

이중섭은 1916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죽었다. 그의 생애는 불과 40년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의 많은 작품이 없어져 오늘날 남아 있는 작품들은 대충 1950년부터 죽은 해인 1956년까지 7년 사이에 그린 그림뿐이다. 그는 생전에 단 한 번의 개인전을 가졌다. 이 개인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거의 전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아동은 그의 두 아들인 태현과 태성이고, 가족은 문자 그대로 그의 아내를 포함한 가족이다. 이중섭의 제주도 생활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서귀포의 환상', '길 떠나는 가족' 등이 있다. 6 · 25 전쟁 중에 원산에서 처자를 거느리고 삶과 예술의 자유를 찾아 남하한 이중섭은 1951년 봄부터 연말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참담한 피난 생활을 보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처음으로 접한 서귀포의 남국적인 풍광과 귤나무들의 이국적인 풍경에 표현 충동을 자극 받았다. 그의 독특한 동심적 충동은 화면 구사에 수용한 것이 '서귀포의 환상'이다. 멀리 작은 섬들이 떠 있는 짙푸른 바다를 넓게 횡단시키면서 화면 위로 귤이 매달린 귤나무 가지를, 밑의 지면에는 아이들이 잔뜩 따놓은 귤들이 널려 있는가 하면, 그것을 큰 바구니에 주워 담는 아이, 들것에 담아 나르는 아이, 하늘을 보며 땅에 누워 있는 아이, 귤이 달린 가지를 찢어 내리는 애들이 그려진다. 날아드는 흰 갈매기를 잡아 탄 아이, 입에 귤을 하나 문 갈매기 등이 이중섭 특유의 표현 수법으로 전개되어 있다.



서귀포의 환상(나무판에 유채/56×92cm/1951년 작)

김환기와 작품 세계

한국적 서정주의를 서구의 모더니즘에 접목하여 독보적인 예술 시계를 정립한 김환기는 선명한 민족 정취를 세계인이 공감하는 정제된 조형 언어와 명상적인 색감으로 구현하여 뉴욕과 파리 등 세계 예술의 중심지에 이름을 알렸다. 김환기는 1913년 남도의 작은 섬마을에서 출생하였는데, 1930년대 일본 동경으로 유학하여 당시 전위적인 활동의 하나였던 추상 미술을 시도한다. 1950년대에 이르러 산, 달, 매화, 달항아리 등 우리의 자연과 전통 기물에 담긴 아름다움을 주요 소재로 더욱 밀도 높고 풍요로운 표현으로 한국적 정서를 아름답게 조형화하였다. 1956년 파리라는 미술의 거대한 국제 무대에서 화가로서의 혼신의 열정을 집약시키며 자신의 예술 세계에 한국적 시정신(詩精神)을 정립하게 된다. 상파울로 비엔날레 특별상을 수상한 1963년 뉴욕에서의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 김환기는 점 · 선 · 면의 순수 조형 언어로 내밀한 서정의 세계를 심화시키면서 한국적 서정 추상 미술을 널리 알리게 된다. 한국 추상 미술의 선두 주자로서 한국 최초의 미술 동인 모임인 〈신사실파〉 그룹을 만들어 자신들이 추구하는 추상 예술의 의도가 사실의 발현을 목적하는 것이며, 추상적 표현의 본래 의도 또한 사실의 새로운 표현임을 명백히 하려 하였다.

교과서 단원정리

1 |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는 미술

① 자연은 조형을 창조하는 근원이며 인간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낀 감동을 조형물에 담아내려 노력해 왔다.
②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 살아가는 자연환경이 다르므로 다양한 미적 개념과 조형 의식의 차이가 있다. 지역별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은 건축물이나 생활용품의 형태나 구조, 재료 등에 반영되어 계승되어 왔다.
③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미와 조형미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쾌적하고 풍요로워진다.

2 | 사회와 소통하는 미술

① 미술은 인류의 문명 발달과 동시에 그 역할과 기능을 달리하여 왔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는데, 그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재현하는 미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미술: 개인이 가진 내면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
- 형식미를 추구하는 미술: 조형 요소와 원리의 균형 있는 구성으로 형식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
- 사회 의식을 표현하는 미술: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관점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것

② 미술은 미와 실용의 목적 이외에도 사회를 반영하고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③ 영상 중심의 정보화 시대를 맞은 현대에서는 영화,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컴퓨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다.

3 | 생각을 담은 시각 언어

① 시각 언어는 미술이 사용하는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며, 시각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 언어: 인간의 사고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기초 체계임.
- 문자 언어: 문자 형식을 체계화한 것
- 시각 언어: 시각적 요소(시각 이미지)를 체계화한 것

② 작가들은 빛, 색, 형태, 질감, 선, 공간 등의 시각 언어와 시각적 도구들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 언어를 창조한다. 따라서 시각 언어는 작품을 구성하는 조형 요소와 원리를 포함한다.

4 | 함께 누리는 시각 문화

① 시각 문화는 '시각'과 '문화'가 합쳐진 말로 문화적 내용을 담은 시각 이미지이다. 즉,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생각이나 가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과 사물로 표현한 모든 조형물을 말한다.
② 시각 문화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며, 같은 지역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다.
③ 스트리트 퍼니처란 '거리의 가구'라는 뜻으로 거리, 공원, 광장 등에 설치된 우체통, 공중전화 부스, 안내판, 가판대, 택시나 버스 정류장 표시물 등을 말한다.
④ 공공 미술 프로젝트는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적 소통을 중요시한다.

5 | 삶을 담아낸 미술

① 미술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모습을 담고 있다.
② 민화와 풍속화에는 당시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삶과 시대정신이 담기어 있다.
③ 민화는 18세기 이후에 성장한 서민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 줌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미의식, 조형상의 특성, 색채 감각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
④ 민화는 일상적인 생활과 밀착되어 집 안 곳곳의 문, 벽장, 병풍, 벽 등에 장식되거나, 세시 풍속과 같은 행사용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나쁜 귀신을 막는 주술적인 성격의 액막이 그림으로도 그려졌다.

이해	소재
장수	바위, 거북, 불로초, 국화, 대나무 등
다산	석류, 포도 덩굴, 연꽃 등
벽사	호랑이, 삽살개 등
부귀영화	모란, 금붕어 등
신년 송축	소나무와 불로초 등
평안한 노후	갈대와 기러기, 새우 등

⑤ 풍속화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의 정경을 소재로 나타낸다. 풍속화를 통해 시대를 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다.

6 | 나를 비추는 거울, 몸

① 작가들은 인간의 몸을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탐구해 왔다.
② 사회와 문화, 시대에 따라 몸의 해석이 달라진다. 따라서 작품 속 몸의 표현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특징을 동시에 보여 준다.
③ 자화상은 자기 자신을 끄집어내어 자기 마음을 발견하고 내면세계를 밝히는 작업이다.
④ 초상화는 특정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표현하는 회화 장르로서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표현 방법 중 하나이다.
⑤ 조선 시대 초상화는 인물의 형상 재현에 그치지 않고 그 인물의 인격과 정신까지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것을 전신사조(傳神寫照)라고 한다.

7 | 살아 있는 문화 공간

① 미술관은 사람들에게 미술 문화를 누리고 미술을 매개로 소통할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 설명을 통한 시각적 체험 등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는 공간이다.
② 박물관은 유물을 발굴, 수집, 보관하며 복원 · 연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전시회, 강연회, 견학, 대출, 제작 실습, 전문적인 출판물 간행 등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미술관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등 미술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전시를 통해 관람자에게 올바른 미적 가치를 판단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미적 안목을 길러 주는 역할을 한다.
④ 최근에는 작가의 고향과 활동하던 지역에 미술관을 설립하거나, 작가가 생활하던 장소를 수리하여 살아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교과서 단원평가

1 다음의 〈보기〉에 제시된 내용 중 동양과 서양의 정원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정원 문화는 민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ㄴ. 우리나라 정원은 자연미보다 인공미를 추구했다.
ㄷ. 정원은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를 통해 조성한다.
ㄹ. 프랑스식 정원에서는 인공적 조형미를 찾기 힘들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시각 문화 미술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온 후 작성한 아래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 중 바르지 <u>않은</u> 것은?

① 거리에 활기를 준다.
② 공공 미술품의 일종이다.
③ 시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④ 순수 미술을 벤치에 접목했다.
⑤ 작품이라 사용은 불가능하다.

사진 보고서



· 작품명: 비스킷 나눠 먹기
· 작가명: 구본주 (1967~)

3 미술관 작품 관람 전 해야 할 활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직접 작품을 감상한 느낌을 서로 이야기한다.
② 전시장에서 보았던 내용을 감상 활동지에 정리한다.
③ 전시 작품과 작가, 전시 주제 등에 대해 사전 조사한다.
④ 안내 동선에 따라 전체적으로 본 후에 세부적으로 감상한다.
⑤ 관람을 마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다시 보거나 정리한다.

4 오른쪽과 같은 자연 미술 작품의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점이 <u>아닌</u> 것은?



① 자연환경을 훼손하여도 괜찮다.
② 완성작은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긴다.
③ 작품의 재료는 직접 수집하는 것이 좋다.
④ 주변의 자연을 살펴보고 작품을 구상한다.
⑤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

5 민화와 풍속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치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답 1② 2④ 3③ 4① 5 평가 도움 참조

평가 도움

1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를 통해 조성되는 정원 문화는 민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정원은 인공미보다는 자연미를 극대화했기 때문에 은 맞지 않는 설명이며, 프랑스식 정원은 인공적 조형미가 잘 나타나 있기에 ㄹ의 설명도 맞지 않다.

2 제시된 작품은 순수 미술 작품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와 접목한 공공 미술품이다. 따라서 ④의 작품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바르지 않은 해석이다.

3 미술관 관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시회 관람 전에는 전시 작품이나 작가, 전시 주제에 관해 사전 조사하여 전시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좋다.

4 자연물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할 때는 주변의 자연을 살펴보고, 작품의 재료를 수집해야 하며,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 특히,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야 한다.

5 민화와 풍속화를 통해 당시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삶과 시대정신을 알 수 있다.



색채의 활용

교과서 pp.32~35

● 단원 설정의 이유

색채의 활용은 색채의 상징성과 연관이 깊다. 색채의 사회적 상징은 민족과 지역,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색채의 상징성과 언어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색채 언어, 색채 문화, 색채 행동 등으로 연결되어 색채 마케팅 전략에 활용되며, 각국의 국기 색채나 기업 상징에 사용되는 색은 색채의 사회성과 상징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단원에서는 색과 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미술 작품에 표현된 색채를 살펴보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기르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이해	색의 시각적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색채의 효과에 대한 예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표현	색의 느낌을 이용하여 지하철의 색채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계획해 보자.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언어	차시	①②③❹⑤⑥⑧
학습 주제	색의 성질과 기능에 따른 활용을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교과서, 학습자료 등		
수업 모형	이해 · 및 토론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참고 작품을 제시해 전통 색채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 시대별 · 지역별 · 주제별 · 소재별로 다양한 색채의 기능을 감상하게 해 소재의 다양성과 효과의 특징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한다. – 색채 활용의 특징과 의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학교 주변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의 색을 찾아 서로 분류하고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전개	◎ 작품 속의 색 설명하기 – 고흐, 고갱, 카라바조, 모네의 작품을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보여 준다. – 전통 오방색에 대해 의미를 알고 적용 사례의 자료를 감상한다. – 색채가 마케팅에 적용된 사례를 생활 주변에서 찾아보고 발표한다. ◎ 학습 활동 – 생활 주변에 일관성 있게 적용된 색채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자료를 보여 준다. – 주조색과 기대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지 질문한다.	· 색이 가지는 명도, 채도, 색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연물의 색과 인공물의 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정리	◎ 활동지 작성하기 – 색의 특성은 문화를 형성하고 상징적 의미가 있다. – 색의 성질과 느낌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 활동지의 작성을 통하여 생활 속의 색을 발견하고 체험한 것을 정리하도록 한다.
평가 관점	• 색의 성질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였는가? •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색의 다양한 활용을 이해하고 표현하였는가?	

신호등 나무(영국)

영국 런던 카나리 워프(Canary Wharf) 시내에 설치된 공공 미술인데 프랑스 작가 피에르 번트(Pierre Vivant)의 작품이다. 이 작업은 '신호등 나무'라는 제목처럼 나무 흉내를 내는 신호등이다. 1998년 제작 당시의 런던 지역의 재개발 공사로 인한 공해 때문에 죽은 나무가 신호등으로 환생한다는 착상을 표현하여 푸른 숲의 초록색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고흐

항상 어둡고 우울한 그림만 그리던 그는 우연히 인상파의 아름다운 색채와 화려한 일본 미술을 접하게 되고 그것이 그의 화려하고 밝은 색채를 쓰는 계기가 된다. 이후 폭발할 듯한 다양한 색감들을 캔버스에 펼쳐내며 많은 작품을 그려냈다.

고갱

인상파 그림에 만족하지 않고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하고 소박한 원시적인 생활에 반했던 고갱은 원주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며 그들의 모습을 화려한 색채로 화폭에 담아내었다. 대담하고 투박하며 단순한 형태와 선명한 색의 작품들로 피카소 등 후배 화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카라바조

빛과 어둠을 이용해 인물 하나하나에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표현한 그의 작품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모든 불이 꺼진 극장 안에 핀 조명만을 받고 있는 배우들을 감상하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든다.

모네

자연의 표정에 따라 밝은색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팔레트 위에 물감을 섞지 않는 대신 색채의 분할 등 인상파 기법의 한 전형을 개척한 화가이다. 같은 작품도 빛과 색감을 관찰하며 시간별로 다르게 각각의 느낌을 작품으로 그려냈다.

감정과 효과

색은 시각을 통하여 지각하는 지각적 현상임과 동시에 감각을 통하여 하나의 감정을 수반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색채 감정은 개성과 환경,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감정을 갖게 한다.

색채의 대비

모든 색은 각각 저마다의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색이 인접해 있을 경우나 서로 다른 색을 연속해서 볼 경우 서로 다른 색과의 관계로 느껴진다. 어떤 색이 다른 색의 영향을 받아서 본래의 색과는 다른 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색채의 심리 효과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색채의 대비 효과와 색채의 동화 효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색채의 공감각

색채는 형태, 소재와 함께 대표적인 감각 현상 중 하나로, 인간의 다른 감각들과 연상을 띄고 있다. 즉 색채와 다른 감각간의 교류 현상은 자극을 받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에 전이되어 반응하는 현상으로, 이를 공감각이라 한다. 또한 공감각 현상은 인간이 느끼는 감각 기능 중 미각, 후각, 청각, 촉감과 색채와의 연관된 특성을 의미한다.

● 색의 역사

빨강(Red)

원시의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는 두 번째 색이다. 원탁의 기사시대에는 빨강 색이 피를 나타내는 색이었고, 자연히 생명을 상징하였다. 그 후에는 불을 상징하였으며, 따라서 위험성과 관련지으며, 사랑, 원기, 활동력의 상징이다.

노랑(Yellow)

중국인들에게는 신성하게 여겨졌으며, 이집트인과 그리스인들에게는 중요한색으로 노랑은 점차 힘(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노랑은 예수의 사제들 주위에 모여든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사용을 꺼리는 색이었다. 중국의 황제들은 노란색 옷을 입을 수 있는 '독점권'을 소유했다. 노랑은 그들과 그 왕족들이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색이었기 때문에 일반백성들이 노란색 옷을 입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다.

파랑(Blue)

인류학자들은 파란색이 현생인류 이후 수 천 년 동안 단독으로 분류되어 인식되지 못했다고 추정한다. 기원전 5000년경까지 파랑은 검정의 일종으로 여겨졌다. 한편, 헤브라인 들은 파랑과 보라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았다. 파랑은 행복, 희망, 진실, 명예, 거리 등의 상징이다.

초록(G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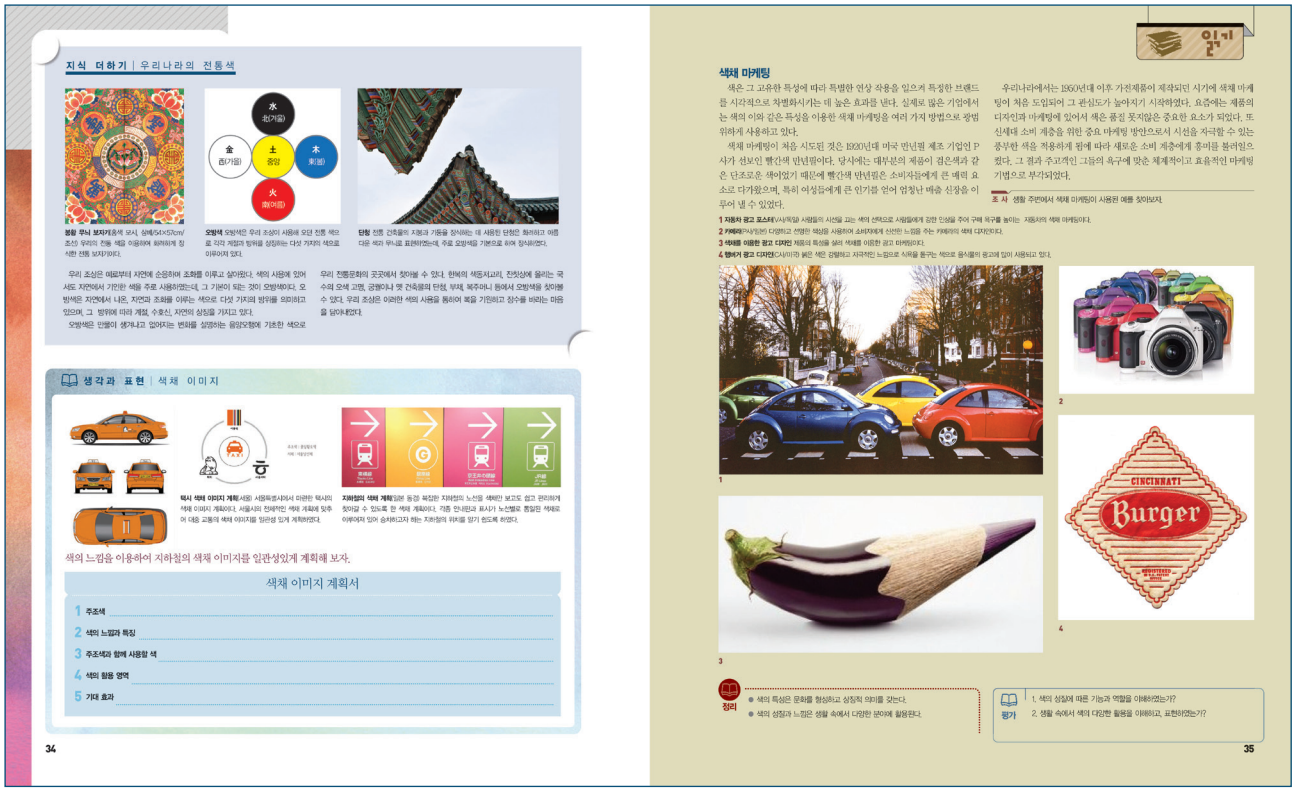
초록은 이교도들의 종교의식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후 로빈 후드와 그 부하들에 의해 차용되어, 그들의 생명과 힘을 대표하는 색이 되기도 하였다. 초록은 생명, 봄, 희망, 시기심을 상징한다.

검정(Black)

검은색은 인간이 인식한 최초의 색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검정은 빛이 전혀 없거나 빛을 모두 흡수하므로 색이 없다. 고대 그리스문명의 시민국가시대(BC.1000~322경)에는 하루가 어둠으로부터 탄생했기 때문에 검정이 생명을 상징하였다. 16C 경에는 영국의 앤 왕비가 애도를 위해 검은색을 사용하였고, 이런 연관성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검정은 또한 악, 늙음, 침묵의 상징이며 강하고 세련된 색이다.

흰색(White)

과거에는 수의의 색으로 쓰였으며, 고대 로마와 중세프랑스에서는 죽음을 애도하는 색이었다. 흰색은 순결, 순수, 믿음, 평화, 행복을 상징한다. 순백이 아닌 흰색은 깨끗한 느낌을 더 해주기 때문에 집안의 장식에 폭넓게 사용된다.



생 각 과　표 현

● 색채 이미지

1. 주조색

주조색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체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배색으로, 가장 넓은 면을 차지하여 전체 색채 효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을 가미하여 결정한다.

보조색은 주조색 다음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색으로 25% 정도의 사용을 권장한다. 보조 요소들을 배합색으로 취급한 것으로 통일감 있는 보조색은 변화를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강조색은 디자인 대상에 악센트를 주어 신선한 느낌을 만드는 포인트 같은 역할을 하며 5% 정도 주조색, 보조색과 비교하여 색상을 대비적으로 사용한다. 명도나 채도에 의해 변화를 주는 방법을 선택한다.

2. 색채 이미지의 기대 효과

이미지의 형성은 그 대상의 실체 파악에서 비롯되어 인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식되어 떠오르는 것으로, 시각적 의미만이 아닌 심상적 의미를 함께 내포한다. 다시 말해 이미지란 인간의 얻게 되는 모든 정보가 심리 및 형태와 작용하여 기억 속에 남게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오방색

오방색은 단순한 빛깔로서의 색만이 아닌, 방위와 계절을 나아가 종교적이며 우주관적인 철학관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행에 따른 오방색을 용도와 신분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황(黃)은 오행 가운데 토(土)로 우주중심에 해당하고 오방색의 중심으로 가장 고귀한 색으로 인식되어 임금만이 황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 청(靑)은 오행 가운데 목(木)으로써 동쪽에 해당하고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으로 창조, 생명, 신생을 상징하며,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백(白)은 오행 가운데 금(金)으로 서쪽에 해당하고 결백과 진실, 삶, 순결 등을 뜻하며 우리 민족이 흰옷을 즐겨 입는 원인이기도 하다. 적(赤)은 오행 가운데 화(火)에 상응하며 만물이 무성한 남쪽이며 태양, 불, 피 등과 같이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정, 적극성을 뜻하며 가장 강력한 벽사의 빛깔로 쓰여졌다. 흑(黑)은 오행 가운데 수(水)에 상응하며 북쪽이고 인간의 지혜를 관장한다.

단청

우리나라 단청의 색조는 건물의 구조적인 표현성을 높이게 적용되었고, 다채로운 보색 대비로 원색적이고 화려하면서도 색을 규칙적으로 반복처리하여 색조의 율동과 조화를 이루어 낸 것이 특징이다. 즉 한색과 난색을 엇바꾸면서 색의 층단을 구성했고, 보색 대비와 명도 차이에 따라 색의 면적을 달리했으며, 층단식 바림법에 의한 대범한 명암 효과를 내었다.

색채의 이미지

도시가 고유의 색채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도시의 이미지를 분명히 설정하는 일종의 하나이며, 도시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도시의 색채 계획의 방향에 따라 전체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변화가 유도되어야 한다.

색채마케팅

제품의 선택과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색채이다. 색을 판매 포인트로 하는 컬러 마케팅은 색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제품 선택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수를 색에 정해서 구매력을 결정짓게 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1. 색채 마케팅의 목적

'자신만의 고유색을 만들어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쉽게 유행색을 쫓아 실패한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2. 색채 마케팅의 효과와 장 · 단점

장점	단점
①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확립 ② 제품과 브랜드의 연계 및 통합성 ③ 감성적 소구에 따른 인지력 강화 ④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경제성 ⑤ 매체별 일관성 유지로 시너지 효과 창출 ⑥ 매체간의 타깃에 따른 전환 용이 ⑦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 개선	①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위험 부담 ② 초기 이미지 구축시기 시간 소요 ③ 정확한 효과 측정의 어려움 ④ 지속적 관리와 일관성 유지의 어려움 ⑤ 유사 컬러에 대한 차별화 및 이미지 혼돈 ⑥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에 따른 민감성 ⑦ 사회 현상과 주변 환경에 따른 효과 차이

3. 색채 마케팅의 전략

1) 색채 심리와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

– 소비자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는지 중요하다.

– 그 시대의 상황과 사회적 트렌드를 파악한다.

2) 시각적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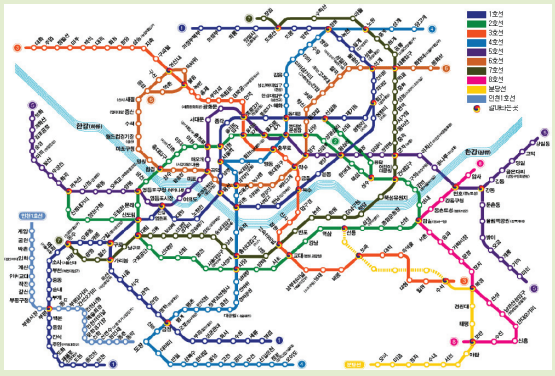
– 상품이 좋고 싫다는 판단의 60~90% 컬러에 의해서 좌우된다.

3) 지속적 통합적 관리

– 컬러가 주는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촉각, 미각, 청각, 후각 등 오감을 적절히 가미한 공감각적 컬러 이미지를 극대화한다.

색채 계획

색에 대한 이미지와 느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색채 감성은 지역과 문화 기후의 영향을 받아 특수한 이미지로 고착되며 그 색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서울지하철 노선도

지하철 노선의 수가 증가되면서 컬러는 노선을 구분해 주는 역할과 함께 노선의 디자인에서 전체적인 컬러 조화와 정보 전달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 색채 마케팅의 사용된 예

색채만으로도 제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코카콜라 마케팅 사례이다. 코카콜라는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 나라의 특색을 살려 광고를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전략은 대표 브랜드 이미지인 '레드 컬러'이다. 태양을 상징하듯 젊음과 열정의 빨강을 주조색으로 두고 흰색 로고를 부각해 멀리서도 브랜드의 이미지를 쉽게 전달하고 있지만, 경쟁 브랜드의 이미지를 쉽게 전달하고 있지만, 경쟁 브랜드인 펩시콜라는 반대 이미지를 가진 파란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코카콜라(좌), 펩시콜라(우)

컬러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정유업계이다. 자신만의 브랜드와 컬러로 소비자들에게 인식하고 있다.



SK는 빨강



GS 칼텍스는 초록



현대 오일뱅크는 파랑



쌍용의 S-OIL은 노랑



정보를 담은 시각전달 디자인

교과서 pp.36~39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언어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시각전달 디자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교과서, 실습 자료, 표현 재료 등		
수업 모형	이해 및 표현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실기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참고 작품을 제시해 시각 디자인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 시각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광고 디자인, 포장 디자인 등 다양한 예를 감상한다. – 시각 디자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체험하게 하며 장단점을 분석한다.	· 기능성이 강조된 디자인 사례와 독창적인 표현이 강조된 사례를 보며 토론한다.
전개	◎ 시각 전달 디자인 – 국제적으로 공통된 언어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일러스트레이션 –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하여 개성을 살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다. ◎ 광고 디자인 – 건전한 생활 문화 조성을 주제로 함께하는 포스터를 제작한다. ◎ 포장 디자인 – 제품의 정보나 성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포장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제작한다.	· 각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에 따라 이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주관적인 표현에 머물지 않도록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유도한다.
정리	◎ 활동지 작성하기 – 동료 학생의 작품을 보면서 그 장단점을 토론하고 자신의 작품과 비교해 본다. –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게 하는 디자인에 대하여 토론해 본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보는 사람들의 느낌을 서로 이해하고 생각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관점	• 목적과 조건에 따른 정보를 담은 시각 전달 디자인의 특징을 알아보았는가? • 생활 속에서 시각전달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가?	

● 단원 설정의 이유

시각 디자인은 정보를 시각에 호소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정보화 시대에서 시각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역 또한 점점 넓어지고 있다. 오늘날 시각 디자인은 과학의 발달과 그 영역이 인쇄에서 입체 조형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지시적, 설득하는, 상징적, 기록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래픽, 전시 디자인의 매체의 성격을 목적에 맞게 표현함으로써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 학습 목표

이해	생활 속에서 시각전달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표현	생활 속에서 시각전달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전달 디자인

1. 시각전달 디자인의 목적과 기능

다양한 그림 기호는 문자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세계인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그림 문자로 생활에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제공항, 거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준다. 또한 심벌마크의 모티브는 기업의 경영이나 기업 자세, 사업 내용, 회사명이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기업만의 독특한 역사, 전통, 인물 등 다양한 방법을 단순화된 이미지를 통해 표현된다.

2. 시각전달 디자인의 상징성

· 심벌은 기업의 통일성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며 회사나 기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 단체의 심벌은 공공성을 생각하여 명쾌하고 친밀감이 있는 것이 좋다.

· 도형이 심벌로 사용되는 것은 트레이드 마크, 교육 기관, 기업, 공공 단체 등의 심벌마크 등이 있다.

3. 시각전달 디자인의 기능

· 안내: 일반이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기능

· 명령: 행위 유도의 기능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

4. 시각전달 디자인의 조건

· 구성이 간결해야 하고 심미성이 요구된다.

·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 모든 사람이 쉽게 공감하고 대중적이어야 한다.

5. 시각 디자인의 조형적 요건

· 형태가 단순하고 독자성이 있어야 한다.

· 미적인 아름다움과 모든 매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캐릭터 디자인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기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할 때 단순하고 친근한 그림을 자주 등장하게 된다. 캐릭터와 만화는 상징화된 이미지의 전달 기능과 친근감이 강하여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또한 기업, 단체, 행사, 제품 등 특징 대상의 성격에 맞는 시각적 상징물을 캐릭터라 하며, 그 대상과 표현의 영역은 광범위하고 심벌 마크와 구별해 사용한다.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공모전 수상작(2013) / 양하나

캐릭터를 통해 신라 문화재를 홍보하고 신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제작됐다.

● 일러스트레이션

1. 일러스트레이션 정의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돕는 모든 종류의 드로잉, 다이어그램 혹은 이미지를 총칭하는 말이다. 시각 디자인의 한 분야로서 전문성을 띤 일러스트레이션은 출판, 광고와 같은 인쇄매체를 통하여 어떤 목적이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표현한 일체의 그림을 말한다.

2. 일러스트레이션 표현과 방법

• **빛**: 삽화는 눈을 위한 형성을 의미

빛과 형과의 관계는 명암이라는 기법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사물의 고유색이나 예리한 윤곽선보다도 빛과 그림자, 빛과 어둠이 사물의 형태에 미치는 미묘한 변화에 따라 형체감, 깊이감들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 **색**: 명도 · 채도 · 색상

명도는 색에 있어서 빛의 정도(명암의 정도)이며, 채도는 일정한 색조의 색에 있어 회색의 함유량에 따라 정해지는데 회색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순색이라 한다.

• **선**: 형태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

소묘처럼 색과 분리되어 독립된 분야를 가질 수 있다. 선은 형의 윤곽 색이 존재할 뿐 아니라, 면의 성격을 결정하고 방향을 지시하며 때로는 약간의 선을 이용하여 생각지 못했던 변화를 하게 하는 등 화면 전체의 효과에 이바지할 때가 많다.

• **형**: 점 · 선 · 면 · 입체

일정한 사물의 형태에 관해서 윤곽, 내부형, 구조형 세 가지 현상형태가 있다.

• **원근법**

선원근법: 대상은 우리의 눈에서 멀어질수록 작게 보인다. 3차원적 연장을 갖는 공간을 평면 위에 나타내기 위한 보다 단순한 표현방식으로 하나의 대상으로 더욱 멀리 있는 다른 대상의 일부분을 가리는 것이다.
공기원근법: 대기 공간의 작용으로 대상이 눈과 멀어짐에 따라 따뜻한 색이 푸른색에 가까워지고 윤곽이 불명료하게 되며, 명도가 낮아지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원근감을 나타낸다.
색 원근법: 같은 평면 위의 색이라도 붉은색, 노랑계통의 색은 전진해 보이고, 청색계통은 후퇴적으로 느껴지는 점이다.
역원근법: 동양이나 비잔틴 회화 등에서 사용되는데, 평행선을 앞쪽을 향해 단축해, 소실점이 지평선상이 아니라 관찰자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는 방법이다.

• **구성, 구도**

삽화에서의 화면 구성을 구도라고 말한다. 구도란 화면 위의 여러 형상의 배치, 원근법, 명암, 색감 등을 고려하여 화면에 밀도나 긴장도가 높은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 만화의 특징

· 표현하고자 하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에 맞게 과장 또는 변형 생략하여 이미지를 표현한 그림이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림과 문자를 함께 사용하여 전달력이 빠르다.

· 작가의 과장된 모습이나 생략된 표현으로 상상력과 흥미를 유발한다.



생 각 과　표 현

● 생활 문화 속 포스터

1. 포스터(Poster) 디자인

영어의 포스트에서 유래된 말로서 그 뜻은 기둥이나 벽에 붙이는 게시물을 뜻한다. 대표적인 인쇄 광고 매체로서 일정한 지면 위에 그림, 사진, 문안 등을 통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이다.

2. 포스터의 종류

- 문화 행사 포스터: 연극, 영화, 음악회, 전람회 등 모든 행사의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는 포스터이다.
- 공공캠페인 포스터: 대중을 설득하거나 통일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포스터이다.
- 상품광고 포스터: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판매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관광 포스터: 관광 동기와 욕구를 유발해 관광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 장식 포스터: 1925년 파리에서 열린 현대 산업과 장식 예술의 국제 박람회에서 장식 포스터를 의미하는 '아르데코'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 신문 광고 디자인: 신문 구독자층을 중심으로 흥미를 유발하며야 하며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문자와 이미지를 사용한다.
- POP 광고: 소매점의 점포 안이나 점두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광고 메시지를 말한다.

광고 디자인

1. 광고 디자인 의미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중에게 널리 알려서 그 상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잠재된 고객을 환기해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것이다.

2. 광고 디자인의 종류

– 광고의 4대 매체: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 인쇄 매체: 신문, 잡지, DM, 포스터 등

– 전파 매체: 라디오, TV 등이다. 입체 광고는 옥외 광고, 교통 광고, POP 광고 등

포스터 표현 방법


대비



역설

대비는 포스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모순에 의한 대비, 형태의 대비, 강약의 대비, 전쟁과 평화의 대비, 결합한 대비 등이 있다.

역설은 진리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일종의 진지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합


연상

결합은 사물과 사물, 인물과 사물 등 결합하는 이유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쉽기 때문이며 눈에 잘 띄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연상은 사람들의 선입관에 좌우되면 좋고 나쁨, 사회 규범 등 온갖 판단들은 시각과 상식에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공통적인 생각을 가진다.


반복



최소저항

반복은 단순한 반복일지라도 형태의 변화, 위치의 변화, 크기의 변화 등과 함께 표현될 때 메시지 전달력이 높아진다.

최소 지향은 포스터 디자인에서 군더더기가 일체 생략된 최소 표현이 강한 메시지를 발신할 때가 많다.

포장 디자인

1.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

제품의 얼굴인 포장 디자인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동기를 유발이나 유통의 합리화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포장 디자인은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포장 디자인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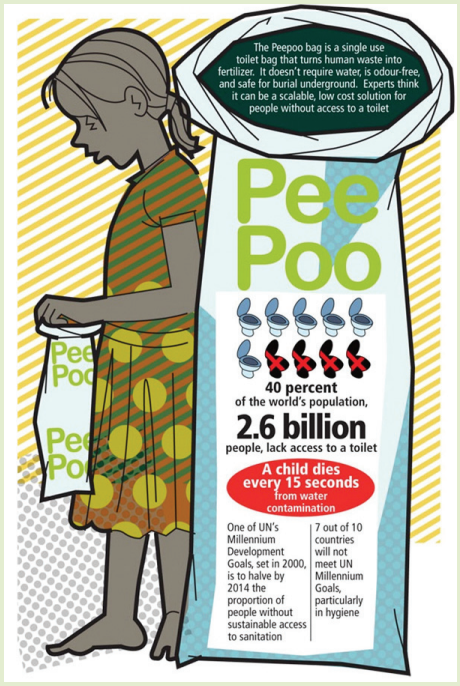
1) 보호성: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포장 방법을 찾기 위해 운반 수단, 유통 기간,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2) 편리성: 포장을 쉽게 개봉하고 보관성이 좋게 한다.
3) 상품성: 구매자의 주의력을 끄는 것은 가장 먼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상품의 포장이다.
4) 배송성: 겉포장의 형상, 치수, 중량 등을 수송, 보관과 하역에 편리하도록 한다.
5) 동기성: 매력적이고 기발한 포장 디자인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감성으로 자극하여 즐겁게 해 줌으로써 소비자가 구매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6) 재사용성: 환경 문제가 중요시되면서 포장 디자인에서도 자원의 재사용 및 폐기물 처리가 적당한 친환경 포장으로 디자인되고 있다.

에코 포장 디자인

피푸백은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이중 봉지로 되어 있는데 겉포장 재질은 자가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사용 후 배설물을 담은 봉지 전체가 물, 이산화탄소, 바이오 매스로 분해되기 때문에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안에 있는 거즈는 사용할 때 겉으로 뽑아 말면 입구를 넓게 만들 수 있다. 이 거즈는 얇은 효소 필름으로 코팅되어 있는데 배설물과 만나면 암모니아와 탄산염으로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pH(염기성)가 높아져 배설물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에 비료로 쓰기에 적합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

일반적으로 배설물이 자연에 방치되면 분해에 2~3년이 걸리는 데 반해, 피푸백 안에서는 2~4주 안에 배설물의 질병 발생 균이 무력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거로움 없이 언제든 사용 가능한 휴대용 변기 개발에 초점을 두고 1인 일회용 휴대용 위생 변기 '피푸 프로젝트'에 착수, 피푸백을 개발했다.





빌헴슨(Wilhelmson, Anderson/스웨덴/1929~)
피푸백(바이오 플라스틱/2006년 작)

● 일회용이 아닌 종이컵

종이컵 연간 생산량이 약 48,133톤, 연간 소비량이 약 120억 개나 된다. 위생을 보장하던 종이컵은 방부처리와 기타 화학 물질로 오히려 심각한 공해의 요인이 되었고 일회용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목재가 소모되면서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하루에 3잔, 1년이면 4그루 반의 나무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만든 작품으로 종이컵 입구가 지저분할 때마다 뜯어 주기만 하면 된다.



김유진(한국/1985~) **이혜선**(한국/1985~) **일회용이 아닌 종이컵**(2009년 작)

● 재활용 상자를 이용한 조명램프(네덜란드)

패키지 상자의 위와 아래를 동그랗게 뜯어내고 안쪽에 램프를 설치하면, 근사하면서도 단순한 램프가 된다.



상자 안에는 전구, 플러그, 케이블, 설명서가 전부 들어 있다.





판화의 발견

교과서 pp.40~43

● 단원 설정의 이유

판화는 인쇄술에 발전하게 된 장르로 판화의 대표적 특징은 복수성, 간접성, 고유성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장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판화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장점으로 여러 사람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현대 미술에서 판화는 전통 기법의 고유성을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미디어를 융합하여 예술에 활용되어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예술성과 과학성의 결합으로 생성된 판화는 디지털 매체와 결합하면서 '디지털 판화'라는 새로운 양식과 개념을 생성하게 되었다.

이 단원에서는 판화의 형식과 특징을 살려 표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학습 목표

이해	판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표현	판화의 특성에 맞도록 생활에 활용한다.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언어	**차시**	①②③❹⑤⑥⑧
학습 주제	판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생활에 활용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교과서, 학습 자료 등		
수업 모형	이해 및 표현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실기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판재에 따라 판화 종류와 표현 기법의 다양성을 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 판화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판화를 제시한다.
전개	◎ 작품 설명하기 – 목판화, 오목 판화, 공판화, 평판화의 작품을 제시하며 표현상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 실용성을 살린 판화 – 우리 생활에서 판화가 활용되는 예를 찾아보자. ◎ 오늘날의 판화 – 현대 판화에서 사용되는 첨단 기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 활동하기 – 공판화의 실크 스크린 기법을 이용하여 생활용품을 제작해 보자.	· 판화와 회화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 판화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이야기한다.
정리	– 판화는 복수성을 가진 회화의 한 장르로 생활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오늘날의 판화는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다.	· 판화의 특징을 이용하여 표현 활동에 적용하여 지도한다.
평가 관점	• 판화의 특징과 활용을 이해하였는가? • 판의 형식과 특징을 살려 표현하였는가?	

판화의 특성

1. 간접성

판화는 화면에 직접 그리는 회화와는 달리 판을 만들어 그림을 기기거나 그린 후 잉크를 묻혀 피 인쇄물에 찍어 내는 간접적인 표현 방법의 예술이다. 두 판의 압력에 의해 눌려 찍히게 되므로 고유의 화질이 생기게 된다.

2. 계획성

판화는 일반 회화와 달리 드로잉, 제판, 인쇄의 3단계를 거치는 독특한 제작 과정이 있다. 판을 제작하기에 앞서 이미지를 착상해 밑그림을 그리고 판에 옮겨 제판과 인쇄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한 점의 판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치밀한 구상과 계획이 필요하며 전문 기술이 요구된다.

3. 복수성

일반회화는 제작을 마치면 더 이상 동일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일회성을 가지고 있지만 판화는 판과 종이가 분리되어 복수 제작이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여러 사람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독특한 미술 장르이다. 이는 판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판화에는 대량 제작의 생산성이 내포되어 있다.

4. 고유성

판화는 크게 회화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화가가 붓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터치나 색감을 점점 덧붙여가지만 판화는 압력에 의해 찍혀지는 고유의 방식으로 회화에서 느낄 수 없는 작품이 탄생하고 작가 자신이 직접 작품을 찍어 내는 과정을 통해 흥분을 느낄 수 있다. 단순한 평면으로 보이지만 물리적 압력에 의해 생겨나는 잉크의 닫거나 판화지의 엠보싱 느낌 혹은 화학반응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효과들은 판화 작품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

판화의 예술성

현대에 들어 판화는 그 특성인 복수성과 재료와 기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더욱더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 판화라고 하면 어렸을 때 학교 미술 시간에 고무 판화나 목판화를 해본 기억이 전부일 것이다. 판화는 회화와 다른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화보다 생소하고 소수의 분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즈음 우리 주변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판화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워홀(미국) **메릴린**(실크 스크린/1983년 작)

판화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재생산과 확대를 통해 아류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예술 행위이다.

판화는 과거부터 우리와 함께 해 오며 판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시각적 의사소통에 앞장서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고 실감 나게 표현하려는 방법으로 발전되어 온 예술이라 할 수 있다. 판화 예술은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여 미적 특수성을 지닌 새로운 '소통'의 예술로 발전하여 나가고 있다. 현대에 들어 판화는 다양한 시각적 언어 구사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 판화는 그 예술성과 대중성을 매체로 하여 그 영역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판화의 역사

인쇄술의 발달은 판화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판화가 최초로 시작된 것은 정확하게 연대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인류 문명의 진화 과정에서 의사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원시적인 형태에서 근간을 찾아볼 수 있다.

1. 동양 판화의 역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인 신라 시대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되었다. 석가탑이 건립된 751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길이 약 620cm의 목판으로 찍은 두루마리로 중국 둔황 출토 금강경(868년) 보다도 110년 이상 앞섰으며 이미 이 당시부터 목판의 판각이 자리 잡혀 있었음을 보여 준다.

2. 서양 판화의 역사

유럽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화는 1380년에 제작된 예수의 수난을 묘사한 '프로타 숲'으로 섬유에 인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성화를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 목판화가 쓰였으며 이러한 목판은 이후 정신적 목적뿐만 아니라 세속적 목적으로 놀이용 카드 그림에 널리 이용되기도 했다.

● 판화의 개념

판화란 통상적으로 '판에 의한 그림'을 말하는데 '인쇄'와 '만들다' 합성어이며 하나의 표면에서 또 다른 표면으로 옮긴다는 개념으로 기계에 의존하지 않은 손에 의한 최고급 인쇄물로 해석된다. 판화는 작가에 의해서 창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판화는 인쇄와 구별된다. 이것은 복수적인 이미지 기계를 이용한 무한적으로 찍어 내는 인쇄술과 같은 개념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오리지널 판화의 정의〉

1. 작가는 오로지 자신의 판단 하에 매수와 기법을 결정지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판화 작품에는 그것이 오리지널임을 보이기 위하여 작가의 사인뿐만 아니라 전체의 에디션 매수와 함께 작품의 왼쪽 하단부에 찍은 순서대로 번호를 써넣는 일련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3. 에디션이 끝난 판은 에디션이 끝났음을 알리는 뚜렷한 마크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훼손시켜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나무판을 직접 깎거나 돌 위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등의 판화 작품에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제품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5. 복제품에는 어떠한 제약도 불가능하다.



오늘날의 판화

오늘날의 판화는 판화의 전통적인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찍어서 표현한다는 기본 원리에서 시작하여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판화는 레이저 커팅, 사진 전사, 캐스팅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첨단 기술과의 통합을 통하여 판화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으며, 제작 방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미디어, 출판 등 미술 외의 다른 분야와의 협업은 작품으로서의 판화에 또 다른 의미를 갖게 하며, 획기적인 시도와 기법과 같은 끊임없는 실험과 모색은 판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알고 가기 | 판화의 에디션

판화의 에디션(Edition)은 한 판으로 찍어 낸 작품 수를 말한다. 50장을 찍는다고 할 때 1/50, 2/50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이것을 넘버링(Numbering)이라고 하며, 작품의 아래쪽에 연필로 작품 번호, 제목, 제작 년도, 작가 서명을 적는다.

A.P Artist Proof의 약자로 A/P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작가 보관용 작품이라는 뜻이다.
T.P Trial Proof의 약자로 실험적으로 찍어보는 판이다. 판을 계속 찍어낼 여건이 되지 못할 경우 표기한다.
C.P Cancellation Proof의 약자로 더 이상 찍지 않기 위해 판을 훼손시켜 증거로 남기기 위한 표기이다.

포인트 정리
- 판화는 복수성을 가진 회화의 한 장르로 생활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오늘날의 판화는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다.

평가
1. 판화의 특징과 활용을 이해하였는가?
2. 판의 형식과 특징을 살려 표현하였는가?

42

스텐실로 거리를 장식한 뱅크시(Banksy/영국/1974~)

뱅크시는 영국 런던의 거리 예술가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의 작품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냉소적인 메시지나 자기 성찰을 주제로 하는데, 재치 있게 표현한 작품들을 거리의 벽에 그려 넣어 강렬하게 전달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고 있다.

지구 온난화, 기아, 물 부족과 같은 환경 문제나 전쟁, 폭력, 권위주의 등을 주제로 풍자·해학적으로 표현한 그의 작품들은 도시의 새로운 표정이 되었다. 그의 작품은 주로 스텐실(stencil) 기법을 이용하여 낙서와 결합된 방식으로 거리나 건축물 벽에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그래피티에 사용하는 스프레이 기법이 아닌 스텐실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원하는 형태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텐실은 판재 위에 글자나 무늬, 그림을 그린 후 모양을 오려 내고, 그 구멍에 물감을 넣어 그림을 나타내는 공판화의 한 종류이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 기발한 그림을 남기고 사라지는 뱅크시의 작품은 처음에는 범죄로 취급되었다. 기물을 파손하고 훼손하는 범죄 행위로 그의 작품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뱅크시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작품을 보려고 런던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생길 정도로 뱅크시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에 그래피티 아트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런던 시청에서는 뱅크시 작품의 위치가 담긴 관광 지도까지 제작하였다. 그가 이렇게 예술가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이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주제를 참신하고 새로운 형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거리의 문화로 치부되었던 그래피티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도 큰 의의가 있다.

용 어 그래피티(Graffiti) 건축물이나 그 밖의 벽면에 그린 그림을 말한다. 1960~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 양식으로, 이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림을 그림만한 벽만만 있으면 자신의 개성을 담아 표현하였다. 이런 거리 미술은 최근 YBA(Young British Artist)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미술 감각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국에서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43

● 판화의 종류

〈볼록 판화〉

볼록 판화는 판화의 가장 단순한 원리로 찍힐 이미지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깍어내어 볼록한 부분에 잉크를 묻혀 종이에 찍는 방식이다. 볼록한 부분에 잉크를 묻혀서 찍기 때문에 볼록 판화라고 한다.

1. 목판화

볼록 판화의 대표적 종류인 목판화는 복잡한 장비와 재료가 필요 없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판화이다. 그러나 조각칼과 나무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미지의 격은 각자의 감각과 기술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다.

2. 고무 판화

재질의 결이 없고 부드러워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잘 파진다. 볼록판화의 기초와 칼의 쓰임을 익히기 좋은 재료다.

3. 지판화

두꺼운 종이 위에 종이나 천, 실, 나뭇잎 등 오려 붙인 다음 잉크를 묻혀서 찍어 낸 것으로 두께의 변화에 따라 잉크가 묻는 곳과 묻지 않은 곳으로 형태가 나타난다.

4. 탁본화

판면에 종이를 얹어 놓고 그 위에 물감을 칠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건탁과 습탁법으로 나눌 수 있다. 건탁은 동전이나 무늬 위에 얹고 크레용이나 연필로 문지르면 무늬가 새겨지는 방법으로 프로타주와 기법이 같다. 습탁법은 판면에 종이를 얹고 종이에 물을 뿌린 후 오목한 곳을 종이도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누른 다음 조금 말랐을 때 다른 헝겊에 잉크를 찍어 이 판본에 두드리므로 튀어나온 부분만 잉크가 묻게 하는 방법이다.

판화의 특징

	볼록판	오목판	평판	공판
종류	목판화 고무 판화 지판화 탁본화	동판화 드라이포인트 인그레이빙 메조틴트 애쿼틴트	석판화 모노타이프	스텐실 실크 스크린
판의 형태				
선의 효과	강하고 힘 있는 양각 음각의 선	각종 니들로 표현된 섬세한 선	크레용, 붓, 해먹의 효과가 나는 풍부한 선	붓으로 그은 선, 칼로 잘라낸 선
인쇄 용구	목판 프레스, 바랜, 롤러	동판 프레스	석판 프레스	스퀴지 감광기
효과	칼	점과 선	농담	좌우 반전이 안 됨.
특징	혁과 색의 단순화, 흑백의 강한 대비	세밀함과 날카로운 선	회화적 표현 다양하고 밝은색 사용 가능	일반 인쇄는 힘든 바탕 처리 가능

거리의 예술가 뱅크시의 사회 비판 의식

뱅크시의 작업은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권의 권력과 권위에 대하 부정적 시각을 가지며 무정부주의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술가들은 자극하는 것은 비인간성, 착취, 현실의 고통스러운 양상들이다. 뱅크시는 사회적 집권 세력의 무분별한 권력 행위 때문에 규정되고, 억압받으며, 감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폭로하고 그 숨겨진 폭력성을 작업으로 비판한다. 뱅크시의 작업에 등장하는 권력의 대표적 이미지는 경찰, 왕실근위대, 여왕이다. 그의 작업에서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과 왕실근위대 그리고 왕관을 쓴 여왕의 모습은 모두 그 특유의 권위적이거나 품위 있는 모습과는 달리 사적 욕망이나 불법적 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왕실근위병은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옆에 총을 세워둔 채로 길가의 벽에 소변을 보고 있거나 몰래 벽에 무정부주의 마크를 낙서하고 있다. 또한 뱅크시가 가지는 제도권에 대한 비판 의식은 그들에 의해 치러지는 전쟁과 그것이 가지는 폭력성에도 주목한다. 뱅크시 작업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것을 줄기차게 되풀이되는 주제이다. 이 같은 비판 의식을 주제로 한 뱅크시의 작업은 상반된 이미지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시위대는 화염병이 아니라 꽃을 투척하고, 적진을 공격하기 위해 뜬 헬리콥터는 핑크색 리본을 달고 날아가고 있다.

뱅크시는 "이 세대의 거대한 범죄야말로 규율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규율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을 시작하고 명령에 따라 폭탄을 투하하며 마을 주민 같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사람이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뱅크시는 철저하게 '패러디(Parody)'와 '패스티쉬(Pastiche)'라는 기법을 구사하고 그것들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사회 비판적 의식을 시각화하였다. 패러디와 패스티쉬는 또 다른 말로 '비판적 패러디'와 '혼성 모방적 패러디'로 말할 수 있는데, 뱅그시의 작업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패러디 기법은 이 두 가지 패러디의 혼성 사용으로서 '비판적 혼성 패러디'라고 말할 수 있다.

뱅크시의 작품의 정신적 기초는 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주제이며, 이를 통해 부조리한 세상을 고발하고 풍자하여 현대인들에게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뱅크시의 사회 비판 의식은 그만의 독특한 이미지로 시각화된다. 뱅크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현대인들이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강화된 주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희망하는 것이다.













● 판화의 종류

〈오목 판화〉

판면을 뾰족한 도구로 파거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요철을 만들어 낸 다음 오목한 부분에 잉크를 집어넣고 표면에 있는 잉크를 잘 닦은 후에 종이를 물에 축여 동판 프레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찍는 판화 기법이다.

1. 동판화

금속을 부식시켜 오목하게 하여 판을 만드는 것에서 비롯된 이름이며 에칭이라고 부른다.

2. 드라이 포인트

판을 직접 니들로 깊이 파내는 방법으로 선이 가늘고 자유스러운 선의 표현이 가능하나 에칭에 비해서는 자유로움이 덜하다.

3. 메조틴트

메조란 말은 '중간'이라는 의미이고, 틴트는 '색조'라는 의미이다. 풍부한 톤의 변화가 많고 조절이 쉽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4. 애쿼틴트

애쿼틴트라는 말은 수채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 송진 가루를 떨어뜨리고 뒷면에 열을 주어 정착시킨 다음 질산을 접속해 부식시키는 방법이다.

〈평판화〉

평평한 그림을 그려 찍어낸 것으로 펜이나 붓의 터치 농담의 변화가 그대로 나타나고 판을 깎는 것이 아니므로 부드러운 느낌과 회화적인 요소가 가장 잘 표현되는 판화이다.

1. 석판화

석판화는 그리스 어 '돌에 그리다'에서 나온 말로서 평평한 석판에 기름을 주성분으로 한 해먹이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물을 흡수시킨 후 잉크를 묻혀 찍어 내는 판법이다. 실생활에서 각종 광고, 전단, 신문 인쇄에 활용된다.

2. 모노타이프

데칼코마니의 방법으로 찍어 내어 단 한 장만 찍어내는 판화이다. 원판에 직접 그림을 그려 잉크가 마르기 전에 급히 그려 찍음으로써 작가의 열정이 그대로 표현되며 제작 과정과 재료 등이 간편하고 쉬운 편이다.



가치를 담은 제품 디자인

교과서 pp.44~47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생활	차시	①②③❹⑤⑥⑧
학습 주제	다양한 가치를 담은 제품 디자인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교과서, 실습 자료, 표현 재료 등		
수업 모형	이해 및 표현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실기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아이디어가 좋은 작품을 제시하여 제품 디자인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 생활 주변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기능적인 예를 감상한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환경 제품을 감상한다. – 장애의 유무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용 가능한 제품 디자인을 감상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발표한다.	· 제품 디자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전개	◎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디자인 –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한다. ◎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디자인 – 기능성과 심미성을 살려 차별화된 일상용품을 디자인한다. ◎ 환경을 생각한 제품 디자인 –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특징을 가진 지속 가능한 제품을 디자인을 찾아 그 가치를 주제로 토론한다. ◎ 모두를 위한 제품 디자인 – 적은 힘을 사용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한다.	· 창의적인 자신의 아이디어가 반영되도록 계획서에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 주관적인 표현에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리	◎ 활동지 작성하기 – 동료 학생의 작품과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 살펴보고 장단점을 토론해 본다. – 차별화된 일상용품 디자인을 제작해 보고 예술적 가치에 관해 토론해 본다.	· 객관적으로 동료 학생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지도한다.
평가 관점	• 생활 속에 활용되는 가치 있는 다양한 제품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았는가? • 가치를 담은 제품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	

● 단원 설정의 이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만드는 일을 제품 디자인이라고 한다. 생활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능적인 구조와 아름다운 형태,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소품종 다양화인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다른 상품과 차별화되며 독특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고 소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을 원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생활에 쓰이는 각종 제품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제품을 창의적인 아이디어 스케치해 보고 모두를 위하고 환경까지 생각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이해	다양한 가치를 담은 제품 디자인을 이해한다.
표현	생활 속에서 제품에 불편한 점과 개선할 점을 찾아 창의적으로 디자인한다.

디자인 분야의 분류

상위 분류	하위 분류
산업 디자인	가구/사무, 문구/완구, 가전용품, 조명, 운송용품, 레져, 스트리트 퍼니처
시각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패키지, CI 및 심벌, 타이포, 편집, 광고
환경 디자인	건축 디자인, 실내 디자인, 디스플레이, 조경 및 환경
공예 디자인	금속공예, 목공예, 도자/유리, 섬유
패션 디자인	의상 디자인, 액세서리, 패션 잡화, 텍스타일
영상 디자인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사진, CF, 이벤트 디자인

실용적인 디자인

우리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제는 아이디어뿐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재료, 기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항상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버려야 한다.



면봉 케이스(2005년) **조반노니**(Giovannoni, stefano/1954~ /이탈리아) 캐릭터가 마치 면봉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게 설계되어 있다.



스파게티 계량기(2007년) **아탈라**(Atallah, Serge/프랑스) 스파게티 양을 조절하는 기구로 지름에 맞게 1~3인분까지 맞출 수 있다.

휘어지는 멀티 탭–피봇파워

퀄키 회원들이 일상 속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채택되면 퀄키의 전문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는 제품 개발과 생산을 하고 상품의 판매 수익금을 상품 개발 과정에 참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더욱 발전된 상품 개발을 하게 된다.









전자 제품의 홍수의 시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온전하게 5개의 멀티 탭을 활용할 수 있는 휘어지는 멀티 탭. 퀄키 피벗 파워는 꽤 돋보이는 제품이다.

● **디자인 역사**

18세기 중엽
산업 혁명(영국)
기술상의 혁신은 물론 사회,
경제 구조상의 엄청난 변화

↓

1860~1925
예술 공예 운동(영국)
수공예 복귀 운동,
생활 속의 예술 주장

↓

1863~1957
아르누보(프랑스_
장식, 곡선 상의 자연주의

↓

1903
세세션(독일, 오스트리아)
규칙, 직선, 기하학적 표현주의

↓

1912~1918
입체주의(프랑스)
피카소(인상주의, 표현주의)

↓

1913~1930
구성주의(러시아)
몬드리안 칸딘스키
(입체파, 미래파의 추상적 기로로 사용)

↓

1917~1920
데스틸(네덜란드)
입체파 운동을 더욱 발전시킨
기하학적 운동

↓

1918~1925
순수주의(프랑스)
장식이나 과장을 거부하고 간결,
명확한 조형 표현

↓

1907~1933
독일공작연맹(독일)
대중을 위한 운동 예술

↓

1919~1933
바우하우스(독일)
예술가와 기술인 두 교수가 민첩하게
협력하여 교육

↓

1920~1930
아르데코(프랑스)
부유함과 세련미, 우아함을 창조



● 에코 디자인

에코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 제품 기능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환경친화 디자인을 '에코 디자인'이라고 한다. 이는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장수 명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분해 재이용, 폐기하기 쉽도록 설계하고 생산 및 사용 시 에너지 소비가 적은 등, 환경에 영향을 배려하여 제품과 포장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 탄생의 원천인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것이 '에코디자인'의 핵심이다.

● 그린 디자인

그린 디자인은 에코 디자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앞서 1980년대부터 주로 환경 운동에서 비롯된 자연친화적 디자인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다. 1986년 영국의 디자인 협회에서 기획한 전시회에서 에너지 사용, 내구성, 재활용, 시장성 등을 고려한 특정 제품의 소개에서 비롯되었다.



뮐러(디자이너/Muller, Vivien/프랑스) **태양열 충전 나무**(27개 태양열 충전 판넬/30×42×40cm/2008년 작) 디스플레이 효과와 태양열 전기 충전으로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다.

환경친화적 디자인

최근에는 비싸더라도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소 세제의 경우 95%의 물과 5%의 세제가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는데, 용기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고 그 안에 담긴 물은 유통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은 탄소 발생량을 늘린다. 그래서 리플레니쉬는 물을 빼고 플라스틱 분무기와 세제 원액으로만 구성했다. 세제 원액을 분무기에 짜 넣고 물은 집에서 직접 넣어 사용하면 된다. 다 쓴 후에는 세제 원액만 갈아 끼워 플라스틱 용기도 재활용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리플레니쉬(Replenish)
간단한 아이디어로 자원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분무기형 용기는 100% 분해되는 소재로 제작했다.

지속 가능한 제품 디자인

태양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어 노트북, 넷북 등의 무선인터넷 사용자들과 PMP, 각종 휴대용 WiFi 기기를 무상으로 대중을 위해 미국의 각 도시에 배치되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전력을 공급해 준다. 전력은 꽃잎의 뒤쪽에 설치된 최신의 태양열 집열판을 통해 아래의 시트 쪽에 내장된 축전지에 저장한다.



해바라기(높이 250cm/2008년 작/영국)
안전에도 신경을 써서 자동 누전 차단 시스템이 적용되어 비 오는 날에는 감전 사고를 완벽하게 차단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4가지 원칙은 다분히 개념적이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후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가지 원칙이 수립되었다. 이 원칙은 동등한 사용, 사용의 유연성,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오류에 대한 관대함, 낮은 물리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 및 공간이 주요 골자이다.

1. 동등한 사용(Equitable Use)

모든 사용자가 디자인에 유용함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언제나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용자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 사용의 유연성(Flexibility in Use)

사람마다 다른 각양각색의 선호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품은 선택 가능성, 변경 가능성, 조절 가능성 등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선택 가능성: 사용자가 사용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특성이다.
2) 변경 가능성: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모두를 고려하는 디자인이 그 좋은 예이다.
3) 조절 가능성: 사용자가 사용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이다.

3.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intuitive use)

경험, 지식, 언어 등 사용자 수준에 상관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1) 단순한 사용: 복잡성이 제거되어 핵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달성한다.
2) 직관적인 사용: 이해를 돕는 그림을 사용하거나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4. 인지할 수 있는 정보(Perceptible Information)

주위의 상태 또는 사용자의 지각 능력에 상관없이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지각 능력이 낮거나 지각할 수 없는 사용자를 고려해야 한다.

5. 오류에 대한 관대함(tolerance for error)

1) 위험과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2) 위험 요소는 제거되어 사용자에게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낮은 물리적 노력(low physical effort)

1) 사용자가 최소한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2) 힘든 자세를 취해야 하거나 과도한 물리적 노력이 요구되고, 한 동작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거나, 같은 조작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는 사용상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중시킨다.

7.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 및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1) 신체 크기(body size), 자세(posture), 이동(mobility)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고, 손이 닿을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도록 적합한 크기와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자주 사용하거나 중요한 기능은 누구든지 어떤 자세로든 사용 가능해야 한다. 가령, 지하철은 키가 작은 사람도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생각과 표현

● 지속 가능한 제품 디자인

지속적인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굿 디자인'이란 단지 필요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이 인간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에 대한 체계를 4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 단순화하라.
  – 단순하고 우아한 디자인은 재료, 무게 그리고 제조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성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라.
  –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추가적 기능을 고려한다. 다용도는 소비를 줄이고 편리성을 증진한다.

2.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 사용 재료를 단순화하라.
  – 같은 재료의 사용은 재료의 재활용 가능성을 높여주며, 제작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
- 유해 물질의 사용을 자제하라.
- 크기와 무게를 줄여라.
  – 제품 단가뿐만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 제조 과정을 염두에 두어라.
  – 이를 적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 제품과 함께 포장을 같이 디자인하라.
  – 경량이며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3. 어떻게 사용되는가?
-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디자인하라.
- 내구성과 고품질 디자인을 추구하라.
- 제품 수명 후를 고려하라.

4. 어떻게 폐기될 것인가?
- 모듈화하라.
  – 모듈화는 재활용뿐만 아니라 수리 및 내구성을 강화한다. 또한 효율적 제작과 수송을 돕는다.
- 재활용된 재료와 자연 분해되는 재료를 사용하라.
- 나사와 못의 사용을 최소화하라.
  – 손쉽게 조립 및 분해를 할 수 있는 부속을 사용한다.
- 페인트의 사용을 자제하라.
  – 페인트는 재료와 분리가 힘들며 이에 따라 재활용을 어렵게 한다. 대신 자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생활속 의상디자인

교과서 pp.48~49

● 단원 설정의 이유

자신의 인체를 옷을 통해 몸을 보호하고 장식하여 목적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심미적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인간은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대에 이르러 누구나 각자의 개성을 창조하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의복을 때와 장소에 따라 실용적으로 조화롭고 다양하게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의상 디자인은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며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의상과 경제적으로 다양하게 상품화되고 있다.

이 단원은 새 옷 하나가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옷은 사람들에게 입혀지면서 생명력을 부여받게 된다.

● 학습 목표

이해	의상 디자인의 가치를 이해한다.
표현	의상 디자인을 창의적이며 개성 있게 표현한다.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생활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의상 디자인의 가치를 이해하고, 창의적이며 개성 있게 표현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교과서, 실습 자료, 활동 표현 재료 등		
수업 모형	이해 및 표현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실기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의상 디자인의 좋은 작품을 제시하여 호기심을 유발한다. – 생활 주변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기능적인 예를 감상한다. – 실용적, 기능적, 최첨단 소재, 전통적 소재, 재활용 사례 의상을 통하여 의상 디자인을 감상한다. –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의상을 감상하고 예술적인 가치를 발표한다.	· 미술에 관련된 다양한 패션쇼를 제시하여 패션의 유행과 흐름을 탐색하게 한다.
전개	◎ 의상 디자인 – 목적에 맞는 의상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이해한다. – 창의성과 색채 감각, 조형미, 미적 감각, 유행에 대해 이해한다. –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 패션의 방향을 제시한다. ◎ 예술이 된 의상 – 의상을 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한 가치에 대해 이해한다. – 의상과 예술의 조화로운 만남을 위해 필요한 것을 토론한다.	· 다양한 패션 디자이너의 디자인 사례를 감상하면서 패션의 유행과 예술에 따른 다양한 시각과 안목을 갖도록 지도한다.
정리	◎ 활동지 작성하기 – 최첨단 공법을 적용해 제작된 패션 디자인의 사례를 조사해 보고 미래의 패션 디자인은 어떻게 지화할지 토론해 보자. – 올바른 생활 문화 형성을 주제로 티셔츠를 디자인하고, 캠페인 활동을 계획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 보자.	· 의복이 갖는 기능성, 실용성, 경제성, 심미성 등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지도한다.
평가 관점	• 의상 디자인의 가치를 이해하였는가? • 창의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디자인으로 의상을 제작하였는가?	

의복의 유래

가정에서 봉제 시대의 의복 디자인은 장식 디자인의 실용성을 위주의 단계로서 근대 의상 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었다. 근대 의상 디자인의 발단이 되는 산업 혁명은 섬유 산업으로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텍스타일 분야였다. 봉제 기술과 대량 생산이 발달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늘날 기성복 산업이 정착되어 패션 디자인의 영역이 생겼다. 경제가 발달하고 소비자의 기호는 다양해지며 각자 개성에 맞는 생활을 추구하게 되고,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것이 패션화 현상이며 이미 우리들의 생활은 이 단계에 있다.

패션에서 디자인의 의미

패션이란 말은 '행위, 제작'이라는 의미의 라틴 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원래 의미는 유행이나 유행의 스타일, 유행 방법, 또는 양식, 스타일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1. 시각적, 촉각적 형태(디자인의 의미는 형상의 특징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 색, 무늬, 실루엣 등 볼 수 있고 만줄 수도 있는 실체의 것
2. 개념의 창조(발상 단계에 있는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가리킨다.)
   – 상품 계획, 신소재를 이용한 의복의 기능성을 추구하는 경우 등
3. 계획의 최종 결과(계획에 따라 검토되고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것)
   – 상품 계획에 따라 생산된 개개의 의복 등
4. 목적과 의향(다른 것에 비해 특징 있는 부분)
   – 계획을 세운 입안자의 의도를 가리킨다.

반사

작가 조덕현(한국/1957~)은 사진 드로잉과 발굴 작업, 사진 등 다양한 작업 방식을 선보여 왔는데, 이 다양한 작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기억'이다. 오래된 흑백사진의 이미지를 캔버스 위에 연필과 목탄으로 그리는 사진 드로잉은 기록된 역사의 표층에 가려져 있는 과거의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유행을 그린다'는 뜻으로 의복을 인체에 입혀진 상태를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패션을 주제로 표현되는 이미지를 시각화시켜 전달하는 미술적 표현을 말한다. 어떤 의미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삽화, 도해, 신문이나 잡지, 광고의 문장이나 내용을 보충하거나 강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되는 그림으로 대중의 이해를 위해 텍스트와 함께 출판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을 말한다.





제인스 진(패션 일러스트레이션/2007년 작)
www.jamesje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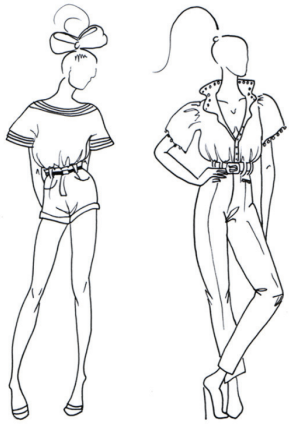
● 패션 디자인의 요소

1. 실루엣



실루엣은 부피감을 표현하고 풍만감이나 빈약함은 실루엣을 통해 표현된다.

2. 선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가진 선은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의 매체로서 사물의 의미를 확실히 전달해 줄 뿐만아니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표현력을 가진 일차적인 조형 요소이다. 선은 보는 사람의 시선을 여러 방향으로 이끌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윤곽을 표현하기도 한다. 선은 다른 특징들을 강조하거나 감출 수 있다. 패션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선의 사용은 패턴이나 고정 부분의 이음새를 표현할 때 쓰인다.

3. 디테일



옷을 만드는 봉제 과정에서 옷을 장식, 구성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세부 장식이다.

4. 질감

질감은 패션 디자인에서 시각적인 동시에 감각적인 요소이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스케치를 시작하기 전에 직물을 선택한다.



● 시각의 중요성

가치의 변화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이루고 이 변화는 제품 이용자의 행동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게 된다. 과거에는 하드웨어 적인 가치 즉, 상품의 가격, 효율성, 기능 등이 중요했다면 현대에는 소프트웨어 적인 가치 즉, 상품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디자인, 컬러, 형태 등이 상품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음식분야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레스토랑 선택 기준을 더 이상 맛에만 국한 되지 않고 전반적인 식공간의 분위기라든지 음식의 스타일, 색, 조형성, 종업원의 소비로 레스토랑을 선택한다.

● 시각과 미각의 관계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하는 예술성은 시각적인데 있다. 즉 조형요소와 원리가 적용된 시각적인 외형에서 음식의 맛있어 보이는 것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음식과 색채

한국은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 지역적으로 기후의 차이가 있어 각 지방마다 산물이 다양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지방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음식들이 고루 발달되었다. 궁중음식, 서민음식, 사찰음식 등 신분과 계층에 맞게 발달되었고 음식의 맛과 색상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들의 음식물을 먹을 때 미각, 후각, 촉각, 청각, 냉각, 온각, 통각 등을 총동원해서 맛을 본다. 그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시각적인 것이다.

색깔로 보는 건강 음식

여러 음식에는 색깔이 있고 그 색깔에는 자신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것과 해로운 것이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패션만큼이나 컬러 매치가 중요하다.



빨간 색깔의 건강 음식 [노화 방지, 맑은 혈액]

빨간색 채소나 과일에는 심장의 기운을 돕는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리코펜은 비타민 E의 1백배, 카로틴의 2배가 넘는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유해 산소와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통해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되어 혈액 순환을 돕고 심장을 건강하게 한다.



오렌지 색깔의 건강 음식 [눈 건강, 항암 효과]

빨간색과 노란색의 중간색인 주황색 컬러 푸드는 알파카로틴, 베로카로틴, 크립토잔틴 등이 함유되어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 소화 작용까지 돕는다고 한다.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환경 오염으로 인한 독성을 없애 준다.



노란 색깔의 건강 음식 [항암 효과, 혈관벽 강화]

옐로 푸드는 그 어떤 컬러의 음식보다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의 영향으로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암 예방에도 좋다고 한다. 또한 노란색 푸드는 모세혈관 벽을 보강하고 혈액 순환 개선에 좋은 효과를가지고 있다.



초록 색깔의 건강 음식 [장 건강, 디톡스 효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힐링 컬러, 초록색 채소는 클로리필 성분이 폐내에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해 디톡스 효과를 볼 수 있는다.



자주 색깔의 건강 음식 [우울증 개선, 콜레스테롤 저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은 보라색 계통의 색소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심장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감소 시키고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푸드 아트

칼 워너는 1963년생으로 영국 리버풀 출생의 작가다. 그의 작품의 이용되는 도구는 물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식자재들이다.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정말 식재료들인가? 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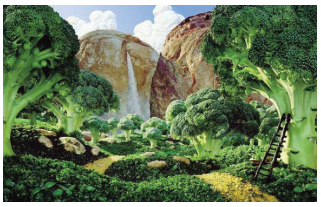
빵 마을



캔디 코티지



물고기 풍경



음식 프로콜리



과일 풍선

푸드 아트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식품이기에 신속하게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미지를 구축하고 촬영까지는 2~3일까지 걸리는 작업이라고 한다. 또한 보정하고, 모든 요소를 혼합하는 미세 조정 작업까지 해야 한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 푸드 코디네이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푸드 코디네이터가 구분되어 활동 영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푸드 코디네이터의 영역이 구분되어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일본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전문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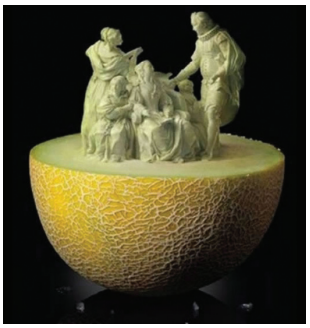
푸드스타일리스트 황은우, 박용일, 김현학 교수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푸드 코디네이터를 굳이 구분한다고 한다면,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요리에 어울리는 식기를 골라 보기 좋게 담고, 그에 어울리는 소품을 곁들이는 일에 국한되지만, 푸드 코디네이터는 이를 포함하여 음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연출한다. 즉, 푸드 코디네이터의 영역이 푸드 스타일리스트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다.

푸드 코디네이터란, TV나 영화, CM의 식품에 관련된 연출이나 요리 전문 잡지의 요리 페이지의 기획, 편집, 음식점의 메뉴 개발, 요리 교실이나 각종 세미나의 기획, 운영이나 강의, 시장 조사, 다이어트 컨설팅 등의 음식에 관련된 비즈니스 전반의 일을 한다. 먹을 것에 관계된 코디네이터, 컨설턴트를 돌보는 사람을 푸드 코디네이터라고 한다. 푸드 코디네이터는 크게 3분야로 나누어지는 데, 가장 많이 알려진 매스컴 업무를 담당하는 푸드 코디네이터, 식품 메이커나 레스토랑, 백화점, 편의점과 같은 기업의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푸드 코디네이터, 강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푸드 코디네이터가 있다.

● 음식의 발상과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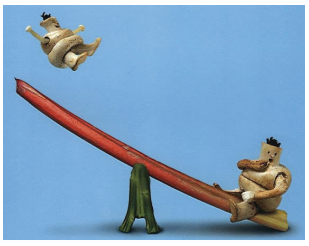
음식의 재료를 이용하여 예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재료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 형상에서 연상되는 모습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다.



메론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군상을 조각하였다. 메론의 재료는 섬유질이 연하기 때문에 무르기 전에는 섬세한 조각을 할 수 있다.



프로콜리를 이용하여 강아지를 형상화하였다.



버섯을 이용하여 사람을 표현하였다.



가지를 이용하여 펭귄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색상이 있는 식물 줄기를 이용하여 새와 둥지를 표현하였다.



생활 공간을 가꾸는 환경 디자인

교과서 pp.52~57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생활	차시	①②③④⑤❻⑧
학습 주제	생활 속 공간과 디자인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간의 특징을 살려 목적에 맞게 디자인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교과서, 실습 자료, 활동 표현 재료 등		
수업 모형	이해 및 표현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실기 평가

● 단원 설정의 이유

환경 디자인의 개념과 공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 주변에서 공간의 특징을 살려 잘된 곳을 찾아 감상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주변의 생활 환경이 목적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변 환경에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여 그 방법을 생각해 보고, 조형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름다운 삶의 공간을 꾸미도록 한다.

이 단원은 생활 공간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고려하고 계획하고 개성 있게 디자인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건축물을 최첨단 공법을 이용하여 자연과 인간, 인공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에 대하여 표현력을 키우도록 구성하였다.

● 학습 목표

이해	생활 속 공간과 디자인의 관계를 이해한다.
표현	환경 디자인 공간의 특징을 살려 목적에 맞게 디자인한다.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쾌적한 실내 환경 디자인 작품을 제시하여 호기심을 유발한다. – 공간 목적에 맞는 계획을 세워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예를 감상한다. – 삶을 쾌적하게 해 주는 실내 디자인에서부터 목적을 살린 디자인까지 통합적인 공간을 가치를 감상한다.	· 생활 속에서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 주는 여러 가지 예를 찾아 제시한다.
전개	◎ 삶을 쾌적하게 하는 디자인 – 공간을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하는 것 ◎ 변화하는 실외 환경 디자인 – 생활의 합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주변과의 조화를 추구 ◎ 공간 예술을 담은 건축 디자인 – 건축물은 기술과 구조 및 기능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공간 예술 ◎ 문화와 함께하는 공간 디자인 – 인간의 삶의 방식을 고려	·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간이 되도록 강조하며 환경 조형물을 통해 바라보는 시각의 범위를 넓혀 주고 전체를 고려하여 지도한다.
정리	◎ 활동지 작성하기 – 생활 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개성 있게 디자인해 보자. – 건축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술적인 전개와 함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우리 주변 자연을 살펴보고, 건축 디자인에서 자연을 반영해 보자. – 건축을 활용한 프로젝트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해 보고, 우리 주변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조화로운 건축물 조성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자. – 생활 속에서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개성을 살린 문화 공간을 디자인해 보자.	· 다양한 환경 디자인을 통해 비판할 수 있는 미적 감각을 키우도록 한다.
평가 관점	• 생활 속 공간과 디자인의 관계를 이해하였는가? • 공간의 특징을 살려 목적에 맞게 디자인하였는가?	

실내 디자인 의미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을 보면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낀다. 또한 그 공간에 머물고 싶어지고 내가 사용하는 공간도 그렇게 꾸미고 싶어진다. 이처럼 실내 공간을 기능적이고 합리적이며 아름답고 개성 있는 공간으로 창조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실내 디자인이라 한다.

실내 디자인 기능

실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실내 공간을 기능적이면서도 거주자의 취향이나 개성에 맞게 꾸밈으로써 주거의 질을 향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주거 공간이 생활 공간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같은 공간을 더욱 넓게 이용하며, 색채와 디자인의 조화로 심리적 안정에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공간을 계획하고,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가는 디자인 과정이다.

실내 디자인의 조건

1. 기능적: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편리한 생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정서적: 인간의 심리적 안정감이 충족되어야 한다.
3. 심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4. 환경적: 자연환경인 기후, 지형, 동식물 등과 어울리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실내 디자인 요소

1. 선: 길이나 굵기, 방향, 그리고 선이 조합되어 있는 모양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준다. 선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 적용한다.
2. 형태: 2차원의 면이나 3차원의 입체를 말하며, 실내 공간에는 많은 형태가 존재한다.
3. 색채: 색채는 방의 크기나 높이, 밝기 등은 물론이고, 작업 능률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실내 분위기를 좌우하는 데 큰 몫을 한다.
4. 질감: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표면적 특성, 재료의 표현이 주는 느낌, 일반적으로 실내 디자인에서는 촉감에 의한 질감을 말한다.

실내 디자인 설계 과정

〈주거 공간을 꾸밀 때 고려할 점〉

1. 가구와 집기의 형태를 고려한 배치
2. 광선의 방향과 통풍 등 생활의 자연환경적 요소 고려
3. 실내 분위기를 고려한 내부의 장식과 색채 배치
4. 가구 및 물품들의 배치와 배색 사람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기능적으로 계획하고, 공간을 짜임새 있게 계획하여 실용성이 있도록 한다. 외벽은 재료, 색깔 등으로 변화와 통일감을 주고, 지붕은 벽보다 명도를 약간 낮춘다.



● 환경 디자인

건축 디자인, 옥외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디자인, 공예 디자인 등 디자인 분야를 종합적인 시점에서 통합하여 하나로 묶는 디자인 개념이다. 인간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과 여러 가구 그리고 주택과 정원, 도로와 건물, 거리의 시설물 등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조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사람이 사는 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생기 있게 만들려는 활동이다.

● 환경 디자인의 필요성

1. 자연을 보호, 보전하여 공해, 재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
2. 인공 구조물을 관리, 유지하여 사회와 개인의 질서를 유지한다.
3. 환경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며 생활을 풍요롭고 쾌적하게 한다.

● 환경 디자인 조건

1. 자연과 인공 구조물, 건물 상호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2.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3. 주위의 인공 구조물, 건축물 등과의 상호 조화를 고려하여 공간을 디자인한다.

● 환경 벽면(외벽) 디자인

1. 주위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색으로 디자인한다.
2. 벽화, 모자이크, 스테인드글라스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3.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벽면에도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 환경 구조물 디자인

1. 행사나 인물 등을 기념하거나 순수한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조형물을 배치한다.
2. 주위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는 작품이어야 한다.
3. 그 도시나 마을의 상징이 되기도 할 뿐 아니라 환경 일부가 되기도 한다.

● 스트리트 퍼니처

다양한 목적을 위해 거리와 도로 등에 설치된 시설물들의 총칭으로 보행 및 차량 이동, 관련 시설 이용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가로 시설물 혹은 공공 시설물이라 칭하기도 한다. 주로 벤치, 전화 부스, 가로등, 버스 · 택시 정류장, 공공 화장실, 휴지통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공공 시설물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심미적인 가구로 보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 스트리트 퍼니처의 기능

다양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미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예술적 · 문화적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 **건축 디자인**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기획 · 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건축 디자인의 역할**

1. 건축 디자인기준은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장소 만들기 모든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 판단 기준의 역할을 담보해야 한다.
2. 건축물과 공간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기준으로서 모든 개발 행위와 건축도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와 각 지방 자치단체, 행정가와 사업 시행자, 계획과 설계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먼저 지켜야 할 '디자인 업무 지침'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건축 디자인 기준은 가장 보편적으로 직면한 건축물과 공간환경 디자인의 문제에 대응하여 디자인 행위 때문에 유발되는 부적합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개발 행위 및 계획 수립 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경관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등 입체적 공간 계획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할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신도시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 정비 사업, 공공 건축물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및 공간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디자인 과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 **건축 디자인의 목표 및 원칙**

좋은 디자인 원칙에 의해 창출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은 장소가 갖는 유형 · 무형의 자산 가치를 증진해 사람들이 일하기 좋고 생활하기 좋으며, 사회 활동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삶을 유도한다.

생태 건축의 정의

생태학을 건축에 접목한 것으로 건축물을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 보며, 건축을 생태계의 순환원리를 구축함으로써 그 인공적 생태계 자연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생태주의적 관점에 의한 건축 공간의 구성 원리는 자연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 경관과 유기적 연관을 가지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생태 건축의 원리

생태계와의 조화를 강조하고 자연 요인을 계획 과정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자연 형성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서 이루어짐으로 사회 형성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장소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인 면을 총괄해서 보는 것으로 시간과 자연 과정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지역적 지식인 땅이나 기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장소와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 낸 활동과 의미를 반영하는 인간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성과 지속할 수 있는 건축의 개념

지속 가능성이란 현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지구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낸 지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및 생태계의 영원한 공존이라는 개념이다.

동 · 서양 건축 디자인 특성

분류	동양	서양
형태	직사각형의 반복적 조합	개별적 형태의 디자인
선/면	생활 속 공간과 디자인의 관계를 이해한다.	곡선, 원
구조	가변적 공간, 다기능적	목적에 맞게 분화된 공간, 기능적으로 채워진 공간
디테일	장식을 배제한 단순하고 비워진 공간	화려한 장식으로 채워진 공간

라 데팡스

'라 데팡스'는 암스테르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도시 알메레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다. 이 건물에는 여태껏 사용한 적이 없는 신소재가 아홉 가지 빛을 띠면서 건물 전체를 덮고 있다. 다색의 얇은 금속판을 두 겹으로 겹친 이 마감재를 만들기 위해 네덜란드의 TNO(네덜란드 응용 과학연구소)가 연구하고, 3M이 참여했으며, 일본 회사가 이 건물만을 위해 특별 제작했다. 무려 3년에 걸친 과정이다.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 건물의 표면은 노란색에서 푸른색, 붉은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보라색에서 초록을 띠었다가 다시 사라지기도 한다. 폐쇄된 구성으로 이중 반사된 이 공간을 걷다 보면, 거대한 스크린이나 색면 추상화 속에 들어선 느낌이다. '색'이 주는 심리적 효과와 함께 천천히 변하는 '잔상의 건축'을 보여 주는 것. UN 스튜디오가 보여 주는 현란한 외관의 시작점은 단순하다. 사무실 한켠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에 사용한 동그란 디스크 한 판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조각 하나를 봐서는 그것이 커다란 백화점의 외관을 모두 덮은 재료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건축을 맡아 2003년 10월에 문을 연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은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 릴리안 디즈니가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협회의 새로운 장소를 위해 5,000만 달러를 기부해 지어졌다. 완공까지 5년이라는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경기 침체, LA 폭동, 지진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16년이나 걸렸다. 원래는 석회석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내부에 자리한 6,125개의 금속으로 된 파이프 오르간은 자연 그대로의 완벽한 음향을 들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로스앤젤레스 폭동 이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순화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 폭동은 인종 갈등이 원인이었다. 인종 갈등이 치열한 사회에서 모든 이에게 환영받으려면 아무도 전에 본 적이 없는, 과거의 불편한 기억을 누구도 떠올릴 수 없는 형태를 찾아야 했고, 그러한 가치 중립적 형태가 곡선이었다고 한다.

특이한 건축물


미국 캔자스시티의 공립 책 모양 도서관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 예술관


아이슬란드의 할그리머 교회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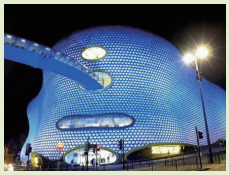

미국 뉴저지 주, 뉴악시의 아이슬란드의 농구장 건물


미국 북 캐롤라이나 주의 피젼포르지의 경이로운 작품


폴란드 심바르크의 거꾸로 선 집


폴란드 소포트의 뒤틀린 집


에스파냐 카나리 섬의 테네라이프 예배당


영국 버밍험에 있는 투우장

● **벤 반 베르켈**


"건축은 예전과 달리 극적인 방법으로 교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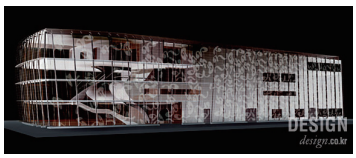
UN 스튜디오는 표면을 많이 사용한다. 현대 디자인에서 표면의 역할은 무엇이며 왜 건축과 디자인에서 중요한가? 표면에 관련된 흥미로운 논의는 1990년대에 '하나의 표면'이라는 콘셉트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어났다. 이것은 2차원적인 표면이 3차원의 공간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 주제가 흥미로운 건 표면이라는 것이 더는 스킨로션이나 껍데기가 아니라 디자인에서 공간적인 요소가 됐다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다. 기둥 없는 공간, 봉합선이 없는 공간에서 벽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벽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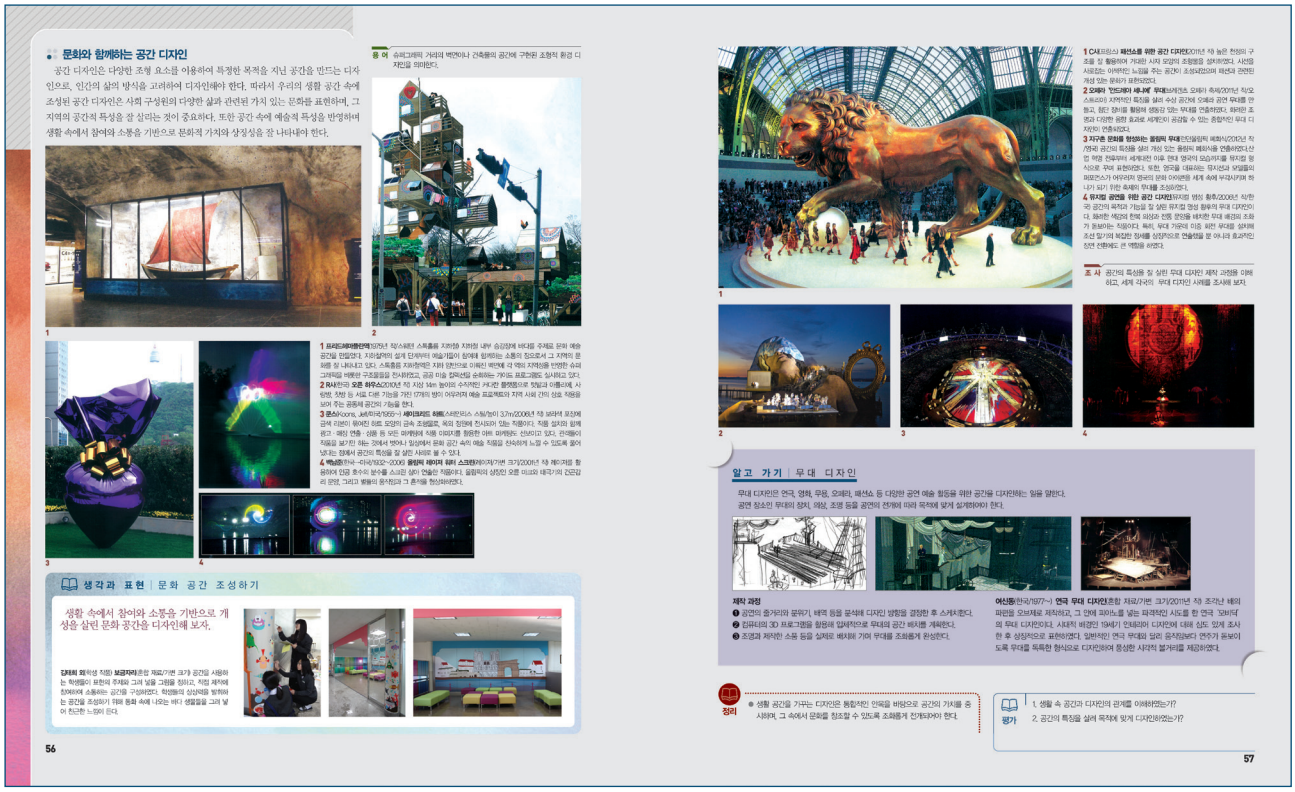
건축은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하나의 반응하는 거대한 미디어가 되고 있다. 당신 작품 중에서 갤러리아백화점이 대표적이다. 내 작업 중 가장 흥미로웠다. 건축이 예전과 달리 극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교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이 건물은 주변의 분위기와 느낌을 쉽게 바꾸는 '공공의 역할'도 한다. 라 데팡스는 금속제 외관이 빛어내는 색의 변화가 인상적이다.

라 데팡스는 사실 기능적으로 제약이 많다. 자외선을 막아주고 그늘을 제공하는 유리를 찾고 있었는데, 이 금속판은 빛에 따라 계속 변한다. 매일 매시간 다른 빛이 무수한색을 빚어낸다. 이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잔상'이다.


로테르담 우체국

네덜란드의 역사적인 근대 건축물인 로테르담 우체국 재개발 기획안. 현재 공사에 들어갔다. 다양한 모습의 수평 밴드는 공용 공간이라는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세우고 있는 음악 박물관



● **문화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필요성**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의 문화 시설은 연령, 성별, 계층, 국적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등을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문화 시설은 장애인, 노인 등이 접근하고 이용하기에 불편함 점이 많다.

● **문화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1.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시설
   – 휠체어 사용자, 시각 장애인 등 누구나 문화 시설의 출입구, 내부 시설, 위생 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에 힘들이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
2. 누구나 알기 쉬운 문화 시설 안내 정보
   –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는 노인, 외국인, 시각 장애인 등 누구나 문화 시설의 안내 사인이나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
3.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문화 프로그램 정보 제공
   – 문화 시설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

● **문화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의 7원칙**

1. 공평한 사용
2. 사용의 융통성
3. 간단하고 직관적 사용
4. 인지할 수 있는 정보
5. 실수에 대한 관대함
6. 적은 신체적 노력
7.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

공간 디자인

주어진 공간 내에서 인간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각–인지–반응'을 유도하는 체계적 활동이며, 물질로 이루어진 각종의 장치물을 통해 인간의 형태를 지원하는 계획적인 과정으로, 인지 심리학과 행태학을 기초 이론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공간'은 공간 디자인 전체의 성격과 목적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공간 디자인 역사와 발전

공간 디자인이 주목받기 시작하던 19세기, 산업 디자인의 한 분야로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환경 및 공간을 적합하고 쾌적하게 하려고 연구되던 환경 디자인의 범주 속에서 시작되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한 지속할 수 있는 디자인과 디지털 환경의 구현에 따른 디지털 공간 디자인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한 공간의 범주도 발달하였는데, 벽, 바닥, 천정이라는 물리적 요소로서 구획되던 3차원의 공간은 시간과 정신, 감정과 같은 상대적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4차원, 5차원의 공간으로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공간 디자인이란 단순히 물질과 형태의 관계를 넘어서, 인간의 감성과 디지털을 넘나들며 상징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문화와 관습의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총체적인 디자인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문화 공간 디자인

1. 지역 문화 공간

외부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내, 외부가 연계되는 공간 구조로 조형도록 한다. 자연을 다양한 형태로 공간에 수용하여 사용자의 정서적 교감을 높이고 개방된 접근성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행위의 발현을 도모할 수 있다.

2. 시간과 기억

사건의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 다의적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고 기억해 온 유무형의 자신들이 공간 구조에서 발현될 때 그 공간과 공감하며 교류하게 된다.

무대 디자인

공연 등의 예술적 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정하고, 그 공간에 미적 조형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무대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간과 시간이다. 무대 공간은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적절한 영역을 설정해 준다. 이 영역은 배우의 연기가 확실히 눈에 띌 수 있는 장소일 뿐 아니라 배우들이 관객과의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무대 디자인의 유형

고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공연장은 견고성, 실용성, 아름다움을 갖추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실용성을 뽑았다. 관객은 어느 각도에서든 공연을 잘 볼 수 있도록 좌석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객석을 고려하여 무대를 설치해야 한다.

1. 돌출 무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사용되었고 중세 관객들이 마차 주변에 몰려 극을 본 것도 돌출 무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패션쇼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대의 유형으로 관객과 친밀함을 유지해 주면서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아 패션쇼를 감상하기에 좋은 무대의 형태이다.

2. 원형 무대



단순히 건축적 의미의 원형 극장으로는 기원전 80년경 건축되어 검투사들이 시험과 같은 목적으로 쓰였던 콜로세움이 유명하다. 관객과 친밀도를 더욱 높여주기 위한 목적의 원형 극장은 중앙에 원형 또는 4각형의 무대가 있고 그 둘레 전체에 관객의 자리가 놓여 있는 형태이다.

3. 一자형 무대



무대와 관객이 분리되어 있어 거리감을 느끼게 하지만 무대에서 필요한 기계적 장치들이 백드롭 안쪽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으며, 관객이 쇼를 관람하는 동안 전반적인 쇼의 흐름을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무대 디자이너



여신동(1977~/한국)

가장 좋은 무대 디자이너는 연출가가 어떤 연출을 의도하는지,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하는지 포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내 것을 녹여낼지 고민해야 한다.

무대 디자이너는 자신의 성향을 버릴 때, 오히려 자신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순수 미술을 공부하던 여신동(1977~/한국)은 예고에 진학해선 디자인을 공부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시험을 보게 되었다. 시험을 보기 전 우연하게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대디자인과의 졸업 전시를 봤는데 내가 원하던 회화성과 이야기가 있는 디자인을 무대 디자인에는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시에는 연극이나 공연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지만, 그때부터 무대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 무대 디자이너는 자신의 개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의 사람을 품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 브레겐츠 페스티벌



라보엠



서쪽 측면



음유 시인



토스카 파노라마



아이다 성능



양드레 지대



마법 플루트



실용과 생활의 예술

교과서 pp.58~61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생활	차시	①②③❹⑤⑥⑧
학습 주제	공예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생활에 필요한 공예품을 제작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교과서, 실습 자료, 활동 표현 재료 등		
수업 모형	이해, 표현과 감상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실기 평가

● 단원 설정의 이유

생활에 유용한 물건을 제조하는 공업과 미를 창조하는 예술의 두 영역이 중첩되는 곳에서 공예가 이루어진다. 공예는 실용적 가치와 아름다움이 결합한 미술품으로, 다양한 민족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보여 주며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삶 속에서 친숙한 생활용품으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전통 공예를 바탕으로 한 현대 공예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제작 기법의 연구 등으로 공예의 도구적 가치인 실용성과 생산성에서 벗어나 순수 미술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전통 공예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에 필요한 공예품을 제작해 보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이해	공예 디자인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표현	생활에 필요한 공예품을 제작한다.
감상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전통 공예와 현대적인 공예 작품을 감상한다.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수업 방향에 맞는 다양한 공예 작품을 제시하여 호기심을 유발한다. – 흙, 종이, 나무, 풀, 금속, 섬유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용도에 맞는 공예 디자인의 특징을 이해한다. – 사람의 개성과 솜씨를 담아 정성스럽게 만드는 공예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감상한다.	· 공예 특성에 맞는 독특한 재료와 형태로 만든 생활용품을 찾아보면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 실용과 예술적인 공예 –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쓸모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 – 장인 정신과 예술적 가치를 느낀다. – 대량 생산되는 공업 제품과 차별화되는 개성과 미적 가치에 대해 이해한다. ◎ 흙과 불의 예술, 도자 공예 – 도자기 제작 과정을 이해한다. – 우리나라 도자기의 발달 과정을 조사한다.	·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주고 전통적인 공예의 개념을 뛰어넘어 순수 미술을 지향하는 현대 공예의 흐름을 알도록 한다.
정리	◎ 활동지 작성하기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 나무, 천, 돌, 유리 등 일상적인 재료도 실용성과 심미성을 겸비한 공예품의 재료가 된다.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쓰임과 용도에 맞는 공예품을 만들어 보자. – 여러 가지 도자기 제작 방법을 이해하고, 생활에 필요한 도자기 작품을 만들어 보자.	· 공예품에서 알 수 있는 재료 활용에 대한 독창성이나 기법 등을 이해한다.
평가 관점	• 공예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였는가? • 생활에 필요한 공예품을 제작해 보았는가?	

공예 디자인의 특징

생활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의 목적에 따라 실용적인 것과 미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조형 영역이다. 따라서 공예는 실용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의 쓰임에 의하여 나타나며, 실용성과 아름다움이 결합한 것이다. 그리고 공예는 인류 역사와 함께 변천, 발전해 왔고 금도 우리의 삶에 친숙한 생활용품으로 존재한다.

백제 금동 대향로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 대향로는 당시 백제인의 여러 가지 사상과 금동 기술이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왕실의 의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 금동 대향로는 한 다리를 생동감 있게 치켜든 용이 갓 피어나려는 연꽃 봉오리를 입으로 받치고 있고 그 위에 박산이 위치하는 형상이다. 향로의 맨 꼭대기에는 봉황이 비상하려는 듯 날개를 활짝 펴고 서 있다. 이 향로는 높이 61.8cm 지름 19cm 무게 11.85kg의 대작이다.

향로는 예로부터 악취를 제거하고 부정(不淨)을 없애기 위하여 향을 피웠던 도구로 중국에서는 훈로라고도 한다. 인도에서는 4,000년 전에 향로가 만들어졌으며, 중국에서는 전국 시대(B.C. 5세기~B.C. 3세기) 말기부터 만들어졌다. 특히 중국의 전국 시대 말기에서 한나라(B.C.206~A.D.219)에 이르는 시기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승반 위에 'ㄴ'모양 다리와 잔 모양의 몸체, 중첩된 산봉우리 모양의 뚜껑을 갖춘 박산 향로가 많이 만들어졌다. 박산 향로는 신선 사상이 유행했던 북중국 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낙랑 무덤에서도 발견되었다. 백제 금동 대향로의 뚜껑인 박산은 중국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불로장생의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이상향인(삼신산: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한다. 또한 박산 향로에는 삼신산에 살며 불로장생한다는 신선들과 동물, 산수 등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규방 공예

조선 시대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었던 양반집 규수들의 생활 공간이었던 규방에서 생성된 공예이다. 규방에 모인 여인들이 침선(바느질)을 통해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천연의 색으로 물들인 원단을 사용하여 한복과 이불을 만들고, 남은 조각들로는 보자기, 주머니, 바늘집 등의 소품을 제작하였다.


❶ 자수를 놓은 천을 분리한다.


❷ 제작하고자 하는 크기에 맞춰 잘라준다.


❸ 안감을 크기에 맞춰 잘라준다.


❹ 귀에 해당하는 부분을 박음질한다.


❺ 주머니에 귀의 자리를 잡아 상침한다.


❻ 주머니에 귀의 자리를 잡아 상침한다.


❼ 뒤집어서 귀를 실로 당겨준다.


❽ 다림질을 하고 난 후 세모 주름을 잡는다.


❾ 매듭을 달고 주머니를 완성한다.

● **공예의 분류**

공예는 재료에 따라 기술적으로 만드는 방법과 쓰임의 형태가 다양하게 분류된다.

1. 도자 공예



도기와 자기를 총괄하여 '흙과 불의 예술'이라 한다. 점토로 형태를 만들어 건조한 후 소성 과정을 거쳐 완성하는 유형의 예술품을 통틀어 도자 공예라고 한다.

2. 종이 공예



민간에서 발달한 실내 문화이다. 한지로 일상생활의 소도구를 만들거나 사용하면서 형성된 종이 공예는 가정용 소품 공예였다.

3. 나무 공예

나무는 금속이나 돌과 비교하면 다루기가 쉬워 이를 이용한 공예도 다양하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톱의 발명 되어 가공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여 의자, 테이블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4. 풀 공예



농민은 오랜 옛날부터 짚과 풀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했다.

2. 금속 공예

금, 은, 동, 철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용도의 일상용품과 장식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세공은 작은 액세서리나 장식용품을 말하고 대공은 금속으로 된 조형물이나 도구 등을 말한다.

3. 섬유 공예



길이가 긴 실이나 천을 다루는 공예 기술이다. 장인은 누에고치, 목화솜, 삼줄기, 모시풀, 말총, 대나무 등을 삶고 두드리고 쪼개고 치대는 지루한 과정을 쉼 없이 반복한다.



● **도자 공예**

도자 예술의 약자로서 도기와 자기를 총괄하여 흙으로 만들어 구워진 예술성이 있는 작품, 또는 인간의 정신적인 욕구와 자인의 조화로서 창조되는 예술 작품이나 그 행위를 말한다.

도자 예술을 '흙과 불의 예술'이라 한다. 즉 흙으로 만들어 불에 구워진 예술의 형태를 도자 예술이라 하며 좀 더 학술적으로 정의한다면 '점토로 형태를 만들어 건조한 후 소성하여 완성하는 유형의 예술품'을 통틀어 도자 예술이라고 한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부터 점토를 불에 구우면 더욱 단단하고 물속에 오랜 시간 두어도 붕괴하지 않으며, 소성 중에 기물에 재가 붙어 녹은 부분은 광택을 띠게 됨을 알게 된 것이 오늘날의 자기를 토대로 이루게 되었다.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유럽류로 해석하면 세라믹스 일부로 건축물에 사용되는 벽돌, 타일, 위생용기로부터 식탁 용기,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전자 재료와 의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친 제품과 재료를 말한다.



현대 생활에 다양하게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도예 재료(세라믹)

도자기 성형 방법

	색상	소성 온도	소리	제품
토기	적갈색, 회색	700~1,000℃	둔탁한 소리	기와, 화분
석기	청회색, 백색	1,200~1,300℃	약간 맑음	외장 타일, 옹기
도기	담황색, 백색	1,050~1,300℃	탁한 소리	내장 타일, 식기류
자기	백색	1,300~1,450℃	금속성의 맑은 소리	고급 식기, 특수 자기

도자기 성형 방법

1. 물레 성형: 반죽된 흙을 물레 위에 놓고 물레를 회전시켜 중심을 잡아 성형하는 기법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손가락을 이용하여 바닥부터 성형하게 되고 힘으로 적절한 균형과 안배가 중요하다.
2. 판 성형: 일정한 두께의 흙 판을 서로 접합하여 연결하고 두께가 균일하다. 접합면 부착 시 갈라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빚어(핀칭) 만들기: 손으로 주물러서 원하는 형태를 만든다. 소박, 자유로운 모양으로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빚는 도중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코일링 기법: 타래 모양으로 만든 점토를 한 층씩 혹은 나선형으로 쌓아서 만드는 기법이다. 자유로운 손놀림과 창의적인 감정이 잘 나타난다.
5. 틀 성형(주입 성형): 석고로 틀을 만든 뒤 붉은 점토를 부어 성형하는 기법이다. 같은 모양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복잡한 형을 만들 때 용이하다.
6. 속파기 성형: 원하는 형태를 만들고 표면이 적당히 건조되면 속을 파내고 접합하는 기법이다. 형태가 복잡하거나 조형성이 요구되는 작품 제작 시 유리하다.

도자기 제작 과정

1. 스케치: 원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
2. 반죽: 흙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고막 형태로 가소성을 높이는 단계
3. 성형하기: 의도에 맞게 성형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단계

4. 말리기: 바람이 잘 통하는 건조한 그늘에서 말리는 단계
5. 초벌구이: 문양과 유약을 바르기 위한 낮은 온도의 소성 단계
6. 문양 그리기: 조형적인 것과 시각적인 아름다운 형태를 위한 단계
7. 유약 바르기: 강도, 광택, 색상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한 단계
8. 재벌구이: 본 구이로 높은 온도에 소성하는 마지막 단계

도자기의 발달 역사

옹기는 B.C. 4,000년경 신석기 시대부터 빗살무늬 토기를 시작으로 진흙만으로 만든 질그릇과 유약과 잿물을 입혀서 구운 오지그릇으로 나누어진다. 음식물, 곡식 등을 담아두는 저장용기로 발전하여 삼국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우리만이 사용한 아주 독특한 그릇이다. 옹기의 단면을 확대해 보면 숨구멍이 뚫려 있어 물은 스며들지도 빠져나가지도 않지만, 바람이 통하고 숨을 쉬게 하여 미생물이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여 발효 식품의 변질과 부패를 막아 준다. 고려는 융성한 불교를 바탕으로 하여 최고의 청자를 만들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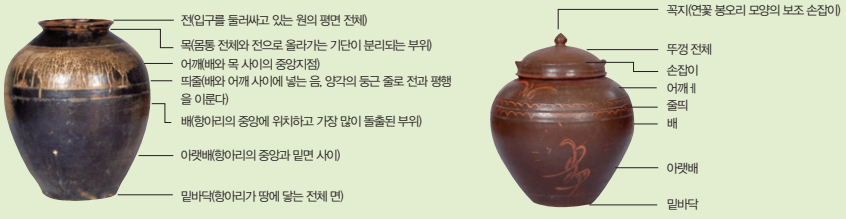
초기의 우수한 청자가 강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청자가 인천과 해남 등지에서 만들어져 일반 서민들이 즐겨 써 왔는데 이를 '녹청자'라고 한다. 서민의 필수 용기인 토기에 자기 유약을 입혀 굽는 혁신적인 녹청자 생산이 동시대에 이루어지고 토기에서 자기 문화로 옮아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녹청자의 색깔은 녹색, 황갈색, 황록색 등 다양하며, 출토유물은 대접, 완, 접시, 자배기, 반구장경병, 항아리 등이 있다. 고려 시대 상류층을 위한 청자가 생산되기 이전에 녹청자는 지방수요를 위하여 오랫동안 생산되었다가 양질의 청자에 흡수되면서 자연 소멸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자기 역사는 크게 고려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일신라 시대부터 생활 자기나 예술품으로서 도자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특히 고려청자의 제조 기법은 실용성과 기능성이 강조된 조선 시대 초기의 분청사기로 발전되며, 중기와 후기에는 조선백자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도자기의 중흥기를 이루었다.

조선 시대 도자기에 대한 유래나 시기 구분은 193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에 의해 많은 방법으로 시도됐다. 특히 백자의 유래에 관한 자료는 청자보다는 미비한 편이어서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어떠한 모양으로 발달하였는지 분명히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나 가마터에서 발굴된 백자의 파편들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다. 특히 500여 년간 운영되어 온 조선 관요 백자 가마터의 발굴 조사로 조선백자의 역사와 특징, 제작 기술 등을 증명하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옹기

옹기는 농경 문화에 정착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모든 생활에 사용될 여러 가지 도구의 필요성과 농사를 위한 노동력의 집단화로 더욱 많은 식량을 생산 저장하여야 하는 필연성 그리고 크고 작은 외침과 흉작으로 기근에 시달리던 민중이 생존을 위한 먹거리의 보존 기술이 만들어낸 복합 용기이며 이렇게 민족의 희로애락과 함께 지속하면서 흙의 용기, 흙의 공예, 흙의 예술로 한반도의 도기 문화와 민족 문화를 발전 승화하며 거듭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번역된 도자기** | 이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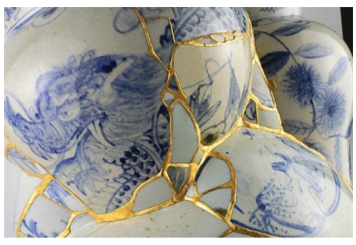


도자기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 이수경은 불완전한 존재들의 조합을 통하여 새로운 완성을 꿈꾼다. 완벽함을 탐하는 도공에 의해 깨어진 도자기들은 태어난 자체가 불완전한 삶이었다. 하지만 작가는 쓸모없는 미완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어 붙여 금을 칠해 재탄생시킨다. 저마다의 상처를 쓰다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존재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관계와 소통의 회복을 꿈꾸는 작가의 소망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바닥에 종이 깔고 무릎 꿇고 손 가는 대로 명상하듯 그리는 작가

이수경 작가는 2005년부터 부적이나 불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경면주사'로 드로잉을 하고 있다. 작업실 한쪽 구석에 걸려 있는 아직 완성이 안 된 커다란 [경면주사 드로잉]을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여기 좀 들여다보세요. 재미있고 웃긴 이미지들이 많아요." 자신의 작품을 두고 서슴없이 '웃기다'라고 표현하는 작가의 손가락을 따라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하얀 한지 위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무늬부터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괴기스럽기도 한 초자연적인 형상들이 생동감 넘치게 화면을 장악하고 있다.

다양한 미술 재료들을 놓아두고 하필이면 경면주사로 그림을 그릴까. 우연한 기회에 처음 경면주사를 접했던 이수경은 그것이 불화의 재료로 쓰이듯 어떤 '정화'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끌리게 됐다고 한다.



번역된 도자기 일부



달(moon) 2008년 작



● **공동 작업의 교육적 효과**

공동 작업은 같은 목표에 대한 개인들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자기중심적인 학생들이 협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고 존중하며 자기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각종 역할 등을 완수하는 행동을 하고 집단 성원이 요구하는 규범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하며 일탈하는 또래를 도와준다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론은 시대적 사항, 종교, 문화 등에 따라 변천되기도 하고, 학자들의 준거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천을 살펴보면, 19세기까지 학생의 사회성에 대한 논쟁이나 교육은 주로 종교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성을 도덕성 일부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행동 과학이나 사회 학습 이론을 중심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개념이 '사회적 기술', '인간 상호 관계기술', '사회적 유능성', '사교성' 등의 용어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공공 미술과 벽화

공공의 공간에 모두를 위해서 대중의 참여에 의한 공공 미술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미술 장르가 바로 벽화이다. 공공 미술은 쉽게 말해서 어려운 예술이 아니라 일상의 누구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미술이다.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찾아가 감상하는 교양의 한 부분으로 미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생활 속에서 가깝고 친근하게 그냥 미술을 느낀다.

공공 미술의 효과

1.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하여 환경 미화적인 효과

삭막하고 허름한 공간을 아름답게 탈바꿈함으로써 생기와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례를 요새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공간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공공 예술은 학생들이 주변에서 공공 미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2. 미술이 생활 속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미술의 실용성과 친근감에 대해 인식

미술은 미술관에 가야만 감상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 내가 보고 만지는 곳에서 미술이 접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미술이 실제로 얼마나 생활의 많은 곳에서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다.

3. 지역의 공동체간의 상징적 가치와 유대감을 형성

예상치 못한 공간에 기발한 그림을 남기고 사라지는 뱅크시의 작품은 처음에 그의 작품은 환영받지 못하고 거리의 낙서로 작품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작품으로 위치가 담긴 관광지도까지 제작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리의 문화로 발전하였다.

4. 협동심과 책임감, 배려하는 마음 형성

공공 미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나의 주제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친밀해진다.

5. 새로운 시각을 이해

그리기와 만들기 수업에 익숙한 미술 수업에서 벗어나 공공 미술은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생각하게 한다.

벽화 프로젝트 학습의 진행 방법

1. 프로젝트의 주제를 벽화 그리기로 설정

1) 문헌 조사: 우리 고장과 학교 내 · 외의 발전을 위한 공공 미술 작품 구상한다.

2) 현장 학습: 공공 미술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 자료 수집 및 현장을 체험한다.

2. 장소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후 적합한 학습 활동을 계획

1) 실습: 공공 미술을 활용한 공동체 중심의 미술 교육의 실천을 위해 공공 미술의 이론적 개념을 알아본다.

2) 면담: 공동체 의미에 중점을 두고 미술로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방향을 탐색한다.

3. 선정된 장소에 적합한 전반적인 탐구 활동을 통해 벽화 내용을 결정

1) 계획: 현장 답사를 통해 알게 된 문제점을 토대로 장소의 섭외와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자료를 찾는다.

2) 의도: 공공 미술을 활용한 공동체 중심의 미술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사회와 해당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현장 답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에 맞는 자료를 종합하여 밑그림을 계획한다.

4. 다양한 표현 양식(그림, 멀티미디어)을 이용하여 표현 활동을 전개

1) 디자인 시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었는지 서로에게 느낌을 묻고 문제점을 수정한다.

2) 작업 진행

① 페인트나 아크릴 물감은 묻으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작업복 준비하고 외부일 경우에는 모자를 반드시 준비한다.

② 작업장 주면 바닥에 비닐을 깔면 정리할 때 시간이 절약된다.

③ 페인트를 조금씩 필요할 때에는 쓰고 남은 종이컵으로 재활용한다.

④ 작업이 길어질 경우에는 쓰고 남은 페인트를 랩으로 덮는다.

⑤ 페인트에 붓을 꽂아 두지 않고 바로 씻어 둔다.

⑥ 조금씩 남아있는 페인트는 같은 색상끼리 함께 놓는다.

⑦ 어지럽거나 멀미가 나면 즉시 지도 선생님께 말을 한 뒤 쉬도록, 안전 사항을 충분히 일러둔다.

⑧ 작업이 끝난 뒤 붓을 깨끗이 세척하고 뒷정리를 깔끔하게 한다.

⑨ 작품이 충분히 말린 뒤 투명 코팅제(바니쉬, 투명 락카)를 바르면 색상이 더 살아나고 윤기가 나며 작품이 오래 보존된다.

5. 표현 활동의 결과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제작하여 평가

1) 정리: 작업 전과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2) 구성 방법

① 문헌 자료, 현장 답사 자료 ② 선정된 자료를 정리

③ 작업 과정을 담은 사진 ④ 작업 전과 후의 사진

⑤ 상호간의 평가, 대중의 평가

3) 평가

1) 평가의 항목

① 주변 환경과의 조화 ② 그림의 이야기 구성

③ 색채와 형태의 아름다움 ④ 대중의 공공성 평가

● 벽화 재료

실내와 실외, 벽면의 종류에 따라 그려지는 재료 선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돌로 된 재질이면 수성 페인트가 저렴하고 철로 된 벽면이라면 유성 페인트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수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는 가격이 유성과 비교하면 저렴하므로 큰 면적의 대형 작품에 많이 이용된다. 용제(희석제)는 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뒤처리가 유성과 비교하면 사용하기 쉽다. 하지만 유성에 비하여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고 물과 습기에 약하다. 수성은 색소를 혼합해 다양한 색을 낸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초등학교 벽화

2. 유성(애나멜) 페인트

유성 페인트는 가격이 수성 페인트에 비하여 비싸지만, 내구성이 좋다. 용제는 시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화기(불)에 조심해야 한다. 유성 페인트가 묻게 되면 수성과 비교하면 지우기가 매우 어렵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와 호흡기에도 무척 해롭다. 유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호 장구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동대문 동화시장 프로젝트

3. 아크릴 컬러

수성과 유성의 장단점을 보완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수성을 바탕에 깔고 포인트 부분을 아크릴 컬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크릴 컬러를 쓰기 전 바탕에 젯소를 칠하고 그리게 되면 접착력이 우수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아크릴은 세밀한 작업물이 요구되는 곳에서 많이 사용된다.



벽화가 있는 카페

교과서 단원정리

1 | 색채의 활용

1) 온도감
① 붉은 계통은 불이라는 구체적 대상에서 연상된다.
② 색의 온도감은 색상에 의하여 강하게 느껴진다.
③ 명도에서도 고명도는 차게 느끼워진다.
④ 저명도는 따뜻하게 끼워진다.

2) 중량감
① 무겁고 가볍게 느껴지는 감각 현상으로 가볍게 느껴진다.
② 저명도는 무겁게 느끼워진다.

3) 흥분과 진정
① 난색계의 채도가 높은 색은 흥분을 유발한다.
② 한색계의 채도가 낮은 색은 진정을 시켜 준다.

4) 경연감
① 딱딱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나타낸다.
② 밝고 채도가 낮은 색은 부드럽다.
③ 채도가 높은 색은 딱딱한 느낌이 든다.
④ 난색은 부드럽고 한색은 딱딱하다.

2 | 시각전달 디자인

1) 포스터 디자인: 일정한 지면 위에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전하는 매체로 간략한 문안과 그림, 사진 등을 통해 조형적으로 표현된다.

2) 신문 광고 디자인: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여야 하며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한다.

3) 잡지 광고 디자인: 특성 제목을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행되는 출판물이다. 해설, 비판에 의한 사상 전들을 목적으로 한다.

4) TV 광고 디자인: 전국 지역 어디든 광고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 광고 상품과 사용 모습을 실제로 보여 주기에 적절하다.

3 | 판화

인쇄는 대량 생산의 양산성이 주목적이지만 판화는 계획된 매수 내에서만 인쇄하고 어떠한 형식에서는 예술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4 | 제품 디자인

기계를 이용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능성과 심미성을 기능적 요소를 살려 발전, 설계하는 전문적인 일이다.

1) 제품 디자인의 조건
① 기능성(실용성)
② 심미성(조형성)
③ 양질성(재료성)
④ 경제성(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2) 제품 디자인 제작 과정
생산 대상 결정 → 조사 · 분석 → 아이디어 스케치 → 모형 제작도 → 렌더링 → 모델링 → 실물 원형 제작 → 실험 → 양산

5 | 의상 디자인

1) 신체의 보호 기능(보호성) : 기후와 위험한 접촉물로부터 신체 보호
2) 장식의 기능(장식성) : 시대 흐름에 맞는 유행과 자신을 표현
3) 신분 상징의 기능(상징성) : 개인의 신분, 지위, 권력을 나타내는 도구
4) 문화적 기능(기록성) : 시대의 사회상, 생활 양식, 미적 감각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

6 | 환경 디자인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주거 공간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편리하게 꾸미려는 조형상의 설계 활동을 말한다.

1) 실내 디자인
① 인테리어 디자인: 채광, 공기 순환, 실내 온도, 움직이는 동선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을 활용한다.
② 무대 디자인: 공연, 연극, 패션쇼 등을 위한 무대 환경을 계획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실외 디자인
① 사인: 홍보 용도에 맞게 즉각적으로 전달을 위한 표지물
② 슈퍼 그래픽: 인공 구조물의 큰 벽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③ 환경 조각: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그에 어울리는 아름답게 조형물을 만드는 것
④ 도시 계획: 도시 생활에 필요한 건축이나 공원 녹지대, 공공 구조물 등 여러 시설을 계획성 있게 설계하는 작업

7 | 벽화 공공 미술

1) 벽화의 발생
주술적, 종교적, 기록적, 장식적, 사회 비판적인 용도에서 사용되었다.

2) 벽화의 역할
① 지역의 정서 순화와 미적 안목을 기른다.
②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변화한다.

3) 벽화 제작 유의점
① 공공성, 지역성, 대중 정서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룬다.
③ 오랫동안 변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해야 한다.

교과서 단원평가

1 다음에 제시된 작품에 활용된 색의 활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작품명: 봉황무늬 보자기
- 크기: 54×57㎝
- 재료: 홍색 모시, 삼베
- 설명: 우리의 전통 색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전통 보자기이다.

① 삼원색 ② 오방색 ③ 무채색 ④ 유채색 ⑤ 대조색

2 〈보기〉에 학생들의 대화 중 정보를 담은 시각전달 디자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보기

승주: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는 친근감을 살리는 것이 좋아.
병욱: 픽토그램을 제작할 때 시사적인 내용을 나타내면 안돼.
유미: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해.
희진: 옥외 광고는 법적으로 공익적인 내용만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

① 승주, 병욱 ② 승주, 희진 ③ 승주, 유미 ④ 유미, 희진 ⑤ 유미, 병욱

3 다음 중 포스터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명시성 – 눈에 잘 띄어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것
② 간결성 – 한눈에 알아보도록 간결하게 나타내야 함.
③ 적합성 – 게시 장소에 적합한 이미지로 표현해야 함.
④ 환경성 – 표현 방법이나 이미지가 참신하고 독특해야 함.
⑤ 명료성 – 전달 내용과 목적이 뚜렷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함.

4 오른쪽과 같은 실크 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작품 제작 과정 중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감광액은 밝은 곳에서 발라야 한다.
② 감광액은 흐르는 물에서 씻어야 한다.
③ 스퀴지를 이용해 잉크를 밀어 넣는다.
④ 감광액 대신에 글루를 사용할 수도 있다.
⑤ 그림이 그려진 부분은 빛이 통과하지 않는다.

5 디자인과 마케팅 방안으로서의 색채 마케팅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서술하시오.

답 1② 2③ 3④ 4① 5 평가 도움 참조

평가 도움

1 우리 조상은 예로부터 자연에 순응하며 조화를 이루고 살아왔기에 색의 사용에 있어서도 자연에서 기인한 색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오방색을 즐겨 사용했다. 제시된 봉황무늬 보자기 작품에도 오방색이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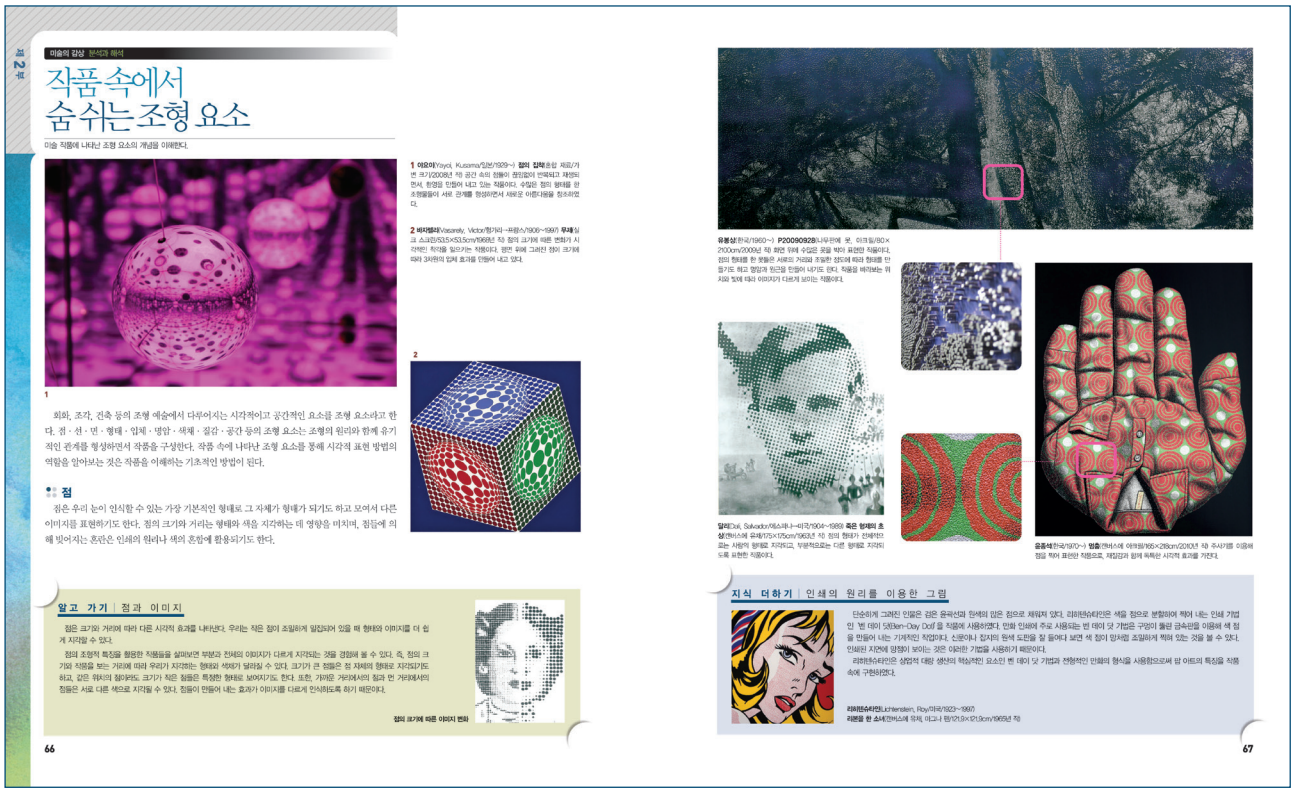
2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친근감이고,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시각전달 디자인은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한다. 최근의 픽토그램에는 양성평등이나 성폭력 문제 등 시사적인 내용이 담긴 디자인이 많고, 옥외 광고는 상업적인 내용의 표현도 가능하다.

3 환경성은 게시 장소와 게절, 주위 환경에 어울려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표현 방법이 참신하고 독특해야 한다는 것은 독창성을 말한다.

4 감광액은 빛을 받으면 굳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크 스크린 틀에 감광액을 바를 때는 암실에서 발라야 한다.

5 색은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 특별한 연상작용을 일으켜 특정한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차별화시키는 데 높은 효과를 낸다.

미술의 감상 | 분석과 해석



작품 속에서 숨 쉬는 조형 요소

교과서 pp.66~71

단원	미술의 감상 분석과 해석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미술을 이해하여 표현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생: 필기도구, 채색 도구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실기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조형 요소의 개념 이해하기 – 자연물과 일상 대상에서 발견한 다양한 조형 요소를 이야기한다. –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조형 요소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 조형 요소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참고 작품을 준비한다.
전개	◎ 점 · 선 · 면 · 명암과 원근, 질감과 양감 알기 – 교과서에 나온 작품의 예시를 중심으로 점 · 선 · 면 · 명암 · 원근 · 질감 · 양감의 개념을 이해한다. – 미술 작품에서 두드러진 조형 요소의 특징을 분석하고 작가의 창의적인 표현 방법과 작품의 느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조형 요소를 선택하여 간단하게 스케치해 본다. – 간단한 채색 도구를 활용하여 조형 요소의 느낌의 살려 채색한다.	· 조형 요소의 개념과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살펴본다. · 다양한 표현 방법과 재료를 활용해서 표현한다.
정리	◎ 작품에 두드러진 조형 요소의 특징 분석하기 – 자신의 작품과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며 두드러진 조형 요소의 특징을 분석하며 감상한다.	·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
평가 관점	• 조형 요소의 개념을 이해하였는가? • 나의 작품에 표현된 조형 요소의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 미술 작품에서 두드러진 조형 요소를 찾아 이야기할 수 있는가?	

● 단원 설정의 이유

미술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요소를 조형 요소라고 한다. 조형 요소에는 점 · 선 · 면 · 형태 · 입체 · 명암 · 색채 · 질감 · 공간 등이 있다. 조형 요소는 조형 원리와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 차시의 조형 원리 학습에 앞서 조형 요소의 구성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할 때 표현 요소 또는 감상 관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이해	조형 요소와의 개념을 이해한다.
표현	조형 요소의 개념을 적용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해 본다.
감상	미술 작품에서 두드러진 조형 요소의 특징을 분석한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야요이(Yayoi, Kusama/일본/1929~) 점의 집착(혼합 재료/가변 크기/2008년 작)

야요이는 1952년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강박증과 환영이라는 일관된 작업 개념과 주제를 다양한 매체와 표현 방식으로 구현하며 자신의 내면세계와 성장 과정을 통한 사적 경험을 작업에 담아왔다. 그녀의 작업은 자신의 정신세계에 대한 일관된 관심과 더불어 초기 작업부터 연속적인 맥락으로 '무한망'이나 '점무늬'라고 하는 독특한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치 작품이나 조각, 영상의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람자 개인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보는 사람이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자렐리(Vasarely, Victor/헝가리→프랑스/1906~1997) 무제(실크 스크린/53.5×53.5cm/1968년 작)

바자렐리는 형태들의 병치를 통한 가물거리는 움직임으로 깊이와 공간의 환영을 창조한다. 그는 색채와 나타나는 형태를 제한함으로써 시리얼 아트(serial art)를 창조했다. 그의 작품이 보여 주는 '움직임'은 짝을 맞춘 색채와 원, 타원, 정사각형, 장사방형, 또는 사각형 무늬들의 압축과 이완에 따르는 박자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그는 관례적인 시각의 바라보기로부터 공격하며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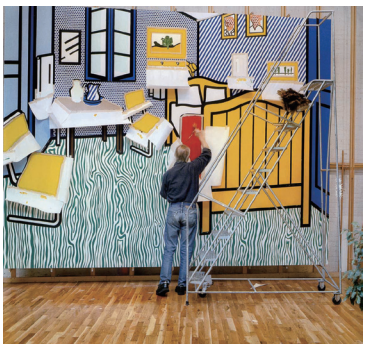
유봉상(한국/1960~) P20090928(나무판에 못, 아크릴/80×2100cm/2009년 작)

유봉상은 가느다란 못을 무수히 박은 표면을 높낮이가 다르게 그라인더로 갈아서 물결치는 듯한 효과를 창출하는 화면을 제작한다. 수평으로 양분된 모노크롬 화면 하단의 세밀한 못들이 창조하는 신비한 흐름은 밤하늘의 유성을 연상시킨다.

작가 탐구

리히텐슈타인의 작업 과정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미국의 팝 아티스트로 미국 문화의 경박함을 그대로 보여 주는 만화의 무자비한 폭력 장면과 싸구려 로맨스를 풍자하였다. 그는 이러한 주제나 기법을 주로 만화에서 차용하여 흑백과 더불어 밝은 원색을 사용하는 그는 단순화된 형태에 뚜렷한 윤곽선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인쇄로 생긴 점까지 표현하고 있다. 주로 하드에서 방식의 도안을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 내는데, 이것은 공판화 기법으로서 주로 상업적인 포스터를 제작하는 데 많이 쓰인다. 그 원리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대로 스텐실을 만든 후, 그 위에 실크를 올려놓고 실크의 망사로 잉크가 새어나가도록 하면 구멍이 난 스텐실 부분에만 잉크가 묵어나 찍혀 나오는 방식이다.



작업 하는 작가의 모습



작가가 사용하는 만화 자료

보충 자료

● 조형 요소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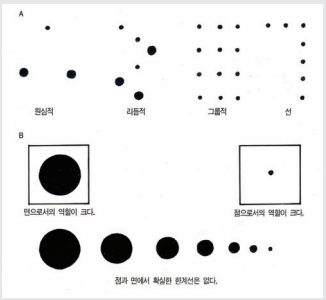
점이란 모든 도형의 궁극적 구성 요소인 가장 단순한 도형으로서 위치만 있고 크기가 없는 것이라고 인정해 왔는데, 조형 요소로서의 점에서는 형도 크기도 시각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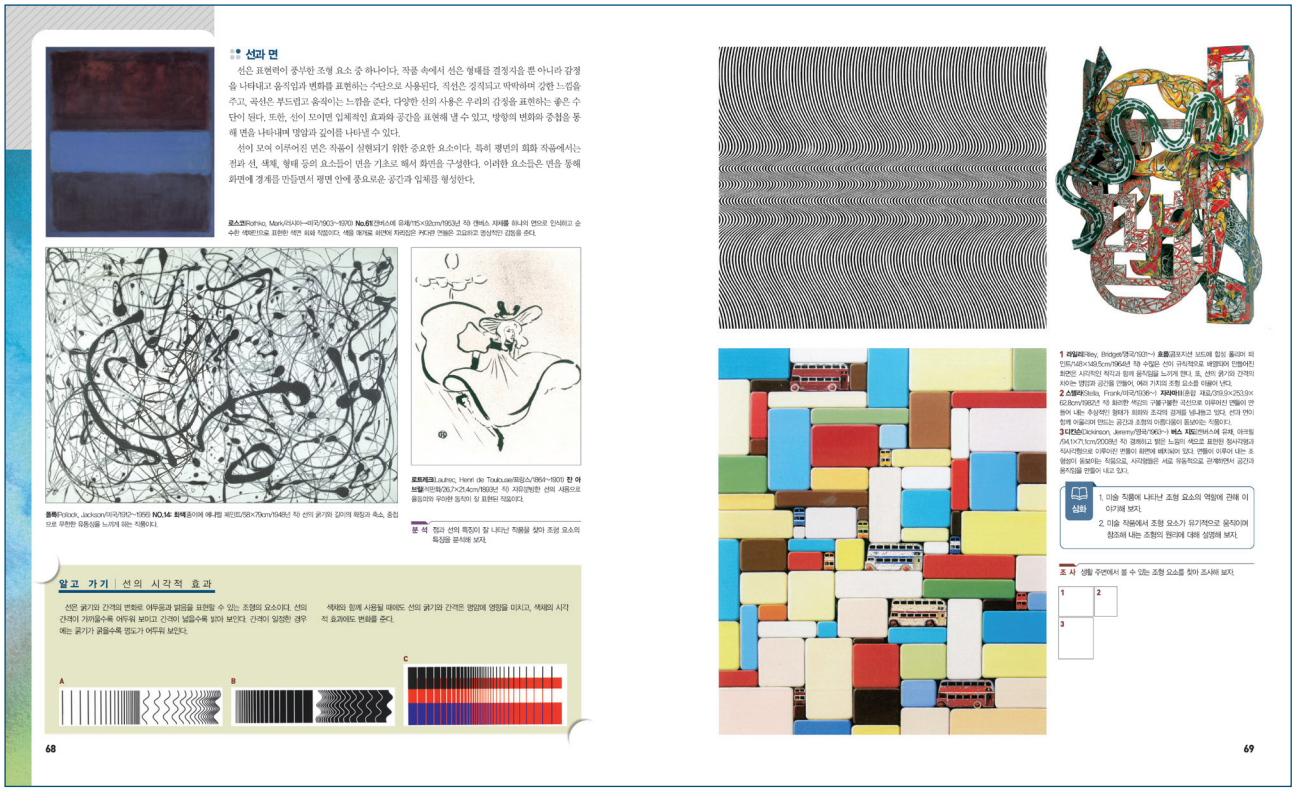
점에서 형과 크기를 인정한다면 그 크기의 한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것은 단독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점과 관계되는 주위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점은 보통 상당히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크기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커다란 그림 속에서는 '점'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작은 그림 속에서는 아주 커다란 '형'으로 될 수 있다.

화면에서 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면 점은 형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많은 역학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중심에 점이 놓이면 안정, 정지의 느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거기에 다른 점을 하나, 둘 부가하면 갑자기 서로 간섭하기 시작하여 활동적인 것이 되고 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정된 공간에 놓인 점은 구심적 또는 원심적인 느낌으로 된다. 점을 근접시켜 배치하면 그룹이 되고 대소(大小)의 점을 여러 개 정렬하면 대비감 · 리듬감을 주며, 점을 연속하면 선이 되고 분산시키면 활동적이 된다.

점의 기능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형 그 자체이고, 둘째는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점'들을 연결시켜 하나의 선을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패턴으로서, 셋째는 점의 대소에 의해서 재미있는 시각적 마티에르를 만들어 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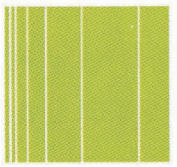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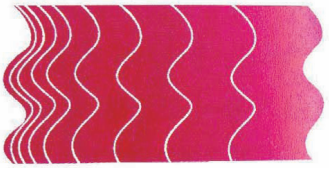
참고 자료

● 선

선은 2개 이상의 점이 연결된 것으로, 위치와 방향을 갖고 면적이나 부피는 갖지 않는다. 선은 어떤 형상을 표현하는 가장 친숙하고 기본적인 조형 요소이기 때문에 드로잉, 만화, 회화 등의 미술 작품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선은 사물의 형태를 그리는 것 외에도 명암, 강약, 질감, 공간, 움직임의 표현에 유용하게 쓰이며 선의 길이, 굵기, 방향, 밝기, 선의 표현 재료, 선들 사이의 간격 등에 따라 리듬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점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직선과 곡선이 만들어진다. 직선은 남성적이며 주로 속도감, 긴장감, 직접성, 예리함, 명쾌함, 간결함 등의 느낌을 전달한다. 그리고 곡선은 여성적이며 유연성, 풍요로움, 우아함, 간접성, 경쾌함 등의 느낌을 주로 전달한다. 또한 선의 굵기에 따라서 가는 선은 섬세함과 예민함을, 굵은 선은 대담함과 둔탁한 느낌을 갖게 한다. 선의 각도에 따라 수평선은 평평함과 균형감을, 수직선은 굳건함과 상승감을 주고, 대각선은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로스코(Rothko, Mark/러시아→미국/1903~1970) No.61(캔버스에 유채/115×92cm/1953년 작)

러시아 태생의 로스코는 추상 표현주의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화가이다. 폴록에 이어서 그는 1940년대에 전개되었던 뉴욕 화파의 주요 대표자이다. 표현적이고 구상 양식인 초기 작 이후 로스코는 막스 에른스트의 영향 아래 초현실주의로 전향했고, 자동기술법을 탐구했다. 그의 생물 형태적 구성은 미로의 그림 세계를 연상하게도 한다.

로스코의 개성적인 작품은 1948년부터 전개되었다. 이 작품은 두세 개의 큰 사각형 색채 면이 캔버스를 채우는 형태이다. 색채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단색 배경 위에 떠다닌다. 화가가 '반성을 벗어버린 기억'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산만하고 막연한 구조는 사라진다. 이 그림에서 표현한 것처럼 밝은 파란색과 다른 색채의 미묘한 면 구성은 긴장과 침묵을 동시에 전달한다.

폴록(Pollock, Jackson/미국/1912~1956) NO.14: 회색(종이에 에나멜 페인트/58×79cm/1948년 작)

폴록은 물감을 뿌린 그림과 함께 20세기 유명한 미국 화가로 꼽힌다. 그의 초기 작품은 멕시코 벽화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주의 양식이었다. 그는 1943년경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에 몰두하게 된다. 유동적이고 표현적인 붓질로 그린 작품은 음악, 인물을 연상케 한다. 1946년에는 드리핑(dripping, 뿌리기) 기법을 개발했고, 그림 표면은 화가의 자유로운 실험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법 자체의 새로움만 주목받았다. 행위를 중시했던 폴록은 자발성, 계산, 영감, 자신 있는 솜씨 등과 같은 척도에 영향을 받았다. 이 그림은 폴록의 드리핑 기법이 일정하게 적용되고 팽창된 뛰어난 예를 보여 준다. 폴록은 바닥에 캔버스를 펼치고, 그 위에 물감을 뿌리고 떨어뜨렸다. 그는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인 형식을 적용했고, 이상한 도구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말에서도 소박한 색 층을 통한 깊이의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옛 석물이 지니는 소박한 미감은 바로 박수근의 작품에 겹쳐진다. 그의 작품이 우리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는 요인은 다름 아닌 이 소박한 미감의 공감대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일리(Riley, Bridget/영국/1931~) 흐름(콤포지션 보드에 합성 폴리머 페인트 /148×149.5cm/1964년 작)

이 작품의 윗부분을 보면, 위와 아래의 길게 곡선을 이루며 퍼져 있는 평행한 선들이 보인다. 이 선들은 마치 밭의 고랑 같은 느낌을 준다. 관객이 중앙 부분은 응시할 때부터 노란색의 그림자는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그림자는 이미지 위로 떠다니는 것 같아 보인다. 이 시기 라일리는 흑백의 패턴이 인간의 뇌에 어떠한 색감을 만들어내는 현상에 강한 호기심을 가졌다. 그녀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빛, 움직임 그리고 공간의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세밀한 정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녀는 복잡한 수학을 이용하기보다는 이미지가 어떻게 직감적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연구했다.

라일리는 세밀하게 줄이 쳐진 모눈종이 위에 데생 기법과 비슷하게 스케치를 한 후, 채색을 하고 종이를 잘라냈다. 잘라 낸 종이는 나중에 콜라주나 채색 밑그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그녀는 아크릴 물감으로 정확하게 채색해 깨끗한 표면을 가진 최종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 조수들의 도움을 받았고, 이런 방식을 통해 작가의 고유성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스텔라(Stella, Frank/미국/1936~) 자라마 Ⅱ(혼합 재료/319.9×253.9×62.8cm/1982년 작)

스텔라는 1970년대 이후에 회화의 평면성을 해체시켜 '세이프 캔버스(Shape canvas-변형 캔버스)' 또는 고부조와 환조로 변신과 전진을 거듭하며 20세기 이후 미국 현대 미술을 주도했다. 그의 작품은 채색된 알루미늄 조각들이 제각각의 면을 형성하여 직사각형 받침에 고정되어 걸린 고부조 형태의 작품이지만 작품의 뒷부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조 형식의 환조에 가깝다. 미니멀리즘 작품을 할 때와 달리 유기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형태를 잘라 낸 조각으로 구성되어 3차원의 공간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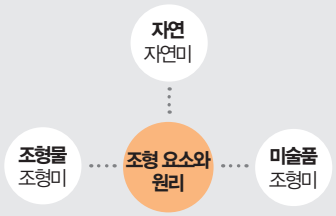
디킨슨(Dickinson, Jeremy/영국/1963~) 버스 지도(캔버스에 유채, 아크릴/94.1×71.1cm/2008년 작)

디킨스는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장난감 자동차를 그리는 작가이다. 그는 그의 컬렉션에 있는 장난감 자동차들을 색상, 패턴, 종류별로 분류해 정리하고 이를 회화로 재해석함으로써 초현실적인 회화를 만든다. 그의 그림 속에는 자동차의 실물과 모형, 진실과 거짓, 현실과 비현실 등의 감정이 존재하며 동심과 성인의 감성을 동시에 존재하게 해 과거와 현재를 통합한다.

심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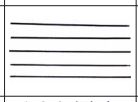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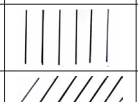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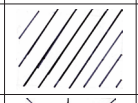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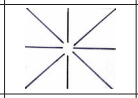
● **조형 요소와 원리**

자연, 조형물, 미술 작품 등을 통해 깨닫게 되는 미적인 요소와 원리가 바로 조형 요소와 원리이다. 조형 요소와 원리는 인간이 미술 작품을 창작할 때 즉 조형 활동을 할 때 기본적인 재료와 방법이 된다.



참고 자료

● **선의 모양과 느낌**

종류		모양	느낌
직선	수평선		넓음, 안정, 평화, 휴식, 조용함
	수직선		엄숙, 엄격, 길게 느껴짐.
	사선		넓음, 안정, 평화, 휴식, 조용함.
	방사선		집중, 확산, 모여 줌, 퍼져나감.
곡선	자유 곡선		질서 있는 부드러움 (무질서)
	기하 곡선		자유로움, 부드러움 (단조로움)

● **면**

조형의 출발은 점과 선이지만, 점과 선이 모여 발전되면 또 다른 기본 조형 요소인 면이 생기게 된다. 선이 연속으로 쌓여 이루는 표면이니까 결국은 선에 의해 둘러 싸여진 윤곽선의 내부를 면이라고 한다. 점과 선이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가에 따라 평면, 곡면 등 다양한 면이 만들어지는 데 이렇게 만들어진 면은 길이와 넓이를 갖게 된다.

면은 그 자체로는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면에 색채 효과를 주어 공간이나 입체의 느낌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주어진 공간을 나누거나 두 개 이상의 면을 겹쳐서 새로운 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점 · 선 · 면의 조합**

면은 선들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하고, 면은 선들을 말하고, 이때 면의 경계를 이루는 윤곽선으로 인해 지각되는 모양을 '형'이라고 한다. 즉 사람이 사물을 볼 때 사물의 모양을 지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형이다.

형은 크게 직선형과 곡선형으로 나뉘고, 기하학적인 형과 비기하학적인 형 또는 고유한 형과 변형된 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하학적인 형은 수학적인 법칙과 질서로 만들어진 형태로 규칙적이고 단순하며 강한 질서가 느껴져서 간결, 확실, 명료, 질서, 인공적인 느낌을 준다. 비기하학적인 형은 식물과 같이 자연발생적 특징을 지닌 형태로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과 정신적 안정이 느껴져서 우아함, 유연, 불규칙, 복합적인 느낌을 준다.



참고 자료

명암이란 빛과 형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회화에서 대상물을 묘사하는 재현 방법의 하나이며, 실재의 대상물을 화면에 그릴 경우에 빛의 명암 요법이 있다.

미술사적으로 볼 때 회화에서는 명암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선사 시대 초기의 그림은 명암과 깊이에 대해서 무관했다. 동굴 벽화의 형태는 윤곽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있었고, 단순한 실루엣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평면적인 윤곽선에 의한 묘사는 이집트 미술과 초기 그리스 미술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차츰 빛에 대한 자각이 생겼고, 폼페이 벽화는 명암을 묘사하려고 한 최초의 시도로 이해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명암은 비로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오또는 사물의 양감을 표현했으며,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공기 원근법을 사용하여 빛을 이용한 하나의 사실주의 양식을 낳게 했다.

17세기 렘브란트는 빛과 그림자에 의한 기법을 발견하게 되며 빛에 생명력을 주어 나타내었는데, 어두운 화면에 스포트라이트로 비춘 듯한 인공 광선을 그려서 신비스러운 명암을 연출했다.

19세기 풍경화가 컨스터블이나 터너는 대상을 빛 속에서 파악하고 미묘한 명암 관계를 표현하였다. 인상파 이후부터 명암보다 색채에 관심이 깊어 입체파에서는 색면 구성을 중시하고 고전적인 명암법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명암은 회화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소묘에서는 대상의 형태를 관찰하여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 관계 및 그 변화를 파악하여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투르(Tour, Georges de La/프랑스/1593~1652) 목공소 안의 요셉과 그리스도(캔버스에 유채/137×102cm/1645년 작)

투르는 수세기 동안 망각되다가 20세기에야 비로소 그 존재가 밝혀지면서 유명해졌다. 그의 작품은 벨라스케스, 수르바란, 베르메르의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가 어떻게 화가가 되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는 이탈리아나 네덜란드 여행 도중, 카라바조의 명암 대조법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는데, 혼토르스트나 테르브루겐 같은 네덜란드 카라바지스티를 거쳐 그에게 전달된 듯하다. 투르는 부피와 빛을 급진적으로 단순화했다. 그의 입방체형 인물들은 어두운 공간에서 횃불이나 촛불에 비쳐 비밀스럽고 사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조각처럼 느껴진다.

페르메이르(Vermeer, Jan/네덜란드/1632~1675) 회화의 기술(캔버스에 유채/120×100cm/1665~1666년 작)

페르메이르는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았고, 델프트를 거의 떠나지 않았으며 평생 빚으로 시달리다가 42세에 사망했다. 그럼에도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생애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전설과 억측에 둘러싸여 있다. 유난히 작업 속도가 느렸던 페르메이르는 빚을 졌으며, 이 때문에 부업으로 미술품 판매업을 했다. 그의 작품은 대개 조용한 실내에 한두 명의 인물이 있을 뿐이다. 빛을 처리하는 대가다운 솜씨를 통해 그가 위트레흐트의 카라바조 추종자들과 접촉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그림은 종종 파랑과 노랑 두 가지 색조로 색의 조화를 미묘하게 잘 살리고 있으며, 균형 잡힌 구성과 완벽한 원근법을 구사한다. 또한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했던 선구자이기도 하다.

페르메이르가 그린 그림 중 비교적 큰 편인 이 그림은 자신의 화실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묶인 커튼이 실내가 깊숙이 들어간 듯한 효과를 주고, 커다란 네덜란드 지도 앞에서 자세를 잡

은 모델과 그녀를 응시하는 캔버스 앞에 화가가 보인다.

손에는 책과 뿔피리를 잡고 머리에 월계관을 쓴 이 모델은, 회화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사의 뮤즈인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일상적인 화실 장면은 회화에 대한 알레고리가 되며, 결과적으로 페르메이르 자신을 찬양하는 도구가 된다. 지도, 책, 고전적 조각은 그의 지성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고 있다.

박수근(한국/1914~1965) 귀로(하드보드에 유채/19×25.5cm/1962년 작)

궁핍했던 시대를 화강암 같은 질감으로 담담하게 그려 낸 그의 그림에는 서민들의 애환과 향토적 분위기가 묻어 있다. 1962년에 그려 진 이 작품은 소박한 여인이 물건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투박한 재질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영학(한국/1948~) 입상(화강암/110×30×25cm/1990년 작)

작가의 입상은 주로 화강석이나 곱돌을 소재로 해서 투박한 돌의 속성이 거친 표면 처리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극도로 간략하게 처리된 세부적 특징과 전체적으로 원통과 구형을 잇대어 놓은 것 같은 단순한 여인의 형태에서 마애불을 연상시키고, 우뚝 선 기둥 같은 전체적인 인상은 장승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화강암 재료의 특성을 살리면서 양감을 살려 전통 돌조각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생 각 과　표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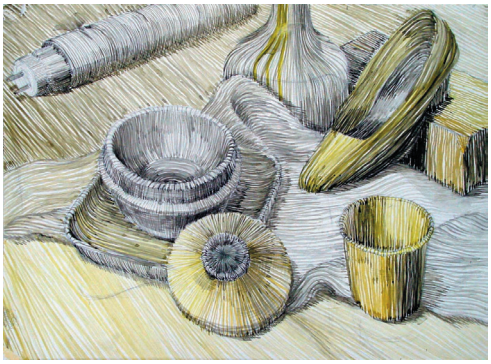
기본적인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해 본다.

점으로 나타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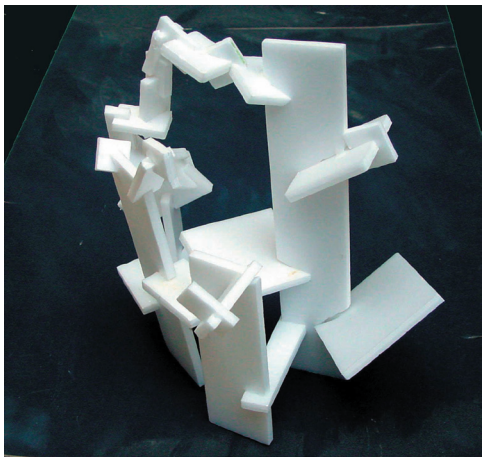
임채린(학생 작품)

선으로 나타내 보기



최정임(학생 작품)

면으로 나타내 보기



최예원(학생 작품)

● 양감

양감이란 영어로 용적(容積), 체적(體積)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체가 3차원에 의하여 공간 중에 차지하고 있는 양을 말하며, 크기나 두께의 느낌이 합치되어서 양감이 생긴다. 양감이란 물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일, 즉 물체에는 보이지 않은 측면이나 뒷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참된 양감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물체가 공간에 실재할 때 시각적으로 광선에 의한 명암이 없다면 양을 느낄 수 없다.

조각에서 실재의 부피에 의해서 양감을 느낀다면, 회화에서는 감각적으로, 그리고 암시적으로 양감을 느끼게 된다. 회화에서 느끼는 양감은 2차원적인 평면을 3차원적인 입체로 느끼게 하는, 즉 실체가 아닌 환영(illusion)인 것이다. 회화에서 양감이 나타날 경우에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듯한 용적감이나 묵직한 물체의 중량감이 전해지게 된다. 그리고 대상물의 형태를 구분하는 윤곽선에 의해서도 양감을 느낄 수 있다. 양감은 촉각적인 대상으로서 파악되고 우리가 입체물의 주위를 돌면서 눈으로 촉각하여 그 양감을 확인한다. 이것을 시각적인 촉각이라고 한다.

구체는 응축하려는 표면적과 최대한도까지 넓혀져서 확장하려고 하는 양쪽 상극에 의하여 생긴 형이다. 그리고 충실한 양감을 준다. 인간의 본능 가운데는 양괴에 대한 근원적인 매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석문화의 흔적에서부터 현대에 건축물을 구축해 나가는 것까지 이러한 면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큐비즘에서는 양감을 재현하기보다는 거꾸로 그 분해를 시도하고 이것을 회화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것은 암시적인 양감의 재현보다 오히려 평면이라는 2차원 속에서의 문제 추구로 현대 회화의 하나의 방법에 속한다.

● 질감

질감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재질감, 즉 텍스처(texture)이고, 다른 하나는 마티에르(matiere)이다. 텍스처는 작품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바탕의 결을 말하는 것으로 표면이 딱딱하다, 울퉁불퉁하다 등과 같이 표현한다. 마티에르는 그려진 것의 질감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그림이 마치 치맛자락처럼 보이는 것, 물방울처럼 보이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재료의 질감을 가리켜서 말한다. 재료의 질감은 그림 물감의 결의 느낌, 기저물의 차이에 의한 표현의 차이를 나타낸다.

미술에서 질감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시각적인 질감과 촉각적인 질감이 그것이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촉감을 상상할 수 있으며, 만져보는 것만으로 생김새를 짐작할 수 있는 원리와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소묘에 있어서의 질감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질감에 가까운 것이며 시각적인 질감이란 마티에르를 말한다. 시각적인 질감은 모사적 질감과 창조적 질감으로 구분된다. 모사적 질감이란 이름 그대로 실물을 모사하는 것을 말하고, 창조적 질감이란 작가의 눈을 통해서 대상물을 관찰한 다음 작가의 감수성을 통해 표출되어 나온 질감을 말한다.



조형 원리를 찾아서

교과서 pp.72~75

● 단원 설정의 이유

조형 요소와 원리는 미술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감상하는 데 중요한 시각 언어로서,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단원에서는 전 차시에서 학습한 조형 요소를 기본으로 다양한 조형 원리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모든 미술 작품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학생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 언어로 조형 원리를 표현해 봄으로써 표현 및 감상 활동에서 분석과 해석의 요소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이해	조형 원리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표현	조형 요소를 적용하여 다양한 조형 원리를 표현한다.
감상	미술 작품에서 두드러진 조형 원리의 특징을 분석한다.

단원	미술의 감상 – 분석과 해석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미술 작품의 조형 원리와 특징을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종이, 펜, 색연필, 채색 도구 등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실기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조형 원리의 개념 이해하기 – 조형 원리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표현하는 수단인 것을 안다. –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조형 원리의 종류와 개념을 구체화한다.	· 조형 원리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사진 자료를 준비한다.
전개	◎ 비례, 균형, 통일, 변화, 대비, 강조, 율동 동세 알기 – 교과서에 나온 예시를 중심으로 비례, 균형, 통일, 변화, 대비, 강조, 율동, 동세의 개념을 이해한다. – 미술 작품에서 두드러진 조형 원리의 특징을 분석하고 작가의 창의적인 표현 방법과 작품의 느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 조형 원리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 반복, 방사, 점이의 방법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스케치해 본다. – 시각적 리듬감을 더해 스케치를 구체화한다. – 조형 원리의 느낌의 살려 평면 또는 입체로 표현해 본다.	· 조형 원리의 개념과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살펴본다. · 다양한 표현 방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정리	◎ 작품에 두드러진 조형 요소의 특징 분석하기 – 자신의 작품과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며 두드러진 조형 원리의 특징을 분석하며 감상한다.	·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
평가 관점	• 조형 원리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였는가? • 조형 요소를 적용하여 다양한 조형 원리를 표현할 수 있는가? • 미술 작품에서 두드러진 조형 원리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최정화(한국/1961~) 카발라(플라스틱 바구니, 철/18×10m/2012년 작)

최정화는 싼 플라스틱 소쿠리, 그 눈부시게 하찮은 것도 숭고할 수 있다는 것,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이다. 카발라는 유대 신비주의의 용어로 '전래된 지혜와 믿음'을 뜻한다. 작품은 빨강 · 초록 플라스틱 소쿠리 6000여 개로 만든 16m 높이 설치물로, 소비 사회의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이탈리아/1452~1519) 인체 비례(종이에 펜, 잉크/34×25cm/1485~1490년경 작)

다 빈치는 인체를 그린 다음에 비트루비우스(로마 시대의 건축가)가 주장한 인체 비례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적었다.

"자연이 만들어 낸 인체의 중심은 배꼽이다. 배꼽에 맞춰 원을 돌리면 두 팔의 손가락 끝과 두 발의 발가락 끝이 원에 닿는다. 사람 키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잰 길이는 두 팔을 가로로 벌린 너비와 같다."

기하학에서는 1 : 1.618이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비례라고 보았는데, 다 빈치는 바로 인간의 몸이 황금 분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황금 분할은 회화, 조각, 건축, 공예, 음악, 출판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카푸어(Kapoor, Anish/인도→영국/1954~) 큰 나무와 눈(스테인리스 스틸/높이 15m/2009년 작)

스테인리스 스틸은 카푸어가 199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재료이다. 카푸어의 작업은 물질성이 강렬한 재료로 물질을 뛰어넘는다. 이 작품은, 73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공으로 이뤄진 15m 높이의 조각이다. 거울 같은 표면의 스테인리스 스틸은 세상의 모든 장면을 담아낸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하늘 풍경과 오가는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매순간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한다. 카푸어는 이것을 "생성 상태에 있는 오브제"이며, 사물로 실재하면서도 사물성이 사라진 "비-오브제(non-object)"라고 했다.

아르망(Armand, Pierre Fernandez/프랑스→미국/1928~2005) 영구적인 다림질(셔츠/127×162cm/1997년 작)

아르망은 물체를 반복해서 늘어뜨리거나 쌓는 '집적'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모든 오브제들을 작품으로 사용하였다. 그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고도로 산업화된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을 기본으로 한다.

작가 탐구

누보 레알리즘과 아르망

누보 레알리즘은 내면적인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추상에서 벗어나 가시적인 것, 구체적인 현실의 것을 객관화하여 현실의 참여를 내세우는 것으로써 일상적인 오브제를 선택하였다. 이들의 오브제는 다다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소비 사회 속에서 현실을 긍정하였다. 특히 아르망은 도시에서 양산되는 폐품들을 오브제로서 집적하여 재조명한 작가이다.

참고 자료

● 비례

비례는 영어나 프랑스 어로 다같이 proportion이며, 비율, 분할, 균형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본래는 라틴 어의 proportio(관계)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전체 속에서 부분이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가 하는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뜻한다. 사물의 여러 부분 사이, 현상의 여러 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양적인 비례 관계, 이것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은 미술가의 기본적 능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술가에게 가장 익숙한 비례로는 인체의 비례와 황금 분할에 의한 비례가 있다.

그리스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8등신을 가장 이상적인 비례로 생각하였다. 그리스 시대에는 신을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자태로 생각하였는데, 폴리클레이토스는 카논(canon)이라는 인체 비례의 기준을 표시한 저서를 썼으며, 그의 '창을 멘 남자'는 카논에 의한 모범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오랫동안 인체미의 기준이 되어 왔다. 그 후 르네상스 시대에도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뒤러 등에 의해서 인체 비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 비례

대칭 균형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배치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방사형 균형	꽃잎처럼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비대칭 균형	양쪽에 균형을 이루는 정확한 규칙은 없지만, 명암, 크기, 색 등의 무게를 감각적으로 맞춰가는 균형을 말한다.

● 통일과 변화

통일은 여러 조형 요소들이 일정하게 반복되거나 조화롭게 결합되어 하나로 완성되는 느낌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통일은 반드시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요소들이라도 그 요소들끼리 조화롭게 연결되어 하나로 통합된 느낌을 전달하는 것도 통일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을 이루고 있는 미술 작품은 안정감과 질서를 느끼게 해 주지만, 통일이 지나치게 되면 작품이 지루하게 되거나 단조롭게 될 수도 있다.

반면 변화는 통일을 이루는 규칙을 깨고 차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단조롭고 지루한 화면에 시각적 흥미와 긴장감, 생동감을 만들어 준다. 하지만 화면 전체의 조화와 통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치게 변화를 주면 오히려 너무 산만해지고, 주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변화는 통일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



대비와 강조

서로 대립되는 형태나 색채, 느낌 등의 요소를 함께 배치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거나 변화를 만드는 것을 대비라고 한다. 색의 대비, 크기의 대비, 위치와 방향에 의한 대비 등이 많이 사용되는데, 조형 요소가 가진 특징은 반대되는 요소와 만났을 때 더 과장되고 강조되기 때문에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강조는 어떤 특정 부분을 강하게 표현하여 변화를 주는 것으로, 대비와 적절히 사용하여 표현한다. 강조된 부분은 시선이 집중되고 보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과도하게 사용하면 산만한 느낌을 주고 시선이 흩어진다.

1 보로프스키(Borofsky, Jonathan/미국/1942~) 걸어가는 사람(섬유 유리, 철/205×751×246cm/1994~1995년 작) 거대하게 표현된 인물의 모습이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의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거대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2 고흐(Gogh, Vincent Van/네덜란드/1853~1890) 밤의 카페 테라스(캔버스에 유채/81×65.5cm/1888년 작) 서로 보색 관계인 노랑과 남색을 사용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두 색이 서로 대비되면서 그 효과가 극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3 서도호(한국/1962~) 벽력(PVC, 유리판, 색판산판, 폴리우레탄, 레진/8×100×100cm/1997~2000년 작) 인물상의 크기를 대비시킴으로써 '집단 속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74

율동과 동세

율동은 선이나 형태 등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느낌을 주어 리듬감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반복, 방사, 점증은 율동감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살아 있는 듯한 생명력을 표현할 수 있다.

동세는 율동과 함께 움직임을 표현하는 요소로서, 표현 대상의 움직임과 표현 자체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 미술 작품 자체의 움직임을 모두 포함한다. 동세가 표현된 작품은 보는 사람에게 역동적인 느낌과 긴장감, 방향성을 느끼게 한다.

1 바를라흐(Barlach, Ernst/독일/1870~1938) 복수자(청동/445×820cm/1914년 작) 정면을 향해 나아가는 듯한 느낌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옷자락의 표현과 다리의 방향에서 운동감을 느낄 수 있다.

2 브레(Vernet, Bernar/프랑스/1941~) 무한대의 선(철/193×195×180cm/2005년 작) 유리한 곡선의 연결이 부드러운 율동감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생각과 표현 | 조형 원리 표현하기

반복, 방사, 점이의 방법을 사용하여 시각적 리듬감을 표현해 보자.

이인철(학생 작품) 회오리(레이프/30×30cm)

김은희(학생 작품) 면 복소리(종이에 채색/30×45cm)

이은우(학생 작품) 소리의 울림(코르크/45×30cm)

이지음(학생 작품) 빛(종이/높이 30cm)

정리
- 조형의 원리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 조형의 원리는 미술 작품을 구성하는 원리로서 시각적 효과를 준다.

평가
1. 미술 작품에 표현된 조형의 원리를 이해하였는가?
2. 조형의 원리를 활용하여 작품에 표현하였는가?

75

참고 자료

● 대비

서로 대립되는 형태나 색채 같은 요소들을 함께 배치하여 변화를 주거나 강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을 대비라고 한다. 보통 흰색은 회색 바탕 위해 있을 때 보다 검은색과 대비될 때 더 하얗게 보이고, 큰 물건은 큰 것끼리 있을 때보다 작은 물건 틈에 있을 때 더 크게 보이게 된다. 이처럼 대비는 조형 요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상대의 특징과 반대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과장되어 보이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대비가 강한 작품은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고, 전체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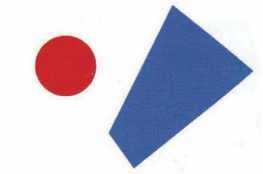
● 강조

미술 작품에서 전체와 다르게 어떤 특정 부분만을 강하게 표현해서 변화를 주는 것을 강조라고 한다. 강조는 미술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다르게 나타내기 위해 강약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한다. 강조를 표현하는 방법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만 선을 강하게 한다거나, 형태를 완전히 다르게 표현한다거나, 전체보다 강한 색을 사용해서 전체 배경과 대비되도록 표현한다. 이때 강조하는 부분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다면 시선이 흩어져 강조의 효과는 작아진다. 그러므로 강조할 때에는 강조 부분과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통합되게 해야 한다. 강조는 잘 사용하면 미술가의 개성과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보로프스키(Borofsky, Jonathan/미국/1942~) 걸어가는 사람(섬유 유리, 철/205×751×246cm/1994~1995년 작)

독일 뮌헨에 설치된 이 작품은 재료를 운송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작가는 이 작품의 내부를 철근으로, 그리고 외부를 유리로 표현했는데, 거대하게 큰 인물의 형상을 작업하기 위해 내부에 철근으로 계단을 만들어 상부를 완성했다고 한다.



보로프스키는 단순히 크기를 변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는 미술가는 아니지만 위와 같이 단순히 크기를 달리 함으로써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기도 한다. 그의 작품에서 형태, 크기, 질감, 양감 등은 작품의 공간 활용에 영향을 준다.

고흐(Gogh, Vincent Van/네덜란드/1853~1890) 밤의 카페 테라스(캔버스에 유채/81×65.5cm/1888년 작)

'밤의 카페 테라스'는 고흐가 1888년 9월, 프로방스 아름 포룸 광장의 활기 넘치는 밤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고흐는 기 드 모파상의 소설에 나오는 밤의 카페의 묘사를 읽은 후, 이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편지에서 밝혔다. 그는 이 주제를 상세하게 펜과 잉크 드로잉을 했지만, '현장에서 밤을 그리고 싶다..... 그것이 희미한 불빛이 있는 진부한 밤 장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다. 그는 인상주의자들처럼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고 어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했다. 이 그림은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만으로 밤 그림을 나타냈다. 특히 이 작품에서 건물의 차양 표현이 두드러지는데, 고흐는 두 개의 대조적인 광원, 즉 카페에서 나오는 번쩍이는 인공적인 빛과 미묘한 별빛을 묘사하고자 했다. 그는 여러 가지 노란색으로 그려진 차양의 안쪽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또한 이 노란색의 빛에 대한 표현은 두꺼운

물감 층으로 표현된 밤하늘의 파란색 계열과 색의 대비를 이루고 있어, 작품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서도호(한국/1962~)바닥(PVC, 유리판, 석탄산판, 폴리우레탄, 레진/8×100×100cm/1997~2000년 작)

서도호의 관심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이라는 '나'와 '나와 다른 것'과의 관계, 그리고 그 경계를 뛰어넘는 소통에 있다. 그것은 특정한 공간과 지역을 초월하여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온전하게 연결시켜 주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이 작품은 이질적인 혹은 동일한 문화 속에서 '자아'라는 본질적 의문에 대한 탐구이다. PVC(폴리염화비닐)로 만든 수만 개의 인물상들이 팔을 뻗쳐 손바닥으로 유리판을 지탱하고 있고, 그 위로 관람객들이 걸어가도록 고안된 이 작품은 하나가 가로, 세로 1m인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물상들은 백인, 황인, 흑인, 남성, 여성의 서로 다른 인종과 성별로 이루어진 여섯 종류의 인물상들이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모듈 하나에 4천여 개 정도의 인물상이 포함된다. 작가는 유목민화되고 세계리즘화된 현 세계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의 문제와 개인과 집단의 상호 작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바를라흐(Barlach, Ernst/독일/1870~1938) 복수자(청동/445×820cm/1914년 작)

바를라흐는 독일의 유겐트슈틸 양식과 표현주의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조각 작품들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시나 자신이 직접 쓴 희곡에 들어갈 삽화를 위해 제작한 목판화와 석판화 작품들로도 유명하다.

바를라흐의 초기 청동상과 나무 조각상들은 유겐트슈틸 양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그러나 이후 1906년에 자아를 찾고자 떠난 러시아 여행으로 작품 양식이 변모하게 된다. 독일의 중세 나무 조각상과 러시아 농부들의 육체적인 강인함에서 영향을 받아, 그는 작품의 선을 단순화시켰다. 또한 제1차 세계 대전 중 그가 목격한 비극은 바를라흐로 하여금 고통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특징은 '복수자'의 상징적인 제목에서도 엿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환희에서부터 고독에 이르는 인간 감정에 대한 묘사를 묵직하게 주름진 옷을 입은 대형 인물상들로 나타냈다. 그의 작품은 종종 표현주의자들의 작품과 비교되지만, 바를라흐의 진정한 예술적 목표는 인간 실존의 위기와 구원의 가능성을 묘사하는 데 있었다.

브네(Venet, Bernar/프랑스/1941~) 무한대의 선(철/193×195×180cm/2005년 작)

베르나르 브네는 작품 제작 전에 '개념'을 먼저 설정한다. 작품은 그 개념에 대한 기록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는 '비결정적인 선(indeterminate line)'을 통해 기존 철 조각의 좌대를 없앰으로써 현대 조각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그의 조각들은 철의 무게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강하면서도 유연한, 역동적이면서도 침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동세가 강하면서도 침묵하는 태도를 엿보이는 그의 조각은 물질 자체가 아닌 개념의 우위, 개입이 아닌 무위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스토리 위주의 기존 조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 율동을 구성하는 방법

반복	점·선·면·색의 크기와 형태, 간격 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반복하는 방법
방사	주제가 뻗어가는 방향이 화면의 중심에서 화면 밖을 향해 펼쳐지도록 하는 방법
점이	점진적인 변화를 말하는 데, 색의 명암이나 형태의 크기가 출발점에서 다른 한 쪽을 향해 규칙적으로 점점 증가하며 변화해 가도록 구성하는 방법

● 동세

동세란 무브망(mouvement(프))이라고 하며 회화나 조각 등에서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표현 효과로서 쓰이고 있는데, 세부의 묘선과 색채가 전체와 관련하여 동적인 화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조형 예술에서 시간을 수반하는 움직임을 취급하는 것은 모순처럼 생각되지만 표현 속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개념으로서 취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현이 공간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으므로 운동의 직접성을 나타낼 수는 없으나 간접 표현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동작의 포즈를 나타낼 때 형상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보는 사람에게 움직임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형체의 방향이나 겹침·반복 등을 사용하여 방향감을 암시하고 보는 사람에게 움직임을 느끼게 하며 선은 그 자체가 방향성을 암시하고 여러 가지 운동감을 일으키게 한다. 또 동양화에서는 동세를 기운생동(氣韻生動)이라고 한다.

활 동 자 료

● 조형 원리 표현하기

① 전 차시에서 배운 조형 요소를 기본으로 반복, 방사, 점이의 방법을 적용하여 표현해 본다.
② 다양한 색을 사용해도 좋지만, 가급적 기본 개념에 충실하여 단순하게 표현해 보도록 한다.
③ 평면 혹은 입체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건에 따라 정육면체 전개도를 활용하여 평면을 입체 작품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새로운 재료의 탐색

교과서 pp.76~79

● 단원 설정의 이유

예술가들은 같은 소재를 나타내더라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재료와 표현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다. 현대 미술의 표현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더욱 범위가 확대되어 우리 생활 주변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물들과 서로 다른 분야의 재료, 과학 기술까지 흡수하고 있다.

새로운 매체는 미술 작품에 흡수되어 새로운 미술의 종류를 만들어내고,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정신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현대 미술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술 재료에 대해 알아보고, 재료에 따른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작품의 가치에 대해 살펴본다.

● 학습 목표

이해	현대 미술에 사용되는 재료를 통해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재료의 확장을 이해한다.
표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를 찾아 작품을 제작해 본다.
감상	정크 아트와 아상블라주 등의 현대 미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재료의 다양성을 통한 미술 영역의 확장을 안다.

단원	미술의 감상 – 분석과 해석	**차시**	①②③❹⑤⑥⑧
학습 주제	재료에 따른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가치를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생: 생활 주변의 재활용품, 글루 건, 종이 상자 등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실기 평가, 감상문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 감상하기 – 현대 미술 표현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한다. – 작가들이 사용하는 재료가 작품에서 갖는 조형적 특징과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재료와 작가들의 작품 의도를 중심으로 감상한다.
전개	◎ 재활용품으로 표현하기 – 학생들이 준비해 온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확인한다. – 마인드맵을 통해 자신이 준비한 재료와 작품의 구상을 구체화한다. – 작품을 통해 주제와 내용을 심화시켜 완성해 본다. – 재료들이 부드러운 소재가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루건이나 접착제의 사용에 대해 안내를 한다. – 작품을 좀 더 다듬고 주변을 정리한다.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자신이 준비한 재료와 작품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 감상문을 통해 표현 의도와 주제 등을 적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작품을 비평한다.	· 교사는 마인드맵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작품을 하기 전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도록 한다. · 필요에 따라 모둠 학습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 교사는 감상 활동지를 준비한다.
정리	◎ 미술 개념을 알고 미술 영역의 확장 감상하기 – 자신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난 후에, 정크 아트와 아상블라주 작품을 한 작가를 중심으로 감상한다. – 미술 개념을 이해하고, 현대 미술이 일상 소재와 동시대 인간들의 사고방식을 전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 미술의 이해가 직접적인 전달이 되지 않고 스스로 문제 해결능력에 의해서 생길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관점	• 현대 미술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통해 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재료의 확장을 이해하였는가? •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를 찾아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 현대 미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재료의 다양성을 통한 미술 영역의 확장을 감상하였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구성연(한국/1971~) 사탕 시리즈(라이트 젯 C타입 프린트/지름 110cm/2011년 작)

구성연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온갖 모양의 사탕을 모아 모란꽃을 피워낸다. 실제 모란꽃보다도 더 현란한 그 사탕 꽃들은 작가의 손놀림에 따라 두 폭 병풍이 되기도 하고, 화분에 꽂힌 단아한 정물이 되기도 한다. 모양이며 빛깔이 하도 정교해서 볼수록 매혹적인 사탕 꽃을 빚어낸 작가의 솜씨는 가히 장인에 가깝다. 어쩌면 그녀가 만들어 낸 최종 작품은 사탕 꽃이고, 사진은 그저 그 꽃의 기록물에 불과하다는 착각마저도 든다. 작가는 본질적으로 가짜인 대상을 찍음으로써 사진이 사실적 재현이고, 사진 속의 것들은 진짜라는 우리의 믿음을 깬다.

스포에리(Spoerri, Daniel/루마니아→스위스/1930~) 점심(패널에 콜라주/지름 110cm/1972년 작)

그의 첫 작품은 '함정 그림(Tableaux-pieges)' 연작으로 널빤지 위에 각종 오브제를 붙인 후 이를 벽에 걸어 마치 그림처럼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림처럼 평평한 판자가 바탕이지만 그 위에는 평면적인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체인 물건들이 붙어 있어 순수한 그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작품이다. 평면 위에 물건을 붙여 그림도, 조각도 아닌, 하지만 그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이 기발한 작품은 이후 스포에리의 닉네임이 될 만큼 유명해졌다. 스포에리는 작품의 주제를 심오한 형이상학적 개념이나 난해한 미술사의 논리에서 끌어오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찾아내려 했다. 그는 여기에 자연스럽게 배치된 물건들의 형태에서 흥미로운 조형성을 발견했다.

라이프(Laib, Wolfgang/독일/1950~) 헤이즐넛 꽃가루(헤이즐넛 꽃가루/320×360cm/1986년 작)

1977년 처음 제작된 이래 세계 미술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꽃가루' 작업은 동양 사상 가운데 특히 성장과 변화의 순환과 반복이라는 '도'의 본질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의 집 주변에 널려 있는 민들레, 송화, 개암나무, 미나리, 아재비, 이끼 등의 꽃가루들은 채집되어 세심하게 체로 걸러져 바다에 뿌려져 전사되거나 병 속에 넣어진 채로 보관 전시되었다. 그의 작업 과정은 철저하게 자연의 주기와 리듬에 맞춰 이루어진다. '꽃가루' 작업의 이미지는 물질과 공간과의 관계에서 매우 모호하고 암시적이며, 은유적이고 시적이다.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을 분석적, 수학적으로 공식화시키는 서구 실증과학의 방법론은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다.

성연주(한국/1986~) 가지 2(피그먼트 프린트/160×120cm/2010년 작)

성연주는 다양한 음식 재료를 사용하여 옷을 만든다. 가지, 대파, 목이버섯, 바나나, 부추, 식빵, 새우, 토마토, 연근 등 자신이 채집해 온 모든 재료가 원단이 되는 것이다. 그것들을 씻거나 껍질을 벗기고, 자르고 다듬어 손질한 뒤, 옷의 디자인을 점검하고 작가의 상상을 거쳐 옷을 만든다. 음식이 상하는 이틀 안에 복잡한 퍼즐을 맞추듯 음식 재료들을 배열하고 붙이기를 반복한다. 옷이 완성되면 사진으로 기록한 다음, 옷은 음식물 쓰레기로 폐기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만든 것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만드는 방식이다. 상상하고 만들며, 사진을 찍고 버려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작가가 보여 주려는 것은 단지 옷도 아니고 음식도 아닌, 동시에 옷이면서 음식이기도 한 경계가 모호한 이미지를 만들어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루마니아 태생으로 스위스로 이주했다가 다시 프랑스로 건너와 학업을 마친 그는 본래 또 다른 스위스 출신의 예술가인 장 탱글리(Jean Tinguely)의 조수로 예술에 입문했다.

작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되풀이되는 식사에 주목했다. 동료들이 아틀리에에 놀러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테이블에 남아 있는 접시들, 주변에 널려 있는 나이프와 포크, 물 컵들은 충분히 예술 작품이 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참고 자료

● **정크 아트**

일상생활에서 생긴 폐품이나 잡동사니를 소재로 제작하는 미술을 말한다. 입체주의 작가인 피카소와 브라크의 파피에 콜레,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콜라주, 슈비터즈의 메르츠 등 선구적 원천이 있지만, 본격적인 정크 아트의 출발점이 된 것은 라우센버그의 컴바인 페인팅이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걸쳐서는 특히 기계의 부품 등 현대 문명이 토해 낸 산업 폐기물이나 공업 제품의 잔해를 소재로 사용하는 작가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등장했다.

정크 아트 작가로는 부서진 자동차 부품을 이용했던 챔벌레인, 쓰레기 금속이나 나무, 타이어 등으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 수베로, 파괴된 가옥의 목재와 가구로 거대한 부조 작품을 제작한 네벨슨, 압축시킨 자동차를 쌓아올린 세자르, 아르망, 파올로치, 팅겔리, 스탄키에비치 등이 있다. 또한 캐프로의 작품과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까지 환경과 해프닝에 있어서는 쓰레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호리우치(Horiuchi, Toshiko MacAdam/일본/1940~) 에어 포켓(나일론 섬유/가변 설치/2007년 작)



섬유 미술가인 작가가 만든 신개념 놀이터 에어 포켓(Air Pocket)이다. 에어 포켓의 특징은 진동을 느끼며 기어 다니고 미끄러지고 튀어 오르면서 서로 모르는 아이들과 함께 협동심을 느끼면서 놀 수 있다는 점이다. 그물에 올라가 몸을 구르면 각자의 진동이 다른 어린이에게 영향을 주게 되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려 노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올덴버그(Oldenburg, Claes/스웨덴→미국/1929~) 부드러운 변기(비닐과 플렉시 글래스/144.9×70.2×71.3cm/1966년 작)

올덴버그는 현대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비-물질화' 성향의 예술가이다. 그는 석고로 만들어진 채색된 햄버거, 비닐 가죽으로 된 '부드러운 변기' 등 일상생활에서 아주 친숙한 대상들의 재료들을 치환하거나 스케일을 확대시킴으로써, 대상의 성격이나 대상이 갖는 심리적 속성에 충격을 준다. 그는 사물들을 견고하게 전통적인 조각 기법으로 그 소재를 작품화하지만,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한 부드러운 형태로 제시한다. 또한 그것들을 거대한 크기로 변형시켜 관객에게 일종의 괴리감을 주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들에서 그가 사용하는 사물은 더 이상 본래의 그 사물이 아닌 것이 된다. 그는 팝 아트의 대표 작가로 알려져 있다. 1950년 말부터 1960년대 초에 오브제(objet)가 관객과 일상적 환경 속에서 전개하는 일련의 충격적인 작품을 시도하였다. 일상의 오브제를 거대하게 확대하여 관객의 심리에 충격을 준다든지, 전기청소기나 선풍기 등의 딱딱한 제품을 부드러운 천이나 비닐로 만들어 해학적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마이어스(Myers, Andrw/독일→미국/1981~) 사브리나의 초상(혼합 재료/121.92×121.92×12.7cm/2009년 작)

마이어스는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사못을 이용해 초상화를 표현하는 작가이다. 작품은 수천 개 이상의 나사못을 하나하나 드릴로 박아서 초상화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조각에 좀 더 3차원적인 입체감을 구현하기 위해 나사못의 깊이를 조금씩 달리한다. 그리고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 그 위에 오일 페인트를 칭해서 초상화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한다. 작품의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전화번호 책이고, 그 위에 수많은 나사못을 각각 높낮이를 달리하여 입체감을 나타낸다.

사와야(Sawaya, Nathan/미국/1974~) 생각(블럭/107×77×56cm/2006년 작)

사와야는 블록을 사용하여 인간 모양을 만드는 작가로 레고 예술가, 혹은 레고 아티스라고 불린다. 그는 변화사이면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작업은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갖고 놀았을법한 레고고 관객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한다. 작가 또한 어릴 때 레고를 접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복잡한 생각이 사로잡히면 레고 작업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소재는 주로 명화, 모아이 석상, 인간의 형상 등이 대부분이다. 그의 작품은 정교한 공예품처럼 만들어지며, 그 이면에는 작품에서 보여 지는 공간감과 컬러감이 더욱 깊이감을 더한다. 특히 인체는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인데, 여기서 인체와 공간, 인체와 사물과의 관계를 실제 사이즈로 만들거나 과장하여 크게 또는 작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다.

무니즈(Muniz, Vik/브라질→미국/1961~) 시지프스(혼합 재료/233.7×180.3cm/2005년 작)

브라질 빈민가 출신인 무니즈는 어느날 거리에서 우연히 싸움을 말리는 도중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 '운이 좋게도' 총을 쏜 사람이 부자여서 사건을 묻는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그는 '카타도르'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재료로 삼아, 이들이 모델로 등장하는 작품 제작을 기획하였다. 예술과 인문학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카타도르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 빅 무니즈는 2년간 카타도르와 함께 생활하고 소통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활용해 카타도르의 초상이 담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빅 무니즈'와 함께 생전 처음으로 예술 작업을 하게 된 '카타도르'들은 작업이 진행될수록 쓰레기 속에 묻어두었던 꿈과 희망,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협업으로 탄생된 쓰레기 아트(junk art)는 환상적인 예술 작품이란 평가를 받는다.

지용호(한국/1978~) 고양이 2(폐타이어, 철, 스티로폼/28.7×81.8×64.7cm/2009년 작)

지용호는 흙, 대리석과 같은 전통적 조각 재료 대신에 현대 사회의 산물인 '폐타이어'로 작업한다. 그러나 형식과 기법 면에서 순수 전통 조각의 맥락을 잇고 있는데, 철이나 스티로폼으로 기본 뼈대를 제작한 후 그 위에 실제 근육처럼 여러 종류의 폐타이어를 자르고 접착하는 전통적 소조 기법의 제작 방식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딱딱한 타이어로 동물의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근육을 재현하기 위해서 각 타이어들의 특징을 감안한 후, 그것을 근육에 적합하도록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전통적 조각 매체인 '타이어'로 탄생된 뮤턴트는 전통과 현대 조각을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아상블라주

'아상블라주'란 프랑스 어로 집합 · 집적을 의미하며, 특히 조각 내지 3차원적 입체 작품의 형태를 조형하는 미술상의 방법을 말한다. 종이나 베의 조각 등을 화면에 풀로 붙이는 큐비즘의 콜라주에서 비롯되었지만, 콜라주가 평면적인 데 대하여 아상블라주는 3차원적이다. 1961년 뉴욕에서 열린 '아상블라주전(展)'의 기획자 W.사이츠는 "아상블라주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술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물체의 집적이어야만 한다."고 정의하였다.

피카소의 '압생트 술병'(1912) 등이 선구적 작품이지만, 본격적인 개화는 다다이즘 및 초현실주의,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네오 다다이즘, 팝 아트, 누보 레알리즘 및 환경 예술 등에서 이루어졌다. 스페리, 아르망 등은 폐품을 소재로 예술화한다는 데서 더 나아가, 오히려 '잡동사니' 폐품이 지닌 표현력을 끌어내려는 데 예술 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업 제품의 폐품을 주로 사용한 정크 아트도 이에 속한다.

활동 자료

● 재활용품을 표현하기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재료로 작품을 제작해 본다.



심화 자료

● 지용호의 '뮤턴트(mutant)'

변종을 뜻하는 '뮤턴트'란 동식물의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이 현상을 거쳐 형성된 결과물을 의미한다. 변이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용호는 특히 인공적인 변이에 관심을 갖는다. 이는 유전자의 인위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해 모든 생명체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슬픈 변종 '뮤턴트'들은 비정상적인 형태이거나 다른 종의 동물과 합쳐진 새로운 생명체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강한 인상에서 보이는 슬프고 처량한 눈빛은 연약하고 불안정한 그들이 존재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미술의 감상 분석과 해석

사회를 반영한 생생한 미술

사회를 반영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역사 ·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한다.

미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다. 미술가들은 미술 활동을 통해 개인의 개성이나 감정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시대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당대의 생활 모습을 전송하게 그려내기도 하고, 역사에 남을 사건과 영웅을 기록하기도 하며, 전쟁과 재난을 소재로 그림으로써 평화를 염원하기도 한다. 또 최근에는 환경 문제, 빈곤과 소외, 폭력 등 현대 사회의 다면 과제를 담아내고 있다.

미술은 시각적인 언어로 빠른 전달력과 호소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술 작품을 통해 당대의 생활 모습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환경을 생생하게 유추할 수 있다.



1 최호철(한국/1965~) **플지로 순환선종**이에 종합 재료/87×296cm/2000년 작. 산도합력으로 조립되고 있는 전형 인의 모습과 내일 종경을 그린 제품으로 제타다의 생각과 일상에 참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하다. 거대한 도시의 일부와 삶이 사이를 상징하는 사람들의 일상과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2 뒤피 Dufy, Raoul/프랑스/1877~1953 **전기의 요정**(부분/캔버에 유채/1,000×6,000cm/1937년 작) 1937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자 사람들은 밤에도 낮은 및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전구의 이용에 우리 삶에 노동을 주는 수많은 기계는 전기 없으로 작동한다. 전기의 발견은 지금의 우리가 있는 인류 문명을 만든 핵심 요소이다. 뒤피는 산기에 대한 위대한 역사의 그림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작품을 그렸다.

분 석 미술 작품은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교과서나 화보집, 사이버 갤러리에서 미술에 관는 미술 작품을 선정하여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조사하고 분석해 보자.



미술의 사회 참여

미술가들의 미술 작품은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시대를 반영한다. 전쟁이나 기난, 인간 소외 등의 사회적인 문제점을 소재로 그림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알리거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역사상 위대한 정치가나 왕과 여왕, 왕족, 귀족들은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거나 영웅화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반면, 정치적인 움직임에 저항하는 항변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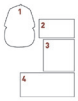


1 루팡3번의 가면 종합 재료/높이 54cm/기원전 1,300년경 작/이집트의 테베로에 살아 있는 신으로 알려진 파라오의 그림이 종전한 위엄과 부정함은 사후 세계까지 지속하는 신성한 권력을 상징했다.

2 호퍼 Hopper, Edward/미국/1882~1967)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캔버스에 유채/84.1×152.4cm/1942년 작) 1940년대 미국의 항 빈 거리의 함께감이 느껴지는 대도시 풍경을 묘사한 작품으로 현대인의 삶과 고독을 담았다.

3 달리 Dali, Salvador/에스파냐~미국/1904~1989 **살은 경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캔버스에 유채/100×99cm/1936년 작 에스파냐의 내전 때문에 발발한 무기력 콜린스라운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이다. 화면 중앙의 거대한 인물은 심리적인 동시에 파괴력, 민간적인 모습은 사색지고 한 장아적의 살로만 남은 모습으로 묘사하여 전쟁의 추악한 단면을 만나냈다.

4 피카소 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게르니카**(캔버스에 유채/349×775cm/1937년 작 에스파냐 내전 당시 나치군이 게르니카 지역 양대를 폭격하는 장상을 그린 작품이다. 전쟁은 양식의 모습을 표현으로써 폭격과 전쟁에 대한 분노를 기록으로 남겨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나치군의 진혹함과 전쟁의 참상에 관해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사회를 반영한 생생한 미술

교과서 pp.80~83

● 단원 설정의 이유

민화는 일반적인 전통회화에 비해 세련미는 떨어지지만, 익살스럽고 소박한 형태와 대담한 구성, 현란한 색채로 특징지어지는 양식이 오히려 한국적인 미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이러한 민화에 대한 감상과 표현을 통한 학습은 전통미술을 애호하고 향유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한다. 또한 민화 작품을 디자인에 적용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이 단원에서는 민화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한 후 표현과 감상 활동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면 전통미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 학습 목표

이해	민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의의와 가치를 판단한다.
표현	민화의 표현 기법을 익힌 후 디자인에 적용해 개성을 살려 표현한다.
감상	민화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단원	미술의 감상 – 분석과 해석	**차시**	①②③❹⑤⑥⑧
학습 주제	사회를 반영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역사 ·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멀티미디어 자료, 프로젝터, 참고 작품 자료 등 학생: 필기도구, 석고, 채색 도구, 수묵 채색 도구 등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실기 평가, 감상문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미술과 사회의 관계 탐색하기 – 미술과 사회의 관계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한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미술 작품의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감상한다.	· 다양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여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전개	◎ 그림과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 알기 – 미술은 작품이 제작된 사회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술 작품 속에 다양한 모습을 살펴본다. 예) 역사적인 혁명과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 빈부 격차, 시민 사회의 모습, 서민들의 생활, 동시대 사회 문제, 현대의 대중문화, 디지털 문화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 등 ◎ 사회를 반영한 작품 표현하기 –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표현 주제를 정한다. – 주제 표현에 적당한 재료와 표현 방법을 정한다. – 전체 분위기와 주제를 강조하여 제작한다.	· 미술가들이 시대의 사회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표현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다양한 표현 방법을 모색하고, 주제를 구체화한다.
정리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작품 의도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 작품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한다.	·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작품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평가 관점	• 미술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였는가? • 주제 표현에 적당한 재료와 표현 방법으로 사회를 반영한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가? • 사회를 반영한 작품을 감상하고,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였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투탕카멘의 가면(혼합 재료/높이 54cm/기원전 1,330년경 작/이집트)

투탕카멘 가면은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미술 작품이다. 이 가면은 사치스러운 재료와 뛰어난 기술이 결합되면서 웅장하고 복합적인 인상을 창출해 낸다. 가면은 4왕조(기원전 2575~2467경)이래로 사용되었지만, 보석이 점차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신왕조 시대(기원전 1550~1070경)에 훨씬 더 정교해졌다. 투탕카멘의 가면은 망치로 두드린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진다. 좀더 수수한 가면에서 얼굴의 특징과 다른 세부 묘사는 그려졌지만, 폭넓은 상감 기법이 사용된 투탕카멘의 가면은 화려한 효과를 내며, 이는 특히 매우 공들인 깃에서 잘 드러난다. 상감 세공은 청금석, 홍옥수, 흑요석, 청록색 유리를 포함한다. 가면은 위험과 부패로부터 망자의 시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파라오의 영혼이 사후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보존은 필수적인 것이다. 시신이 방부 처리되고 사제들이 〈사자의 서〉의 필요한 주문을 암송하면, 가면이 내려져 파라오의 머리를 보호하게 된다. 가면을 무늬가 들어간 모자에 부착하고, 그것을 다시 두꺼운 수지로 시신에 붙였다. 가면이 발견되었을 때 매우 단단하게 덮어 씌어졌기 때문에 미라의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진 후에야 가면을 분리할 수 있었다.

호퍼(Hopper, Edward/미국/1882~1967)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캔버스에 유채/84.1×152.4cm/1942년 작)

절제되면서도 무심하고 사실주의적인 이 작품에서 그는 미국의 사회학자 리차드 세네트가 '시각적 화려함 속에서 느끼는 역설적인 고독'이라고 칭한 것을 다룸으로써 도시의 고독감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야간 식당의 밝은 형광 조명이 주변을 둘러싼 우울한 어둠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 이 형광등은 화면상의 유일한 빛으로, 날카로운 윤곽선의 그림자들을 만들어 내며, 이는 느와르 영화의 강렬한 조명 효과를 주면서 영화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식당 건물의 곡선형 정면은 출입구가 그려져 있지 않아 내부의 인물들을 가두면서 동시에 외부 관람자를 차단하는 느낌을 주며, 위쪽에서 비추는 조명은 관람자의 시선을 인물에게 유도하여 마치 연극 무대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게르니카(캔버스에 유채/349×775cm/1937년 작)

'게르니카'는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에스파냐로부터 의뢰받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에스파냐의 극우파 정권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가하는 작품이다. 스페인 내전 중인 1937년에 북부 바스크 지방의 수도인 게르니카에 가해진 독일의 융단 폭격을 묘사하여 전쟁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의 강렬함은 부분적으로 서사적인 요소들과 추상적 형태의 결합, 화면에 색채를 사용하지 않은 것 등의 요소들이 더해 준다. '게르니카'는 서술적 상징이 많이 도입되어 있지만, 피카소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해석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당신이 지닌 생각이나 결혼은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표현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여인을 밟고 있는 말의 모습은 당대의 유럽 독재자들, 즉 프랑코와 히틀러, 그리고 무솔리니가 통제 불능의 상태임을 암시한다.

피카소는 르누아르, 툴루즈, 뭉크, 고갱, 고흐 등 거장들의 영향을 받았다. 한편 도기(陶器) 제작과 조각에도 정열을 쏟고 석판화의 제작도 많아 이 영역에서도 새로운 수법을 창조하였다. 그 후 6·25전쟁을 주제로 한 '한국에서의 학살'(1951), '전쟁과 평화'(1952) 등의 대작을 제작하여, 현대 미술의 선구자로서 거장다운 활약을 하였다.

참고 자료

● **검과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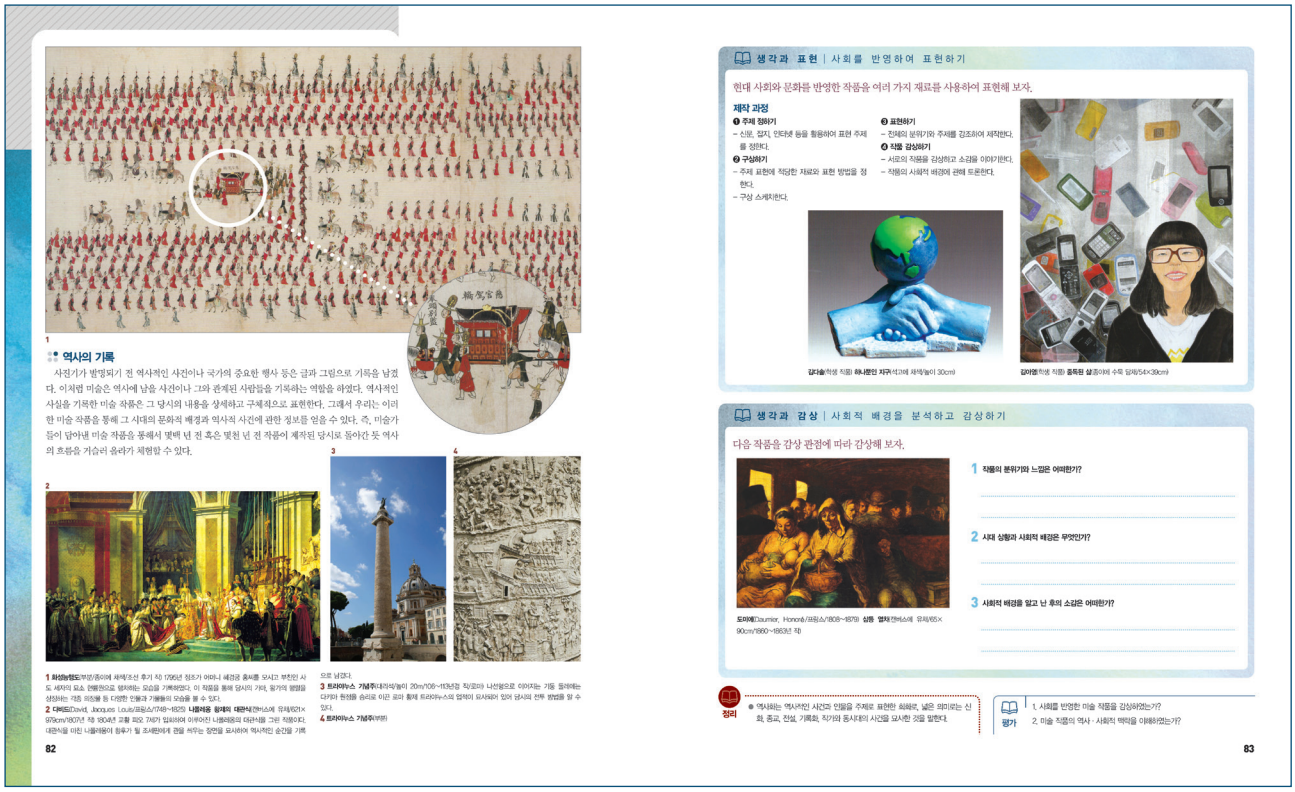


조각상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죽은 전사의 팔이 작품의 중앙 하단부에 놓여 있다. 이것은 잔해 밑에 처박힌 것이거나 잘려나간 것일 수도 있다. 손은 부러진 칼을 계속 잡고 있는데, 손 가까이에서 자라고 있는 유령 같이 희미한 꽃은 생명의 부활에 대한 상징이다.

● **말**



작품 중앙의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데, 여기서는 에스파냐의 독재자와 독일 나치의 폭격에 의한 에스파냐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한다. 피카소는 말의 콧구멍과 사람 같은 이빨들을 보여 줌으로써 죽음을 나타내고자 했다.



보충 자료

● 의궤도

의궤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조선 시대의 국가적 의례에 관한 규범을 보이고 이를 후세에 본보기로 남기기 위하여 기록한 전적을 이른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그림을 의궤도라고 한다.

의궤도는 이들 기본 의식 절차뿐만 아니라 각 행사의 특수성과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세부 절차, 행사의 진행 일정, 진행 중 관계 기관들이 상호 주고받은 문서, 도감 참여자의 명단, 행사에 소요된 물품의 상세한 목록, 화원 및 각종 공장(工匠)의 등급별 명단, 시상(施賞) 내역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궤반차도(儀軌班次圖), 또는 그 행사를 위하여 제작된 병풍이나 기타 기물(器物)들의 그림인 도설(圖說)을 포함한다. 그래서 조선 시대 궁중의 생활 문화, 또는 군신간의 한 사안에 관한 논의 과정,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준다.

궁중의 행사가 다양한 만큼 의궤의 종류도 다양하며 이들을 어람용(御覽用), 각 사고(史庫) 분상용(分上用)으로 최소 5건(件)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행사에 따라 의정부(議政府) · 예조(禮曹) · 춘추관(春秋館) · 시강원(侍講院) 등의 보관용을 합하여 8~9건까지 제작하기도 하였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화성능행도(부분/종이에 채색/조선 후기 작)

'화성능행도'는 정조가 1795년 윤 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부친 사도 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탄신 일주갑이 되는 해로 정조가 현륭원 전배를 마친 뒤 화성 행궁에서 진찬례를 베풀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세심한 배려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 이를 기념하여 행사의 도설을 김홍도에게 제작하게 하고, '원행을묘정리의 궤'에 그대로 담았다. 그리고 이 도설에 기초하여 김홍도를 따르던 김득신, 최득현, 이인문, 이명규, 장한종, 허식 등에 의해 병풍으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화성능행도'는 호위하는 군사, 관료들과 구경나온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삼삼오오를 이룬 인물의 포즈를 다양하고 해학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시정을 리얼하게 묘사하여 당대 풍속적인 소재를 담은 기록화의 백미로 인정된다.

심화 자료

● 조선 시대 다양한 모습 살펴보기



종묘조서연관사연도(종이에 수묵 채색/44.2×61cm/18세기)



명묘조서총대시예도(종이에 수묵 채색/44.2×58.6cm/조선 후기)

다비드(David, Jacques Louis/프랑스/1748~1825)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캔버스에 유채/621×979cm/1807년 작)

이 작품은 교황 비오 7세 입회 아래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거행된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을 묘사하고 있다. 다비드는 군집한 인물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빛을 밝게 처리해 거대한 군중을 묘사할 때 자칫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했다. 개개의 인물들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위엄과 장대함 또한 갖추고 있다.

신고전주의는 로코코의 장식적인 양식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하였는데, 다비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의 회귀를 강조하며 신고전주의를 정착시킨 사람 중 하나이다.

다비드는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차이점을 딱딱하고 직선적인 남성의 윤곽선과 부드럽고 곡선인 여성의 윤곽선 대조를 통해 확연히 드러냈다. 그림의 구성까지도 견고함을 강조했다. 각 인물들을 조각상 같이 배열해 로마식 아치가 있는 평면적인 배경 위에 돌출되게 묘사하였다. 나폴레옹의 수석 화가였던 그는 이 그림에서 혁명기의 단순한 구도 대신 황제 취향에 맞추기 위해 과장되고 화려한 양식을 썼고, 색은 화려하지만 여전히 화면은 매끈하게 표현했다.



다비드(David, Jacques Louis/프랑스 /1748~1825)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캔버스에 유채/330×425cm/1784년)

이야기의 배경은 로마의 건국 시대이다.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리던 로마와 알바 두 도시는 마침내 양쪽에서 3인의 전사를 내어 승부를 결정짓기로 하였다. 결의에 찬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고귀한 애국심의 고취와 비장함을 보여 주는 한편, 실의에 빠진 여인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감성'에 앞서는 '이성'의 모습을 실증하고 있다.

트라야누스 기념주(대리석/높이 20m/106~113년경 작/로마)

트라야누스 기념주는 로마 조각의 서사적인 부조 형식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약 200m 길이의 부조(조각)가 나선형으로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데 적어도 150개 이상의 대량 학살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맨 위에는 도시의 함락, 중앙은 다키아군과의 전투, 맨 아래는 요새 밖에 있는 곡초를 베는 병사들이 새겨져 있다.

트리야누스 황제는 지금의 루마니아인 다키아에서 치른 전쟁과 승리의 연대기를 모두 그림으로 새긴 거대한 원형 기둥을 세웠다. 이 기록을 통해 침략하고 싸우고 정복하는 로마 군단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 미술이 이룩한 모든 기술과 업적이 승전을 보고하는 이 기념주에 구사되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사람들에게 전쟁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정확한 묘사와 자세한 설명을 중요시했다. 따라서 그리스 미술의 특징인 조화나 아름다움, 또는 극적인 표현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주려고 했다.

참고 자료

● 감상 관점에 따른 감상-도미에

1860년대의 비좁고 열악한 열차 한켠을 묘사하고 있는 이 그림에서는 사회적인 갈등이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생 프랑스 근대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비판의 시각을 놓지 않았던 도미에는 사회적 사실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작업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림은 열차에 탑승한 서민들을 그려 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말이 없고 시선을 피한 채 아무런 교감 없이 군중 속의 고독에 빠져 있다. 가난한 서민들의 침묵이 불러내는 우울한 시대의 울림과 현대 사회의 소외를 느낄 수 있다.

① 작품의 분위기와 느낌

그림은 열차에 탑승한 서민들이 모두 말이 없고 시선을 피한 채 아무런 교감 없이 고독에 빠져 있다. 가난한 서민들의 침묵이 불러내는 우울한 시대 상황과 현대 사회의 소외를 느낄 수 있다.

② 시대 상황과 사회적 배경

19세기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나 시민 계급이 형성되었고, 무엇보다 대중 매체가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급속한 산업화로 수많은 젊은이가 파리로 몰려들었고, 도시에서의 삶은 매일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필요로 했다.

신문과 잡지는 정보의 대중화는 물론 빅토르 위고, 발자크, 스탕달 같은 대문호를 탄생시켰으며 미술가들에게도 새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가난한 민중의 삶에 지극한 연민을 가진 화가 도미에는 이 같은 현실을 적극으로 반영하였다. 그는 1832년 국왕을 비판하는 정치 만화를 기고했다가 투옥된 적이 있고, 모든 신문 잡지에 정치 풍자 캐리커처를 전면 금지 당하기도 했다. 그는 1855년경부터 철도에서 풍부한 영감을 얻어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고된 노동이나 장기 여행에 지친 삼등열차의 승객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삼등열차'에는 자본주의 초기의 현실에 대한 예리한 풍자가 동시에 담겨 있다.

활동 자료

● 포토몽타주 활용한 조형 표현

① 잡지, 신문의 사진 이미지나 직접 촬영한 사진을 준비한다.
②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표현 효과를 시험해 본다.
③ 사진을 표현 재료로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풍경, 인물을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 보거나,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그림에서 줄거리를 만들어 본다.
④ 표현하고자 한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서로의 작품을 비평해 본다.





전통과 현대

교과서 pp.84~87

● 단원 설정의 이유

전통 미술은 우리 문화의 중심축을 이루는 핵심 요소로서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는 미술 양식과 민족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 미술의 감상과 표현을 통한 학습은 우리나라의 미의식을 발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게 되어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문화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 단원을 통해 전통 미술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고 전통 미술의 표현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익혀 우리나라 미의식의 바탕 위에 현대를 살고 있는 자신의 개성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 학습 목표

이해	우리나라 전통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의의와 가치를 판단한다.
표현	전통 미술의 표현 기법을 익힌 후 현대 미의식에 맞게 개성을 살려 표현한다.
감상	전통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단원	미술의 감상 – 분석과 해석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전통 미술의 가치와 특성을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표현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화선지, 수묵 및 채색 도구(먹, 한국화 붓, 한국화 물감, 접시 등)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지필 평가

단계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참고 작품을 제시해 전통 미술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 시대별 · 주제별 · 소재별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게 해 소재의 다양성과 표현 기법의 특징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한다. – 전통 회화의 특징과 의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전통 회화의 정신성과 자연 친화적 특징을 작품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한다.
전개	◎ 작품의 제작과정 설명하기 – 수묵화와 채색화의 제작 과정을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보여 준다. –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 표현 기법을 상세히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전통 회화 표현 기법을 연습할 수 있게 하고, 순회하며 지도한다. **⊙ 학습 활동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작품 제작하기** – 현대적으로 표현된 다양한 전통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작품의 제작 방안을 모색해 스케치한다. – 전통 미술 재료를 활용해 작품을 제작해 완성한다.	· 전통 미술 재료의 표현 특징과 기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정리	◎ 서로의 작품 감상 하기 – 자신의 작품의 제작의도와 특징 등을 개인별로 발표한다. – 목적에 맞게 제작되었고, 재료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타인의 의견 및 작품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평가 관점	• 미술 작품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이해하였는가? • 콜라보레이션을 이용하여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는가? • 미술 작품이 갖는 다양한 가치와 활용에 대해 토론해 보았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흑구도(김두량)

김두량의 흑구도는 조선 후기의 회화에서 동물화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향이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작품으로 구도는 조선 중기에 유행한 절파계의 소경 산수 인물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것이다. 검은 개의 표현에는 북경을 통해 들어온 태서법이라 불리는 음영법이 구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긴 털, 주둥이와 눈자위, 발의 표현에 이러한 이국적인 표현이 잘 나타나있다. 가려워서 짜증스러워 하는 표정도 완벽하게 묘사되었다. 이처럼 김두량은 전통과 새 양식을 능란하고 숙달된 솜씨로 조화시켜서 전에 보지 못한 참신한 동물화를 개척하였다.

파초도(정조)

정조 대왕은 학문과 예술을 사랑했던 왕으로 스스로도 문인 취향의 화훼 그림을 그림으로써 회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파초도는 하나의 괴석과 그 옆에 서 있는 한 그루의 파초를 다루었는데 농담의 변화를 추구한 묵법이 돋보인다. 몰골법으로 처리된 파초의 줄기, 농담을 달리하는 먹으로 나타낸 넓적한 잎 등에는 필법과 묵법에 관한 정저대왕의 깊은 터득이 드러나 있다. 배경 없이 주제만을 부각시킨 시각, 파초와 바위가 이루는 형태상의 조화와 구성미, 능숙하게 살려낸 먹의 변화감, 필요한 부분에만 표현된 구륵법, 액센트를 가하기 위해 보태진 점법 등은 정조 대왕이 간결한 필묵법으로 수준 높은 회화미를 창출할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혀 준다.

맨드라미와 쇠똥벌레(신사임당)

맨드라미와 쇠똥벌레는 조선초기 신사임당의 초충도 중 하나이다. 신사임당은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서 시서화에 모두 뛰어났고 산수화, 노안, 포도 그림에도 뛰어났으나 특히 초충도로 유명하였다. 사실상 조선 시대의 모든 초충도는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분야의 절대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신사임당의 초충도들은 한결같이 단순한 주제, 간결한 구도, 섬세하고 여성적인 표현, 산뜻하면서도 한국적 품위를 지닌 색채 감각 등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이와 유사한 그림들이 수다하게 제작되었다.

작가 탐구

천경자 (한국/1924~)

우리나라 채색 동양화를 대표하는 화가로서 수필가로도 활약했다. 천경자의 작품 세계는 1942년부터 세계 여행을 시작하는 1969년까지를 전기, 그리고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를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에는 주로 현실의 삶과 일상에서 느낀 체험을 바탕으로 삶과 죽음 등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후기는 외부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 자신의 꿈과 낭만을 실현하려는 시기였다. 후기는 특히 꽃과 여인을 소재로 환상을 표현하거나 해외에서 느낀 이국적 정취를 통해 원시에 대한 향수를 반영하고 있다.



고(종이에 채색 / 40×26 cm /1974년 작)

보충 자료



● 조선 시대 3대 풍속화가 비교

종이	닥나무의 섬유질을 주원료로 만들며 두께나 흡수력의 정도에 따라 나뉜다. 수묵화에선 화선지, 채색화에서는 장지를 주로 사용한다.
먹	소나무 태운 그을음으로 만든 송연묵, 기름을 태운 유연묵, 이 두 가지를 섞어 만든 유송묵이 있고, 원료와 아교 질이 품질을 좌우한다.
붓	염소, 닭, 족제비 등 동물의 털을 엮어 제작하며 탄력에 따라 붓의 쓰임이 달라진다.
벼루	주로 돌로 만든 것을 사용하며, 먹을 가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먹이 곱게 갈리고 물기를 적당히 흡수하는 것으로 골라야 한다.
물감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교를 녹인 물과 섞어서 사용해야 하며, 학생들은 튜브에 들어있는 물감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 수묵화의 표현특징

① 화선지에 먹이 스미고 번지는 성질을 이용해 그린다.
② 선과 농담에 의한 표현이 주를 이룬다.
③ 음영을 생략하거나 배경을 여백으로 처리하여 공간을 암시한다.
④ 여백은 공간을 암시하며, 낙관과 함께 조형상의 효과와 화면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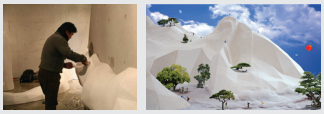
● 채색화의 표현특징

① 수묵과 어우러지는 채색의 정도에 따라 엷게 채색하는 수묵 담채화와 진하게 칠하는 진채화로 나뉜다.
② 서양 물감에 비해 발색과 내구성이 뛰어나다.
③ 진채화 기법으로 표현시 혼색에도 높은 채도를 유지할 수 있고 색이 잘 번지지 않는다.
④ 완성 후에 물로 배접을 해도 그림이 상하지 않는다.
⑤ 서양식 명암 표현보다 채색의 차이와 농담의 차이를 강조한 표현이 주를 이룬다.



보충 자료

● 옮겨진 산수 유람기(임택) 제작 과정



① 산수 모형을 입체 형태 구조물로 만든다.

② 제작된 산수 모형을 특정 공간에 설치해 촬영한다.

③ 실제 풍경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들을 촬영한다.

④ 촬영한 사진들을 컴퓨터로 합성해 완성한다.

활동 자료

● 전통 재료를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

① 구상: 전통회화 재료와 어울릴만한 패키지 디자인 제작 방안을 구상한다.

② 제작: 구상한 디자인을 전통 회화 재료를 활용해 패키지에 적용해 완성한다.

③ 감상: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마상청앵도(김홍도)

김홍도가 그린 조선 후기 산수 인물화다. 종이에 수묵 담채로 표현하였으며, 수직으로 긴 화폭 하단 오른편에서 비스듬히 아래로 쏠리는 언덕과 길을 대각선 구도로 잡았다. 오른편 언덕에 수척한 버드나무 한 그루가 높이 서 있으면서 파릇파릇한 잎이 달린 가지를 위로 뻗고 있다. 길에는 한 선비가 동자가 이끄는 나귀를 타고 가다 문득 멈춰서 버드나무 가지 위 꾀꼬리를 유심히 바라본다. 그는 한 손에 고삐를 잡고, 한 손에는 접는 부채를 쥐고 있다. 언덕과 길은 엷은 먹으로 바탕을 칠한 다음, 초목을 촘촘히 찍어 잡초를 여기저기 벌려 놓았다. 나귀 탄 선비와 종자의 모양은 아주 가는 붓끝으로 세밀하게 이전보다는 현실에 가깝게 표현되었다.

바로 오른편에 치우친 전경을 제하고는 화폭 전체에 끝없는 빈 공간이 펼쳐진다. 화폭 왼편 위쪽에는 다음과 같이 그림을 평하는 시가 있다.

"佳人花底簧千舌(꽃 아래 佳人은 천 가지 황(簧 : 악기의 일종)의 혓소리 내고), 韻士樽前柑一雙(시인의 술독 앞에는 두 알의 귤 보기도 좋네.) 歷亂金樽楊柳岸(언덕 위 버들가지 새를 어지러히) 惹烟和雨織春江(오가는 저 꾀꼬리, 안개와 비를 엮어 봄강을 짜는 구나.) 碁聲流水古松舘道人 李文郁證(기성유수고송관도인 이인문이 감상하다.)"

이 시는 소리 · 색 · 움직임, 그리고 배경을 적절히 구사한 명시로, 시와 그림이 썩 잘 어울려 시가 먼저 있고 그림이 나왔는지, 그림이 있고 시가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그림과 잘 어우러져 있다. 이 작품은 여백의 맛을 잘 살리는 산수 인물화의 좋은 예이며, 풍속 인물의 묘사가 우리 멋을 풍기고 있다.

심화 자료






● 사군자의 정의와 유래

춘하추동에 해당하는 네가지 식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린 그림으로 각 식물의 장점을 군자, 즉 학식을 갖춘 사람의 인품에 비유한 그림을 말한다. 북송의 소식과 문동이 묵죽을 문인화의 소재로 발달시키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는 고려 시대에 사대부들이 묵죽, 묵매를 그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대부는 물론 화원들도 대나무 그림을 즐겨 그렸고, 15,16세기부터는 백자의 표면에도 나타난다. 사군자의 기법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조선 후기부터이다.

식물	속성 및 상징
매화	이른 봄의 추위에도 제일 먼저 꽃피움. (군자의 지조와 절개 상징)
난초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림. (군자의 고결함 상징)
국화	늦은 가을에 첫 추위를 이겨냄. (군자의 은일자적함 상징)
대나무	겨울에도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함. (군자의 높은 품격과 강인한 기상 상징)

● 사군자 표현 기법

사군자는 수묵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형태의 윤곽을 선으로 먼저 그리고 그 안을 메우는 구륵법으로 그렸으나 북송 시대부터 사대부 화가들에 의해서 먹이나 채색만을 사용해 그리는 몰골법, 묵화나 가느다란 먹선만 사용하는 백묘법으로 그려져 왔다. 사군자는 다른 소재에 비해 형태가 비교적 간단하여 서예의 기법을 이용해 그릴 수 있어 서예와 동일시되기도 했다.

기법	표현 방법
구륵법	형태의 윤곽을 선으로 먼저 그리고 그 안을 채색으로 메우는 방법
난초	윤곽선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그리는 기법
국화	대상의 형태를 윤곽선만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고도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함.

작가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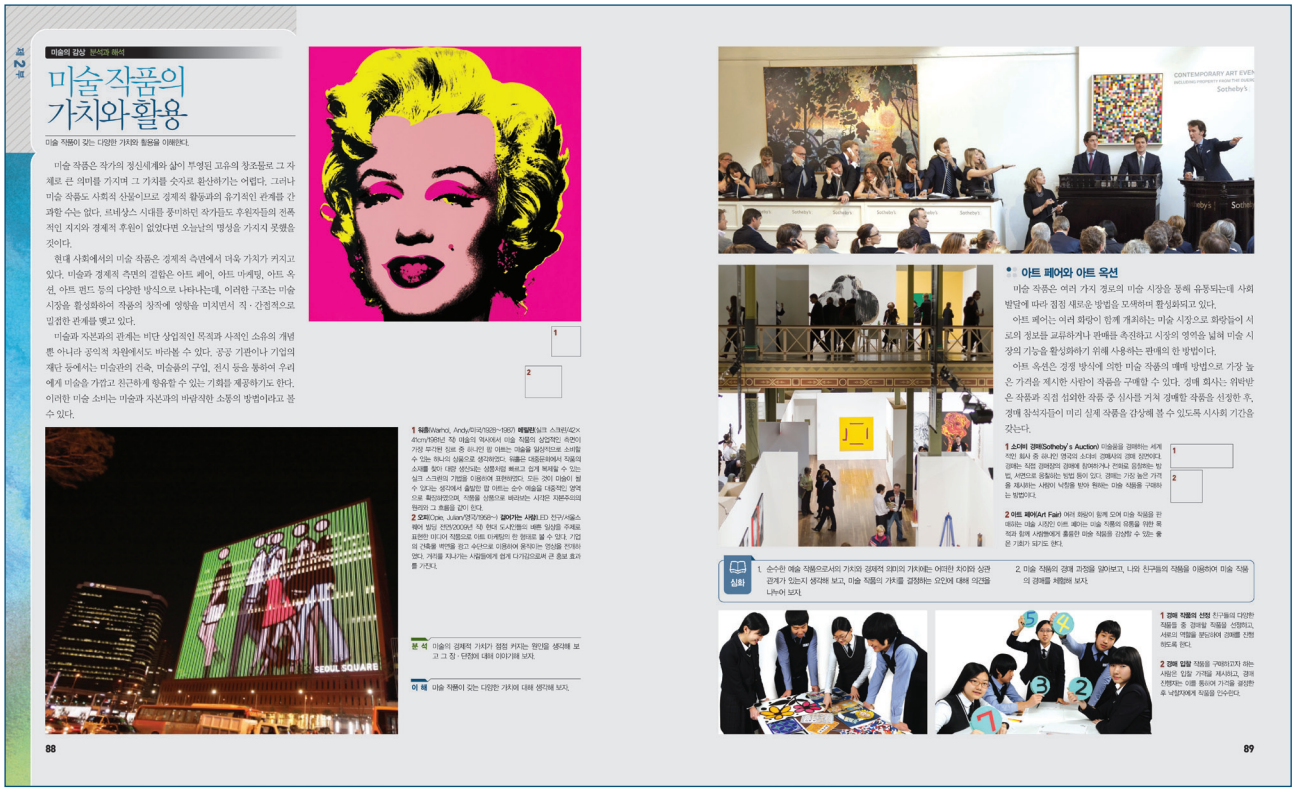
손동현(1980~)



손동현은 2005년 작가로 본격 데뷔하자마자 현대 동양화의 영역을 넓힌 신예 작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전통 동양화 기법을 따른 그의 그림은 그간 동양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었다. 영화 속 주인공이나 애니메이션 등장 캐릭터들이 전통적인 동양화의 초상화 방식으로 그려진 것이다. 각 작품의 제목 역시 독특했다. 이는 그림 속 주인공인 인물의 됨됨이를 축약하여 묘사하는 전통 초상화 방법론을 따르는 동시에, 프랑스를 발음상 '불란서'로 표기하고 발음하듯 외래어를 한자로 표기하던 옛 방식을 고려한 것이다.

작가는 각 캐릭터 이름과 발음이 유사하고 그 뜻까지 고려한 한자로 음차한 제목을 달았다. 따라서 배트맨의 초상은 '영웅배투만선생상', 애니메이션 '슈렉'의 주인공 슈렉과 동키를 그린 '막강이인조술액동기도'등과 같은 제목을 붙였다. 이러한 제목들은 전통의 방식으로 현대적 소재를 담는 그의 작품 특유의 유쾌한 재치를 더욱 강조했다.

영화 속 등장 인물뿐만 아이라, 자본주의 소비 문화 속의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시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문자도'와 같은 전통적인 주제로 대중의 많은 호응을 얻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렇게 그의 그림은 그저 유명한 캐릭터나 사람들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현'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즐겨온 대중들의 취향과 트렌드, 그 시대와 문화들을 표상하고 있다.



미술 작품의 가치와 활용

교과서 pp.88~91

● 단원 설정의 이유

현대 사회에서 미술 작품은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가치가 커져 가고 있다. 아트 페어, 아트 마케팅, 아트 옥션, 아트 펀드 등의 다양한 방식은 미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술과 자본의 관계는 상업적인 목적을 넘어 공익적 차원의 공공 기관이나 기업의 재단 등에서 대중들의 미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미술 작품이 한 개인의 소유물을 넘어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제화 측면에서의 가치와 활용에 대해 살펴본다.

● 학습 목표

이해	미술 작품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이해한다.
표현	미술가의 작품을 상품에 접목하는 콜라보레이션을 이용한 디자인을 해 본다.
감상	미술 작품이 갖는 다양한 가치와 활용에 대해 토론해 본다.

단원	미술의 기능 – 미술과 언어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미술 작품이 갖는 다양한 가치와 활용을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지필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미술 작품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알기 – 교과서를 중심으로 미술 작품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두루 살펴본다. – 아트 페어, 아트 마케팅, 아트 옥션, 아트 펀드 등의 개념을 알고, 현대 사회에서 미술과 자본의 관계에서 공공 기관과 기업의 재단 등에서 바람직한 미술의 소비 방향성에 대해 살펴본다.	· 다양한 참고 작품을 살펴보며 이해를 높인다.
전개	◎ 아트 페어와 아트 옥션, 아트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기 – 아트 페어, 아트 옥션, 아트 마케팅 개념을 이해하고, 과거와 현대의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미술 소비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이 작품을 스스로 정해 경매 활동을 모둠별로 진행해 본다. ◎ 콜라보레이션 이용한 디자인하기 – 콜레보레이션을 할 작가의 작품을 선정한다. – 콜레보레이션을 할 나의 물건을 정해 디자인해 본다. – 완성된 작품을 보고 디자인의 의도를 서로 공유해 본다.	· 작품성뿐만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서의 작품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정리	◎ 메세나 운동에 대해 알기 – 교과서 읽기 자료를 중심으로 메네나 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 우리 주변에서 미술과 경제가 만나 활용되는 예를 찾아본다.	· 미술 작품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한다.
평가 관점	• 미술 작품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이해하였는가? • 콜라보레이션을 이용하여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는가? • 미술 작품이 갖는 다양한 가치와 활용해 대해 토론해 보았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워홀(Warhol, Andy/미국/1928~1987) 마릴린(실크 스크린, 42×41cm/1981년 작)



판화가, 상업적 삽화가, 아방가르드 필름 제작자로 활동한 미국 출신의 앤디 워홀은 보통 '팝 아트'라고 줄ㅇ 부르는 대중 미술의 대표자이다. 그는 처음에 피츠버그의 미술 학교에서 상업 미술을 배웠다. 뉴욕으로 이주한 뒤에는 상업적 삽화가로 일했다. 그의 초기 미술 작업은 1960년경에 미술가 그룹 '신사실주의자'와 연관된다. 그들은 1920년대 다다를 뿌리로 하고 자신들의 작품이 추상 표현주의의 역설적 반대라고 간주했다. 그의 팝 아트는 일상의 물질주의와 소비자 문화에 회화로 작업될 만큼 가치를 부여했다. 워홀의 작품은 미국의 대중문화, 대중문화 브랜드의 상품, 명사들에 대한 찬양과 비판 사이를 오간다.

워홀은 팝 문화의 글래머 스타 메릴린 먼로를 선택한다. 이 영화배우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며, 앤디 워홀의 마밀린 이미지도 그런 현상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 워홀은 실크 스크린을 통해 마릴린의 사진을 150개 연속으로 캔버스에 전사했다. 이런 작업에서 워홀은 언제나 영화 '나이아가라'에서 찍은 스탈 사진 한 장을 이용했다. 1962년 8월 2일 먼로가 사망하자, 워홀은 그 해 말까지 먼로의 실크 스크린 그림을 20장 이상 제작하여 이 스타에 대한 슬픔과 매혹은 표현했다.

소더비 경매

소더비의 기원은 18세기까지 거슬러간다. 영국 런던의 서적 판매상인 사무엘 베이커에 의해 창시되었고, 그는 1744년 3월 11일 개인이 소장한 도서들을 한 장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경매를 실시한 것이 소더비 역사의 기원이 되었다.

오늘날 가장 큰 경매 회사인 소더비는 세계로 무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1967년 파리와 로스앤젤레스, 휴스턴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곳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1968년에는 멜버른, 플로렌스, 토론토에, 그리고 1969년에는 취리히, 뮌헨,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요하네스버그에 사무실을 추가로 개설하고, 이후 4년 동안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밀라노 등 유럽 지역에 더 많은 사무실을 확장해 나가며, 아시아 지역과 미국 여러 지역에도 사무실을 확대하게 된다.

국내 아트 페어

국내 아트 페어의 효시는 1979년 한국 화랑 협회가 주최한 화랑 미술계로, 화랑 미술계 판매 실적과 상관없이 한 자리에서 주요 화랑들의 연합과 대중들이 호흡하는 것 자체만으로 한국 미술 시장 내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1996년에 서울 국제 미술제가 시작되었으며 인사동, 사간동과 더불어 서울의 대표 화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청담동 화랑들이 주최하는 청담 미술제, 작품 정찰제를 내걸로 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마니프(MANIF)전이 개최되어 아트 페어의 활기를 돋우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다양한 성격의 아트 페어가 출범해 오면서 2002년에 시작된 한국 국제 아트 페어(KIAF)는 한국 아트 페어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부각되었다. 한국 국제 아트 페어는 해마나 전시 공간을 넓히고 참여 화랑 및 작가의 수가 급증하는 등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트 페어로 거듭나고 있다.

참고 자료

● 미술 시장의 유통 형태

① 화랑

미술품 유통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고, 주요 역할을 담당해 왔던 곳이 화랑이다. 화랑의 영문 표기인 갤러리(Gallery)는 미술, 미술관, 전람회 등의 용어와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근대 이후의 새로운 미술 문화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이자 시대어라 할 수 있다. 화랑은 미술 작품의 실제적 · 직접적 매매를 가능하게 하고 상업적 전시를 통해 그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영리적 성격의 기관으로, 미술 창작품 유통의 첫 단계로서 미술품의 우열을 전문적으로 감별하는 기능과 작가의 사회화 기능을 하게 된다. 화랑의 종류에는 전시장 대관을 하지 않고 미술품 판매에 의해 운영되는 상업화랑, 대관을 위주로 이윤을 추구하는 대관화랑, 그리고 일명 대안 공간이라 칭하는 비영리 화랑 등이 있다.

② 아트 옥션(미술품 경매)

경매 시장은 타 미술 시장보다 시장 경제 논리의 적용성이 높아 거리의 투명성이 돋보이는 미술 시장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경매 시장에서 미술품의 가격은 화랑이나 직접 거래와 같은 시장에서의 거래 실적과 작품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예측하는 데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세기 전반까지 미술 시장의 주역은 화랑이었으나, 이후 세계 미술 시장의 판도는 화랑 중심에서 경매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미술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의 경매 회사는 약 600여 개로,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전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③ 아트 페어

미술 시장 내에서 아트 페어는 경매, 화랑과 더불어 미술품을 거래하는 목적과 미술 시장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아트 페어가 매해 전 세계적으로 수십 건씩 개최되고 있다. 아트 페어는 한 장소에서 다수의 화랑, 또는 개인 작가들이 모여 집단적 전시를 통한 작품 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어, 단순한 작품 거래의 차원을 넘어 세계 미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이자 화랑 간 최신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아트 페어는 작가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도 있지만, 미술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화랑 사이의 정보 교환, 네트워크의 형성, 판매 촉진, 시장이 확대를 위해 화랑이 연합하여 개최하는 것이 보통이다. 화랑과 경매에 비해 동시에 수천 점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작품 경향과 가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매할 때보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며, 경매에서 작품을 구매할 때보다 절차를 따라야 하는 과정이나 시간의 긴박감이 감소된다는 점도 있다.

행사명	창설 연도	시기	참가 화랑수	개최지
아트 쾰른	1967	4	120	독일 쾰른
아트 바젤	1970	6	270	스위스 바젤
피악	1974	10	207	프랑스 파리
아르코	1982	2	230	스페인 마드리드
아모리쇼	1999	3	150	미국 뉴욕
아트 시카고	1980	5	125	미국 시카고
프리즈 아트페어	2003	10	150	영국 런던
아트 바젤 마이애미비치	2001	12	200	미국 마이애미
중국 국제 화랑박람회	2004	4	80	중국 베이징
아트 타이베이	1992	8	80	타이완 타이베이



보충 자료

●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은 사전적 의미로, '협력, 협동, 공동 연구'이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 '함께'를 의미하는 라틴어 'com'과 노동을 의미하는 'labor'가 합성된 용어로, '특히 지적된 노력을 위해 협력해서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협업, 공동 기획 작업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며 동종 혹은 이종분야의 상호 협력을 의미한다. 콜라보레이션은 제품이 더욱 독특하고 확실하게 포지셔닝(Positioning) 될 수 있고, 단일 브랜드 각각의 신제품 개발의 경우보다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차별화되지 못한 제품군들에 있어서 합리적인 제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제품의 시각적인 관점인 디자인에 집중된 브랜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 차별화 전략은 의외성과 재미요소로 소비자에게 흥미를 자극시키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한다. 콜라보레이션은 동종, 이종 영역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공 여부나 차후 경쟁 관계에 있어서 위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안전하고 차별화된 새로운 브랜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 분야의 연구에서는 콜라보레이션과 공동 브랜드 전략(Co-branding)이 이 같은 의미로 혼용되기도 하였으며, 콜라보레이션 전략적 제휴에 비해 디자인에 집중된 브랜드 결합으로 보는 등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활동 자료

●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이용하여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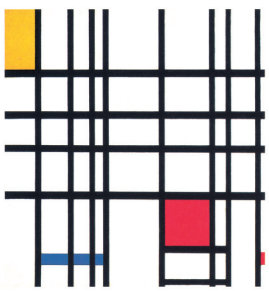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아트 마케팅

광의의 아트 마케팅은 초기 순수한 스폰서십 단계뿐 아니라 기업 가치와 이익 증대를 위한 예술 활용 마케팅, 그리고 제품의 제작 단계에 아트를 연관시킨 마케팅 등 비즈니스와 아트의 두 가지 키워드를 포함한 전 영역을 포함한다.

아트 마케팅은 '아트를 위한 마케팅'과 '마케팅을 위한 아트'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아트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후자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미술과 일반 제품이 만나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팝 아트이다. 대중을 위한 소비문화가 미술 작품으로 표현되는 것을 뜻하는 팝 아트는 1960년대에 대중 매체에서 자극을 받아 등장한 예술의 대중화를 가져왔고,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는 증대하기 시작했다. 앤디 워홀은 "미래의 미술관은 백화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이처럼 아트는 자본, 즉 돈과 깊이 관계를 맺어 왔으며 오래전부터 자본가는 아트를 지원, 또는 후원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며 이상향의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물리적 요인이 아닌 심리적인 차별화로 이미지를 높이고, 궁극적인 선호를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트 마케팅이다.





메세나 운동의 성공 사례

읽기 자료

도요타

지역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살린다는 취지의 도요타는 지역 문화 진흥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부터 25년간 전국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있다. 이 콘서트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최대 고민인 재정난이나 지도자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요타와 전국 도요타 판매 그룹들이 공동 개최하고 있다. 도요타는 2004년 재정 ·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공동 개최형 콘서트〉 4회, 지도자 · 게스트 초대 등에 관련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 지원형 콘서트〉 45회, 합계 49회의 콘세트를 개최하였다. 어린이와 아티스트의 만남 〈도요타 어린이 예술 교육〉 도요타는 아티스트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린이의 풍부한 감상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NPO 법인 〈예술가와 아이들〉과 제휴, 2004년 〈어린이와 아티스트의 만남〉을 창설했다. 〈어린이와 아티스트의 만남〉은 예술가가 학교 등의 현장으로 찾아가, 담당 선생님과 협력하면서, 음악이나 체육, 종합적인 학습 시간 등을 활용해, 예술 수업을 전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하는 것보다,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신진 NPO 아티스트 모임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은 도요타의 진정한 메세나 정신을 보여 주는 예이다. 또한 〈도요타 청소년 오케스트라 캠프〉는 청소년 약 150명을 대상으로, 현직 음악가를 초청해 오케스트라 연주를 지도하는 합숙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도요타는 자신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길러낸 걸출한 신인들로 구성된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완성한다. 차세대 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데 주력해 온 도요타의 메세나 활동들은 일본인들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을 충족시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유니레버

유니레버가 새로운 사업 전략을 채택한 것은 1999년이었다. 새롭게 채택한 전략 중 하나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증진시켜 기업 업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었다. 유니레버 영국 사업부도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직원들에게 더 큰 경영 마인드를 형성하자는 이 그룹의 세계적 지침을 따르고 있었다. 생활용품 및 식품 회사로서 세계 시장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연결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 예술과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시인, 작가들을 통한 작문 능력 개발, 배우를 통한 대화, 발표 능력 개발 및 사내에 미술, 사진 작품들을 전시하여 건조한 사내 분위기를 풍요로운 예술적인 분위기로 바꾸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유도함은 물론, 80%에 이르는 자발적인 참여로 사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이는 문화 예술을 통한 직원 능력 개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2년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된 이 프로그램은 유니레버 산하 다른 계열사로 확대되었다. 유니레버 예술 활동의 참여 결과는 프로그램 수행 목표였던 기업 문화와 업무 태도의 변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함양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되었다.

LG 연암 문화 재단

LG 연암 문화 재단은 2000년 3월 LG 아트센터를 설립하여 문화 예술 지원 분야까지 사업 범위를 넓혔다. 연암 문화 재단은 '문화 예술의 창작과 교류를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치 아래 총 공사비 620억원을 들려 1,103석 규모의 최첨단 공연장으로 LG 아트 센터를 건립했다. LG 연암 문화 재단은 LG 아트 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매년 부담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과 흥행 문제로 다른 극장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공연과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보육원, 공부방 아동을 초청하여 LG 아트 센터 객석의 일부 및 다른 공연장의 티켓을 무료로 제공하는 '즐거운 나눔 티켓' 사업을 한국메세나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SK 텔레콤

SK 텔레콤은 2000년대에 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킬만한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그 일환으로 한국메세나협의회가 운영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통해 예술 단체를 후원함으로써 사회 공헌 책임을 실천해 가고 있다. SK 텔레콤은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공헌 사업에 주력하여, 어린이들이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함께하는 세상' 캠프 운영을 위해 재정과 교육 인력 부족으로 문화 예술 교육의 사각 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실습 위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 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인 프로젝트 I 는 아이들이 스스로 I 작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아티스트와 함께 진행해 가는 예술 참여형 메세나이다. 다문화 가정 아동 등 문화소외 계층 아동들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프로젝트 I 는 소외 지역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여 폭 넓은 시각을 길러 줌으로써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한다. 일회성의 체험이 아닌 미래 사회 주역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인재로 키워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미술과 종교

교과서 pp.92~93

● 단원 설정의 이유

미술과 종교의 관계는 선사 시대부터 문명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개인이나 부족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시작해서 종교의 교리를 전달하거나 신앙심을 높이기 위해 만든 교회, 성당, 사원, 사찰 등은 많은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다. 현대에는 종교의 역할이 점점 들고 있지만, 신적인 존재에 의지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현대에도 생활 주변에서 쉽게 종교적 염원과 상징을 담고 있는 미술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선사 시대부터 이어져온 시대의 문화유산과 미술품 을 감상하며 미술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종교에서 나타나는 미술 양식의 특징과 상징적 의미들에 대해 알아본다.

● 학습 목표

이해	미술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감상	다양한 종교에서 나타나는 소재의 상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단원	미술의 감상 – 분석과 해석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미술과 종교의 관계를 알고, 종교 미술의 다양성과 상징성을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활동지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감상문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미술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기 – 미술사의 흐름을 살펴보며 미술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 종교가 미술에 어떤 식으로 개입되고 , 인간은 종교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미적 표현을 했는지 등을 생각하며 다양한 작품을 감상한다.	· 필요에 따라 교과서 116~123쪽을 연계하여 수업한다.
전개	◎ 다양한 종교에서 나타나는 미술 양식의 특징 살펴보기 – 여러 나라의 다양한 종교를 살펴보고, 각 종교와 관련된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 – 종교적으로 상징하는 소재, 주제 등을 중심으로 감상한다. ◎ 종교 미술의 상징성에 대해 감상하기 – 지식 더하기에 나와 있는 물고기를 중심으로 나라마다 다른 종교와 그에 따른 상징성을 살펴본다. –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종교와 관련된 문양이나 미술 작품을 찾아서 기원과 상징적 의미를 찾아본다.	· 종교에 따라 나타나는 소재의 상징, 제작 기법 등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작품 설명을 자세하게 한다.
정리	◎ 작품 분석해 보기 – 모둠별로 준비해 온 작품을 중심으로 종교와 관련해서 분석해 본다. – 자신이 분석한 작품을 발표해 본다. – 미술과 종교의 관계에서 과거와 현대의 흐름을 이해한다.	· 활동지를 준비하여 학생들이 분석하는 활동을 돕는다.
평가 관점	• 미술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였는가? • 다양한 종교에서 나타나는 소재의 상징을 이해하며 감상하였는가?	

수월관음도(비단에 채색/420×255cm/1310년 작/고려)

이 작품은 섬세한 기법과 우아한 색채, 금니와 은니의 적절한 사용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 준다. 살갗이 드러나게 흘러내리는 투명한 옷자락 사이로 관음보살의 자태를 짐작할 수 있다. 호화롭고 정교하며 귀족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고려 문화의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장면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두루 찾아뵙는 구법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타락가산에서 관음보살을 우연히 만나 대자비의 설법을 듣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꼭두(나무/높이 74cm/조선 시대 작)

나무 꼭두는 인간계를 아우르는 천상계, 수중계, 지하계뿐만 아니라, 금생에 국한하지 않는 전생과 내생까지 포괄한다. 예컨대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의 무한한 순환 연결은 이런 점을 나타낸다. 나무 꼭두의 크기는 입상의 경우 20~30cm가 대부분이다.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1609~1616년 작/터키) 황소를 제압하는 미트라 신(대리석/높이 133cm/2세기 작/로마)

하기아 소피아 대성당에서 불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는 가운데 커다란 돔에 수많은 작은 돔을 얹은 형태로 구성되어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수많은 기둥이 받치는 각각의 아치 위에 작은 돔이 둥글게 솟았고, 4단을 이루며 돔 숫자는 점점 작아지다가 마지막 거대한 중앙 돔에 이른다. 돔 주변에는 수많은 창을 내어 자연의 빛이 내부로 비치게 했다. 돔 위에는 황금색 장식을 달았고 맨 꼭대기에는 이슬람을 상징하는 별과 초승달을 얹었다. 모스크 내부는 약 2만 1,000개에 달하는 파란색의 이즈닉 타일과 푸른빛의 260개 유리창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발음하기 어려운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로 부르기보다는 파란색의 타일이 많은 사원이라 하여 '블루 모스크'라 부른다.

황소를 제압하는 미트라 신(대리석/높이 133cm/2세기 작/로마)

태양신으로 널리 알려진 미트라에 대한 신앙은 약 사천 년 전,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다. 미트라 신앙은 동으로는 인도에서 중국까지 서로는 로마 국경의 전 범위, 즉 스코틀랜드에서 사하라 사막, 에스파냐에서 흑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이 작품은 미트라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작품에서 황소를 제압하는 인물이 미트라로서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는 '세상의 빛'으로 불렸고, 예수와 마찬가지로 미트라 성 삼위 일체의 두 번째, 즉 아들의 존재로써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의 생일은 12월 25일로 경축되었다.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였다. 그의 부활은 기독교의 부활절 주기와 일치하며 12제자를 거느렸다고 전해진다.

로흐너(Lochner, Stefan/독일/1410~1451) 장미 정원의 성모 마리아(패널에 유채/50×40cm/1450년경 작)

이 작품은 독일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프랑스의 차갑고 지성적인 고딕에 비해 시적이면서도 낭만적인 모습으로 성모를 나타냈다. 성모의 가슴에 걸린 목걸이에는 유니콘이라는 동물이 새겨져 있는데, 인간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자란 그리스도와 자주 관련된다. 전설에 따르면 처녀만이 유니콘을 길들일 수 있으며, 이것의 뿔은 만병통치약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 신앙이 교회로 자연스럽게 수용되면서 유니콘은 성모님의 태중에 잉태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었다. 성모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의 손에 든 사과는 창세기에 나타난 선악과를 상징한다.

참고 자료

고려 불화는 미묘한 색채 사용으로 유명하다. 표현 기법은 검은 먹이나 붉은 색으로 그림 표면에 윤곽선을 그린 다음, 비단 뒷면을 채색하여 표현하였다. 옷은 초록색, 흰색, 금박을 비롯해 붉은색으로 채색하였고, 피부는 흰색, 그림 표면의 양 측면에는 황토색을 칠하였다. 금박은 윤곽선과 옷 주름이 완성된 이후에 칠하였다. 뒷면에 채색하는 기법은 보기 드문 부드러움과 깊이감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가산에서 관음보

● **미트라 신**

미트라를 숭배했던 장소들이 영국, 이태리, 루마니아, 독일, 헝가리, 불가리아, 터기,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시리아, 이스라엘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된다. 미트라 신앙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군인들의 종교가 되었고, 제국 전역에 사원과 성전이 세워진다. 그들은 미트라에움이라는 자연적인 동굴 모양을 모방해서 만든 사원에서 의식을 행했는데 황소를 제물로 바쳤다.



제 2 부

미술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교과서 pp.94~97

단원	미술의 감상 – 분석과 해석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나타난 미술의 발전과 변화를 이해하고 토론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수업 모형	이해 및 감상 수업	평가 방법	감상문, 지필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교과서에 나와 있는 조각 불상, 도자기, 유리 그릇, 피카소와 마티스, 인상파 작품과 우키요에 작품들을 감상한다. – 나라는 다르지만 각 작품들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발문한다.	· 종류별로 작품들을 한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전개	◎ 문화적 교류 살펴보기 – 그리스 조각과 불상, 도자기의 교류, 실크로드와 유리, 아프리카 가면과 피카소, 마티스, 인상파와 우키요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문화적 교류에 가능했던 역사적 배경 및 미술사적 영향을 첨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우리나라와 주변 나라의 문화 교류 살펴보기 – 우리나라 미술이 다른 나라 미술에 영향을 준 사례나 다른 나라 미술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우리 미술을 살펴본다.	· 전 차시에 우리나라 미술의 영향을 주었거나 영향을 받은 사례들의 조사를 예시한다.
정리	◎ 전통의 현대적 계승 감상하기 – 달항아리에 대해 살펴본다. – 세계의 문화 교류 속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미술 문화의 현대적 계승에 대해 알아본다. – 전통 미술 문화의 바람직한 계승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 타인의 의견 및 작품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평가 관점	• 문화 교류를 통하여 나타난 미술의 변화를 이해한다. • 우리나라와 주변 나라의 문화 교류에 관해 알아본다.	

● 단원 설정의 이유

한 국가나 민족의 문화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나라 특유의 독자적인 민족 문화를 형성한다.

인도의 간다라 불상과 중국의 윈강 석굴, 그리고 통일 신라 시대의 석굴암 본존상은 그리스의 헬레니즘 조각의 영향으로부터 파생된 결과이고, 중국의 도자기는 가까이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그리고 멀리는 네덜란드까지 영향을 끼쳤다. 또한 실크로드로 인해 유리는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신라 시대에까지 전해졌다

이 단원에서는 과거의 다양한 미술 문화 교류를 되짚어 보며 서로 다른 미술과 문화 교류를 통해 변화하는 과정과, 각국의 독자적인 문화의 정체성 알아봄으로써, 더욱 다양해지는 세계의 문화 교류 속에 우리의 전통 미술 문화를 바르게 계승할 방안들을 생각해 본다.

● 학습 목표

이해	문화 교류를 통하여 나타난 미술의 변화를 이해한다.
감상	우리나라와 주변 나라의 문화 교류에 관해 알아본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프락시텔레스(Praxiteles/기원전 370~330?/그리스) 아기 디오니소스를 안고 있는 헤르메스(부분/대리석/높이 216cm/기원전 4세기경 작)

이 작품의 조각가나 제작 연대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기원전 4세기경의 미술가인 프락시텔레스의 청동 조각을 로마 시대에 복제한 대리석 조각이라고 믿고 있다. 현재 헤르메스 오른 팔의 2/3와 왼 손의 손가락, 그리고 디오니소스의 팔이 파손된 채 남아 있다. 이 작품은 전령 헤르메스 신이 제우스의 사생아인 어린 디오니소스를 헤라의 질투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간다라 불두(부분/석고에 채색/높이 29cm/4~5세기경 작/인도)

재현을 중시하는 서양 고전 미술의 전통을 이어받은 간다라의 불상은 인도 본토의 불상들에 비해 인물 묘사가 훨씬 구체적이다. 이 불상들은 머리카락과 얼굴이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되었고 옷의 조형도 입체적이다. 불상의 모델이 되었던 헬레니즘 시대의 신상이나 로마의 군주상에서 볼 수 있는 미술 양식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서방의 상들이 몸을 한쪽으로 틀어 움직임을 암시하는 데 반해, 간다라의 불상은 경직된 자세로 정면을 향하고 있다.

윈강 석굴 본존불 좌상(부분/사암/높이 1,346cm/460~490년 작/중국)

운강의 5대 석굴 중 맨처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귀 건국자의 태조 도무제 탁발규의 모습을 부처님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운강 석굴의 가장 초기 양식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대변하듯 제반 양식이 복불 직후인 태안 3년(457)에 만들어진 '태안 3년명 석가불좌상'을 그대로 잇고 있다. '태안 3년명 석가불좌상'은 당시 인도로부터 새로 받아들여진 신지식의 일환으로 조성된 새로운 양식의 불상이다. 주불 좌우로 광배에 부조된 보살상의 표현은 이 상이 불삼존비상 양식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대좌 정면에 부조된 목이 긴 쌍사자의 표현에 이르면 바로 굽타 조각의 사자상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든다. 얼굴 모양도 종래 중국 불상이 가지던 청순하고 건강미 넘치는 앳된 얼굴 모습과는 좀 다르게 탐스럽고 육감적인 느낌이 강하여 굽타 불상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석굴암 본존상(부분/화강암/높이 326cm/8세기 작/통일 신라)

석굴암은 당시에는 '석불사'라는 이름으로 불린 석굴사원으로, 불국사와 함께 신라 경덕왕 10년(751년) 김대성에 의해 토암산에 창건을 시작하여 혜공왕 10년(774년)에 완공되었다. 석굴암은 인공 석굴로 전실과 통로, 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실에는 팔부신중과 금강역사가, 전실을 지나 후실로 가는 통로에는 사천왕상, 후실에는 본존불과 보살상, 제자상이 조각되어 있다. 본존불은 신체의 각 부분이 균형 잡힌 비례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엄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아래를 응시하고 있고, 세련되고 중후한 둥근 대좌 위에 배치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엄을 느끼게 한다. 1995년 불국사와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청화 백자 송죽문 항아리(흙/높이 48.7cm, 입 지름 13.1cm, 밑지름 17.8cm/15세기 작/조선)

지리산 화엄사에 전해 내려오던 작품으로 연대가 확실한 가장 오래된 청화 백자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 도자사 연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발견 당시 입술 안쪽부분에 '홍치(弘治)'와 '이년(二年)'이라는 글자가 마주 보게 새겨져 있었으나, 도난당하여 회수되는 과정에서 파손되어 현재는 '홍치'라는 글자만이 남아 있다.

참고 자료

그리스 고전기의 조각은 대체적으로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인체 비례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져서 아름답지만 딱딱하고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헬레니즘기의 최대의 미술가로 평가받는 프락시텔레스는 이 엄격한 비례를 약간 빗나가게 함으로써 인물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 작품이 그 대표작이다. 헤르메스 신체의 자세는 좌우는 비대칭이지만 몸 전체는 균형을 이루는 S자형의 콘트라포스토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자세로 많은 미술가들이 선호하는 자세이다. 매끈한 대리석의 피부 밑의 살아있는 듯한 근육과 균형 잡힌 몸매가 무척 아름다운 헬레니즘기의 최대의 걸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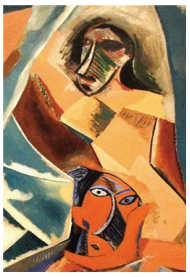
● 원강 석불의 특징

이제까지 중국 불상에서 볼 수 없었던 나발의 표현과 광배에 불꽃무늬, 화불, 비천을 비롯한 풀꽃무늬 등이 띠를 이루면서 가득 조각된 것이 바로 굽타 조각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가면을 쓴 인물들**



두 인물 모두 아프리카 가면을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소 인간이 아닌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인물 중 쪼그리고 앉은 인물의 얼굴이 가장 입체주의적인 특징을 잘 보여 준다. 그녀는 관람자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지만 머리만은 화면 밖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인체의 해부학적 특징에 변형을 가하는 것 바로 입체주의의 특징이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아비농의 처녀들(캔버스에 유채/243.9×233.7cm/1907년 작)

피카소에게 아프리카 미술은 중요한 영감이 되었고, '아비농의 여인들'에서 그는 도곤 족의 의식용 가면에 보이는 추상적인 형태와 이미지를 사용했다. 도곤 족은 말리의 토속 민족으로, 가면춤과 조각으로 유명하다. 피카소에게는 가면에서 느껴지는 '원시주의'가 생명력을 의미했다. 피카소에게 아프리카 미술의 영향은 1907년에서 1909년까지, 입체주의가 태동하는 시기에 걸쳐 있었다.

당시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식민화하고 있었고, 언론에는 이국적인 기사들이 가득했다. 고갱은 이러한 관심에 불을 붙였고, 많은 야수주의 화가들이 아프리카의 가면과 조각상을 수집했다. 1907년 여름, '아비농의 여인들'을 완성하기 전에 피카소는 파리에 있는 트로카데로 민족학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컬렉션에 포함된 가면들을 본 후에 작품을 수정했을 만큼, 작가에게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 이 작품의 놀라운 근대성은 몇 가지 대담한 회화적 전략에서 기인한다. 인물의 몸과 배경은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되어 있다. 공간적 깊이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일관성이 없는 원근법은 불안정한 느낌을 주어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방황하게 한다. 작품에서는 얼굴 표현을 통해 아프리카 가면의 영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이베리아 조각에 대한 피카소의 관심을 반영한다. 피카소는 완전히 납작한 평면을 창조해 냈다. 그는 이 작품을 그려 이전까지의 미술 역사와 단절을 고하면서 20세기 대부분의 미술 사조 및 콜라주와 같은 새로운 기법의 도래를 예견했다.

1936년의 에스파냐 내란 때는 인민전선을 지지하고, 다음 해 프랑코 장군에 대한 적의와 증오를 시와 판화로 나타낸 연작 '프랑코의 꿈과 허언(虛言)' 및 전쟁의 비극과 잔학상을 예리한 시각으로 그려 낸 세기의 대벽화 '게르니카'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통곡하는 여인'도 이 무렵의 작품이며 이때부터 피카소 특유의 표현주의로 불리는 표현법이 나타났다.

고흐(Gogh, Vincent Van/네덜란드/1853~1890) 탕기 영감의 초상(캔버스에 유채/92×75cm/1887년 작)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고흐가 1880년대 파리 시기에 만난 사람 중 즐거운 성격의 소유자로 클로젤 가에서 작은 화구상을 운영하면서 그림 재료를 작품과 교환해 주곤 했던 '탕기 영감'이라고 불렸던 줄리앙 프랑수아 탕귀이다.

고흐는 소중한 친구 탕기의 초상화를 세 점 남겼다. 이 작품에서 탕기는 상인의 면모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날렵한 붓 터치와 평면성이 두드러지는 화면은 신인상주의의 특징이며 그는 이 양식을 자유롭게 활용했다. 그는 탕기 영감의 정면을 묘사했는데, 인물의 움직임은 느껴지지 않으며 양손은 조심스럽게 포개져 있다. 고흐는 자신과 테오가 소장하고 있던 일본 판화를 배경으로 탕기 영감을 마치 일본인 현자로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다. 이 작품은 일본 판화 작품을 수집해 온 로댕이 구매했다.

호쿠사이(葛飾北齋/일본/1760~1849) 개풍쾌청(판화/1825년경 작)

이 작품은 호쿠사이의 작품 후지산 36경을 그린 '후가쿠산주록케이(富嶽三十六景)' 중 한 첩의 제목이다. '후가쿠산주록케이'는 실제로 46장면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시에 번성하고 있던 풍경 판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당시 마사노부와 오쿄를 포함해서 교토와 에도에 있는 많은 미술가가 유럽 미술의 3차원적인 공간 표현 기법을 학습하고 있었는데, 호쿠사이의 교묘한 구성과 극적인 빛 혹은 대기의 표현을 능가하지 못했다.

작가는 후지산이 일본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자 불멸하는 비밀의 원천이며 성스러운 장소로 생각했던 전통적인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작업을 했다.

모네(Monet, Claude/프랑스/1840~1926) 일본 의상을 입은 카미유 모네(캔버스에 유채/231×142cm/1876년 작)

모네는 가장 일본을 좋아했던 화가 중의 하나이다. 지베르니의 모네 박물관에는 그가 수집했던 250점의 우키요에 콜렉션이 전시되어 있다.

일본의 매력을 주체하지 못했던 그는 자기 부인에게 빨간 기모노를 입혀 초상화를 그렸다. 우키요에가 인상주의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보다 평면성이다. 르네상스 이후 서양 회화의 전통은 원근법과 빛의 효과를 통한 3차원성이었다. 어둡고 중후한 회화가 인상주의를 통과하면서 평평한 색채의 무게 없고 납작한 형태들이 되었다.

읽기 자료

우키요에의 전파

19세기 중반에 도쿠가마 막부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정치, 사회적으로 급진적인 변화에 직면했다. 영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은 긴 쇄국 정책 끝에 어쩔 수 없이 서양에 문호를 개방했다. 1868년, 사무라이 지도자 연합은 쇼군을 퇴위시키고 에도(현재 도쿄)에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 대규모 전시회에 대한 열망이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로 시작되었고, 일본 정부는 수출 증가와 새로운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인 무대에 참여하기를 열망했다.

1862년 영국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는 우키요에 판화, 청동 제품, 칠기, 법랑 제품, 직물 같은 다양한 일본 미술을 대규모로 전시할 수 있는 기회였다. 빅토리아 시대 화가들은 일본 물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일본적인 요소는 유미주의 운동에서 두드러졌다. 프랑스는 일본 미술과 공예에 열광했다.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운동에 참여한 젊은 화가들은 과장된 단축법, 구성의 불균형, 평면적인 색채, 갑작스러운 절단 등과 같은 유키요에의 독특한 특징들을 채택했다.

진경 시대의 달항아리

숙종에서 영조를 거쳐 정조 임금에 이르는 약 120여 년간은 우리 문화의 황금기였다. 이 시기를 조선이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새롭게 다지고 조선 고유의 문화적 색채를 드러낸 진경 시대라고 한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선 성리학이라는 사상적 토대를 기반으로 조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조선에 대한 이들의 자부심은 국토와 사람들에 대한 애정으로 바뀌었다.

시와 글씨에서도 조선의 자부심이 당당히 드러나는 진경시와 서체가 유행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도자기에서도 드러난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백자 달항아리이다. 달항아리 같은 항아리가 조선 시대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토기에도 구연부나 굽은 약간 다르지만 몸체가 달항아리처럼 둥근 것들이 있다. 따라서 항아리의 몸체를 달처럼 둥글게 하려는 시도는 전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적 의도가 천여 년이 지난 조선 후기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선 18세기, 즉 우리 문화의 황금기인 진경 시대에만 나타났다가 이후에는 사라진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이와 비슷한 항아리를 찾아볼 수 없다. 붙인 자국이나 잡티 같은 결점들이 보임에도 이러한 항아리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대부와 장인들 모두 단순한 아름다움과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과서 단원정리

1 | 작품 속에서 숨 쉬는 조형 요소

① 점: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그 자체가 형태가 되기도 하고 모여서 다른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② 선: 작품에서 선은 형태를 결정지을 뿐 아니라 감정을 나타내고 움직임과 변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③ 면: 평면의 회화 작품에서는 점과 선, 색채, 형태 등의 요소들이 면을 기초로 해서 화면을 구성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면을 통해서 화면에 경계를 만들면서 평면 안에 풍요로운 공간과 입체를 형성한다.
④ 명암: 명암은 대상의 형태와 양감, 공간을 묘사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빛과 그림자가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가 달리지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⑤ 원근: 사실적인 공간 속에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한 원근법은 주어진 대상들을 하나의 공간 질서 속에 통합하는 방법이다.
⑥ 질감: 어떤 대상과 접촉할 때 촉감으로 느껴지는 느낌인데, 미술 작품에서 질감은 시각과 촉각을 통한 두 가지의 지각 과정을 의미한다.
⑦ 양감: 대상의 부피나 무게에 대한 감각을 말한다. 이차원의 평면에서 표현할 경우, 명암이나 원근 표현을 통해 양감을 나타낼 수 있다.

2 | 조형의 원리를 찾아서

① 비례: 전체의 크기와 부분의 크기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② 균형: 시각적인 평형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작품에 질서와 통일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작품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방식은 대칭, 비대칭, 방사 등이 있다.
③ 통일: 여러 가지 조형 요소를 일정하게 반복하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로 통합된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④ 변화: 통일감을 가진 요소들 가운데 색이나 형태, 배치 등을 다르게 하여 차이를 주는 것을 말한다.
⑤ 대비: 서로 대립되는 형태나 색채, 느낌 등의 요소를 함께 배치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거나 변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⑥ 강조: 어떤 특정 부분을 강하게 표현하여 변화를 주는 것으로, 대비와 적절히 사용하여 표현한다.
⑦ 율동: 선이나 형태 등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느낌을 주어 리듬감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⑧ 동세: 율동과 함께 움직임을 표현하는 요소로서, 표현 대상의 움직임과 표현 자체에서 움직이는 느낌, 미술 작품 자체의 움직임을 모두 포함한다.

3 | 새로운 재료의 탐색

① 미술 작품에 사용되는 표현 재료는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와 의도를 구현하는 매개체이다.
② 정크 아트는 산업 발전에 따라 대량으로 쏟아지는 폐품을 활용하여 표현한 미술 장르이다.
③ 아상블라주는 폐품이나 일상용품을 비롯한 여러 물체를 한데 모아 특이한 형태로 결합함으로써 물체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작품을 말한다.
④ 미술 작품에 사용되는 표현 재료는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와 의도를 구현하는 매개체이다.
⑤ 자연물에서 시작된 미술 작품의 재료는 물감과 주물, 금속으로 발전했고, 디지털 기술로까지 영역이 확대되었다.

4 | 사회를 반영한 생생한 미술

① 미술은 당대의 생활 모습을 진솔하게 나타낸다.
② 미술은 역사에 남을 사건과 영웅을 기록한다.
③ 미술은 전쟁과 재난을 소재로 그림으로써 평화를 염원한다.
④ 현대 미술은 환경 문제, 빈곤과 소외, 폭력 등 현대 사회의 당면 과제를 담아내기도 한다.

5 | 전통과 현대

① 수묵화는 색을 쓰지 않고 먹의 농담을 조절하며, 외형의 묘사보다는 인격을 담아내는 것을 중시했던 문인 사대부를 중심으로 그려져 왔다.
② 채색화는 먹을 위주로 하되, 채색이 옅게 들어간 수묵 담채화와 먼저 먹 선으로 형태를 그려 넣고 채색을 진하게 사용하여 채워 나가는 진채화로 나뉜다.
③ 현대 화가들은 전통 재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독창적인 표현을 시도하거나 현대적인 재료나 기법으로 전통 회화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6 | 미술 작품의 가치와 활용

① 현대 사회에서 미술 작품은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가치가 커지고 있다.
② 아트 페어는 여러 화랑이 함께 개최하는 미술 시장으로 화랑들이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고 미술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매의 방법이다.
③ 아트 옥션은 경쟁 방식에 의한 미술 작품의 매매 방법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④ 아트 마케팅은 유명한 작가나 디자이너의 작품을 제품에 적용하여 기업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판매가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홍보 방법이다.
⑤ 메세나 운동은 문화와 예술, 스포츠 등에 대한 원조 및 사회적, 인도적 입장에서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는 기업과 자본가들의 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 미술과 종교

① 미술은 생활과 종교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② 숭상과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종교 미술은 여러 종교의 고유한 상징과 기원을 담고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8 | 미술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① 미술 문화는 시대를 반영하고 더불어 여러 나라 미술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다. 서로 다른 지역이나 환경에서 비슷한 미술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은 활발한 미술 문화 교류가 있기 때문이다.
② 우리나라의 달항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의 많은 예술가에 영감을 주어 회화, 조각, 공예, 설치 미술 등으로 다양하게 계승되고 있다.

교과서 단원평가

1 다음에 제시된 (가)와 (나) 작품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가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나)



① 선–대비 ② 점–강조 ③ 면–동세 ④ 색–통일 ⑤ 선–변화

2 오른쪽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 중 맞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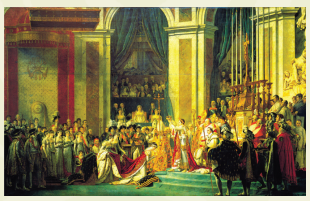


① 규성: 자연 재료를 사용해 제작했어.
② 경애: 시각과 후각의 효과를 활용했어.
③ 미순: 동양적 사고와 철학이 담겨있어.
④ 형규: 생명의 존엄성을 나타내고자 했어.
⑤ 유미: 노란색은 물감을 뿌려 표현한 거야.

3 다음 중 전통 미술의 현대적 동향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전통 미술은 현대에 와서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
② 설치 작품을 통해 제작된 작품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③ 전통 문양이 디자인 제품에 적용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④ 전통 미술과 대중문화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아직 실현된 사례가 없다.
⑤ 아크릴이나 사진과의 합성 같은 현대적인 기법을 활용해 제작하기도 한다.

4 다음에 제시된 작품의 제작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자연미의 표현 ② 역사 사실 기록 ③ 종교 교리 전달
④ 인공미의 표현 ⑤ 디자인에의 적용

5 아트페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답 1③ 2⑤ 3④ 4② 5 평가 도움 참조

평가 도움

1 (가) 작품은 색면 추상 회화의 대표 주자 로스코의 작품으로 조형 요소 중 면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나) 작품은 바를라흐의 작품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어, 조형원리 중 동세가 잘 나타나고 있다.

2 라이프의 작품으로 인위적인 재료를 일제 사용하지 않은 작품으로 자연과 공생함을 표현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존엄을 느끼게 해 준다. 따라서 물감을 뿌려 표현했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3 최근 전통 미술과 대중문화가 콜라보레이션된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다가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어 ④는 맞지 않다.

4 제시된 작품은 나폴레옹 대관식을 그린 작품으로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그린 기록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5 아트페어는 여러 화랑이 함께 개최하는 미술 시장으로 화랑들이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고 시장의 영역을 넓혀 미술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매의 한 방법이다.

미술의 감상 | 판단과 활용



아름다움의 의미

교과서 pp.98~101

단원	미술의 감상 – 판단과 활용	차시	❶②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아름다움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고 판단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교과서, 필기도구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토의 학습 및 발표 학습	평가 방법	관찰법, 연구보고서법

● 단원 설정의 이유

이 단원은 주변의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 및 생활속에서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보고 자연미와 조형미를 스스로 발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의의가 있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준다.

따라서 이 단원을 통해 이러한 아름다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를 주변의 조형물이나 생활용품 등에서 찾게 하는 체험 학습은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체험학습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미의식과 함께 우리 생활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한다.

● 학습 목표

이해	자연미와 조형미의 뜻을 이해하고 각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표현	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과 관계를 이해하고 조형물에 나타난 자연과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그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감상	다양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알고 이를 아끼고 사랑하며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참고 작품들을 제시해 아름다움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 시대별 · 주제별 · 소재별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게 해 아름다움 소재의 가치와 종류를 함께 발견할 수 있게 한다.	· 아름다움의 종류와 특징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한다.
전개	◎ 토론 과정 설명하기 – 아름다움의 범위 및 가치를 슬라이드 자료를 활용해 보여 준다. –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 표현 기법을 상세히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토론할 주제를 제시하고, 토론 과정 및 방법을 순회하며 지도한다. **◉ 학습 활동 ◉ 아름다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토론하기** – 다양한 동서양의 작품을 감상한다. – 작품을 보며 한다. – 다양한 도판 자료를 활용해 한다.	· 토론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한다. · 자연미와 조형미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의 가치에 대해 모색하게 한다.
정리	서로의 작품 감상 하기 – 자신의 작품의 제작 의도와 특징 등을 개인별로 발표한다. – 목적에 맞게 제작되었고, 재료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평가 관점	• 생활 속에서 자연미와 조형미를 찾을 수 있는가? • 자연미와 조형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발표할 수 있는가? • 생활 속의 미술 활용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상생의 손 (경북 포항 호미곶)

상생의 손은 육지에 왼손, 바다에 오른손이 설치되어 있는데 바다에 세워진 조형물과 하늘의 구름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에서 자연물과 조형물의 조화로움이 이루어 내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지난 1999년 12월에 만들어진 청동 조형물로 육지에는 왼손(높이 5.5m, 13t)이 바다에는 오른손(높이 8.5m, 18t)이 서로 마주 보고 설치돼 있다. 호미곶 광장의 명물이기도한 상생의 손은 새천년(2000년)을 축하하고 서로 도우며 살자(相生)는 취지로 착공 6개월 만에 완공됐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이탈리아/1452~1519) 담비를 안은 여인(패널에 유채/ 54.8×40.3cm/1489~1490년 작)

이 작품은 다 빈치가 초상화의 개혁을 시도한 새로운 구성 기법이다.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으로 불리는 작품 속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체칠리아다. 새하얀 피부에 동그란 눈, 오똑한 코와 자그마한 입이 지금의 시선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린 채 어딘지 모를 곳을 가만히 응시하는 모습이 매우 정숙해보이면서도 앳되어 보인다. 시선을 조금 아래로 내리면 체칠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애완동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거칠고 야생적인 느낌이 드는 흰 담비가 보인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청순한 체칠리아의 품에 흰 담비를 안겨 놓았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보테로(Botero Angulo, (Leonardo da Vinci/이탈리아/1452~1519) 가족 풍경(패널에 유채/ 211×195cm/1969년 작)

보테로는 인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감성을 환기해 비정상적인 인체 표현과 화려한 색채로 인간의 천태만상을 가감 없이 표현하였다. 뚱뚱한 모나리자, 우스꽝스러운 군인 등 평소에 기존 개념이나 사물에 대한 통념을 깨는 표현을 통해 세속적인 미와 권위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작품들을 제작하며, 본 작품에서는 다정스러운 가족을 찍은 듯하나 과장된 듯 부풀어진 인간들이 각기 다른 곳을 응시하는 멍한 표정에서 가족 내부에 존재하는 허무한 관계를 풍자하였다.

데미안 허스트(Hirst, Damien Steven/영국/1965~) 신의 사랑을 위하여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치아/17.1×12.7×17.1cm/2007년 작)

이 작품은 실제 영국에서 살던 어느 남성의 유골을 오브제로 사용한 작품이다. 죽음의 상징인 해골에 인간의 물욕적인 사치와 허영심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를 포장해 버림으로써, 욕망 덩어리인 인간과 죽음의 상관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이 작품을 만들고 난 후 데미안 허스트는 인간 존재의 무상함을 형상화했다.

"그렇기에 작품을 본 관객들이 희망을 느끼고 고양되기를 바란다", "해골은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다." 등의 비아냥 서린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현대 미술의 악동'으로 불리는 허스트는 사치 갤러리를 소유한 광고 재벌 찰스 사치와 갤러리 화이트 큐브를 소유한 제이 조플링의 후원을 받아 미술 시장에서의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영국의 미술 전문지 〈아트리뷰〉가 선정한 '세계 미술계 파워맨 100'에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1위에 올랐다.

보충 자료

● 조형미

조형 작품 중에는 자연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 이 많다. 자연에서 발전된 조형 요소와 원리 등을 적용하여 창작한다.

· 조형 요소: 점 · 선 · 면 · 형 · 색 · 공간감 · 양감 · 질감

· 조형 원리: 변화 · 균형 · 통일 · 율동 · 비례 · 대칭 · 대비 · 강조 등

● 조형 요소

① 점: 조형의 최소 단위

② 선: 점이 연장된 것이다.

③ 형: 2차원의 공간에 표현되는 모양으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사실적인 자연형, 작가의 의도에 따라 변형하는 주관적인 변형, 순수한 조형 요소만을 이용하는 추상형이 있다.

④ 색: 물체가 지닌 '고유의 색', 광선에 의한 '인상의 색', 작가의 주관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조의 색'으로 구분한다.

⑤ 명암: 빛에 의하여 나타나는 밝음과 어둠의 단계를 말한다.

⑥ 양감: 덩어리감이라고도 한다. 명암과 음영, 색채에 의하여 표현된다.

⑦ 질감: 표현 재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화면의 느낌이다. 반면에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는 재료 자체의 질감은 재질감이라고 한다.

● 조형 원리

① 통일: 하나의 일관된 규칙으로 동일한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② 비례: 비례는 물체의 크기나 길이에 대한 상호간의 관계를 말한다.

③ 율동: 형, 색, 선의 반복, 점증 등에 의해 생기며, 같은 형이나 선이 변화하면서 느낄 수 있다.

④ 대비: 대립된 성질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현상이다.

⑤ 균형: 서로 반대되는 요소들 간에 무게나 방향의 시각적 평형 상태를 말한다. 균형이 잘 잡힌 것에서 질서, 안정감, 통일감을 느낄 수 있다.

⑥ 강조: 시각적인 자극과 함께 변화 있는 화면을 제공한다.

⑦ 동세: 작품에 생동감이나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움직임과 방향감을 의미한다.

⑧ 변화: 형태나 크기, 색채 등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화면에 생동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나치면 무질서하고 복잡한 느낌을 준다.

⑨ 조화: 통일의 조건이며,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

아름다움에는 객관적인 아름다움과 주관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을 비례, 균형, 대칭, 조화 등에 두는 것은 객관적 아름다움이다. 반면,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에 두는 것은 주관적인 아름다움이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미술은 객관적이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19세기 말 산업 혁명을 계기로 과학 기계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미술은 작가나 감상자의 내면을 중시하는 주관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와 문화의 출현으로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 미술 등과 같은 새로운 미술의 기류가 형성되었고,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탄생하게 되었다.

심화
1. 아름다움에 관한 생각과 시각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다. 동·서양의 이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분류해 보자.
2. 서양 · 문화적, 시대적 아름다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현대의 미가 바라보는 상대주의적 아름다움에 관해 설명해 보자.

조사 아름다움의 새로운 가치에 관해 조사해 보자.

100

읽기

다양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상

아름다움에 관한 기준은 시대와 지역, 문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미인에 관한 기준도 당대의 사회 환경이나 여성이 처지하는 사회적 위치와 결부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많은 미술가는 그 시대 관점에서 가장 전형적인 미인을 소재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미술가들이 표현한 미술 작품을 통해 그가 속한 사회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위치, 미적 기준을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인은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겸비하였다. 반면, 서양은 인체의 비례나 구성을 중시하여 장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현대에는 영상 매체의 발달로 연예인들의 모습을 인체미의 표준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짙다. 지구촌 시대를 사는 오늘날 인체의 아름다움에 관한 기준도 하나의 잣대가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폭넓게 바라보는 포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조화로운 외모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격과 품성, 개성과 지성이 복합된 새로운 인체미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생각과 탐구 | 다양한 인체의 아름다움

구족화가 앨리슨 래퍼를 포함한 (살아 있는 비너스)를 감상하고, 나 자신이 생각하는 인체의 아름다움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정리
-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을 비례, 균형, 대칭, 조화 등에 두는 것은 객관적 아름다움이다.
- 대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을 개인의 마음에 두는 것은 주관적 아름다움이다.

평가
1. 아름다움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였는가?
2. 아름다움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이해하였는가?

101

작가 탐구

고갱(Gauguin, Paul/1848~1903/ 프랑스)

고갱은 현대 문명화에 대한 회의로 타이티와 도미니크 섬에서 생활하며 원주민의 생명력과 토속 샤머니즘 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능과 심리 등을 탐구하였다. 또한 강렬한 원색과 평면적 색면을 활용하여 상징적, 종교적, 초현실적 장면을 묘사하는 비시각적이고 반사실적인 상징주의(혹은 종합주의) 양식을 창안하였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미켈란젤로(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이탈리아/1475~1564) 다비드(대리석/높이 5.49m/1501~1504년 작)

이 조각은 피렌체 성당에 세워진 것으로 다윗이 돌팔매 끈을 왼쪽 어깨에 메고 골리앗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살아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사실적으로 표현했지만, 비율에 있어서는 정확하지 않았다. 돌을 던지기 전이기에 손을 크게 함으로써 던지는 몸의 모션을 강조하였다.

얼굴이나 몸에 비해 손을 유난히 크게 묘사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인 '다비드' 상은 그리스의 거인 조각에서 볼 수 없었던 정신 · 심리적 움직임을 영웅적인 힘찬 육체 속에 표출하였다.

고갱(Gauguin, Paul/프랑스/1848~1903) 설교 후의 환영(캔버스에 유채/73×92cm/1888년 작)

고갱은 현대 문명화에 대한 회의로 타이티와 도미니크 섬에서 생활하며 원주민의 생명력과 토속 샤머니즘 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능과 심리 등을 탐구하였다. 또한 강렬한 원색과 평면적 색면을 활용하여 상징적, 종교적, 초현실적 장면을 묘사하는 비시각적이고 반사실적인 상징주의(혹은 종합주의) 양식을 창안하였다. 이 작품은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고 있는 브르타뉴의 여인들의 신앙을 상징화한 것으로 현실과 비현실의 공존 및 인간의 욕망, 본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당시의 인상주의 미술 흐름에서 벗어나는 이 작품은 화폭을 가로지르는 사과나무를 경계로 좌측은 기도하는 브르티뉴 여인들을 그렸고, 우측에는 설교 후 보게 되는 야곱과 천사의 환영을 표현함으로써 조형적 혁신을 이루고 있다.

이 그림은 인간 내면에 깊숙이 감추어진 비물질적이고 반자연주의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색채를 자연의 묘사에서 벗어나 표현적 목적 자체로 완벽하게 사용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폴록(Pollock, Jackson/1912~1956/ 미국) 넘버 5(캔버스에 유채/43.2×63cm/1948년 작)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술계 중심이 옮겨지던 시기에 대표적인 추상 표현주의 작가인 폴록은 붓으로 그리는 회화의 제작 방식을 탈피해 드리핑의 기법으로 표현하는 액션 페인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일체의 묘사적인 태도를 버리고, 뿌리기 같은 행위의 순간순간을 중요시하였다. 캔버스는 전통적인 이젤을 벗어나서 바닥 위에 놓여지고, 행위의 장소로서 상하좌우라는 고정 관념을 벗어나 있다. 이 작품에서 느껴지듯 작가의 전위적 작업 행위는 자연스럽게 형태의 완전한 해체를 가져왔으며, 작가로 하여금 추상 표현주의의 선구자적 역할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는 페인트통과 붓을 들고 캔버스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내면의 움직임에 따라 기쁨이나 슬픔, 놀람, 분노 등 형태가 보이지 않는 추상의 세계를 새로운 조형 언어로 그려냈다. 폴록의 작품은 다른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과 함께 회화의 영역을 구상과 비구상이라는 두 가지 큰 영역을 분리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작 가 탐 구

폴록 (Jackson Pollock 미국/ 1912~1956)

행위 자체에 절대적 가치를 둔 우연적 과정 중심의 독자적 양식인 드리핑 기법의 대표 작가로, 1947년경 전면균질의 회화를 개척하였다. 초기 서부의 토착 문명에 관심을 보인 이후, 초대형 크기의 화면에 구멍이 뚫린 통에 물감을 넣어 떨어뜨리거나 막대기, 흙손, 나이프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즉흥적인 표현을 시도하였다.

주제와 배경 및 인과론적 관계 등을 중요시하던 종래의 작품관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캔버스의 한계선과 그 너머로 까지 공간이 확장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젤 회화 전통과 다른 벽화 개념의 도입으로, 관찰자가 동떨어져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보이던 르네상스 회화와 달리 관찰자가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의 총체로서 '전체적인' 환경으로 표현하였다.



가을의 리듬 (autumn rhythm) 1950

보 충 자 료

● 동 · 서양의 아름다움 의미 변천 과정

인류가 생긴 이래로 계속 이어진 것 중 하나가 바로 미술이다. 오래전 인류의 조상들이 그들의 기원을 담는 뜻에서 남긴 동굴 벽화는 현대까지 이어지는 미술 문화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조상들은 사냥감의 풍성한 노획을 위해 벽에 그림을 그리고 기원을 했다.

해, 달 등의 천체 및 애니미즘적 상징들을 많이 남겨 주술적 의미를 띄기도 했는데, 이런 초반기의 미술 문화는 차츰 시기가 내려오면서 많은 갈래로 분화 되었다. 중세 시기에 와서 동양과 서양은 많은 미술적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중국 미술을 보면 강하게 꺾는 선이나 딱딱한 구성을 배제했다. 꺾는 선은 운동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미술이 그렇다고 운동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중국 미술은 조용한 가운데 물결 흐르는 듯한 곡선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운동성이 두드러진다. 뿐만 아니라 억지로 자연을 끌어두다시피 하는 바탕을 배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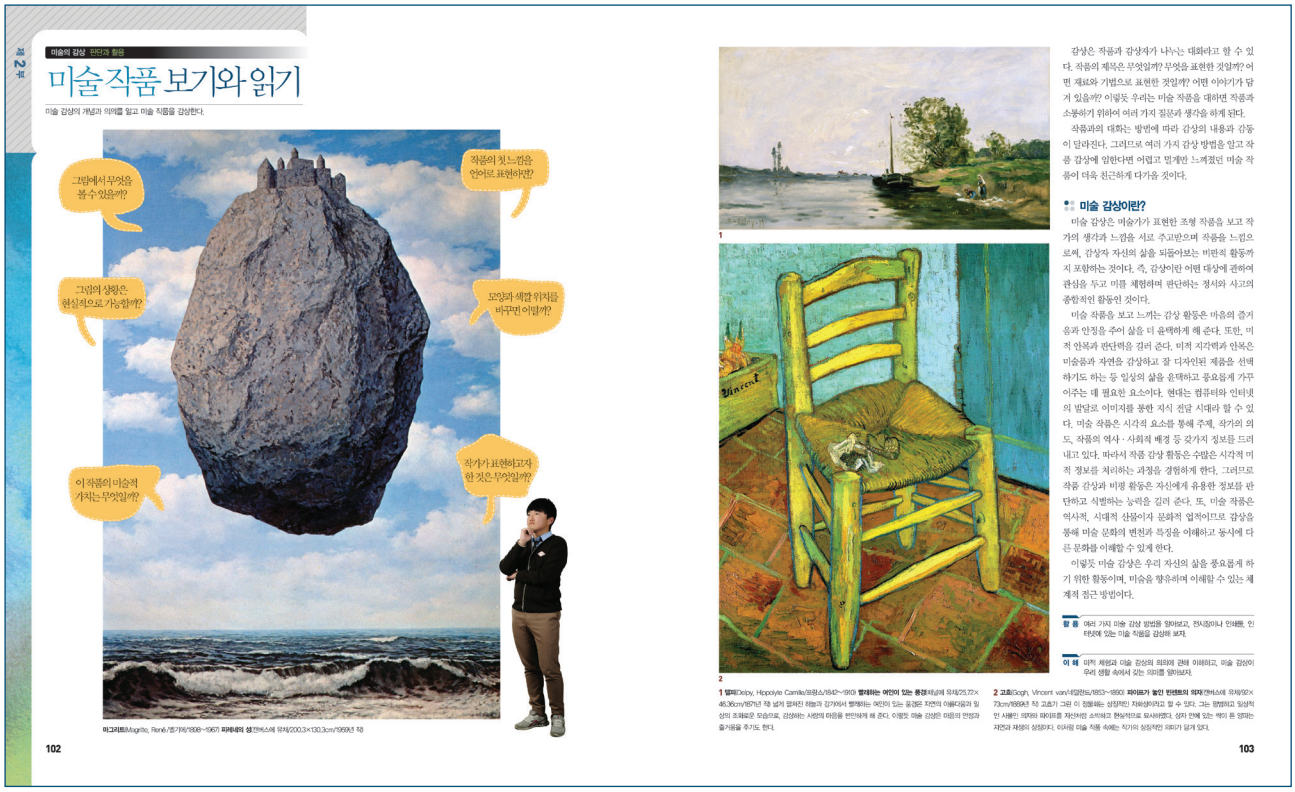
자연을 하나의 동반자로 생각하여 더욱 융화가 잘 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의 동양적 자연관에 기초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서양 미술은 신, 인간, 자연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자연 과학이 발달하자 표현의 다양성이 가속화되어 많은 미술사조를 낳았다.

●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

아름다움은 보편적 기준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현 방식에 있어서 시대별, 작가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아름다움을 각각의 기준에 비추어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추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고 한다.

사람들의 개성이 강해질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또렷이 나타난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아름다움과 추함은 엄격히 구분이 되어 취급되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선호도가 아름다움의 기준이고, 표현하는 것이 모두 아름다움으로 취급된다.

결국에는 보는 사람의 판단 기준에 달려 있는 것이 예술 즉 아름다움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추악해 보일 수 있는 장면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울 수 있는 예술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보편적인 아름다움이란 것이 존재한다.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을 조절하는 의식과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미술 작품 보기와 읽기

교과서 pp.102~107

단원	미술의 감상 – 판단과 활용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미술 감상의 개념과 의의를 알고 미술작품을 감상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발표 학습	평가 방법	관찰법, 보고서 쓰기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 및 동기 유발 – 미술관 탐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유발한다. – 미술관에서 입수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감상 내용을 안내한다. – 미술관 이용 학습의 방법과 공공 시설 이용의 예절을 이해한다.	· 다양한 종류의 참고 작품을 준비하여 감상 학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개	◎ 미술관 현장 학습 – 미술관에 입장하여 미술관 감상 활동을 한다. – 도슨트의 도움을 받으며 모둠별로 감상하게 하고 순회하며 지도한다. – 미술관에서의 예절을 지키며 전체적인 작품을 감상한다. ⊙ **학습 활동** ⊙ **전시회 관람 보고서 작성하기** – 미술관 감상 견학 이후 미술 전시에 관한 전체적인 느낌을 감상문으로 쓰게 한다. – 개별로 조사한 작품 및 작가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쓰게 한다.	· 작품의 표현 양식, 조형물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작품의 배경, 작가와 작품을 이해, 감상하여 정서와 교양을 함양시키도록 한다.
정리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작품 감상 후 다양한 관점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전시회 관람 보고서를 5분 이내 발표한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자신이 느낀 것을 자신 있게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평가 관점	• 작품 감상의 바른 자세를 이해하였는가? • 작품의 가치를 알고 아끼는 태도를 갖게 되었는가? • 미술 감상이 일상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 단원 설정의 이유

표현 활동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술에 대해 흥미를 갖고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심미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생활 속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술 작품에 조형성과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여 그 가치를 깨닫고 이를 보존하려는 능력을 기른다. 전시회를 계획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감상 보고서를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감상문은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 목표

1. 다양한 관점에서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2. 미술 작품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여 감상 능력을 기른다.
3. 미술 작품의 주제, 표현의도, 조형의 요소 및 원리, 표현 방법, 재료의 특성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발표할 수 있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마그리트(Magritte,Rene/벨기에/1898~1967) 피레네의 성(캔버스에 유채/200.3×130.3cm/1959년 작)

마그리트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관습적인 사고의 일탈을 유도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적인 오브제를 그린 듯 하지만 이런 오브제들이 예기치 않은 배경에 놓여졌을 때 느껴지는 낯섦과 기묘함이 그의 작품이 특징이다.

마그리트는 종종 그림 안에 또 다른 그림을 그려 넣거나 사물의 이름 혹은 기호를 포함시키기도 하여 그려진 대상과 실재하는 대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논리를 뒤집는 이미지의 반란과 배신, 상식에 대한 도전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들을 환기시킨다.

델피(Delpy, Hippolyle Camille/프랑스/1842~1910) 빨래하는 여인이 있는 풍경(패널에 유채/25.72 46.36cm/1871년 작)

넓게 펼쳐진 하늘과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이 있는 풍경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조화로운 모습으로, 감상하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이렇듯 미술 감상은 마음의 안정과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고흐(Gogh, Vincent van/네덜란드/1853~1890) 반 고흐의 의자(캔버스에 유채/91.8 x 73cm/1888년 작)

고흐가 그린 이 정물화는 상징적인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인 의자와 파이프를 투박한 직선과 멋을 부리지 않은 기법으로 자신처럼 소박하고 현실적이게 묘사하였다. 바닥 타일의 오렌지색, 의자의 노랑과 벽의 청록의 세 가지 색이 주조를 이룬다. 이러한 여러 색의 조화는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렸던 '반 고흐의 방'(1888)과 유사하다. 그림 속 공간은 삭막하지만 부재 중인 화가를 대신하는 파이프와 담배가 확실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화면 뒤쪽에는 해바라기 몇 송이가 담긴 바구니가 보인다. 상자 안에 있는 싹이 튼 양파는 자연과 재생을 상징한다. 반 고흐의 파이프가 놓여 있어 '파이프가 놓인 의자'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한다. 반 고흐 작품의 서명이 늘 그러듯이, 바구니에는 반 고흐라는 성이 아닌 빈센트(Vincent)라고 이름만 적혀 있다.

보충 자료

● 미술 감상의 개념

미술 작품을 보고 이해하며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애호하는 내면화의 과정이다. |

● 미술 감상의 목적

① 조형 작품의 감상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고양시킨다.
② 감상을 통하여 미적인 표현 방법을 연구하고 안목을 길러 생활을 풍요롭게 해 준다.
③ 조형 작품의 감상을 통하여 자기의 표현 활동에서는 터득하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작가의 높은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④ 다른 나라의 작품 감상을 통하여 상호간에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가 깊어진다.

● 미술 작품 감상법

① 단독 감상법: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방법
② 비교 감상법: 두 가지 이상의 작품의 기법과 주제를 비교해 가면서 감상하는 방법
③ 분석 감상법: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해서 각 요소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
④ 종합 감상법: 작품을 보고 바로바로 느껴지는 것들을 감상하는 직관적인 감상이 강조되는 방법
⑤ 포트폴리오 감상법: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작가에 대하여 이해한 후 작가에 대하여 느낀 점을 정리하고, 감상문을 작성한 자료를 모아서 보관하는 방법

작가 탐구

르네 마그리트(벨기에/1898~1967)

마그리트는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는 자신의 정밀한 양식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마술적 사실주의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유럽과 미국에서 성행하였으며 그것은 일상적 장면을 기이하거나 기괴한 왜곡없이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양식이다. 마술적인 분위기는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 또는 사건들을 환상적으로 병렬시키는 데서 비롯된다.



레슬러의 무덤 /1960년 작



어떻게 볼까

미술 작품은 제작된 시대와 지역, 종교, 역사, 풍습 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이 속한 지역,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작품의 주제와 표현 양식, 재료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관련 지식을 알고 나면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술 작품에 대한 미적 판단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미술 작품의 판단 기준을 아름다워야 한다거나 실물 그대로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분이나 감정을 얼마나 잘 포착했는가에 두는 사람도 있다. 또, 미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미적 가치는 보는 사람의 감상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미술 감상은 그지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즐거움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과 의미, 미적 가치를 제대로 알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지식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증대될수록 작품 감상의 감흥이 깊어지고 미술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과 감상 기술을 익혀서 작품 감상에 임한다면 작품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다.

• 미술 작품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자.

감상자의 직관 중심으로 살펴보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중심으로, 자유롭고 풍부하게 상상하며 작품을 읽는다.

단아한 모습의 엄마와 아이가 잠든 사이 장난꾸러기 작은 요정들과 고양이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 이 작품을 보고 느낀 첫인상은 어떠한가?
- 이 작품을 보고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 만약 내가 작품 속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 이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 작품 속 두 주인공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신선미(한국/1980~) 당신이 잠든 사이 10(장지에 채색/109.5×162cm/2011년 작)

조형 요소와 원리 살펴보기

작품을 이루고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 형과 색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을 찾아본다. 작품의 형식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정육면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입체 조형이다. 정육면체 각각의 면은 서로 다른 원색의 원과 정사각형으로 구성된 기하학적인 형태의 추상 조각이다.

- 작품에 사용된 조형 요소는 무엇인가?
- 이 작품의 모양과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가?
- 이 작품의 질감은 어떠한가?
- 작품에 사용된 색은 어떤 느낌인가?
- 균형, 대조,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사용한 재료는 무엇인가?

바자렐리(Vasarely, victor/헝가리→프랑스/1908~1997) 크로아(금속 색 패널/각 50.8×50.8×50.8cm/1970년 작)

104

알고 가기 | 미술 작품을 감상하려면

전시 공간에서 감상하기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전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상하면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생활 주변에서 감상하기

최근 공공 미술의 활성화로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출판물에서 감상하기

전시회 도록, 작품집, 달력 등 여러 가지 인쇄물을 통해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감상하기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는 사이버 갤러리를 방문하면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의 주제 살펴보기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작품 속 이야기를 찾아본다.

인생무상을 의미하는 '바니타스(vanitas)'라는 유형의 정물화이다. 이 작품에서 촛선은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로 향한다. 해골 주변에는 소라, 칼, 책, 악기, 램프, 시계 등 상징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이 놓여 있다.

- 이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 이 작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가?
-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작품을 그렸을까?
-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 작품에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이 좋을까?

스테인버크(Steenwijck, hermen/네덜란드/1612~1656)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알레고리/캔버에 유채/39.2×50.7cm/64년경 작

사회 · 문화적 배경 살펴보기

미술 작품은 제작된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작품의 사회 · 문화적 배경을 알아본다.

출근하는 여성 사람의 군상으로 일상의 부제를 재현한 이 작품은 실물 크기의 직조법으로 제작하여 바닥에 놓음으로써 현실감을 더했다.

- 이 작품이 제작된 시대는 언제인가?
- 이 작품이 제작된 시대의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 인물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는 무엇인가?
- 이 작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특징은 어떤 것인가?
- 이 작품의 작가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조사해 보자.

시걸(segal, George/미국/1920~2000) 러시아워 상점/183×244×244cm/1983년 작

105

보충 자료

미술 감상의 다양한 접근 방법

· 미학적 접근
미술품이나 자연환경의 미적 가치를 발견 (미적 체험 영역과 연계)

· 창작 활동 관련 접근
미술가들의 표현 주제, 재료, 기법 등의 발견을 통해 흥미 유발과 학습 내용 이해로 표현 활동에 도움(표현 영역과 연계)

· 미술사적 접근
시대별, 양식별로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초점(감상 영역과 연계)

· 일반 역사와 통합적 접근
미술품과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상호 관련을 중심으로 시대정신, 작가의 사회의식 등의 배경을 탐구하는 데 초점(미적체험, 감상 영역과 연계)

· 비평 능력 향상적 접근
보고, 생각하고, 발표하는 활동 중심.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과 연계된 통합적 성격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신선미(한국/1980~) 당신이 잠든 사이 10(장지에 채색/109.5×162cm/2011년 작)

작가는 이 작품에서 한복의 우아함과 단아함만을 표현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옛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장인정신과 솔직함을 닮고자 함을 기본으로 하되, 현대적 이미지를 과하지 않게 더하고자 했다. 여인들의 단아한 복식과 화려한 장신구는 여성적인 솔직함을 상징하는 큰 요소가 된다. 하지만 가끔 그런 여인도 조금은 흐트러뜨리고 싶어졌다. 한복 입은 여인 시리즈는 그런 여성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간혹 예상치 못한 복병의 등장으로 무너지는 체통 즉, 해학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어 체증을 풀어주고 있다. 더불어 "그림 속 그림이야기로 각자 다른 이야기를 그림 속 배경 안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로 구성의 변화를 꾀했다." 라고 작가는 노트에 말하고 있다.

바자렐리(Vasarely victor/헝가리→프랑스/1908~1997) 크로아(금속 색 패널/각 50.8×50.8×50.8cm /1970년 작)

1940년대 옵아트와 지각 이론에 몰두하며, 사회로부터 고립된 개개인의 작가가 제작한 예술품이라는 전통 개념을 달리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현대 산업 사회의 정보 기술에 따라 대중을 위해 활동하는 미술가가 제작한 사회적 미술 개념으로 대치시켰다. 이 작품에서는 추상적 구성 안에서 움직임이나 형태 변화의 시각적 환영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반복, 점이, 점증과 색채 대비를 활용하였다. 옵아트의 대표적 작가로서 실천가이자 이론가이기도 한 바자렐리는 엄격한 구성에 의한 기하학적인 추상을 추구했으며, 수학적으로 계산된 조형을 표현했다. 그는 도형의 미묘한 변화와 착란에 의해 화면에 생생한 움직임을 줌으로써, 시각적인 모호성과 분산을 느끼게 했다.

스텐바크(steenwijck, harmen/네덜란드/1612~1656)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알레고리(패널에 유채/39.2×50.7cm/640년경 작)

바니타스 정물화이며, 바니타스는 라틴 어로 허영, 허무를 뜻한다. 인간이 갈구하는 물질적 욕망과 호화로움, 쾌락이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언젠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주제,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이다. 바니타스는 17세기 때 많이 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보편적 지식보다 중세 말의 흑사병, 전쟁 등의 극심한 재난 때문이었다. 그 결과 바니타스는 17세기 이래 유럽의 정물화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책은 배움과 지식의 한계, 악기는 세상의 즐거움이 지닌 무상함, 불꺼진 램프와 시계는 생명의 유한함을 나타낸다. 칼은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낸다. 특히 바니타스를 주제로 한 그림들에는 빠지지 않고 해골이 등장한다.

시걸(Segal, George/미국/1924~2000) 러시아워(청동/183×244×244cm/1983년 작)

시걸은 도시인의 일상적 상황과 환경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현대인의 고립과 고독의 소외적 심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팝 아트적 양식의 환경 조각가이다. 실제 인물을 석고 붕대로 직접 떠내는 미완성적 등신상(석고액을 적신 붕대를 직접 감고 굳힌 다음 겉 틀을 잘라 떼어낸 후 그 원형을 다시 석고로 떠내는 방법)의 비개성적 인물 군상과 주변 일상의 다양한 오브제를 직접 활용한 현실적 환경의 공간 연출을 선보였다. 또한 형광등을 활용해 주제를 극대화하는 설치적 상황 미술을 추구하였다.

참고 자료

- **사이버 공간을 통한 미술 감상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감상을 할 수 있다.

②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평론 등 풍부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접할 수 있다.

③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나 작품을 제작한 작가가 바로 접속할 수 있어서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단점

① 직접 작품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 관찰이 미흡하여 생생한 감상이 부족하다.

- **미술관 관람**

1) 미술관의 개념

미술 작품을 연구, 수집, 보관하고 일반인들이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전시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2) 미술관의 기능

작품의 수집, 보관을 통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전시, 교육을 통해 감상을 돕고 미술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

3) 미술관 관람의 실제

(1) 관람 예비 단계: 관람할 전시 선정, 전시의 내용과 성격 파악, 관련 미술이론 학습, 감상 학습지 작성 요령 숙지, 전시회 관람 예절 숙지

(2) 관람 단계: 미술품 감상, 감상 학습지 작성(관련 자료 이용: 도슨트의 설명, 시청각 자료, 팸플릿 등), 전시 작품 스케치 등

※ 감상 학습지 포함 내용: 전시명, 전시 장소, 감상 일자, 전시 주제, 전시 내용(작가와 작품), 관람 소감

(3) 관람 후 단계: 전시회 관람 보고서 작성, 전시회 관람 소감 토론

- **미술관 관련 용어 알기**

(1) 도슨트: '가르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도슨트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전문 안내인으로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관람객에게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람이다.

(2) 큐레이터: 전시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등 전시의 모든 것을 총괄 및 기획하는 사람이다.

(3) 작품 복원가: 작품의 보관 상태를 관리하고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사람으로 보존 전문가와 복원 전문가로 나뉜다. 보존 전문가는 미술 작품의 손상 방지에 중점을 두고, 보존하는 일을 주로 하지만, 복원 전문가는 손상된 유물과 작품을 수작업으로 복원하는 일을 주로 한다.

- **미술 전시회의 종류**

① 공모전: 정해진 기간 동안 작품을 공모하여 심사한 후 입상 작품을 전시하는 것
② 초대전: 미술관에서 특정 단체나 작가의 작품을 초대하여 전시하는 것
③ 유작전: 사망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
④ 비엔날레: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시하는 것
⑤ 앙데팡당전: 심사 과정 없이 출품한 모든 작품을 전시하는 것
⑥ 기획전: 특정한 주제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하는 것
⑦ 상설전: 화랑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일상적으로 전시하는 것
⑧ 아트페어전: 여러 화랑의 작품들을 한 장소에 모아 놓고 팔기 위해 전시하는 것
⑨ 교류전: 문화적 교류를 목적으로 갖는 전시회로, 국가, 지방, 여러 단체 간의 전시를 하는 것



미술 비평 맥락 잡기

미술 비평은 관찰을 통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장점과 단점을 판단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찰력, 사고력, 분석력, 판단력을 계발하고 미적 안목을 높일 수 있다. 미술 비평 과정을 알고 작품 감상에 임한다면 더욱 세밀하고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게 된다.

• 이인문의 〈송하한담도〉를 미술 비평 단계에 맞추어 감상해 보자.

작품 감상 단계

서술 첫째, 마음 열기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과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 작품의 정보 등을 기록한다.

분석 둘째, 자세히 보기
작품 속에 나타난 선, 형, 색, 재료, 구도, 질감 등을 살펴본다.

해석 셋째, 작가의 마음 헤아리기
작품의 주제와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배경으로 알아본다.

평가 넷째, 생각하고 판단하기
작품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보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여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

이인문(조선/1745~1821) 송하한담도(종이에 수묵 담채/109.3×57.4cm/1805년 작)

미술 비평 과정에 따른 발문 예시

과정	발문	
마음 열기	• 작품의 첫인상은? • 무엇을 하고 있는 작품일까?	• 이 작품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가? • 작품을 보고, 보이는 대로 전체 모습을 설명해 보자.
자세히 보기	• 재료의 표현 방법은 무엇인가? • 채색 크고 높이 먼저 찍는 것은 무엇인가? • 형태들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 시선을 끄는 색은 무엇인가? • 가장 많이 사용한 색은 무엇인가? • 굵은 선, 가는 선, 날카로운 선, 부드러운 선은 어디에 있는가? 또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흐릿하게 보이는가?	• 표현의 장단이 메끄러운 부분, 거친 부분은 어디인가? • 관련된 형태들의 질감 표현이 다른 형태들과 유사한가, 대조를 이루는가? • 질감의 처리가 실제적인가, 표현적인가? • 작품 속 공간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 움직임이나 운동감이 느껴지는가?
작가의 마음 헤아리기	• 배경 처리는 주제와 잘 어울리는가? • 전체적인 색채는 주제 표현에 어울리는가? • 작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제작했을까?	•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 작품의 시대 · 역사 ·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 • 주제 표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표현이 특징적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이며,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 부족한 점을 어떠한이라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106

친구 작품 감상하기

미술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작품도 감상의 대상이 된다. 미술 작품은 표현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의 작품 감상은 친구들의 다양한 성격과 개성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 작품에 사용된 여러 가지 재료와 표현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나의 표현 활동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미술 작품 감상을 통하여 미적 안목과 비평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친구의 작품을 감상할 때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배려하고 작품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감상 활동에 임해야 한다.

서로의 작품 감상지

학년 반 번호 이름

나의 작품 설명서

작품 제목	
작품 내용	
작품 특징	
재료	
용구와 제작 방법	
제작 상 어려웠던 점과 보완해야 할 점	

친구 작품 감상 기준

작품의 느낌은?	
작품에 나타난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방법은?	
작품의 주제와 내용은?	
작품의 장점과 단점은?	

친구를 작품 중 마음에 드는 작품을 찾아보자.

이름	작품 제목	마음에 드는 이유는?

감상 수업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한다.

정리 ● 작품 감상이란 어떤 대상에 관해 관심을 두고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판단하는 정서와 사고의 종합적 활동이다. 이러한 감상 활동은 미적 안목을 기르고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 준다.

평가 1. 미술 감상의 개념과 의의를 이해하였는가?
2. 다양한 관점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였는가?

107

참고 자료



강산무진도(그림: 이인문, 오언율시: 왕유(당))

중년에 도를 좋아하여
늘그막에 남산 기슭에 집을 잡았네
물이 다한 곳에 이르러
앉아 구름이 일어나는 것 보네
흥이 나면 매번 홀로 가니
빼어난 경치는 나만 아네
숲에서 우연히 노인을 만나
담소 나누느라 돌아갈 줄 모르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이인문(조선/1745~1821) 송하한담도(종이에 수묵 담채/ 109.3 57.4cm/ 1805년 작)

계곡물이 흐르는 소나무 숲 속에서 선비들이 맑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경을 그린 그림이다. 이인문은 김홍도와 동갑내기 화원이며 먼 인척으로서 서로 가까운 친구 사이였으나 화풍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송하한담'의 상단에 김홍도가 쓴 오언율시가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한 사이였음을 말해 준다. 또한 이인문의 그림치고는 김홍도와 가장 유사한 화풍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

이인문도 '발연'이나 '수옥정' 등 진경산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전해진 작품들의 대부분은 정형 산수들이다. 이 중에는 간송미술관 소장 '산정무일병'처럼 80세 때 그린 것도 있으며, 그림의 간기에 의해 70세 이후에 무르익은 필치로 그린 대작도 여럿 전래된다. 젊은 시절에 꼼꼼하게 그린 산수와는 확연이 구별되는 이 그림은 이인문이 61세 때 그린 작품이다.

속도 있는 필선으로 피마준을 구사하여 지두법까지 혼용한 완숙미가 돋보인다. 노송 아래 폭포를 배경으로 담소를 나누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주제는 이인문의 그림에서 자주 발견된다. 상단에 있는 김홍도의 오언율시는 김홍도의 '남산한담'이란 그림에도 적혀 있다. 당나라 왕유가 지은 '종남별업'이라는 시를 김홍도가 쓴 것인데, 단원이 술에 취한 탓인지 원시의 3, 4구와 5, 6구가 바뀌어 있다. 이인문의 자는 문욱(文郁), 호는 고송유수관도인, 유춘. 해주 출신이다. 도화서 화원이며 특히 산수화에 능했으며 남북 양종을 절충했다. 화풍은 명암의 대조가 강해 기운(氣韻)이 부족하고 구도는 화원으로서의 형식주의가 엿보인다. 독창적인 면에서는 김홍도만 못하다는 평도 받고 있으나 기량이나 격조 면에서는 그와 쌍벽을 이루었던 화가로 조선 후기의 회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대표작에는 중국화를 모사한 '강산무진도', '대부벽준산수도', '춘경산수도' 등이 있다.

보 충 자 료

● 펠드먼의 단계적 서술 비평

작품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비평 방법

(1) 서술의 단계 (=설명의 단계)

작품에 나타난 외형적 요소를 충실하게 관찰하고 내용을 서술하는 단계. 작품을 관찰하여 무엇이 보이는가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

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의 충실한 기록
② 작품에 표현된 내용 외에 제목, 작가, 연도, 장소, 재료등의 언급
→ 감상 관점: 기본적인 표현 대상

(2) 분석의 단계

형식적 분석작품의 구성 요소와 원리, 작품 안에 존재하는 것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파악의 단계. 즉 작품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재료 및 용구,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등 세부 항목별로 작품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해 특히 조형 요소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조직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관찰된 사실들의 비교, 종합, 분석 등을 통해 각각의 크기, 형태, 색, 질감 등, 시각적 형식 요소들의 상호 관계와 그 효과의 기술
→ 감상 관점: 표현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기법, 양식), 조형 요소와 원리

(3) 해석의 단계

내용 서술과 구조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해석하는 단계. 작품에 나타난 느낌, 분위기, 제작의 배경 등을 파악함으로써 작품이 전달하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① 학생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이끌며 예술가가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 집중
→ 감상 관점: 작품의 전체적 느낌과 분위기, 제작의 배경(사회적 배경, 작가 개인적 배경), 표현 주제

(4) 판단의 단계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파악한 모든 정보를 근거로 작품을 평가하고 미술사적 의의와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① 개인적 판단보다는 형식주의, 도구주의, 표현주의 등 예술 철학에 기반을 둔 객관성 요구
→ 감상 관점: 가치 판단의 기준 작품의 미술사적 의의와 미적 가치

● 올바른 감상 태도

① 작가의 작품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공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감상한다.
② 작품이 그려진 시대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③ 작품을 지나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만 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감상한다.
④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작품에 접근하여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
⑤ 수시로 여러 작품을 감상하여 심미안을 기르도록 한다.

활 동 자 료

● 전시회 관람 보고서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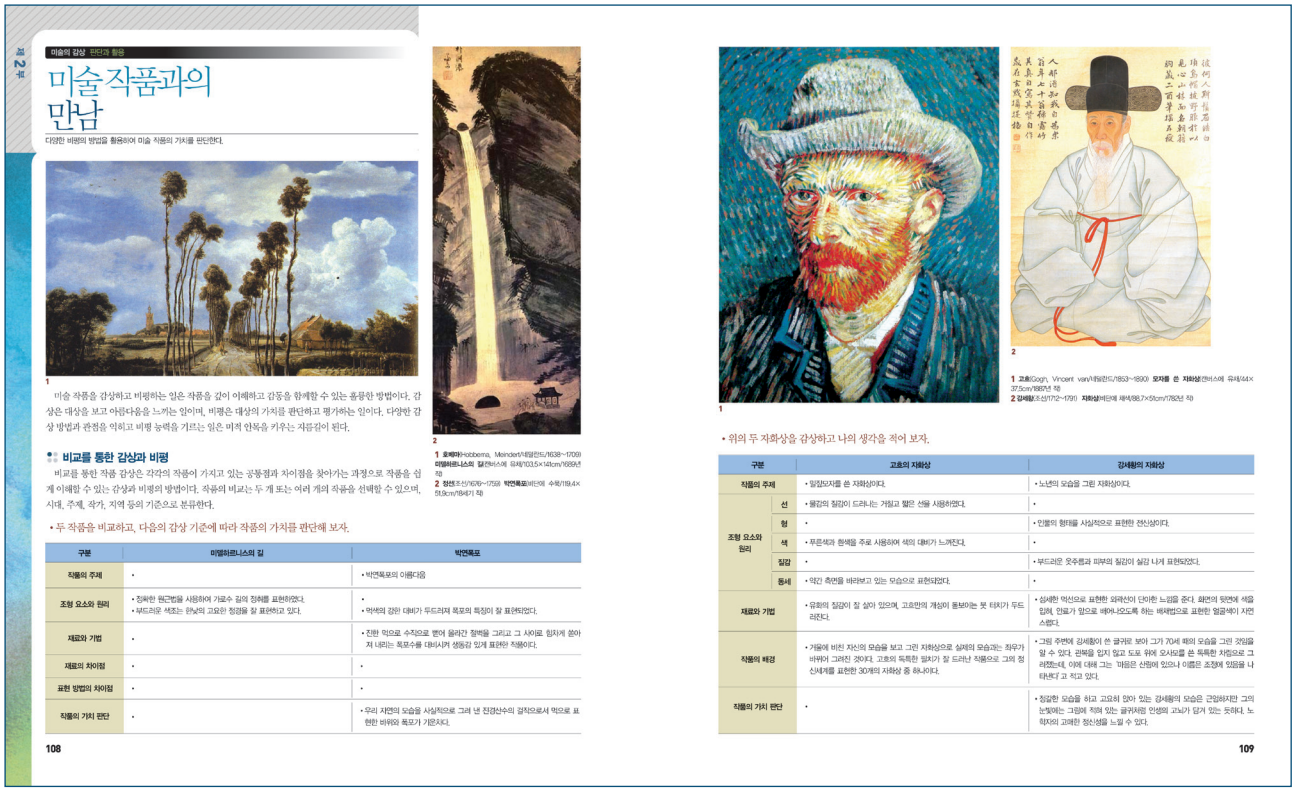
[예시 전시회 관람 보고서]

전시회 관람 보고서

년 월 일 학년 반 번 이름

일시, 장소	
전시회 제목	
전시 작품과 작품 분류의 기준	
미술관과 전시회의 특징	
감상 소감 및 참고 자료 첨부	

① 전시된 작품들이 어떤 것인지 작성하고 작품을 전시실에 배치할 때 어떤 순서로 분류, 배치하였는지 찾아본다.
② 미술관 건물이나 전시실의 특징을 적는다. 예로, 건축물의 형태, 전시실의 벽색, 조명 등
③ 전시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나 전체적인 전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제2부 미술의 감상 · 판단과 활용

미술 작품과의 만남

다양한 비평의 방법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한다.

1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일은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감동을 함께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감상은 대상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이며, 비평은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다양한 감상 방법과 관점을 익히고 비평 능력을 기르는 일은 미적 안목을 키우는 지름길이 된다.

비교를 통한 감상과 비평

비교를 통한 작품 감상은 각각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작품을 심게 이해할 수 있는 감상과 비평의 방법이다. 작품의 비교는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대, 주제, 작가, 지역 등의 기준으로 분류한다.

• 두 작품을 비교하고, 다음의 감상 기준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판단해 보자.

구분	미델하르니스의 길	박연폭포
작품의 주제	•	• 박연폭포의 이름다움
조형 요소와 원리	• 정확한 원근법을 사용하여 기묘수 길의 정취를 표현하였다. • 부드러운 색조는 완년의 고요한 정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	• • 먹색의 강한 대비가 두드러져 폭포의 특징이 잘 표현되었다.
재료와 기법	•	• 진한 먹으로 수직으로 뿜어 올라간 장면을 그리고 그 사이로 힘차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를 대비시켜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재료의 차이점	•	•
표현 방법의 차이점	•	•
작품의 가치 판단	•	• 우리 자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진경산수의 걸작으로서 먹으로 표현한 바위와 폭포가 기운차다.

108

2

1 호베마Hobbema, Meindert/네덜란드/1638~1709/미델하르니스의 길/캔버스에 유채/103.5×141cm/1689년작

2 정선조선/1676~1759/박연폭포/비단에 수묵/119.4×59.9cm/18세기 작

1 고흐Gogh, Vincent van/네덜란드/1853~1890/**모자를 쓴 자화상**/캔버스에 유채/44×37.5cm/1887년 작

2 김세렴조선/172~1791/**자화상**/비단에 채색/98.7×59cm/1782년 작

• 위의 두 자화상을 감상하고 나의 생각을 적어 보자.

구분		고흐의 자화상	강세황의 자화상
작품의 주제		• 일절모자를 쓴 자화상이다.	• 노년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다.
조형 요소와 원리	선	• 물감의 질감이 드러나는 거칠고 짧은 선을 사용하였다.	•
	형	•	• 인물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전신상이다.
	색	• 푸른색과 흰색을 주로 사용하여 색의 대비가 느껴진다.	•
	질감	•	• 부드러운 오주름과 피부의 질감이 실감 나게 표현되었다.
	동세	• 약간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
재료와 기법		• 유화의 질감이 잘 살아 있으며, 고흐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붓 터치가 두드러진다.	• 심세한 억선으로 표현한 외곽선이 단아한 느낌을 준다. 화면의 뒷면에 색을 입혀, 인물가 앞으로 배어나오도록 하는 배채법으로 표현한 얼굴색이 자연스럽다.
작품의 배경		•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린 자화상으로 실제의 모습과는 좌우가 바뀌어 그려진 것이다. 고흐의 독특한 필치가 잘 드러난 작품으로 그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30개의 자화상 중 8번째이다.	• 그림 주변에 강세황이 쓴 글귀로 보아 그가 70세 때의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관복을 입지 않고 도포 위에 오사모를 쓴 독특한 차림으로 그려졌으며, 이에 대해 그는 '마음은 산림에 있으나 이름은 조정에 있음을 나타내고 고 적고 있다.
작품의 가치 판단		•	• 정갈한 모습을 하고 고요히 앉아 있는 강세황의 모습은 근엄해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림에 적혀 있는 글귀처럼 인생의 고뇌가 담겨 있는 듯하다. 노력자의 고매한 정신성을 느낄 수 있다.

109

미술작품과의 만남

교과서 pp.108~115

● 단원 설정의 이유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일은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감동을 함께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원을 통해 다양한 감상 방법과 관점을 익히고 비평 능력을 기르는 일은 미적 안목을 키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학습 목표

1. 다양한 관점의 감상법과 비평 단계를 토대로 미술 작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2. 미술 작품을 비평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3. 작품의 가치를 알고 아끼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단원	미술의 감상 – 판단과 활용	차시	①②❸④⑤⑥⑧
학습 주제	다양한 비평의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가치를 판단한다.		
준비물	교사: 활동지(감상 비평문), 예시 작품 사진,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교과서, 필기도구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토의 학습 및 발표 학습	평가 방법	토론법, 연구 보고서법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동기 유발 및 학습 목표 확인 – 슬라이드 자료를 활용하여 참고 작품들을 제시해 다양한 감상법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 다양한 감상 방법 및 비평 단계를 통하여 작품을 감상하게 유도하며, 작품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설명한다.	· 작품을 통해 비평 단계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한다.
전개	◎ 작품 감상 및 감상 비평문 작성 – PPT 자료를 활용하여 비평 단계 및 다양한 감상 관점 방법에 대해 지도한다 . – 교사가 예시 작품을 통해 직접 비평 단계를 설명하여 상세히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작품을 제시하고, 토론 과정 및 방법을 순회하며 지도한다. ⊙ **학습 활동** ⊙ **모둠별로 감상 비평문 작성하기** – 비평하고자 하는 작품을 선정한다. – 작품을 보며 비평 단계에 맞추어 토론한다. – 감상 비평문을 작성한다.	· 감상 비평문 작성 요령 및 토론 과정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한다.
정리	◎ 감상 비평문 발표 및 학습 정리 – 모둠별로 토론한 작품의 감상 비평문을 발표한다. –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는다. – 수업 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차시를 예고한다.	·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생각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평가 관점	• 감상의 단계를 이해하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였는가? • 다양한 유형의 비평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 비평의 관점을 활용하여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호메바(Hobbema, Meindert/네덜란드/1638~1709) 미델하르니스의 길 (캔버스에 유채/103.5 141cm/1689년 작)

햇빛 가득한 자연의 모습과 시골길, 농가, 물방앗간을 주요 소재로 삼았으며, 대기 원근법을 사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물체일수록 윤곽과 색채를 흐리게 하는 기법으로 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건물 지붕의 붉은색과 나뭇잎의 회녹색이 명쾌한 색채 대비를 이루며 산뜻하고 서정적인 풍취를 더한다.

껑충하게 키가 큰 나무는 맑고 투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가볍게 흔들거린다. 풍경 하나하나에 엄격함과 세심함이 네덜란드 풍경화의 특징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정선(조선/1676~1759) 박연폭포(비단에 수묵/119.4 51.9cm/18세기 작)

조선 후기 회화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화가가 바로 정선이다. '진경산수'라는 화풍을 성립시키고 유행시킨 화가로 오랫동안 여러 화가에 의해 추종받았다. 박연폭포는 인왕제색도를 연상시킬 만큼 진한 먹으로 수직으로 뻗어 올라간 절벽을 그리고, 그 사이로 힘차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를 대비시켜 생동감 있는 화면을 만들었다.

박연폭포는 논리적인 시점의 설정 자체가 무시되어 있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그림이다. 폭포가 떨어져 내리고 있는데 못 가운데 솟아 있는 바위는 수평적 시점에서 바라본 것처럼 그려져 있고, 다시 폭포 위쪽의 암벽과 나무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그린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는 꼭대기의 가운데에 놓인 바위는 그 위치와 맞지 않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린 것처럼 되어 있는가 하면, 우측 상단에 그려진 문은 화면의 상단 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묘사한 것처럼 그려져 있는 것이다. 박연폭포에는 논리적 시점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과감하게 변형시켜 사실성을 뛰어넘음으로서 회화미를 강조하고, 부드러운 물과 단단한 암벽의 대비가 화면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충 자료

● **동 · 서양의 자연에 대한 이해**

모든 미술의 시작은 자연 모방이며 어떻게 모방했느냐에 따라 형식이 달라진다. 즉 현대 미술을 제외한 미술은 자연에 대해 사고하는 기준에 따라서 미술이 달라진다.

동양: 자연이 스스로 질서를 찾아간다. 자연의 질서만이 완벽하다. 즉 완벽한 인간상을 추구한다. 자연 숭배와 자연 합일을 강조하며 자연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되는 자기 원인자이자 자기 완성자이며 그대로 최고인 목적적 존재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동양은 자연을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인식하여 자연 밖의 다른 세계를 설정하지 않는 현실주의적 사고관이다. 또한 동양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유기체적 사고관으로 전체론적 사고, 상관론적 사고, 관계론적 사고라고도 지칭한다.

서양: 자연을 극복, 또는 이용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며, 자연 속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미개, 원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자연은 인간의 손길을 통해 완성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며 기독교적 내세관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양은 자연과 인간을 따로 떼어 놓고 보려고 하는 기계론적 사고관으로 국부론적 사고, 요소론적 사고라고도 지칭한다.

작가 탐구

정선 (1676~1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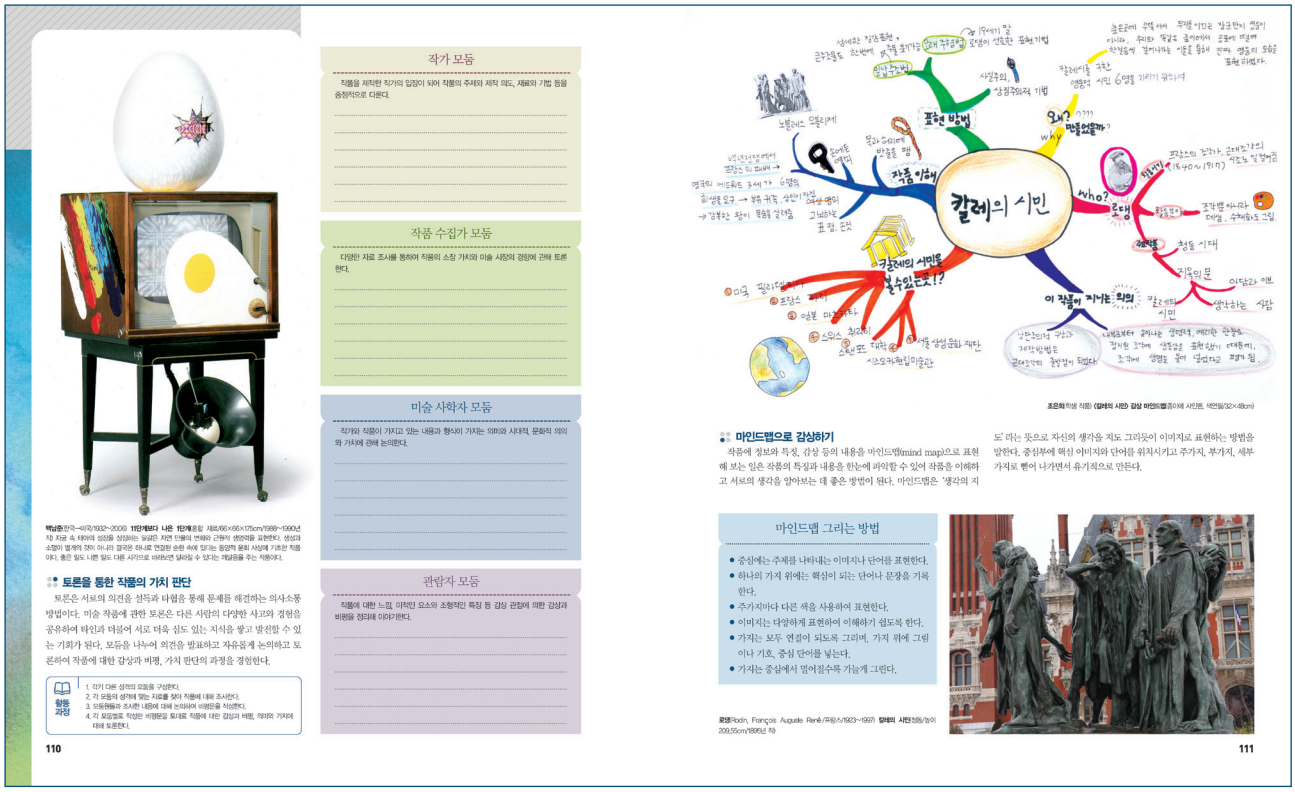
숙종부터 경종, 영조 연간까지 활동했던 화가로 18세기 전반 문예 부흥기의 정점에 있었다. 정선은 조선 후기, 노론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창흡의 문하에서 성장하여 실학의 발달과 자주적인 학문의 분위기에서 진경산수화 라는 독착적인 화풍을 이루었으며 한국적 산수화의 전통을 확립하였다. 또한 겸재준(수직으로 내려긋는 난시준)을 창안하였고 부감법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후 산수화에서 그의 화풍을 따라 실경을 그린 '겸재일파'를 이룰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까지 알려진 겸재의 작품 중 가장 빠른 1711년 '신묘년풍악도첩'을 시작으로 금강산의 실경화와 남종화 풍의 습득의 과정을 거친 후, 청하현감 시기인 1734년에 '내연산 삼용추', '금강전도'등의 명작을 그리며 진경산수화를 완성하였다.

60대 전반기에 전성기를 맞이하며 양천 형령 시절인 60대 후반에는 '경묘명승첩'과 '연강임술첩'을 제작하였다. 1745년 양천 현령의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70대 이후 다시 금강산을 그리며 '만폭동', '인왕제색도' 등 만년의 작품을 남겼다.



금강전도



보충 자료

● 동양, 서양의 자화상 비교

동양의 인물화와 서양의 인물화에서는 그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동양은 인물의 외형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신론 이라는 이론이 생겨났고, 그 이론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의 인물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서양은 인물의 외형을 중시하여 완전한 표현과 묘사를 중시하였다.

서양 인물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 해부학에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사고와 일맥상통하여 그림에서도 동양은 인물의 주관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고, 서양은 인물의 객관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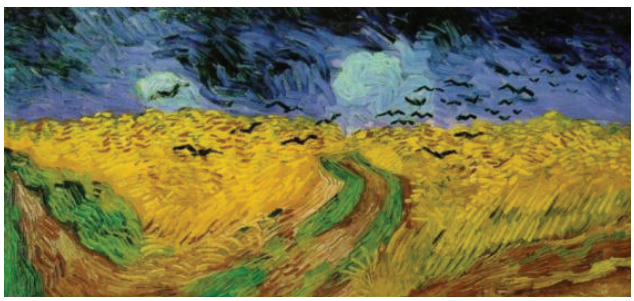
교과서 속 작품 해설

고흐(Gogh, Vincent van/1853~1890/네덜란드) 모자를 쓴 자화상(캔버스에 유채/4437.5cm/1887년 작)

이 작품은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고흐는 언젠가 "예전에 화가들이 후광을 통해 표현했던 것처럼, 인간의 내면적인 면을 그려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의 머리를 원형으로 감싸고 있는 화필의 소용돌이는 그가 말한 후광같은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1887년 7월부터 고흐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저렴한 재료를 선택했다. 그는 이 작품을 붉은색 물감을 사용하여 스케치했다. 그리고 물감을 두껍게 발라 크고 작은 붓터치로 채색해 가며 율동감 있는 질감을 연출했다. 작품에서 보이는 후광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그려진 것

작가 탐구

고흐(네덜란드/ 1853~1890)


〈Wheatrield with Crows〉 1890

고흐는 생전에 40여점의 자화상을 남겼는데 같은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이다. 렘브란트를 제외하면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작품 수이다. 우울과 환희를 번갈아 겪는 조울증에 시달렸던 고흐는 자신의 격양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회화에 투신하며 10년동안 800여 점의 유화와 소묘화를 남겼다. 그는 먹는 것도 잊은 채 그림에 열중했으며 밤에는 모자 테에 양초를 매달고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고흐의 짧게 끊어지는 화필과 밝은 보색의 색상 체계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의 미술은 매우 독창적인 것이다. 그는 관학적인 기법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은 "일부러 부정확하게 그려서 나의 비사실적인 그림이 직접적으로 사실을 그린 그림보다 더욱 진실되게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화상을 통해 인생의 정수를 포착하려 했는데,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치 고흐의 유령을 대하고 있는 것같이 생생하다. 그의 자화상은 고흐의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있어 누구든지 고통받는 화가의 영혼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고흐는 예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불운한 천재의 원형이었다.

이며 배경의 붓터치는 머리 주변에 파도 모양을 띠고 있다. 그는 배경보다 자신의 얼굴에 집중하여 세말한 붓으로 채색했으며 이 작품을 통해 강렬한 색조를 탐구했다. 과장된 후광의 색채와 붓터치는 마치 고흐를 미국 전쟁화의 인디언처럼 보이게 하지만 이러한 과장된 양식은 색채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함이었다.

강세황(1712~1791/조선) 자화상(비단에 채색/88.7 51cm/1782년 작)

강세황은 청나라를 통한 서양화법(태서법)을 사용하여 음영 채색을 활용한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강세황의 자화상을 유지 초본을 포함해서 3점이 있는데 이 밖에 정면 반신상, 자화상을 토대로 이명기가 그리고 정조가 찬문을 적은 전신 초상화가 있으며, 임희수가 그린 초상화를 묶어 만든 '칠분전신첩'에도 한 점이 포함되어 6점 이상이 전해지고 있다. '칠분전신첩'의 강세황 초상은 강세황이 자화상을 그릴 때 도움을 준 임희수가 그린 것이 아니라 후대의 작가에 의해 그려진 것이라 보인다. 실제 강세황이 그린 '정춘루첩'의 자화상과 매우 유사하다. 직접 쓴 찬이 있는 강세황의 자화상(1782)은 관복에 입는 오사모를 쓰고 야복인 도포를 입은 특이한 차림을 한 모습이다. 이러한 차림에 대해 강세황은 마음은 산림에 있으나 이름은 조정에 있을을 나타낸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림 위에 강세황이 직접 쓴 자필 글로 70세 때의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백남준(한국→미국/1932~2006) 11단계보다 나은 1단계(혼합 재료/66×66×175cm/1988~1990년 작)

달걀 오브제와 페인팅, 그리고 영상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달걀에 대한 백남준의 상상력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매력적인 소품이다. 실제로 12개의 TV모니터를 통해 초생달에서 만월로 변해 가는 달의 이미지를 보여줬던 '달은 가장 오래된 TV'(1965~1967)라는 대표작이나 달걀의 내부 영상을 같은 형식으로 보여 줌으로써 여성의 자궁 속 태아의 성장을 은유한 작품 '달걀'(1994)과 연장선에 놓인 작품이다. 백남준은 달이나 달걀과 같은 지극히 보편적인 사물을 통해 자연 만물의 변화와 그 근원적 생명력을 서정적이고 시적으로 표현해 낸다. 만월로서 온전한 달걀이 되어가는 생성의 원리 속에는 하나로 완성되어가는 동시에, '차면 기운다'는 속담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소멸의 원리를 담고 있다. 즉, 완성과 소멸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순환 속에 있다는 동양적인 윤회의 사상을 작품으로 말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언제든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인생 역전의 깨달음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조은희(학생작품)〈칼레의시민〉 감상 마인드맵(종이에 사인펜, 색연필/32×48cm)

이 작품은 로댕의 공공 조형물 중에서는 드물게 그 설득과 설치에 성공했다. 다른 장치 없이 여섯 명 인물의 몸, 특히 실제보다 크게 만들어 진 즉 표현주의적으로 왜곡된 형태의 손과 발이 모든 것을 말하게 하였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혁신 중 하나는 공공 조형물에 없었던 배치에서 온다. 인물들은 서로 전혀 접촉이 없고, 그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실존적 문제에 몰두해 있다. 이들 모두는 작품에서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 이 작품에는 정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감상자가 작품 주위를 돌면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례로 나왔다 들어가고, 무리는 모였다 흩어지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낮은 좌대는 조각의 공간을 관람자의 공간에 침투시키고, 인물군의

참 고 자 료

● **로뎅의 작품 '칼레의 시민들'**

1885년에 칼레 시정부에서 주문받아 제작한 [칼레의 시민들]은 공공 조형물과 조각의 성격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은 걸작이다. 14세기, 백년전쟁 중 프랑스 북동부의 도시 칼레를 포위한 영국군은 도시민 중 6명이 목숨을 바치면 봉쇄를 풀겠다고 했다. 도시를 구하기 위해 희생을 자원했던 영웅을 기리기 위한 이 작품 제작 과정은 혁신에 의한 관습의 설득 과정이었다.

특별한 구성은 조각의 시간을 관람객이 작품이 보는 실제 시간과 일치시킨다. 이렇게 하여 그는 작품을 통해 시간 속의 움직임 즉 생명 자체를 재현하고자 했던 과제를 완수했다.

백남준은 젊은 시절 전위 음악가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플럭서스(fluxus) 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연 형식이 결합된 새로운 예술을 구상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TV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영화의 움직이는 이미지를 시간의 지연 없이 먼 곳에서도 볼 수 있게 하려 한 것이 텔레비전이다.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 경기 중계를 통해 텔레비전의 위력은 일찍이 증명되었다. 무엇보다 짧은 순간에 전파가 닿는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채널에 집중하는 집단 전체의 가치와 이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것이었다. 이를 입증하듯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의 TV는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보급되었다. 백남준의 첫 개인전은 그의 동료들조차 눈치 채지 못하게 비밀 작업실에서 엔지니어와 함께 준비되었다. 이때 그의 텔레비전을 활용한 작품 구상은 전자 악기에 가까운 시각적 공연 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대중적 개념을 내포한 미디어 아트의 특성을 미리부터 예견하고 예술로 승화시켰다.

보충 자료

● 창의성 신장을 위한 발상법

1) 마인드맵

(1) 개념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지닌 방사 사고의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기호, 그림을 사용해 마음속 지도를 그리듯 표현하는 방법이다.

(2) 마인드맵의 사용 언어

① 색상: 기억을 선명하게 하고 정보 저장에 계열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이미지: 강력한 기억 효과를 갖게 하고 그 관계의 회상을 돕는다.
③ 심벌: 복잡하고 다중적인 의미를 함축할 수 있어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느낌으로 많은 정보를 저장하게 한다.
④ 핵심어: 최선의 정보를 주는 단어로 통상적으로 두 단어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2) 브레인스토밍

(1) 개념

오스본에 의해 발명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동 창출 도구이다.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구성원이 반응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10명 내외의 구성 인원이 적당하다. 특정 주제나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하는 교수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새로운 아이디어 발견에 목적을 두며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

(2)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원칙

① 아이디어를 산출할 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사고가 자신을 이끄는 대로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③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양을 추구한다.
④ 제안된 아이디어를 기초로 하여 결합과 조합을 통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 및 개선시킨다.

(3) 브레인스토밍의 진행 절차

①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기 전 리더 1명과 기록자 1명, 심사 그룹을 정한다.
② 참가자 전원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앉는다. 리더는 회의 규칙을 참가자에게 설명한다.
③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통해 두뇌 회전을 유연하게 한다.
④ 순서를 정해 한 사람씩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아이디어가 없을 때는 '통과'를 외친다. 구성원 전원이 통과를 외칠 때까지 진행하며 기록자는 회의에서 나오는 모든 의견을 기록한다.
⑤ 아이디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회의를 중지시킨다. 회의 시간은 최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⑥ 심사 그룹은 회의 때 나온 아이디어 중 발전시킬 수 있거나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채택한다.

3) 체크리스트

(1) 개념

문제와 관련된 항목들을 나열하고 그 항목별로 문제의 어떤 특정 변수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이며 사용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비단 아이디어의 발상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활동 자료

● 모둠별 토론을 통한 작품 비평

① 각기 다른 모둠을 구성한다. 또한 비평의 관점을 모둠별로 달리한다.
② 각 모둠의 성격에 맞는 자료를 찾아 작품에 대하여 조사한다.
③ 모둠원들과 조사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여 비평문을 작성한다.
④ 각 모둠별로 작성한 비평문을 토대로 작품에 대한 감상과 비평, 의미와 가치에 대해 토론한다.
⑤ 모둠별로 비평문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전통 미술의 감상과 비평

전통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과 선조의 아름다운 미의식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보도록 한다. 또한, 시대와 종교,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하는 전통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조사하여 그 깊은 의미와 가치를 판단한다.

활 동 사회적 · 문화적 배경이 나타난 전통 미술 작품을 다른 나라의 작품과 비교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가치 판단해 보자.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높이 83.2cm/6세기 후반 작/삼국 시대 의자 위에 앉아 오른발을 왼쪽 다리 위에 올려 놓고, 오른쪽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린 채 손가락을 뺨에 댄 모습의 보살상으로 높이는 80㎝이다. 머리에는 화려한 관(冠)을 쓰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온 2가닥의 장식은 좌우로 어깨까지 늘어져 있다. 네모꼴에 가까운 얼굴은 풍만한 느낌을 주며, 광대뼈를 나오게 하고 입가를 들어가게 하여 미소 띤 얼굴을 만들었다. 상체는 당당하면서도 곧고 늘씬한 모습이며, 하체에서는 우아한 곡선미를 느낄 수 있다. 늘씬한 팔이나 체구에 비해서 손이나 발은 상대적으로 큼직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탄력이 있고 매끄러우며 부드럽고 율동적이어서 보살상의 우아한 모습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목 뒤로 돌아 양 어깨를 감싼 천의(天衣)는 새의 깃털처럼 치켜 올라갔다가 다시 가슴쪽으로 흘려내려 왼쪽 다리에서 교차한 다음, 양 무릎을 지나 두 팔을 감아 내렸다. 하체에 입은 치마는 다소 두툼해 보이는데 U자형 주름이 능숙하게 새겨져 있다. 왼발을 올려 놓은 타원형의 대좌(臺座)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머리 뒷부분에 흔적만 있을 뿐 광배(光背)는 없어진 상태이다.

• 작품이 제작된 시기와 사용된 재료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 작품에 나타난 미적 요소와 표현 의도를 알아보자.
• 작품의 종교 · 문화 · 사회 ·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 작품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의와 가치를 판단해 보자.

좋은 비평문을 쓰는 방법

• 작품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서술한다.
•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잘 전달되도록 서술한다.
• 작품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품의 가치 판단 이유와 의견을 서술한다.
• 주제에 맞는 흥미롭고 재치 있는 제목을 정한다.

112

김홍도(조선/1745~?) 나룻배종이에 담채/27×22.7cm/18세기 작 강을 건너는 나룻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일부의 배는 조금 크게 위쪽의 배는 조금 작게 표현하여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나타난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기 다른 표정과 몸짓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되었다. 이처럼 치세와 멀어 있는 선비, 휴식과 초점 생각을 준 남자, 어린아이를 업은 어린 부녀자 등에 대한 무언가 떠오르는 이야기들 등을 볼 수 있다. 사실적으로 표현된 서민들의 모습과 표정은 당시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 준다.

나룻배

3하년 3반 임희준

들려주오
나룻배에 실려
흘려가는 이야기들을
어디론가 향해
흘려가는 이야기들을

지나가는 나룻배
이곳에 잠시 묶어 두었으니
들려주오
발고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를

실어간 건
내 흘려가는 것
걸음을 멈추어도 흘려가는 것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우리 선조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기에, 우리 전통 미술에서도 감상과 비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많은 선비가 미술 작품의 감상과 비평을 즐겨 하였다.

제발은 작품에 직접 적은 글로, 그림이나 글씨의 앞뒤에 그 유래나 찬사, 감상문, 비평 등을 적은 것을 말한다. 비평의 형식은 시로 표현하는 방법과 글로 표현하는 화제, 편지 등이 있다. 제발은 단순한 글의 의미가 아니라 회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문학, 서예가 하나로 결합된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훌륭한 제발은 그림의 미적 가치나 내용을 보충하며,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 예술관을 표현할 수 있다. 작품의 일부분으로서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113

교과서 속 작품 해설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높이 83.2cm/6세기 후반 작/ 삼국 시대)

의자 위에 앉아 오른발을 왼쪽다리 위에 올려 놓고, 오른쪽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린 채 손가락을 뺨에 댄 모습의 보살상으로 높이는 80㎝이다.

머리에는 화려한 관(冠)을 쓰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온 2가닥의 장식은 좌우로 어깨까지 늘어져 있다. 네모꼴에 가까운 얼굴은 풍만한 느낌을 주며, 광대뼈를 나오게 하고 입가를 들어가게 하여 미소 띤 얼굴을 만들었다. 상체는 당당하면서도 곧고 늘씬한 모습이며, 하체에서는 우아한 곡선미를 느낄 수 있다. 늘씬한 팔이나 체구에 비해서 손이나 발은 상대적으로 큼직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탄력이 있고 매끄러우며 부드럽고 율동적이어서 보살상의 우아한 모습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목 뒤로 돌아 양 어깨를 감싼 천의(天衣)는 새의 깃털처럼 치켜 올라갔다가 다시 가슴쪽으로 흘려내려 왼쪽 다리에서 교차한 다음, 양 무릎을 지나 두 팔을 감아 내렸다. 하체에 입은 치마는 다소 두툼해 보이는데 U자형 주름이 능숙하게 새겨져 있다. 왼발을 올려 놓은 타원형의 대좌(臺座)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머리 뒷부분에 흔적만 있을 뿐 광배(光背)는 없어진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자세, 아름다운 옷주름, 명상에 잠긴 듯한 오묘한 얼굴 등으로 보아 한국적 보살상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6세기 중엽이나 그 직후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김홍도(조선/1745~1806, 화원 출신) 나룻배(종이에 담채/27×22.7cm/18세기 작)

강을 건너는 나룻배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배 안에는 선비부터 아낙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뿐 아니라 소와 말 등도 가득 실려 있다. 앞서 가는 배와 약간 뒤쳐져 가는 배의 각도를 약간 다르게 하여 두 배의 구성을 매우 감각적으로 그려 냈다.

참고 자료

•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1912년에 일본인이 입수하여 조선총독부에 기증했던 것을 1916년 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 놓았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1963년 방사선 투과법으로 촬영한 결과 내부의 결함이나 고친 흔적이 없으며, 재질이나 만든 기법이 매우 특이함이 밝혀졌다.

김홍도(조선/1745~1806)

김홍도는 독창적 시각과 서양에서 들어온 기법을 도입하여 조선 후기 화단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 화가이며 문예 부흥기인 정조 시대 활약한 화가로 경제의 진경산수, 공재와 관아재의 속화, 현재와 능호관의 문인화를 모두 소화하며 새로운 형식을 창출하였다.

김홍도는 산수화 • 인물화 • 신선화 • 불화 • 풍속화 등 그림 전반에 뛰어났고, 그 중에서도 산수화와 풍속화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산수화는 사실 묘사와 조국애가 어우러져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시켰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서당도, 대장간도, 씨름도, 타작도 등이 있다. 풍속화는 지녀야 할 기록성과 사실성은 물론 창의성과 해학성을 곁들이며 속되게 느낄 수 있는 풍속화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한국적 풍속 인물화를 개척하였다.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며 서민 사회의 생활 정서와 생활 모습을 사회 풍자를 곁들여 익살스럽고 구수하게 표현하였다. 자세한 배경을 생략하고 인물 감정을 주변 환경과 연결시켜 대담하고 솔직하게 표현하였으며 특유의 원형 구도를 활용하여 집중적, 역동적 화면을 구성하였다.

그의 작품은 김득신, 신윤복 등 후배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타작도

보 충 자 료

● 전통 미술 감상과 비평

전통 미술은 우리 민족 전통으로서의 특수성, 즉 한국미로 불려지는 미의식과 독특한 우리만의 표현 특성, 그리고 이에 따른 역사성의 계승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 미술 감상은 일반적인 '미술 감상' 이외에 전통적인 가치관과 역사, 문화, 예술을 느끼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전통 미술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우리 것을 토대로 세계 다른 민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전통 미술의 가장 큰 특성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식들이 암호처럼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화의 '어항 안의 물고기'는 대부분 '쏘가리'라는 못생긴 물고기로 항상 그려져 있다. 이는 '쏘가리'가 궁궐을 의미하는 궐과 음이 같은 한자인 궐이라고 쓰여서 당시 과거에 급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림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통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가운데에 이러한 표식들을 찾고, 이를 통해 미술사적인 이해를 높여감으로써 전통 미술 문화를 계승 ·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활 동 자 료

● 전통 미술 작품을 감상과 제발 표현 활동

① 각자 원하는 전통 미술 작품을 선택한다.
② 작품의 경향과 표현의 주된 내용, 느낀 점 등을 토대로 제발을 구상 및 제작한다.
③ ppt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제발을 발표한다(5분 이내).
④ 발표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고 총평한다.

● 제발

① 개념: 작품에 직접 적은 글로 그림이나 글씨의 앞뒤에 그 유래나 찬사, 감상문, 비평 등을 적은 것이다.
② 의의: 단순한 글의 의미가 아니라 회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문학, 서예가 하나로 결합된 예술 작품이다.
작품의 일부분으로서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생각과 탐구 | 감상 비평문

감상과 비평의 단계에 맞추어 감상 비평문을 작성해 보자.

서술

분석

해석

평가

〈올덴버그의 세계를 보다〉

1학년 0반 김소은

아와에 거대한 석들의 단단한 스테인리스의 재질로 제작되었다. 환색과 빨간색이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원래 석들의 가진 성질과 목적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올덴버그는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전혀 다른 장소에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평소 하찮게 여기는 사물들도 다른 시각과 생각으로 바라보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새롭게 다가온다.

정의
- 작품의 감상과 비평은 서술, 분석, 해석, 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 작품의 감상과 비평은 미적 안목을 기르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이다.

평가
1. 감상 관점과 비평의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하였는가?
2. 감상의 단계를 이해하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였는가?

114

일러

1 문자도(종이에 채색/48×29.2cm/19세기 작/조선) 문자도는 인생의 한 종류로 한평의 글자 획에 그 의미를 형상화한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다. 글자의 의미와 관계가 있는 고사나 설화 등의 내용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지워 속에 그려 넣어 서체로 구성한다.

2 배추(Moda, Willem Claesz/네덜란드/1594~1658) 은 숨은의 있는 정물화(캔버스에 유채/55×45cm/1637년 작) 화면 속에 놓인 온 그릇, 반쯤 있는 유리잔, 병과 과일 등이 어우러진 정물화는 당시 네덜란드 시민들이 사용했던 식기와 음식 먹는 문화이 묻어나는 소중한 생활상에 보여 준다. 이러한 그림은 부유시시 그림이라 하여 17세기 초부터 네덜란드 회화의 사용계 등장해 유행하였다. 식사 후 남은 것들을 그린 이 작품에는 식탁 이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릇과 먹다 남은 파이, 껍질 등이 보인다. 시물들의 사실적인 묘사와 빛과 질감의 섬세한 표현 하에는 일시적인 것 곧 사라질 것에 대한 무상함을 일시키는 문무가 숨겨져 있다. 이것은 바니타스(Vanitas)가 하여 인생의 덧없음을 의미한다.

은유와 상징의 표현

미술 작품 속에 그려진 사물들은 때로는 그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시대의 문화, 역사적 배경에 따라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 상징과 은유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사물이 상징하는 뜻을 알고 작품을 감상하면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상징과 은유는 종교, 신화, 역사, 전설 등을 배경으로 특정한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인물이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면서 작품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서양의 회화에서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관련된 상징이 다양하게 등장하였고 많은 작품의 주제가 되었다. 17세기 복유럽에서는 정물화를 상징과 은유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인생의 덧없음이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민화에서 상징과 은유의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문자도이다.

문자도는 글자의 의미와 관계가 있는 고사나 설화 등의 내용에 등장하는 상징물을 자획 속에 그려 넣어 서체를 구성하는 그림으로 대부분 병풍 그림으로 그려졌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러 민화와 함께 널리 유행한 그림의 형식이다. 민간에서는 꽃 글씨라고도 하였으며, 한자 문화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조형 예술로서 한자의 의미와 조형성을 함께 드러내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림이다.

민화에 등장하는 문자도에는 유교적 윤리관과 삼강오륜 사상이 반영된 효(孝)·제(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 등 여덟 글자를 그린 그림, 용(龍)·호(虎)·구(龜) 등의 글자를 이용하여 충효·복·장수를 기원한 그림, 부귀·수복장생 등의 길상 문자도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구름과 용으로 꾸민 운룡문자도와 비람과 호랑이로 꾸민 풍호문자도, 용·잉어·새우·대합 등으로 꾸며 어변성룡과 하합상하의 뜻을 나타낸 충자도 등이 있다. 문자도에 등장하는 사물들은 의미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계는 장원 급제와 출세를, 국화는 고상함과 높은 절개, 핑은 길상, 목련은 고고한 선비, 봉황은 고귀함, 소나무는 지조와 장수, 절개를 의미했으며, 연꽃은 고고함과 번영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문자도는 주로 각종 생활용품의 문양으로 사용되었는데, 부엌과 안방에 많이 쓰여 생명과 생활에 꼭 필요한 글자로 인식하였다.

문자도는 궁중의 장식 문양뿐만 아니라 불교나 도교의 장식 문양과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문양들을 회화적인 차원으로 끌어 올려 당대 회화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탐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은유와 상징이 나타난 사례를 찾아 그 의미와 활용을 알아보자.

115

교과서 속 작품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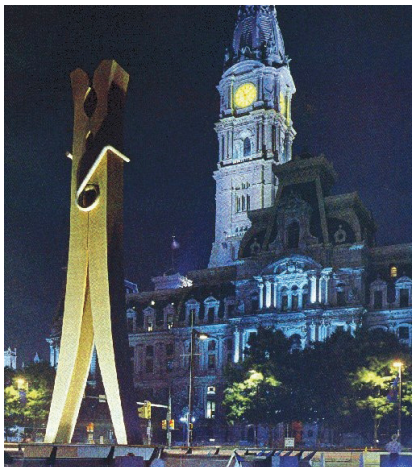
올덴버그(Oldenburg, Claes/스웨덴→미국/1929~) 셔틀콕(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높이 9m/1994년 작)

올덴버그의 작품은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고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변형시키는 오브제를 보여 주며, 관객과 일상적 환경 속에서 전개하는 일련의 충격적인 작품을 시도하였다. 셔틀콕의 작품도 일상적인 셔틀콕을 소재를 확대하여 만들었다. 이것을 통해 감상자들은 넓은 자연을 배경으로 큰 작품으로 볼 수 있고, 작품을 캔버스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배경이 줄어든 묘한 느낌을 받는다.

작가 탐구

올덴버그

다른 팝 아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올덴버그는 조각의 시각적인 효과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그 효과를 위해 오브제의 크기를 대담하게 확대한다. 초대형 빨래집게, 드라이버, 콘센트, 꽃삽, 시카고의 유명 야구단을 위해 건립한 대형 철제 야구방망이 등 공공 조각뿐 아니라 초대형 소프트 조각 '자이언트 햄버거'에 이르기까지, 그가 다루는 대상은 우리 삶의 일상에서 늘 보고, 먹고, 쓰는 오브제들이다. 그러나 크기의 변조에 의해 그것들은 더 이상 일상용품이 아닌 추상 조각이 된다. 올덴버그는 셔틀콕 작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셔츠, 햄버거, 치약, 변기 등과 같은 일상적인 오브제에게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하나하나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단조로운 일상적인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상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을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전환시킨 작품이다.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목적을 변화시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준다.



빨래집게

활 동 자 료

● 감상 비평문 작성하기

비평단계에 맞추어 감상 비평문 작성하기
① 감상 비평문 양식을 토대로 하여 모둠별로 원하는 작품 을 선정한다.
② 서술 → 분석 → 해석 → 평가 단계 순서에 입각하여 감상 비평문을 토론하여 작성한다.
③ 모둠별로 완성한 감상 비평문을 발표한다.
④ 발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보 충 자 료

● 감상비평문 예시 답안



이중섭 〈황소〉

(1) 서술 단계

① 이 작품은 무엇을 표현하였는가.
– 황소를 주제로 표현하였다.

(2) 분석 단계

① 사용한 재료와 용구는 무엇이고,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표현 재료와 용구, 기법)
– 유화 물감을 두텁게 발라 올렸다. 임파스토 기법이다.

② 사실적인 형태인가, 비사실적인 형태인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양식)
– 황소의 형태를 음영을 배제한 거친 선과 단색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

③ 작품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조형 요소와 원리는 무엇인가? (조형 요소와 원리)
– 거친 선, 강한 색채 대비, 금방이라도 달려 나갈 것 같은 황소의 동세에서 강한 생동감이 느껴진다.

(3) 해석 단계

① 작품에 나타난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는 어떠한가?
– 강하고 힘이 있다. 에너지가 느껴진다.

② 작품이 제작된 시대적 배경이나 개인적 배경은 어떠한가?
– 1950년대 초의 전후 피폐한 사회적 환경에서 제작되었다. 작가 역시 부두 등에서 가난한 노동자로 생활하며 이 작품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그런 배경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작가가 나타내려고 한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작가는 강한 선과 거친 질감, 색채의 대비, 소의 달려 나가려는 모습 등으로 인해 이 작품에서 강한 힘과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어렵고 피폐한 당시의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려는 우리 민족의 강한 심성과 화가로서의 꿋꿋한 자존을 상징하는 것 같다

(4) 판단 단계

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작품을 평가할 것인가?
– 숙련된 기술의 표현 정도, 주제의 효과적 표현 정도, 미술사적 가치, 사회 · 문화적 가치

② 이 작품의 미술사적 의의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미적 가치는 어떠한가.
– 작가 내면의 감성과 에너지를 단순화된 형과 색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소를 통해 서양 야수파적 기법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표현한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충분히 미적으로, 그리고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 감상 비평문 제시 발문

(1) 서술 단계 : 설명, 기술, 묘사

① 작품 속에 무엇이 표현되어져 있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② 작품의 주제(소재)는 무엇인가?
③ 재료, 색상 등은 무엇인가?

(2) 분석 단계

①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② 작품의 주된 조형 요소와 원리는 무엇인가?
③ 형태, 크기, 질감, 색상, 공간, 부피는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④ 화면의 전체적 짜임과 구성은 어떠한가?

(3) 해석 단계

①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② 작가가 의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③ 각 대상의 상징은 무엇인가?
④ 작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 판단 단계

① 이 작품의 가치는 무엇인가?
② 이 작품의 미술적 의의는 무엇인가?
③ 이 작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④ 이 작품이 마음에 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⑤ 이 작품은 미술적 양식의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유와 상징의 표현

읽기 자료

은유와 상징은 동양과 서양의 미술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화는 사물을 통해 그리는 이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상징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을 통해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방법에는 동물, 사물에 그 의미를 빗대어 표현하는 우화적인 방법,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음이 같은 사물에 대해 말하는 동음이자의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화에서 바위, 소나무, 학 등은 장수를 모란꽃은 부귀영화를 잉어는 벼슬을 의미하여, 이러한 상징성을 담아 우리 조상은 기원, 축수, 교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문자도

민화의 한 종류로 글자와 그림을 함께 풀어 쓴 것이다. 글자의 의미와 관계가 있는 고사 등의 내용을 자획 속에 그려 넣어 서체를 구성하는 그림으로 수, 복 자를 도식화한 수복도와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를 도식화한 효제도는 교화용으로 제작되어 주로 어린이 방을 장식하였다. 문자도는 궁중의 장식 문양뿐만 아니라 불교나 도교의 장식 문양과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문양들을 회화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 당대 회화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제작 기법으로는 붓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가죽붓을 재빨리 구사하는 혁필화 기법, 인두를 불에 지져서 그리는 낙화 기법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회화성이 강조되기도 했는데 글자의 의미보다 도안적인 장식성에 치중하여 때로 문자의 형태가 무시된 상태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문자도의 생산은 계속되며 사회 변화에 따라 혁필화로 형식이 변화되어 이어지고 있다.

은 술잔이 있는 정물화(헤더)

상징적인 의미 전달을 목적으로 그린 바니타스이다. 단색조의 연회용 식탁으로 통칭되는 장르를 그린 대표 작가인 헤다의 작품으로 유리잔과 뚜껑이 열린 시계는 인생의 허망함과 흐르는 시간의 덧없음을 의미한다. 162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이런 종류의 정물화는 단색조의 회색과 갈색으로 그려졌다. 전형적인 연회용 식탁 그림에는 온갖 종류의 음식들뿐만 아니라 화려한 사물들로 꾸민, 풍부하게 차려진 식탁이 포함된다. 이 그림에서처럼 손님들이 방금 떠난 듯이 뒤집힌 유리잔들이나 먹다 남거나 잘린 채로 흩어져 있는 음식들이 묘사되어 있을 때도 있다. 그림을 더욱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정물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이 그려진 하를렘은 17세기 초 네덜란드 회화 발전에 있어 중심이 된 도시였고, '가장 네덜란드적'인 화풍을 자랑하는 작가들이 절제를 중시하는 가치를 작품 속에서 많이 반영했다. 이 작품에 그려진 식탁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릇과 먹다 남은 파이, 땅콩 등은 무언가로 인해 갑자기 식사를 멈춰야 했던 장면을 보여 줌으로써 인생무상, 곧 사라질 것에 대한 무상함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충 자료

- **정물에 담긴 의미와 상징**

  동 · 서양에서는 정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그렸으며,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나, 좋은 말을 전하기 위한 의미로 선물하기도 하였다.

- **민화에 담긴 정물의 상징성**

  민화는 민중의 생활 양식과 미적 정서 등이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며, 주로 집안을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졌다. 자유롭고 독창적이며 자주적인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시대 말 궁중과 사대부 그리고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존재했던 그림이다. 민화의 특징으로는 소재의 다양함, 소박한 형태, 대담한 구성, 현란한 색채 등이 있다.

  민화에 그려진 소재에는 부귀와 장수를 비는 마음과 악귀를 막거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다. 이처럼 민화는 생활 공간의 장식과 함께 정물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용하여 독창적인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 문자도: 글자와 그림
· 어해도: 출산과 다산을 상징
· 모란도: 부귀와 장수를 상징
· 책거리도: 출세와 학문을 상징
· 십장생도: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를 그린 그림으로, 장수를 상징



헤다(Heda, Willem Claesz/네덜란드/1594~1680) **은 술잔이 있는 정물화**(캔버스에 유채/55×45cm/1637년 작)



동양미술의 흐름

교과서 pp.116~119

● 단원 설정의 이유

우리나라 문화권이 속해 있는 동양 미술은 중국과 인도 문화가 중심이 되어 왔으며, 각 나라별로 특색 있게 발달하였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 미술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까지 전파되었으며 중국의 회화와 도자기는 서양의 미술 문화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동양 미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동양 미술의 이해와 감상 활동을 통해 미술 문화 교류의 역사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표현 활동으로는 동양과 서양의 미술의 특징이 어우러진 작품을 제작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동양과 서양의 미술 문화의 교류를 통한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하며 비평적 사고 능력을 기르게 된다.

● 학습 목표

이해	동양의 국가 · 시대별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표현	동양 미술과 서양 미술의 특징이 조화를 이룬 작품을 제작한다.
감상	동양 미술 문화 교류의 역사를 탐구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단원	미술의 감상 – 판단과 활용	**차시**	①②③❹⑤⑥⑧
학습 주제	동양의 국가 · 시대별 미술의 특징을 알고 그 가치를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교과서, 활동지, 필기도구, 도화지, 각종 채색 도구 등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지필 평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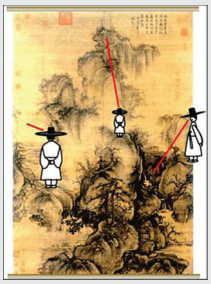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참고 작품을 제시해 동양 미술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 동양 미술의 배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감상한다. – 작품 감상과 교사의 설명을 통해 동양의 국가 · 시대별 미술의 흐름을 정리하며 이해한다.	· 각 국가의 특징과 흐름을 작품 감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개	◎ 동양 미술 문화 교류의 역사 탐구하기 – 동양의 미술 문화가 교류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이해한다. – 동양 각국의 미술이 어떻게 교류되었는지 탐구해 본다. – 동양 미술 문화 교류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 **학습 활동** ⊙ **동양과 서양 미술의 특징 어우러진 작품 만들기** – 서양 미술의 주요 작품을 동양 미술의 특징을 가미해 표현한다. – 동양 미술의 주요 작품을 서양 미술의 특징을 가미해 표현한다. – 동양과 서양 미술의 특징이 어우러진 작품을 개성을 담아 제작한다.	· 중국과 일본과 인도 미술의 교류의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동양과 서양의 특징이 조화를 이룬 예시작품을 제공한다.
정리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완성된 작품에 나타난 특징과 제작의도 등을 개인별로 발표한다. – 동양과 서양 미술의 특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토론한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타인의 의견 및 작품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평가 관점	• 동양 미술의 특징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의의와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 • 동양 미술과 서양 미술의 특징이 조화를 이룬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 동양 미술 문화 교류의 역사를 설명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보충 자료

● **동양의 원근법 – 삼원법**

중국 북송 때의 대표적인 화가인 곽희는 그의 저서 '임천고치'에서 구도 포착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는 산수화를 구성하는 고원, 심원, 평원의 삼원이다. 그의 대표작인 조춘도에는 이 세가지 원근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왼쪽의 선비는 평원, 가운데 선비는 고원, 오른쪽 선비는 심원법으로 산수를 바라보고 있다.

고원법	산아래에서 산꼭대기를 올려다보는 시점 →산의 높이 강조 / 청명한 느낌
심원법	앞쪽의 산봉우리에서 뒤를 내려다보는 시점 →산의 깊이 강조 / 무겁고 어두운 느낌
평원법	산 위에 올라 멀리 있는 산 바라보는 시점 →넓이 강조 / 밝고 어두움의 조화



조춘도(비단에 수묵 담채/158.3×108.1cm/1072년 작) **곽희**(郭熙/1020?~1090?/북송)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만리장성

시황제에 의해 최초로 중국 전체가 통일된 국가를 이루었던 진나라에서 건축을 시작하여 17세기에 완성된 건축물이다. 만리장성의 길이는 1만 여리에 해당하는 4,050㎞에 달한다. 당시 서역과 왕래가 시작되어 받은 영향인 아치형 축조양식에서 동·서양의 문화교류의 흔적 찾아볼 수 있다.

울부짖는 낙타상

당나라의 당삼채 양식으로 제작된 도자기로 당삼채는 세가지 색깔의 유약으로 장식하며 800~900℃에서 굽는 연질 도자기이다. 실용성은 없으나 장식성이 뛰어난 당삼채 기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낙타의 울부짖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나타냈으며 색채 표현과 유약의 사용이 매우 조화롭다.

작화추색도

원나라의 대표적인 서화가인 조맹부가 북경에서 10년간 관직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주밀의 고향인 상동성에 있는 작산과 화산을 가본 후 그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 작품에서 오랫동안 잊혀져왔던 오대 북송시대 동원과 거연의 양식을 부활시켰다. 사물의 외형에서 비롯하는 사실성 보다는 화면에 펼쳐지는 필선의 조형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문인화의 기본 정신을 잘 드러내 준다.

자금성

명, 청 시대에 축조된 세계 최대 규모의 궁월이다. 자색은 기쁨과 행복을 담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자 하늘의 궁전이 있는 곳인 북극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사방에 문이 있으며 남문이 천안문이고, 현재는 고궁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아수라상

인도의 옛 신화에 나오는 아수라를 표현한 것으로 아수라는 불교에서 8종 신장 중의 하나로 머리가 셋이고 팔이 여섯이라고 한다. 일본에 전해져 오는 다른 아수라상들에 비해 호리호리하면서도 근육 표현이 억제된 유연한 몸매와 섬세한 얼굴 감정 표현 등이 사실적이면서도 이색적이다.

불타는 후지산(가쓰시카 호쿠사이)

가쓰시카 호쿠사이는 서양화의 음영법과 원근법을 도입한 후기 우키요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다소 과장되지만 힘이 넘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은 대담한 화면 구성과 상징적으로 표현된 색채와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호반(구로다 세이키)

서양의 문물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메이지 시대에 프랑스에서 공부하며 인상주의 양식을 절충한 화풍을 선보인 구로다 세이키의 작품이다. 당시 화단에 서양 화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인물이며, 서양화의 재료인 캔버스와 유화 물감으로 일본 전통 복장을 한 여성을 표현해 동·서양의 조화가 두드러진다.

산치대탑

기원전 3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현존하는 불탑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우리나라 불탑 양식과 달리 거대한 봉분형의 무덤 양식에 가깝다.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무덤인 이러한 불탑은 중국을 거쳐 오면서 지금의 형태도 변화하였다.

앙코르와트

12세기 크메르 왕국의 전성기에 건설된 힌두교 사원으로 길이가 5.4㎞에 이른다. 중심사원은 3중의 회랑과 높이 65m의 중앙 철탑과 크고 작은 탑과 수많은 조각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좌우대칭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원의 양쪽 벽면에는 힌두교 신화와 역사적 장면 등이 조각되어 있다.

참고 자료

● **간다라 불상과 마투라 불상**

작품 사진		
영향	인도 북서부 지역(헬레니즘 문화권)	인도 중심부 지역(인도 토속 종교 영향권)
특징	청흑색 편암을 주재료로 이지적인 이미지	연분홍색 석재로 관능적이며 육감적인 표현
신체	곱슬머리의 갸름한 얼굴과 얇은 입술	직모로 덮인 둥근 얼굴, 도톰한 입술
의상	얇은 천을 두르고 있음.	상의를 벗고 있음.



일본 미술

일본 미술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았으나 삼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고유의 민족 문화 전통이 유지되어 중국이나 우리나라와는 다른 일본만의 미술 세계를 형성했다.

조몬 시대, 야요이, 고훈 시대에는 고분 벽화와 다양한 토우, 토기가 만들어 졌으며, 아스카, 나라 시대에는 고구려, 백제를 통해 불교가 유입되어 화려한 불교 미술품이 많이 제작되었다.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로 호류사가 있다.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에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불교 미술이 발달하였고, 중국의 영향으로 수묵화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와 에도 시대에는 일본 회화의 독자적인 양식으로서, 화려한 색채와 기교적인 화면 처리, 장식적인 효과를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기법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특히, 에도 시대에는 경제가 발전하며 다양한 회화 양식이 탄생하였고, 이때 발달한 우키요에는 서양의 인상주의 미술의 색채와 구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색적인 문화를 선보였다.

아수라상(건칠 채색/높이 153.4cm/나라 시대)

가쓰시카 호쿠사이(겐페이선함/에도/1760~1849)
붉은 후지 산(채색 목판화/26×38.1cm/1830년대 작)

구로다 세이키(쿠로다 청화/메이지/1866~1924)
호반(캔버스에 유채/60×84.7cm/1897년 작)

인도 미술

인도는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인도의 전통문화인 오리엔트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미술 양식이 발달했다. 인더스 강 유역에서 발달한 인도의 문명은 기원전 5~6세기에 불교 미술이 시작된 곳으로 건축, 회화, 조각 등 미술의 대부분이 불교와 연관되어 있다.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이 세운 산치 대탑과 쿠산 왕조 시대에 그리스의 헬레니즘 양식과 인도의 불교 양식이 융합되어 만들어 진 간다라 불상이 대표적인 유물이다. 또한 인도 미술의 황금기인 굽타 왕조 시대에는 아잔타 석굴이 조성되었으며, 이어 무굴 왕조 시대에는 힌두교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과 조각품이 많이 나왔다. 특히, 17세기에 축조된 '타지마할'은 굴평미와 장식성이 뛰어나다.

산치 대탑(돌/높이 16.5m/기원전 5세기경 착/인도/유네스코 등재)

앙코르 와트(석조 건물/외벽 길이 총 5.9km/12세기경 착/캄보디아)

간다라 불상(편암/높이 120.5cm/1세기경 착/쿠샨 왕조)

동남아시아 미술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이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인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불교와 힌두교 등의 종교 미술이 토착화되며 발달하였다.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di Urbino/이탈리아/1483~1520)
아테네 학당(프레스코/500×700cm/1510~1511년 작)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 van Rijn/네덜란드/1606~1669) 야경(캔버스에 유채/363×437cm/1642년 작)

바토(Watteau, Jean-Antoine/프랑스/1684~1721) 베네치아풍의 연회(캔버스에 유채/56×46cm/1717년 작)

들라크루아(Delacroix, Ferdinand Victor Eugène/프랑스/1798~1863)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캔버스에 유채/260×325cm/1830년)

터너(Turner, Joseph Mallord William/영국/1775~1851) 노예선(캔버스에 유채/90.8×122.6cm/1840년 작)

쿠르베(Courbet, Jean Désiré Gustave/프랑스/1819~1877) 주르베 씨, 안녕하세요?(캔버스에 유채/129×149cm/1854년 작)

르네상스 미술

재생·부흥을 뜻하는 르네상스 미술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중심주의를 회복하고자 일어난 문예 부흥 운동이다.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중시한 시기에서 유화와 원근법, 명암 대조법이 발명되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있으며, 성 베드로 성당이 대표 건축물이다.

바로크 미술

종교 개혁으로 교회의 권위가 약해지고 절대 왕권이 지배했던 17세기 바로크 미술은 역동적이며 화려하고 과장된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 작가로는 루벤스, 렘라스케스, 베르니니, 렘브란트 등이 있으며, 대표 건축물로 베르사유 궁전이 있다.

로코코 미술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귀족 취향의 우아하고 화려한 장식적인 미술이다. 대표 작가로 바토, 프라고나르, 샤르댕 등이 있다.

신고전주의 미술

그리스와 르네상스풍의 이상화된 인체 비례와 안정된 구도, 형식미 등을 추구한 시기이다. 고전미를 중시해 회화와 건축에서 엄격한 비례와 선, 형식 등을 강조했고, 대표 작가로 다비드, 앵그르 등이 있다.

낭만주의 미술

이성을 중시했던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미술로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을 강렬한 색채와 동적인 구도로 표현하였다. 대표적인 작가로 제리코, 들라크루아 등이 있다.

자연주의 미술

자연의 아름다움과 전원 생활의 소박함을 표현한 작품이 많다. 자연 속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 노동의 숭고함을 표현한 밀레와 사실 풍경을 정겹게 표현한 컨스터블, 상징적인 풍경 표현의 터너가 대표적 작가이다.

사실주의 미술

현실적인 사회의 모습과 평범한 일상을 표현하여 미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 작가로 쿠르베, 도미에 등이 있다.

인상주의 미술

빛과 함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색채의 미묘한 차이가 주는 인상을 강조해 표현하였다. 작은 점의 순수한 색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주로 야외에서 풍경을 그렸으며, 모네, 마네, 르누아르 등이 유명하다.

서양미술의 흐름

교과서 pp.116~119

● 단원 설정의 이유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이 미술은 세계 공통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은 여러 문화권에서 다른 방식으로 변천하며 발전해 왔다. 다양한 문화권의 미술 중 서양 미술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양 미술의 흐름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미술과의 모든 영역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단원에서는 먼저 서양 미술의 시대별·양식별 특징을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양미술의 양식과 표현 기법을 익혀 표현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서양 미술을 분석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 학습 목표

이해	서양 미술의 시대별·양식별 특징을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한다.
표현	서양 미술의 양식과 표현 기법을 익힌 후 자신의 개성을 살려 표현한다.
감상	서양 미술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분석하며 감상하고 비평한다.

단원	미술의 감상 – 판단과 활용	**차시**	①②③❹⑤⑥⑧
학습 주제	서양미술의 시대·양식별 특징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교과서, 활동지, 필기도구, 도화지, 각종 채색 도구 등		
수업 모형	이해·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지필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참고 작품을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시해 서양 미술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 시대·양식·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서양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 서양 미술의 시대·양식·주제별 특징을 작품 감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개	◎ 양식별 제작 과정 이해하기 – 미술 양식의 의미와 종류를 이해한다. – 서양 미술의 양식별 제작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는 영상 자료를 감상한다. – 서로 다른 양식의 대표적 작품들을 비교하며 표현 기법을 이해한다. ⊙ 학습 활동 ⊙ 명화를 재해석하여 작품 만들기 – 작품에 나타난 미적 요소와 표현 의도를 분석한다. – 작품의 제작 시기와 종교·문화·사회·시대적 배경을 조사한다. – 명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개성을 살려 작품을 제작해 본다.	· 서양 미술의 양식별 표현 특징과 기법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명화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정리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자신의 작품의 제작 의도와 디자인적 특징 등을 개인별로 발표한다. – 목적에 맞게 제작되었고, 민화가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타인의 의견 및 작품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평가 관점	• 서양 미술의 시대별·양식별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서양 미술의 양식과 표현 기법을 활용해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 서양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사회·문화적 배경을 분석하며 비평할 수 있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발렌도르프의 비너스

역사상 최초의 인간상으로 커다란 가슴과 튀어나온 배, 간략하게 표현된 둥근 머리를 보면 특정 인물에 대한 여인상이라기보다 둥근 덩어리 같은 느낌이다. 이 조각상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스코 동굴 벽화

최초의 '회화'라 할 수 있으며, 사냥의 성공을 축원하는 의미로 인적이 드물고 어두컴컴한 동굴 깊은 곳에 동물을 석탄과 안료를 사용해 그렸다.

라호테포-네페르트 상

이집트 시대의 엄격한 규칙에 따른 남자와 여자의 좌상으로 왕자는 아내에 비해 어두운 빛깔로 채색되어 있다. 석회암으로 만든 이 조각상의 눈에는 광택이 나는 돌이 끼워져 있고, 당시 초상 조각들이 그러하듯이 정적이고 수동적이다.

라오콘 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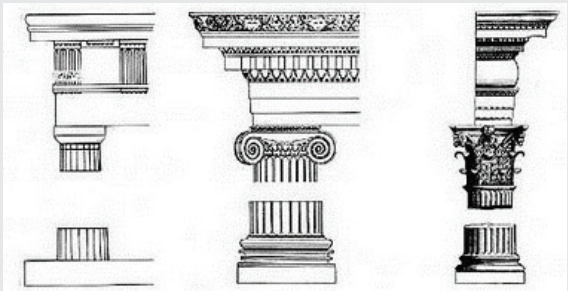
그리스로마 신화에 자주 나오는 형태로 올림포스 신들이 무력한 인간들에게 행하는 무정하고 잔인한 이야기 중의 하나다. 가망 없는 싸움으로 고통 받는 몸, 두 팔의 근육에서 느껴지는 힘든 노력, 얼굴에 새겨진 끔찍한 표정의 사제와 두 소년의 몸부림이 모든 움직임을 하나의 군상으로 응결시키는 수법이 오랜 세월 동안 찬탄을 불러 일으켰다.

콜로세움

로마 시민의 오락을 위해 건축된 거대한 원형 경기장으로 현대 스포츠 스타디움의 모델이다. 탄산석회 벽돌,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건축했으며 외부에서 보면 반원주가 받쳐 주는 아치문을 반복 사용해 통일감을 조성했다. 기둥 양식은 1층에는 도리아, 2층에는 이오니아, 3층은 코린트 양식을, 4층에는 코린트 양식의 납작 기둥을 사용해 단조로움을 피했다.

보충 자료

- **그리스 · 로마 건축 기둥 양식**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

샤르트르 대성당

전성기 고딕 양식의 전형을 보여 주는 성당으로 천장이 높고, 부연부벽으로 기법을 활용해 벽이 얇아진 덕분에 제작된 스테인드글라스의 빛의 효과가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보충 자료

- **장미창**

고딕 건축 양식의 특징 중 하나인 장미꽃 모양의 스테인드글라스로 덮힌 둥근 창이다. 수천 개의 작은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직경이 10m 이상된다. 노트르담 성당과 샤르트르 성당의 장미창이 유명하며,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어 고딕 건축의 높은 기술력을 잘 나타내 준다.



아테네 학당(라파엘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개인 도서실 벽에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그린 인물 초상화와 건축·조각이 과학적인 원근법을 통해 유기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는 걸작이다.

참고 자료

- **르네상스 시대에 발견된 원근법의 활용**



뒤러(Dürer, Albrecht/독일/1471~1528)
원근법적 모사를 도와주는 격자틀 (목판/7.5×21.5cm/1525년2 작)

야경(렘브란트)

렘브란트 초기 회화의 대표작으로 바로크적인 빛과 구도, 색채 기술의 절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은 중앙에 있는 대장이 부대원들에게 행진 명령을 내리는 순간을 담은 대낮의 장면으로 인물들 간의 감정의 교류가 잘 나타나 있다.

베네치아 풍의 연회(바토)

18세기 초의 로코코 미술의 특성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화려한 옷에 아름답고 세련된 교양 있는 젊은 남녀들의 사랑과 취미생활을 잘 나타내고 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들라크루아)

밀로의 비너스를 모델로 하여 자유를 상징하는 여인 잔 다르크와 그를 따르는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 혁명의 대열을 나타냈다. 전쟁 영웅들과 군인들의 모습을 음산하면서도 과장된 느낌으로 표현해 비극적인 낭만파 그림의 정수를 집약했다.

노예선(터너)

평생 동안 바다와 강과 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정열적으로 그린 화가 터너는 노예선이라는 소재에 선과 악, 삶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담아 낭만적인 분위기로 그려 냈다.



미술의 감상 · 판단과 활용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변천 과정과 특징을 알고, 그 가치를 이해한다.

선사 시대 미술

선사 시대는 종족의 번성을 위해 다산과 풍요에 대한 기원을 담은 주술적 의미가 미술 작품에 나타난 시기였다. 우리나라 구석기 ·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에는 뗀석기와 빗살무늬 토기 등이 있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는 당시 농경 문화를 보여 주는 농경문 청동기와 제사 의식에 사용된 청동 거울 등이 유명하며,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암각화 등을 통해서는 고래잡이나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에서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다.

활동 작품의 시대별 특징을 이해하고 그 변화 과정을 비교해 보자.

농경문 청동기(금속, 동심원문/길이 12.8cm/기원전 1500~300년 경 작)

무용총 수렵도(벽화/5세기 작/고구려)

서산 마애 여래 삼존상(화강암/높이 2.8m/7세기 작/백제)

삼국 시대 미술

삼국 시대는 철기의 제작이 활발했던 시기이다. 고구려 미술에는 북방 민족 특유의 대륙적 기질의 영향으로 장엄하고 웅혼한 특징이 담겨 있는데, 무용총이나 강서대묘와 같은 고분 벽화에서 고구려인의 기상과 생활상을 알 수 있다. 백제는 중국 남조와 교류하며 일본 미술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며 발전하였다. 서산 마애 여래 삼존상과 각종 불상, 와당에서 백제 문화의 온화하고 세련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신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타 지역과의 교류가 늦어 소박하고 향토적인 고유 미술을 형성하였고, 화려한 금속 공예가 발달하였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천마총의 천마도, 첨성대 등이 유명하다.

정림사지 오층석탑(높이 8.17m/6중~6C년 작/백제)

석굴암 본존상(화강암/높이 326cm/통일신라 시대)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높이 31.2cm/12세기 중엽 작/고려)

통일 신라 시대 미술

통일 신라는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고 당나라와 인도, 서역과 활발한 교류를 하며 불교 미술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왕실과 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시기로, 통일 신라 시대 미술은 이상미와 비례미가 뛰어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불국사와 다보탑, 석가탑, 성덕대왕 신종과 같은 불교 관련 건축물과 조형물이 많이 제작되었다.

부석사 무량수전(목조/13세기 작/고려)

고려 시대 미술

불교를 국교로 한 고려는 화려하고 귀족적인 문화가 특징이며, 불교 회화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 등을 건립하며 불교 건축도 많이 발전하였다. 독자적으로 청자란 상감 기법을 적용한 고려청자 기술은 세계 도자 역사에서 인정받을 만큼 뛰어난 수준으로 섬세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쇠라(Seurat, Georges Pierre/프랑스/1859~1891) 아니에르의 물놀이(캔버스에 유채/201×300cm/1883~1884년 작)

마티스(Matisse, Henri/프랑스/1869~1954) 붉은 식탁(캔버스에 유채/180×220cm/1908~1909년 작)

고갱(Gauguin, Eugène Henri Paul/프랑스/1848~1903) 마리아를 경배하며(캔버스에 유채/113×87.5cm/1899년 작)

신인상주의

과학적인 색의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여 물체의 색과 형태를 원색의 점으로 찍어 표현하였다. 회화에서 병치 혼합 기법의 표현 방법을 주로 사용했으며, 대표적인 작가로 쇠라, 시냐크 등이 있다.

후기 인상주의

초기 인상주의와는 달리 주제와 기법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제트워크 등으로 개인의 감정 표현과 주관을 중시하였다. 세잔은 대상의 형태를 견고하게 표현해 입체주의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열적인 색채로 내면세계를 표현한 고흐는 표현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고갱은 생명력과 상징성을 강렬한 색채로 표현해 야수파에 영향을 주었다.

야수주의

작가의 주관에 따라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원색을 주로 사용해 순수한 색채 표현을 중시하였고 화면을 평면적으로 표현하였다. 물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화폭을 자기 해방의 장소로 생각해 색과 형의 자유적인 세계를 창조하였다. 대표 작가로 마티스, 루오, 블라맹크 등이 있다.

표현주의

색과 형을 자유롭게 강조, 변형, 왜곡시켜 나타내었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작가의 내면세계를 주관적이며 자유로운 색채로 표현하였다. 대표 작가로 뭉크, 놀데, 키르히너가 있다.

키르히너(Kirchner, Ernst Ludwig/독일/1880~1938) 베를린 거리 풍경(캔버스에 유채/121×95cm/1913년 작)

입체주의

큐비즘이라고도 하며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해 표현하였다. 형태의 단순화를 시도한 초기 입체주의와 대상을 분해하고 재구성해 표현한 분석적 입체주의, 파피에 콜레와 콜라주 기법을 처음 도입한 종합적 입체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 작가로는 피카소, 브라크 등이 있다.

몬드리안(Mondrian, Peter, Cornelis/네덜란드/1872~1944)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캔버스에 유채/127×127cm/1942~1943년 작)

미래주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20세기 기계 문명의 발전을 예찬하였다. 속도와 움직임, 역동적인 힘, 도시 등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이색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대표 작가로 보초니, 발라, 세베리니 등이 있다.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우는 여인(캔버스에 유채/60×49cm/1937년 작)

추상 미술

대상의 재현에서 벗어나 조형 요소만으로 작품을 구성하였다. 기하학적 형태로 나타내는 '차가운 추상'의 대표 작가로 몬드리안이 있고, 감정과 직관에 의한 주관적인 표현을 추구한 '뜨거운 추상'의 대표 작가로 칸딘스키가 있다.

120 121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

교과서 pp.120~123

단원	미술의 감상 – 판단과 활용	차시	①②③❹⑤⑥⑧
학습 주제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 변천 과정과 특징을 알고, 그 가치를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교과서, 활동지, 필기도구, 도화지, 각종 채색 도구, 전통 회화 용구 등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지필 평가

● 단원 설정의 이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해 온 우리나라 미술은 중국과 일본과의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달해 왔다. 유교와 불교와 도교, 민간 신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소박하고 해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미술의 역사적 흐름과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 무대에서 주역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을 공부할 때 이를 표현 활동에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미의식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단원에서는 이해와 감상과 표현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미술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 학습 목표

이해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특징과 흐름을 이해한다.
표현	우리나라 미술의 표현 특징을 살려 자신의 개성을 살린 작품을 제작한다.
감상	우리나라 미술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영화 속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장면의 영상 자료를 보여 준다. –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특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감상한다. – 다양한 자료를 감상하며 우리나라 미술의 특징과 흐름을 이해한다.	· 우리나라 미술에 대해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쉽고 재밌는 내용의 영상 자료를 제시한다.
전개	◎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표현 특징 이해하기 – 한국 미술의 시대별 제작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는 영상 자료를 감상한다. – 각 시대별 대표 작품을 감상하며 표현 특징을 분석한다. – 시대별 표현 특징을 전통 미술 재료를 가지고 연습하며 익혀 본다. ⊙ 학습 활동 ⊙ 우리나라 미술을 알리는 포스터 제작하기 – 우리나라 미술 홍보 포스터 제작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 우리나라 미술의 표현 특징을 살려 포스터를 제작한다. – 작품 게시해 보고, 효과에 대해 토의 후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	· 표현 특징과 기법에 대한 교사의 시범 후 연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 포스터의 제작 목적과 표현 특징이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한다.
정리	서로의 작품 감상하며 토론하기 – 작품의 제작 의도와 특징 등을 모둠별로 발표한다. – 우리나라 미술 작품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한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타인의 의견 및 작품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평가 관점	•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특징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우리나라 미술의 표현 특징을 살려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 우리나라 미술 작품의 의의와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농경문 청동기

판 형태의 청동기로, 외형은 집 모양으로 보이는데 윗부분에 여섯 개의 구멍이 있어 여기 끈을 달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쪽 면에는 둥근 고리가 달려있다. 머리 위에 긴 깃털 같은 것을 꽂은 채 밭을 일구는 남자와 괭이를 치켜든 인물,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여인이 표현되어 있다. 풍요를 비는 주술적 의미가 있는 의식용 기물로 추정된다.

무용총 수렵도

고구려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오늘날 대중적으로 가장 알려진 벽화이다. 달리는 말 위에서 사냥에 열중하고 있는 고구려인의 힘찬 기상을 보여 주며, 전기 벽화에 나타나는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고구려화 되어가는 것을 보여 준다.

서산 마애 여래 삼존상

반가사유상과 보주를 들고 있는 보살입상을 좌우 협시로 한 독특한 삼존불로, 완벽하고 정교한 조각 기법에서 백제 특유의 조형감을 보여 준다. 특히 눈을 크게 뜨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본존불은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져 있다.

첨성대

경주시 인왕동에 있으며 국보 제31호이다. 구조는 기단부, 그 위에 원통부, 다시 그 위의 정자석 정상부로 나뉘며 총 높이는 9.51m이다. 성덕왕대에 축조되었으며 천문대이거나 불교와 관련된 제단이나 상징적인 건물로 보기도 한다.

부석사 무량수전

소백산의 능선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장관을 이루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정사 극락전 다음으로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고려 시대 건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팔작지붕을 하고 있으며 정면 5칸, 측면 3칸의 주심포식 건물이다.

참고 자료

● **한국 전통 건축 양식 – 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석굴암 본존상

우리나라 불교 조각의 진수로 화강암에 표현된 완벽한 조각 기술은 뛰어난 예술성의 극치를 보여 준다. 석굴암 본존상은 결가부좌하고 정면을 향해 앉아 있으며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늘어뜨린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중생을 압도하는 듯한 종교적인 위압감과 조화롭고 안정감 있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불교 조각 중 가장 완벽한 조형미를 보여 준다.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창안된 상감 기법으로 제작된 매병형 청자로 양감이 다소 과장되었으나 위풍당당한 형태와 규모를 자랑한다. 무신 정권기 작품으로 12세기 순청자에서 보이던 세련되고 유려한 곡선은 사라졌으나 넓은 표면을 가득 장식한 운학무늬 표현이 일품이다.

심화 자료

● **조선 후기 백자에 표현된 길상문의 종류**

문양	상징
무병장수	십장생, 복숭아, 한자 壽(수)
다산과 풍요	포도, 석류, 물고기
부귀와 다복	모란, 박쥐, 불수감
학업과 출세	잉어, 매미, 두꺼비, 사군자
벽사	용, 호랑이, 수탉

고사관수도 (강희안)

시서화 삼절로 이름 높았던 강희안의 작품으로 깎아지른 절벽 아래 한 선비가 바위에 비스듬히 엎드려 흘러가는 물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그림이다.

자화상 (윤두서)

윤두서가 서울에서 낙향하던 해에 그린 이 자화상은 조선 시대 최초의 자화상이자 최고 걸작이다. '자신을 굽혀 세상에 아첨하지 않았던' 그의 신념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월하정인(신윤복)

깊은 밤 두 남녀가 밀애를 즐기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초생달 아래 나무와 담장 위를 감싸는 밤안개 등이 한밤의 스산하면서도 은밀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화면의 주인공은 행색으로 보아 한량과 기생으로 보이는데, 이 작품을 통해 조선 후기 생활 풍속의 단면을 알 수 있다.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

양감이 풍부한 몸체와 격조 높은 철화 문양으로 조선백자 최고의 명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회화적인 감흥을 살려 대담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문양은 당대 최고의 화격이다.



현대 미술의 흐름

교과서 pp.120~123

● 단원 설정의 이유

현대 미술은 동시대인의 삶과 시대상을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미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문화적 소양을 갖춘 인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20세기 미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으로 급속하게 교체되어 왔기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현대 미술의 특징과 흐름을 작품을 감상하며 이해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현대 미술의 양식과 표현 기법을 익혀 실제 삶 속에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는 활동을 통해 비평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을 기르고자 한다.

● 학습 목표

이해	현대 미술의 특징과 흐름을 이해하고 의의와 가치를 판단한다.
표현	현대 미술의 양식과 표현 기법을 익힌 후 개성을 살려 표현한다.
감상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본다.

단원	미술의 감상 – 판단과 활용	**차시**	①②③❹⑤⑥⑧
학습 주제	현대 미술의 특징과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교과서, 활동지, 필기도구, 도화지, 각종 채색 도구 등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지필 평가 등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참고 작품을 제시해 현대 미술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 현대 미술이 디자인, 영상 예술 등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 작품 감상과 교사의 설명을 통해 현대 미술의 특징과 흐름을 정리하며 이해한다.	· 현대 미술의 특징과 흐름을 작품 감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개	◎ 현대 미술의 다양한 양식별 표현 기법 습득하기 – 현대 미술의 주요 사조에 관한 제작 과정을 영상을 통해 이해한다. – 서로 다른 사조의 작품들을 비교하며 표현 기법을 이해한다. – 현대 미술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직접 실습해 보며 익힌다. ⊙ 표현 활동 ⊙ 사진을 활용한 현대 미술 작품 제작하기 – 현대 미술에서 사진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한다. – 사진을 활용한 작품 제작 계획을 수립 후 사진 자료를 수집한다. – 사진을 활용해 자신의 개성을 살린 현대 미술 작품을 제작한다.	· 현대 미술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충분히 연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정리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사진이 활용된 작품의 제작 의도와 특징 등을 개인별로 발표한다. – 사진이 어떻게 활용되었고, 작품의 주제와 효과가 어떠한지 토론한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타인의 의견 및 작품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평가 관점	• 현대 미술의 특징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의의와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 • 현대 미술의 다양한 양식과 표현 기법을 활용해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보충 자료

● 미술사의 전환이 된 작품

입체주의 기법을 처음 사용한 이 획기적인 작품으로 피카소는 원근법, 해부학적 구조, 색채 등의 전통적인 미의 개념에 일격을 가했다. 르네상스 이후에 확립된 대상의 외양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스타일 대신에 자신의 심상에 있는 지적인 구조를 묘사했는데, 이는 현대 미술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아비뇽의 처녀들 (캔버스에 유채/243.8×233.5cm/1907년 작)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아니에르의 물놀이(쇠라)

물놀이하는 일상적인 풍경을 혼합되지 않은 작은 색점들을 캔버스 전체에 찍어가며 형태를 표현해 완성했다. 이러한 개개의 색점들은 캔버스 표면에 낱알 부스러기같이 반짝이는 효과들을 주고 있다.

붉은 식탁(마티스)

야수주의 화가 마티스가 초기 야수파 양식을 탈피해 부드럽고 감미로운 색과 장식을 성공적으로 표현해 낸 작품이다. 붉은 색으로 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이 중요하게 나타내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마리아를 경배하며(고갱)

평면적인 면과 추상화된 인물, 강하고 밝은 색채를 사용해 성서의 내용을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재해석한 것인데, 고갱은 타히티 원주민 그림을 통해 '근원'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의 그림에 나타난 원주민들은 벌거벗고 있기에 감추고 미화한 것 없이, 어떤 성상화보다 순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작품이 라파엘로의 '성모자상'보다 아름답다고 자부했다.

베를린 거리 풍경(키르히너)

키르히너는 초기 표현주의 화파라고 볼 수 있는 다리파의 창립회원으로서 이 작품을 통해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암울하고 피폐한 분위기의 베를린 거리를 나타냈다.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몬드리안)

자연의 재현을 목적으로 한 기존 미술에서 벗어나 선과 직사각형을 기본으로 조화와 질서가 느껴지는 완전한 추상을 추구한 몬드리안의 말년 대표작이다.

우는 여인(피카소)

울고 있는 여인의 얼굴을 원근법을 파괴하고 작은 면들로 분할해 표현함으로써 입체주의 화풍에서 즐겨 쓰이는 데콩포제 기법의 표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샘(뒤샹)

뒤샹이 선보인 레디메이드 기법의 작품 중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 작품으로 'R. Mutt'라고 사인 해 출품한 남성용 소변기이다. 그는 이 파격적인 작품에 대해 변호하며 "뮤트 씨가 자신의 손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이것을 '선택'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No. 1 (폴록)

1947년경부터 잭슨 폴록은 붓이나 화구들을 팽개치고 캔버스를 마루에 놓은 채 물감을 뿌리면서 그림을 그렸다. 무의식과 우연적인 효과를 통해 얻어진 이 그림은 중심점이나 배경, 전경 같은 구도 개념 없이 선과 물감 방향으로 구성된 전면 균질 회화이다.

골콘다(마그리트)

초현실주의 화가인 마그리트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병치해 일상의 사물을 비이성적으로 왜곡시키는 기법인 데페이즈망 기법을 사용해 이 작품을 제작하였다.

현존 그래픽(바자렐리)

옵아트의 대표 작가 바자렐리의 작품으로 움직이는 시각적 착시 효과를 창조하기 위해 추상적 무늬와 색상을 결합하는 이미지를 판화기법을 통해 제작했다.

우산(크리스토)

일본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연 속에 7년여에 걸쳐 우산 3천 100개를 설치한 대형 설치 작품으로 자연 속에 담긴 예술과 예술 속에 담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하면서 '예술은 소유할 수 있고 영원하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보이스(백남준)

개념 미술가 요셉 보이스를 비디오 조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구식이 되어버린 옛 텔레비전을 머리와 팔다리를 가진 사람 모양으로 쌓은 한편, 요셉 보이스를 연상시키는 중절모와 같은 오브제로 장식해 완성하였다.

보충 자료

● 현대 미술의 주요 표현 기법

오브제	일상생활용품이나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해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
콜라주	벽지, 낡은 서책의 삽화, 사진, 무늬가 있는 천 등을 모아 붙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기법으로 입체주의에서 유래
오토마티즘	모든 습관적 기법과 고정 관념과 이성을 배제한 채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무의식의 세계를 투영
데페이즈망	상식적인 맥락에서 벗어나 서로 상관없는 물체의 만남으로 낯설고 비논리적 상황이 표현되도록 하는 기법으로 초현실주의에서 유래

교과서 단원정리

1 | 자연미와 조형미의 관계

① 자연미: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자연의 형과 색의 아름다움으로, 인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자연 속에서 비례, 율동, 변화, 통일, 균형, 대비, 강조 등과 같은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② 조형미: 조형물이 지닌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조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 인간의 창의성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의 아름다움이다.

③ 자연미와 조형미의 관계: 자연미는 조형미의 근본. 자연물의 형과 색에서 여러 가지 조형미의 요소를 찾을 수 있고, 이를 응용하여 많은 조형물들이 만들어진다.

④ 인간은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로움을 구현해 감으로써 더욱 삶의 가치를 승화시킨다.

2 | 미술 작품 감상법

① 단독 감상법: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이다.

② 비교 감상법: 두 가지 이상의 작품의 기법과 주제를 비교해 가면서 감상하는 방법이다.

③ 분석 감상법: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해서 각 요소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④ 종합 감상법: 작품을 보고 바로바로 느껴지는 것들을 감상하는, 직관적인 감상이 강조되는 방법이다.

⑤ 포트폴리오 감상법: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작가에 대하여 이해한 후 작가에 대하여 느낀 점을 정리하고, 감상문을 작성한 자료를 모아서 보관하는 방법이다.

3 | 미술 감상의 다양한 접근 방법

① 미학적 접근: 미술품이나 자연환경의 미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② 창작 활동 관련 접근: 미술가들의 표현 주제, 재료, 기법등의 발견을 통해 흥미 유발과 학습 내용 이해로 표현 활동에 도움 준다.

③ 미술사적 접근: 시대별, 양식별로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④ 일반 역사와 통합적 접근: 미술품과 사회, 경제, 정치등의 상호 관련을 중심으로 시대정신, 작가의 사회의식등의 배경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⑤ 비평 능력 향상적 접근: 보고, 생각하고, 발표하는 활동 중심.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과 연계된 통합적 성격이다.

4 | 미술관 관련 용어 알기

① 도슨트: '가르치다'라는 라틴 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도슨트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전문 안내인으로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관람객에게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람이다.

② 큐레이터: 전시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등 전시의 모든 것을 총괄 및 기획하는 사람이다.

③ 작품 복원가: 작품의 보관 상태를 관리하고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사람으로 보존 전문가와 복원 전문가로 나뉜다.

5 | 펠드먼의 단계적 서술 비평

작품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비평 방법이다.

① 서술의 단계: 작품에 나타난 외형적 요소를 충실하게 관찰하고 내용을 서술하는 단계로서, 작품을 관찰하여 무엇이 보이는가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

② 분석의 단계: 형식적 분석 작품의 구성 요소와 원리, 작품 안에 존재하는 것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파악의 단계. 즉 작품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재료 및 용구,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등 세부 항목별로 작품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해 특히 조형 요소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조직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해석의 단계: 내용서술과 구조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해석하는 단계, 작품에 나타난 느낌, 분위기, 제작의 배경 등을 파악함으로써 작품이 전달하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④ 판단의 단계: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파악한 모든 정보를 근거로 작품을 평가하고 미술사적 의의와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6 | 창의성 신장을 위한 발상법

① 마인드맵: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지닌 방사사고의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기호, 그림을 사용해 마음 속 지도를 그리듯 표현하는 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구성원이 반응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10명 내외의 구성 인원이 적당. 특정 주제나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하는 교수법이다.

③ 체크리스트: 문제와 관련된 항목들을 나열하고 그 항목별로 문제의 어떤 특정 변수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이다.

7 | 동양 · 서양 · 우리나라 · 현대 미술의 흐름

(1) 동양의 삼원법

중국 북송 시대 〈임천고치〉에서 구도 포착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는 산수화를 구성하는 고원, 심원, 평원의 삼원이다.

① 고원법: 산아래에서 산꼭대기를 올려다보는 시점이다.

② 심원법: 앞쪽의 산봉우리에서 뒤를 내려다보는 시점이다.

③ 평원법: 산 위에 올라 멀리있는 산 바라보는 시점이다.

(2) 현대 미술의 주요 표현 기법

① 오브제: 일상 생활용품이나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이다.

② 콜라쥬: 벽지, 낡은 서책의 삽화, 사진, 무늬가 있는 천 등을 모아 붙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기법으로 입체주의에서 유래하였다.

③ 오토마티즘: 모든 습관적 기법과 고정 관념과 이성을 배제한 채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무의식의 세계를 투영한다.

④ 데페이즈망: 상식적인 맥락에서 벗어나 서로 상관없는 물체의 만남으로 낯설고 비논리적 상황이 표현되도록 하는 기법으로 초현실주의에서 유래되었다.

교과서 단원평가

1 오른쪽에 제시된 작품이 제작된 국가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수 · 당 시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② 송 시기에 도자기의 꽃을 피웠다.
③ 에도시대에 우키요에를 발달시켰다.
④ 신석기 시대에 황하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다.
⑤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 미술 감상 및 비평의 효과와 비평 방법에 대한 대화 내용 중 맞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① 채린: 미술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게 돼.
② 한승: 미술 작품에 대한 가치는 판단하면 안돼.
③ 민유: 작품을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
④ 사론: 감상을 통해 작가의 감정과 시대정신을 느낄 수 있게 돼.
⑤ 유미: 친구들과 함께 감상하고 대화할 때 토론능력을 기를 수 있어.

3 다음의 미술 용어 사전에서 검색하고 있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미술 용어 사전

검색

• 대량 생산과 소비문화, 대중문화 등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대중적 인물이나 만화, 광고 등을 소재로 등장시켜 대중문화의 속성을 나타냈다. 대표 작가로 워홀, 리히텐슈타인 등이 있다.

① 팝 아트 ② 다다이즘 ③ 대지 미술
④ 극사실주의 ⑤ 초현실주의

4 다음에 제시된 건축물과 같은 시대에 제작된 유물은?



① 첨성대 ② 석굴암 ③ 독립문
④ 상감 청자 ⑤ 농경문 청동기

5 고려 시대 미술의 특징을 조선 시대 미술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답 1③ 2② 3① 4④ 5 평가 도움 참조

평가 도움

1 제시된 작품은 중국 당 시대에 제작된 당삼채이다. 중국은 신석기 시대에 황하강 유역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해 동아시아 미술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수 · 당 시기에 전성기를 이루었고, 송 시기에 도자기의 꽃을 피웠다. 에도 시대에 우키요에를 발달 시켰다는 것은 일본 미술에 대한 설명이다.

2 미술 감상과 비평을 통해 작품 분석과 해석 능력과 토론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작가의 감정과 시대정신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작품을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그리고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승의 설명은 맞지 않다.

3 제시된 내용은 팝 아트에 대한 설명으로 1960년대 전성기를 이루었다.

4 제시된 건축물은 부석사 무량수전으로 고려 시대 작품이다. 고려 시대에는 세계 최초로 상감 기법이 독자적으로 창안되어 고려청자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5 불교를 국교로 한 고려는 유교를 숭상한 조선 미술의 소박한 아름다움에 비해 화려하고 귀족적인 문화가 특징이다.

미술의 확장 | 미술과 직업



미술 직업의 세계

교과서 pp.126~129

● 단원 설정의 이유

우리는 생활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우리가 학교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는 시기는 그렇게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자신이 잘 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의 전반적인 분야를 이해해야 하고, 그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도 이해해야 한다.

● 학습 목표

이해	미술과 관련 있는 직업 탐색을 통하여 직업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
표현	미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희망과 목표, 능력에 맞는 진로 계획을 세워 미래를 설계한다.
감상	미술의 다양한 통합, 타 분야와의 연계 및 확장을 통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에 대하여 탐색한다.

단원	미술의 확장 – 미술과 직업	차시	❶②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미술과 관련 있는 직업 탐색을 통하여, 직업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포트폴리오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미술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와 특성 이해하기 –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미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 관련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한다. – 사회의 문화적 요구와 흐름을 이해하고 미술과 관련된 직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탐색한다.	· 진로 교육에 있어서 직업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미술과 관련된 직업의 현황을 살피도록 지도한다.
전개	◎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 자신의 능력, 적성, 성격, 흥미, 희망, 욕구, 인생관, 가치관 등에 대해 이해한다. – 미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희망과 목표, 능력에 맞는 진로 계획을 세워 미래를 설계한다. –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면서 단계별, 시기별로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록한다. ⊙ 학습 활동 ⊙ 직업 선정하기 –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다. – 인생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한다. –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활동지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리	◎ 생각 정리하기 –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의 자아 특성 요인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였는지 확인한다. –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갖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양 및 능력에 관해 알아본다.	· 자신이 선택한 진로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평가 관점	•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 • 미술과 관련 있는 직업 탐색을 통하여 직업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였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제품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는 경제성, 기능성, 창의성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제품 디자이너는 기업체의 디자인 부서나 제품 디자인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데, 주로 5~10명이 한 팀을 이루어 수개월의 제작 기간을 두고 시장 조사, 분석, 제품 파악, 품질 검사, 기술팀과의 협의 등 방대한 업무 과정을 거쳐 디자인을 한다.

큐레이터

미술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처리하고 수행하는 사람이다. 큐레이터는 그 기능에 따라 연구, 교육과 보급을 담당하는 직종 등으로 각각 나뉜다. 작품의 수집과 보존, 그리고 전시 실무와 더불어 작품의 실물과 현상에 관련된 도서나 문헌, 녹음, 녹화에 이르는 모든 자료에 관한 조사를 토대로 이를 채집, 구입, 제작, 수여, 기탁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시, 보존, 복원, 보호하는 일까지 담당한다.

무대 디자이너

무대 디자인은 연극, 뮤지컬, 오페라, 무용 등 공연 예술의 시각적 표현을 위한 극적 공간을 창조하여 공연 예술을 풍부하게 한다. 시각 예술과 전기, 전자 등의 자연 과학 분야의 개념과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방송국이나 영화 제작 현장의 장치, 조명, 의상 분야에까지 폭넓게 열려 있으며, 특히 광고나 이벤트 분야에서도 무대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아트 디렉터

조형적 표현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조직 내에서 기획, 생산, 영업, 경영 등의 각 분야와 관련된 조형적 문제를 총괄적으로 처리하고 지휘하는 전문가이다. 연출 계획에 맞게 지휘하고 종합하여 목적에 가장 적합한 광고를 제작해 내며, 영화에서는 감독과 함께 분위기를 잡아 가며서 촬영, 조명, 의상, 소품 등의 아트 팀을 이끌어 가는 일을 한다.

그래픽 디자이너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특수 효과 등 입체 영상이나 도형, 공간, 자막, 그림 등을 설계하고 표현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고안하여 제작하며, 제작된 이미지를 인터넷 화면상에 올리는 일을 한다.

보충 자료

미술의 확장 – 문화 콘텐츠 직업의 세계로





21세기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시대이다. 이제 물질적 상품의 개발은 한계를 드러내고, 무형(無形)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선진국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문화 콘텐츠 산업을 국가의 2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영국은 문화 콘텐츠 사업을 별도의 창조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문화 콘텐츠 산업의 비약적 확대를 추진한 결과, 게임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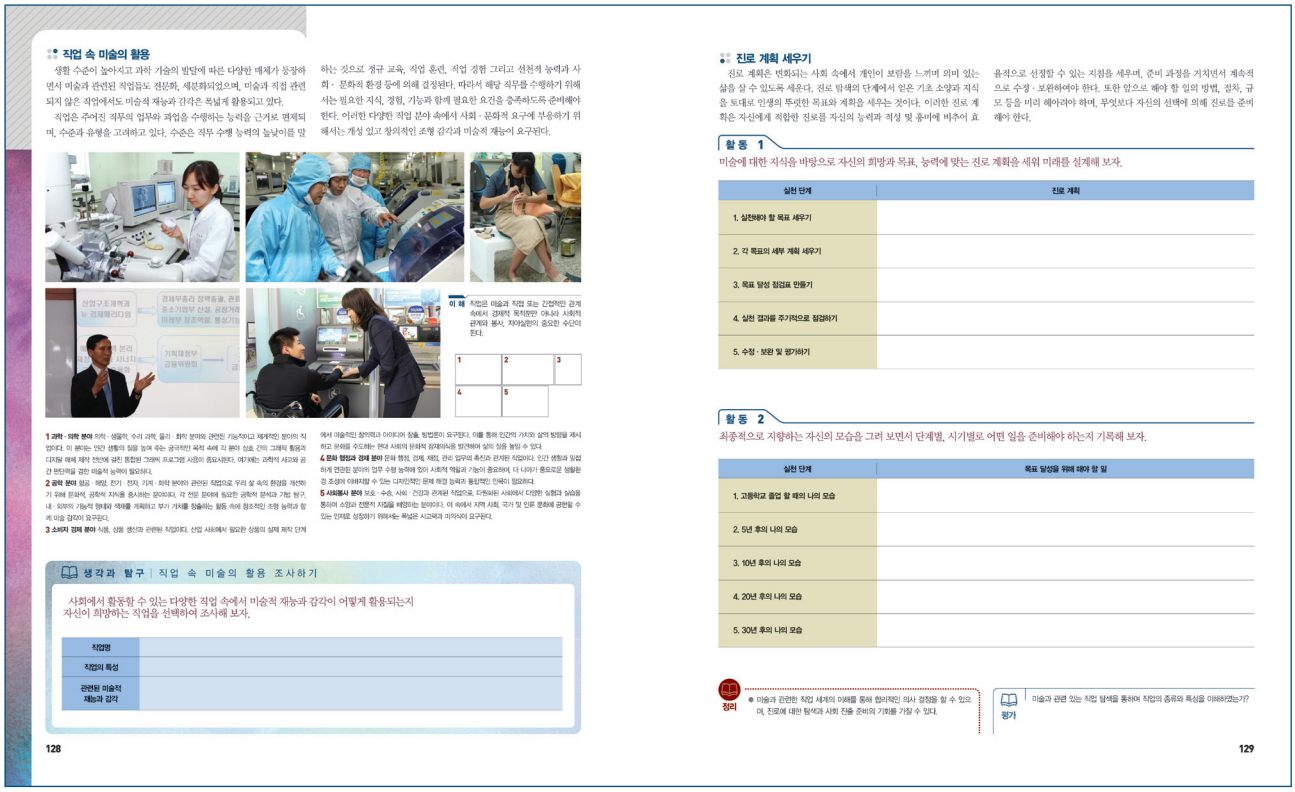
문화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멀티유즈성, 곧 모든 매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른바 '통합성'에 있다. 문화 콘텐츠에는 출판과 만화,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공연, 음반, 전시, 축제, 여행, 디지털 콘텐츠(데이터베이스, 에듀테인먼트, 인터넷 콘텐츠), 모바일 등 최소한 16가지 이상의 분야가 있다. 또,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매체가 탄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 콘텐츠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며, 창의적인 발상의 문화적 융합은 고부가 가치의 문화 콘텐츠 직업의 세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 체험

직업 체험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서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각 직업 현장을 직접 방문
② 학생 스스로 적성과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 부여
③ 직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및 동기 부여
④ 다양한 직업 세계를 접하도록 도움





직업 속 미술의 활용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미술과 관련된 직업들도 전문화, 세분화되었으며, 미술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작업에서도 미술적 재능과 감각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직업은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근거로 명제되며, 수준과 유형을 고려하고 있다. 수준은 직무 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 교육, 직업 훈련, 직업 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 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과 함께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직업 분야 속에서 사회 ·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개성 있고 창의적인 조형 감각과 미술적 재능이 요구된다.

이 해 직업은 미술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봉사, 자아실현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

1 과학 · 의학 분야 의학 · 생물학, 수리 과학, 물리 · 화학 분야와 관련된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분야의 직업이다. 이 분야는 인간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공공적인 목적 속에 각 분야 상호 간의 그래픽 활용과 디자인 매체 제작 전반에 걸친 통합된 그래픽 프로그램 시장이 중요시된다. 여기에는 과학적 시각과 공간 편단력을 겸한 미술적 능력이 필요하다.

2 공학 분야 항공 · 해양, 전기 · 전자, 기계 · 화학 분야와 관련된 직업으로 우리 삶 속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관된 공학적 자세를 중시하는 분야이다. 각 전문 분야에 필요한 공학적 분석과 기술 탐구, 내 · 외부의 기능적 장치와 매체를 계획하고 부가 기능을 창출하는 활동 속에 창조적인 조형 능력과 함께 미술 감각이 요구된다.

3 소비자 경제 분야 식품, 상품 생산과 관련된 직업이다. 산업 사회에서 필요한 상품의 실제 제작 단계에서 미술적인 창의력과 아이디어 창출, 능률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인간의 기호와 상품 활용을 제시하고 분석을 주도하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장제이념을 탐구해야 상의 질을 높일 수 있다.

4 문화 행정과 경제 분야 문화 행정, 경제, 재정, 관리 업무의 측진과 관계된 직업이다.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넓이의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폭요로운 상황을 창 조성에 이해시킬 수 있는 디자인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통합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5 사회봉사 분야 보호 · 수호, 사회 · 건강과 관계된 직업으로, 다양성한 사회에서 다양한 능력과 상상을 통하여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배양하는 분야이다. 이 속에서 지역 사회, 국가 및 인류 문화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시고력과 미각사이 요구된다.

생각과 탐구 | 직업 속 미술의 활용 조사하기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속에서 미술적 재능과 감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조사해 보자.

직업명	
직업의 특성	
관련된 미술적 재능과 감각	

128

진로 계획 세우기

진로 계획은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보람을 느끼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운다. 진로 탐색의 단계에서 얻은 기초 소양과 지식을 토대로 인생의 투명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 계획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자신의 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비추어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침을 세우며,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의 방법, 절차, 규모 등을 미리 예아려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 진로를 준비해야 한다.

활동 1

미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희망과 목표, 능력에 맞는 진로 계획을 세워 미래를 설계해 보자.

실천 단계	진로 계획
1. 실천해야 할 목표 세우기	
2. 각 목표의 세부 계획 세우기	
3. 목표 달성 점검표 만들기	
4. 실천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5. 수정 · 보완 및 평가하기	

활동 2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면서 단계별, 시기별로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록해 보자.

실천 단계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
1. 고등학교 졸업 할 때의 나의 모습	
2. 5년 후의 나의 모습	
3. 10년 후의 나의 모습	
4. 20년 후의 나의 모습	
5. 30년 후의 나의 모습	

정리 ● 미술과 관련한 직업 세계의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진로에 대한 탐색과 사회 진출 준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평가 미술과 관련 있는 직업 탐색을 통하여 직업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였는가?

129

또한 의학이나 군사 등 학술적 분야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응용되고 있다. 색채 감각과 조형 감각 및 세심함과 꼼꼼함 등이 요구되며, 컴퓨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의뢰 받은 상품과 상품의 기능, 시장과 소비자의 취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디자인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독창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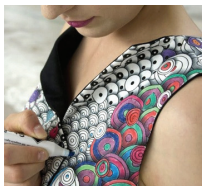
문화 예술 행정가



문화 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이며, 문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인적 ·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정하며 관리 · 통제하는 것이다.

예술 행정에 임하는 행정가는 창조 정신이 있어야 하고 정서적인 참여의 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 행정가는 예술가를 대중에게 접근시키는 일과,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예술인의 파트너이며 봉사자로서의 사명 의식을 지녀야 한다.

텍스타일 디자이너



텍스타일 디자인은 천의 기본 문형과 색상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류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이 활성화되면서 건축 자재를 비롯하여 생활용품에서 도자기 문형, 탁자의 커버, 커튼의 문형과 색상 등을 디자인하는 것이 모두 텍스타일 디자인 범주에 속한다.

머천다이저

머천다이저는 상품 기획 부분의 총괄자로서 상품 기획에서 판매 부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직무를 맡는다. 브랜드 개발과 기획 및 운영을 하는 중요한 직종이다. 보편적으로는 MD라는 약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텍스타일 머천다이너, 어패럴 메이커 머천다이저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광고 디자이너



제품이나 서비스 등 광고할 대상의 특성 및 소비자의 유형, 시장 동향 등 대상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며 광고주의 요구 사항을 참고하여 광고 표현 전략 및 아이디어를 카피라이터, 상업용 영상물 제작 감독(PD) 등과 협의하여 광고물의 시각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광고 매체 및 비주얼을 선정한다. 이를 TV, 신문, 라디오, 잡지, 옥외 광고 등 선택된 광고 매체에 적합하게 디자인한다.

희망 직업 대차 대조표 작성하기

● 다음의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희망 직업을 조사해 보자.

– 1단계: KNOW(know.work.go.kr) – 직업정보 – 나에게 적합한 직업(흥미, 지식, 업무수행능력 등의 조건으로) 찾기 – 3조건 이래 공통으로 드러나는 희망 직업 3가지를 골라 보자.

– 2단계: 위에서 찾은 희망 직업의 조건들이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자신의 특성에 맞으면 ✔표를 하여 그 합계를 계산하고 순위를 적는다. 나의 특성 항목은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나의 특성 / 희망 직업	흥미	성격	적성	가치관	학교 성적	신체 조건	가정 환경
1							
2							
3							

– 3단계: 점검 결과 가장 적합한 혹은 가능한 희망 직업 2가지를 적어 보자.

1 _____ 2 _____

● 자신의 희망 직업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을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자.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미술의 확장 미술과 직업

활동 미술 직업의 현장을 가다

미술 관련 직업의 현장을 찾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한다.

관심 있는 분야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경험해 보는 것은 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된다. 특히, 미술 관련 직업은 창의적이고 개성이 뚜렷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과 달리 일의 진행 방식이 독특하기 때문에 직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업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일은 훌륭한 탐색 과정이 될 수 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나 단체를 찾아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직업의 특징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직업 탐색 인터뷰

인터뷰(Interview)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알고자 하는 일의 사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과 과정으로서 좋은 수단 중 하나이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뷰를 받는 사람에게 실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서로에게 즐거운 소통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좋은 인터뷰가 되도록 인터뷰할 대상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질문할 목록을 작성하여 진로 탐색의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 보자.

인터뷰할 대상 찾기
인터넷, 전시회 도록, 미술관 등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할 대상을 찾는다.

인터뷰할 대상 조사하기
전시회 도록이나 다른 인터뷰 자료를 통해 인터뷰할 대상을 조사한다.

인터뷰할 대상 섭외하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인터뷰할 대상을 섭외한다.

인터뷰 질문 작성하기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인터뷰할 질문 목록을 작성한다.

인터뷰 준비를 챙기기
카메라, 녹음기, 필기도구, 노트 등 인터뷰에 필요한 준비물을 점검한다.

작가 선생님 인터뷰 질문지

1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2 책을 많이 읽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작품에 반영되는 영향이 있으신가요?
3 조소과를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각에 국한되지 않고 설치, 사진 등의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고 계신데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4 만약 미술이 아닌 문학의 길을 택하였더라면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5 작품에 대한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6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손에 많은 물결이 잡힌 사진을 보았습니다. 정말 선생님의 손이 맞나요? 왜 그런 물결이 생겨났나요?
7 불교적 사상이 작품 속에 많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를 어떠한 계기로 접하게 되었고, 불교가 선생님의 작품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8 작품 〈PHOBIA〉에서 어머니의 천식에 관련해 어린 시절의 어두운 기억을 언급하고 계신데요. 작가님의 어린 시절 모습은 어떠했나요?
9 인생을 살아오면서 멘토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10 작품 설치 위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강, 모래사장, 풀밭 등 여러 곳에 작품을 설치되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11 작품에서 작품의 의미와 시각적 아름다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2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좋은 작품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13 작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130

작가의 현장을 찾아서

작가의 작업실이나 작업 현장을 찾아 작가를 만나는 일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작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의미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요즘에는 공공 기관이나 기업에서 유망한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거나 작업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으로 창작을 돕고 있다. 이러한 창작 스튜디오, 예술 공장과 같은 곳에서 열리는 오픈 스튜디오나 전시회 등에 참가하면, 작가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창조의 공간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홍경섭(한국/1948~) 리처드 롱에 대한 경의(한지/600×600cm/1993년 작)

작가 선생님 탐방을 마치고

2학년 소민경 외 3명

설치 미술 작가 선생님의 작업실을 방문하여 작품에 대한 영감, 작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좋은 작품이란 어떤 것인지, 또 작품과 관객과의 관계 등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은 질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또한, 설치 미술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술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미술 관련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감사한 일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작가와의 대화

작가의 공간 탐방

• 우리 지역의 창작 공간을 찾아 작가를 만나 보자.

1 금천 예술 공장
2 서울 패션 창작 스튜디오
3 난지 창작 스튜디오
4 아라도 창작 스튜디오
5 청주 창작 스튜디오
6 오픈 스튜디오
7 작품 전시회

정리
• 미술 관련 직업의 이해는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하는 과정이다.
• 작가와의 만남은 작가와 작품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평가 미술과 관련 있는 직업의 현장을 방문하고 진로를 탐색하였는가?

131

미술 관련 직업의 세계

미술과 관련된 직업군과 하는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미술 직업의 현장을 가 보자.

게임, 만화 산업 분야	만화가, 애니메이터 , 피큐어 디자이너 등
행정과 실무, 기타 분야	예술 행정가, 아트 디렉터 , 미술 전문 기자, 미술 치료사, 미술품 경매사, 미술품 컬렉터, 미술 전시 기획자 등
순수 조형 미술 분야	화가, 조각가, 미디어 작가, 판화가, 사진가, 행위 예술가 등
디자인 전문 분야	북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광고 사진가 등
교육, 연구, 기타 분야	미술 교사, 미술 교육 학자, 미술 평론가, 미술 전공 교수, 학예 연구사(큐레이터), 미술 사학사, 고고학자, 미술품 감정가 등

미래의 명함 만들기

미래의 직업	
직업의 특징	
나의 특징	
명함에 나타내고 싶은 요소	

명함 스케치	설명
	앞면
	뒷면


미술 자료실 미술의 확장 : 미술과 직업

미술가와 함께한 사람들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물로 역사 이래 수많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예술 작품을 오늘날 우리가 함께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재산을 예술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쓴은 훌륭한 문화인들이 있다. 그들은 재력과 함께 예술 작품을 보는 혜안을 가진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한 사람들이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문화 예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

1 간송미술관(서울 성북동)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 미술관으로 전형필의 수집품을 바탕으로 수집품을 정리·연구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봄과 가을에 일반을 위해 전시를 열고 개방한다.

2 김득신(金得臣, 1754~1822) 파적도(擊柝圖) 수묵 담채/23.4×27cm/종이/18세기 후 일상생활의 해학적인 순간을 포착해 그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희화 작품으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민족의 정신을 지킨 간송 전형필

간송 전형필은 1938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을 세운 사람이다. 그는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문화재와 미술품, 국학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일본인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수집하였다.

그가 우리의 문화재와 미술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서화골가 고희동과 독립 운동가 오세창의 영향이 크다. 그들에게서 민족정신과 함께 작품 보는 법을 배운 전형필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조선의 중요한 서화를 수집하면서 안목을 키워 나갔고 문화재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은 고서적과 서화, 회화 등을 수집하고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데 사용되었다. 전국의 종매인과 국내, 일본의 수장가를 찾아다니며 문화재를 구입하였고 경매를 통해 문화적 가치가 높은 다수의 문화재를 수집하였다.

그가 약 10년간 돈을 들여 수집한 문화재 중에는 1942년 당시 기와집 10채를 살 수 있는 가치를 주고 구입한 훈민정음 원본을 비롯하여 고려청자, 김정희의 글씨, 정 선, 김홍도, 신윤복의 그림 등 수많은 고서적·고서화·석조물·자기 등이 있으며, 10여 점 이상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 독립 운동가로 불리는 간송 전형필은 일제 강점기 우리 문화의 수호와 보존에 일정성 진정한 지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 미술을 사랑한 구겐하임

구겐하임은 막힘한 안목과 재력을 바탕으로 미술의 중심 무대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성 수집가이다. 미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미술품을 수집하고 예술가들을 후원하였다.

특히, 다다이즘,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등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1942년 뉴욕에 금세기 미술 화랑을 개관하고 유럽에서 수집한 미술품들을 미국에 선보여 미국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하였다. 또 많은 작가를 후원하고 작품 발표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무명작가에 불과했던 잭슨 폴록의 재능을 발견하고 '액션 페인팅'의 출현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녀의 사망 후 소장품들은 모두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기증되었으며, 그녀가 마지막 여생을 보냈던 베니스의 저택은 구겐하임 미술관의 베니스 분관으로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어 운영되고 있다.

구겐하임의 미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수집된 수많은 작품은 '구겐하임 미술관에 남아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1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뉴욕 미국 사립)개인 솔로몬 구겐하임이 수집한 현대 미술품들을 기반으로 설립된 미술관이다. 구겐하임 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재단에는 구겐하임 미술관,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다.

2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스파냐 에스파냐에 있는 도시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과 더불어 점라로 번영을 이루어 가고 있다.

3 사치 갤러리(영국) 사치는 젊은 작가들과 새로운 미술 작품들을 후원하여 영국의 문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4 허스트(Hirst, Damien/영국/1965~) 자비스를 위한 희화(동일 제목/구성 183cm/2001년 작 YBA의 대표적인 작가인 허스트는 독특하고 파격적인 재료이용 영국의 현대 미술을 이끌어 가고 있다.

젊은 작가들을 후원한 사치 갤러리

갤러리나 미술관은 작가를 발굴하고 미술 작품을 유통하는 데 주축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영국의 사치 갤러리는 젊은 미술가들을 후원하여 세계적인 작가로 키워 냈을 뿐 아니라 영국 미술을 현대 미술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었다.

YBA는 'Young British Artists'의 줄임말로 1980년대 말 이후 나타난 영국의 젊은 미술가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런던의 골드스미스 대학 출신으로 1988년 졸업을 앞둔 데미언 허스트가 동료들과 함께 기획한 '프리즈(Freeze)'라는 전시를 통해 알려졌다. 이 전시를 계기로 영국의 주요한 작품 수집가이자 판매상인 찾스 사치는 데미언 허스트를 비롯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어 YBA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후 YBA는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며 영국 현대 미술의 부흥을 알렸다. YBA의 출현과 더불어 영국은 현대 미술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들은 현대 미술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132 133

미술 자료실

예술 후원 혹은 투자

예술 후원의 역사는 예술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오늘날 우리가 대작이라고 칭송하는 대부분의 예술 작품들은 그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후원자가 없었다면 세상 빛을 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바하, 헨델, 모차르트의 작품들이 그렇고, 미켈란젤로와 다 빈치의 작품들이 그렇다.

근대 이후,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예술에 대한 국가의 후원이 각국의 주요 국정 의제로 등장한 이후에도 개인 후원자들의 역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 시대 이후, 예술의 자본적 가치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예술 후원은 자본 투자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개인 후원자들은 더 많은 돈을 예술 작품과 예술가들에게 '투자'하였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정부나 기업이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역사는 오래 되었다. 문화 예술은 속성상 자체적인 활동이나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이문을 남기는 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공공재적인 성격이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건강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지원을 받은 일은 생존이 걸린 필수 불가결한 일인 것이다. 옛날 귀족이나 왕실 또는 종교로부터 후원을 받던 방식이 시대를 바꾸며 진화하여 그 대상이 정부에서 기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 최근엔 그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후원, 협찬, 기부, 모금, 사회공헌, 마케팅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문화 예술계가 기획한 일에 기업이 지원만 하던 형식에서 탈피하여 기업도 적극적으로 문화 예술을 경영과 마케팅 및 직원 복지에 활용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과 문화계가 효과적으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문화 예술계의 특성과 목적, 경향을 서로 현실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생겼다. 일방적으로 각자의 필요성과 목적만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후원과 반대 급부를 요구하기보다는 서로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결실을 나누고 관계를 지속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중요해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름다운재단에 의뢰하여 나온 기업의 문화 예술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의 연구 결과는 기업의 경향과 의사 결정 및 장애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 영역이었던 일반 사회 복지나 학술 연구 및 장학사업에 못지않게 문화 예술을 통한 사회 공헌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 사회와 연계된 활동이 증가하는 것

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이나 상생의 방향과도 맞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예술 단체나 시설에게는 적합한 프로그램의 기획이 있으면 그 잠재적인 기회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또한 문화 예술 교육이나 문화 복지 성격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로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사회 취약 계층이지만 간접적 수혜를 문화 예술인이 받는 구조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인상적이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크라우드펀딩이란 익명의 다수 후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을 말한다. 사실 크라우드펀딩과 비슷한 개념의 펀딩 방법은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시도되어져 왔으나, 1990년 중반 이후 인터넷의 영향으로 더욱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주관하는 해피빈(Happy Bean)도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다. 예술계에서는 이미 1997년 브리티쉬 록 밴드 마릴리언(Marillion)의 미국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팬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6만 달러를 모금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많은 예술 단체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시도해 왔으나 대부분의 크라우드펀딩은 구호 사업 단체나 공공 사업체 등에 그친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이 크라우드펀딩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우선 Facebook이나 MySpace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공동체가 더욱 발전, 성숙하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간소한 절차의 소액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크라우드펀딩만을 위한 사이트들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작년 4월 창작활동 후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가 소개되면서, 드디어 예술계에서도 본격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위의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 킥스타터의 후원 대상은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들과 달리 창조적 활동에 특화되어 있다. 즉 작은 의미의 예술뿐만 아니라 독립 영화부터 인디밴드, 소규모 미술전시회, 그리고 음식 행사까지 창조적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후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킥스타터는 익명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특별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킥스타터를 통해 자신의 예술 프로젝트를 후원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선 이곳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글이나 그림, 동영상을 올린다. 이 때 모금 기간(최대 3개월)과 목표 모금액을 정한 후, 후원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후원 금액을 몇 단계로 나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후원자들은 후원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바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겠다고 약정한 후 아마존(Amazon.com) 계정을 통해 자신의 계좌 정보만 남기고 그 후 다른 후원자들이 가세하여 일정 기간 내에 목표 금액이 채워질 경우에만 후원자들의 계좌로부터 약정한 금액이 빠져나간다. 기간 내에 목표 금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약정한 후원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킥스타터는 모금이 성공한 경우에만 총 모금액의 5%를 수수하므로, 후원이 성사되지 않으면, 후원을 신청한 예술가도 잃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일정 기간 내에 목표 금액을 달성해야 하는 '모 아니면 도' 규칙은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목표 의식을 부여함으로써, 더욱 많은 후원자를 끌어들이도록 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예술가나 단체는 후원 금액별로 소정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0달러를 기부하면 예술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이메일로 보내 주고 20달러 이상을 기부하면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카드를 보내 준다는 식이다. 이 보상제도는 해당 예술가나 예술 단체가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으며, 목표금액이 채워지지 않아 후원이 성사되지 않으면, 보상 역시 무효가 된다.

인간의 자선 욕구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뒷받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상제도는 '모 아니면 도' 규칙과 함께 킥스타터가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들과 달리 많은 소규모 예술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후원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킥스타터의 공동 창업자인 페리 첸(Perry Chen)은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특유의 규칙과 제도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투자나 대출도 아니고 (순수한 의미의) 후원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 둘의 중간인데, 사람들이 특정한 서비스를 보고 구매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가치를 보고 후원할 수도 있게 해 주는 지속 가능한 장터인 거죠." 근래 들어 소셜미디어에 대한 비판은 그 속에서 이뤄지는 인간 관계의 즉흥성, 단편성 그리고 휘발성에 집중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킥스타터를 통한 일회성 후원이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킥스타터는 창작 활동에 필요한 초기 자본 후원에는 기존의 어느 방법보다 효과적이고 용이하여, 점점 더 많은 예술가들과 후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교과서 단원정리

1 | 장신구 디자이너

인간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 주는 장신구는 반지와 팔지, 벨트, 브로치, 귀걸이 등 다양하다.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미적 감각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장신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의 귀금속 및 장신구 산업은 소재의 다양화 품질의 고급화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장신구 디자이너는 귀금속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인간의 모습을 돋보일 수 있는 장신구를 개발하는 사람이다.

2 | 컴퓨터 게임 디자이너

컴퓨터 게임 디자이너는 게임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 컴퓨터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음악 작곡가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다. 컴퓨터 시나리오 작가는 시대적 요구에 맞고 수요자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게임의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로 만들어 낸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시나리오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는 게임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영상으로 만들어 내고 끝으로 게임의 줄거리에 맞는 효과음을 작곡, 편곡하여 삽입한다.

3 | 패키지 디자이너

패키지 디자인 혹은 포장디자인은 제품 포장에 있어서 보존, 운반과 함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광고 효과나 소비자의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따라서 패키지 디자이너는 제품의 이미지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연구하고 재질, 형태, 비쥬얼의 올바른 표현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다.

4 | 시사 만화가

시사 만화는 신문이나 잡지에 등장하는 한 칸 만화로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현상을 유머와 위트, 통쾌한 풍자와 비판을 통해 보여 주는 것이다. 시사 만화가에게는 그림 실력은 물론이고 사건과 이슈를 한 컷 만화에 집약하여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시사 만화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신문의 독자란에 꾸준히 그림을 보내어 편집자의 눈에 띄어 지면을 맡거나 시사 만화 공모에 응모하는 방법이 있으며 시사 만화가의 문하생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5 | 애니메이터

만화나 만화 영화를 그리거나 제작하는 사람이다. 어린이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었던 애니메이션은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막강한 시각 매체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위해서는 먼저 화면 구성에 필요한 장면들을 그리거나 제작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애니메이터이다. 가장 일반적인 셀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터의 작업 과정은 크게 원화, 동화, 연출, 채색, 배경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6 | 미술 및 디자인 전문 기자

대중 매체의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고 또한 세분화됨에 따라 미술 및 디자인, 패션 잡지가 대거 등장했으며 신문에도 미술과 디자인의 전문 섹션이 등장했다. 미술 및 디자인 전공자는 이러한 미술과 디자인 전문 기자로 일할 수 있는데 이들은 미술사와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와 이론을 겸비해야 하고 논리적인 글 솜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니 만큼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순발력, 기사에 대한 책임감과 기획력이 필요하다.

7 | 디스플레이어

디스플레이란 물건을 늘어놓는 것뿐 아니라, 공간에 위치하는 모든 구성 연출을 통틀어 일컬으며 사람, 물체 환경을 서로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어는 사람과 물체 환경을 서로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연출자라고 할 수 있다.

8 |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삽화는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메시지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다시 말해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지루하고 딱딱한 인쇄물에 그림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러스트레이션, 즉 모든 출판 인쇄물의 삽화, 컷을 창작하는 일러스트레이터는 크게 동화 부문과 저널리스틱, 광고 정밀 분야로 구분하며 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분석 과정을 거친 후 도안 작업에 들어간다. 이것은 표현할 때에 과장이나 축소, 정밀 묘사 등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각언어의 한 분야이다. 일러스트레이션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저작권법이 강화된 지난 1987년으로 아직까지 역사는 짧은 편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을 필요로 하고 그 역할도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현재 대다수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개발함과 동시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 | 요리 코디네이터

음식 문화가 변화 ·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같은 음식이라도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게 꾸며진 것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바로 음식을 시각적으로 연출하는 전문가인 요리 코디네이터이다. 요리는 종류마다 특색이 있고 때와 장소에 따라 차림새가 달라진다. 요리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서로 다른 분위기로 연출하여 먹는 즐거움에 보는 기쁨까지 더해 주어 미적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방송국의 드라마나 쇼, 오락 등의 교양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요리들이 이들 요리 코디네이터의 연출에 의한 것들이며, 이밖에도 여성 잡지, 사보, 요리 전문지, 요리 관련 카탈로그 제작 시 촬영에 필요한 요리 코디도 이들의 몫이다. 요리 코디네이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활동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재로선 특별한 양성 기관이나 교육과정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요리를 배우고 디자인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0 | 메이크업 디자이너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스스로 화장을 하기도 하지만 상업 · 예술적 필요로 행해지는 경우 이를 메이크업이라고 하며 이에 관한 전문가를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한다. 메이크업은 일반 미용에 관계된 메이크업과 드라마, 연극, 영화에서 배역에 걸맞게 이미지를 연출하는 분장으로 구분된다. 일반 메이크업은 화장 기법으로 대상자의 결점을 커버해 주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해 주는 것이다. 분장은 보통 영화, 연극 등에서 극중 인물의 특성을 강조해 주어 작품의 완성도와 호응도를 높여 주는 일이다.

11 | 인테리어 디자이너

주거 공간, 생활 공간, 상업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한다. 이들의 일은 공간 동선(작업 거리)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공간의 조명, 장식, 건축 소재 등 설계의 제반 요소들을 기획하여 인간이 생활하는 데 쾌적하고 효율적이며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교과서 단원평가

1 아래 제시된 인터뷰 내용에 해당하는 미술 관련 직업은?



- 질문: 미술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답변: 이미 기획된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제품의 내장 재료와 외장 재료를 개성 있게 디자인하는 일을 합니다.

① 조각가 ② 아트 디렉터 ③ 패션 디자이너
④ 일러스트레이터 ⑤ 패키지 디자이너

2 다음의 〈보기〉에 제시된 내용 중 직업 속 미술의 활용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사회봉사 분야의 특성상 미술과의 접목과 활용이 불가능하다.
ㄴ. 과학 · 의학 분야와 관련된 직업에서는 미술의 활용 사례가 없다.
ㄷ. 최근 문화 행정과 경제 분야에서도 미술 분야가 활용되고 있다.
ㄹ. 미술적인 창의력은 소비자 경제 분야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킨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미술 직업의 현장을 찾아가 인터뷰할 때 다음과 같이 인터뷰할 대상을 섭외하기 직전에 해야 하는 일은?

① 인터뷰할 대상 찾기
② 인터뷰할 대상 조사하기
③ 인터뷰 질문지 작성하기
④ 인터뷰 준비물 챙겨놓기
⑤ 인터뷰한 내용 정리하기



4 다음의 백과사전에서 찾아본 미술 용어는?

백과사전

검색

-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기획하고 작품 수집과 작가 섭외 등 미술관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① 도슨트 ② 미술 기자 ③ 큐레이터
④ 미술 경매사 ⑤ 복원 전문가

5 미술 관련 직업 체험 활동 시 작가의 현장을 직접 찾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서술하시오.

답 1⑤ 2① 3② 4③ 5 평가 도움 참조

평가 도움

1 | 이미 기획된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제품의 내장 재료와 외장 재료를 개성 있게 디자인하는 일은 패키지 디자이너가 한다.

2 | 최근에는 사회봉사 분야뿐 아니라 과학 · 의학 분야와 관련된 직업에서 미술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 | 미술 직업의 현장을 찾아가 인터뷰할 때 인터뷰 대상 섭외 전 인터뷰 할 대상을 반드시 꼼꼼하게 조사해야 한다.

4 |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기획하고 작품 수집과 작가 섭외 등 미술관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큐레이터라고 한다.

5 | 미술 관련 직업 체험 활동 시 작가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면 작업하는 모습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미술의 확장 | 미술과 통합



미술과 문학 그리고 문자의 어울림

교과서 pp.134~137

단원	미술의 확장 – 미술과 통합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미술과 문학의 관계와 미술 작품 속 문자의 활용에 관해 이해하고 표현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도화지, 채색 도구 등 다양한 재료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참고 작품을 제시해 미술과 문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 시대별 · 주제별 · 소재별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게 해 소재의 다양성과 표현 기법의 특징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한다. – 문학과 미술의 관계를 이해하고, 작품 감상을 통해 감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시대별 동 · 서양의 작품 감상을 통해 미술과 문학의 관계에 관해 충분히 생각하도록 제공한다.
전개	◎ 작품의 제작 과정 설명하기 – 책을 읽고 책 내용과 느낌을 담아 제목 글씨를 쓰도록 지도한다. – 다양한 표현 기법과 재료를 이용하여 작품의 느낌을 살리도록 지도한다. – 학생의 창의성이 돋보이도록 개별적으로 순회하며 지도한다. ⊙ 학습 활동 ⊙ 미술과 문학이 어우러진 작품 제작하기 – 자신이 좋아하는 시나 소설을 읽고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 감동받은 그림이나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을 선택하여 글이나 시로 옮겨 본다. – 문자를 활용하여 조형물로 제작해 본다.	· 평면과 입체 등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주제를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정리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자신의 작품의 제작 의도와 특징 등을 개인별로 발표한다. – 의도에 맞게 제작되었고, 재료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타인의 의견 및 작품을 공감하며 자신의 작품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평가 관점	• 미술과 문학의 관계와 미술 작품 속 문자의 활용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 문자를 활용하여 조형물로 제작할 수 있는가?	

● 단원 설정의 이유

문학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 시인 시모니데스는 그의 시행에서 "그림은 말 없는 시, 시는 말하는 그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술과 문학 두 예술의 표현의 유사성을 말하고 있는 이 문구는, '시는 그림처럼' 이라는 호라티우스(Horatius)의 유명한 표어와 함께 문학과 회화의 친밀성을 말하는 고전적 전거로 남아 있고, 그 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귀감이 되기도 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미술과 문학의 관계를 이해하고 통합해 보는 활동을 가지게 되었다.

● 학습 목표

이해	미술과 문학의 관계와 미술 작품 속 문자의 활용에 관해 이해한다.
표현	문자의 시각적 효과를 살려 조형물로 표현한다.
감상	미술 작품 속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문학 속에서 시각적인 이미지 감상을 통해 감성을 깨운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베르니니, 조반니(Bernini, Gian Lorenzo/이탈리아/1598~1680) 아폴론과 다프네(대리석/높이 229cm/1622~1624년 작)

1625년경에 제작된 '아폴론과 다프네'는 로마 보르게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높이 243cm의 대리석 조각이다. 이 작품을 제작한 미술가는 17세기 유럽 미술을 통틀어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나폴리 출신의 '조반니 로렌초 베르니니'이다. 베르니니는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조각가로서 뿐만 아니라 건축가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베르니니의 작품 '아폴론과 다프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베르니니는 큐피트의 화살을 맞은 아폴론이 다프네를 쫓자, 그녀가 월계수 나무로 막 변하고 있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대리석으로 빚어 놓았다.

태양의 신이자 활의 신이기도한 아폴론이 에로스의 활솜씨를 놀렸고, 이에 격분한 에로스는 두 개의 화살을 뽑아든다. 하나는 처음 보는 이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화살, 다른 하나는 처음 본 사람을 증오하는 증오의 화살이었다. 사랑의 화살을 뽑아든 에로스는 그것을 아폴론에게 명중시킨다. 사랑의 화살을 맞은 아폴론은 강의 신 페네오스의 딸인 다프네를 보게 되었고, 그녀에게 사랑에 빠져버렸다. 이에 에로스는 두 번째 화살, 증오의 화살을 뽑아 다프네를 향해 쏜다. 증오의 화살을 맞은 다프네는 아폴론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달아났고, 이런 다프네를 아폴론을 필사적으로 쫓아간다. 결국 아폴론의 품에 들어갈 위기에 처한 다프네는 아버지 페네오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는 자신의 딸을 월계수로 변화시킨다.

호가스(Hogarth, William/영국/1697~1764) 템페스트(캔버스에 유채/80×101.15cm/1735년경 작)

윌리엄 호가스는 로코코 시대의 영국의 화가이다. 주로 당시의 세인트 폼 대성당이 있던 시티 오브 런던에 성공적으로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 혹은 그 시대 뒷골목 사람들의 인간적인 절망을 그리고 있다. 호가스는 그러한 18세기의 영국 화단을 대표하는 국민적 화가이다.

템페스트는 1610년에서 1611년 사이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집필한 작품이다. 밀라노의 공작이었지만 동생에게 공국을 빼앗긴 마법사 프로스페로가 주인공이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캘리반과 에어리얼이란 괴물이 살고 있는 섬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처럼 문학은 미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미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김정희(조선/1786~1856) 세한도(종이에 수묵/23×108cm/1844년 작)

세한도는 조선 말기의 사대부 김정희가 1844년 제주도 유배지에서 수묵으로만 간략하게 그린 문인화이다.

1840년 윤상도 사건에 연루되어 지위와 권력을 박탈당하고 제주도로 귀양 온 김정희에게 사제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두 차례나 북경으로부터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역관인 우선 이상적(1804~1865)의 인품을 날씨가 추워진 뒤에 제일 늦게 낙엽지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에 비유하여 그려 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작가의 발문이 화면 끝부분에 붙어 있으며, 이어서 이 그림을 받고 감격한 이상적의 글이 적혀 있다. 그리고 1845년 이상적이 북경에 가서 그 곳 명사 장악진 · 조진조등 16명에게 보이고 받은 찬시와 함께 김석준의 글과 오세창 · 이시영의 배관기가 붙어 있어 긴 두루마리를 이루고 있다.

보충 자료

● **한국을 대표하는 조형 시인 '김환기'**



김환기(1913~1974/한국) **항아리와 시**(유채/89×130cm/1954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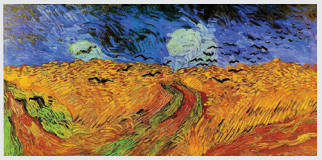
"저는 시방 꼭 텡인 항아리 같기도 하고 또 텡인 들녘 같기도 하옵니다. 초여 한동안 더 모진 狂風을 제 안에 두시든지 날르는 몇 마리의 나비를 두시든지 반쯤 물이 담긴 도가지와 같이 하시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시방 제 속은 꼭 많은 꽃과 향기들이 담겼다가 비여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_ 서정주 〈기도(祈禱)〉

꽃봉오리를 맺고 있는 매화나무 가지, 커다란 새우젓 독, 백자 항아리 등이 서정주의 시와 만나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활동 자료

● **미술을 문학으로 표현한 예**

〈어떤 그림 아래로〉
까마귀 뒤덮힌 보리밭 물결
어느 하늘의 푸르름인가?
아래인가? 위인가?
영혼에서 튕겨 나온 때 늦은 화살
보다 강렬한 울림보다 가까운
타오름 두 개의 세계



고흐/까마귀가 나는 밀밭(유채 /514×103.5cm/1980년 작)

고흐의 마지막 작품인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감상하고 독일의 한 시인이 쓴 시이다. 이 외에도 동서양의 많은 예술가가 서로의 예술을 감상하고 또 각자의 예술 언어로 표현해 왔다.



보충 자료

● 그림 문자



문자를 그림과 결합하여 장식적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조선 시대 문자도도 이에 속한다.

활동 자료

● 포스터 제작 과정



① 알리는 내용 정하기
② 표어 정하기
③ 구상하기
④ 그림, 문자 배치
⑤ 스케치하기
⑥ 표현하기
⑦ 완성, 감상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여태명(한국/1956~) 한글 삶(농기구, 먹, 혼합 재료/160×530cm/2010년 작)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이란 뜻이 Calligraphy(컬리그래피)는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서예 및 글자체의 상업용 디자인을 말한다. 컬리그래피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못했던 것이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생활 디자인이다. 컴퓨터 글의 딱딱함이 아닌 손맛에서 느껴지는 인간미의 매력은 브랜드CI, TV자막, 신문, 책제목, 영화 타이틀 등 거의 모든 상품 디자인에 사용되며 부각되고 있다.

문자도(종이에 채색/61×40cm/19세기경 작/조선)

글자의 의미와 관계가 있는 고사나 설화 등의 내용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자획(字畫) 속에 그려넣어 서체를 구성하는 그림으로 대개 병풍 그림으로 그려졌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러 민화와 함께 널리 유행하였다. 민간에서는 꽃글씨라고도 하며, 한자 문화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조형 예술로서 한자의 의미와 조형성을 함께 드러내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림이다. 유교적 윤리관과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사상이 반영된 효(孝)·제(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 등 여덟 글자를 희화(戱畫)하여 그린 그림으로 효제도(孝悌圖) 또는 팔자도(八字圖)라고 한다.

세레(Chret, Jules/프랑스/1836~1932) 오르로쥬 극장 지라르 공연 포스터(석판인쇄/57.6×42.6cm/1879년 작)

슈레는 현재 대중 매체 광고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1000점이 넘는 포스터 작품들을 제작한 위대한 작가라 할 수 있다. 위대한 작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건 슈레가 포스터 자체를 광

고 예술, 즉 상업적인 시각 예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수 미술로서의 대중 가까이 다가가 미술품을 친근하게 일상 속으로 끌어들인 점이다.

이응노(한국/1904~1989) 문자 추상(천 위에 채색/197×135cm/1974년 작)

이응노의 문자 추상은 동양의 서예 전통과 서양적 조형 구축의 방법이 어우러져, 민족성과 세계성, 전통성과 현대성,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원적 가치를 한 화면에 담아내고 있다.

플랜자(Plensa, Jaume/에스파냐/1955~) 지식의 집(스테인리스 스틸/높이 5m/2008년 작)

빛과 텍스트는 플랜자의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조형 요소이다. 텍스트를 이용한 작품 속에서 영어, 한자, 아랍어, 라틴어 등의 다양한 언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공 미술의 개념처럼, 다양한 언어들을 통하여 완성시킨 그의 작품은 나라 즉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다.

활 동 자 료

● **책 표지 디자인하기**



① 책을 읽고 내용과 느낌을 알기
② 책의 제목 정하기
③ 제목에 어울리는 글씨체와 색상 정하기
④ 그림과 문자 배치하기
⑤ 스케치하기
⑥ 표현하기
⑦ 완성, 감상

작 가 탐 구

이응노(한국/1904~1989)

이응노 만큼 동서양의 미적 감수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작가도 드물다. 동서양의 예술 정신과 표현 기법을 바탕으로 '군상 시리즈'와 '문자 추상' 이라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한국 현대 미술을 개척한 대표 주자였다. 우리의 민족적 정서가 녹아든 산하를 호방한 필치로 담아낸 수묵화부터 문자 차체의 기하학적인 형상들을 변형과 해체를 통해 재구성한 문자 추상, 문인화적인 단필로 군상의 움직임을 생동감 넘치게 포착한 군상 시리즈까지 이응노의 폭넓은 작품 세계는 보면 볼수록 흥미롭다.

이응노가 프랑스 파리로 진출한 1960년대 초기 당시에는 앵포르멜(2차 세계 대전 이후 정형화되고 아카데믹한 기하학적 추상에 반해 생겨난 서정적이고 주관적인 추상 운동)이 유행하고 있었다. 그도 그 영향을 받아 비정형적인 작품을 시도하게 된다. 이후 점차 동양의 문자 형상을 모티브 삼아 '문자 추상'에 몰두하게 되는데 이화백의 이러한 문자 중심의 콤포지션(composition)은 오랫동안 서예를 겸비한 작업 스타일에서 얻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자를 조형적으로 재구성한 예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많은 미술가의 관심사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응노 작가의 한국적 미학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추상화법의 구현은 매우 의미 있다.


군상(한지에 수묵 / 45×55 cm /1987년 작)

수많은 사람이 한데 엉켜 덩실덩실 춤을 춘다. 서로 손을 맞잡은 듯하면서, 이내 놓친 손을 다시 붙잡으려 꼬리에 꼬리를 문다. 마치 한 무리 집단이 모여 흥겹게 강강술래 놀이판 군무(群舞)에 심취한 것 같다. 큰 화면 속에 빽빽이 들어찬 사람들을 묘사한 기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재빠른 붓놀림으로 얻어낸 필선들이다. 일종의 드로잉 개념의 이 선들은 서예이면서 동시에 그림이다. 정형화된 격식과 비정형적인 자유로움을 한꺼번에 충족시키고 있다. 어떤 이는 '좀처럼 선택하기 힘든 파격적이고 놀라운 시도'라고 평가한다. 특히 서양의 유럽인에게 비친 이응로의 그림은 더더욱 예사롭지 않게 여겨졌다.

플랜자(Plensa Jaume/1955~/에스파냐)

플랜자는 지난 십 년간 공공 예술의 대표적인 작가로 국제적 명성이 나 있는 에스파냐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관람객과의 접촉이 단절된 미술관, 박물관의 작품들과는 달리 감상자들에게 열려 있다.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직접 작품과 소통하는 새로운 공공 미술 개념을 확립하였다. 그의 작품의 상당 부분은 에스파냐, 프랑스, 일본, 영국, 한국, 독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위의 사진은 플랜자의 대표적인 공공 미술 작품 중 하나로 뉴욕 메디슨 스퀘어에 설치된 '에코 Echo'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의 님프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으로, 공원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그의 대형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이며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에 위치한 'The Crown Fountain'이라는 작품이다. 1986년부터 공공 미술 작품을 시작한 플랜자는 처음엔 철, 석고 조형물 시리즈를 시작하였고 그 후, 빛과 텍스트가 적힌 부조를 작업에 포함시켰다. 2004년 설치된 이 작품은 최근에 새로운 재료들을 그가 작품 속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유리, 설화 석고, 플라스틱, 빛, 비디오와 음향 등이 포함된 이 작품을 시작으로 플랜자의 작품은 점점 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서예와 전각의 아름다움

교과서 pp.138~141

● 단원 설정의 이유

서예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아시아에서 약 3천여 년 간 지속되어 온 독특한 문자 조형 예술이다. 그러나 서예의 의의는 단순히 문자의 조형성만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니며, 글 속에 담긴 높은 사상과 성현들의 정신 등을 음미하여 자신의 인격과 문학성을 고양해 가는 데 있다.

이 단원에서는 서예와 전각의 예술적 특성과 가치를 이해한 후 자신의 개성을 담아 서예 작품을 제작해 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바탕 위에 자신의 개성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며 서예를 애호하고 활용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한다.

● 학습 목표

이해	서예와 전각의 예술적 가치와 조형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표현	서예의 표현 기법을 익힌 후 개성을 살려 표현할 수 있다.
감상	서예 작품을 감상하며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단원	미술의 확장 – 미술과 통합	**차시**	①②③❹⑤⑥⑧
학습 주제	서예와 전각의 예술적 가치와 조형적 특성을 살려 표현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교과서, 필기도구, 활동지, 문방사우(화선지, 먹, 서예 붓, 벼루)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지필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참고 작품을 제시해 서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 서예 기법이 디자인이나 광고와 영상 매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 사례를 보여줘 서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 서예와 전각의 특징과 의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개	◎ 서체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 서체의 종류와 서예의 특징을 감상과 교사의 설명을 통해 이해한다. ◎ 서예 용구와 자세(질필법, 완법) 익히기 – 서예 작품을 제작하는 모습을 영상 자료를 활용해 보여 준다. – 교사가 직접 집필법과 완법의 시범을 보이며 상세히 설명한다. – 서예의 표현 기법과 자세를 연습할 수 있게 하고, 순회하며 지도한다. ⦿ 학습 활동 ⦿ 한글 서예를 활용해 격언 표현해 보기 – 자신이 좋아하는 격언에 어울리는 서체를 연습하며 찾아본다.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작품의 제작 방안을 모색해 스케치한다.	· 집필법과 완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익숙해지도록 한다. · 서체를 연습하는 동안 교사는 서체에 적합한 집필법과 완법을 개별 지도한다.
정리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자신의 작품의 제작 의도와 특징 등을 개인별로 발표한다. – 한글 서체의 아름다움이 개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한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타인의 의견 및 작품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평가 관점	• 서예와 전각의 중요성과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자신의 개성을 살려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서예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 서예를 널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선조(조선/1552~1610) 선조어찰(부분/종이에 먹/41.4×29.6㎝/1609년 작/조선)

조선 제14대 왕 선조(재위 1567~1608)는 역대 왕 가운데 최고의 명필로 손꼽힌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왔던 중국 명나라 사신 또는 장수들이 그의 필적을 얻으려고 애를 썼을 정도였다. 이 어찰은 1603년 선조가 딸인 정숙옹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로, 한자를 섞어 써 그의 한문과 한글 글씨를 함께 볼 수 있는데, 해서체로 또박또박 쓴 것이 한문 필체로 한글을 썼음을 보여 준다. 선조의 한글 편지는 모두 딸들에게 보낸 것으로,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배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목판 인쇄/129.5×20.3㎝/1446년 작/조선)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거의 3년만인 세종 28년(1446년) 음력 9월 상한에 발행한 훈민정음 해설서인데, 하나의 책으로 된 목판본이다. 국보 70호인 이 책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자는 해행 서체, 한글은 돋움체 획형으로 나타난다. 한글 글꼴 특징은 자형을 정사각형에 가깝고 서선의 굵기가 일정하며 수평, 수직으로 서선 방향을 나타냈다.

순원왕후(조선/1789~1857) 순원왕후 언간(종이에 먹/19세기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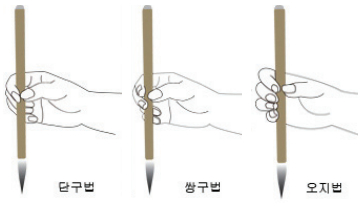
10년에 걸친 두 번의 수렴청정을 했던 순조의 비인 순원왕후의 언간(한글편지)에는 가족들의 안부와 집안 대소사를 묻는 사적인 내용부터 국정에 대한 자문 등 공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다. 순원왕후의 글씨는 한문 서체적 요소가 약간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궁체의 특징을 거의 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도 물 흐르듯 시원한 멋이 느껴지는 글씨체가 일품이다.

옥원중회연(부분/종이에 먹/조선 시대)

조선 시대 후기에 창작 소설을 한글로 직접 써서 꾸민 책으로 모두 21권으로 되어 있다. 이 책들을 모두 한글 궁체의 정자체와 흘림체로 붓으로 직접 써서 만든 필사본이다. 이 책의 정자체와 흘림체는 여러 궁체 필사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쓴 것들 가운데의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움이 뛰어나 서예 교본체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 **집필법(붓을 잡는 방법)**



단구법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붓대를 쥐고 나머지 손가락이 받쳐 주는 방법 (작은 글씨에 적합)
쌍구법	엄지와 집게, 가운데손가락으로 붓대를 쥐고 나머지 손가락이 받쳐 주는 방법 (중간 글씨와 큰 글씨를 쓰기에 적합)
오지법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네 손가락을 마주 모아서 잡고 쓰는 방법 (큰 글씨를 쓰기에 적합)

● **완법(팔의 자세)**



현완법	팔꿈치를 들고 쓰는 자세로, 팔의 움직임이 자유로움 (큰 글씨에 적합)
제완법	팔꿈치를 가볍게 내려 책상 위에 대는 자세(중간 글씨와 큰 글씨용)
침완법	붓을 잡은 손을 반대편 손등 위에 놓고 쓰는 방법(작은 글씨를 쓰기에 적합)

작가 탐구

강병인

최근 영화나 드라마, 책의 제목, 광고와 제품의 로고, 길거리 간판이나 음료수에는 강병인의 컬리그래피를 흔히 볼 수 있다. 디자이너였던 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컬리그래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10여 년 전 일본 여행에서의 경험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붓글씨로 쓰여진 수많은 간판들을 보면서 받은 자극과 영감을 토대로 언어학적으로 우수하다고 입증된 한글을 형태적인 면에서도 훨씬 멋지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특히, 평소 컴퓨터 서체가 사람의 다양한 감성까지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만의 한글 컬리그래피 창작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최고의 컬리그래퍼가 된 그는 앞으로 한글 글꼴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세계 속에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특히, 그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조형미 뿐 아니라 한글 창제 원리인 천지인을 살려 자연과 인간을 닮아 있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추사고택 (충남 지정 유형 문화재 43호)

조선 말기 문인화와 서예가로 이름을 널리 알렸던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태어난 추사 고택은 충남 예산에 위치하고 있다. 추사 고택은 서예가의 집답게 방마다 편액(널빤지나 종이 · 비단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문 위에 거는 액자)이 걸려 있다. 추사가 좋아하는 글귀들은 주련(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 붙이는 글씨)으로 눈길을 끈다.

모든 글씨를 섭렵한 추사는 자신만의 글씨체를 고안했는데, 그게 바로 추사체이다. 추사 고택에 걸려 있는 수많은 추사체 편액에는 추사의 뜻과 사상이 담겨 있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갑골문

중국 은나라 때 것으로 추정되는 갑골문은 거북 배껍질과 소의 어깨뼈에 새긴 글자이다. 그래서 거북 배껍질을 나타내는 갑(甲)과 소뼈의 골(骨)을 합쳐 갑골문이라 하고 이는 가장 오래된 한자이다. 은나라의 남은 터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은허 문자라고도 말한다. 여기에 새긴 글은 복사, 즉 점을 친 후 그 결과를 적은 것이었다. 고대에는 점을 칠 때 신에게 묻는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하면서 거북의 배나 소의 어깨뼈를 인두로 지져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 갑골이 열을 못 이겨 쩍쩍 갈라지면서 소리를 냈다. 점치는 사람은 갈라진 금을 보고 하늘의 응답을 읽었다. 그러고 나서는 갑골 위에 점칠 때 하늘에 물은 내용과 응답을 칼로 새겨 보관하였다. 갑골문의 내용은 제사와 농사, 전쟁과 수렵에 관한 것이 가장 많고, 그 밖에 왕의 통치나 질병, 재앙에 관한 질문도 있다.

김정희(조선/1786~1856) 신안구가(종이에 먹/39.3×164.2㎝/19세기 작)

충남 예산에 있는 추사 고택에 걸려있는 편액(널빤지나 종이 · 비단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문 위에 거는 액자) 중 하나이다. '신안구가(新安舊家)'의 뜻은 새롭고 평안한 옛집으로 해석되지만, 본래의 의미는 주자학을 깊이 공부한 오래된 집이란 뜻이다.

김생(통일 신라/711~791) 송하빈객귀월(부분/탁본/통일 신라 시대 작)

통일 신라 시대 명필 김생이 이백의 칠언시 '송하빈객귀월'을 쓴 글씨이다. 서예 역사에서 화두가 된 두 성인이 있는데, 중국이 왕희지라면 한국에는 김생이 있다. 김생은 통일 신라 이전의 삼국 글씨를 토대로 왕법과 당법을 하나로 녹여 한국 서예의 법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글씨 공부에 힘을 쏟아 최고의 서예가로 이름을 날린 그는 고려 때 송나라에 알려

져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서예가인 왕희지보다 더 잘 쓴다는 칭송과 함께 해동서성(海東書聖)이라고 불렸다.

김홍도(조선/1745~?) 담락재(서각/41×97㎝/1700년대 후반 작)

단원 김홍도가 1786년 안기 차랑 직책을 마치고 한양으로 가다가 예안 이씨 가문의 부탁으로 경부 안동 풍산읍에 자리한 정자 체화정의 서재에 '담락재'라는 편액을 썼다. '담락'은 고서에서 따온 말로 현제, 친구 간에 화락하여 진정으로 즐긴다는 뜻으로 '당당하게 즐기는 서재'를 의미하고 있다. 이 현판에는 간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골격을 지닌 김홍도의 붓놀림이 잘 담겨 있다.

김정희(조선/1786~1856) 부작란도(종이에 수묵/55×30.6㎝/19세기 작)

조선 후기의 화가 김정희의 묵란도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림으로 불이선란이라고도 불린다. 세한도와 더불어 문인화의 정수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 김정희의 전형적인 난 그림과 글씨가 동시에 한 화면에 잘 나타나 있다. 오른쪽에 힘차게 솟아 굽어진 난초를 화면의 중앙에 그리고 주변의 여백에 글씨를 써 넣었다. 주위 여백에 추사 특유의 강건하며 활달하고 가식 없는 필체로 쓴 화제가 가득하여 그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예 작품인 것처럼 보인다. 제시에서 김정희는 여백을 꽉 채운 짙은 먹으로 쓴 글씨들에 눌려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담묵의 난초를 예서와 초서로 그렸다고 적고 있다.

● 전각의 종류


성명인

· 용도: 호를 새긴 도장
· 기법: 음각 기법으로 새겨 백문인이고, 모양은 정사각형이다.


아호인

· 용도: 호를 새긴 도장
· 기법: 양각 기법으로 새겨 주문인이고, 모양은 정사각형이다.


사구인

· 용도: 좋은 글귀를 새긴 도장
· 기법: 양각/음각 혼용이며 모양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 많다.


초형인

· 용도: 문자가 아닌 그림을 새긴 도장
· 기법: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문자와 혼용해 새길 수 있다.

● 전각의 재료과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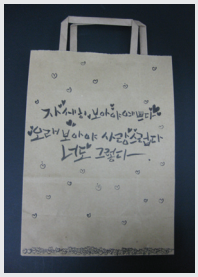


인재	전각용 인장의 재료
인고	새겨 넣을 글씨
인도	전각에 새기는 칼
인상	인재 고정용 나무틀
인주	전각을 찍을 때 묻힘
인구	위치를 바로 잡는 자

① 인재(인장)의 면을 사포로 갈아 판판하게 다듬는다.
② 인고(새길 글씨)를 반투명한 종이에 도안한다.
③ 도안을 뒤집어 인주를 칠한 인면에 옮긴다.
④ 인재에 인도로 새긴다.
⑤ 새긴 것을 찍어 보고 다듬은 후 화선지에 찍는다.

활 동 자 료

● 컬리그래피를 적용한 쇼핑 백 디자인



① 구상: 쇼핑 백에 어떠한 문구를 넣을지 정하고 문구 내용과 서체를 구상한다.
② 제작: 결정한 서체를 다양한 크기와 이미지로 디자인 후 쇼핑백에 적용한다.
③ 감상: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오은수(학생 작품) **컬리그래피를 적용한 쇼핑백 디자인**(종이 가방 / 20×10×20cm/2013년 작) 쇼핑백에 평소 좋아하던 문구의 긍정적인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 밝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는 서체로 디자인해 적용했다.

심 화 자 료

● 삼족오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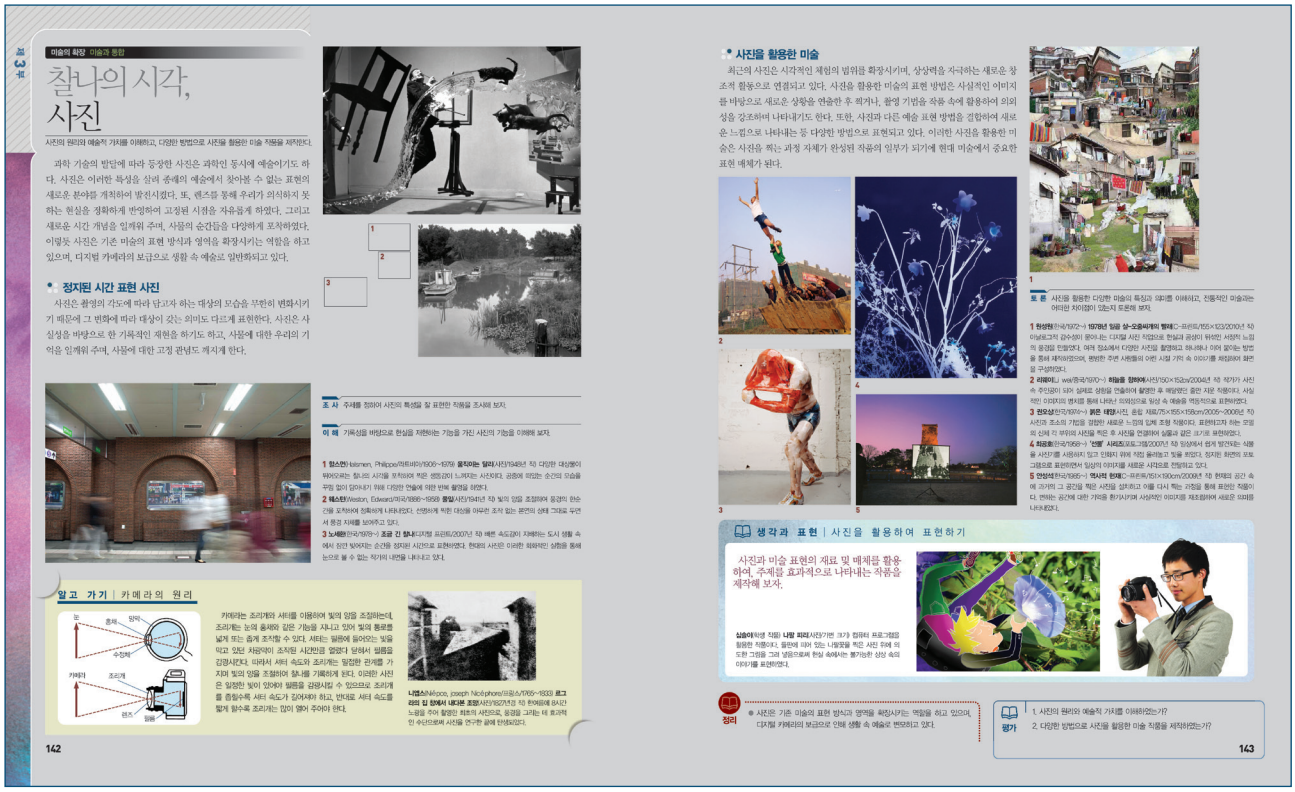
삼족오 직인은 전각 예술가인 정병례(사진)씨가 백두산 돌을 깎아 제작하였다. 직인의 밑바닥에는 막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듯 날갯짓을 하는 삼족오와 태양, 그리고 'Ban Ki-moon Secretary-General The United Nations(유엔 사무총장 반기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옆면에는 '三足烏는 전설 속의 새다. 태양 속에 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의 메신저다. 세계 평화와 안녕을 안겨 줄 행운의 나래를 펴는 삼족오'란 글귀를 넣었다. 이 직인에는 고구려의 상징인 삼족오처럼 반 총장이 세계에서 널리 뜻을 펼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보 충 자 료

● 컬리그래피 제작 과정



① 컬리그래피로 표현할 대상과 표현 목적을 분석한다.
② 브레인스토밍 해 표현할 문구나 키워드를 정한다.
③ 문구에 어울리는 형태와 느낌 등을 적어 본다.
④ 본 작업 전 스케치를 해 구도와 분위기를 정한다.
⑤ 컬리그래피용 펜으로 종이에 직접 써 본다.
⑥ 완성된 컬리그래피 이미지를 스캔해 포토샵으로 정리 후 디자인에 적용한다.



찰나의 시각, 사진

교과서 pp.142~143

● 단원 설정의 이유

사진의 발명 이래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진은 사회 전 영역에서 이미지 생산 방식과 그 활용 범위를 무한하게 확장하고 있다. 사진 매체는 기존 문자 중심 소통 방식에서 이미지가 정보의 주요한 전달 매체로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시각 예술의 영역에서 시각 문화의 경향이나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진 매체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단원에서는 사진의 기록성을 바탕으로 현실을 재현하는 기능을 가진 사진의 기능을 이해하고 전통적인 미술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구성하였다.

● 학습 목표

이해	사진의 원리와 예술적 가치를 이해한다.
표현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을 활용한 미술작품을 제작하고 창의적으로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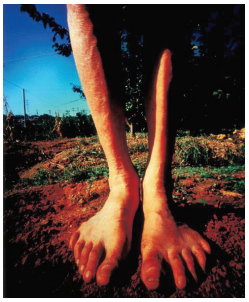
단원	미술의 확장 – 미술과 통합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사진의 원리와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을 활용한 미술 작품을 제작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교과서, 실습 자료, 활동 표현 재료 등		
수업 모형	이해 및 감상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감상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사진의 의미를 설명하고, 수업 목표를 제시한다. – 사진을 응용한 예술 작품은 미술이 현대 사회와 과학이 조화되어 발전된 결과물임을 제시한다.	· 사진 매체의 기본 원리를 알고 표현 방법의 특징을 이야기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한다.
전개	◎ 정지된 시간 표현 사진 – 기록성을 바탕으로 현실을 재현하는 기능을 가진 사진의 기능을 이해한다. – 주제를 정하여 사진의 특성을 잘 표현된 작품을 조사해 본다. ◎ 사진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 사진과 미술 표현의 재료 및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작품을 제작해 보자. ◎ 사진을 활용한 미술 – 사진을 활용한 다양한 미술의 특징과 의미를 이해한다. – 전통적인 미술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토론한다.	· 사진기의 기본 원리와 구도 및 작가 의도와 의 관계성에 대해 설명한다. · 사진과 미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보여 주며 그 관계를 설명한다. ·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과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정리	◎ 활동지 작성하기 – 사진은 기존의 표현 방식과 영역을 확장하게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해 생활 속 예술로 변모하고 있다.	· 작가의 창작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참여로 작품이 완성되는 현대 미술의 다양성을 이해시킨다.
평가 관점	• 사진의 원리와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였는가? •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을 활용한 미술 작품을 제작하였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사진의 탄생과 회화

사진의 서양식 원어인 포토그래피란 단어는 '빛'이라는 뜻의 포토와 '그린다.' 또는 '쓴다'의 의미를 가진 그래피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의미이다. 처음 발명되었을 때 사진은 발명가의 이름이나 취향에 따라 헬이오그래피, 다게레오타입, 칼로타입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영국의 천문학자이며 과학자로서 초기 사진술의 체계를 배우는 데 많은 업적을 남긴 존 허셀이 포토그래피를 처음 사용하면서 유포되었다.



이경수(1961~/한국) **과수원**(사진/144×111cm/2000년 작)

핀홀카메라로 찍은 아버지 얼굴의 주름과 그의 몽에 새겨진 노동의 흔적이 나타난다.

사진 매체의 특성

촬영은 곧 표현이고 정보이다.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촬영은 끝난다. 이때 찍혀진 영상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이며, 다시는 똑같이 찍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장면이 되는 것이다. 사진은 단순한 공간의 포착이라기보다 항상 변화하는 현실 공간 연장선에 있는, 움직이고 있는 장면의 포착이다. 움직임을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움직임이 있다고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덕현(1957년 출생/한국) **리플랙션 리플랙션**(사진/2011년 작)

역사적 단면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을 통해 객관성을 얻고, 이를 배경으로 그 시대의 주관적인 순간을 현재와 연결하는 작업이다.

사진 매체의 영역 확장과 개념의 변화

오늘날 미술에서는 더는 장르나 매체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타 매체와의 적극적인 융합, 차용 부분적 활용과 같은 다양한 양상으로 사진 매체는 미술 영역의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사진의 의미는 사진을 찍은 작가의 창조적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사진과 연관된 맥락, 그것이 속해 있는 체계, 활용되는 방식, 읽히는 방식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예술에서 우리가 사진에 주목하여야 할 점은 사진의 순수함, 솔직함, 리얼리티, 기록성과 같은 것에 좀 다른 관점을 취해야 할 것이다.



스코클런드(1946~/미국) **파리에 있는 고양이**(사진)

뉴웨이브의 출현은 사진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킨 것으로서 기존의 '찍는다', '촬영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사진의 의미를 '만든다'로 변화하게 했다.

의도된 회화로서의 사진

이명호(1975~/한국) 사진 작품은 실제의 어떤 공간 속에 낯선 평면의 흰 공간 하나를 만들고 그 안에 나무를 위치시킨다. 마치 고립된 섬처럼, 나무가 있었던 원래의 공간과 나무 사이에 인위적 공간을 만든다. 이 개입을 통해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존재와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Tree #1(2005년 작)



Tree #2(2006년 작)
디지털 프린트



Tree #3(2006년 작)

● 현대 미술 속 사진 매체

1. 사진의 포스트모던

사진의 매개로 콜라주, 몽타주, 실크 스크린, 차용, 변형과 같은 갖가지 평면 작업에 사진의 특징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장르 간 폐쇄성에 대한 반발로 사진 매체가 자주 이용되고 있음을 말한다.



뒤샹/샘(변기/사진)

2. 차용과 변용

사진은 만들어진 것이 아닌 취해진 것의 속성으로 원천적으로 복제성을 내재하고 있다. 반복과 복제성 변용, 차용과 같은 가치들을 일깨운 사진의 매체적 특성은 그간 상업적 이유로 평가 절하되었던 사진의 열등한 위치를 극복하고 이를 새로운 포스트모던 적 매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호크니/파리 퓌르스탕베르 광장(포토콜라주/985년 작)

3. 행위의 기록(연출적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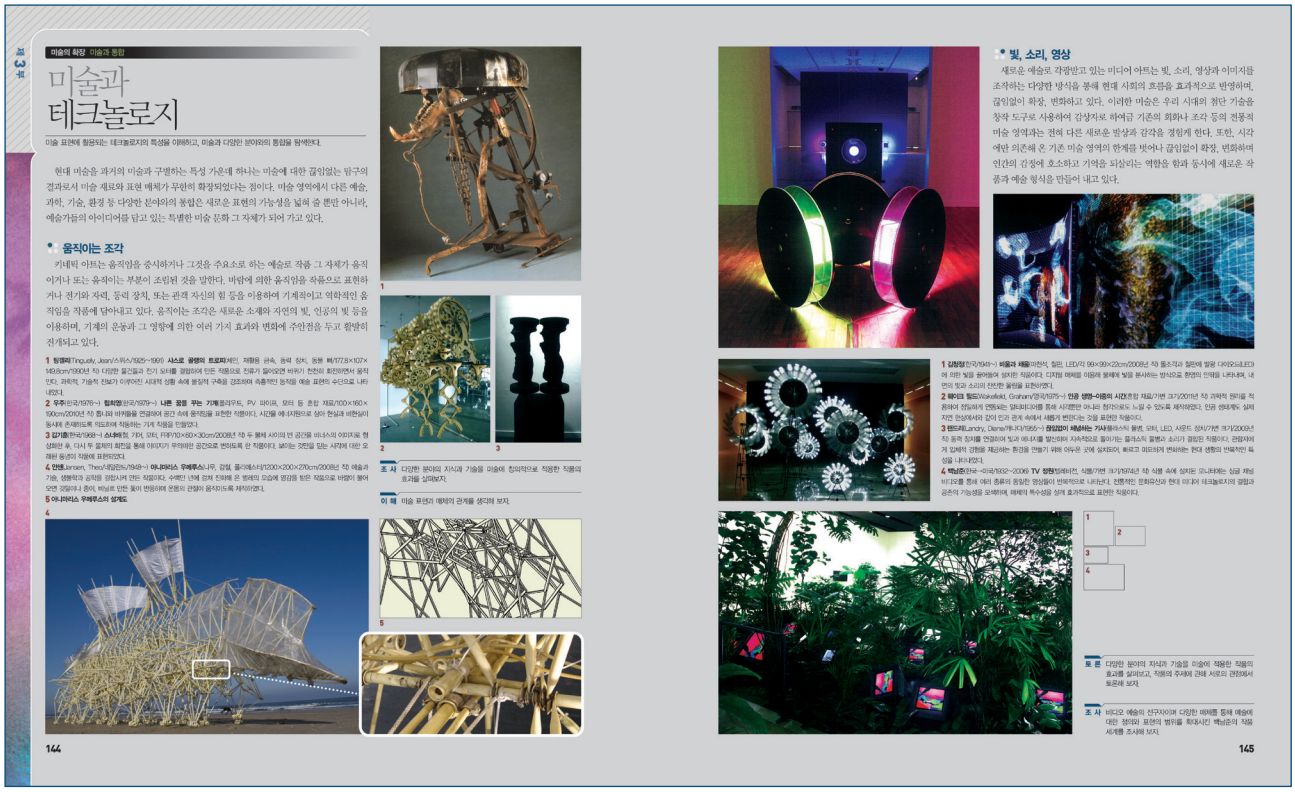
퍼포먼스, 해프닝, 연출 등의 행위 전반을 포함한 예술가의 과정의 결과물로 사진 매체가 두드러진 현대 미술의 한 경향이 된 것은 행위와 참여의 포스트모던 적 속성이 사진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한다.

4. 사진 영역의 확장

팝 아트가 사진에 미친 영향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혼합 매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다양한 양상이 사진 매체의 확장성을 열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사진은 탈 장르의 모습으로 점차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5. 사진 매체의 유형학적 접근

예술 영역에서 말하는 '유형학적 사진'이란 용어는 '유형학'이란 어감에서 나오는 개념과는 조금은 다른 유형일 수 있다. 마치 과학적으로 분류나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의 자료, 통계를 위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유형학적 사진'이란 용어를 도입시킨 베른트와 힐라 베허가 확립한 스타일에서 오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술과 테크놀러지

교과서 pp.144~147

● 단원 설정의 이유

과학 기술은 인류가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계속 발전되어 왔다. 예술과 과학 모두 기술이라는 연결점을 갖고 있기에 이들이 더욱 멀어지는 것보다 예술과 과학이 함께 열어갈 앞으로의 미래가 더 많다.

이 단원은 테크놀로지와 예술이 접목한 다양한 작품을 탐색하며 학습자의 비평적 사고와 이에 따른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학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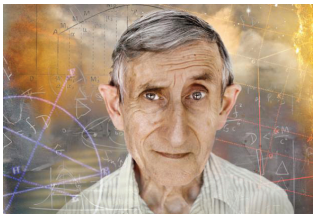
이해	미술 표현에 활용되는 테크놀로지의 특성을 이해한다.
탐색	미술과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탐색한다.

단원	미술의 확장 – 미술과 통합	차시	①②③❹⑤⑥⑧
학습 주제	미술 표현에 활용되는 테크놀러지의 특징을 이해하고, 미술과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탐색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교과서, 실습 자료, 활동 표현 재료 등		
수업 모형	이해 및 감상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감상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현대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표현을 사용한 작품을 찾아본다.	· 현대 작품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도록 교과서 외 참고할 자료를 제시한다.
전개	◎ 움직이는 조각 –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미술에 창의적으로 적용한 작품의 효과를 살펴본다. – 미술 표현과 매체의 관계를 생각한다. ◎ 빛, 소리, 영상 –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미술에 적용한 작품의 효과를 살펴보고, 작품의 주제에 관해 서로의 관점에서 토론한다. –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술에 대한 정의와 표현의 범위를 확대한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조사한다. ◎ 테크놀로지 작품과의 소통 – 섬세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감성적인 상호 작용을 창출함으로써 차가운 기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도록 제작한 작품의 의도를 이해한다. ◎ 미술의 경계를 넘어 – 가상 현실	· 백남준의 작품을 보고 이전과 미술 작품과 미디어를 이용한 다른 표현을 발견하도록 지도한다. · 작품의 주제와 표현 특징을 찾아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리	미술을 중심으로 다른 예술, 과학,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은 표현의 가능성을 넓혀 주며, 새로운 미술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작가의 창작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참여로 작품이 완성되는 현대 미술의 다양성을 이해시킨다.
평가 관점	• 미술 표현에 활용되는 테크놀러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미술과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탐색하였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과학과 예술의 관계



프리먼 존 다이슨(1923~/영국)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과학과 예술이 유사하다는 말은 '창조'와 '행위'에 관한한 매우 유효하다. 창조라는 점에서 둘은 매우 비슷하다. 장인의 경지에 이른 창조 행위가 주는 미적 쾌감은 과학 분야에도 대단히 강력하다.'라고 하여 많은 과학자와 예술가 그리고 철학자의 입을 모았다. 과학자와 예술가의 사고 과정이 놀랄 만큼 흡사하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공통 부분이 많다. 과학자들이 '공통적인 문제 해결법'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예술가들은 '공유된 영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과학이든 예술이든 모든 '해답'은 같은 창조 행위를 통해 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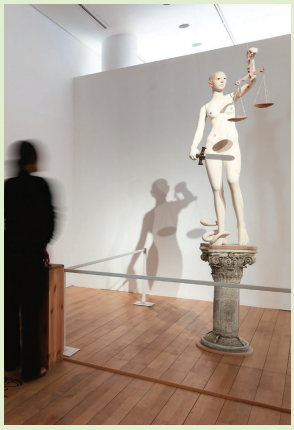
테크놀로지와 시각 예술의 변화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문화 양상에 변화를 가져왔고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화되었다. 과학은 지적 능력을 갖추는 이성의 영역으로 보지만 예술은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갖추는다고 보기에 예술은 과학과는 무관하며 반대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술과 과학은 더불어 발전하고 변천해 왔으며 삶에 필요한 지식의 유형도 달라졌고 예술의 영역도 변화되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에 따라 뉴매체 예술의 작가들은 현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등 통하여 관객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예술과 기술의 만남

디지털 예술의 전위성은 테크놀로지가 예술 창작 과정에 개입하는 방식 지체의 전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테크놀로지를 사용함으로써 예술이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몸이나 고전적인 악기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센서 테크놀로지나 컴퓨터 그래픽,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가능하게 하는 실천들은 미학적 전위성을 획득할 수 있다. 예술이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디지털 예술의 편재성 역시 예술과 기술의 통섭의 특별한 미학적 특성이다.

중력과 시간 움직이는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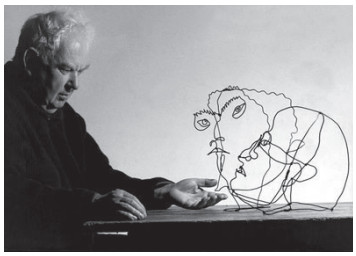


관람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작업은 그 참여가 관람의 동선이나, 애초에 기획된 작업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 참여에 머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리적이고 제한적인 참여가 과연 관람객과 작가의 작업을 이어주는 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는 상호 작용성을 의도하는 미디어 작업에서 여전한 딜레마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작가의 고민과 노력과 비교하면, 관람객에게 신기한 재미를 주는 데까지만 소통하는 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작품 자체가 움직임을 갖는 것은 현대 미술에서 그다지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움직임이 공간 자체를 점유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은 오히려 현대적 속도를 가시화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전시 제목의 한 부문이었던 '중력'은 시간과 비교하면 존재감이 덜해서, 상대적 관계에 대한 움직임 정도로 이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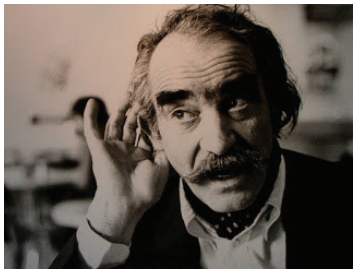
● **키네틱 아트 작가**

1. 알렉산더 칼더(1898~1976/미국)



조각가였던 아버지와 화가였던 어머니의 예술적인 영향으로 5살 때부터 철사와 나무토막으로 자신만의 장난감을 만들었다. 더 나아가 8살 때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아 누나의 인형에 부착할 보석들을 제작할 정도로 꾸미기와 조립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2. 장 팅겔리(1925~1991/스위스)



창고 관리인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기계와 접할 시간이 많았다. 그가 인기가 많았던 것은 재치, 매력, 풍자성, 그의 목표에 대한 정직함 때문이었다. 그가 고려한 기계의 운동은 논리적으로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부속품들이 기계와 함께 예측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3. 마르셀 뒤샹(1887~1968/프랑스)



여섯 남매 가운데 두 형은 아버지가 반대하는 예술가가 되었는데 바로 화가 자크 비용과 조각가 레이몽 뒤샹 비용이다. 누이 수잔도 화가가 되어 나중에 화가 남편 장 크로티와 함께 다다에 동참했다. 어려서부터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관심은 후에 기계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로 발전하게 되었고, 사상 처음으로 레디메이드 개념을 창조하게 되었다.



● 체험 전시

체험이란 개개의 주관 속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의식 내용이나 의식 과정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경험이라는 것이 대상과의 얼마간의 거리를 두는 개념인 데 반해 체험은 대상과의 직접적이고 전체적인 접촉을 의미한다였다. 전시에서의 체험이라 함은 관람자의 직접 · 간접적인 참여나 행위를 통해서 전시 의도를 전달받거나 이해와 인식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전시 분류

1. 체험형 전시

눈으로만 보는 전시가 아닌 오감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체험을 유도하는 전시

2. 상호 작용적 전시

관람객의 능동적인 반응과 행동을 유발하여 전시품에 대한 반응과 결과를 통해 지식과 원리를 탐색하도록 하는 전시

3. 참여식 전시

재미있는 구성으로 일상생활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하여 관람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전시

4. 재미있는 전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전시

5. 마음을 움직이는 전시

인간의 지각 능력을 확장하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전시

교과서 속 작품 해설

가상 현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실재성과 가상성의 혼용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의 지각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을 포함한 가상 현실의 이미지는 여러 학자의 견해들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가상 현실'이라는 용어는 1989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가상 현실이란 컴퓨터로 합성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기술이다.

1. 현존: 컴퓨터 세계 속으로 몰입하는 것
2. 인터랙션: 가상의 대상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
3. 다감각 인터페이스: 대상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

상호 작용성

대화적 혹은 쌍방향적 상호 작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호 작용은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이나 사물 등과 하는 모든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매체를 상호 작용적이라 할 수 있다. 관람자와 작품 간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참여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 작품과 수용자 간의 상호 작용성은 현대 미술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사이보그와 결합 방식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는 가상 공간,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새로운 공간을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무대로 옮겨 놓았다. 이러한 공간이 탄생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했던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의 기존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대면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우메 플렌사(Jaume Plensa)



플렌사(에스파냐/1965~)

에스파냐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작가로 그의 작품은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에 설치된 대형 분수 작품과 문자를 이용한 인물 조각으로 유명하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크라운 분수'는 2004년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에 설치된 대형 분수로 LED 스크린을 통해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천명의 평범한 시민의 얼굴을 다양하게 보여 주어 쟁점이 되었다.

문자는 그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토론토 국제 공항에 설치된 '하나'란 작품과 런던 BBC 건물에 설치된 '호흡'이란 작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크라운 분수를 기점으로 대표적인 미디어 예술 작가로 부상한 플렌사는 게이츠 헤드에 있는 블레이크나 동경 다이칸야마에 설치된 벤치의 역할도 함께하는 스트리트 퍼니처 작품인 '칠복신' 등 다양한 공공 미술을 선보였다.



어바-누리아(혼합 재료/2010년 작)



나무의 심장(혼합 재료/2007년 작)

자연과 만난 매체 예술_이현진(1976~/한국)

다리(Bridge)는 한 계곡에서의 나의 경험을 상황적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한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작업이다. 계곡의 징검다리, 그곳에서 노는 아이들, 그들이 비치는 물의 반사, 햇빛의 반짝임, 다리 위의 행인들의 대화 소리와 카메라 소리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다리의 상황을 하나의 연극적 무대처럼 제시하고 있다. 갤러리에 설치된 다리는 관객에게 나의 경험을 매개하여 마주하게 하는 장소가 되는 동시에, 그들에게 또 다른 그들의 새로운 경험과 기억을 이끌어 내게 하는 장소가 되며, 과거와 현재, 나와 그들, 그리고 우리, 기억과 추억 혼재된 우연적 만남을 의도하고자 한다.









다리(비디오 설치/2009년 작)

● 크라운 분수

새로운 천 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 내에 있는 영상 분수이다. 에스파냐의 개념 예술가인 하우메 플렌사가 디자인하고 2006년 완성하였다. 제작을 위해 천만 달러를 기부한 레스터 크라운의 이름을 따서 분수의 이름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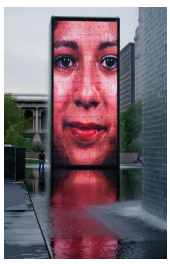
검정 화강암으로 된 광장 양쪽에 유리 블록으로 만들어진 15m 높이의 기둥 두 개가 세워져 있다. 각 기둥의 앞면에는 발광 소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스크린에서는 1,000여 명의 시카고시민의 표정 애니메이션과 자연 경치가 번갈아 나오고 화면 속 인물의 입에서 물이 나오도록 한 것이 인상적이다.

시카고 시민의 영상을 통해 다양한 나이와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시카고의 특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관람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작품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공 미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증강 현실

현실 세계에서 가장 오브젝트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가상의 공간과 물체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가상 현실과 다른 점은 그 기반이 현실 세계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는 얻기 어려운 정보들을 가상은 아이콘과 텍스트를 포함한 모든 이미지 합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

우리 삶 속으로 녹아드는 유비쿼터스 시대와 스마트폰의 등장, 그리고 사람과 실제를 결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증강현실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즐김에 있다.


미술의 확장 미술과 융합

활동 사진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생활 속 사진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고, 개성적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주변의 매체를 활용하여 미술 작품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사진은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거나 이미지를 변형시키고, 사진을 재료로 다른 작품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이다. 사진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인 미술 작품을 제작해 보자.

사진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사진의 촬영 기법과 이미지의 변형 및 합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생활 주변의 다양한 매체와 사진 이미지를 통합하여 새로운 형식의 미술로 표현해 보자.

매체를 활용한 작품 제작 활동지

1. 작품 제목
2. 작품의 재료
3. 제작 의도
4. 제작 방법
5. 자기 평가

정리 ● 주변의 매체를 활용하여 미술 작품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우리의 생활을 중요롭고 개성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다.

평가 생활 속 사진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

148 149

● **사진의 분류**

1. 창작 사진

작가의 촬영 의도가 반영된 것을 흔히 예술 사진 또는 순수 사진이라고 불린다. 작품, 다큐멘터리 사진 기록의 사진을 뜻하며 사회 생활을 풍자적으로 파악하여 기록하거나 진실하게 입증하는 사진을 말한다.

2. 기념 사진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상기할 목적으로 삼기 위하여 가족이나 친구 등 관련된 인물들을 예술적 목적이 아닌 기록에 의해 찍은 사진을 말한다.

3. 여행 사진

가족, 친구 등 여행 중에 자신이 보고 느낀 일들을 인물과 풍경을 담는 기록적인 사진을 말한다.

4. 광고 사진

상품의 홍보나 기업의 이미지 광고, 사회적인 공익광고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진을 말한다.

5. 과학 사진

현미경 사진, 천체 우주 사진, 적외선 사진 등을 말한다. 자연 과학이나 과학 기술 분야의 실험 자료를 위한 기록 사진을 총칭하여 과학 사진이라고 한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사진 매체의 특성과 표현 방법

사람의 눈보다 진보한 듯한 렌즈의 실제 상황은 온갖 매체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으며 복제 예술의 한 장르로서 다양한 기록 매체의 시발점이 되었다. 갈수록 다양화되는 예술 영역 속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흐름을 보여 주고 사진의 역할은 쓰이는 역할과 표현에 따라 올바른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이 어떤 장르의 예술보다도 대상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광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는 기계의 것이라는 데 있고 기계의 눈을 통해 들어온 상은 카메라의 독자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정확하게 재현되기 때문이다. 촬영은 곧 표현이고 정보이다.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촬영은 끝난다. 이때 찍혀진 영상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이며, 다시는 똑같이 찍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장면이 되는 것이다.

연필 대 카메라 프로젝트_하이네(Heine, Ben/벨기에/1983~)

그의 '연필 대 카메라' 프로젝트는 그림과 사진을 동시에 한 장면으로 융합하여, 상상과 현실을 혼합한 작품이다. 사진과 그림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면서 절묘한 조화를 주는 작품들이 보는 즐거움을 더해 준다. 하이네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시각적 개념이다.



사진 영역의 확장

사진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탈-매체적 성향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는 곧 시대가 사진으로 하여금 더는 사진 속에만 머물지 않는 형태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팝 아트가 사진에 미친 영향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혼합매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다양한 양상의 사진 매체의 확장성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사진은 탈 장르의 모습으로 점차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매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상에 대한 새로운 지각을 통한 방법론에서 개념 미술의 언어적인 속성은 사진 매체의 기록적 속성과 맞물려 새로운 시각 언어 양식을 만들어 낸다.

개념 미술에서 사진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이러한 서로의 상충적인 관계를 반영한다. 세상을 언어적인 코드로 생각했던 개념 미술가들의 색다른 재현에서 사진은 새로운 방법론의 영역을 가져다 준 것이다.



쓰레기와 빛을 이용한 작가(팀 노블과 수웹 스터/영국)

평면의 사진을 입체 조각_권오상(한국/1974~)

제작 방식은 모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분으로 나누어 사진으로 촬영한다. 압축된 스티로폼의 일종인 아이소 핑크를 실제 사람 크기로 형태를 조각한 후 그 위에 사진을 차례로 붙여 평면인 사진을 입체로 표현한다.



사진, 혼합 재료/142x141x285cm/2012년 작



사진, 혼합 재료/207x194cm/2012년 작

● 카메라의 기능

1. 셔터

노출 시간을 조절하는 기구로 사진을 찍는 순간을 결정한다.

2. 노출

빛이 들어오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센서에 셔터와 조리개를 이용하여 빛을 작용시키는 것으로 노출이 적으면 어두운 사진, 노출이 많으면 밝거나 하얗게 뜬 사진이 나오게 된다.

3. 셔터 스피드

빛을 받아드리는 순간의 시간을 조절하며, 적당한 셔터 스피드를 유지하여야만 들고 찍어도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 촬영하는 동안 셔터막이 열렸다 닫히는 순간의 시간을 의미한다.

● 카메라 렌즈

1. 망원 렌즈

멀리 있는 대상을 가깝게 찍기 위해 사용되며, 인물 사진의 경우 원근감을 풍부하게 나타내기 위해 망원 렌즈를 사용하기도 한다.

2 단 렌즈 줌

기능이 없는 고정된 화각의 렌즈로, 줌 기능이 없으므로 촬영자가 움직여서 거리를 맞춰야 한다. 줌렌즈보다 화질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3. 광각 렌즈

표준 렌즈보다 초점 거리가 짧은 렌즈를 말하며, 풍경 사진 촬영 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배경은 작게 찍히므로 원근감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4. 디지털 줌

광학 줌과 달리 렌즈와는 다른 것으로 카메라 센서에서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 화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카메라 용어

1. 화소(픽셀)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화소 수가 많을수록 정밀하고 상세한 화면을 얻을 수 있다.

2. ISO 감도

이미지 센서가 빛에 반응하는 정도를 말한다.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찍을 경우 ISO 감도를 높여 사진을 찍는데, 감도가 높아지면 노이즈가 커져 사진의 품질이 저하된다.

3. 노이즈

빛이 부족하거나 빛을 받는 소자가 작은 카메라에서 발생하며 입자가 거칠어지거나 모래 같은 무지개 현상이 나는 증상을 말한다.



상상과 움직이는 그림

교과서 pp.150~151

● 단원 설정의 이유

만화는 다양한 정서적 감상과 체험의 학습 형태를 갖추며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이야기를 만들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확장하고 캐릭터와 배경을 만들면서 관찰력과 표현력을 향상한다. 또한 인물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감과 원근감 입체적 사고 능력을 갖춘다.

이 단원에서는 만화 표현 기법이 창의성 계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학습 목표

이해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이해한다.
표현	움직이는 연속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출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본다.

단원	미술의 확장 – 미술과 통합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교과서, 실습 자료, 활동 표현 재료 등		
수업 모형	이해 및 표현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관련된 자료를 보여 준다. –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표현상 차이점을 파악한다.	· 학생의 관점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자료를 준비한다.
전개	◎ 만화가 생활에서 이용되는 부분을 찾아본다. ◎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보여 주는 도구 – 조이트로프, 소마트로프, 페나키스토스코프의 원리를 이해한다. – 플립 북, 셀 애니메이션, 컷 아웃 애니메이션, 인형 애니메이션, 모래 애니메이션 등 특징을 설명한다. ◎ 만화의 표현 특징과 다양한 활용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 –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이야기 흐름을 구상할 때 기 · 승 · 전 · 결의 형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설명한다.	· 다양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형식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주제에 적합한 형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자신의 생활이나 청소년 문화에 적합한 내용으로 선정하도록 지도한다.
정리	– 만화는 사물이나 현상의 특징 혹은 이야기 등을 과장하거나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이다. – 애니메이션은 '살아 있다'는 뜻의 라틴 어 '아니마(Anima)'에서 유래된 것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영상이다.	· 이야기와 줄거리가 좋은 작품을 선정하여 감상하고 좋은 점과 수정할 부분을 찾도록 지도한다.
평가 관점	•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이해하였는가? • 애니메이션 동작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내용 전달이 되도록 표현하였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도미에(Daumier, Honore/프랑스/1808~1879) 대식가(석판화/21.4×30.5cm/1831년 작)

도미에는 가난을 벗어나고자 법률 사무소의 급사, 서점 점원 일을 했지만 그림을 향한 그의 열망은 더욱 커질 뿐이었다. 마침내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는 화가 밑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얻었으나, 고전적 미술 기법에 염증을 느끼곤 이내 배움을 그만 두었다. 그 후 가난한 거리 화가 생활을 하던 도미에는 풍자 신문에 만화를 기고하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왕정 복고 후 혼란스럽던 당시 프랑스의 세태를 비판하는 정치 풍자 만화를 그려 화가로서의 삶에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적나라했던 도미에의 그림들은 국왕 모독죄로 고소되었고 그는 6개월간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마당을 나온 암탉(애니메이션/2011년 작/한국)

원래 이 영화의 원작은 황선미씨의 작품으로 전체적인 스토리는 양계장에서 편하게 살면서 알만 낳으면 되는 암탉 '잎싹'의 이야기로 이 암탉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우연히 청둥오리의 알을 품고 청둥오리를 부화시키고 청둥오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족제비에게 주는 내용으로 자신의 꿈과 자유,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아름답게 그린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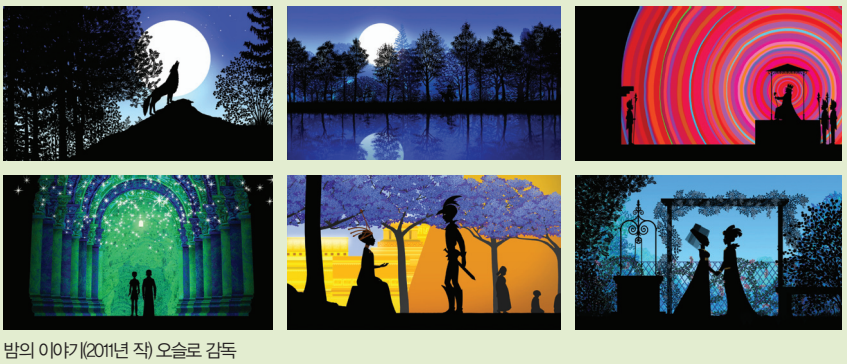
아이스 에이지 4(애니메이션/2012년 작/미국)

아이스 에이지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컴퓨터에 원화의 데이터를 기억시켜 놓고 데이터의 일부 변수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1프레임씩 제작하여 동화상을 만드는 애니메이션 분야. 인간의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만든 연속적인 이미지를 1초에 24~30매의 그림으로 보여 주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를 셀 애니메이션(cell animation)과 같이 수작업으로 하면 모든 이미지를 그려야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움직임의 첫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 사이의 이미지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리게 하였다. 모델의 재질과 움직임 수정 및 변환이 손쉽게 되어 작업 용이성이 커지며 다양한 디지털 영상 효과와 결합할 수 있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표현이 가능했다.

영화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전통적인 방식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지며, 용도를 다양화시킬 수 있다.

실루엣 애니메이션

그림자 놀이를 연상하게 하는 흑백의 캐릭터가 뚜렷한 색감으로 이루어진 배경 속에서 펼쳐내는 동화 같은 이야기다. 단순히 색채뿐만 아닌 캐릭터의 움직임을 더욱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전환해 영상미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밤의 이야기(2011년 작) 오슬로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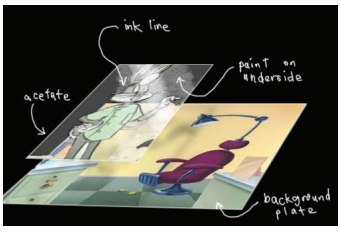
● **애니메이션의 분류**

플립 북



움직임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연속적으로 공통된 규격의 종이에 그리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넘겼을 때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애니메이션 기구

셀 애니메이션



배경은 그대로 두고 캐릭터만 움직이게 하여 촬영하는 애니메이션 기법

컷 아웃 애니메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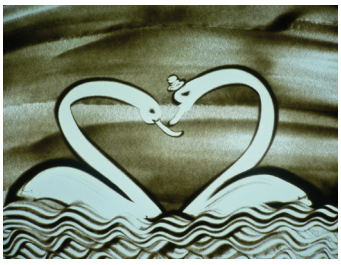
종이 위에 형태를 그리고 잘라낸 다음 각각의 종이들을 한 장면씩 움직여 가면서 촬영하여 연속 동작을 만드는 애니메이션 기법

인형 애니메이션



만든 이의 자유로운 회화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므로 독특한 작가주의 예술 경향을 띤다.

모래 애니메이션



그림의 재료로 모래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유리 밑에서 빛을 비추고 그 위에 모래로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어 한 장씩 촬영하여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애니메이션 기법



입체 표현

교과서 pp.152~157

● 단원 설정의 이유

미술 표현은 크게 평면 표현과 입체 표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입체 표현은 물질적인 자연과 인공 재료를 활용하여 입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자연과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이 매체가 될 수 있으므로 재료와 기법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다.

이 단원에서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3차원적인 입체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관찰하는 방법, 표현 재료나 기법의 선택, 강조하는 조형의 요소와 원리, 구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고 기법에 따라 소조, 조각, 구조적 조형으로 체험하는 기회와 미적 안목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학습 목표

이해	입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표현	조소와 조각의 재료와 방법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단원	미술의 확장 – 미술과 통합	**차시**	①②③④⑤❻⑧
학습 주제	입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교과서, 실습 자료, 활동 표현 재료 등		
수업 모형	이해 및 감상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감상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소조로 표현하기 – 평면을 벗어나 전개되는 새로운 작품들 중 재료의 특성을 살려 입체로 표현된 작품을 조사한다. ◎ 소조 용구 · 부조와 환조	· 대상의 특징을 살려 소조 기법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전개	◎ 조각으로 표현하기 – 재료에 따른 조각 작품의 제작 과정을 조사한다. – 조각 작품에 적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아본다. ◎ 구축 조각으로 표현하기 – 구축 조각에 사용되는 재료와 용구를 찾아보고, 그 특성을 알아본다. ◎ 작품 속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오브제(Object) – 설치 미술로 표현하기 여러 작품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설치 미술로 표현한 작품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알아본다. –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메시지가 있는 설치 미술로 표현해 보자. ◎ 대지 위에 표현하기 – 자연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상상 세계를 표현한 대지 미술 작품을 조사한다.	· 조각 기법을 사용하여 재료의 성질을 효과적으로 살린 입체 작품을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 구축 조각 기법을 사용하여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다양한 재료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 자연 속에 표현된 대지 미술 작품을 찾아보고, 작품과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토론한다.
정리	입체로 작품을 표현할 때에는 의도한 형태와 재료의 물질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합한 작업 과정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입체 표현은 재료를 깎거나 붙여서 공간 속에 나타내는 조형 예술이다.
평가 관점	• 입체 표현의 특성을 이해하였는가? •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평가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로댕(Rodin, François Auguste Rene/프랑스/1840~1917) 대성당(브론즈/높이 64×34×32cm/1907년 작)


(프랑스/1840~1917)

프랑스의 조각가. 근대 조각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그가 추구한 웅대한 예술성과 기량은 조각에 생명과 감정을 불어넣어, 예술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아버지가 퇴직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갖가지 부업을 하면서 야간 제작에 몰두하였다. 누이의 사망에 충격받고 수도원에 들어갔으나, 에마르 신부의 설득으로 작업장에 돌아왔다. 생활을 위한 건축 장식업에 종사하다가 파리에 돌아와 벨기에 체재 중 제작한 '청동 시대'를 출품하였다. 이것은 그 작품이 지닌 사실적 박진감으로 인하여, 살아 있는 모델에서 직접 석고형을 뜬 것이 아니냐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으면서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청동시대'는 로댕 예술의 출발점이며, 그의 사실적 표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걸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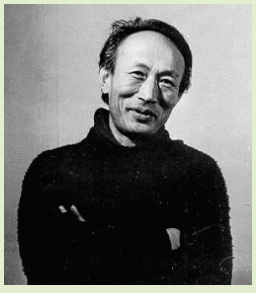
로댕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나 중세 프랑스 조각으로부터 많은 자극과 감화를 받았으나, 그가 추구한 웅대한 예술성과 기량은 18세기 이래 오랫동안 건축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던 조각에 생명과 감정을 불어넣어, 예술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훌륭하게 성취해 회화의 인상파와 더불어 근대 조각의 전개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자코메티(Giacometti, Alberto/스위스/1901~1966) 개(브론즈/44.2×96.8×15.7cm/1951년 작)


(스위스/1901~1966)

스위스의 조각가, 시인. 제네바 미술 공예 학교에서 조각을 공부하다가 이탈리아에 유학하고 파리에 나가서 큐비즘(입체파)의 영향을 받았고 이어 초현실파 운동에 참가하였다. 제2차 대전이 끝난 뒤 조각가로서 그 이름이 높았는데 그의 조각은 가늘고 긴 사람의 몸을 만들고 엄격한 정신이나 공간을 암시하는 것으로 뛰어났었다. 그 자신은 철사와 같이 가느다랗게 깎이면서 그 주위에 강렬한 동적 공간을 내포한 날카로운 조상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이 시선을 끌어, 이후 조각계의 제1인자로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동시에 입체적인 공간을 유화로 추구하는 일을 계속하였으며, 또한 예리한 묘선에 의한 데생과 판화에서 우수한 작품을 남겼다. 이들의 제작은 모두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공허 속에 나타나는 허상이 그대로를 보이려는 시도였으며, 서유럽 조형 미술의 전통에서 가장 현대적 · 전위적인 표현이었다.

권진규 의식 세계


(한국/1922~1973)

신라 시대에 발전되다 맥이 끊어진 토우에서부터 테라코타 등의 재료를 근대화시킴으로써 전통 조각의 중요성을 부각했고 1950년대 휩쓸던 실존주의 사상에 심취했다. 그는 원초적인 생명력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직접 로댕, 부르델 등의 서구 조각 영향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원초적인 것으로 살아 있는 생명력을 그의 작품 속에 쏟아내려 하였다. 또한 불교적 해탈과 같은 현실 초월주의를 들 수 있다. 그는 불교에 심취했던 만큼 세속적인 현실 생활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더욱 순수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염원하였다. 이런 일상적인 현실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그의 조각 곳곳에 표출되어 있다.

● **지옥의 문**

로댕은 20년을 '지옥의 문'과 씨름했지만, 작업은 끝내 미완성으로 남았다. 그는 창조의 순간에 느끼는 전율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 어느 것도 최종적일 수 없었다. 그는 끊임없이 다시 고치고, 여러 인물 사이에 또 다른 인물을 끼워 넣고, 그런 다음 그 인물을 이리저리 움직여도 보고, 그러다 정 안 되면 그것들을 부수어 다음 실험을 위한 재료로 삼았다. 그러나 '지옥의 문'은 그가 담고자 했던 조각품을 모두 담아낼 수 없었다.

그의 영감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모해 갔는지를 보여 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물상은 조각가로서의 그의 삶을 기록한 일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청동/100 x 396 x 775cm/1880~1888년 작)



● **칼레의 시민**

이 기념상은 애초 칼레 시청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바닷가 한적한 곳에 세워진 채 온갖 비난을 받았다. 당시의 칼레 시민들은 로댕의 사실 · 상징주의적 제작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청동/높이 209.55cm/1884년 작)



참고 자료

● 조소의 분류

1. 조각

견고한 덩어리를 외부에서 내부로 깎아 가며 표현. 조소에 대한 넓은 개념으로 입체 조형 전체를 말하기도 한다.

재료: 목조, 석조, 아조(동물의 뼈)

2. 소조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붙여 가며 표현한다.

재료: 점토, 석고형 뜨기, 테라코타, 청동 등

3. 구축

철판, 아크릴 등의 재료를 접착하거나 용접하여 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재료: 철조, 구성 조각 등

● 표현 양식

1. 구상

표현 대상 있는 그대로 표현하거나 혹은 변형, 생략, 강조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2. 비구상(추상)

구체적인 표현 대상이 없으며 순수한 조형 요소와 원리에 의하여 제작된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헵워스(Hepworth, Barbara/영국/1903~1975) 내부가 하얀 오목한 형태(나무/높이 99cm/1963년 작)


(영국/1903~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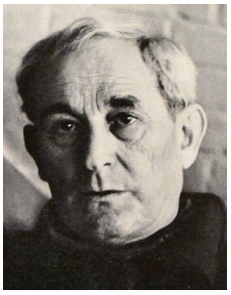
헵워스는 구성주의를 거치면서 파괴와 부조리에 대항하고 미술을 통해 진보적 가치를 전달하며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 속에서 미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이상적 세계관은 2차 대전 중 일어난 '재건'의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현실 참여적으로 변화했다. 그는 지역 사회의 정서적 재건에 힘쓰며 대중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공공장소를 위한 조형물을 제작했다. 헵워스는 공공 조각을 통해 인간의 가치에 근거한 보편적 사상을 직접 전달하며 그가 추구했던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실현하고자 했다.

모딜리아니(Modigliani, Amedeo/이탈리아/1884~1920) 여인의 두상(석회석/높이 65cm/1910~1912년 작)


(이탈리아/1884~1920)

조각에 꿈을 품고 있던 모딜리아니는 브란쿠시의 이런 예술 감각에 매료되었고 돌에 조각하는 기술을 알지 못했던 모딜리아니는 브랑쿠시 작업실의 이웃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그에게서 돌의 표면을 다루는 수준 높은 감각을 배우며 조각에 몰두하게 되었다. 25점이 넘는 조각 작품을 하면서 돌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자신만의 조용하고 세련된 미를 창조하며, 긴 타원형의 얼굴에 길고 날카로운 코의 윤곽, 정확한 작은 입 등의 양식을 찾아가게 되었다. 모딜리아니가 조각 수업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석고와 진흙으로 틀을 뜨는 조소 방식을 마다하고 돌에 직접 조각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고귀한 전통에 도달하려는 무의식적 욕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보(Gabo, Naum/러시아/1890~1977) 공간 구성(아크릴/높이 22.9cm/1937년 작)


(러시아→미국/1890~1977)

뮌헨 대학에서 자연 과학, 공학, 의학 등을 공부하면서 뵐블린의 미술사 강의를 들으면서 과학과 예술에 관심을 가졌다. 첫 기하적 구조물을 제작하고 고향인 러시아로 돌아와 당시 아방가르드 예술에 합류하여 전위 예술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베를린에서 전시를 계기로 독일 구성주의로 전환하였고 추상적 경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그의 작품 세계는 면으로 이루어진 조각, 선으로 이루어진 조각, 움직이는 조각 등 세 분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속판 · 플라스틱 · 나일론 등의 새로운 소재로 다이내믹한 공간을 구성한 그의 작품은 20세기의 조형 가운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현 형태에 따라

1. 환조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완전한 형태를 말한다. 입체성을 지지고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다.

2. 부조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한쪽 면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1) 고부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많이 올라온 것
2) 중부조: 고부조와 중부조의 중간 높이
3) 저부조(박부조): 바닥과 거의 높이가 같은 부조
4) 심조: 바닥에서 안쪽으로 파서 표현한 부조
5) 투조: 형체만 남기고 배경은 뚫어서 표현한 것

자연과 만난 미디어 아트_이재효


(한국/1965~)

작가의 작업을 지배하는 근간은 자연이다. 작가는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나무와 돌 등 속의 소재를 빌어 완전성과 질서라는 자연 고유의 본질을 추구한다. 자연의 본질로서의 완전성과 질서 개념은 일상적 단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적 차원이기보다는 관념적 실제에 가깝다. 이러한 사실은 외관상 마구 흩트려 놓은 듯한 사물(오브제)의 배치 혹은 배열에서조차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놓여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 관념을 떠올려 보면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자연스러운 상태'가 자연 개념의 추상성 혹은 관념성에 대한 실증이 된다. 작가는 자연의 본질로서의 완전성을 원(형)으로 이해하고 있다. 작업에서 원에 대한 관념은 원형의 다양한 원형과 원통형, 그리고 아몬드 형 등으로 표현된다.





● **지용호(1978~/한국)**

그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대리석으로 조각하는 대신 닳고 닳은 자동차 폐타이어를 짓이겨 새로운 도시 신화를 창조하고 있다. 폐타이어들을 겹겹이 짓이겨 나무와 강철과 스티로폼들을 사용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위에 타이어로 표현 작업을 한다.


늑대 인간(130x240x180cm/2010년 작)


황소 남자(100x150x200cm/2010년 작)


상어(240x130x110cm/2011년 작)


사슴 머리(74x53x97cm/2007년 작)


황소 머리(86x122x71cm/2008년 작)



설치 미술로 표현하기

작품의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개성적인 전달 방식을 도입한 설치 미술은 다양한 소재와 파격적인 주제를 시각 · 청각 · 후각 · 촉각 등 여러 감각을 총동원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또한, 한 가지 작품만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품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합하으로써 주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설치 미술은 전통적 미술 양식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실험성을 갖고 대중 매체를 확산, 심화시키는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해 여러 작품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설치 미술로 표현한 작품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자.

1 노동식(한국/1973~) **구름을 기르다**종합 재료/가변 크기/2013년 작 비행기에서 내려다는 수십은 사람의 모습을 담내 공간 속에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설치 미술로 표현하였다. 환상적인 순간을 나타낸 구름과 조화를 이루며 하늘을 날고 있는 듯기한 모습 속에 이른 사람을 떠올리며, 공감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2 이제표(한국/1965~) **0121-1110=1080620**철/95×95×600cm/2008년 작 작업실 부근 강변에서 주워온 철물들을 철 기초한 설사 철에 철물이 매달아 한물들으로 설치한 작품이다. 목적한 용재 공간과 반전되는 의미를 담아 내었다. 재료의 특성에 알맞은 자연스러운 형태 변화로 표현하였다.

3 메르츠 Merz, Mario/이탈리아/1925~2003 **피보나치 수열**로한 재료/높이 100×둘레 200cm/1972년 작 천연 내화 조명, 송풍 이중이며 반복과 집적을 통해 이끌로 상징하는 형태로 표현하였다. 달팽이 형태의 같은 자연 법칙에서 영감을 얻어 생명력적인 신비을 탐구하고자 한 작품이다.

4 보이스 Beuys, Joseph/독일/1921~1986 **The Pack**종합 재료/가변 설치/1969년 작 비행기가 추락한 후 한 부족에 의해 구출되어 생명을 건진 작가의 경험을 설치 작품으로 재현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심존적 경험을 살려 그룹 구한 텔트와 기름 담아이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생각과 표현 | 설치 미술 표현하기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메시지가 있는 설치 미술로 표현해 보자.

모아둔학생 작품 **환경 캠페인**종합 재료/가변 크기 기공수에 따스크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한 후 설치하였다. 대기 오염의 심각성으로 인한 지연이 받는 피해를 알리며 지연을 보호하자는 모도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에 직접 생태계의 사람들이 감응 오기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대지 위에 표현하기

대지 미술은 작품을 미술관이 아닌 대자연 한가운데 표현하여 자연환경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예술이다. 사막 · 산악 · 해변 · 설원 등의 넓은 땅을 파헤치거나 거기에 선을 새기고 사진과 다큐멘터리에 수록하여 작품으로 삼기도 하며, 흙과 잔디 등의 자연물을 화면에 담거나 직접 운반하여 전시하기도 한다.

대지 미술은 지연에 대한 제인식과 소중함을 강조하여, 자연의 질서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조사 자연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상상 세계를 표현한 대지 미술 작품을 조사해 보자.

1 크리스토 Christo, Javacheff/불가리아→미국/1935~) **우산혼합** 재료/1984~1991년 작 자연을 표현의 주제로 삼아 결합한 지역에 노란색의 우산 3100개를 설치하였다. 일정난 인원과 자금이 동원되어 제작하였으며 일정 시기가 지나 대부분 철거되었다. 자연 속에 담긴 예술과 예술 속에 담긴 자연의 이중시물을 표현하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2 롱 Long, Richard/영국/1945~) **계간자-호가트에서 6일간** 경기/1988년 작 일정한 거리를 반복적으로 걸으며 나타난 체험의 결과를 대지 위에 하나의 선으로 표현하였다. 환경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사진을 보충해야 한다는 비사시를 전하고 있다.

3 더 마리아 De Maria, Walter/미국/1926~) **번개치는 들판**길 작품/1977년 작 뉴멕시코의 광활한 사막 들판에 길이 1.6Km, 폭 9Km 간격으로 2m 높이의 스테인리스 스틸 봉 400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설치하였다. 번개칠이 떨어질 때마다 번개의 섬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작품은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자연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자연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져 상상 세계를 제작하였다.

4 김강한한국/1969~) **이승신 정군**모래/가변 크기/2001년 작 김영도 해변에서 송아한 이승신 정군의 얼굴 모습을 모래로 제작하였다. 모래를 쌓아 올리고 물을 뿌린 후 재료의 특성을 살려 생두한 양감과 질감을 표현하였다.

생각과 탐구 | 대지 미술과 자연환경의 관계

자연 속에 표현된 대지 미술 작품을 찾아보고, 작품과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토론해 보자.

하이저Heizer, Michael/미국/1944~) **이중 부정**흙 240톤 제거/15240×1520×910cm/1969년 작 미국 네바다 사막에 만든 것으로 길이 457미터, 길이 100미터만 두 개의 구덩이로 이루어진 암반은 규모의 대지 미술이다. 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작품 안에 있게 된 관람자는 같은 개각 속에 함께한 자신의 신체를 응자각면서 작품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외에 매력적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느낀다.

정리 ● 입체 표현은 재료를 깎거나 붙여서 공간 속에 나타내는 조형 예술이다. 입체로 작품을 표현할 때에는 의도한 형태와 재료의 물질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작업 과정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1. 입체 표현의 특성을 이해하였는가?
2.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

● **노동식**(한국/1973~)



아주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솜틀집을 운영하셨다.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기억 속에서 작가는 작품에 본인의 모습이 투영된다. 투영된 기억들은 머리 한구석에 숨어 있다가 불쑥 생각이 나는데 이러한 기억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오른다.

작가는 솜으로 사물을 재현하다. 아버지, 자동차, 주전자, 뻥튀기 기계, 나무, 컴퓨터, 난로, 문, 찻잔, 비행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제품이거나 기계와 도구들이다.

환영을 통해 현실을 재현하지만 재현된 현실은 우리가 기억하는 삶의 요소들과 조건들의 상징적인 집합에 가깝다. 작가가 겪고 있는 현실 세계를 관객들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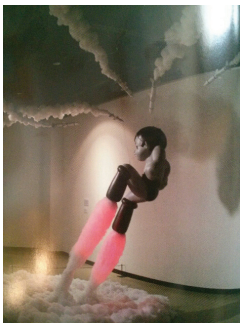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노동식 작품 세계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기억과 상상을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 솜이라는 재료를 통해 재현해 보고자 하였다. 작업의 진행 과정 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계와 도구 사물들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미가 발생되었는데 그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험과 사물들은 개인이 경험하고 소유함으로써 특별한 기억과 인연의 대상이 된다. 작품에 담긴 의미와 형태의 변화에서는 주변 사물들의 단순한 재현에서 시작하여 만들어진 작품에 자연스럽게 주관적인 의미가 담기게 된다.



카운트 다운(혼합 재료/2013년 작)



아톰의 위기(혼합 재료/2010년 작)



핵폭발(혼합 재료/2012년 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려움 전경
(혼합 재료/2013년 작)

크리스토



(불가리아→미국/1935~)

크리스토는 1935년 6월 13일 불가리아 가브로보에서, 잔느 클로드는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아주 우연하게도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났다. 소피아 미술아카데미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한 크리스토는 프라하에서 무대미술을 배웠고, 빈에서 잠시 유학한 후 1958년 파리에서 잔느 클로드를 만났다. 이들은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으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작업하였다.

두 사람은 병, 의자 등의 오브제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다 1961년부터 공공장소와 건물로 작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1964년 뉴욕으로 이주하였다.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과 대규모의 협상이 요구되어 작업을 조직하는 데만 보통 몇 년이 소요되곤 하였다. 도시에서 선보였던 프로젝트들에는 베른의 '포장된 쿤스트발에', 파리의 '퐁네프', 베를린의 '포장된 라이히슈타크' 등이 있다.

디 마리아



(미국/1935~2013)

193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올버니에서 태어났다. 버클리의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역사와 미술을 공부하였다. 뉴욕으로 이주하여 다다와 그 밖의 현대 예술 사조에 영향을 받았다. 드마리아는 초기에 나무 상자 조각으로 작품을 시작하면서 다른 대지 미술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미니멀리즘 계열 작업으로 출발하였다. 전설이 된 록밴드인 벨벳 언더그라운드에서 드럼을 치기도 한 그는 이러한 음악 배경을 바탕으로 미술과 음악을 접목하는 독특한 양식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그는 1962년에 이미 '1마일의 드로잉' 이라는 작품을 구상하였고, 이를 모하브 사막에 설치하면서 로버트 스미스슨과 함께 대지 미술의 선두 작가로 두각을 나타냈다.

미니멀 아트의 조형적 구조 및 개념 미술이 개시한 미술에 대한 철저한 비평을 옹호한 이들 작가는 화랑과 미술관, 아틀리에를 떠나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사막으로 향하였다. 디 마리아의 대지 미술 작업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은 '번개 치는 들판'이다. 뉴멕시코의 광활한 사막 들판에 길이 1.6Km, 폭 1Km 간격으로 7m 높이의 스테인리스 스틸 봉 400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설치한 이 작품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번개의 섬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1마일의 드로잉(대지 미술/1968년 작)

모하비 사막에 석회질 가루를 사용하여 12피트의 간격을 둔 평행선을 1마일에 걸쳐 완성한 '마일의 드로잉'이란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실물은 없어지고 기록 사진만 남아 있다. 이 작품으로 로버트 스미드슨과 함께 대지 미술의 선두 작가로 두각을 나타냈다.



타임(혼합 설치 미술/2004년 작)

정확한 치수와 함께 계단 모양의 신전과 같은 넓은 공간을 구성하고 그 안에 지름 2m 이상의 화강암 구체와 금박을 한 27 몸의 마호가니 재의 입체를 배치하고 있다. 공간은 동서 방향으로 확장하고 천정이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일출부터 일몰까지 위에서 쏟아지는 빛이 변화하면서 작품의 표정 또한 바뀐다.

● **설치 미술**

크리스토의 초기 작업들은 실제의 기물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현대 문명의 산물인 가공품이나 물질적인 대상에서 점차 그 대상을 확장하여 점차 환경 그 자체를 대상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밸리 커튼(설치 미술/1970~1972년 작)



둘러싸인 섬(설치 미술/1980~1982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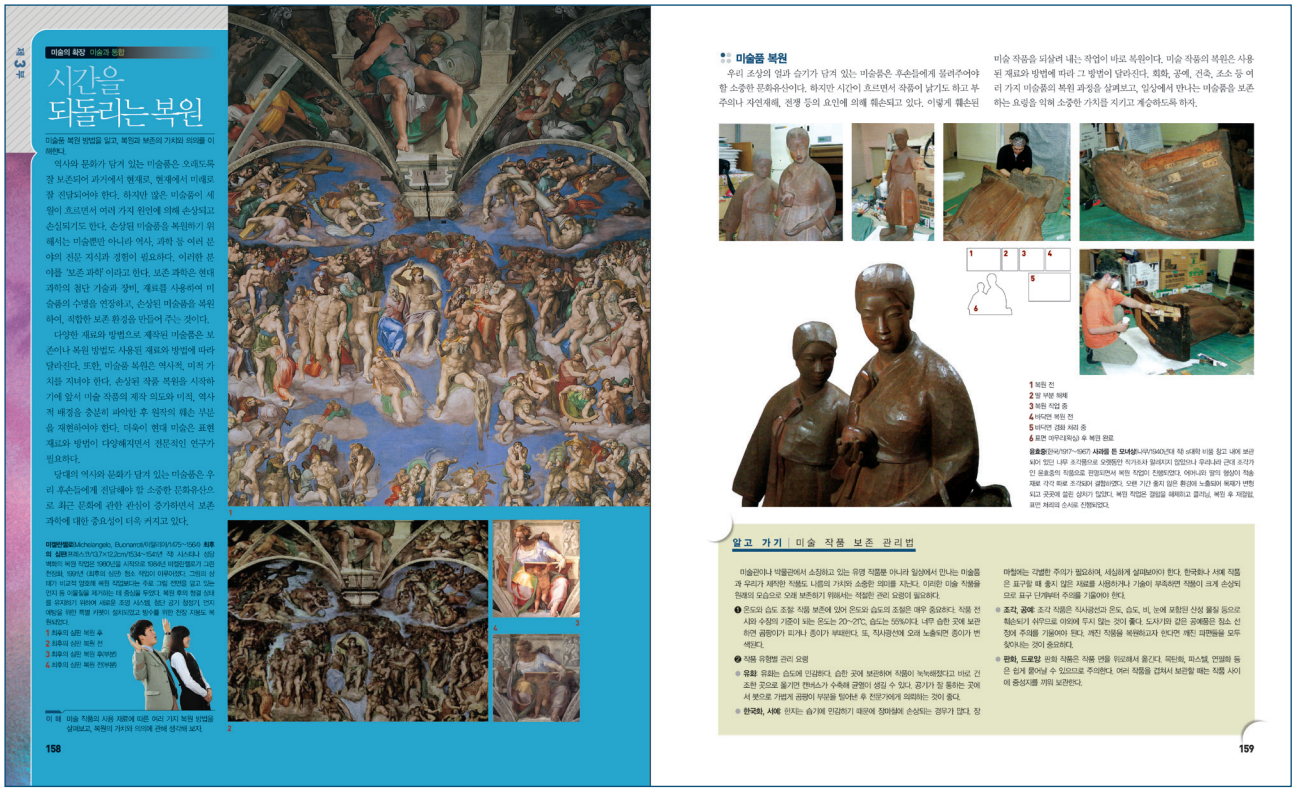
퐁네프 다리(설치 미술/1985년 작)



국회의사당(설치 미술/1995년 작)



게이츠(설치 미술/2004~2005년 작)



시간을 되돌리는 복원

교과서 pp.158~161

단원	미술의 확장 – 미술과 통합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미술품 복원 방법을 알고, 복원과 보존의 가치와 의의를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필기도구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토론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지필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참고 작품을 제시해 보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 복원과 보존의 가치와 의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석굴암 등 잘못된 복원 작업의 예시를 들어 보존과학의 중요성을 지도한다.
전개	◎ 미술품 복원의 과정 설명하기 – 작품 유형별 다양한 작품의 복원 과정을 감상하고 재료의 다양성에 따른 복원 과정의 특징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한다. – 복원뿐 아니라 미술 작품 보존 관리법 및 요령에 관해 지도한다. ⦿ 학습 활동 ⦿ 미술 작품 복원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 다양한 사례의 복원 과정을 감상한다. – 다양한 재료의 미술 작품 보존 관리법에 대해 학습한다. – 미술품 복원의 미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한다.	· 교과서 외의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복원 사례를 감상한다. · 미술품 보존의 실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정리	◎ 서로의 생각 토론하기 – 문화재 개방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토론한다. – 문화재 보존 전문가의 역할과 갖춰야 할 소양,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 타인의 의견 및 생각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평가 관점	• 미술 작품의 보존 관리법과 복원 방법에 대해 이해하였는가? • 복원과 보존의 가치와 의의를 이해하였는가?	

● 단원 설정의 이유

2008년 방화로 소실되었던 숭례문이 5년 3개월의 복구 공사를 마치고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소실 전 숭례문을 보아왔던 시민들의 눈에 복구된 숭례문이 다소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철저한 고증을 거쳐 더욱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불에 타 영원히 예전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던 숭례문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은 국민의 애정과 문화재를 되살려 내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한 장인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3D 레이저 스캔과 같이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도록 도움을 준 보존 과학이 있었기에 잿더미 속으로 사라졌던 숭례문의 복구가 가능했다.

● 학습 목표

이해	미술 작품의 사용 재료에 따른 여러 가지 복원 방법을 살펴본다.
표현	복원의 미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 및 의의에 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해 본다.
감상	미술품 보존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미술품을 소중히 다루는 자세를 기른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이탈리아/1475~1564) 최후의 심판(프레스코/13.7×12.2cm/1534~1541년 작)

미켈란젤로는 1533년 교황 클레멘스 7세로부터 시스티나 성당의 제단 위 벽에 최후의 심판을 그리라는 명을 받았다. 클레멘스 7세가 이 그림을 주문한 것은 에스파냐 군에 의한 로마의 점령과 약탈 등 재난의 연속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1541년 가을, 면적 167.14㎡의 벽면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을 한 총 391명의 인물상이 드러났다.

중앙의 그리스도는 이제까지 흔히 그려졌던 모습과는 다르게 수염도 나지 않은 당당한 나체의 남성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곁에는 성모 마리아가 앉아 아래 있는 인류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두 사람 주위를 성자들이 원형으로 둘러싸듯 서 있다. 여기는 천사에 가까운 성자들의 세계이다. 그 주변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 혹은 천상으로 올라가고, 혹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중섭(한국/1916~1956) 서귀포의 환상(나무판에 유채/56×92cm/1951년 작)

이중섭은 한국전쟁 발발 후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 피난 와 거주하면서 '섶섬이 보이는 풍경'·'바닷가의 아이들'·'서귀포의 환상'등의 대표작을 남겼다. 그 중 '서귀포의 환상'은 환상적인 꿈의 나라, 낙원을 연상케 하는 작품 세계이다. 온화하고 편안하고 평화스러운 어린이들의 여러 동태와 과실을 따고, 주워 담는 즐거운 표정, 그리고 이에 합세한 듯 경쾌한 새들의 모습, 큰 새를 타고 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그림은 가족들과 함께했던 제주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을 그림으로 남긴 것으로 보인다.

작가 탐구

윤효중(한국/1917~1967)

윤효중은 한국 근대 조각의 선구자 중의 한 사람으로, 목조의 사용과 향토적 소재 연구를 통한 근대적이고 독자적인 조각 세계를 만들어 간 작가이다. 그의 대표작인 '현명'은 한복을 입은 우리나라 고유의 여인상들을 조각한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느낌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전통 한복을 입은 여인이 길게 활시위를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은 마치 팽팽한 활시위에서 금방이라도 화살이 날아갈 것 같은 긴장감과 운동감을 준다. 이 작품은 토속적인 소재에 투박한 목조를 재료로 하였으나 아주 세련된 기술과 완벽한 비례로 극적인 동세를 표현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작품이다.



현명(나무/높이 165cm/1942년 작)

미술 복원 분야의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는 예수의 성스런 얼굴이 원숭이 얼굴로 변한 사건일 것이다. 몇 달 전 에스파냐의 한 80대 여성이 예수의 초상이 그려진 19세기 벽화를 스스로 복원하려다가 그만 원숭이의 얼굴처럼 바꾸어 놓았다. 복원을 전공하지 않은 그녀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자신의 해석대로 덧칠한 것이다. 그 결과 예수의 얼굴은 지우기 어려운 두터운 메이크업을 하게 됐다.



복원 전 복원 후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램브란트의 작품도 피해갈 수 없었다. 그의 대표작 'Night Watcher'은 반달리즘(다른 문화나 종교, 예술 등에 대한 무지로 그것들을 파괴하는 행위)에 의해 커터 칼로 크게 찢긴 외상을 경험했다. 1987년 7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 'The Virgin and Child with S. Anne and S. John the Baptist'은 총알이 유리를 뚫고 그림 속 성모 마리아의 심장 부분에 닿았다.



극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긴 시간에 거쳐 보존 전문가들에 의해 회복되어 미술관에서 온전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 '의자에 앉은 성모' 라파엘 작품의 복사본. 작가 미상 복원 전(왼쪽) 복원 후(오른쪽)

유럽에서 미술품의 복원 작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미술품 제작 직후부터 복원 작업이 행해진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최초의 미술품 복원 기록은 유럽에서 15세기에 발견된다. 당시 대부분의 복원 작업은 화가나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미술품 표면을 닦아 내거나 손상된 미술품에 덧칠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18세기가 되면 프랑스에서 미술품 복원가가 정식 직업으로 태어난다.

복원 작업은 미술품에 대한 인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손상을 입은 작품을 어떻게 복원해야 하는지, 복원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등이 논란이 되어 왔다. 2차 대전 이후부터 유네스코 등 국제 기구와 미술관들이 중심이 돼 복원 원칙을 마련했다. 무분별한 복원으로부터 작품을 보호하고 복원가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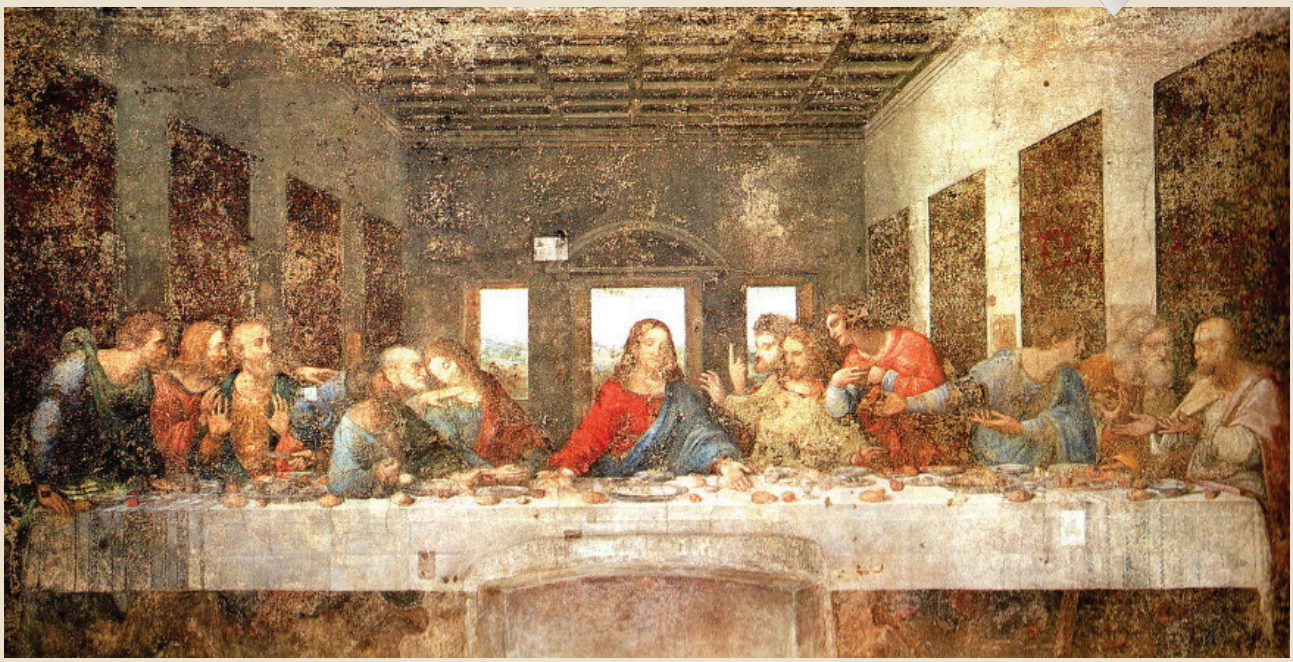


▲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물감층이 떨어져나간 상태.

고전적인 의미의 복원 작업이란 피해를 입은 작품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안료가 퇴색되거나 균열이 발생하고, 캔버스의 탄력이 약해져 늘어지는 등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품을 최초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예로 최근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첨단 장비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수차례의 복원 작업을 거치면서 몇몇 성인들의 인상이 그만 변해 버렸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원래 모습에 심각한 왜곡이 있는 상태로 우리는 이 명화를 감상하고 있는 셈이다.

근래에 마련된 복원 원칙은 복원에 의한 작품의 왜곡이라는 문제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미관적인 면보다 작가의 표현 의도에 초점을 맞춰 가급적 처리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또한 미술품을 있는 그대로 후세에 온전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조되면서 작품이



▲ 최후의 만찬 복원 전

늙지 않도록 온도 및 습도, 사고 안전 장치 등의 최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더 큰 무게 중심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예방 차원의 조치로 작품 변형을 최대한 막는 게, 손상된 뒤 고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기 때문이다.

복원 처리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는 병원의 진료 기록처럼 작품 상태 조사 기록 카드가 따라다닌다. 여기에는 조사 중에 관찰된 모든 정보와 처리에 사용된 재료, 테크닉 등이 사진 데이터와 함께 기입된다. 자외선, 적외선 촬영과 화학 분석 장비 등을 이용한 작품 재료의 분석 결과도 첨부된다. 이러한 기록 카드는 향후 재수리가 필요한 경우 복원 담당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보관이나 취급상의 주의 지침 역할까지 하게 된다. 이런 카드는 작품에 대한 미술사적 정보까지 제공하므로 미술사 연구가에게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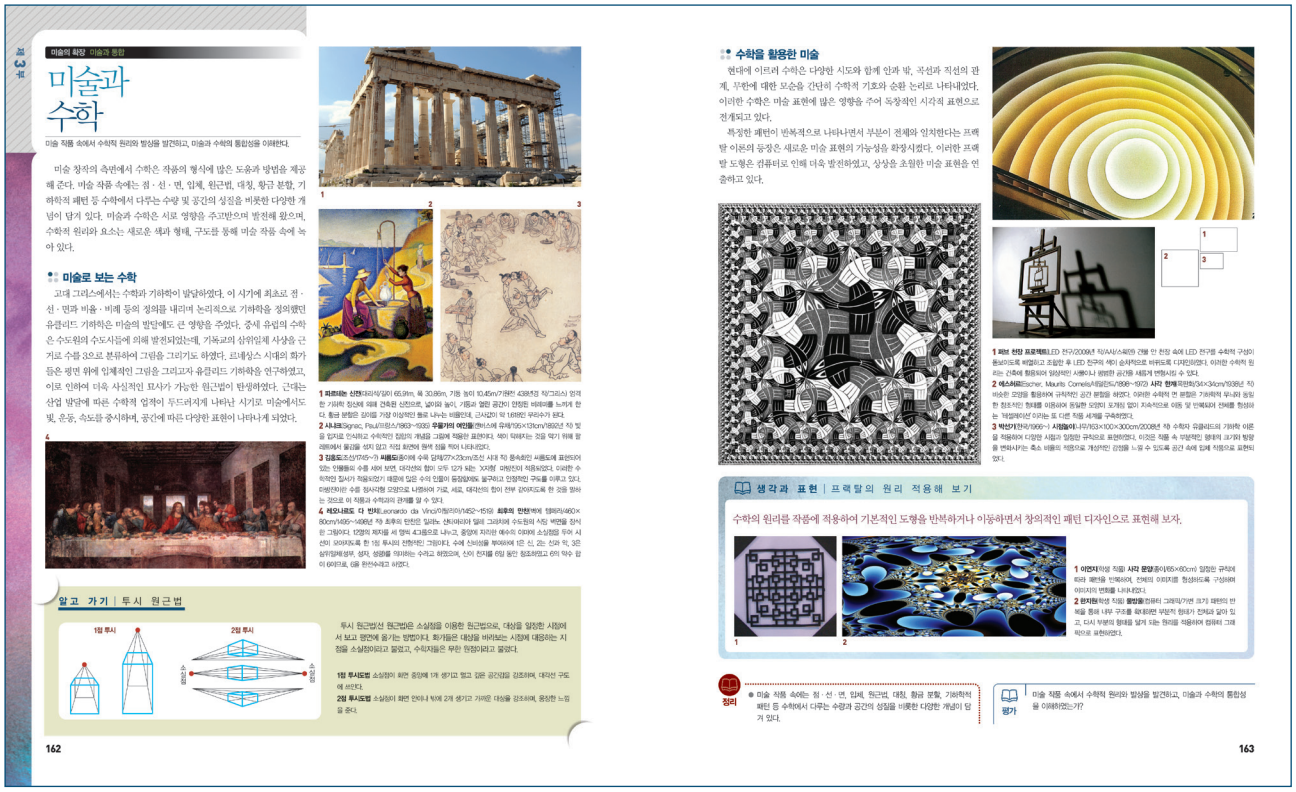
복원 작업은 미술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화 작품의 복원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유화 작품에 대한 복원은 크게 그림 층과 지지대 층에 대한 처리로 나뉜다. 그림 층의 처리에는 작품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내는 클리닝 작업, 그림 층의 결합력 약화나 다른 재료층 간의 접착력 상실로 인해 그림 층이 들뜨는 현상을 처리하는 접합 작업, 결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메움 작업, 마지막으로 결손 부위를 감추는 색 맞춤 작업 등으로 구성된다.

클리닝 작업은 작품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누렇게 변색된 바니스, 덧칠 부위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림이 원래 제 모습을 찾도록 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지만 여러 가지 화학 약품을 사용해 작품의 표면을 닦아내기 때문에, 작품에 손상을 가할 위험 부담이 매우 큰 작업이기도 하다.

그림 층이 들뜨는 현상은 물감이 떨어져 나가는 박락 현상과 함께 유화 작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훼손이다. 아교 같은 천연 재료와 합성수지를 이용해 접합하면 고칠 수 있다. 접합 작업이 끝나면 결손 부위를 메우고 이를 가공하는 메움 작업이 이어진다. 메움 재료로는 제거가 용이한 백토에 아교 등의 접착제가 주로 사용된다. 붓터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수술용 칼이나 치과용 소도구로 가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색 맞춤 작업은 그림의 결손부 주위의 색과 마티에르를 고려해 마감을 해 주는 작업이다. 이 과정이야말로 그림의 제 모습을 찾아주는 복원 작업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성공적인 색 맞춤이 되려면, 그림을 감상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색 맞춤의 원칙은, 첫째, 범위를 결손 부위에 국한해야 하고, 둘째, 원작 위에 덧그리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사용한 재료는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명화로 불리는 그림들은 이처럼 끊임없는 복원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늙지 않고 영원한 젊음을 누린다. 오래된 명작을 감상할 때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가 가능하다.



미술과 수학

교과서 pp.162~163

● 단원 설정의 이유

'수(數)'의 개념은 문명이 시작되면서 사용되었다. 이집트인들은 수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피라미드를 건축하였다. 그리스인들은 황금 분할을 이용하여 만든 8등신을 캐논(미의 규범)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등 여러 시대에 걸쳐 예술가들이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미술과 수학의 관계를 이해하고 표현을 하는 활동은 미술 창작 활동에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융합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게 한다.

이 단원을 통해 미술 작품 속에서 수학적 원리와 발상을 발견하고, 미술과 수학의 통합성을 이해하며, 수학의 원리를 작품에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 학습 목표

이해	미술 작품 속에서 수학적 원리와 발상을 발견하고, 미술과 수학의 통합성을 이해할 수 있다.
표현	수학의 원리를 작품에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감상	수학의 원리가 적용된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발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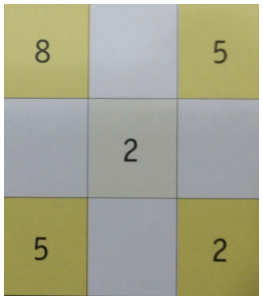
단원	미술의 확장 – 미술과 통합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미술 작품 속에서 수학적 원리와 발상을 발견하고, 미술과 수학의 통합성을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교과서, 필기도구, 자, 컴퍼스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참고 작품 감상과 학습 동기 유발하기 – 다양한 참고 작품을 제시하여 미술과 수학의 관계에 대한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 작품을 제시하고 작품 속에 있는 수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발문한다. – 학생의 대답을 충분히 들은 후 각 작품 속에 있는 수학적 원리를 설명한다.	· 정답을 바로 알려 주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발문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탐색하도록 한다.
전개	◎ 수학의 원리를 적용한 작품 제작하기 – 수학의 원리인 프랙털 이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만든 참고 작품을 보여 준다. – 멀티미디어 자료(동영상)를 추가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 프랙털의 원리를 적용한 작품을 활동지에 제작하게 하고, 순회하며 지도한다. (제작의도, 특징, 작품에 적용된 수학적 원리 등을 활동지에 자세하게 작성하게 한다.) ⊙ 표현 활동 ⊙ – 프랙털 원리로 표현된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 – 프랙털 원리를 작품에 적용하여 기본적인 도형을 반복하거나 이동하면서 창의적인 패턴 디자인을 표현한다.	· 재밌는 작품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가 설명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표현 시간을 최대한 보장한다.
정리	◎ 작품 감상하고 발표하기, 내용 정리하기 –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 속에서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느낀 점을 발표한다. – 미술과 수학의 통합성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타인의 의견 및 작품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관점	• 미술 작품 속에서 수학적 원리와 발상을 발견하고, 미술과 수학의 통합성을 이해하였는가? • 수학의 원리를 작품에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 • 수학의 원리가 적용된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였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김홍도(조선/1745~?) 씨름도(종이에 수묵 담채/27×23cm/조선 시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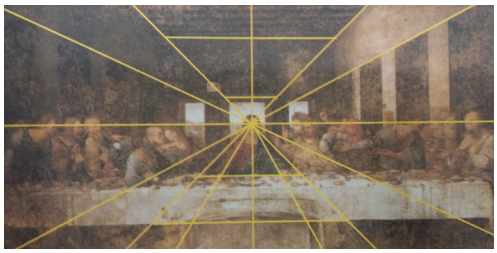




김홍도는 한국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풍속화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소재로 하여 간략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김홍도의 풍속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이 '풍속화첩'인데, 이 화첩은 서민들의 다양한 일상사와 정서, 해학이 담긴 총 25점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씨름'은 이 풍속화첩에 실려 있다.

김홍도의 '씨름'을 위의 그림처럼 중앙에서 씨름을 하는 두 사람을 기준으로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한 점에 모이도록 열십(十)자 모양으로 선을 그으면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된다. 이 네 개의 영역 안에 있는 인물들의 수를 세어 표시하면 위 그림의 오른쪽 표가 나오는데 이것의 대각선에 위치한 세 수의 합(8+2+2, 5+2+5)가 모두 12가 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신기한 수의 배열을 'X자형 마방진'이라 부르는데 또 다른 재미있는 수의 신비가 있다. 8을 기준으로 가로의 합(8+5)와 세로의 합(8+5)가 13으로 같고, 오른쪽 밑의 2를 기준으로 가로의 합(5+2)과 세로의 합(5+2)의 합이 7로 같다. 그리고 이 수들은 모두 (짝수+홀수)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이탈리아/1452~1519) 최후의 만찬(벽에 템페라/460×80cm/1495~1498년 작)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명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 속의 예수는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배반하리라고 폭탄 선언을 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 앞에 담담한 표정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으며, 배신자인 유다(그림의 왼쪽에서 5번째 인물)은 죄의식으로 몸을 빼며 오른손으로 은전이 든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다. 다 빈치는 성서에 나온 제자들의 성격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각자의 기질에 맞게 감정을 표현하였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수학과 관련하여 수와 도형을 찾아볼 수 있다. 3개의 창문, 4개의 무리를 이룬 12제자 등은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성부, 성자, 성령), 네 복음서, 새 예루살렘의 열두 문 등을 상징하며, 화면 한가운데에 있는 예수의 몸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위의 그림처럼 중앙에 있는 예수의 이마에 소실점을 두고 가상의 직선을 그어 보면 중앙으로 시선이 모아지도록 한 1점 투시의 그림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마, 펼친 두 손의 끝을 세 꼭짓점으로 하여 선분으로 연결하면 삼각형이 얻어지며, 이 삼각형의 두 변을 연장하여 같은 길이의 두 변을 긋고 가로로 선분을 그으면 꼭지점이 맞붙은 역삼각형이 그려진다. '최후의 만찬' 그림의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서 세어도 예수가 일곱 번째가 되는데, 신이 천지를 창조한 시간은 6일이었고 7일째 쉬었다는 상징적인 숫자와 일치한다. 수학에서 어떤 자연수가 자신을 제외한 약수들의 합으로 표시되면 '완전수'라고 불린다. 6의 약수는 1, 2, 3, 4인데, 6을 빼고 1, 2, 3을 더하면 6이 된다. 따라서 6은 가장 작은 완전수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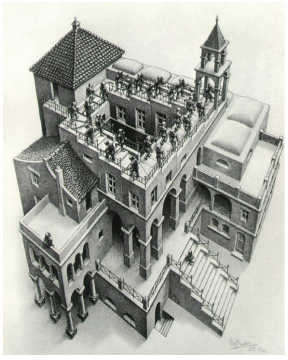
참고 자료

● 풍속화

조선시대에 풍속화는 '속화(俗畵)'로 불렸는데 강세황은 「단원기 우일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히 세속의 모습을 옮겨 그리기를 잘 하였는데, 인생에서 항상 접하는 것들과 길거리, 나루터, 가게, 시장, 시험장, 연희장 등을 한번 그리기만 하면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신기하다고 외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세간에서 말하는 김홍도의 속화가 바로 이것이니, 진실로 신령스러운 마음과 슬기로운 지식으로 홀로 천고의 묘함을 깨닫지 않았으면 어찌 이처럼 할 수 있으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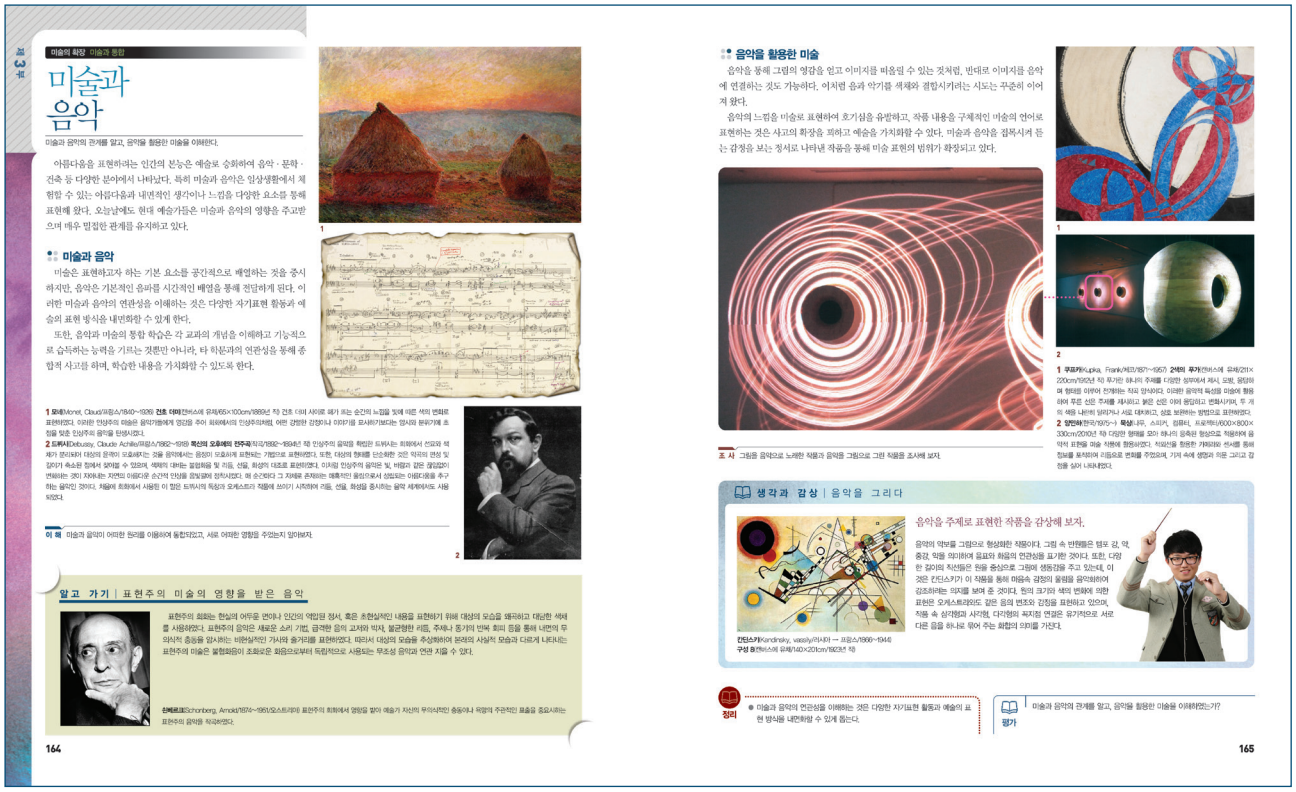
● 프랙털(fractal)



에스허르(네덜란드/1898~1972) **올라가기와 내려가기**(1960)

프랑스 수학자 만델브로트(Benoit B. Mandelbrot) 박사가 1975년 '쪼개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 어 '프랙투스(fractus)'에서 따와 처음 만들었다.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자기 유사성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푼 구조를 말한다.

프랙털은 단순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복잡하고 묘한 전체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즉 '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과 '순환성(recursiveness)'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연계의 리아스식 해안선, 동물 혈관 분포 형태, 나뭇가지 모양, 창문에 성에가 자라는 모습, 산맥의 모습도 모두 프랙털이며, 우주의 모든 것이 결국은 프랙털 구조로 되어 있다.



미술과 음악

교과서 pp.164~165

● 단원 설정의 이유

미술과 음악은 모두 정신적인 작용의 산물로 유사한 창조적 원리로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였다.

음악의 소리를 색채와 연결시킨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있는 다양한 색채들은 음악에서의 음과 같고, 색채와 음은 수직적 비례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술과 음악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활동은 사고의 확장을 꾀하고 다양한 자기표현 활동과 예술의 표현 방식을 내면화할 수 있다.

이 단원을 통해 미술과 음악의 관계를 알고, 음악을 활용한 미술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학습 목표

이해	미술과 음악의 관계를 알고, 음악을 활용한 미술을 이해할 수 있다.
표현	그림을 음악으로 노래한 작품과 음악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을 조사할 수 있다.
감상	음악을 주제로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고 느낌을 발표할 수 있다.

단원	미술의 확장 – 미술과 통합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미술과 음악의 관계를 알고, 음악을 활용한 미술을 이해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교과서, 필기도구, 스마트폰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수업(협동 학습)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참고 작품 감상과 학습 동기 유발하기 –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의 일부분을 들려주고 학생들의 느낌을 질문한다. – 모네의 '건초 더미'를 보여 주고,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고 발표하게 한다.	· 학생들이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전개	◎ 미술과 음악의 관계 이해하기 –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의 탄생 배경과 인상주의 음악을 설명한다. – 모네의 '건초 더미'를 통하여 인상주의 미술에 대하여 설명한다. – 인상주의 음악의 특징을 생각하며,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의 일부분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한다. – 칸딘스키의 '작품 8'을 보여 주고, 미술과 음악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 그림을 음악으로 노래한 작품,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을 조사하여 활동지에 작성하게 하고, 순회하며 지도한다. ⊙ 조사 활동 – 4인 1조로 구성하여 그림을 음악으로 노래한 작품, 음악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1인당 1개씩 조사하고, 활동지에 내용을 작성한다. – 활동지에는 작품에 대한 설명과 느낀 점을 작성한다.	· 조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방치되는 학생이 없도록 먼저 조사한 학생이 뒤쳐지는 학생을 돕도록 한다. · 스마트폰을 수업과 상관없는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정리	◎ 작품 감상하고 발표하기, 내용 정리하기 – 조별로 작품 1개를 선정하여 조장이 발표한다. – 다른 조에서 발표한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발표한다. – 미술과 음악의 관계를 정리하여 설명한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타인의 의견 및 작품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관점	• 미술과 음악의 관계를 알고, 음악을 활용한 미술을 이해하였는가? • 그림을 음악으로 노래한 작품과 음악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을 조사하였는가? • 음악을 주제로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였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모네(Monet, Claud/프랑스/1840~1926) 건초 더미(캔버스에 유채/65×100cm/1889년 작)

1884년부터 1886년에 이르기까지 3년에 걸쳐 모네는 여름마다 건초 더미 연작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이후 1890년 이후에 제작된 '건초 더미' 연작 시리즈에서는 겨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도 보이는데, 이는 1890년에서 1891년으로 사이로 넘어가는 겨울이 특별히 초겨울에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하여 모네가 건초 더미의 겨울의 풍경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후기로 갈수록 '건초 더미' 연작에는 건초 더미가 화면의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클로즈업되어 잘려진 구도로 제작된 작품도 등장한다. 건초 더미에서 보이는 태양의 빛과 대기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오묘한 색채와 섬세한 붓 터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수성을 자아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건초 더미' 연작의 시리즈의 성공으로 모네는 지베르니에 그가 원하는 집과 정원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수련' 등 연작 시리즈를 계속 작업해 나가게 된다.

양민하(한국/1975~) 묵상(나무, 스피커, 컴퓨터, 프로젝터/600×800×330cm/2010년 작)

미디어아트 작가 양민하의 작품 '묵상'은 다양한 종교에서 '묵상'의 형상을 빌려왔다. 한국의 토착화된 거대 종교들이 가지는 수많은 상징들을 그는 이들 종교를 하나로 묶는 것에서 시작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원화된 묵상의 도구를 만들고자 했다. '묵상'은 일종의 가짜 종교이다. 붉은 빛이라든지 원형들은 이런 형상들을 하나로 묶는 시도였다. 구형의 묵상 작품에서 소리와 함께 발산하는 파장이 구의 반대쪽에서 서로 다시 만나는 형태를 그려내 윤회를 보여 주었고, 지속적으로 퍼지는 파장은 그 형태가 그대로 옮겨져 온 것이다. 원형 자체는 윤회를 상징한다. '묵상'은 주술적 상징의 지배 속에서만 가능한 실제적이고 선택적인 명상을 위한 작품이다.

보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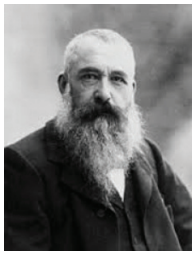
-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탄생 배경**

19세기 유럽은 민주주의적 해방에 대한 반동과 혁명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각 나라에서는 독립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촉구되는 시기였으며 이러한 대립, 싸움과 혁명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독일과 정치적으로 반목을 해왔던 프랑스는 1900년도에 파리에서 열었던 만국산업박람회로 유럽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파리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때 세계 각국에서 모인 관광객을 위해 갖가지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 중에서 인상주의 미술도 함께 소개되었다. 이 전시회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드뷔시는 1894년 말라르메의 상징시 '목신의 오후'를 근거로 하여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을 완성하였다. 이 곡을 통하여 드뷔시는 새로운 음악의 양식을 수립했고, 인상주의 음악의 선구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작가 탐구

모네(프랑스/1840~1926)



클로드 모네(Claude Monet)는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소년 시절을 영국 해협의 항구 도시인 르 아브르에서 보냈으며, 그곳에서 화가 외젠 부댕을 만나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며 외광 묘사에 대한 기초적인 화법을 배웠다. 또한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의 풍경화가 요한 바르톨드 용킨트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대기 중의 빛을 포착해 내는 기법을 익혔다. 1873년 화가, 조각가, 판화가 등으로 이뤄진 무명예술가협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이 인상주의의 모태가 되었다. 1874년 첫 번째 그룹전을 열어 '인상, 일출'을 출품했다. 이 전시를 관람한 비평가 루이 르로이(Louis Leroy)는 모네의 '인상, 일출'에 대한 조롱의 의미를 담아 처음으로 '인상주의'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리고 인상파란 이름이 모네를 중심으로 한 화가 집단에 붙여졌다. 모네는 1890년 이후부터 하나의 주제로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리는 연작을 많이 제작했다. '건초 더미'를 비롯해 '포플러 나무', '루앙 대성당', '수련'은 대표적인 연작 작품이다. 모네는 연작을 통해 동일한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잘 표현해 낼 수 있었다. 모네의 눈에는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빛의 변화가 느껴졌다. 때문에 그는 태양이 뜨고 질 때까지 캔버스를 바꿔가며 하나의 대상을 그렸다.

칸딘스키(러시아→프랑스/1866~1944)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1866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1886년 모스크바 대학교에 들어가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성공적인 법학자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는 1895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그림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듬해인 1896년 독일로 건너가 아즈베 미술 학교에서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초기에 그는 화려한 색채의 풍경화나 러시아 민속화에서 영감을 얻은 주제들을 그렸으나, 점차 구상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대상과 상관없이 형태와 색채, 선들 속에서 표현 가능성의 확장을 발견했다. 그리고 음악과 철학, 근대 미술과 추상 작업에 대한 사상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1909년 그는 캔버스를 매우 자유로운 필치의 점과 색띠로 뒤덮음으로써 추상을 탐험했다. 칸딘스키는 현대 추상 회화의 선구자로서 대상의 구체적인 재현에서 이탈, 선명한 색채로서 음악적이고 다이내믹한 추상 표현을 이루어 냈다.



제3부 미술의 확장 미술과 통합

미술과 공연 예술

미술과 공연 예술의 통합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공연 예술을 기획한다.

미술은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통해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 중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예술 형태를 공연 예술이라 하는데, 연극뿐만 아니라 음악 · 무용 · 뮤지컬 · 행위 예술 · 문화 행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종합 예술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문화 의식을 높이며,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가꾸어 갈 수 있다.

신체로 표현하는 행위 미술

행위 미술은 신체를 통한 행위를 중시하며 육체적인 교감이나 감각을 통해 관람자에게 접근하는 예술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신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도구로 존재의 의미를 표현해 왔다. 신체로 표현하는 행위 미술에 대한 관심은 미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술 및 사회 전반에 퍼지는 현상으로 사회 문화의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며 작품에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 미술은 '신체'를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미술 작품에 활용하며 예술의 주요한 표현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1 아브라모비치(Abramovic, Marina/유고슬라비아/1946~) **시간 속의 관계**(퍼포먼스/1977)년 작 남녀 관계를 주제로 나타낸 퍼포먼스 작품이다. 서로 마주앉 앉아면 채 등을 맞대고 똑같이을 입어 있다가, 관객을 입장시켜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보편적인 사회의 인간의 태를 표현하였다.

2 클랑(Klein, Yves/프랑스/1928~1962) **창백 시대의 인체 측정**(퍼포먼스/1960)년 작 푸른색 페인 물감을 바른 모델이 종이에 몸을 찍는 퍼포먼스를 전개하고 있다. 클랑은 창백의 모노크롬의 화면을 스스로 '인체측정술 클라인즘 블루'라 이름 지었으며, 푸른 이들과 같은 '비물질성'을 주제로 작품을 전개하였다.

3 유진슨(미국/1962~) **네 점짓 – 반송**(퍼포먼스/2008)년 작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매체를 통해 인스이라는 주제로 표현하였다. 음악적인 표현을 위해 단순한 몸 거의 소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상체만 움직임 얼굴의 과장된 표정과 움직임으로 인간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조 사 미술과 공연 예술이 통합이 된 사례를 조사해 보자.

이 해 미술과 공연 예술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연 예술이 미술의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자.

용 어 마임 그리스 어 미모스(mimos: 모방하다), 중세 내 3C에서 유래했으며, 상상행동을 주제로 한 몸사와 출에 의한 측층 해석을 말한다.

알고 가기 | 플럭서스

1 케이지(Cage, John/미국/1912~1992) **에프넘**(퍼포먼스/1964)년 작 극적인 요소를 강조한 이벤트 형태를 통해 시공간을 강조하는 개인적 경험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플럭서스는 '변화', '움직임', '흐름'을 뜻하는 용어로 1960년대 초부터 10가지년대에 걸쳐 일어난 국제적인 전위 예술 운동이다. '살과 예술의 조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플럭서스 운동은 이후 활발한 국가 간의 문화 교류로 인하여 빠르게 퍼져나가 전 세계에서 기와 동시에 나타났다. 플럭서스는 처음에는 미술에서 출발하였으나, 곧 예술의 여느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콘서트 · 이벤트 · 출판물 · 신문물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면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탈 장르적인 예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플럭서스 운동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 형식을 융합한 통합적인 예술 개념을 탄생시켰으며, 기존의 예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2 백남준(한국→미국/1932~2006), **무어만**(Moorman, Charlotte/미국/1933~1991 **셀로 퍼포먼스**(퍼포먼스/혼합 재료/1964)년 작 다양한 형식과 재료를 혼합해 동시에 표현한 제이었는 작품으로 독창적인 표현이 인상적이다.

경계를 확장한 미술

현대 미술은 무용, 뮤지컬, 연극 등을 미술 표현의 적절적인 매체나 주제로는 대상으로 다른 분야의 예술에 창작 동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장치의 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미술이 적용되는 방법과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점차 다른 분야 예술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공연 예술은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는 문학과는 달리 공연 장소에서 공연자를 통해 표현되는 동안만 존재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사라지는 일회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간과 시간의 한계, 제작상의 여러 가지 제약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NAS(한국/시설미 기장) **움직이는 자동차 악기 스프로잇로**(혼합 재료/기년 크기/2006)년 작 이 예술 표현은 인간 중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악기 스프로잇 바퀴이으를 통해 노래, 춤, 연극 등의 다양한 공연 요소와 음악이 결합된 복합 공연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상상을 통해 폐지재, 폐트병 등 생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악기의 공연자들이 내는 악기의 소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놀라움, 기쁨, 재미 등의 다양한 감정을 전달한다.

2 로사이스(Forsythe, William/미국/1949~) **사진의 전설**(퍼포먼스/2012)년 작 마술과 무용을 결합하여 관람객들이 곧 작가가 되고, 작품이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기획하였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전시회의 기존 개념에서 탈피해, 관람객이 직접적인 안무를 경험하거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완성되도록 하였다.

3 밀로바(Ambre/아프/무용 그룹) **베이퍼**(퍼포먼스/2006)년 작 높이 8m의 LED스크린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면 거울속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감지해야 스크린에 구멍과 같은 이미지로 손출한다. 인터랙션 디자인, 프로그래밍 엔지니어, 기술 감독, 무대 미술가 등 첨단 기술과 신체를 접목한 미술이 혼합하여 표현한 새로운 미술 작품이다.

4 설안두(한국/1969~) **시네마지션**(퍼포먼스/2010)년 작 영화적 방법을 작품에 활용하여 현실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도록 연출한 작품이다. 예술사의 관객 간의 상호 작용을 주제로 표현한 퍼포먼스를 통해 현실과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상상을 하도록 표현하였다.

5 라이더 댄스 무용단(한국) **스톰과 상생**(퍼포먼스/2012)년 작 스톰과 상생이라는 주제를 현대 무용으로 표현한 퍼포먼스이다. 각자의 그림과 개별성의 영역에서 벗어나 상호 소통과 조정을 통해 예술인과 대중의 조화, 하나됨의 과정을 무대 위 공연을 통해 나타내었다.

분 석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미술에 적용한 작품의 효과를 설명해보고,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견해에서 토론해 보자.

생각과 표현 | 함께하는 퍼포먼스

다양한 형식의 종합 예술을 통하여 새로운 표현을 경험하고, 문화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다.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기획하여 생동감 있는 미술을 제작해 보자.

자크랑(한국/1963~) **레드 시그널**, 퍼포먼스(다매체 영상)/기년 상자/2010년 작 작가의 공지를 보고 특정 장소에 모인 참여자들은 준비된 일정한 오브제를 가지고 그룹별로 변동가지역을 이동하며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단체별 영상을 여러 개 설치하여 다채로 영상들 간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전달하는 작품이다.

상을 구현하여 생동감 있는 공간감을 통해 그들의 존재감을 표현하려 하였다. 퍼포먼스의 기록 또한 설치작품 형태 전달하며, 함께 만든 관람객는 전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미술과 공연 예술

교과서 pp.166~169

● 단원 설정의 이유

현대에 와서 미술은 공연 예술과의 통합이 시도되었고 이것은 기존보다 더욱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 공연 예술은 본질적으로는 표현자와 관객이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자리에서 작품의 실체가 만들어져 가는 형태의 예술을 가리킨다. 이러한 예술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문화 의식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미술과 공연 예술의 통합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공연 예술을 기획하여 표현하는 활동은 새로운 표현 활동의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이 단원을 통해 미술과 공연 예술의 관계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공연 예술을 기획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 학습 목표

이해	미술과 공연 예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표현	친구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기획하여 생동감 있는 미술을 제작할 수 있다.
감상	퍼포먼스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발표할 수 있다.

단원	미술의 확장 – 미술과 통합	**차시**	①②③❹⑤⑥⑧
학습 주제	미술과 공연 예술의 통합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공연 예술을 기획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카메라 학생: 교과서, 필기도구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실기 수업(협동학습)	**평가 방법**	관찰법, 수행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참고 작품 감상과 학습동기 유발하기 – 미술과 공연 예술이 통합된 다양한 참고 작품을 제시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 미술과 공연 예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문한다. – 학생들의 대답을 충분히 듣고 미술과 공연 예술의 관계와 공연 예술에 미술이 주는 영향을 설명한다.	· 동영상 자료 등 흥미로운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한다.
전개	◎ 퍼포먼스 기획하기 – 퍼포먼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다. – 4인 1조가 되어 조별로 주제를 정하고, 퍼포먼스를 기획하여 활동지에 작성한다. (퍼포먼스에 필요한 준비물, 효과음, 각자의 역할 등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을 작성하게 한다.) – 조별로 순회하며 지도한다. ⊙ 표현 활동, 감상하기 ⊙ – 퍼포먼스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조별로 사전 연습을 한다. – 사전 연습이 끝났으면 조별로 준비한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다른 조는 감상을 한다. – 퍼포먼스가 끝나면 공연을 한 조는 주제, 제작의도, 느낀 점 등을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한다.	· 주제 및 표현방법에 최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이 나오도록 한다. · 학생들의 퍼포먼스 공연을 카메라로 꼼꼼히 촬영한다.
정리	◎ 발표하기, 내용 정리하기 – 친구들의 퍼포먼스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한다. – 미술과 공연 예술의 관계를 정리하여 설명한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타인의 의견 및 작품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관점	• 미술과 공연 예술의 관계를 이해하였는가? • 친구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기획하여 생동감 있는 미술을 제작하였는가? • 퍼포먼스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였는가?	

교과서 속 작품 해설

클랭(Klein, Yves/프랑스/1928~1962) 청색 시대의 인체 측정(퍼포먼스/1960년 작)

1960년 5월 9일 파리의 국제 현대 미술 갤러리에서 프랑스의 현대 미술가 이브 클라인(1928~1962)이 시연한 퍼포먼스이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이브 클라인은 청색 물감이 가득 든 양동이를 든 세 명의 벌거벗은 여인들과 함께 흰 종이를 바닥에 깐 무대 위에 등장했다. 그 시대로선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 공연엔 초대받은 관객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실내 악단은 이브 클라인의 명령에 따라 그가 작곡한 '단일조 교향곡'을 연주했다. 이 교향곡은 하나의 화음이 20분간 계속된 후 동시에 절대적인 침묵이 뒤를 잇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브 클라인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양 두 손 가득히 푸른 물감을 떠내어서 세 여인의 가슴과 둔부에 칠을 하였고, 여인들은 땅바닥이나 칸막이로 몸을 밀어붙이거나 기어가며 몸 자체가 붓이 되어버린 듯 이른바 '인체 측정'이라고 하는 육체의 흔적을 만들어 냈다. 신사실주의(누보 레알리즘) 운동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였던 이 공연의 취지는 순수한 행위의 미학을 되찾고 창조 작업에 절대적인 객관화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포사이스(Forsythe, William/미국/1949~) 사건의 진실(퍼포먼스/2012년 작)

2012년 경기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MOVE '전에 미국 출신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스의 설치 작품이다. 포사이스는 마당을 제공하고, 관객들은 작품을 완성한다. 미술과 무용 사이의 상호작용이 화두지만 전시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춤 동작과 거리가 먼 행동을 요구한다. 이 작품에서 관객은 링 고리에 올라서서 공간을 가로지르는 체험을 할 수 있는데 포사이스는 이 작업을 통하여 '신체가 그 스스로를 경험하게 하는 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도했다. 직접 신체를 움직여 몸의 무게나 움직임에 대한 느낌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정연두(한국/1969~) 시네매지션(퍼포먼스/2010년 작)

시네매지션(Cinemagician)이란 Cine + Magician이 결합되어 '영화 마술가'라고 불리는 것이다. 〈시네매지션〉은 마술, 영화 그리고 영화 찍는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퍼포먼스이다.

〈시네매지션〉은 80년대 겨울, 그리고 봄, 여름으로 이어지는 지리산 제석봉에 관한 풍경의 재현으로, 무대 위에서 마술사 이은결이 예술가가 되어 작가의 이상향의 풍경을 관객들 앞에서 만들어 나가는 작품이다. 실제 마술사인 이은결이 진행하는 무대 위 마술쇼는 그 순간과 전경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경 그리고 주변부 상황까지 모두 영상으로 찍혀 무대 앞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보여진다. 이 다차원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술쇼의 긴장은 다양한 감정으로 전이된다.

참고 자료

- **신사실주의(누보 레알리즘)**

'새로운 표현성'과 '자신이 인식한 개인적 사실의 모험'을 추구하며 개념이나 상상적 표현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기존 가치에 항거한다는 취지이다.

- **플럭서스**

화가, 시인, 무용가, 영화감독 등 예술의 전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했던 플럭서스 그룹은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미국의 정치적 · 문화적 분위기에 대한 거부에서 출발한다. 이 그룹은 미국적 지역색이 농후한 형식주의적 모더니즘과 상업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를 거부하고 개그, 조크, 유머, 직접성, 명쾌성, 즉흥성, 실용성의 회복과 다매체 간의 새로운 교류와 혼합을 통해 예술의 열린 지평을 확보하여 예술과 인생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한다.

플럭서스는 인생과 예술, 그 양자에 대해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태도'를 요구한 이의 제기형 예술이었고, 표현 양식도 전통적인 매체나 제도적으로 확립된 장르의 권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실험적이고 혼성적인 매체 혼합적 예술 운동이다.



연인이었던 울라이가 MOMA 퍼포먼스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규율을 깨고 손을 잡았고 눈물을 흘렸다. 12년간 동고동락해 온 커플은 1988년 만리장성 퍼포먼스 이후 헤어졌다. 울레이는 음주와 마약에 빠졌고, 아브라모비치는 독자적인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정상에 섰다.

작가 탐구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유고슬라비아/1946~)



유고슬라비아에서 출생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베오그라드에서 회화를 공부하고, 60년대 후반부터 퍼포먼스를 통한 예술적 실험을 시작한다. 1973년 작가는 〈리듬 10 (Rhythm 10)〉이라는 첫 퍼포먼스 작업에서 손가락을 벌리고 그 사이를 칼로 찍는다. 의식과 제스쳐에 관한 관심, 페미니즘적 태도와 발칸 지역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작품에서 발견된다. 1976년 독일 아티스트인 울라이 (Ulay)를 만나며 연인이자 동료로서 약 12년간의 작품생활을 함께 한다. 1988년에 마지막 퍼포먼스인 만리장성을 각각 반대쪽 끝에서 걷기 시작하여 중간에서 만남으로써 그들의 관계는 끝난다. 2010년 봄 뉴욕현대 미술관(MOMA)에서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회고전을 열었는데, 아브라모비치는 2층 로비의 작은 테이블에서 736시간 30분동안 관람객과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응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 퍼포먼스에 참여하기 위해 MOMA 앞에서 밤을 새는 이들이 부지기수였고, 샤론 스톤, 이자벨라 로셀리니, 제임스 프랭코 등 유명 배우도 참여했다. 특히, 옛 연인이자 동료였던 울라이가 퍼포먼스에 나타나 22년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축제로 만나는 미술

미술의 영역을 폭넓게 확장시킨 축제는 각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와 고유한 전통 의식을 통합하며 어울림을 만든다. 또한 문화적인 사야를 넓힐 수 있도록 특색을 살린 축제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간에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삶을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 준다.

축제는 시대와 지역을 넘어 예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우리에게 생동감 있는 예술 표현을 경험하게 하는 종합 예술로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조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를 선정하여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1 진주 남강 유등 축제 2012년 작(한국)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하늘을 떠다니는 유등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전통적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람을 이용하여 공중에 등을 날리는 점등, 세계 각국과 지역의 특색을 표현한 등을 제작하여 선보이는 지연등과 무속신앙을 상징 목적한 축제로 자리 잡았다.

2 나담 축제 2012년 작(몽골) 매년 7월 11일 ~ 7월 13일까지 3일간 열리는 축제로 전통에 관한 유목 민족의 특성을 잘 살려 씨름기, 활쏘기, 씨름 등을 즐기는 축제이다.

3 노팅힐 축제 2010년 작(영국) 카리브 해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의 문화를 디자인 하란 행사였으나, 전 인종이 하나 되어 즐기는 거리 축제로 발전되어 카니발 같이가 4.2km에 이른다.

4 세계박람회 축제 2005년 작(독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핵사코의 작은 도시 '게네테도'에서 매년 10월 중 20일간 열리는 축제로 중합 예술을 함께 나누는 행사이다.

5 바나나 카니발 2010년 작(이탈리아) 이탈리아 볼의 도시 바나스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화려한 파년과 다양한 가면을 구경할 수 있으며, 자신을 숨긴 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1 리우 삼바 카니발 2012년 작(브라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매년 2월 말~3월 초, 4일 동안 열리는 세계적인 축제이다.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타악기 연주가 곁들여진 소규모 거리 행진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각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거리를 군기 사이에서 선행되는 퍼레이드 쇼로서 명사로 발전하였다.

2 삿포로 눈꽃 축제 2011년 작(일본) 1950년 삿포로 시내의 중고등 학생들이 6개의 얼음 조각을 모도리 공원에 전시하여 시작되어 현재는 대형 얼음 조각과 눈으로 만든 예술 조각들이 1.5km에 걸쳐 전시되는 축제로 발전하였다.

생각과 표현 | 학교 축제 속 공연 예술

우리는 학교 축제를 통하여 영상과 음향, 퍼포먼스 등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각 학교의 문화를 살린 축제를 기획하는 활동을 통해 미술과 공연이 결합된 작품을 제작해 보자.

감소연 외 20명작품 작품 오아시스 세탁소(뮤지컬) 2012년 작 오아시스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이인의 구성원 6개 작품이다. 일상적인 상황 속 개인 갈등, 승개인 생각과 감정 등이 잘 나타나 있다. 다양한 이슈 작품을 배경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장, 음악 면도, 춤, 대사에 학교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무대를 연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정리 ● 공연 예술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문화 의식을 높이며,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가꾸어 갈 수 있다.

평가 공연 예술 속에 적용된 미술의 역할을 발견하고, 창의적인 공연을 기획하여 보는가?

참고 자료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이 낮 동안의 금식을 풀고 첫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을 앞에 놓고 일몰을 기다리고 있다.

교과서 속 작품 해설

리우 삼바 카니발(브라질)

리우 카니발은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사람들의 사순절 축제와 아프리카 노예들의 전통 타악기 연주와 춤이 합쳐져서 생겨났다. 이것이 점차 발전하여 20세기 초에 지금과 같은 형식의 카니발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초반까지는 보통의 거리 축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 뒤 삼바 학교들이 설립되고 학교별로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지금과 같은 큰 규모의 축제로 발전하였다.

삿포로 눈꽃 축제(일본)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선 삿포로 시민들을 위로하고, 춥고 긴 겨울을 즐겁게 보내자는 의도로 1950년 제1회 행사를 개최한 이후, 매년 2월 초에 열리는 일본 최대의 축제이다. 개최 기간은 1주일 정도이며, 삿포로 시내의 오도리 공원 · 나카지마 · 스스키노 등 네 곳에서 개최된다.

이중 오도리 공원에서 열리는 눈과 얼음의 조각 전시회가 가장 볼 만한데, 세계적으로 이름난 건축물을 비롯해 동화 속 주인공들의 모형이 길이 1.5㎞, 최대 너비 105m의 공원 곳곳에 전시된다. 또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눈 · 얼음 조각가들이 제작한 300여 개의 크고 작은 설상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 그밖에 음악회 · 패션쇼 · 스키쇼 · 레이저쇼 · 노래 자랑을 비롯해 국제 설상 경연 대회, 눈의 여왕 선발 대회 등 각종 행사를 한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한국)

남강에 유등을 띄우는 풍습은, 1592년 10월 김시민 장군이 2만의 왜군을 맞아 싸울 때 성 밖의 지원군과 군사 신호로 풍등(風登)을 올리며 횃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운 데서 비롯되

었다. 또한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막는 군사 전술과, 진주성의 병사들이 성 밖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 수단으로도 쓰였다.

이듬해 전투 때 순절한 7만 명의 민관군의 애국혼을 기리고 전통 유등 놀이를 계승 · 보존하기 위해 오랜 세월 이어져 오던 유등 풍습을 1949년부터 유등 놀이로 정착시켰고, 2000년부터 규모를 확대하여 축제로 치르고 있다.

베니스 카니발(이탈리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이다. 이 축제는 부활절 40일 전에 시작된다. 중요한 행사인 가면 대회는 축제의 마지막 주말에 열린다. 이 축제는 1162년에 시작되어 르네상스 후 공식 축제로 지정되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79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베니스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이 축제에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았으며, 그 결과 지금은 매년 대략 300만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유명한 축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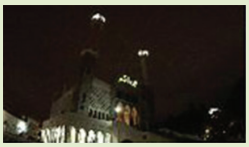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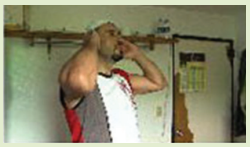
라마단 축제

15억 이슬람권의 성월(聖月)이면 단식월(斷食月)인 라마단이 시작된다. 우리는 단지 '단식'이라 알고 있고, 그들은 이때를 '축제 기간'라 부른다.





라마단 기간 중 무슬림들은 신에 대한 순종을 표시하고 굶주린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일출에서 일몰까지 물과 음식물을 일절 먹지 않는 수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단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다. 사실 하루 종일 굶으며 온갖 음식을 만드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심지어 음식의 간까지 볼 수 없어 일하는데도 불편함이 많다. 하지만 그들에게 라마단은 고통이 아니라 축제의 기간이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배고픔을 기꺼이 감내하게 하고, 즐거운 축제로까지 느끼게 할까?





얼마 전 국내 유수의 라면업체가 할랄 인증을 받고 이슬람 시장에 나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할랄(Halal)이란 아랍 어로 '허용된' '율법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할랄푸드는 소, 닭, 양 등 허용된 고기도 신의 이름으로 하는 주문을 외운 뒤 요리한다. 과자나 주스 가공식품들도 돼지나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한다.

해가 지고 금식이 끝이 나면 단식을 깨는 음식 '이프따르'를 먹는다. 이 음식은 가족 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음식이다.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 중앙 성원에 이프따르용 음식을 기부하는 단체나 개인이 줄을 잇는다.

이둘 피뜨르

금식뿐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자선도 라마단의 주요 화두다. 한 달간의 금식을 마치고 이슬람력으로 열 번째 달이 되면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이둘 피뜨르'라는 축하 행사가 열린다. 충실하게 단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신께 감사를 표시하는 날이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종의 축제가 펼쳐진다.

라마단 축제의 변화

해가 떠 있는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다가 해가 지면 축제를 벌이는 이슬람권의 금식 기간 라마단의 풍습이 바뀌고 있다. 라마단이 '이슬람권의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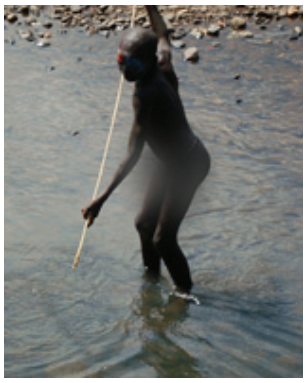
참 고 자 료

● 아프리카 수르마족 동가 축제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남서부, 수단과의 국경에 위치한 오모 강 유역. 이 지역에 살고 있는 20여 소수 부족 중에서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원시적인 삶을 고수하고 있는 수르마족은 '아프리카 최후의 전사'로 알려져 있다.

수르마족 남자들은 용맹스럽기로 유명한데 매년 추수가 끝나면 부족들의 용맹함과 강인함을 과시하는 '동가 축제(Donga Fighting)'가 열린다.







미술 자료실 미술의 확장 미술과 통합

세계의 미술 행사 비엔날레

비엔날레(Biennale)는 '2년마다'라는 뜻으로 미술 분야에서 2년마다 열리는 전시 행사를 일컫는다. 비엔날레라는 말이 보급된 것은 1895년에 세계 최초로 시작된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부터이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브라질의 상파울루 비엔날레, 미국의 휘트니 비엔날레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제45회 전시부터 독립된 국가관을 개관하여 참가하고 있다.

그 밖에도 리옹 비엔날레(프랑스), 이스탄불 비엔날레(터키), 하바나 비엔날레(쿠바), 요하네스버그 비엔날레(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1995년에 처음 열린 광주 비엔날레를 비롯하여 다양한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다. 이 같은 국제 비엔날레 행사들은 실험성과 지역성, 젊은 미술가를 육성하려는 당초의 의도에서 확대되어 최근에는 상업성과 국가 경제와 문화 이미지의 제고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1 2 3

세계 3대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는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여러 종류의 비엔날레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길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1895년에 시작된 베니스 비엔날레는 국가관별로 전시를 개최하는 점이 특징이다. 2년마다 6월에서 9월까지의 여름 동안 27개국의 독립 전시관과 가설 전시관을 설치하여 세계 각국의 최신 미술 경향을 소개하는 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술뿐만 아니라 영화, 건축, 음악, 연극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시각에 독립된 행사를 벌이고 있다.

상파울루 비엔날레 1951년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시작된 비엔날레이다. 가장 큰 업적으로는 브라질 미술은 물론 제3세계 국가들로 미술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이다. 세계 각지에서 미술 관계자들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친교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휘트니 비엔날레 엘리트 작가 중심의 권위주의적 미술에 반발하여 출범한 휘트니 비엔날레는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전위적 작품 경향으로 엄청난 화제와 논란을 일으키는 미술제로 유명하다. 아울러 시상 제도나 상금은 없다. 1932년부터 미국 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참가 자격을 기존 미국 시민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확대하였다.

1 베니스 비엔날레(이탈리아/2012년) 2 상파울루 비엔날레(브라질/2011년)
3 휘트니 비엔날레(미국/2012년)

170

광주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는 1995년에 아시아 지역 최초로 출범한 비엔날레로 홀수년도 9~10월에 열린다. 매 회마다 세계 인류 사회 문화 현실과 주요 이슈, 미래의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한 주제와 전시 개념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각 이미지와 담론으로 펼쳐낸다. 국제 현대 미술전을 중심으로 국제 학술 회의와 특별 동반 프로그램 등을 개최한다.

비엔날레관을 주무대로 한 전시는 총감독의 전시 기획 방향과 개념, 연출 방식에 따라 몇몇 섹션들로 구성되며, 80~100여 명의 작가와 작품들로 꾸며진다. 중외 공원과 광주 시내 곳곳에서 일부 전시 또는 프로그램을 분산 개최하기도 한다.

부산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는 관광, 물류, 국제 회의의 중심지인 부산에서 오랜 기간 개최되어 오던 부산 청년 비엔날레(1981년), 바다 미술제(1987년), 부산 야외 조각 심포지엄(1991년)을 통합해 시작된 국제 미술 축제이다.

광주 비엔날레에 이어 2000년에 출범하여 아시아 미술의 거점 도시로서의 부산이라는 도시의 저력과 현대 미술을 이끌어온 부산 미술의 역사를 바탕으로 세계 미술과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경기도 세계 도자 비엔날레

경기도 세계 도자 비엔날레는 한국 도자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도자 예술 및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국제 예술 행사로서 2001년 제1회 비엔날레를 개최한 이래, 경기도를 세계 도자의 중심지로 성장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어 왔다.

도자 분야 최고의 국제 행사로서 '도자(ceramics)'라는 매체를 통해 전 세계 도예인들과 소통하며 도자 전문가 및 애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와 예술을 교류하는 장소가 되었다. 경기도 세계 도자 비엔날레는 현대 도자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1 2 3 4 5 6

1 광주 비엔날레 개막 행사(2012년)
2 부산 비엔날레 심볼마크
3 경기도 세계 도자 비엔날레(2011년)
4 대구 사진 비엔날레(2012년)
5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2011년)
6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2009년)

대구 사진 비엔날레

오늘날 사진 예술은 현대 미술의 흐름을 주도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문화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사진 예술의 전통과 역사 등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구를 아시아의 사진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해 왔다. 새로운 비전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문화 예술 행사로서 기초 예술 진흥과 연관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인이 주목하는 행사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축제로 세계 서예인이 모여 서예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이다. 한자 문화권 고유 예술인 서예의 근원적인 조형성을 성찰함과 동시에 세계에 싹트기 시작한 서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나아가 미래의 서예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비엔날레이다.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는 2년마다 개최되는 공예 분야의 국제 비엔날레이다. 금속 · 도자 · 목칠 · 섬유 · 유리 · 종이 그리고 전승 공예까지 망라해 공예 재료와 기법의 전모를 볼 수 있는 종합 공예 전시이다.

용어 트리엔날레(Triennale) 3년마다 열리는 행사로 디자인 분야에서는 밀라노 트리엔날레, 순수 미술 분야에서는 인도에서 개최되는 트리엔날레가 유명하다.
콰드리엔날레(Quadriennale) 비엔날레와 같은 행사가 4년마다 열리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미술 행사가 있다.

171

세계의 미술 비엔날레

교과서 pp.170~171

● 단원 설정의 이유

비엔날레를 통해 오늘날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면서 동시대 현대 미술의 흐름뿐만 아니라 미술계 미래의 전망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엔날레에 대해 학습하게 되면 미술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동시대의 예술 문화의 경향과 흐름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비엔날레의 유래와 종류, 특징을 학습할 뿐 아니라 비엔날레에 소개된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토의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도 깊은 학습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비엔날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직접 소개하는 표현 활동을 제시해 보았다.

● 학습 목표

이해	비엔날레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표현	비엔날레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포스터를 만들 수 있다.
감상	비엔날레에 소개된 작품을 감상하며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단원	미술의 확장 – 미술과 통합	차시	①❷③④⑤⑥⑧
학습 주제	비엔날레의 목적과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준비물	교사: 참고 사진, 예시 작품, 활동지, 학습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학생: 교과서, 필기도구, 활동지, 도화지, 채색 용구 등		
수업 모형	이해 · 감상 및 토의식 수업	평가 방법	관찰법, 동료 평가, 지필 평가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작품 감상과 동기 유발하기 – 우리나라 작가가 참여한 비엔날레 관련 뉴스를 보며 비엔날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 비엔날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감상한다. – 비엔날레의 목적과 종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비엔날레의 중요성을 자연스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 민화의 정신성과 특징을 작품 감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지도한다.
전개	◎ 비엔날레의 유래와 특성 설명하기 – 비엔날레의 유래와 어원에 대해 설명한다. – 세계 3대 비엔날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소개한다. –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에 대해 설명하며 안내한다. ⊙ 학습 활동 ⊙ 최근에 개최된 비엔날레 조사해 포스터 만들기 – 최근에 개최된 비엔날레를 모둠별로 나눠 조사한다. –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포스터 형태로 만들어 교실에 부착한다.	· 비엔날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포스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리	◎ 서로의 보고서 감상 하기 –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 – 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살펴보고 보충 내용을 넣는다. – 다음 학습 내용을 알고, 주변을 정리한다.	· 타인의 의견 및 작품을 존중하며 다양한 생각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평가 관점	• 비엔날레의 유래와 어원을 이해하였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개성 있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 전통 미술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활동을 통해 전통 미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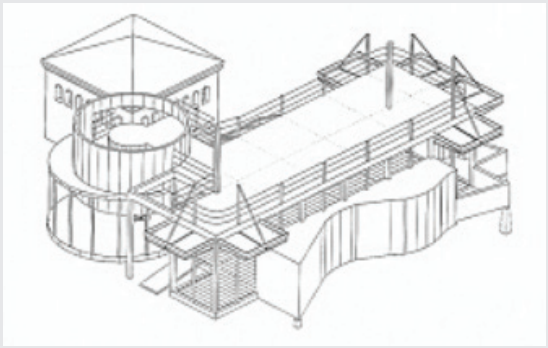
베니스 비엔날레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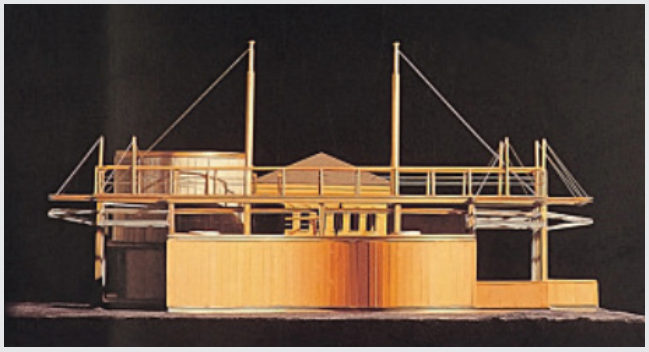
베니스 비엔날레는 1895년에 시작해 11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비엔날레다. 단지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전세계 미술인들의 축제이자 교류의 중심으로서 베니스 비엔날레가 미술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특히 베니스 비엔날레는 현재 열리는 200여개의 비엔날레 중 유일하게 국가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미술 올림픽'이라고 불린다. 매 해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국가관의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카스텔로 공원 내에는 주요 나라별 국가관이 들어서 있다. 그 중 한국관은 베니스 비엔날레가 100주년을 기념하던 1995년에 26번째 국가관으로 개관했다. 한국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국가관은 모두 공원 바깥 베니스 시내 인근 장소를 빌려서 전시한다. 실제로 카스텔로 공원 내에 있는 국가관 중에서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이 세워지게 된 건 1993년 백남준이 참여했던 독일관이 황금사자 상을 수상하며, 백남준이 베니스 비엔날레 운영위원회와 베니스 시 당국에 한국관 건립을 주장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다른 미술인들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관광부, 그리고 기업들의 후원으로 카스텔로 공원 안에 부지를 배정받게 되었다. 위치는 독일관과 일본관 사이에 약간 뒤편, 좁은 부지에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조항을 역이용해 건축가 김석철은 마치 공원 안의 숲 속에 UFO가 착륙한 듯, 구불구불한 구조로 유리와 금속을 주재료로 짓는 것으로 설계했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평면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건축 모형

작가 탐구

김수자 (한국/1957~)



1990년대 초반 시작한 '보따리' 연작 때문에 흔히 '보따리 작가'로 불리는 김수자가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 대표로 선정되어 세계 무대에 인상적인 전시를 선보였다.

'보따리' 개념으로 한국관이라는 공간을 싸고 다시 풀어내는 방식의 작업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으며 그동안 집적된 보따리의 개념과 문맥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작업으로 평가받았다. 김수자 작가는 1957년 대구 출생으로 홍익대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는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그리고 서울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보충 자료

세계 3대 비엔날레에서 수상한 한국 작가

김환기(1913~1974)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한국 대표 참가

백남준(1932~2006)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 상 수상

전수천(1947~)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 수상

이불(1964~)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 수상

밀라노 트리엔날레

3년에 한 번 개최되며 근대 건축, 장식 미술, 현대 건축과 장식, 산업 공예, 도시 계획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되며, 공예, 디자인, 건축, 미술에 이르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토론 후 제안하는 게 목적이다.

교과서 단원정리

1 | 컬리그래피

좁은 의미로는 서예를 말하며,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문자를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

2 | 집필법(붓을 잡는 방법)

① 단구법: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붓대를 쥐고 나머지 손가락이 받쳐주는 방법(작은 글씨에 적합)이다.
② 쌍구법: 엄지와 집게, 가운데손가락으로 붓대를 쥐고 나머지 손가락이 받쳐주는 방법(중간 글씨와 큰 글씨를 쓰기에 적합)이다.
③ 오지법: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네 손가락을 마주 모아서 잡고 쓰는 방법(큰 글씨를 쓰기에 적합)이다.

3 | 사진을 이용한 기법

① 포토몽타주: 사진을 오린 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신문지와 드로잉 등과 함께 재조합하여 새로운 합성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이다.
② 포토그램: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인화지 위에 물체를 올려놓고 감광시켜 추상적인 영상을 얻는 방법이다.

4 | 비디오 아트

① 1970년대 전반부터 성행한 현대 미술의 한 경향으로 비디오와 TV 모니터 등의 매체와 기술을 이용한 작품이다.
② 대중과의 소통, 관객의 적극적 참여와 반응을 중시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예술이다.

5 | 레이저 아트

① 레이저는 현대 산업 사회가 만들어 낸 빛의 총아라고 할 만큼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인공 빛으로 이를 이용한 예술을 말한다.
② 컴퓨터를 이용해 레이저 빛의 이미지를 생산, 변형하는 레이저빔 작업과 2차원의 화면에 상을 투영하는 레이저 그래픽 작업이 있다.
③ 강력한 응집 및 직진성을 이용한 다양한 표현을 추구하는 예술로 환상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다.

6 | 애니메이션의 종류

① 셀 애니메이션: 투명한 셀룰로이드에 배경과 캐릭터를 분리하여 그리고, 그것을 겹쳐 배경은 그대로 두고 캐릭터만 움직이게 하는 애니메이션이다.
② 플립 북: 책이나 노트 끝에 조금씩 변해 가는 그림을 그린 후, 손으로 튕기듯 빨리 넘기면 그림이 연속되어 보여 움직이는 느낌을 준다.
③ 클레이 애니메이션: 찰흙으로 형태를 만든 후 동작을 단계적으로 촬영하여 사진을 연결하는 애니메이션이다.
④ 그림자 애니메이션: 종이를 오려서 만든 그림자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이다.
⑤ 모래 애니메이션: 빛이 비치는 유리판 위에 모래를 뿌려서 생긴 음영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이다.

7 | 조소의 형태에 따른 분류

① 환조: 완전한 입체 작품으로 사방에서 감상
② 부조: 반 입체 작품으로 한쪽 면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것으로, 평면에 표현되고 배경이 있어 회화에 가까우나 입체적인 면에서 조각의 일종이다.
③ 투조: 작품의 배경 수 일부를 뚫어서 표현이다.
④ 심조: 주제를 바탕보다 더 낮게 파서 표현이다.
⑤ 선조: 평면 위에 선을 양각 또는 음각하여 표현이다.

8 | 키네틱 아트

① 키네틱이란 '움직임'이란 뜻을 가진 것으로 작품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넣은 작품을 말한다.
② 주로 전기 장치인 모터와, 기계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계획적인 움직임을 주는 것으로 작품은 거의 조각 형태이다.
③ 움직임의 시각적 효과와 함께 일정한 시간에 따라 형태가 변하므로 시간성의 개념이 작품에 포함되어 있다.

9 | 대지 미술

① 미니멀 아트의 영향 아래 '물질'로서의 예술을 부정하려는 경향과 반문명적인 문화 현상이 뒤섞여 생겨난 미술이다.
미술 작품을 화랑과 문명 사회로부터 떼어내어 자연 한가운데 설치하려는 미술 운동을 일컫는다.
②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것이 많으며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자연물을 소재로 하거나 혹은 자연에 인공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자연과 인공의 관계를 탐구한다.

10 | 미술 복원 보존

① 작품의 본연의 상태로 회복시켜 작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조치이며, 보존의 의미로 확장되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작품의 갖는 미적, 역사적 가치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③ 보존 전문가는 보존 처리에 앞서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준에 의해 미술 작품이 변형되거나 수정되지 않아야 함을 보존 윤리 의식으로 하고, 이를 염두로 작품의 보존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1 | 옵아트

기하학적인 추상 미술로, 원근법상의 착시나 색채의 변화로 인한 순수한 시각상의 효과를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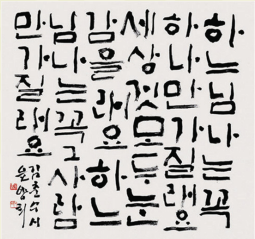
12 | 행위 예술

① 회화, 조각 등의 전통적인 장르 개념으로 충족할 수 없는 표현의 욕구를 느낀 미술가들에 의해 생겨났다.
신체를 표현의 도구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향의 미술로 인체의 동작과 행위로 표현하는 예술이므로 신체 예술이라 하며, 결과보다 표현의 과정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과정 예술로 불린다.
② 공연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여러 장르가 포함된 종합 예술의 형태를 띤다.
③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④ 미리 계획된 행위를 보여 주는 것과 즉흥적인 행위를 보여 주는 해프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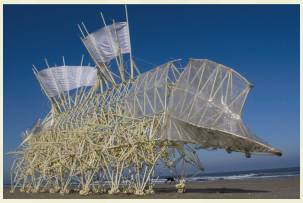
교과서 단원평가

1 오른쪽 서예 작품에 활용된 서체는?

① 판본체
② 예서체
③ 궁서체
④ 전서체
⑤ 초서체



2 다음에 제시된 작품의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 작품명: 아니마리스 우메르스
- 작가명: 안센
- 크기: 1200×200×270cm
- 재료: 나무, 강철, 폴리에스터
- 설명: 예술과 생물학과 기술 공학을 접목한 작품으로 ( )의 힘에 의해 움직이게 제작되었다.

① 물 ② 전기 ③ 바람 ④ 화력 ⑤ 태양열

3 다음의 보고서에 제시된 작품과 설명에 해당하는 미술은?

현대 미술 탐방 보고서





설명: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일부가 되어 작품과 소통하게 해 주는 미술을 말하며 상호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① 신사실주의 ② 미니멀리즘 ③ 극사실주의
④ 그래피티 아트 ⑤ 인터랙션 아트

4 오른쪽에 제시된 입체 작품의 표현 방법은?

① 석조
② 합성수지
③ 테라코타
④ 철조 용접
⑤ 어셈블리지



5 사진술이 미술의 발달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답 1① 2② 3⑤ 4③ 5 평가 도움 참조

평가 도움

1 제시된 작품은 김춘수의 '모자송'이라는 시를 판본체로 쓰되, 작가의 개성을 덧입혀 창작한 작품이다.

2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 온 벌레의 모습에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바람이 불어오면 깃털이나 종이, 비닐로 만든 돛이 반응하며 온몸의 관절이 움직이도록 제작하였다.

3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일부가 되어 작품과 소통하게 해 주는 미술은 인터랙션 아트라고 한다.

4 권진규의 작품으로 점토로 제작한 소조 작품을 초벌구이해 제작한 테라코타 기법에 해당한다.

5 사진은 기존 미술의 표현 방식과 영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해 생활 속 예술로 변모하고 있다.

동양과 서양의 풍속화 비교 분석 및 표현

같은 주제를 표현한 동 · 서양의 풍속화 작품을 선정하여 비교 감상해 보고, 나의 삶을 풍속화로 표현해 보자.

| 같은 주제를 표현한 동 · 서양의 풍속화 작품 붙이기 |



샤르댕(Chardin, Jean-Baptiste-Siméon/프랑스/1699~1779) **세탁하는 여인**(캔버스에 유채/38×43㎝/1730년 경 작)



김홍도(조선/1745~?) **자리짜기**(종이에 수묵 담채/22×27.7㎝/18세기 작)

● 위 두 작품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적어 보자.

이 작품은 귀족 문화가 성행했던 시대에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주로 표현했던 샤르댕의 풍속화이다. 세탁부인 여인이 엄마 곁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를 옆에 두고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에서 당시 서민들의 고단하지만 소박한 일상이 표현되어 있다.

이 작품은 시장 경제가 활성화 되었던 조선 후기에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김홍도의 풍속화이다. 아버지는 자리를 짜고 어머니는 물레질을 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일하는 가운데 등을 돌려 앉은 아이는 책 읽기에 열중인 모습에서 조선 시대 교육열을 볼 수 있다.

● 위 두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더 조사해 보자(미술사 책과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하기).

- 사회적 배경 :
- 미술사적 배경 :

- 사회적 배경 :
- 미술사적 배경 :

● 이 두 작품의 미술사적 가치에 대해 토론해 보자.

● 나의 삶의 모습을 풍속화로 표현해 보자(아이디어 스케치 후 풍속화로 제작하기).

아이디어 스케치 (나의 삶 – 풍속화로 표현하기)

1. 이 스케치에 담겨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2. 이 작품에 나타난 배경은?

3. 이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주제는?

4. 이 작품을 직접 제작 시 사용할 재료와 표현 기법은?

픽토그램의 개념 및 변화 흐름 조사하기

픽토그램의 역할과 기능 및 변화 흐름을 조사해 보자.

● **픽토그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조사해 적어 보자.**

• 역할

• 기능

● **픽토그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례를 보고 분석해 보자.**

〈과거〉



분석

〈현재〉



분석

가치를 반영한 픽토그램 표현해 보기

사회 구성원의 가치와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픽토그램을 개성을 살려 표현해 보자.

● **성 역할 탈피**

〈예시작〉



직접 디자인해 보기

● **함께하는 미래**

〈예시작〉



직접 디자인해 보기

● **모든 세대 양성평등**

〈예시작〉



직접 디자인해 보기

작품 감상과 비평

전통 미술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의 표현 의도와 표현 방법을 파악해 보자.

| 작품 감상 및 분석 | 교과서 p. 86 작품 설명 참조



손동현(1980~/한국) **영웅수파만선생상**(종이에 수묵 채색/190×130㎝/2005년 작)

- **작품의 미적 요소와 재료와 표현 기법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
  - 미적 요소 :
  - 표현 재료와 기법 :
- **작품의 주제와 표현 의도를 분석해 보자.**
  - 주제 :
  - 표현 의도 :
- **작품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의와 가치를 판단해 보자.**

  에시) 전통과 현대뿐 아니라 서양과 동양이 어우러져 있다.

전통 재료를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

전통 재료를 활용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는 패키지 디자인 작품을 제작해 보자.

- **전통 재료를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 (아이디어 스케치 후 패키지에 적용해 보기)**

〈활동 과정〉

① 구상: 전통 회화 재료와 어울릴만한 패키지 디자인 제작 방안
② 제작: 구상한 디자인을 패키지에 전통 회화로 표현해 적용
③ 감상: 완성된 작품을 감상 및 활용 방안 모색

〈예시작〉





아이디어 스케치

● 작품 제작 계획 ●

1. 패키지에 표현하고자 하는 전통 이미지는?

2. 이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주제는?

3. 표현 기법은? (수묵화, 수묵 담채화, 진채화 등)

4. 작품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느낌은?

마인드맵 기법 활용 작품 감상

마인드맵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정보와 특징을 분석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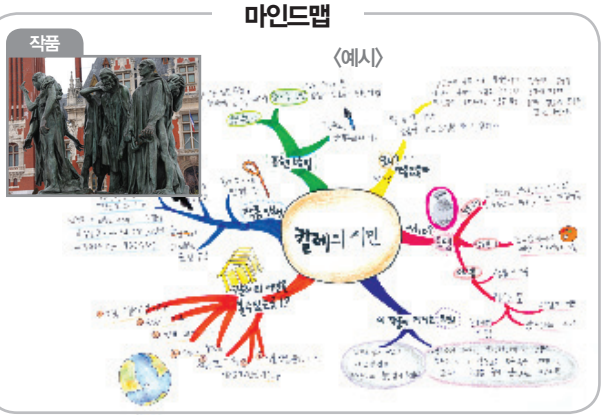
| 마인드맵 기법으로 작품 익히기 |

마인드맵 그리기 원칙

※ 교과서(p.111)를 보고 빈칸을 채워 보자.

- 중심엔 (㉠)를 나타내는 이미지 표현
- 하나의 가지 위에는 (㉡)이 되는 하나의 단어만 기록
- 주가지마다 다른 (㉢)을 사용해 표현
- 이미지는 다양하게 표현
- 가지는 모두 연결되도록 그리며, 가지 위에 그림이나 기호, 중심 단어를 넣음.
- 가지는 중심에서 멀수록 (㉣) 그림.

마인드맵



| 마인드맵 기법으로 작품 분석해 보기 |

작품 (교과서 pp. 112 내용 참조)



● 작품에 대한 정보 기록하기

1. 작품의 주제와 작가는?

2. 조형 요소와 원리는?

3. 재료와 기법은?

4. 작품의 배경은?

5. 작품이 지니는 의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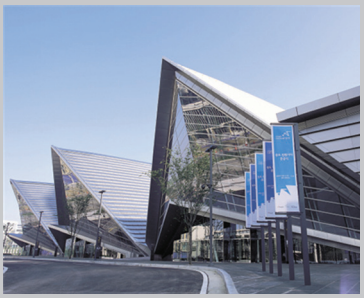
마인드맵으로 그려 보기

정답 (마인드맵 그리기 원칙) : ㉠ 주제 ㉡ 핵심 ㉢ 색 ㉣ 가늘게

미술과 관련 있는 직업 탐색하여 조사하기

미술과 관련 있는 직업 탐색을 통하여, 직업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해 보자.

| 제시된 직업의 역할과 특성에 관하여 조사해 보자. | 교과서 pp.126~127 내용 참고

직업	● 화가	● 제품 디자이너	● 학예 연구사
			
정리	• 역할 : • 특성 :	• 역할 : • 특성 :	• 역할 : • 특성 :
직업	● 아트디렉터	● 건축가	● 푸드 스타일리스트
			
정리	• 역할 : • 특성 :	• 역할 : • 특성 :	• 역할 : • 특성 :

직업 속 미술의 활용 조사하기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속에서 미술적 재능과 감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사해 보자.

실제 인물 사례

사진 첨부하기

직업명	
특성	
미술과의 연관성	
미래 전망	

입체 작품에서의 매체 표현 방법 분석하기

인물을 각기 다른 매체로 표현한 입체 작품을 선정하여 비교 감상해 보자.

| 같은 대상(주제)을 표현한 입체 작품 분석하기 |

	〈소조〉	〈조각〉	〈구축〉
작품			
작품명	(교과서 p. 152 내용 참조)	(교과서 p. 154 내용 참조)	(교과서 p. 123 내용 참조)
작가			
표현 기법	• 재료 : • 표현 방법 : • 표현 특징 :	• 재료 : • 표현 방법 : • 표현 특징 :	• 재료 : • 표현 방법 : • 표현 특징 :

| 입체 표현에서의 매체의 변화 흐름 이해하기 |

위 세 작품을 분석해보고 알게된 매체의 변화 흐름에 대해 서술하시오(서술형).

| 자소상 작품 제작 계획 세우기 |

아이디어 스케치

● 작품 제작 계획 세우기

1. 나타내고 싶은 나의 모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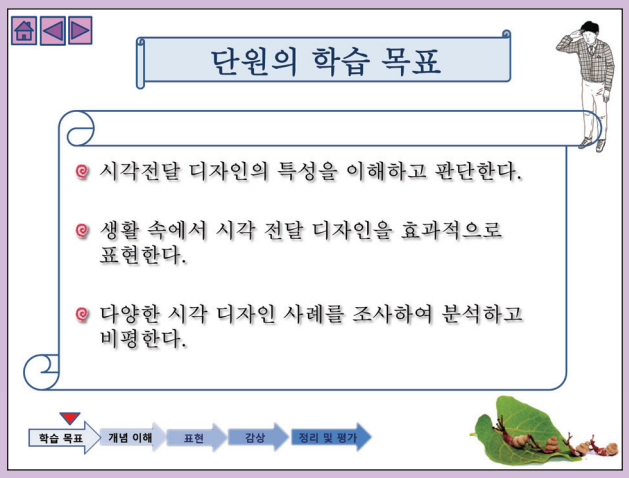
2. 크기와 규모는? (전신상, 반신상, 두상 등)

3. 재료와 표현 기법은? (소조, 조소, 구축 등)

4. 작품의 설치 장소는?

5.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세지는?


교과서
p.36~37
시각전달 디자인
시각전달 디자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단원의 학습 목표
시각전달 디자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판단한다.
생활 속에서 시각 전달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시각 디자인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비평한다.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시각전달 디자인의 조건
주목성 시선을 끌 수 있는 형태와 색채로 표현해야 함
상징성 표현하려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야 함
독창성 개성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야 함
간결성 쉽고 간단하고 명료한 형태로 표현해야 함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가치를 반영하는 픽토그램
탐구 → 가치와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픽토그램을 표현해 보자.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주제를 담은 일러스트레이션
예시작
SLEEPY CAT
탐구 →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해 보자.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표현-생활 문화 속 포스터
★포스터 제작 계획서 ★
Q1. 우리 주변에 있는 포스터 중 인상 깊은 사례는?
Q2. 포스터 중 생활 문화에 변화를 준 부분은?
Q3. 포스터를 통해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방법은?
탐구 → 건전한 문화 조성을 주제로 함께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보자.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표현 - 포장 디자인

제작 과정



완성작



탐구 → 제품의 정보나 성격을 전달할 수 있는 포장 디자인을 해 보자.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감상(일러스트레이션)





해저 2만리 팝업 북(혼합 재료/가변 크기/2009년 작) SA(미국) '해저 2만리'라는 작품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소설에 흠뻑 빠져들도록 디자인한 팝업 북이다.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종이/841×594cm/2011년 작) 브로드스카야(Brodskaya, Yulia/1983~/러시아) 디자인과 건축의 문화를 다루는 핀란드 잡지에서 진행하여 제작한 포스터 이미지이다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감상(광고 디자인)





칫솔 광고(2011년 작) BA(일본) 광고하고자 하는 칫솔 제품의 브러쉬를 실제로 길 청소가 가능하도록 청소 차량에 달아 거리를 다니며 광고하고 있다. 칫솔 브러시의 뛰어난 치정 기능을 청소차에 비유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욕외 광고(2008년 작) AA(인도) 맨손으로 빌딩을 밀어내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마치 우유를 마셔서 힘이 세진 것처럼 느껴지게 표현한 광고이다.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감상(포장 디자인)





양모 제품 패키지 디자인(성유, 종이/2009년 작) OA(영국) 양모 소재의 특성을 알리기 위해 겨울 한정판으로 제작한 패키지이다. 천연 양모 소재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람의 수염과 모발에 이어지도록 디자인하였다.

흡연을 방지하는 담배 패키지(컴퓨터 그래픽/가변 크기) 오은재(학생 작품) 흡연을 하게 되면 각종 구강 관련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건강은 물론 미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일깨우며 금연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정리 및 평가

• 아래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시각 디자인의 조건 중 시선을 끄는 형태와 색채로 표현해야 하는 것은 □□□이며 표현하려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은 □□□이다. 최근 픽토그램은 사회 구성원의 □□와 인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답 : 주목성, 상징성, 가치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정리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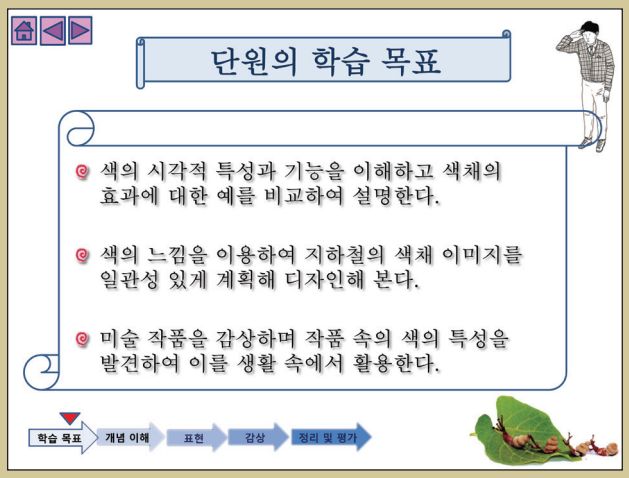
• 아래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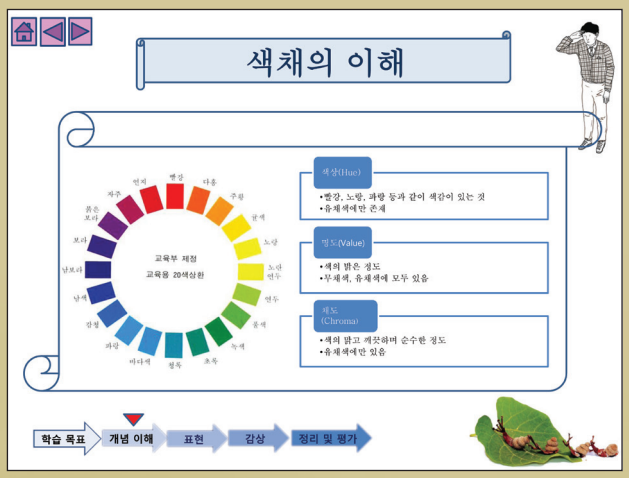
포장 디자인은 제품을 □□하는 동시에 시각적인 □□를 활용하여 운반과 정리, 사용에 편리함을 주는 디자인이다. 포장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욕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

정답 : 보호, 정보, 구매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교과서
p32~35
색채의 활용
색의 성질과 기능에 따른 활용을 이해한다.


단원의 학습 목표
색의 시각적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색채의 효과에 대한 예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색의 느낌을 이용하여 지하철의 색채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계획해 디자인해 본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 속의 색의 특성을 발견하여 이를 생활 속에서 활용한다.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색채의 이해
교육부 제정
교육용 20색상환
색상(Hue)
•빨강, 노랑, 파랑 등과 같이 색감이 있는 것
•유채색에만 존재
명도(Value)
•색의 밝은 정도
•무채색, 유채색에 모두 있음
채도(Chroma)
•색의 맑고 깨끗하며 순수한 정도
•유채색에만 있음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색의 활용
탐구
→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색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자.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작품 속의 색
탐구
→ 미술 작품 에 사용된 색의 활용을 살펴보고 의도를 분석해 보자.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우리나라의 전통색
탐구
→ 우리나라의 전통색 인 오방색의 활용에 대해 분석해 보자.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색채 마케팅





탐구 →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색채 마케팅 이 활용된 예를 찾아보자.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활동 (지하철 색채 이미지 계획)



색채 이미지 계획서	
주조색	
특징	
활용 영역	
기대 효과	

탐구 → 위 사례에서의 색의 활용을 분석해보자.

탐구 → 지하철의 색채 이미지를 계획해보자.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감상(문화에 따른 색)



전통 등(중국) 중국에서는 복을 기원하고 액운을 막는 의미로 붉은색을 건축에서 많이 사용해왔다.



태조 왕금 금보(금9.5×9.5×7.5cm/조선 시대 작) 금색은 예로부터 고귀함과 존엄을 나타내는 색으로 왕실의 의복이나 각종 도구에 사용되었다.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감상(작품 속의 색)



의심하는 도마(캔버스에 유채/107×146cm/1601~1602년 작) **카라바조**(Caravaggio, Michelangelo Merisi da/1571?~1610/이탈리아) 명도의 차이가 큰 색을 사용하여 강한 명암의 대비를 표현한 화면은 극적인 느낌과 강한 인상을 준다



워터루 다리-맑은 날씨(캔버스에 유채/65.7×101cm/1903년 작) **모네**(Monet, Claude/1840~1926/ 프랑스) 낮은 채도의 색과 명암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색의 사용은 고요하고 편안하며 미묘한 대기의 느낌 을 표현해 준다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정리 및 평가

• 아래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색은 □의 파장에 대한 시각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의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색의 특성은 □□를 형성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정답 : 빛, 감정, 문화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정리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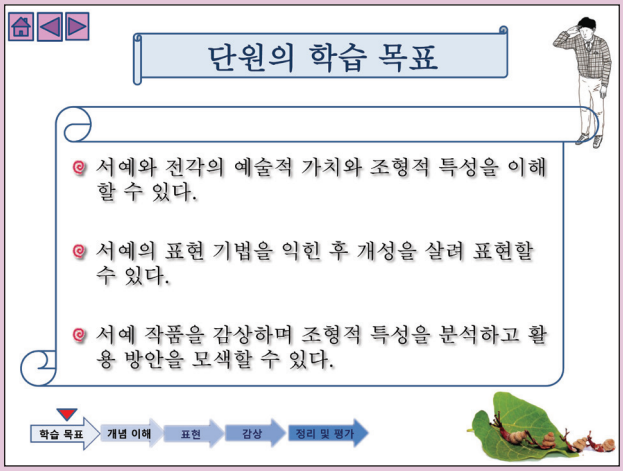
• 아래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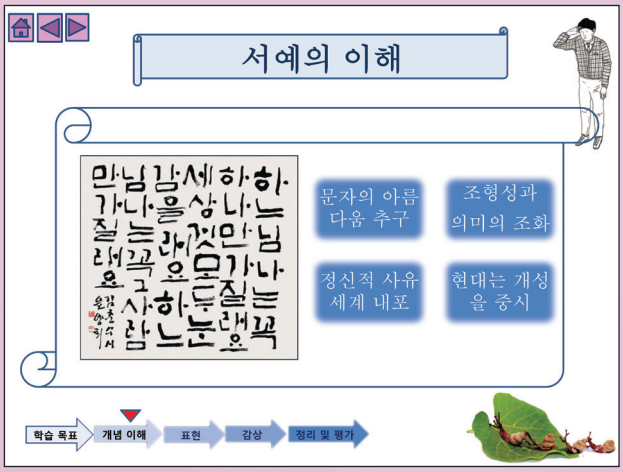
색은 그 고유한 특성에 따른 특별한 □□ 작용을 일으켜 특정한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차별화 시키는데 높은 효과를 낸다. 실제로 기업에서 색의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한 □□□□□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정답 : 연상, 색채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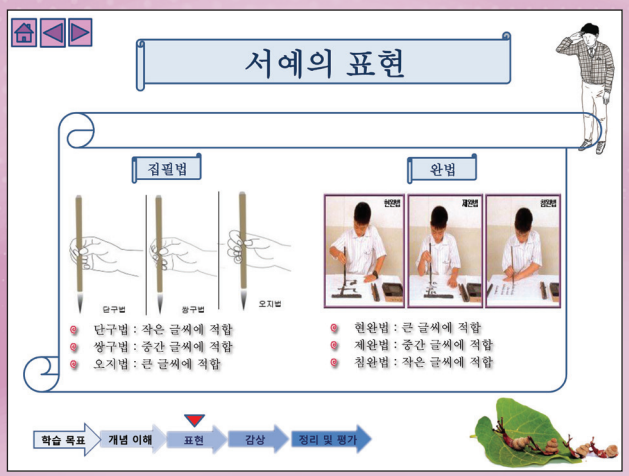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교과서
p138~141
서예와 전각
서예와 전각의 예술적 가치와 조형적 특성을 이해한다.


단원의 학습 목표
서예와 전각의 예술적 가치와 조형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서예의 표현 기법을 익힌 후 개성을 살려 표현할 수 있다.
서예 작품을 감상하며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서예의 이해
문자의 아름다움 추구
조형성과 의미의 조화
정신적 사유 세계 내포
현대는 개성을 중시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전각의 이해
도장의 일종
문자나 기호 그림 표현
종합적 예술
3차원 예술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서예의 표현
집필법
완법
단구법
쌍구법
오지법
현완법
제완법
침완법
단구법 : 작은 글씨에 적합
쌍구법 : 중간 글씨에 적합
오지법 : 큰 글씨에 적합
현완법 : 큰 글씨에 적합
제완법 : 중간 글씨에 적합
침완법 : 작은 글씨에 적합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전각의 표현
표현 재료
인재 전각용 인장의 재료
인고 새겨 넣을 글씨
인도 전각에 새기는 칼
인상 인재 고정용 나무틀
인주 전각을 찍을 때 묻힘
인구 위치를 바로 잡는 자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전각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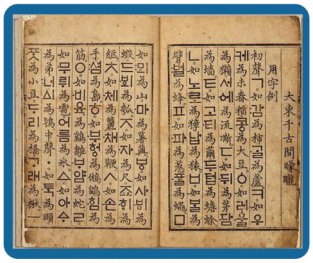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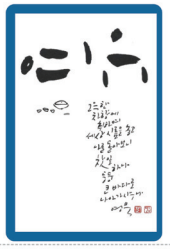

- 성명인(좌) : 이름을 새긴 도장 (백문인, 음각기법)
- 아호인(우) : 호를 새긴 도장 (주문인, 양각각형)
- 사구인(좌) : 좋은 글귀를 새김 (양각과 음각 기법 혼용)
- 초형인(우) : 그림을 새긴 도장 (자유로움)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서예의 감상(한글)



훈민정음 해례본(목판 인쇄/129.5×20.3㎝/1446년 작/조선)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한 책으로 판본체가 처음 목판 에 적용된 서적 중 하나이다.



여유(종이에 먹/2007년 작) **강병인**(1962~/한국) 일상의 여유에 대한 소중함을 불러일으키는 글귀가 부드럽고 유연하게 표현되었다.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서예의 감상(한문)



부작란도(종이에 수묵/55×30.6㎝/19세기 작) **김정희**(1786~1856/조선) 김정희가 수묵화로 그린 난초작품으로 다양한 종류의 난관들이 화면에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송하빈객귀월(부분/탁본/통일 신라 시대 작) **김 생**(711~791/통일 신라) 이백의 시 '송하빈객귀월'을 쓴 작품으로 통일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명필 김생이 쓴 글씨이다.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서예의 감상(전각)



장서인(전각/각 7x7cm/2012년 작) **남궁산**(1961~/한국) 소설가 박완서와 여행가 한비야의 삶과 개성이 담긴 그림을 그려 넣어 제작한 장서표이다.



삼족오 직인(돌에 전각/5×5×13㎝/2006년 작) **정병례**(1947~/한국)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에게 헌정된 직인으로, 성명 옆에 상징적인 동물인 삼족오를 새겨 넣어 글자와 그림이 어우러져 있다.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정리 및 평가

• 아래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서예는 □□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로 정신적 사유 세계를 내포하고 있다. 서예를 할 때 작은 글씨를 쓰기에 적합한 집필법은 □□□이며, 완법은 □□□이다. 현대의 서예는 법칙을 따르는 것보다 □□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한다.

정답 : 문자, 단구법, 침완법, 개성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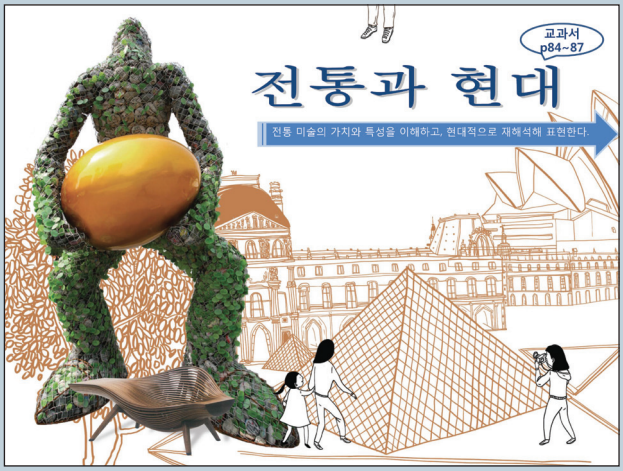
정리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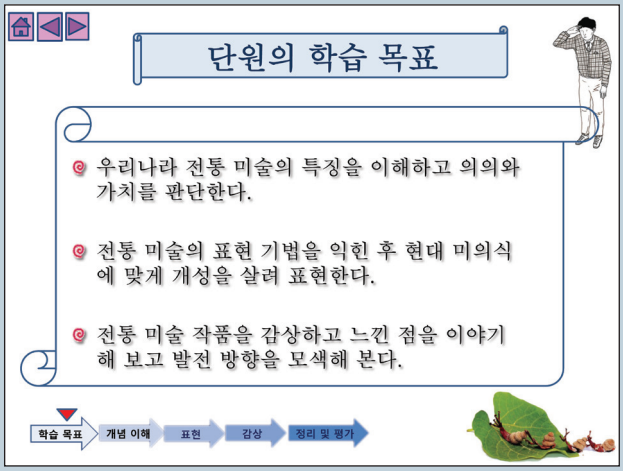
• 아래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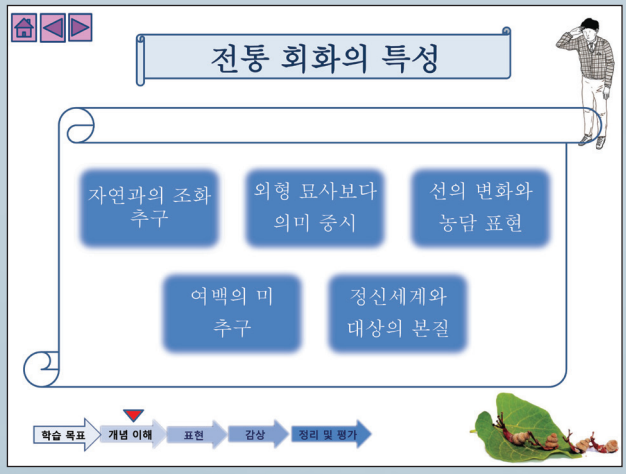
□□은 나무나 돌 등에 문자나 그림 등을 새기는 일종의 도장이다. 이 중 좋은 글귀를 새긴 것을 □□□이라 한다. 그리고 문자 대신 그림을 새겨 넣는 것은 □□□이라 하는데, 봉니인으로 사용되곤 했다.

정답 : 전각, 사구인, 초형인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교과서
p84~87
전통과 현대
전통 미술의 가치와 특성을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표현한다.


단원의 학습 목표
우리나라 전통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의의와 가치를 판단한다.
전통 미술의 표현 기법을 익힌 후 현대 미의식에 맞게 개성을 살려 표현한다.
전통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전통 회화의 특성
자연과의 조화 추구
외형 묘사보다 의미 중시
선의 변화와 농담 표현
여백의 미 추구
정신세계와 대상의 본질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전통 회화의 종류
수묵화 특징
물의 번지는 성질 활용
선과 농담에 의한 표현
여백 처리로 공간 암시
낙관과 여백의 조형미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전통 회화의 종류
채색화 특징
채색의 정도에 따라 나뉨
발색과 대구성이 뛰어남
흰색 시 높은 채도 유지
채색과 농담의 차이 강조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전통 회화의 표현
전통 미술의 재료(문방사우)의 특성을 잘 이해한 후 사용해야 한다.
수묵화와 채색화의 표현 기법을 충분히 연습한 후 작품 제작에 임해야 한다.
명칭
사용 방법
구륵법
형태의 윤곽을 선으로 먼저 그리고 그 안을 채색으로 메우는 방법
몰골법
윤곽선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그리는 기법
백묘법
대상의 형태를 윤곽선만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고도로 간결하게 표현함
학습 목표
개념 이해
표현
감상
정리 및 평가

활동 예시 작품



구상
- 전통 재료와 어울릴 디자인 모색
- 자료 탐색 및 아이디어 스케치

제작
- 전통 재료를 활용해 패키지에 그려 넣음
- 전통 재료 재료로 색칠해 완성

감상
- 친구들과 감상하며 비평
- 전통 미술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전통 회화 감상(수묵화)



흑구도(종이에 수묵/23×26.3㎝/18세기 작) **김두량**(1696~1763/조선) 우리 나라 수묵 회화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당시 전통 회화의 뛰어난 수준은 물론 새로운 경향이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기(氣)-독도 II(종이에 수묵/89×89㎝/1982년 작) **이종상**(1938~/한국) 독도의 형상적 아름다움과 기운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전통 회화 감상 (채색화)



서울 - 시청(화선지에 수묵 담채/136×93㎝/2005년 작) **오용길**(1946~/한국) 서울 시청 건물과 시청 앞 광장 주위 풍경을 수묵 담채 화 기법으로 표현했다.



비상 - 교감 (비단에 혼합 재료/35×58cm/2007년 작) **안미선**(1976~/한국) 화병에 날아든 나비를 잡고 있는 고양이를 묘사한 이 그림은 전체화 기법으로 세밀하게 표현되며,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전통 회화의 감상(현대)



영웅수파만선생상(종이에 수묵 채색 /190×130㎝/2005년 작) **손동현** (1980~/한국) 대중 영화 속 주인공이자 영웅의 대명사인 슈퍼맨을 종이에 수묵 채색으로 전통 기법의 느낌이 나도록 표현했다.



움겨진 산수 유람기 0712(C-프린트/84x52cm/2007년 작) **임택** (1972~/한국) 전통 회화의 주요 소재인 이상 세계로서의 산수를 현대적 으로 해석하여 먹, 붓 대신 산, 나무, 인물을 입체물로 제작해 배치한 후 사진을 찍어 디지털 합성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정리 및 평가

• 아래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전통 회화는 □□ 과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외형 묘사보다 의미를 담아내는 것을 중시하여 정신세계와 대상의 □□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현에 있어서, 선의 변화와 농담 표현을 통한 □□의 미를 추구하였다.

@ 정답 : 자연, 본질, 여백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정리 및 평가

• 아래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현대에 와서 전통 미술은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의 □□□□□가 시각 디자인과 영상 매체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 미술과 대중문화와의 □□□□□□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 정답 : 컬리그래피, 콜라보레이션

학습 목표 | 개념 이해 | 표현 | 감상 | 정리 및 평가



미술 작품 사전

서양

고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고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네바문의 정원(고분 벽화/기원전 1400년경/이집트)

어떤 사물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중요시되었던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완전함이었다. 그림에 들어가야 할 모든 것은 가능한 아주 분명하게 보장해 주는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과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미술가의 과업이었다. '네바문의 정원'은 이것을 잘 보여 준다. 나무들의 생김새와 특징은 측면에서 보아야만 명확할 것이고 연못의 형태는 위에서 볼 때 분명해지므로 나무는 측면에서 본 것처럼 연못은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와 새들은 옆모습으로 그림으로써 모든 사물의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각도에서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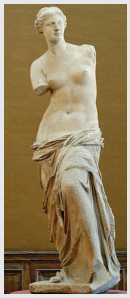
나르메르 왕의 팔레트(점판암/높이 63.5cm/기원전 3000년경/이집트)

이집트 초기의 부조에는 신전에 봉납하기 위해 만든 팔레트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나르메르 왕의 남북 이집트 통일이라는 역사적 위업을 나타낸 화장용판이 특히 유명하다. 나르메르 왕의 팔레트는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영웅적인 왕의 모습과 이름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는데, 이집트의 강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바르는 '아이 메이크업'을 만드는 데 쓰인 작은 석판이다. 왕은 무릎을 꿇은 적의 머리를 왼손으로 사정없이 움켜쥐고, 오른손엔 철봉을 높이 들고 적을 내리치려 하고 있다. 또한 왕은 매의 머리를 한 태양신 호루스로 변신해 포로의 목에 감은 포승줄을 발톱으로 움켜잡고 있다. 나르메르의 모자 위에는 뿔 달린 암소 형상의 하토르여신이 왕을 수호한다. 왕을 크게 표현하는 방법은 신권 사회에서 신분과 권위를 돋보이게 하려는 서술 양식이다.



피라미드(미세리누스 왕, 케프렌 왕, 케오프스 왕의 피라미드/기원전 2500년 경/이집트)

피라미드 건축의 발전은 이집트 제4왕조 동안 기자(Giza) 지역에 축조된 '세 개의 대(大)피라미드'에서 절정을 이룬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부드러운 경사면으로 처리된 이 피라미드는 원래 섬세하게 처리된 돌로 감싸져 있었으나, 케프렌 왕의 피라미드 꼭대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지고 없다. 사실 이러한 대규모 공사는 착취된 노동의 상징이다. 즉 노예들이 강제로 여러 해 동안 돌을 뜨고, 그것을 공사장으로 끌어 운반하여, 무덤이 왕의 시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 돌들을 짜 맞추게 끔 할 수 있었던 부유하고 강력했던 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밀로의 비너스(대리석/높이 202cm/기원전 200년경/그리스)

그리스 아르카익과 고전기 그리스 조각에 나타난 여성 입상은 대체로 옷을 입고 있거나 과다한 장식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다수는 채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헬레니즘에 와서는 조각을 통해 서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유행하면서 신화 속 여신이 누드 조각으로 재현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여신이 아름다움의 신 비너스이다. 이 작품은 옆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여기서 우리는 이 조각가가 아름다운 육체를 모델링할 때 사용한 명료성과 단순성 그리고 거칠거나 모호한 점이 하나도 없이 신체의 주요 부분을 구분해서 보여 주는 방법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파르테논 신전(대리석/높이 30.89m/기원전 448~432년/그리스)

수천 년간 웅장한 자태를 보여 주며 아테네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전쟁과 지혜의 신이자 아테네의 수호신이기도 한 아테네 여신을 모시던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건축물로 불리며 도리아 양식의 건축물 중 최고봉으로 꼽힌다. 전면 8개 측면 17개 후면 6개 전체 46개의 석주가 신전을 받치고 있다. 이 기둥들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배흘림기둥이고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엔타시스 양식인데 배가 불룩해서 밑에서 볼 때 안정감이 느껴지는 양식이다. 이 기둥들은 2700미터 상공에서 한 꼭지점을 형성한다.



수수께끼의 집(프리즈 벽화/기원전 50년경/로마 폼페이)

서기 76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갑자기 파묻힌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의 유적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 원근과 명암을 표현한 프레스코와 모자이크로 된 회화 양식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회화를 반영하여 감각적이고 신비적이다. 주로 개인 주택의 미화를 위한 것으로 생활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친밀감이 두드러지는 생활 환경에서 모티브를 찾고 풍경은 설화의 시적인 배경, 상상적 풍경화, 환각 기법에 의한 창문 효과와 공기 원근법을 사용하였다. 이 벽화에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 마시는 디오니소스신을 숭배하는 비밀 의식이 그려져 있다.



콜로세움(대리석/높이 48m/70~82년/로마)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이다. 아치와 궁륭에서 쌓은 공학적 경험과 콘크리트의 사용에서 쌓은 실제적 경험으로 로마인들은 거대한 건물을 창조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4층으로 되어 있었다. 1층은 도리아식 반원주, 2층은 이오니아식 기둥, 3층은 코린트식 기둥으로 되어 있고, 4층은 관중들이 작열하는 햇빛을 피할 수 있게 벨라리움이라는 천막을 고정시키기 위한 장대 장치를 지탱하는 벽으로 되어 있다. 콜로세움은 608년까지는 경기장으로 사용되었지만 중세기에는 군사적 요새로 이용되다가 그 이후에는 성당이나 궁전 등의 건축에 사용될 자제의 제공터가 되었다.



미론(Myron/기원전 450년경/그리스) 원반던지는 사람(대리석/높이 155cm/기원전 450년경)

미론은 그리스 아티카에서 태어난 조각가이며, 아르고스의 조각가 하겔라다스에게 조각을 배웠다. 원반던지는 사람은 이상적인 인체상인 캐논 법칙이 정립된 시기의 작품으로 조화미와 이상미를 추구하고 있다. 체육 경기가 성행했던 그리스 시대에는 경기를 대부분 알몸으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알몸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면서 경기의 승패에 앞서 알몸이 지니는 신체적 조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청년의 몸이 격렬한 운동으로 긴장된 한 순간을 포착하여 인물의 동적인 운동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그리스 미술에 잘 나타나는 이상적인 인체의 미를 표현한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기마상(금을 입힌 청동/424×387㎝/180년경)

로마인들은 당시 유행했던 헬레니즘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스 조각들을 대량으로 복제하긴 했으나, 점차 실제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을 증오하는 황제로 기마상 중에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기마상이다. 조각가는 이 부드럽고 사색적인 지배자를 초인간적인 존재로 이상화했다.



티투스의 개선문(대리석/높이 15.4m/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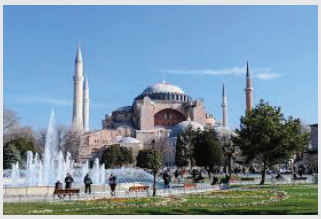
한 사람 한 사람의 황제와 그들의 업적을 영광스럽게 기념하기 위해 설계된 개선문은, 고대 로마에는 적어도 34개의 개선문이 세워졌는데, 티투스 개선문은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개선문이다. 개선문은 티투스가 거둔 가장 찬란한 승리인,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최고조에 달했던 유태인 반란을 진압한 일을 칭송하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꾸며져 있다. 이 조각에는 로마 병정들이 신전에서 약탈한 보물들을 나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황제가 사후에 신격화되는 모습도 나타나 있다. 한 장면에서는 새로운 신이 된 황제가 천상의 전차를 타고 승리의 여신이 씌워 준 왕관을 쓴 채 승리에 찬 당당한 모습으로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아치 아래의 둥근 천장에는 티투스가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 위에 타고 높이 올라 천국으로 승천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막시미아누스 주교의 입장(모자이크/140×168cm/547년경/터키)

국교로 공인된 기독교의 강령을 널리 유포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예수는 전지전능의 지배자나 설교자로 표현되었다. 당시의 모자이크는 반짝이는 황금의 배경과 후광에 둘러싸인 성자들을 화려하고 장대하게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산비탈레 성당의 제단 양쪽 벽면에 있는 모자이크로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와 황후 테오도라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장면인데 비잔틴 교회의 우두머리 사제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금관을 쓰고 금빛 그릇에 하느님께 바치는 빵을 들고 있으며 산비탈레 성당의 주교 막시미아누스는 금으로 장식된 십자가를 들고 있다. 황제의 머리 위 둥근 후광은 그가 교회의 성자임을 상징하고, 어깨의 큰 견장은 세속의 권위를 말한다. 부하의 발을 밟고 있는 그의 오른발은 권력을 암시한다.



하기아 소피아 성당(532~537년/이스탄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400여년 동안 세계 최대의 도시임을 자랑했던 콘스탄티노플에 제국의 위용에 걸맞는 장대한 교회를 건설하고자 마음먹고 이 임무를 트랄레스 출신의 안테미우스와 밀레투스 출신의 이시도루스라는 두 수학자에게 위임했다. 그들은 황제의 야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건축물을 구상하였으며, 이것은 비잔틴 건축 양식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하기아 소피아(성스러운 지혜라는 의미)'는 카라칼라 목욕탕 같은 로마 건물의 거대한 스케일과 동방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융합시킨 건물이었다. 축구장의 3배가 넘는 크기의 이 건물은 로마의 직사각형 바실리카 위에 거대한 돔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비잔틴 건축 공학의 승리인 삼각 궁륭에 의해 이와 같은 위업이 가능하였는데, 이처럼 4개의 아치가 정사각형 모양을 형성하여 돔을 지탱하는 구조는 처음 시도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혁신으로 인해 드높이 놓여 있는 돔과 함께 내부가 넓고 확 트인 느낌을 주고 있다.



장미창(스테인드글라스/1220년경/프랑스)

고딕 양식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늑골 궁륭과 부연부벽이라는 외부 버팀목의 발명 덕분이다. 이러한 구조물 덕분에 건축가들은 작은 창문만 달린 육중한 벽 대신, 커다란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한 창을 통해 밝은 빛이 들어와 내부를 환하게 밝힐 수 있다. 영롱한 스테인드글라스의 색채는 녹아 끓는 액체 유리 속에 구리나 망간, 철 등의 금속 산화물을 적당히 섞어 완전한 색상을 만들어 내는 고도의 기술에 의해 가능하다.



수태고지(대리석/1220~1269년/프랑스)

파리 동북부에 위치한 랭스시에 있는 랭스 대성당은 고딕 성당 건축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완성된 이 성당은 그때까지 지어진 성당들보다 높고 길며, 벽면의 면적을 줄여 창을 훨씬 많이 내었다. 이 성당의 압권은 전면에 빈틈없이 장식된 수많은 조각이다. 특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서쪽 문 옆에는 유명한 '수태고지'와 '방문'의 조각이 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기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수태고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사촌 엘리자베스를 방문하고 서로의 임신 사실을 알리는 '방문'은 마치 서로 대화를 나누듯 마주 보게 배치되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솜씨는 각각 달라 여러 조각가가 한두 점씩 맡아 작업했을 것으로 보인다. 작은 머리와 긴 다리, 날씬한 몸을 가진 우아한 천사, 단순하게 표현된 마리아에 비해 '방문'의 마리아와 엘리자베스는 조용하고 점잖으며 무게감이 있다. '방문'의 조각들은 고대 로마 조각을 연상시켜 이미 고전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조토(Giotto di Bondone/이탈리아/1267~1337) 그리스도를 애도함(프레스코화/1305년 경)

피렌체 출신으로 미술사에 있어 새로운 장을 개척하고 르네상스 미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조토는 스승인 치마부에와 조각가인 니콜라 피사노가 닦아 놓은 인본주의의 토대에서 출발하여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과거의 영상 대신 감동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다루었다. 조토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은 프레스코로 벽에 바른 석고가 채 마르지 않아 젖어 있을 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파도바에 있는 조토의 프레스코 벽화 '그리스도를 애도함'은 어느 개인 예배당에 그려진 일련의 벽화 중 한 장면이다. 성모 마리아가 그녀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포옹하며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마치 무대 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제 사건을 보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얼굴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움츠리고 있는 사람과 성 요한 사이의 거리를 추정해 볼 경우, 그들 사이에 공간이 있고 또 그들 모두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마르티니(Martini, Simone/이탈리아/1283~1344) 수태고지(템페라/2.7×3.1m/1333년 작)

수태 고지를 묘사한 이 그림은 대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내려와 성모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가브리엘이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그의 입 주위에 그 말을 직접 써 놓았다. 그의 왼손에는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가 들려있고 오른손은 마치 말을 시작하려는 듯한 자세로 들고 있다. 성모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천사의 출현으로 매우 놀라고 있다. 그녀는 두려움과 겸허한 몸짓으로 움츠리면서 하늘에서 온 사자를 돌아다보고 있다. 둘 사이에는 처녀성의 상징인 비둘기가 네 날개를 가진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 거장들도 프랑스와 영국의 미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섬세한 형태와 서정적인 감정을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흘러내리는 의상의 부드러운 곡선과 가느다란 몸매의 미묘한 우아함을 즐겨 그렸다. 사실 이 그림은 인물들이 황금색 배경을 바탕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의 아름다운 무늬를 이루도록 기교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금세공가의 값비싼 작품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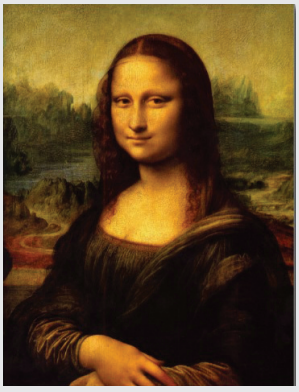
두초(Duccio di Agostino/이탈리아/1255~1319) 루첼라이 마돈나(템페라/450×290㎝/1285년 작)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후기 고딕 미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시에나에서 최고의 화가는 두초였다. 그는 조토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탈리아 회화에 다시 자연 형태를 도입하고 현실감 있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의 작품 '루첼라이 마돈나'는 전면 중앙에 금발의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마돈나가 고결하게 그려져 있다. 호화로운 색채와 인물들의 가는 몸매, 아른거리는 금빛을 사용하여 관객을 아름다운 천상으로 안내한다. 두초의 화려한 그림의 전통은 마르티니와 로렌체티 형제에 의해 계승되었다.



랭부르 형제(Limbourg Brothers, Herman, Jean, Paul/이탈리아/1400년 경) 오월(채색 필사본/29×21㎝/1410년경)

1400년 전후의 북부 유럽에 있어서 패널에 그려진 그림이 자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책의 채색이 회화의 주류로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1415년경 포르 드 랭부르와 그의 두 형제에 의해 그려진 프랑드 국왕의 동생 베리 공을 위한 '베리 공작의 기도서'에서 정점에 달한다. 이 사본은 특히 그 그림 달력 페이지들이 유례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오늘날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중세의 전통과 조화되어 1년 12개월에 걸친 인간과 자연의 생명의 영위를 그려 내고 있다.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이탈리아/1452~1519) 모나리자(패널에 유채/77×53cm/1506년 작)

16세기에는 미술의 주도권이 피렌체에서 로마와 베네치아로 옮겨갔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거장들이 회화와 조각에서 유래 없는 걸작들을 생산하고, 그들의 작품은 엄격한 구도와 완벽한 비례, 원근법 등 르네상스의 기법을 총망라하여 회화 발전의 정점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액자에 넣어 벽에 걸 목적으로 그려진 최초의 그림으로서, 유화 물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윤곽선을 강조했던, 이전 화가들의 작품과는 달리, 레오나르도는 명암 대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형체를 다듬어 나갔는데, 어두운 밑바탕에서 시작하여 반투명의 유약을 엷게 겹겹이 칠해가면서 삼차원적인 형체와 같은 착각을 주고 있다. 이것을 스푸마토 기법이라 하는데 레오나르도는 이 기법을 통해 '윤곽선이나 경계선 없이 안개 속에 떠 있는 듯한' 효과를 주고 있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이탈리아/1475~1564) 피에타(대리석/174cm/1497~1498년 작)

'피에타'란 이탈리아 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비통해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상을 말한다. 이 피에타 상은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머물던 시절인 25세 때 프랑스인 추기경의 주문으로 제작하였다.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이 작품은 안정된 삼각 구도와 세부 묘사, 그리고 유일한 미켈란젤로의 서명으로 유명하다. 피라미드 구도는 레오나르도에게 배운 것이고 성모 마리아의 평온한 얼굴은 그리스 조각의 사실적인 표현을 보여 주고 있다.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예수의 신체 구조는 시체의 해부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di Urbino/이탈리아/1483~1520) 아테네 학당(프레스코/579×823cm/1511년 작)

산 피에트로 대성당의 바실리카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건물의 궁륭 아래 고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모여 있다. 화면 중앙의 건물 입구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걸어나오며 대화를 하고 있다.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며 만물 지식의 근원인 '이데아'를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지를 가리키며 변함없는 자연적 진리를 설파하는 듯하다. 라파엘로는 고대 철학자들의 얼굴을 동시대 화가들을 모델로 형상화하였는데, 예를 들어 덥수룩한 수염의 플라톤은 레오나르도의 얼굴이며, 맨 앞에 턱을 괴고 다소 외로워 보이는 헤라클레이토스는 미켈란젤로의 얼굴이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유클리드는 브라만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그림의 오른쪽 구석에는 화가의 자화상도 그려 넣었다. 라파엘로가 그린 이 걸작은 조각의 우수한 조형미, 건축의 원근감과 균형, 신화적인 요소와 기독교적인 요소를 혼합한 주제 등에서 전성기 르네상스의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



티치아노(Tiziano, Vecellio/이탈리아/1488~1576) 아드리아 인들의 축제(유채/175×193cm/1518년 작)

피렌체와 로마에서 활약했던 화가들이 조각적인 형태와 서사적인 주제를 주요하게 추구한 반면, 베네치아 유파 화가들은 색채와 질감, 분위기에 매료되어 있었다. 60여 년 동안 베네치아 미술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티치아노는 베네치아 출신의 화가들이 대개 그렇듯이 강한 색채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신화를 주제로 그린 삼부작 중 두 번째의 작품으로 안드로스의 주민들이 하얀 돛을 단 배로 오는 디오니소스의 은혜로 포도주를 마시고 쾌락을 누리는 축제의 모습니다. 이 그림은 현란할 정도로 대조적인 색채의 사용, 풍성한 여체의 표현, 비대칭적인 구성 등 초기 티치아노 회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뒤러(Dürer, Albrecht/독일/1471~1528년) 여우 코트를 입고 있는 자화상(유채/67×49cm/1500년 작)

뒤러는 북유럽 미술과 르네상스의 혁신적인 요소를 결합시킨 화가다. 그는 오른쪽 배경에는 라틴 어로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남겼는데 자의식이 강했던 그는 그림과 동시에 글을 써 놓음으로써 자신의 모습이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임을 나타내고자 했다. 이 작품에서 뒤러는 모피를 통해 자신의 부유함을 나타냈으며 잘 다듬어진 헤어스타일과 수염으로 귀족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법을 이용해 정면에 자신의 얼굴을 배치하면서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얼굴을 그렸다. 뒤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은 신을 닮은 인간은 화가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최초의 창시자라면 화가는 제2의 창조자, 신의 모방자라는 것이다. 뒤러의 이러한 생각은 이탈리아에서 경험한 새로운 인문주의적 자의식이 바탕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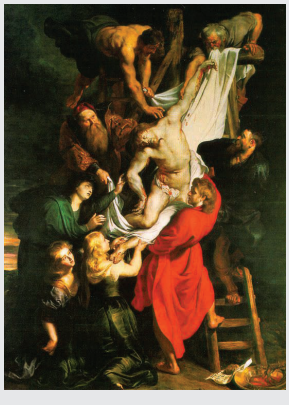
얀 판 아이크(Jan Van Eyck/플랑드르/1385~1441) 아르놀피 부부의 결혼식(나무에 유채/82×60cm/1434년 작)

사실주의의 대가인 판 아이크는 선명한 색채로 거의 현미경을 보는 듯한 미세한 세부까지도 설득력 있게 묘사했다. 이 작품에서 판 아이크는 사물 표면의 외양과 질감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직접적이면서도 고루 퍼져 있는 빛의 효과가 잘 나타나 있다. 뒤의 벽에 걸린 거울에는 서약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화가인 판 아이크 자신의 모습도 반영되어 있다. 거울 위에는 '얀 판 아이크가 여기 있다. 1434년.' 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는 화가가 이 결혼식을 증명하는 입회인임을 나타낸다. 그림 속에 그려진 모든 사물은 이 그림의 주제인 결혼의 신성함을 상징하고 있다. 대낮에도 불구하고 샹들리에에 오직 하나 켜져 있는 촛불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두 사람이 신발을 벗은 이유는 성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이며, 거울 옆의 묵주는 순결을, 개는 서로에게 충실한 결혼 생활을 상징한다.



카라바조(Caravaggio, Michelangelo Merisi da/이탈리아/1573~1610) 의심하는 토마(유채/107×146㎝/1603년경)

카라바조는 창백하고 유령 같은 마니에리즘적 인물 유형과는 반대로 세속적이고 현실감 넘치는 인물 유형을 창조함으로서 사실주의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극적인 빛의 대조를 통해 감정적인 효과를 더욱 강렬하게 하며 한곳에서 발산되는 연극적인 빛은 보는 이의 관점을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 작품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토마와 사도들이 예수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확인하고 있다. 고결하고 위엄 있어야 할 사도들은 평범하고 늙은 노동자들로 묘사하였는데 자연을 있는 그대로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루벤스(Rubens, Peter Paul/플랑드르/1577~1640) 십자가에서 내림(유채/420×310㎝/1612년 작)

바로크의 원래 의미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으로서 '과장된', '지나치게 수식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다. 이를 회화적 측면에서 설명하면 '과장된 남성 경향의 17세기 미술 양식'을 일컫는다. 바로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강렬한 색채와 뚜렷한 음영 처리 풍부한 질감 대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바로크적인 곡선과 역동감 있는 명암법으로 육체의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루벤스만큼 잘 표현한 화가는 없을 것이다. 루벤스는 이 작품으로 전 유럽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유럽 제 1의 종교화가가 되었다. 불길한 검은 하늘과 대조적으로 예수의 죽은 육신을 환하게 비추는 빛, 보는 이의 시선이 한가운데 예수에게 가도록 배려한 곡선적인 리듬감, 강렬한 감정적 반향을 유발하는 비극적인 테마 등에서 전성기 바로크 양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에스파냐/1606~1669) 야간 순찰대(유채/437×363cm/1642년 작)

렘브란트는 이전의 진부하고 딱딱한 그룹 초상화를 대신하여 바로크적인 빛과 움직임, 포즈를 통해 흥분된 감정을 전달하고, 살아 있는 듯한 인물 묘사로 생생한 리얼리티를 강조하였다. 강렬한 광선과 어두운 배경과의 대조는 작품에 극적 긴장감을 더해 주며, 창과 방패, 총, 깃발, 드럼이 만들어 내는 서로 교차하는 시선은 언뜻 혼란스러워 보이면서도 서로 알맞은 각도에 놓여 있어 기하학적 구조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코크 대장이 어깨에 두른 붉은 장식 띠와 사수의 붉은 제복, 그리고 부관과 소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의 황금빛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그 위에 덮혀 있는 어두운 유약 때문에 '야간 순찰대'로 잘못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유약 제거 작업 이후, 중앙에 있는 실제보다 약간 큰 덩치의 대장이 부대원들에게 행진 명령을 내리는 순간을 담은 대낮의 장면임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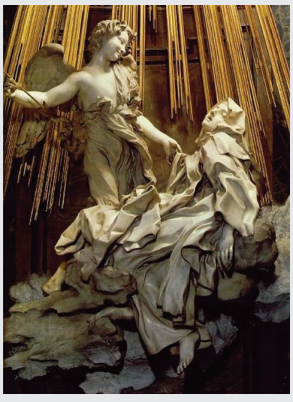
벨라스케스(Velzquez, Diego/에스파냐/1599~1660) 시녀들(유채/318×276cm/1656년 작)

이 작품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와 면밀한 관찰이 결합된 사실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제작되는 벨라스케스 초상화의 전형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화면 왼쪽에 위치한 벨라스케스의 자화상은 이 작품의 해석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벨라스케스는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전통적인 '화가'의 도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삽입함으로써 예술 창작과 회화의 고결함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인물들은 자유분방하게 그룹 짓고 있는 듯 보이지만, 중복되는 일련의 삼각형 구도로 세밀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에서 아랫부분만을 초상화에 할애하고 위의 절반은 빛과 그림자로 채움으로써 보는 이가 실제 공간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페르메이르(Vermeer, Jan/네덜란드/1632~1675) 우유를 따르는 하녀(패널에 유채/45.5×41cm/1658년 작)

베르메르는 자신의 소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검은 상자인데 반대편에 있는 사물의 영상을 투사하여 종이 위에 흔적을 남기는 장치이다. 또한 사물이 빛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통해 색상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능숙했다. 이 그림에서 투박한 모양의 빵 덩어리가 가장 강렬한 빛을 받고 있으며 물감을 두껍게 칠한 임파스토 기법으로 그려져 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빛이 사물의 형태와 질감, 그리고 사물의 색감을 고조시키며 형용할 수 없는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베르니니(Bernini, Giovanni Lorenzo/이탈리아/1598~1680) 성녀 테레사의 환희(대리석/높이 350cm/1652년 작)

바로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이자 건축가, 화가, 극작가, 작곡가, 무대 디자이너로서도 활약했다. 이 작품은 베르니니의 최고 걸작이자 바로크 양식의 최고봉을 이루는 작품으로 구름 속에서 기절한 성녀를 묘사하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환희와 고통이 혼합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강렬한 종교적 기쁨 속으로 예배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는 오페라의 무대를 꾸미는 기술을 총동원해 천사들이 소용돌이치는 구름 속에 둥둥 떠 있으며 황금의 빛줄기가 천장에 그려진 천국의 프레스코화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천사의 날개나 구름의 질감까지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으며, 작품 전체를 드라마와 같이 감정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 숨 쉬게 하고 있다.



베르사유 궁전(프랑스/1669~1715년 작)

바로크 미술의 호화찬란함의 극치는 평범한 사냥터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이 된 베르사유 궁전에서 맛볼 수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하며 절대 왕정을 수립한 태양왕 루이 14세가 호화로움을 넘어 장대함에 이르는 건축물을 짓고자 건립하였다. 베르사유의 수백 개의 방은 수정으로 만든 샹들리에와 여러 가지 색깔의 대리석, 은으로 장식한 가구들, 금으로 장식한 붉은 빛깔의 벨벳 벽걸이로 장식되어 있다. 이 궁전은 안락함보다는 오히려 시각적 충격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대한 대리석 바닥은 내부를 매우 냉랭하게 만들고, 욕조 속의 물은 얼어붙기 일쑤이고 수천 개의 촛대는 여름밤의 무도회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덥게 만들곤 했다.



부쉐(Boucher, Francois/프랑스/1703~1770) 목욕하는 다이아나(캔버스에 유채/57×73cm/1742년 작)

로코코 미술은 루이 15세가 통치한 1723~1774년 동안 파리에서 성행했던 미술 사조로 조개 장식을 말하는 '로카이유'에서 유래되었다. 장식적인 예술로서 곡선적이고 우아한 반면 당시의 무능한 귀족 계급만큼이나 비실용적이었다. 부쉐는 자연이 너무 침침하고 색깔이 짙다는 이유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요염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분홍빛 피부의 누드화로 방탕한 귀족 계급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그림 또한 사치스럽고 감상적인 내용과 에로틱한 여인의 누드로 당시 프랑스 상류 사회에서 인기가 있었다.



다비드(David, Jacques Louis/프랑스/1748~1825)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유채/330×425㎝/1784년 작)

이 작품은 "미술은 대중을 교육시키는 데에 공헌해야 한다."는 다비드의 가치관과 함께 로코코 양식의 죽음과 신고전주의의 탄생을 알린 작품이다. 적을 무찌르지 못하면 죽음을 택하겠다고 맹세하는 세 명의 형제들은 방탕함 대신에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으로 방탕한 귀족 계급이 전멸했듯이 이 회화는 새로운 금욕주의적 가치관을 보여 주고 있다. 다비드는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차이점을 딱딱하고 직선적인 남성의 윤곽선과 부드럽고 곡선적인 여성의 윤곽선 대조를 통해 확연히 보여 주고 있다. 그림의 구성까지도 견고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비드는 각 인물들을 조각상 같이 배열하여 로마식 아치가 있는 평면적인 배경 위에 돌출되어 보이도록 묘사하고 있다.



고야(Goya, Francisco/스페인/1746~1828) 1808년 5월3일(유채/266×345cm/1815년 작)

천 명의 에스파냐 시민을 학살한 사건에 대한 분노를 타나내고 있는 이 그림은 최초의 근대 화가로 추앙받고 있는 고야의 작품이다. 당시 프랑스 점령군에 대항한 보복으로 에스파냐 민간인을 프랑스 군대가 무차별하게 처형하였는데 그들의 야만적인 고문 행위와 공포스런 잔학성을 끔찍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희생자의 공포어린 표정과 총을 쏘고 있는 군인의 표정 없는 모습의 대조를 통해 전쟁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곧 처형 당하게 될 하얀 셔츠를 입은 희생자와 검은 그림자의 색채의 부조화는 이 장면의 폭력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제리코(Gericoult, Jean Louis Andre Theodore/프랑스/1791~1824) 메두사 호의 뗏목(유채/491×716cm/1888년 작)

프랑스 대혁명 이후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 예술은 삶 속에서 인간이 갖는 극단적인 감정 즉 기쁨과 환희, 사랑과 애증, 죽음, 고통, 광기, 자살과 연관된 인간 행위를 여과 없이 표현하게 된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세네갈로 프랑스 인들을 나르던 국영 이민선 메두사 호가 함장의 미숙함과 무능함으로 항해 중 암초에 걸려 침몰하게 된 것이다. 이 배에 타고 있던 4백여 명의 인원 중 고위 관료를 비롯해 절반은 6개의 구명정에 나누어 타고는 목숨을 구했고, 나머지 149명은 배의 잔해로 뗏목을 급히 만들어 몸을 싣게 되는데 굶주림과 고통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15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제리코는 기독교의 윤리와 이성을 저버린 반인륜적인 사건을 재현하면서 인간의 실존을 다시금 재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비참하고 잔혹한 현실을 고발하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은 화단에 '낭만주의 격정'을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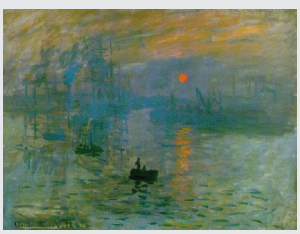
컨스터블(Constable, John/영국/1776~1837) 건초 마차(유채/130×185cm/1821년 작)

컨스터블은 풍경화란 직접적인 자연의 관찰을 통해 그려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시골 풍경은 자연에 대한 그의 애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으며, 자신은 자연을 결코 이상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상상 속의 풍경은 결코 실제의 풍경에 근거한 작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쓰고 있다. 이렇듯 하늘과 구름, 태양을 사랑하였기에 1802년부터 야외에서 유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비록 마무리 작업은 화실에서 하였지만 인상주의 이전에 야외 제작을 한 최초의 화가로 기록된다. 이 작품 속의 한 부분으로 있는 건초 마차와 농부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는 컨스터블의 신비주의적인 감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비평가들은 이 풍경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이슬이 바닥에 구르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도미에(Daumier, Honore/프랑스/1808~1879) 삼등 열차(유채/65.4×90.2cm/1862년 작)

도미에는 귀족과 정치가들이 으스대는 모습을 그로테스크하게 풍자한 캐리커처를 주로 그렸다. '민중에게서 쥐어짠 금보따리를 집에 삼키는 왕' 루이 필립을 묘사한 만화를 보고 왕은 도미에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다. 이 장면은 마치 들쥐같이 꼭 끼어 있는 노동자 계층의 여행객들을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담은 최초의 그림이다.



모네(Monet, Claude/프랑스/1840~1926) 해돋이 인상(유채/48× 63 cm/1872년 작)

상업적인 화가이자 캐리커처 작가로 출발했던 모네는 햇살이 가득하고 물기를 머금은 듯한 노르망디 해안의 풍경을 그리며 유람하다가 일순간에 직접적으로 와 닿은 자연의 인상을 기록하는 인상주의 선두 주자로 나서게 된다. 런던에서 컨스터블과 터너의 작품을 익힌 모네는 새로운 사조의 중심작이자 그 이름이 유래하게 했던 걸작 '해돋이 인상'을 1874년 첫 인상주의 전람회에 출품했다. 이후로 반세기 동안 다른 인상주의자들의 작품 세계가 변화를 거듭할 때에도 모네는 빛을 통하여 찰나의 시각적 감각을 표현하였다.



르누아르(Renoir, Pierre Auguste/프랑스/1841~1919) 물랭 드 라 갈레트의 춤(유채/131×175cm/1876년 작)

르누아르는 일상의 유쾌한 순간과 그 속의 인간들의 모습을 빛과 색채로 표현하는 데 능숙했다. 르누아르는 "자상을 신들이 사는 낙원과 같이 묘사하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시의 대중적인 야외 술집을 보면 이와 같은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고 있다. 짧은 필치로 된 다양한 색채로 화면을 덮음으로서 형체가 빛의 파편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윤곽선이 없이 하이라이트와 얼룩진 빛으로 제시된 형체와 검은색의 사용을 거부한 점은 인상주의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그는 검은색은 화폭에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여 그림자를 짙은 푸른색으로 그렸다. 캔버스의 한쪽에는 인물이 절단되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장면이 그림 액자 밖으로 확장되어 보는 이도 공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듯 느끼게 한다. 인물들도 포즈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흘러가는 생의 한 순간을 포착한 듯이 보인다.



드가(DeGas, Hilaire Germain Edgar/프랑스/1834~1917) 발레 수업(캔버스에 유채/85×75cm/1876년 작)

드가의 그림은 한 순간에 멈춰선 인물들을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발레리나를 그린 수백 점의 작품과 사생화, 파스텔화들은 찰나의 움직임에서 자연스런 효과를 얻으려는 그의 집념의 소산이다. 이 작품도 한참 발레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드가가 구석에 이젤을 놓고 관찰하여 그린 듯한 모습니다. 그러나 사실, 드가는 각각의 댄서와 발레 마스터의 모습을 따로따로 스케치하였고, 스튜디오에 돌아와서 오랜 고민과 실험을 거친 후 적절한 자리에 각각의 인물을 배치해서 마치 스냅 사진을 보는 듯한 광경을 연출해 낸 것이다.



로댕(Rodin, François Auguste/프랑스/1840~1917) 청동시대(청동/높이 180㎝/1876년 작)

경직된 아카데미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있는 인체를 기초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발전시킨 로댕은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도나텔로와 미켈란젤로의 걸작을 공부함으로써 그의 예술에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미켈란젤로의 '묶인 노예상'은 로댕의 등신대 조각상이자 최초로 중요한 작품으로 기록되는 '청동 시대'에 영감을 주었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고도의 자연주의 기법은 비평가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로댕이 인체로 주물을 떴다고 비난했다. 로댕은 이 작품의 사실성에 대하여 "나는 자연에 복종하며 결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우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잔(Cézanne, Paul/프랑스/1839~1906)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유채/74×93㎝/1900년 작)

세잔은 사물의 본질적인 구조와 형상에 주목하여 자연의 모든 형태를 원기둥과 구, 원뿔로 해석한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했다. 추상에 가까운 기하학적 형태와 견고한 색채의 결합은 고전주의 회화와 당대의 발전된 미술 사이의 연결점을 제시했으며,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입체파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어 '근대회화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 작품은 세잔의 정물화 가운데 가장 화려함을 자랑하는 작품 중 하나로, 화가는 각 정물들에서 발산되는 풍성함과 다채로움을 매우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이전에 화면의 구성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 주었던 장치들, 이를테면 테이블의 직사각형 틀이나 뒤쪽에 위치한 벽이 주는 평면감은 사라져버린 대신, 풍성하게 접힌 식탁보와 소파의 천이 공간 전체에 드리워져 있다.



고흐(Gogh, Vincent Van/네덜란드/1853~1890) 귀에 붕대를 맨 자화상(유채/ 60 × 49cm/1889년 작)

고흐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소재 자체의 형태보다는 색채에 더 집중하며 다양하고 밝은 색채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그의 작품을 보게 되면 강렬한 붓 터치의 곡선적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특유의 붓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자화상에 표출한 것이다. 이 작품은 고갱과 격렬히 다툰 후 자해한 사건이 있은지 2주 후에 그려진 작품으로서 고흐는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색채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흐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모두 눈에 집중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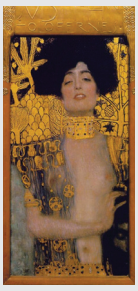
고갱(Gauguin, Paul/프랑스/1848~1903) 이아 오라나 마리아(유채/113.7×87.6cm/1892년 작)

고갱은 감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평면적인 형태와 자의적으로 사용한 강렬한 색채, 사실을 주관적인 감정으로 표현하였다. '이아 오라나 마리아'는 '나는 마리아를 경배한다'는 원주민의 말로 전통적인 성모자상을 획기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단순화된 인물형과 율동적인 패턴의 강한 윤곽선, 상징적인 요소는 원시미술과 일본 미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풍부한 색채(특히 옷의 분홍색과 노란색)는 비유럽적인 생기발랄함을 추구하는 고갱의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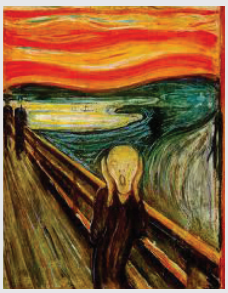
부르델(Bourdelle, Antoine/프랑스/1861~1929) 활 쏘는 헤라클레스(청/높이 248 cm/1909년 작)

이 장면은 헤라클레스가 바위에 몸을 지탱한 채 스팀팔로스 호수의 새를 막 겨누는 순간이다. 양팔과 두 다리가 거의 평행으로 보이고 그에 직각으로 표현된 몸통과 활이 이 작품에 기하학적인 단순성을 만들어 준다. 또한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이 잘 표현되었다. 과장되게 벌어진 두 다리와 다소 비사실적으로 길게 표현된 양팔, 금방이라도 터져 버릴 듯이 부풀려진 흉곽, 이 모든 신체 부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도의 긴장감과 힘이 느껴진다.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에 토대를 두면서도 구체성과 서사성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20세기 현대 조각의 길을 잘 보여 준다.



클림트(Klimt, Gustav/오스트리아/1862~1918) 유디트 1(유채/153×133cm/1901년 작)

클림트는 금세공가였던 아버지와 당시 유럽 전역에 유행하던 아르누보 양식의 영향으로 황금색과 곡선을 주로 사용하여 그의 작품은 매우 화려했다. 클림트는 또 그 당시 활발히 진행 중이던 프로이트의 심리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아 심리적인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작품은 약간 벌어진 입과 시선을 통해 살인자의 내면 심리를 노출시킨다. 그의 작품은 초기 표현주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이후 신표현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뭉크(Munch, Edvard/노르웨이/1863~1944) 절규(유채/91×73.5cm/1893년 작)

"나는 친구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해는 막 지려하고 하늘은 갑자기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산들바람이 스쳐갔고 나는 지쳐서 죽은 듯이 가만히 서 있었다. 검푸른 피오르드와 도시와 거리 위로 불과 피의 혓바닥이 날름거렸다. 친구들은 계속 걸었고 나는 혼자 남았다. 그때 나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공포에 떨면서 자연의 커다란 절규를 들었다." 이 작품은 참을 수 없는 공포심과 광기를 일으키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연의 절규가 얼마만큼 깊은 공포와 충격을 주었는지 인물의 왜곡된 형태와 색채의 표현에서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



루오(Rouault, Georges/프랑스/1871~1958) 미인도(유채/77×54cm/1937년 작)

젊은 시절, 루오는 스테인드글라스 공방의 도제로 있으면서 중세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수리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다. 두껍고 검은 선으로 구획 지어진 풍부한 색채의 조각들로 분절된 화면은 스테인드글라스에서 착상한 것이다. 단순한 루오의 화폭은 힘차고 표현력이 넘치며, 그의 종교적 믿음을 잘 전달해 주고 있다. 이 작품은 성경에 나오는 이 늙은 왕의 모습은 루오 그림의 특징인 스테인드글라스같이 두꺼운 검은 선으로 분절된 깊이 있는 색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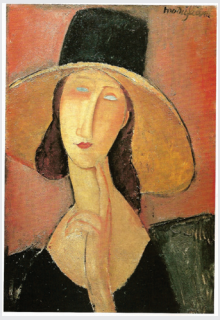
브란쿠시(Brancusi, Constantin/루마니아/1876~1957) 공간 속의 새(청동/132cm/1927년 작)

브란쿠시는 핵심 이외의 모든 세부 묘사를 생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딕 이래로 서구 조각은 표면 효과에 너무 치중해 근본적인 형상은 완전히 감추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브란쿠시는 형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각을 하고자 했다. 그는 사물을 달걀, 둥근 조약돌, 유리 조각 같은 몇 개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형상으로 보았다. 이 작품은 진짜 새를 표현하기보다는 새가 하늘을 비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브란쿠시는 "외부 형태는 진실한 모습이 아니다. 진실이란 사물의 정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록 브란쿠시의 조각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포기하고 있지만, 사물을 가장 기본적이고 응집된 핵심으로 단순화시켜 포착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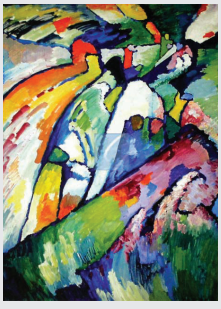
보초니(Boccioni, Umberto/프랑스/1882~1916) 공간 속에서의 연속적인 단일 형태들(청동/높이 126㎝/1913년 작)

미래주의는 1909년 이탈리아에서 '미래주의 창설과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계 문명에 대한 예찬으로 역동적 서정성이나 속도감을 표현하면서도 사상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 주었으며 다른 미술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가치관에 대하여 부정하였다. 보초니는 성큼성큼 걷고 있는 미래주의 조각을 통해 현대 사회의 역동성을 과시하고 있다.



모딜리아니(Modigliani, Amedeo/이탈리아/1884~1920) 큰 모자를 쓴 잔 에뷔테른(캔버스에 유채/55×38cm/1918년 작)

이탈리아에서 유대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모딜리아니는 선천적으로 폐가 약해 좋아하던 조각을 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이나 창녀를 모델로 초상화와 누드화를 그렸다. 그의 초상화는 대상을 단순화시키면서도 모델의 개성을 잡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여인은 길고 가는 목과 갸냘픈 어깨, 비례가 맞지 않는 작은 얼굴을 하고 있다. 또 작은 입술과 긴 코, 텅빈 듯 초점이 없는 가는 눈매, 애수와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러시아/1866~1944) 즉흥 no.7(캔버스에 유채/ 131 x 97cm/1910년 작)

청기사파는 1911년경 뮌헨에서 칸딘스키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사실적 형태를 벗어나 순수 추상화의 세계를 개척한 최초의 화가로서 어느 날 우연히 거꾸로 놓인 그림에서 색채가 내용에 상관없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경험을 한 후 구성과 즉흥으로 작품을 실험하게 된다. '구성'에서는 기하학적 형태를 의식적으로 배열했으며, '즉흥'에서는 의식의 통제 없이 자유자재로, 주제가 아닌 형태와 색채가 표현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추상적인 회화를 창시하였다.



클레(Klee, Paul/독일/1879~1940) 푸른 밤(캔버스에 유채/61×81.5cm/1923년 작)

클레의 작품은 쉽고 단순하게 그려진 것으로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클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아동화의 꿈같이 미술적인 효과를 모방하여 형태를 제한시켜 형상들이 모호한 이중성을 갖도록 했다. 그는 "나는 간난아이가 되어 원초적인 상태에 도달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합리주의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그의 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해로운 것으로까지 여겼다. 깊숙한 곳의 진실을 찾아 헤메는 그의 미술은 상상력을 섭취하고 자라나는 나무의 뿌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하늘을 한색과 난색의 두가지 색면으로 나누어 신비스러운 선으로 구획한 것이다. 그 선들은 별자리나 혹은 잊혀진 고대의 문자를 연상시킨다. 이것은 "미술은 가시적인 것을 재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시화하는 것이다."라는 클레의 믿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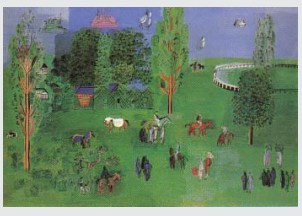
로트레크(Lautrec, Henri de Toulouse/프랑스/1864~1901) 물랭 루즈에서(캔버스에 유채/122.9×140.3cm/1892년 작)

서양 문명의 정신적인 질환 증세에 대해 고흐와 고갱이 가졌던 불만은 19세기 후반에 널리 퍼져 있던 보편적이 감정이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미술과 문학계의 분위기는 퇴폐주의와 악 그리고 어둠에 대한 자의적인 집착 증세로 물들게 되었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나이트 클럽인 '물랭 루즈에서'에 묘사된 정경은 결코 인상주의적인 삶의 편린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로트레크는 즐거운 표정으로 묘사된 삶의 껍질을 관통하여 날카로운 시간으로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의 성격을 가차 없이 파헤치고 있다. 이 그림에서 로트레크는 자신은 뒤쪽에 서 있는 키 큰 사람 옆에 턱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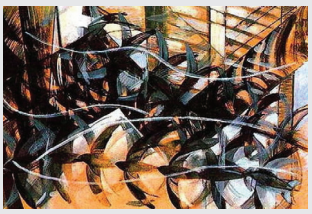
가우디(Gaudi y Cornet, Antoni/에스파냐/1852~1926) 카사밀라(건축/1905~1907년 작)

아르누보 건축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안토니 가우디가 바르셀로나에 세운 대형 아파트 '카사밀라'를 들 수 있다. 이 건물에서 가우디는 평면과 직선, 대칭성 등을 거의 병적이라 할 정도로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마치 건물 전체가 물렁물렁한 재료로 아무렇게나 만든 듯이 보이게 설계하였다. 이 건물의 외벽은 스투코나 시멘트가 아니라 돌을 붙여서 마감하였다. 그리고 지붕은 파도가 치는 듯한 율동감을 보이며 굴뚝은 제과용 튜브에서 짜낸 듯이 모양새가 예쁘다. 한마디로 말해 이 건물은 자연 형태라는 이상을 추구했던 한 예술가의 열정적인 혼을 반영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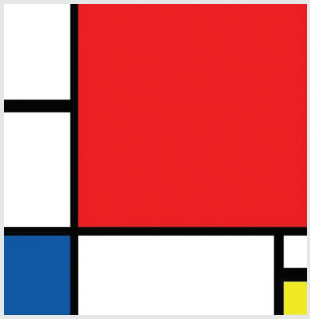
뒤피(Dufy, Raoul/프랑스/1877~1953) 경마장(유채/70×130cm/1926년 작)

파라솔을 든 우아한 숙녀, 실크해트를 쓴 신사, 말 위의 기수, 자전거를 나무 옆에 세우는 해병, 멀리 짙푸른 바다의 배와 요트 등 풍요로운 휴식의 세계가 담겨 있다. 뒤피의 화폭은 매우 감각적이고 유행을 의식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뒤피가 단순히 상류층의 일상을 즐겨 그리는 오락적인 화가는 아니다. 그의 드로잉은 흐르는 듯 유연하고 그의 색채는 즐거움에 넘쳐 어떤 장면을 그리더라도 매혹적인 것으로 만들고 만다. 비록 표현주의(사물의 실제적 외관을 왜곡하여 화가의 감정을 담는 화풍)가 대부분 폭력적이고 풍자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뒤피는 그것이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발라(Balla, Giacomo/이탈리아/1871~1958) 제비들의 비행(템페라/50.8×76.2cm/1913년 작)

한 무리의 제비가 화가의 창문 밖에서 빙빙 돌며 낙하하고 있다. 발라는 새들을 정밀하게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속도감과 운동감을 차례로 재현하고 있다. 그는 단단한 창들을 화면에 넣어 새들의 계속적인 움직임과 창들의 부동성을 대조적으로 보여 준다. 발라는 뒤셀도르프를 방문했던 1912년부터 1913년 사이에 '제비' 연작을 그렸다. 이 그림은 근대의 활력을 상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움직임을 묘사하고자 했던 이탈리아 미래주의자들의 작품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미래주의는 1909년 이탈리아의 시인 필리포 토마소 마리네티에 의해서 제창된 예술 운동이다. 과거의 전통을 부정하고 근대 문명이 낳은 속도와 기계를 찬미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았다.



몬드리안(Mondrian, Piet/네덜란드/1872~1944) 빨강, 파랑, 노랑에 의한 구성(캔버스에 유채/50.8×50.8cm/1930년 작)

이 작품은 몬드리안의 작품이 지닌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다. 그는 작품의 구성을 오로지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제한했을 뿐 아니라 색상도 검정색과 흰색을 포함한 3원색으로 한정하였다. 그는 오로지 조형 요소 사이의 관련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 이외의 거추장스런 요소들이나 우발적인 연상 작용은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였다. 그는 자신의 목적이 '순수한 실재'의 창조에 있으며 순수한 실재란 '이질적이지만 대등한 관계의 반대 요소들'에 의한 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마티스(Matisse, Henri/프랑스/1869~1954) 붉은 화실(캔버스에 유채/181×219㎝/1911년 작)

마티스는 색감의 변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색채를 하나의 자율적인 구성 요소로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그림에는 회화의 평면적인 속성과 입체적인 속성 사이에 새로운 종류의 조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바닥이나 벽 그리고 식탁보 할 것 없이 빨강색을 고르게 칠하고 있는데, 단지 몇 개의 선으로 수평면과 수직면을 구분해 내는 완벽한 자신감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에 그려진 무늬 역시 마티스의 과감한 태도를 입증해 준다. 이렇듯 불과 몇 가지의 단순한 형태와 색상 그리고 장식적인 무늬를 캔버스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마티스는 각각의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섬세함을 발휘하였다. 이런 장식성 자체만으로 그림을 구성할 수 있었던 화가는 마티스뿐이다.



폴록(Pollock, Jackson/미국/1912~1956) 가을의 리듬:No 30(캔버스에 유채/264×526㎝/1950년 작)

잭슨 폴록은 벽화 사이즈의 추상회화 속에 작품을 제작할 당시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이른바 '시각적인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다. "새로운 요구는 새로운 기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며 그는 이젤, 팔레트, 붓고 같은 전통적인 회화 도구들을 팽개치고 그의 화실로 쓰였던 헛간 마루에 캔버스를 펼쳐 두고 상업용 물감을 흩뿌리며 작업하였다. 1947년부터 시작된 이같은 뿌리기(drip) 회화는 유동적이고 이리저리 얽힌 조밀한 그물 조직으로 되어 있다. 대폭발 이후의 팽창하는 우주처럼 검정, 하양, 회색의 물감이 파죽지세로 사방에 퍼져나가며 경계도 중심점도 없이 복잡한 시각적 리듬감으로 물결치는 듯한 형상을 만들고 있다. 폴록이 미술에 공헌한 점은 추상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그의 작품 안에서 우리는 진실을 발견한다."고 말했다.





무용총 무용도(벽화/5세기 작/고구려)

고구려 중기 무덤인 무용총에 그려진 무용도는 이 고분을 대표하는 벽화중 하나로 주실인 후실의 정벽에 그려진 주인 접객도, 서벽에 그려진 수렵도와 함께 당시 생활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열을 지어 춤추고 있는 인물들과 구경하거나 음식을 나르는 시종들의 모습과 한가운데 말을 타고 있는 인물 등이 경쾌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남녀 무용수 7명이 긴 소매를 어깨 뒤로 늘어뜨리고 춤추는 장면인 매우 인상적인데, 맨 앞의 사람이 춤을 이끌고, 나머지 무용수들이 그를 따르며 춤추고 있다. 무용도 하단에는 7명이 나란히 서서 합창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무용과 합창대 전면에는 말을 탄 남자가 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 뒤로 동자 같은 시종이 따르고 있다. 말 탄 인물을 중심으로 좌측벽이 양분된 감을 주는데, 무용도 좌측에는 가옥 2채와 시녀 3명이 그려져 있다. 벽면 없이 기둥만 묘사된 가옥 2채 중 상단의 가옥은 용마루 중앙과 양 끝에 보주형 장식이 있고, 하단의 가옥에는 치미도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무용도는 고구려 시대 생활 풍속을 소박한 필치로 그렸는데, 매우 역동적이고 활달한 화풍을 보여 준다.



금동용봉 봉래산 향로(금동/높이 64cm/6~7세기 작/백제)

백제의 금속 공예 중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향로로 몸체와 밑받침, 뚜껑과 그 위의 봉황 장식 등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네 부분들을 따로따로 주조하여 결합시킨 것이다. 향로의 몸체 표면에는 3단의 외반한 연잎들이 피어나는 연꽃을 표현한 듯 장식되어 있고 그 밑에는 연꽃 송이의 밑줄기를 입에 문 용이 똬리 틀며 받침을 이루고 있다. 연잎들 표면에는 인물과 각종 동물과 물고기 등이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뚜껑의 표면에는 23개의 산들이 4~5단으로 표현되어 있어 첩첩 산중을 연상시킨다. 이 산들의 사이에는 다양한 인물들과 각종 동물들과 새들, 폭포와 나무 등이 변화무쌍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제일 윗 단에는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는 주악인물상이 묘사되어 있다. 이 뚜껑의 꼭대기에 봉황이 목에 여의주를 품은 채 버티고 있다. 뛰어난 조형성과 기법뿐 아니라 불교와 도교가 어우러진 사상적 복합성 등 모든 면에서 동양권 최고의 향로이다.



기마 인물모양 토기(흙/높이 23.5cm/5~6세기 작/신라)

금령총에서 발견된 기마 인물모양 토기 한 쌍은 주인과 하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각각 말을 탄 모습이다. 말 탄 사람의 의복과 각종 말갖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신라인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이는 말이 중심이 되는 의기적인 것이며, 말 엉덩이 위에 잔 모양 구멍이 열리고 가슴에는 긴 주구가 달려 있다. 뛰어난 조형성, 그릇으로서의 기능성, 터지지 않게 구운 기술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형토기라고 할 수 있다. 주전자로서 주구의 높이가 낮아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말과 인물의 정확하고도 대담한 표현은 한 점의 조각을 보는 듯하다.



성덕 대왕 신종(동/높이 3.8m/771년 작/통일 신라)

국보 제 29호인 이 종은 높이가 3.8m, 하부의 두께가 23 cm나 되는 거대한 종이다. 우리나라 종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알려져 있으며, 어린아이를 넣어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이른바 '에밀레 종'이란 이름으로 유명하다. 길게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경덕왕과 혜공왕의 2대에 걸쳐 유아 희생의 전설까지 낳는 고심 끝에 주조된 것이다. 한국 종의 특징인 종의 맨 윗부분의 매달기 위한 용뉴와 음향 효과를 위한 음통이 있으며, 비천상 부분에 새겨진 비천의 모습이 매우 유연하고 동적이며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통일 신라 전성기의 원숙한 예술성을 보여 준다. 이 종은 거대한 크기, 아름다운 조형성, 신비로운 소리, 탁월한 기술성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제일의 종이라 할 수 있다.



석굴암(석굴/높이 8m/8세기 작/통일 신라)

8세기 중엽 김대성에 의해 건설된 경주의 석굴암은 인도와 중국의 석굴의 영향을 받아 신라인이 고안해 낸 인공 석굴이다. 토함산 동쪽 봉우리 아래 큰 암벽 밑, 자연의 샘이 있는 곳을 터로 하였으며 전체 방향은 동해 쪽을 향하고 있다. 석굴은 전방 후원의 기본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원형의 주실과 방형의 전실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간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실은 석재로 쌓은 아치형 천장이고 그 위에 봉토를 덮었고, 1963년에 개수할 때 전실은 팔작지붕의 목조 건물로 덮었다. 전실에는 팔부신중과 인왕상, 간도 좌 · 우벽에는 사천왕상, 주실에는 석가여래좌상과 십일면관음상 등 통일 신라 시대 조각술의 절정을 보여 주는 불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석가탑(화강암/높이 7.4m/8세기 작/통일 신라), 다보탑(화강암/높이 10.4m/8세기 작/통일 신라)

불국사 대웅전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국보 제 36호 '석가탑'과 국보 제 20호 '다보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탑이다. 두 탑을 현재와 같이 동서로 나란히 세운 까닭은 현재의 부처인 석가여래가 설법하는 것을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옆에서 옳다고 증명한다는 '법화경'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동쪽에 세워진 다보탑은 우리나라 이형 석탑을, 서쪽에 세워진 석가탑은 우리나라 일반적 전형 석탑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석가탑은 옥신석의 높이와 폭, 옥개석의 폭과 높이 등이 높아짐에 따라 알맞게 체감하면서 넓고 안정된 기단부와 어울려 빼어난 조형성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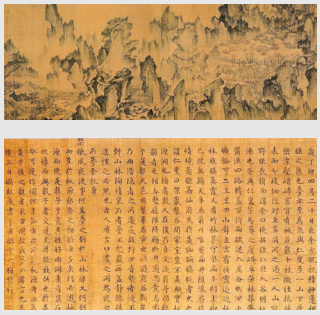
서구방(고려/1323년경) 수월관음반가상(비단에 채색/165.5×101.5cm/1323년 작)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던 고려불화의 특징은 서구방이 1323년에 그린 수월관음반가상에서 잘 드러난다. 왼편을 향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유연한 자세, 가늘고 긴 부드러운 팔과 손, 가볍게 걸쳐진 투명하고 아름다운 겉옷, 화려한 군의, 보석 같은 바위와 그 틈새를 흐르는 옥류, 근경의 바닥 여기저기 솟아오른 산호초 등이 함께 어울려 극도의 아름다움을 빚어내고 있다. 가늘고 긴 눈, 작은 입, 배경의 긴 대나무, 투명한 유리사발 안에 안치된 정병과 그것에 꽂혀 있는 버들가지, 얼굴과 가슴 그리고 팔과 발에 복채법으로 채색된 황금 빛 등도 이 시대의 불교 회화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들이다. 화려하면서도 가라앉은 품위 있는 색채, 섬세하고 정교한 의습 문양, 균형 잡힌 구성 등도 간과할 수 없는 특징들이다. 이처럼 불교 회화는 매우 화려하고 정교하여 귀족적이며 호신과 내세의 안락을 추구하 기복신앙적인 종교관과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작가 서구방은 고려 충숙왕 때의 화사로 당대 최고의 화가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 한 작품만이 일본 스미토모가에 소장되어 전해졌다.



청자 투각 연화 칠보 향로(흙/높이 15.3cm/12세기 작/고려)

세계적인 수준의 청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고려 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청자 향로가 사용되었다 그 중 청자 투각 칠보 무늬 향로(국보 95호)는 고려 시대의 우수한 공예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작품이다. 이 향로는 투각된 구형 뚜껑과 연화형 몸체, 그리고 세 마리의 토끼가 받치고 있는 판형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형태의 상형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완성도 높은 조형물로 승화되었다. 뚜껑은 전면에 칠보 무늬를 투각하고 문양의 교차 지점에는 작은 점을 백상감하여 장식성을 높였다. 몸통에는 틀로 찍어 낸 꽃잎들을 하나하나 붙여 활짝 핀 연꽃으로 만들고, 꽃잎에는 가늘게 잎맥을 표현하여 섬세함을 부여하였다. 특히 향로 받침을 떠받치고 있는 양증맞은 토끼 세 마리는 향로의 조형미를 배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안견(조선/1418~1452) 몽유도원도(비단에 채색/38.6×106.2cm/15세기 작)

조선 초기 왕족이자 서예가였던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도원을 여행한 후 그 내용을 안견으로 하여금 그리게 하고 당대의 명사들을 시켜 찬시를 짓게 해 제작하였다. 안평대군의 발문과 그가 지은 시를 비롯해 모두 23편의 찬문이 곁들여져 있다. 시, 서, 화 삼절이 갖추어져 일종의 종합 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다. 도가 사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화풍은 고전주의적 측면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왼쪽 하단부에서 오른편 상단부로 대각선을 이루며 이어지는 특이한 이야기 전개법, 왼편으로부터 현실 세계의 야산, 도원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경군들의 조화, 고원과 평원의 강한 대조, 도원의 넓은 공간, 환상적인 산들의 기이한 형태 등은 안견의 독창성을 보여 주며 이후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안견은 조선 전기 세종조의 뛰어난 화가였으며, '대소가의장도'와 전칭작인 '사시팔경도'가 남아 있다. 산수화에 뛰어났고 초상화 · 사군자 · 의장르 등에도 능했으며, 일본의 수묵산수화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신사임당(조선/1504~1551) 〈초충도〉(수박과 들쥐) (종이에 채색/34×28.3cm/16세기 작)

이 작품은 여덟 폭의 초충도와 두 폭의 발문으로 구성된 병풍인 '신사임당 초충도병'에 들어있는 작품이다. 초충도에 그려진 그림은 자연의 풀과 벌레를 소재로 하여 각 폭마다 꽃과 관련된 풀벌레를 중점으로 그렸으며, 그 종류가 20여 가지나 된다. 이 작품에는 수박 두 덩이가 땅 위에 뒹굴고 있고, 수박 덩굴은 길게 호를 그리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뻗어 있다. 그 끝에는 패랭이가 피어 있고 덩굴 위에는 나비가 날고 있으며, 땅 위에는 쥐 두 마리가 수박을 파 먹고 있다. 여기서 수박은 씨가 많기 때문에 다산의 상징으로 쓰인다. 충분한 여백과 소재의 적절한 배치, 정감 있는 채색 등 단아함과 사실성이 돋보인다. 신사임당은 조선 전기에 활동한 여류 서화가로서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 실물에 가까운 정확한 묘사, 섬세한 필선과 선명한 색채, 안정된 구도 표현에 뛰어나다. 현존 작품들은 대부분 초충도이고, 산수도도 있다.



이암(조선/1507~1566) 모견도(종이에 수묵 담채/73×42.2cm/16세기 작)

니무가 울창한 뜰에 어미 개 검둥이와 강아지 세 마리가 서로 영켜 있다. 검둥이와 흰둥이, 누렁이와 강아지의 색이 모두 다른데, 행동도 각양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다. 붉은 목줄을 둘러 맨 어미와 동색인 검둥이는 꼬리를 우뚝 세운 채 앞다리 사이를 당당하게 파고 들었고, 가장 극성스러운 흰둥이는 거꾸로 매달려 어미 젖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늘 인간과 함께 있어 가족이나 다름없는 견공들, 소박하면서도 뛰어난 관찰력으로 완성된 화조영모화이다. 이암은 종실 출신의 화가로 영모화에 큰 재능을 보였고, 일본으로 전해져 매우 큰 사랑을 받았다. 현재 〈화조묘구도〉, 〈화조구자도〉가 함께 전해지고 있다.



분청사기 조화어문 편병(흙/높이 25.6cm/16세기 작/조선)

국보 제178호인 이 작품은 조선 전기 분청사기 전성기에 만들어진 도자기로 몸통은 둥글며 앞 · 뒤 양면으로 납작하면서도 편평한 모양이다. 불룩한 항아리의 양면을 두드려서 편평하게 제작하였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양면을 편평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편병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둥이 부분을 제외하고 그릇 바탕에 비교적 두껍게 백토를 입힌 뒤 앞 · 뒷면과 옆면에 서로 다른 무늬와 위로 향한 두 마리의 물고기를 생동감이 넘치는 선으로 나타냈다. 정면에는 물고기 두 마리가 등지느러미를 세운 채 위를 향하고 있으며 비늘은 표현하지 않았다. 양 측면에는 상 · 중 · 하로 구분하고 상 · 중에는 모란꽃잎의 변형인 이형 꽃잎무늬를, 하에는 파초무늬를 표현했다.



김명국(조선/1600~?) 달마도 (종이에 채색/83×57cm/17세기 작)

억불숭유 정책 때문에 선종화가 꽃피기 어려웠던 당시 조선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작품은 김명국의 일본 방문과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제작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빠르고 힘차게 감필법을 휘둘러 순식간에 그려 낸 의습과 이목구비, 인도 출신의 중국 선종의 개조가 된 달마의 얼굴에 넘치는 정신세계, 간결하면서도 변화감이 큰 필묵법 등이 어우러져 대표적인 달마 화상을 창출하였다. 김명국은 조선 중기의 화가 중 가장 강력한 화풍을 창출했으며 통신사 화원으로 일본에 가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현재 그의 작품 중 '설중귀로도'가 잘 알려져 있다.



이명욱(조선/17세기) 어초문답도(종이에 수묵 담채/94.2.2×172.7cm/1751년 작)

이 작품은 어부와 초부(나무꾼)이 만나 한가로이 대화를 나눈다는 내용으로,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여기서 어부와 나무꾼은 세속을 떠나 은둔하며 살아가는 선비를 말한다. 어부는 물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사람, 나무꾼은 산을 좋아하는 어진 사람을 상징하고 있으니 이들의 만남은 동양적 은일 사상의 이상적 결합을 보여 주고 있다. 그을리고 주름진 얼굴에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그려 넣은 머리카락은 확고하고 자신감 넘치는 옷주름 선과 대비되어, 지자로서의 인격과 욕심없이 살아가는 은자의 삶을 생동감 있게 보여 준다. 이명욱의 인물 표현의 특징인 힘이 있는 골격, 유달리 강하고 복잡하며 날카로운 옷주름 선, 정세한 얼굴 표정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이명욱은 도화서 화원 출신으로 인물화를 잘 그렸고, 특히 탈속적인 어부의 풍모를 즐겨 그렸다. 오직 이 한 작품만이 전해져 온다.



정선(조선/1676~1759) 인왕제색도(종이에 수묵 담채/79.2×138.2cm/1751년 작)

우리나라에 실제로 존재하는 명산승경을 소재로 하고, 남종화법에 토대를 둔 한국적 화풍으로 그려낸 진경산수화의 대가 정선의 말년의 대표작이다. 정선이 76세 때 그린 걸작으로 비온 뒤에 개이고 있는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름은 연운이 깃든 인왕산의 습윤한 분위기, 노송이 우거진 중턱의 독특한 모습, 중묵을 곁들여 나타낸 바위의 단단한 질감, 농묵의 강한 효과 등이 어우러져 인왕산의 생생한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정선은 조선 후기 화원화가로 진경산수화의 토대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금강산도'와 '만폭동도' 등이 유명하다.



김홍도(조선/1745~?) 무동(종이에 수묵 담채/27.0×22.7cm/18세기경 작)

단원 풍속 화첩 25폭 중 한 폭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삼현육각의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무동이 춤을 추고 있다. 두 팔의 한삼자락을 멀리 위 오른쪽으로 감아 주고 오른발을 번쩍 들어 도약하는 경쾌한 발동작 그리고 만면에 웃을 띠고 왼쪽으로 숙인 고갯짓을 통해 춤의 절정적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을 표현한 필선은 김홍도 특유의 힘이 배어 있는 딱딱한 철선묘인데, 꺾임이 매우 힘차고 거친 갈필과 속도감을 더하여 묵직한 동감을 표현하였다. 반면에 악사들은 속도감을 줄인 딱딱한 철선묘로 일관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채색을 할 때에도 무동에게는 짙고 순도가 높은 색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표현 기법의 변화를 통하여 중심 인물을 생동감 있게 부각시켰다. 김홍도는 조선 후기 도화서 화원 소속 화가로 모든 장르에 능하였지만, 특히 산수화와 풍속화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단원 풍속화첩'에 수록된 풍속화들과 산수화 '총석정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신윤복(조선/1758?~1820?) 주유청강(종이에 채색/28.2×35.2cm/19세기 작)

양반들이 기녀들과 함께 배를 타고 유희를 즐기는 뱃놀이의 장면을 그린 것이다. 나룻배에는 모두 여덟 명이 타고 있는데 세 쌍의 남녀와 뱃사공과 악사 한 명이다. 뱃놀이를 하고 있는 곳은 망망한 한복판이 아니라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암벽 아래로 설정함으로써 그림의 주제에 맞는 아늑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화면 절반 정도의 위치에 서 위아래로 이분 되어 위쪽은 어두운 색의 거대한 암벽이 넓은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쪽은 밝은 빛깔의 인물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어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물들의 특성과 배경 묘사가 섬세한 묘사와 화사한 색감으로 표현되어 있다. 신윤복은 조선 후기 화원 출신 풍속화가로 상류사회의 풍속도나 기녀 등을 화려하고 섬세한 필치로 나타냈다. 대표작으로 '혜원 풍속화첩'에 수록된 풍속화들과 초상화 기법으로 그린 '미인도'가 있다.



김득신(조선/1754~1822) 성하직리(종이에 수묵 담채/22.4×273cm/18세기 말 ~ 19세기 초 작)

이 작품은 인물들의 동작과 표정을 매우 능숙한 솜씨로 묘사하고 분위기 묘사에 능했던 김득신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노인과 그의 아들 및 3대가 사립문 밖에 자리를 깔고 앉아 짚신을 삼고 있는 형상을 표현하였다. 짚신을 삼고 있는 장년 아들의 듬직한 모습, 담뱃대를 물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노인의 느긋함, 할아버지의 등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손자의 붙임성 등이 이 3대의 가족을 끈끈하게 맺어 주고 있다. 노인과 아들의 벗은 상체와 헐떡이는 검은 강이지, 사립문 위에 번성하는 호박 덩굴의 묘사 등이 무더운 여름을 말해 준다. 김득신은 김홍도의 제자라고 추정될 만큼 김홍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풍속화를 많이 남겼다. '밀회투전'과 '파적도'가 유명하다.



강세황(1713~1791/조선) 영통동구(종이에 수묵 담채/32.9×38.5cm/18세기 작)

이 작품은 '송도기행화첩'에 들어 있는 것으로 남종화적 미법 산수화 풍과 서양화 풍의 두 개의 화법이 잘 어우러져 있다. 실제 경치를 보고 그린 것인데, 강세황은 여기에 대담하게 서양화법을 도입해서 바위의 느낌을 보다 실감 나게 그려 보고자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매우 기이한 분위기를 지니게 되었고 조선시대의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렬한 표현성과 상징성이 느껴진다. 강세황은 풍경을 보면서 받은 심리적인 느낌을 다소 과장되게 거침없이 이 그림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강세황은 시 · 서 · 화 모두 뛰어나 삼절로 불리었고, 개성 있는 진경산수화를 즐겨 그렸다. '백석담도', '벽오청서도'가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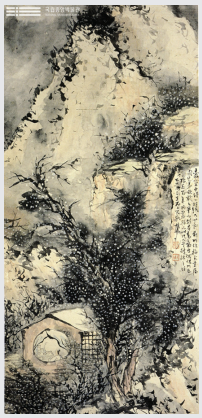
김두량(조선/1696~1763) 삽살개(종이에 수묵 담채/35×45cm/18세기 작)

조선 시대 동물화의 대가로 개를 즐겨 그렸던 김두량의 작품으로, 걸어가고 있는 개를 그린 것이다. 실제 개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린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소묘의 정확함과 세부 묘사의 치밀함이 생동감을 넘치게 한다. 삽살개의 온몸을 덮고 있는 털의 세밀한 묘사와 코와 입, 눈의 정교한 표현 등이 돋보인다. 이와 같은 김두량의 개 그림에는 서양화의 음영법이 전통적인 화법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동서 화법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화법에의 시도를 성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작가 김두량은 조선 후기의 화가로 서양화법과 남종화법을 수용하였다. 산수화와 인물화와 풍속화에 능하였고 동물화에 있어 뛰어난 기량을 나타냈다. 대표작으로 '흑구도'가 잘 알려져 있다.



김정희(조선/1786~1856) 영영백운(종이에 수묵/38×23.5cm/1844년 작)

제주 유배 시절 살던 집을 그린 것으로 생각되는 작품으로 남종화 풍 산수화이다. 김정희는 "매화 · 대나무 · 연꽃 · 국화는 어디에나 있지만, 귤만은 오직 제주 고을의 전유물"이라면서 제주 시절 살던 집의 당호를 귤중옥이라 하였다. 고담한 문기가 살아 있는 작품으로 멀리 있는 벗을 그리워하는 시를 덧붙였다. '산천이 멀어서 옛적에는 나를 찾아 주지 않더니, 이제는 어떠한가. 아침저녁으로 서로 대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다. 시 · 서 · 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문인화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김정희는 서예에서 추사체를 창안했고, 조선 말기 남종화 유행을 주도해 김정희 화풍을 이끌었다. 대표작은 '세한도'와 '부작란도'가 있다.



조희룡(조선/1789~1861?) 매화서옥도(종이에 수묵 담채/106.1×45.1cm/19세기 작)

조선 말기 우국충정을 담은 매화서옥이 그림의 주제로 종종 다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매화가 한겨울의 함박눈송이처럼 만발한 계절에 절벽 같은 산을 배경으로 비스듬히 가로 놓인 서옥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선비를 묘사하였다. 김정희의 '세한도' 속의 집 모습을 연상시켜 주지만 김정희의 것보다 훨씬 설명적이고 구체적이다. 또한 김정희가 일관되게 사용한 갈필을 피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문인적 주제의 선정, 수직성과 사선 구도가 조화를 이루게 한 구성, 서예적 필법, 대담하고 능숙한 묵법, 먹색과 어울리게 가한 능란한 담채의 설채법 등이 어우러져 보는 이의 시각적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한다. 조희룡은 김정희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산수화뿐 아니라 사군자도 많이 그렸는데 '벽오사서집도'가 잘 알려져 있다.



장승업(조선/1843~1897) 호취도(좌), 쌍치도(우)(종이에 수묵 담채/각 135.5×55.3cm/19세기 작)

〈호취도〉와 〈쌍치도〉는 한 쌍의 대련으로 제작되어 쌍폭을 이루는 작품으로 장승업의 화조화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각각 암수의 꿩 한 쌍과 매 한 쌍을 묘사하였다. 특히 쌍치도는 나뭇가지들과 아름다운 채색으로 그려진 생동감 넘치게 그려진 수꿩의 모습이 강렬한 대조를 보여 준다. 이러한 대조는 근경의 바위와 풀의 표현에도 잘 나타난다. 또한 나뭇가지에 그려진 작고 붉은 열매들은 나뭇가지의 표현에 보이는 대담함과는 달리 섬세한 맛을 자아낸다. 꽉 짜여진 구도, 힘차고 능숙한 필법, 강렬한 묵법과 섬세한 설채법의 뚜렷한 대조, 화면 전체에 넘치는 생동감 등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장승업은 호방한 필묵법과 정교한 묘사력으로 생기 넘치는 작품들을 남긴 조선 왕조 마지막 천재 화가로 안견, 김홍도와 함께 조선 시대 3대 화가로 불린다. 대표작으로 '청록산수도', '기명절지도'가 있다.



백자 청화산수문 쌍이편병(흙/높이 31.2cm/19세기 작)

청화 백자의 후기에 제작된 특징적인 작품으로 앞뒤가 평평한 둥근 형태의 편병으로 좌우 어깨 부분에는 끈을 꿰기 우한 동물 현태의 고리가 있고 받침은 각이져 있다. 앞면의 평면에는 선으로 둥근 원을 그어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소상팔경도 중의 '동정추월' 장면을 묘사하였다. 뒷면에는 '산시청람'의 화제가 표현되어 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고 왼편 중앙에는 깃발이 날리는 악양루가 서 있으며 바다처럼 넓어 보이는 동정호에는 배 한척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다. 극대화된 공간 구성은 우리 민족의 확대 지향적 공간 개념을 초기의 안견파 산수화에 이어 잘 보여 준다. 도자기와 회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으로 후기 청화백자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변상벽(조선/?~?) 묘작도(비단에 채색/93.7×42.9cm/18세기 작)

이 그림은 각각 두 마리의 고양이와 참새를 소재로 한 것으로 고양이의 털은 하나하나 셀 수 있을 것 같이 매우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서양화법이 응용된 듯 보이는 나무의 질감과 괴량감의 표현도 매우 사실적이다. 나뭇가지에 앉은 참새는 고양이와는 상관없이 즐겁게 노래하고 있어, 긴장감이 도는 고양이들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변상벽은 이 그림에서 나무에 올라간 고양이와 땅 아래에 있는 고양이를 서로 마주 보게 함으로써 두 마리의 고양이 눈동자에 독특한 정기를 부여하고 있다. 유연한 곡선형을 보이는 고양이의 몸에 칠해진 흑백의 선명한 대비가 화면에 장식적 효과를 고조시키고 있다. 도화서 화원 출신의 벽상벽은 닭과 고양이를 즐겨 그렸던 화가로 '변고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까지 했다. 현재 남아 있는 작품으로 '묘작도'와 함께 닭과 병아리를 그린 '계자도'가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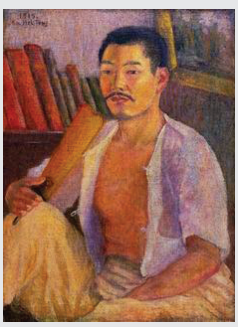
홍세섭(조선/1832~1884년) 유압도(비단에 채색/70.4×164.4cm/1913년 작)

이 작품은 홍세섭의 조류에 대한 지대한 관심, 뛰어난 구성력, 정확한 묘사력, 능숙하고 세련된 묵법 등을 잘 드러내 보여 준다. 특히 헤엄치는 두 마리의 오리를 부감법으로 묘사해 냈는데 그 시각의 참신함이 매우 눈에 띄며 서양 문물의 영향이라고 여겨진다. 활기 넘치는 오리들의 표정,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일고 있는 물결의 일렁임, 주변의 수초들의 움직임 등이 농담을 달리한 선염법으로 능숙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필선을 거의 배재한 수묵 농담 변화로 그린 오리와 물살이 가장자리의 물풀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흥미롭다. 홍세섭은 전형적인 사대부 출신 화가였으며 19세기 후반의 예술이 새로운 변화와 개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 주며 조선 말기 화단의 이색적 화풍을 대표한다. 이 작품과 함께 '백로도'가 대표작이다.



안중식(조선/1861~1919년) 도원문진(비단에 채색/70.4×164.4cm/1913년 작)

이 작품은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화려한 청록산수 기법으로 그린 작품으로 '풍림정거도'와 짝을 이루는 작품이다. 기암괴석이 들어찬 깊은 산속에 복숭아꽃이 활짝 핀 마을이 펼쳐지고 도원의 입구로 향하는 어부의 모습이 보인다. 안중식 특유의 각이 지고 심하게 주름이 잡힌 산이 겹겹이 포개 올라가고, 청록색의 장식적이고 화려한 채색이 궁중의 벽을 장식하는 장식화로서의 기능을 연상케 한다. 전경에는 진한 채색을 쓰고 원경에는 연한 채색을 써서 원근감을 나타냈으며, 청록색 바탕 위에 무수한 태점을 찍어 화려함을 더했다. 안중식은 구한말과 근대 화단의 교량적 역할을 한 화가로, 서화계의 원로이자 스승으로서 오랫동안 추앙을 받았다. '백악춘효도'와 '어해도' '옥류동' 등의 작품이 전해져 오고 있다.



고희동(한국/1886~1965) 부채를 든 자화상(캔버스에 유채/61×46cm/1915년 작)

화가 자신인 인물의 입고 있는 옷과 조선 부채의 형태를 통해 조선적인 것들에 기반하고 있지만 배경에 나타나 있는 양서들과 액자 그림 등에서 서양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물에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었던 근대적인 지식인이자 화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고희동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광선에 의한 화사한 색채 표현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인상파 화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붓질을 짧게 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작가 고희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로 서화협회를 창설하였고, 각기 다른 개성으로 그린 세 점의 자화상이 주요작품으로 남아 있다.



나혜석(한국/1896~1948) 자화상(캔버스에 유채/60×48cm/1900년경 작)

이 작품에서 그녀는 팔과 몸통, 어깨 등의 형태를 세세히 묘사하지 않고 과감하게 생략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야수파 화가들처럼 형태를 과감하게 생략, 단순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빠른 붓놀림을 통한 거친 표현을 추구해 화면의 질감을 거칠게 나타내고 있다. 배경은 물론 옷을 강하고 어두운 암청색으로 채색하고, 얼굴과 목, 손 부분은 밝은 색으로 부각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밝지 않은 얼굴 표정과 무겁고 가라앉은 분위기는 파리에서 귀국한 후 그녀가 겪게 되는 비운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 나혜석은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작가이며 근대적 여권론을 펼친 운동가였다. '무희', '에스파냐 항구' 등의 작품이 있다.



김관호(한국/1890~1959) 해 질 녘(캔버스에 유채/127×128cm/1916년 작)

우리나라 최초의 누드 작품으로 작가의 고향 평양의 대동강 능라도의 하늘과 강물에 아름다운 석양빛 정취가 고요하게 드리워진 분위기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 작품은 실제 풍경 위에 실내에서 스케치한 누드화를 짜깁기해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미술학교의 졸업 작품으로 그린 이 그림은 1916년 문전(문부성미술전람회)에 출품해 특선을 받았다. 하시만 당시 조선에서는 누드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문에 수상작 사진이 실리는 일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김관호는 일제 강점기 초기에 활동했던 한국의 1세대 서양화가로 도쿄예술대학을 졸업했으며 이 작품 외에도 '자화상'이 남아 있다.



김복진(한국/1901~1941) 소년(청동/높이 140.5cm/1940년 작)

김복진의 작품 중 특별히 주목을 받는 작품으로 이 작품은 그가 죽던 해인 1940년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그리스 고졸기의 '쿠오로스 상'을 연상케 한다. 훨씬 동적이며 인간적으로 처리된 이 작품은 일본을 통해 근대적인 조각 기법을 입수해야 하는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에 사실주의 조각이 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고 있다. 탄력 있는 근육의 풍부한 볼륨과 균형 잡힌 몸매, 소조의 흔적을 남겨 놓은 적당한 질감과 생명감 넘치는 포즈 등 이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적 특징은 한국 근대 조각이 고졸한 추상성으로부터 객관적인 사실주의로 전이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3.1 독립운동 이후 내선 일치와 같은 황민화 과정에서 소년의 모습을 통해 조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려고 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김복진은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조각을 도입한 근대 조각가이다. '여인상', '나부', '백화' 등의 작품이 있었으나 6.25 전쟁의 화염 속에 모조리 불타 없어져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은 없다.



이중섭(한국/1916~1956) 흰소(나무판에 유채/30×41.7cm/1954년경 작)

이중섭은 살아 생전 소를 많이 그렸는데, 그러한 그의 소 그림 중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에서의 흰소는 백의민족이었던 한국의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보면 소가 말라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당시 6.25 전쟁 이후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진하는 황소의 자세는 진취적인 민족 기상을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우직하면서도 강건한 기백은 은근과 끈기라는 한국적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이중섭은 근대 화가 중 야수파적인 표현주의 경향의 그림을 그린 화가이다. 그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은지화 기법으로 그린 작품들이 유명하며, '서귀포의 환상', '길 떠나는 가족', '부부' 등이 남아 있다.

인명

가우디(Gaudí y Cornet, Antonio/에스파냐/1852~1926)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곡선을 살린 독특한 건축물을 남긴 건축가이다.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파밀리아 성당, 구엘 공원 등이 있다.

강세황(조선/1713~1791) 조선 후기의 문인, 화가, 평론가로 한국적 남종문인화풍을 정착시켰다.

강희안(조선/1417~1464)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시와 글씨, 그림 모두에 뛰어 났으며, 대표작으로 '고사관수도'가 있다.

고갱(Gauguin, Eugène Henri Paul/프랑스/1848~1903)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문명 세계에 대한 반발로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서 생활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원주민의 건강한 아름다움과 열대의 밝고 강렬한 색채가 나타나 있다.

고흐(네덜란드/Gogh, Vincent Van/1853~1890) 인상주의와 일본 우키요에의 영향으로 강렬한 색채와 격렬한 터치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화풍을 확립하였다.

고희동(한국/1886~1965)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로 일본에 가서 서양화를 공부하였으며, 귀국하여 휘문, 보성 등의 학교에서 서양화를 가르쳤다.

김두량(조선/1696~1763) 화원으로 윤두서의 제자였으며, 도화서별제를 지냈다. 전통적인 북종화를 따르면서도 남종화풍과 서양 화법을 수용한 작품을 남겼다. 산수, 인물, 풍속, 영모 등 여러 방면의 소재에 능숙했다.

김명국(조선/1600~?) 도화서의 화원으로 인물과 수석에 독창적인 화법을 구사하였다. 굳세고 거친 터치와 흑백 대비가 심한 묵법, 날카롭게 각이 진 윤곽선 등이 특징이다.

김정희(조선/1786~1856) 조선 후기의 서화가, 문신, 문인, 금석학자이다. 학문에서는 실사구시를 주장하였고, 서예에서는 독특한 추사체를 대성시켰다.

김홍도(조선/1745~?) 산수화 · 인물화 · 신선화 · 불화 · 풍속화에 모두 능했고, 특히 산수화와 풍속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화가이다.

김환기(한국/1913~1974) 백자, 새, 산, 항아리 등을 소재로 한국적 정서를 서양의 기법과 결합하여 독창적인 한국미를 표현하였다. 또, 기하학적 색면 추상으로 우리나라 추상 미술의 제1세대로 불린다.

다비드(프랑스/David, Jacques Louis/1748~1825) 프랑스의 화가로 19세기 프랑스 고전주의 미술의 대표자이다. 나폴레옹에게 신임을 받으며 당시 미술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달리(에스파냐→미국/Dali, Salvador/1904~1989) 에스파냐의 초현실주의 화가로 S.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영향으로 무의식 속의 꿈이나 환상의 세계를 표현했다.

뒤피(프랑스/Dufy, Raoul/1877~1953) 기에는 인상주의와 야수주의,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밝고 장식적인 색채와 스케치하듯 빠르게 그은 선들로 이루어진 자신만의 독특한 회화 기법을 발전시켰다. 회화뿐만 아니라 삽화, 직물 디자인, 실내 장식 작업으로도 알려졌다. 1967년경부터는 대담한 색채를 쓰기 시작하였다.

라일리(Riley, Bridget/영국/1931~) 옵아트(op art)의 대표적 작가이다. 흰색과 검은색으로 된 작은 세모꼴의 배열과 줄무늬 모양의 곡선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 파도치는 것처럼 보이게 한 시각 효과를 추구하였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이탈리아/1452~1519)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미술가, 과학자, 기술자, 사상가로 조각, 건축, 수학, 과학, 음악 등 다방면에 재능을 보였다.

로댕(Rodin, François Auguste René/프랑스/1840~1917) 근대 조각의 시조로 일컫는다. 인체의 특징을 생략과 강조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대표작으로 '지옥의 문', '생각하는 사람', '칼레의 시민' 등이 있다.

로트레크(Lautrec, Henri de Toulouse/프랑스/1864~1901) 어릴 때부터 데생에 능했으며, 파리의 풍속, 애환을 민첩하고 정확하게 그렸다. 또 석판화도 능하여 석판화로 제작된 포스터도 주목을 받고 있다. 드가와 인상주의, 풍속판화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특한 경지를 개척하였다.

르누아르(Renoir, Pierre Auguste/프랑스/1841~1919) 프랑스 인상파 그룹의 한 사람으로서 빛나는 색채 표현을 전개했다. 이 후 인상파에서 이탈해 독자적인 풍부한 색채 표현을 되찾아 원색 대비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리히텐슈타인(Lichtenstein, Roy/미국/1923~1997) 뉴욕 출신의 팝 아티스트로 미국의 대중적인 만화를 작품 소재로 선택하였다. 밝은 색채와 단순화된 형태, 뚜렷한 윤곽선, 기계적인 인쇄로 생긴 점들을 특징으로 한다. 저급 문화로 알려진 만화를 회화에 도입해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팝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마그리트(Magritte, René/벨기에/1898~1967)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예기치 않은 공간에 나란히 두거나 크기를 왜곡시키고 논리를 뒤집어 이미지의 반란을 일으켰다. 기발한 상상이 돋보이는 작품을 제작한 초현실주의 작가이다.

마네(Manet, Édouard/프랑스/1832~1883)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화가이다. 세련된 도시적 감각의 소유자로 주위의 활기찬 현실을 예민하게 포착하여 표현하였다.

마티스(Matisse, Henri/프랑스/1869~1954) 원색으로 강렬하고 개성적 표현을 하였으며, 그가 주도한 야수파(포비즘) 운동은 20세기 회화의 혁명이다.

모네(Monet, Claude/프랑스/1840~1926)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로 그의 작품에서 인상파란 이름이 생겼다. 햇빛을 받은 자연의 표정을 따라 밝은 색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팔레트 위에서 물감을 섞지않는 인상파 기법을 개척하였다.

몬드리안(Mondrian, Piet Cornelis/네덜란드/1872~1944) 수평선과 수직선,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순수 기하학적 형태의 화면 구성을 발전시켰다. 1920년 신조형주의를 제창하였고 순수 추상 창조파에도 가담하였다. 저서로 '조형 미술과 순수 조형' 예술이 있다.

뭉크(Munch, Edvard/노르웨이/1863~1944) 삶과 죽음, 사랑과 관능, 공포와 우수를 강렬한 색채로 표현하는 독자적인 세계를 확립하였다.

미로(Miró, Joan/에스파냐/1893~1983) 초기 작품은 대상의 정밀한 표현으로 형태적 감수성과 친밀감이 드는 서정적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었다. 1920년대 입체주의,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오토매틱(automatic)한 작품을 그리기 시작하고 오브제(objet) 컬리지(collage)를 시험, 화면이 더욱 긴밀하고 풍부해졌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이탈리아/1475~1564) 이탈리아의 조각가, 화가, 시인, 건축가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이탈리아 르네상스 최대의 예술가로 〈최후의 심판〉, 〈천지창조〉, 〈다비드〉가 유명하다.

바자렐리(Vasarely, Victor/헝가리→프랑스/1906~1997) 조형의 기하학적 추상을 추구하고 부분의 미묘한 변화와 착란을 이용해 화면에 생생한 움직임을 주어 시각적 착각을 느끼게 하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박수근(한국/1914~1965) 회백색의 화강암과 같은 독특한 마티에르와 단순한 검은 선의 기법으로 가난하고 소박한 서민들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백남준(한국→미국/1932~2006) 한국 출신의 비디오 아티스트로 1960년대 플럭서스 운동의 중심에 있으면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술에 대한 정의와 표현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변관식(한국/1899~1976) 동양화가로 다각적인 시점을 구사하여 박진감과 입체파 풍의 구조적 해석을 보였다. 적묵법(積墨法)에 의해 변화를 주는 한국적 산수화를 그렸다.

쇠라(Seurat, Georges Pierre/프랑스/1859~1891) 신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다양한 색의 점들이 시각적 혼색을 일으키는 병치 혼합 기법을 사용하였다.

시걸(Segal, George/미국/1924~2000) 미국의 조각가로 실제 인체에 직접 본뜬 석고 인체상을 제작하였다. 대도시 대중의 군상을 표현한 조각은 미국 풍경의 회화와 연계되는 독자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신사임당(조선/1504~1551) 조선 중기 여류화가로 시문(詩文)과 그림에 뛰어났다. 여성 특유의 섬세 정교함이 특징이다.

신윤복(조선/1758?~1820?)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로 김홍도, 김득신과 더불어 조선 3대 풍속화가로 지칭된다. 미인도와 풍속화를 많이 그렸다.

워홀(Warhol, Andy/미국/1928~1987) 미국 팝 아트의 선구자로 대중 미술과 순수 미술의 경계를 무뜨리고 미술뿐만 아니라 영화, 광고, 디자인 등 시각 예술 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하였다.

이인문(조선/1745~1821) 산수를 비롯하여 인물, 영모, 포도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였다. 김홍도와 기량이나 격조 면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화가로 조선 후기 회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중섭(한국/1916~1956) 박수근과 함께 한국 근대 서양화의 양대 거목으로 시대의 아픔과 울분을 '소'라는 모티프를 통해 분출해 냈다. 대담하고 거친 선묘를 특징으로 하면서도 해학과 정감이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장욱진(한국/1917~1990) 동화, 전설, 이웃 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정감 있는 한국적 정서와 철학을 담은 작품을 제작하였다.

정선(조선/1676~1759) 조선 후기의 화가로 우리 자연의 독자적인 특징을 살린 진경산수의 개척자이다.

카라바조(Caravaggio, Michelangelo Merisi da/이탈리아/1571?~1610) 이탈리아 초기 바로크의 대표적 화가로서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잘 표현하였다.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러시아→프랑스/1866~1944) 사실적인 형체를 버리고 순수 추상화의 탄생이라는 미술사의 혁명을 이루어 냈다. 미술의 정신적인 가치와 색채에 대한 탐구로 20세기 가장 중요한 예술 이론가이다. 바우하우스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쿠르베(Courbet, Jean Désire Gustave/프랑스/1819~1877) 프랑스의 화가로 견고한 마티에르와 규모가 큰 명쾌한 구성의 사실적 화풍으로 19세기 후반의 젊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묘사할 것'을 주장하여 눈에 보이는 일상생활을 섬세히 관찰하였다.

페르메이르(Vermeer, Jan/네덜란드/1632~1675) 뛰어난 색조, 맑고 부드러운 빛과 색깔의 조화로 조용한 정취와 정밀감 넘치는 그림을 그렸다.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근대 회화의 출발점이 된 입체주의 양식을 창조한 20세기 초의 거장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표현한 '게르니카',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받은 '아비뇽의 처녀들'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호퍼(Hopper, Edward/미국/1882~1967)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이다. 20세기 미국인의 삶의 단면을 무심하고 무표정한 방식으로 포착하여 인간 내면의 고독과 상실감, 단절을 표현하였다.

용어

간다라 미술 B.C. 2세기~A.D. 5세기, 고대 인도 북서부 간다라 지방에서 발달한 그리스 · 로마 풍의 불교 미술 양식이다.

갈필법 수묵화의 기법으로, 먹의 사용을 억제하고 물기가 없는 붓을 문지르듯 그리는 기법이다.

감상 예술 작품을 깊이 음미하고 그 미적인 내용을 이해하며 즐기는 것이다.

강조 통일된 전체 구성에 어느 일정 부분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긴장감이다.

공공 미술 공공적 성격을 띠는 미술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미술을 말한다.

공예 쓸모와 아름다움이 있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구륵법 윤곽을 선으로 묶고 그 안을 색으로 칠하는 화법이다.

국한문 혼서체 국한문 혼용체라고도 하며,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여러 문헌에서 언해문(한문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문장)에 한자어를 한자로 기록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문체가 생겨났다.

균형 어떤 사물의 좌우 무게감이 같아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기록화 특정한 사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한 그림을 말한다.

길상무늬 장수나 행복 따위의 좋은 일을 상징하는 무늬로 장생이나 나비 등을 소재로 구성한다.

남종화 중국 명대에 제창한 화가의 계통이자 화풍이다. 북종화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문인화와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화풍의 특색은 천진하고 감흥을 존중하며 피마준 등 부드러운 준법을 사용했다.

대기 원근법(aerial perspective, 공기 원근법) 대기 중의 먼지나 매연, 햇빛 등의 작용으로 물체가 멀어질수록 흐리게 보이므로 명도 차이나 윤곽선의 선명도, 색상의 차이로 원근을 표현할 수 있다.

대지 미술 사막 · 산악 · 해변 · 설원 등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하는 미술 활동을 말한다.

데페이즈망(depaysement) 어떤 물건을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질적인 환경으로 옮겨 대상 물건으로부터 실용적인 성격을 배제하여 물체끼리의 기이한 만남을 연출시키는 기법이다.

도화서 조선 시대 그림 그리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을 말한다.

레디메이드(ready-made) 기성품을 의미하지만 미술에서는 오브제의 하나로 실용품으로 만들어진 기성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떠나 별개의 시각적, 개념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을 말한다.

렌더링(rendering) 제품화되지 않은 계획 단계에 있는 제품을 누구나 외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 그대로 그린 완성 예상도이다.

마블링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우연의 효과를 살려 작품을 제작하는 기법이다.

마인드 '생각의 지도'라는 뜻으로 자신의 생각을 지도를 그리듯이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몰골법 윤곽선 없이 색채나 수묵을 사용하여 형태를 그리는 화법을 말한다.

문자도 문자를 그림과 결합하여 조형적으로 구성한 민화의 한 종류이다.

미디어 아트(media art)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인 매체를 미술에 도입한 것으로서, 책이나 잡지, 신문,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등 대중에의 파급 효과가 큰 의사소통 수단의 형태를 빌려 제작된다.

방 획을 그을 때 붓털이 획의 내부를 지나는 원 법에 대한 대칭으로서, 점획의 가장자리로 붓 끝의 예리함이 표현되는 법이다.

백묘법 고대 백화에서 유래한 중국 회화의 기법으로 묵선만으로 대상을 묘사하면서 색채를 칠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넓게는 색채를 칠하기 전의 밑그림, 분본, 소묘 등도 포함되지만, 본격적인 백묘화는 선묘로서 완결시킨 작품을 가리킨다.

변화 단조롭게 구성된 조형물의 일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작품에 생동감과 흥미를 더해 주는 요소이다.

복원 문화재를 원래의 위치나 상태,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

분석적 감상 미술 작품에 사용된 시각적 조형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감상하는 것이다.

분청사기 회색 또는 회흑색의 태토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조선 초기의 도자기이다. 분장회청사기의 준말로 분장 기법은 무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릇 표면을 백토로 씌워 백자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 주기도 한다.

불화 불교의 종교적인 이념을 표현한 그림을 말한다.

사군자 매화, 난 , 국화, 대나무 등 네 가지 식물을 일컫는 말로 북송 때 문인화의 이론과 수묵화의 발달과 더불어 차츰 문인화의 소재로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매 · 난 · 국 · 죽의 순서는 이들을 춘하추동의 순서에 맞추어 놓은 것이다.

사실주의(realism) 현실을 존중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려는 예술 제작의 태도나 방법을 말한다.

산수화 산과 강 등의 자연 경관을 소재로 해서 그린 동양 회화의 종류이다.

삼묵법 짙은 먹색의 농묵, 중간 먹색의 중묵, 가장 흐린 먹색의 담묵을 삼묵법이라 한다.

색채 마케팅 색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여 기업이나 브랜드, 상품의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홍보하는 마케팅 방법을 말한다.

생태 미술 환경 보전을 위한 미술 활동을 말한다.

설치 미술 특정한 장소나 전시 공간을 고려하여 제작된 작품으로 작품과 공간이 총체적인 하나의 환경을 이룸으로써 그 자체가 작품이 되는 미술의 장르를 말한다.

셀 애니메이션(cell animation) 배경을 그대로 두고 캐릭터만 움직이게 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이다.

소실점(消失點, vanishing point) 소실점은 직선을 무한히 먼 거리로 연장하였을 때 무한 거리선과 시점을 연결한 시선과 교차되는 점을 말한다.

수묵 담채화 먹색의 농담 효과를 살린 수묵화에 담담하고 엷은 채색을 더한 그림으로 채색보다 수묵 위주로 그려진다. 문인화가들이 많이 그렸으며, 먹선을 그은 후 채색을 하거나 채색 후 먹선을 사용하여 번지게 하기도 한다.

수묵화 현란한 채색을 피하고 화선지에 수묵의 농담 위주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중국 당나라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문인화의 형태로 나타나 조선 시대에 성행하였다.

스테인드글라스 금속 산화물을 녹여 붙이거나, 표면에 안료를 구워서 붙인 색판 유리 조각을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채색한 유리판으로 주로 유리창에 쓰이는 장식 기법이다.

스토리보드(storyboard) 영화나 텔레비전 광고 또는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그림판이다.

실크 스크린 판의 구멍을 통해 잉크를 통과시켜 원하는 그림을 얻어내는 공판화의 한 종류이다.

십장생도 민간 신앙 및 도교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의 사물을 그린 그림으로 해 · 달 · 산 · 내 · 대나무 · 소나무 · 거북 · 학 · 사슴 · 불로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해 · 돌 · 물 · 구름 · 소나무 · 대나무 · 불로 · 거북 · 학 · 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상블라주(assemblage) '집합', '조립', '긁어 모으다' 등의 뜻으로,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이나 폐품 등의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작품이다.

아트 디렉터(art director) 디자인, 사진, 출판, 광고 등 조형적 표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조직 내에서 기획, 생산, 영업 등 각 분야와 관련된 조형적 문제를 총괄하고 처리하는 전문가를 이른다.

아트 마케팅(art marketing) 유명한 예술가나 그들의 작품을 활용해 기업과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급화하는 일종의 감성 마케팅 전략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술관에 가지 않고도 일상 생활에서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트 옥션 경쟁 방식에 의한 미술 작품의 판매 방법을 의미하는 말이다.

아트 페어 여러 화랑이 한 장소에서 미술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로 일종의 미술 시장이다.

암각화 바위 위나 큰 절벽, 동굴 내 벽면 등에 사물이나 기호를 쪼으기, 새기기, 칠하기 등의 기법으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오방색 우리나라의 전통 색으로 오행의 각 기운과 직결된 청, 적, 황, 백, 흑의 다섯 가지 기본색을 말한다.

우키요에 목판화로 찍어 낸 에도 시대의 일본 서민 풍속화이다.

원 붓으로 획을 그을 때 붓털이 획의 내부를 지나는 법을 말한다.

자동기술법 현실주의 작가들이 사용한 기법으로 무의식적 자동작용을 하는 방법이다.

자화상 상화의 한 종류로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조형 원리 시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비례, 균형, 조화, 율동, 대비 등이 있다.

적묵법 동양화에서 먹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먹의 농담을 살려 순차적으로 쌓아가듯이 그리는 기법으로 온화하고 윤택한 먹의 운치를 형성한다.

조형 요소 점 · 선 · 면 · 형태 · 색채 · 질감 · 명암 등의 시각적 표현 요소들을 말한다.

지승 공예 한지를 잘게 찢어 꼬아 만든 실로 만든 생활용품이다.

직관적 감상 작품과 마주쳤을 때 감동을 느끼는 것으로 직감적으로 감상하는 것이다.

진채화 먹이 아니라 채색이 주가 되도록 먹의 사용을 줄이고 채색을 두텁고 진하게 칠하는 그림으로 종이나 비단 위에 먹으로 그린 후, 먹선이 안 보일 정도로 두껍게(진하게) 채색한 그림이다.

착시 시각적인 착각 현상으로 실제 있는 것과는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초상화 사람의 얼굴을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을 말한다.

추상 사물의 사실적 재현이 아니고 순수한 점 · 선 · 면 · 색채에 의한 표현을 목표로 한 형식이다.

카툰 한 컷에 은유, 직유, 풍자 등 모든 표현 방식을 동원하여 재미있고 재치 있게 그린 단편 만화이다.

컬러리스트(colorist) 컬러리스트는 색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색채 전문가로, '컬러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컴퓨터 애니메이션(computer animation) 애니메이션 필름 작성에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디스플레이 장치의 스크린 위에서 컴퓨터로 리얼타임 애니메이션을 행하는 일을 말한다.

콜라주 '풀로 붙이는 것'의 뜻. 큐비즘의 파피에 콜레(종이 붙이기)가 발전된 것으로, 본래 상관 관계가 없는 별도의 영상을 최 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합시켜 색다른 미나 유머나 로마네스크의 영역을 회화에 도입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clay animation) 찰흙을 이용하여 만든 애니메이션 기법이다.

테라코타(terra cotta) 양질의 점토로 구워 낸 토기류를 말한다. 원어는 '구운 흙'을 뜻하나, 일반적으로는 미술적 조각 작품의 소재를 말한다.

투시 원근법(liner perspective, 선원근법) 대상을 일정한 시점에서 보고 평면에 옮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건물의 투시도나 순수 회화 작품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퍼포먼스(performance) 사람의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창작 행위를 말한다.

프레스코 벽화를 그릴 때 쓰는 화법. 이탈리아 어로 '신선하다'라는 뜻으로 덜 마른 회반죽 바탕에 물에 갠 안료로 채색한 벽화를 말한다.

프로티주 나무판이나 잎, 천 따위의 면이 올록볼록한 것 위에 종이를 대고, 연 등으로 문지르면 피사물의 무늬가 베껴지는데, 그 때의 효과를 조형상에 응용한 기법을 말한다.

플립 북 애니메이션(flip book animation) 책의 끝 부분에 조금씩 변해 가는 그림을 그려 넣어서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주는 방법이다.

픽토그램(pictograms) 국제적인 행사 등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 문자로서, 언어를 월해서 직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그래픽 심벌을 말한다.

호작도 서낭신의 사자인 까치가 호랑이에게 신탁을 전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일반적인 호작도는 해학적인 표정과 단순한 동세를 지닌 호랑이를 그리곤 한다.

환경 미술(environmental art) 도시 계획, 조경 계획과 같은 대단위 환경 계획에서 건축 계획, 실내 계획 또는 디스플레이와 같은 소단위 환경 계획까지 포함한다.

사진 및 자료 출처

참고 문헌

〈청소년을 위한 서양 미술사〉, 도병훈, 두리미디어, 2010 ● **〈서울옥션〉**, 서울옥션, 2010 ● **〈예술 속 문양의 세계〉**, 다이애나 뉴월, 크리스티나 언윈, 시그마 북스, 2012 ● **〈월간미술〉**, 월간미술, 2009-2011 ● **〈천년의 그림 여행〉**, 스테파노 추피, 예경, 2007 ● **〈새로운 미술의 이해〉**, 로이스 피흐 라투스, 예경, 2005 ● **〈This is Art〉**, 스티븐 파딩, 마로니에 북스, 2011 ● **〈클릭 서양 미술사〉**, 캐롤 스트릭랜드, 예경, 2002 ● **〈클릭 한국 미술사〉**, 강민기, 이숙희, 장기훈, 신용철, 예경, 2011 ● **〈미술 감상 교육〉**, 류지영, 미진사, 2011 ● **〈심〉**, 안삼공사, 2013 ● **〈재미있는 미술 감상 수업〉**, 이은적, 예경, 2004 ● **〈미술과의 첫 만남〉**, 마리 그리피스, 예경, 2005 ● **〈의미 만들기의 미술〉**, 박정애, 시공사, 2008 ● **〈이미지로 생각해요〉**, 이주은, 조선 북스, 2012 ● **〈일러스트〉**, 일러스트, 2012 ● **〈김진규의 라떼아트〉**, 김진규, 북네프, 2012 ● **〈따라하고 싶은 라떼아트〉**, 이서연, 이덴슬리벨, 2012 ● **〈생생한 역사화에 뭐가 담겨 있을까〉**, 이주헌, 다섯수레, 2007 ● **〈조선 시대 향연과 의 〉**, 국립중앙박물관, 2009 ● **〈빅 아트북〉**, 데이비드 G. 일킨스, 마로니에북스, 2010 ● **〈아름다운 풍경화에 뭐가 숨어 있을까〉**, 이주헌, 다섯수레, 2005 ● **〈국립경주박물관〉**, 통천 문화사, 2012 ● **〈20세기 아트 북〉**, 마로니에 북스 편집부, 마로니에 북스, 2010 ● **〈딸과 함께 떠나는 건축 여행〉**, 이용재, 플러스 문화사, 2001 ● **〈음악 미술 개념 사전〉**, 김동영, 아울북, 2010 ● **〈한국 애니메이션은 없다〉**, ● **〈세계 만화〉**, 성완경, 생각의 나무, 2005 ● **〈월간미술〉**, 월간미술, 2013 ● **〈월간미술〉**, 월간미술, 2000 ● **〈미의 역사〉**, 움베르토 에코, 열린책들, 2008 ● **〈추의 역사〉**, 움베르토 에코, 열린책들, 2008 ● **〈글꽃 하나 피었네〉**, 강병인, 북하우스, 2009 ● **〈민화 가장 대중적인 한국적인〉**, 정병모, 돌베개, 2003 ● **〈새로움의 충격〉**, 로버트 휴즈, 미진사, 1991 ● **〈서양 미술사〉**, H.W.잰슨, A.F.잰슨, 미진사, 2001 ● **〈서양 미술사 100장면〉**, 최승규, 한명, 1996 ● **〈월간미술〉**, 월간미술, 2006-2013 ● **〈중국미술의 역사〉**, 북경중앙미술학원 미술사계 중국미술사교연실, 시공사, 1998, **〈중국화 감상법〉** 한정희, 대원사, 1994 ● **〈청소년을 위한 서양 미술사〉**, 도병훈, 두리미디어, 2006 ● **〈청소년을 위한 동양 미술사〉**, 이석원, 김순경, 안혜경, 두리미디어, 2005 ● **〈청소년을 위한 한국 미술사〉**, 박차지현, 두리미디어, 2005 ● **〈키스 동양의 창을 열다〉**, 엘리자베스 키스, 책과 함께, 2012 ● **〈클릭 서양미술사〉**, 캐롤 스트릭랜드, 예경, 2002 ● **〈클릭 한국 미술사〉**, 강민기, 이숙희, 장기훈, 신용철, 예경, 2011 ● **〈풍속화〉**, 이태호, 대원사, 1995 ●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강민기, 강현숙, 윤희상, 이선재, 이숙희, 장경희, 예경, 2006 ● **〈한국 미술의 역사〉**, 김원용, 안휘준, SIGONGART, 2003 ● **〈한국미술사 101장면〉**, 임두빈, 가람기획, 1998 ● **〈한국현대미술사〉**, 오광수, 열화당 미술책방, 2000 ● **〈한국 회화사〉**, 안휘준, 일지사, 2011 ● **〈한국 회화사 연구〉**, 안휘준, SIGONGART, 2000 ● **〈20세기의 미술〉**, 노버트 린튼, 예경, 1993 ● **〈20세기 시각 예술〉**, 에드워드 루시 스미스, 예경, 2002 ● **〈서양 미술사〉**, 곰브리치, 예경, 1999 ● **〈서울을 디자인 한다〉**, 권영걸, 디자인하우스, 2010 ● **〈현대 미술과의 첫 만남〉**, 로지 디킨스, 예경, 2005 ●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박천신, (주)한언, 2008 ●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백동민, 아트인 포스트, 2010 ● **〈인간을 위한 디자인〉**, 빅터 파파넥, 미진사, 2009 ● **〈콘란과 베일리의 디자인&디자인〉**, 스티븐 베일리, 테렌스 콘란, 디자인하우스, 2009 ● **〈근대 조각사〉**, 앨버트 E. 엘센, 집문당,1988 ● **〈미술실에서 미술관까지〉**, 이윤구, 두산 동아, 1998 ● **〈알고 쓰는 미술 재료〉**, 전영탁, 전창림, 미술문화, 2007 ● **〈디지털 아트, 디지털의 유혹〉**, 정동암, (주)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 **〈국립부여박물관〉**, 2003 ● **〈세상을 비추는 거울 미술〉**, 줄리언 벨, 예담, 2009 ●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진중권, 휴머니스트, 2006 ● **〈미디어 아트 예술의 최전선〉**, 진중권, 휴머니스트, 2009 ● **〈이미지로 보는 서양 미술사〉**, 질 플라지, 장 라쿠튀르, 마로니에북스, 2007 ● **〈한국 현대 조각사 연구〉**, 최태만, 아트북스, 2007 ● **〈20세기 아트북〉**, 페이돈 편집부, 마로니에 북스, 2010 ● **〈아트북〉**, 페이돈 편집부, 마로니에북스, 2009 ● **〈예술 발견〉**, 프랑크 슐츠, 미술문화, 2009 ● **〈예술을 통한 교육〉**, 허버트 리드, 학지사, 2007 ● **〈제품의 디자인과 개발〉**, 고영준, 용인송담대학출판부, 2003 ●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방법과 사 〉**, 고영준, 아담북스, 2011 ● **〈디자인 방법론 연구〉**, 임연웅, 미진사, 1992 ● **〈한 권으로 읽는 20세기 디자인〉**, 락시미 바스카란, 시공아트, 2007 ● **〈Innovative Product Design Practice〉**, Carl Liu, CYPI Press, 2007 ● **〈Product Design Sketches〉**, Cristian Campos, Boops Publishers, 2012 ● **〈광고 천재 이제석〉**,이제석, 학고재, 2010 ● **〈미술이란 무엇인가〉**,마리아 카를라 프레테, 청년사, 2004 ● **〈진로와 직업〉**, 교학사, 2008 ● **〈보물지도〉**,모치즈키 도시타카, 나라원, 2009 ● **〈서울옥션 도록〉**, 서울옥션,2009~2012 ● **〈20세기 아트북〉**, 윤옥영, 마로니에 북스, 2009 ● **〈어린이 미술관 1〉**, 어멘더 렌쇼, 사계절, 2009 ● **〈어린이 미술관 2〉**, 어멘더 렌쇼, 사계절, 2009 ● **〈세기의 위대한 그림이야기 20〉**, 찰리 에이리스, 주니어 중앙, 2010 ● **〈청소년을 위한 한국 미술사〉**, 박차지현, 두리미디어,2005 ● **〈달달한 인생〉**, 지현곤, 생각나무,2010 ● **〈항쟁군 평행우주2〉**, 김홍모, 청년사,2007 ● **〈월간 디자인〉**, 디자인하우스, 2012.10월호 ●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솔,2004 ● **〈아름다운 우리 한글〉**, 한류전략연구소, 어문학사, 2006 ● **〈그림 공부 인생 공부〉**, 조정육, 아트북스, 2012 ● **〈명화 경제토크〉**, 이명옥, 정갑영, 시공아트, 2007 ● **〈눈으로 먹는 음식〉**, 강정만, 2010 ● 메이 스튜디오/박완국 ● **〈명화와 함께 떠나는 수학사 여행〉**, 계영희, 살림, 2006

누리집

강병인 컬리그래피 연구소 술통 http://www.soolbong.co.kr
경기도박물관 www.musenet.or.kr
고려대학교 박물관 museum.korea.ac.kr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www.gaya.go.kr
국립경주박물관 gyeongju.museum.go.kr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
국립과천과학관 sciencecenter.go.kr
국립문화재연구소 www.nrich.go.kr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국립예술자료원 www.knaa.or.kr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국립 현대 미술관 http://www.moca.go.kr
그래픽디자인의역사 ttp://kingydesignhistory.2012.wordpress.com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www.natureartbiennale.org
김달진미술연구소 www.daljin.com
남산골한옥마을 hanokmaeul.seoul.go.kr
네오룩 http://www.neolook.com
네이버 지식 백과 http://terms.naver.com
네이버캐스트 navercast.naver.com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www.designdb.com/kidp/incl
라이브 옥션 http://www.liveauctioneers.com
리움미술관 www.leeum.org
문화재청 www.cha.go.kr
백남준아트센터 www.njpartcenter.kr
백제금동대향로 디지털재현관 www.hyangno.net
베네핏 매거진 http://benefitmag.tistory.com
부평 역사박물관 http://www.bphm.or.kr
상주문화예술교육연구소 http://cafe.daum.net/sjace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www.mediacityseoul.kr
서울대학교 박물관 museum.snu.ac.kr
서울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http://www.citygalleryproject.org
서울디자인재단 www.seouldesign.or.kr
서울디자인센터 www.seouldesigncenter.com
서울역사박물관 www.museum.seoul.kr
수원화성박물관 hsmuseum.suwon.ne.kr
아트 뮤지엄 http://www.artmuseums.kr
양평 군립 미술관 http://www.ymuseum.org
온바오 http://www.onbao.com
월간디자인 mdesign.design.co.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연합뉴스 데이터 http://app.yonhapnews.co.kr
예술의 전당 www.sac.or.kr
이경찬의 역사 교실 http://leekcp.new21.org
이놀자 매거진 http://mag.enolja.com
e 뮤지엄 http://www.emuseum.go.kr
이중섭 미술관 http://jslee.seogwipo.go.kr
지콜론의 팝 디자인 http://gcolon.khan.kr
타이포그래피 서울 http://www.typographyseoul.com
폰트 클럽 http://www.fontclub.co.k
한국관광공사 http://korean.visitkorea.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한국 아티스트 프로젝트 http://www.koreanartistproject.com
한국 칠보 공예 협회 http://www.koreaenamel.com
환경 건축 http://www.arquitecturaorganica.com

집필

고유미(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집필, 누원고등학교 교사)
김병욱(중 ·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집필, 본오중학교 교사)
홍철(군자공업고등학교 교사)
최희진(초 · 중 ·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개발)
백승주(중 ·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개발)

단원별 집필
제1부 미술의 기능
미술과 언어(최희진, 고유미, 김병욱), 미술과 생활(김병욱)
제2부 미술의 감상
분석과 해석(고유미, 최희진), 판단과 활용(백승주)
제3부 미술의 확장
미술과 직업(백승주), 미술과 통합(김병욱, 고유미, 백승주, 홍철)
미술 작품 사전(고유미, 백승주)

편집 이중삼, 이아름 표지 · 본문 디자인 김미정(design86) 제작 책임 정지수

고등학교 미술 문화 지도서

2014. 3. 1. 초판 발행
지은이 고유미 외 4인
발행인 |주|아침나라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03 하산문화빌딩 3층)
인쇄인
정가 원

교과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분은 교육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전화: 1566-8572, 웹사이트: http://www.textbook114.com 또는 http://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02-2608-2800, www.korra.kr)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 관련 문의: |주|아침나라 편집팀 전화: (031) 955-6333 전송: (031) 955-6335
발행 업무 대행: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당재봉로 29-28
개별구입문의: 홈페이지 주소 www.ktbook.com 02-3663-5409~12

978-89-5587-218-7 53600



고흐(Gogh, Vincent Van/네덜란드/1853~1890) 별이 빛나는 밤(캔버스에 유채/73.7×92.1cm/1889년 작)



고등학교

미술 문화 지도서



53600
9 788955 872187
ISBN 978-89-5587-218-7